

국역

군산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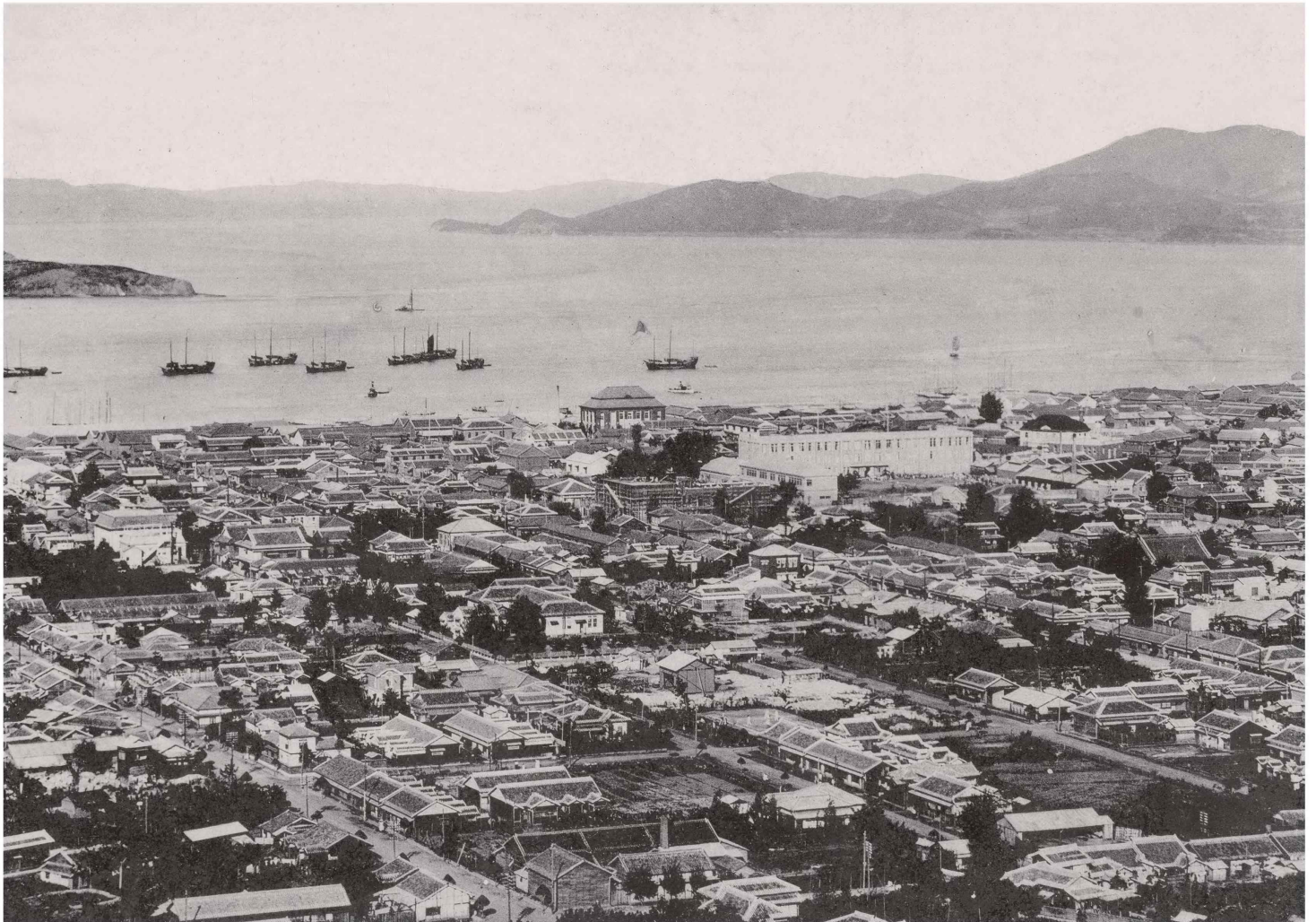
群山府史

군산의 역사

1899

1934

홍성덕 · 이정옥 · 편용우 번역



군산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역 군산부사

[일러두기]

1. 본서는 『群山府史』(1935년)를 번역한 것이다.
2. 번역은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으며, 오해할 수 있는 경우 ()안에 원문을 병기하거나 부연 설명을 넣었다.
3. 일본인 인명은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하였으며, 한자명-일본어 발음은 부록에 비교표를 만들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4. 수록 사진 중 [] 안 설명이 있는 사진은 추가로 넣은 것이며, []가 없는 사진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이다.
5. 원문 내에 표 형식의 통계는 표로 재작성하였고, 각 표에 일련번호를 부기하였다.
6. 번역 과정에서 과대한 일본 중심의 표현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천황(天皇, 텐노), 황태자 등의 용어는 일본 왕, 왕세자 등으로 번역하였으며 ()안에 원문을 병기하였다.
 - 수이출(輸移出)의 경우 역사학계에서는 역사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출·반출로 표기하였다.
 - 단, 연구 각주의 경우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국역 군산부사 (群山府史)

아키야마 주사부로(秋山忠三郎) 지음

홍성덕, 이정욱, 편용우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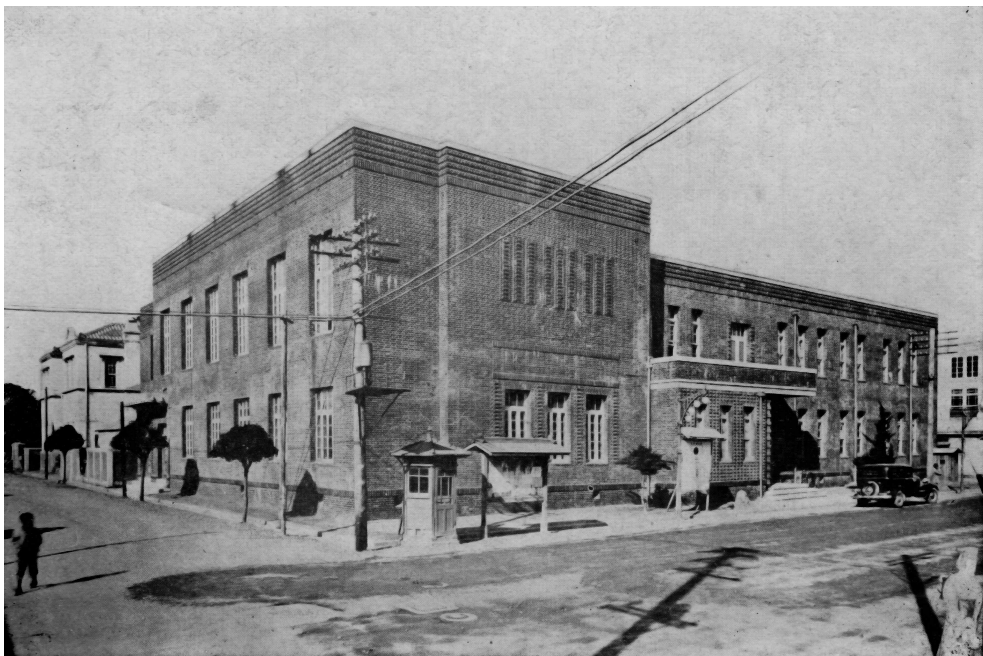
군산시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항 이전의 군산



군산부 청사



초대 부윤 天野喜之助



2대 부윤 宮館貞一



3대 부윤 國宗鹿太郎



4대 부윤 澤村荒次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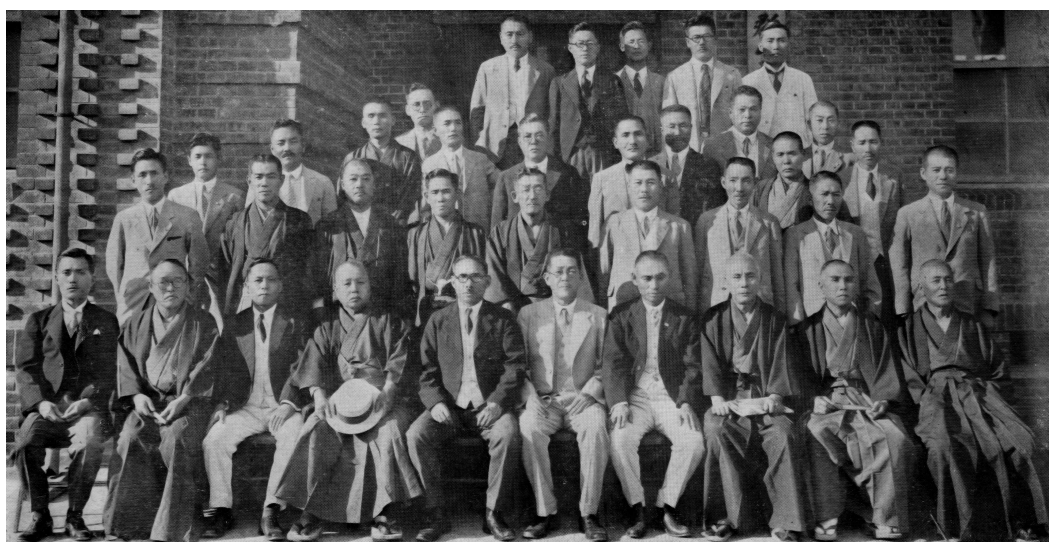
5대 부윤 前田善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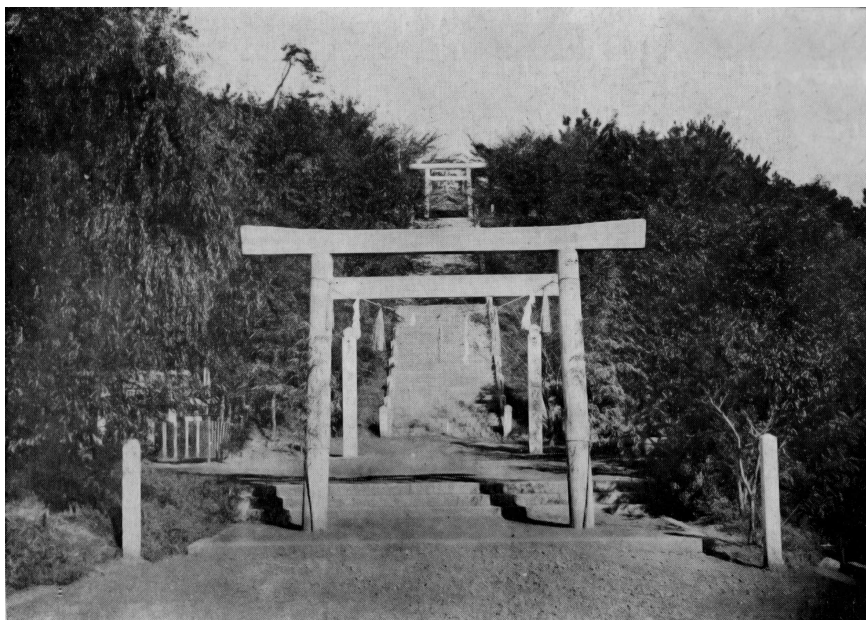
현 부윤 佐藤徳重



제1회 선출 군산부회 의원



제2회 선출 군산부회 의원



군산신사(정면 돌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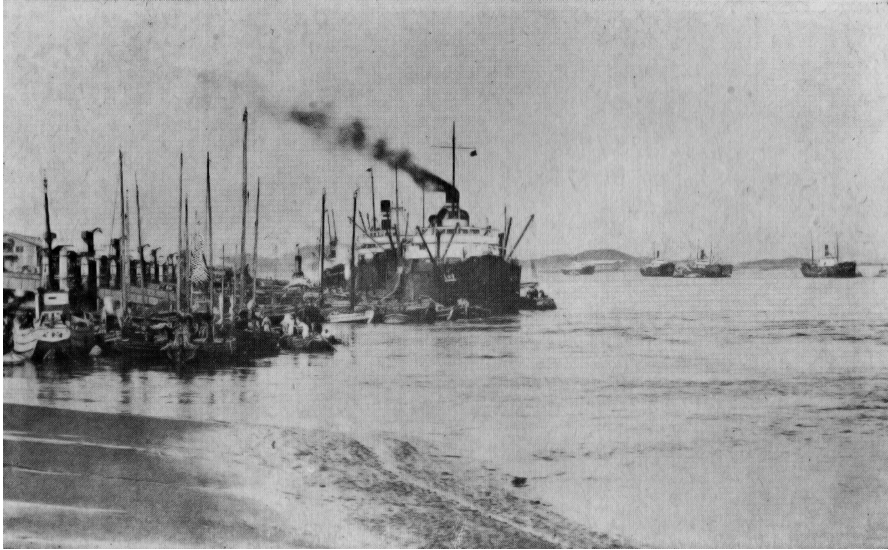
군산신사(배전)



명치정통(明治町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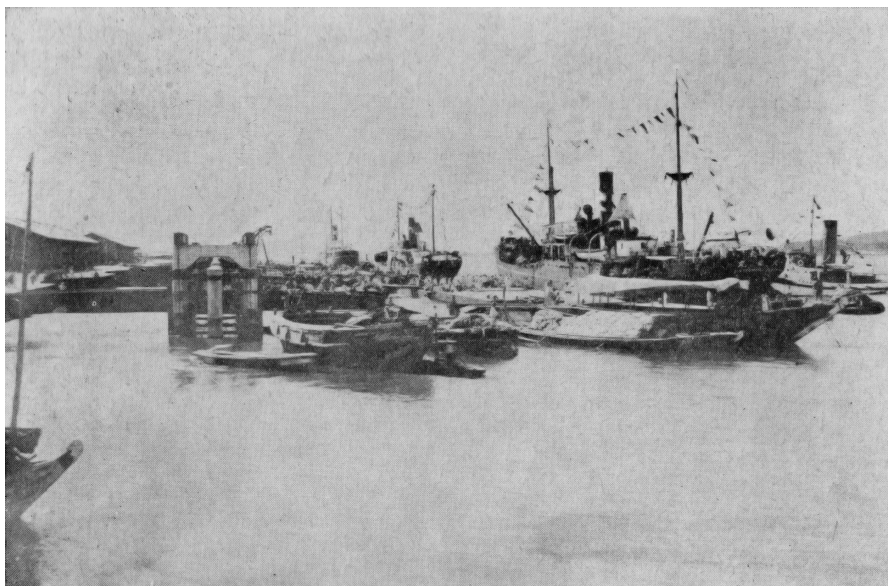
영정통(榮町通)



군산항의 광경



군산부두 쌀의 산



군산 축항 잔교 기선 정박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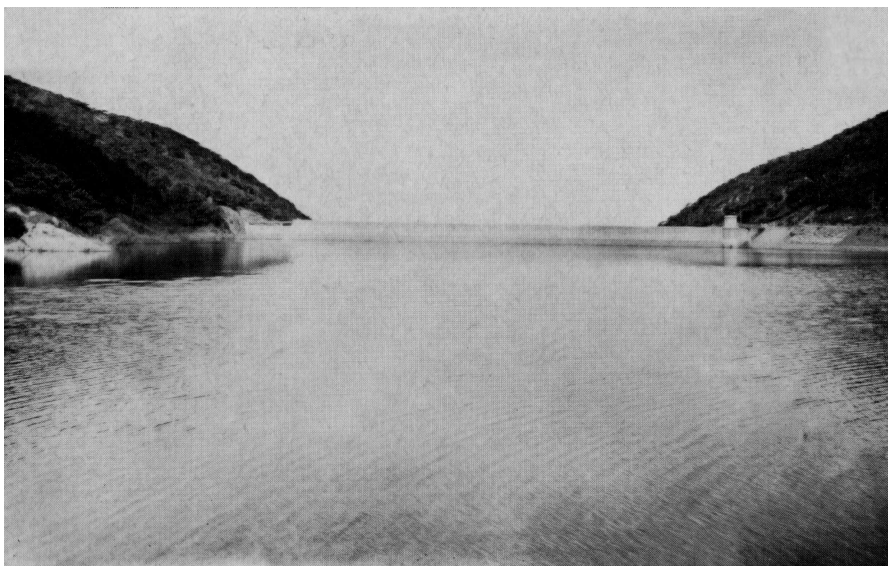
해망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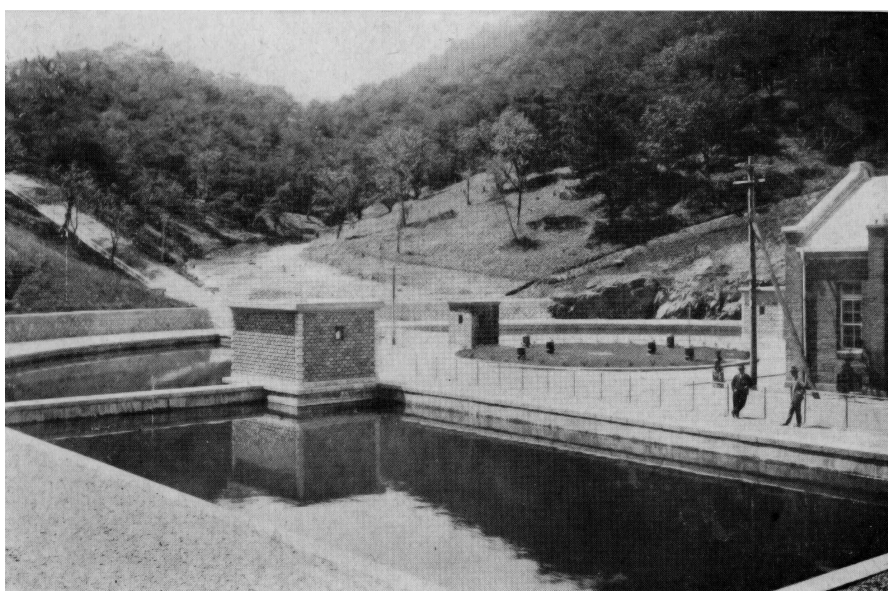
군산공원



군산공원



수도수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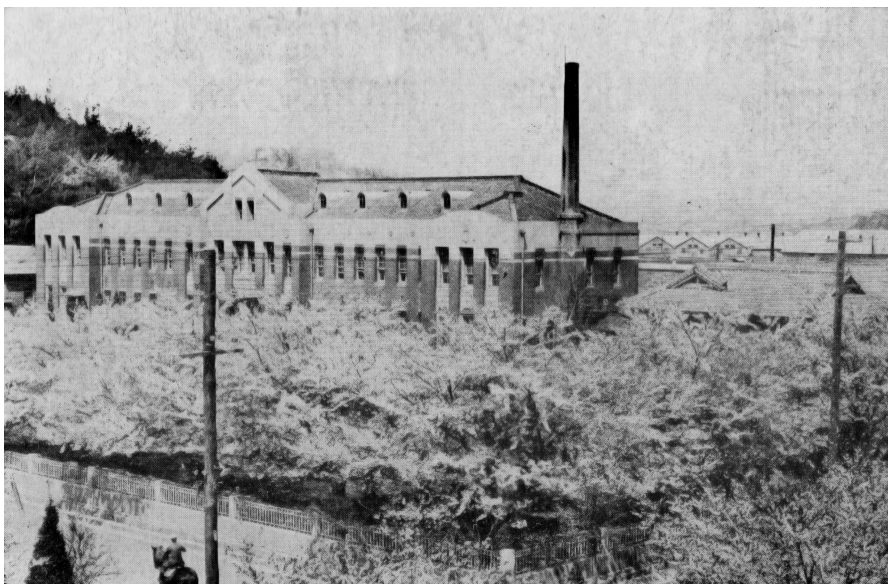
수도여과지



군산부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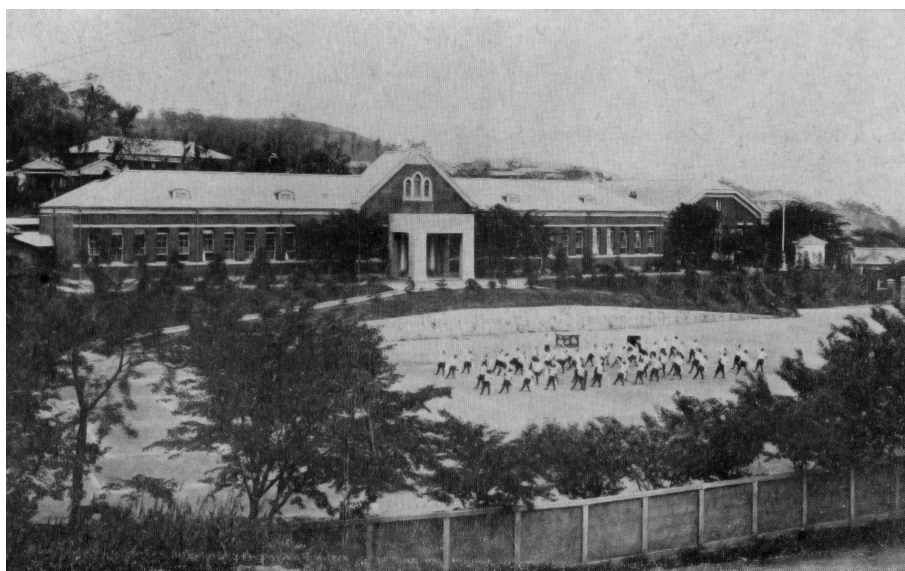
군산경찰서



도립군산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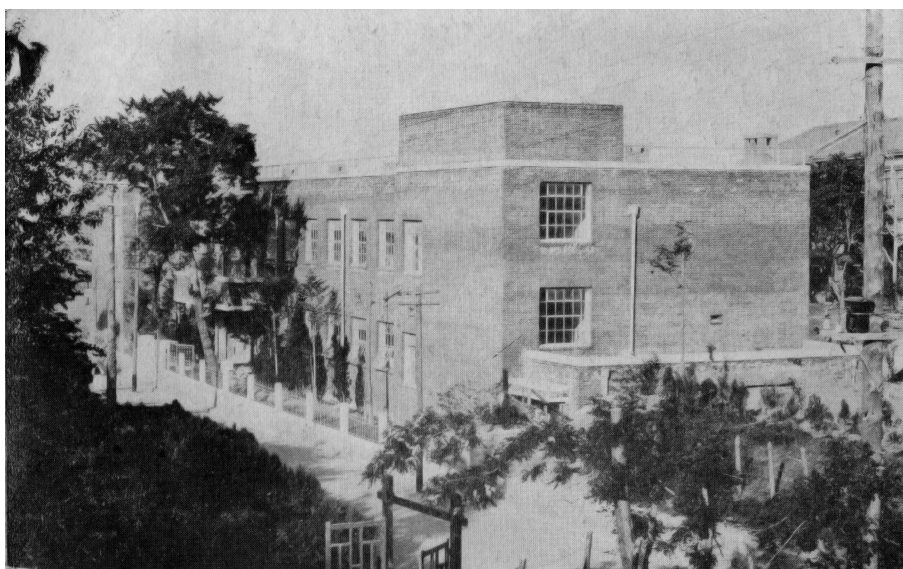
군산공립중학교



군산공립고등여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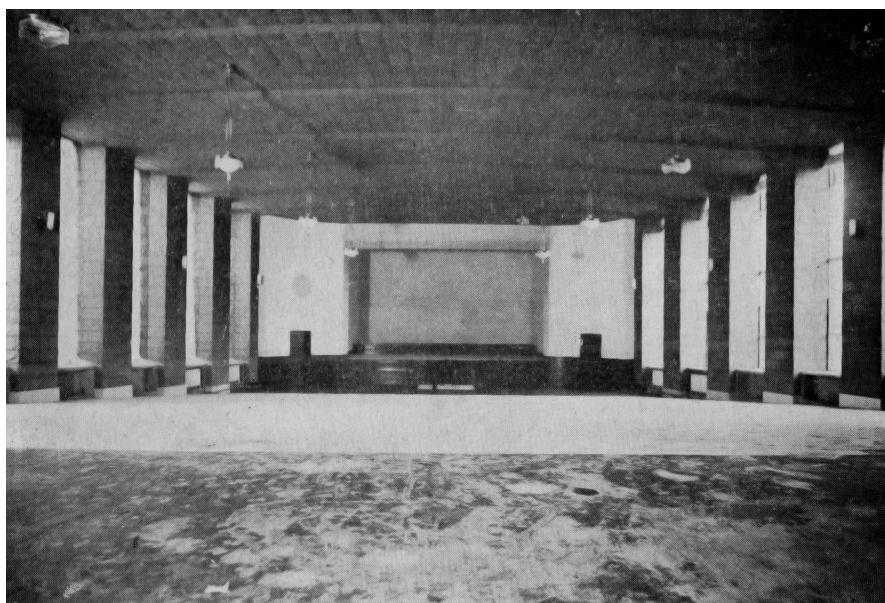
군산공립보통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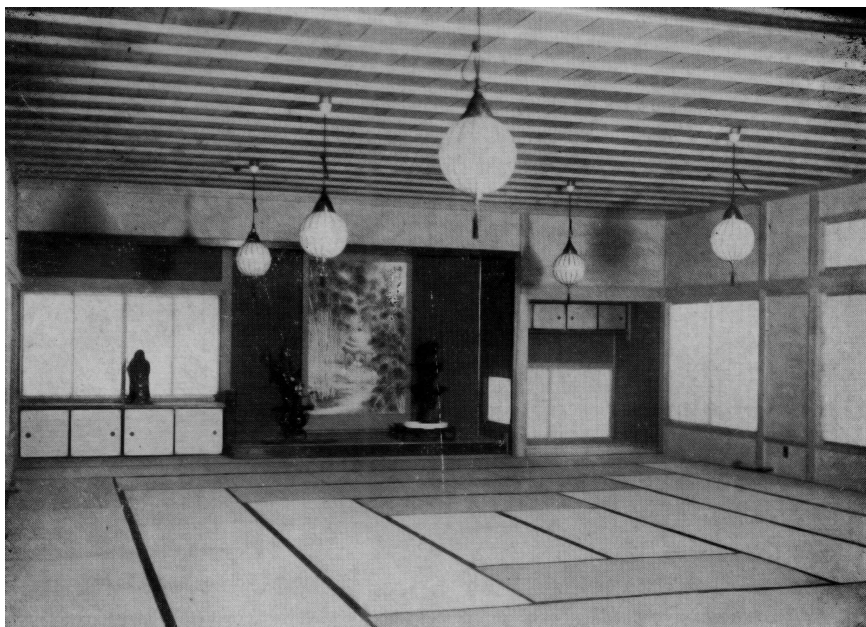
군산사립유치원



군산부 공회당



군산부 공회당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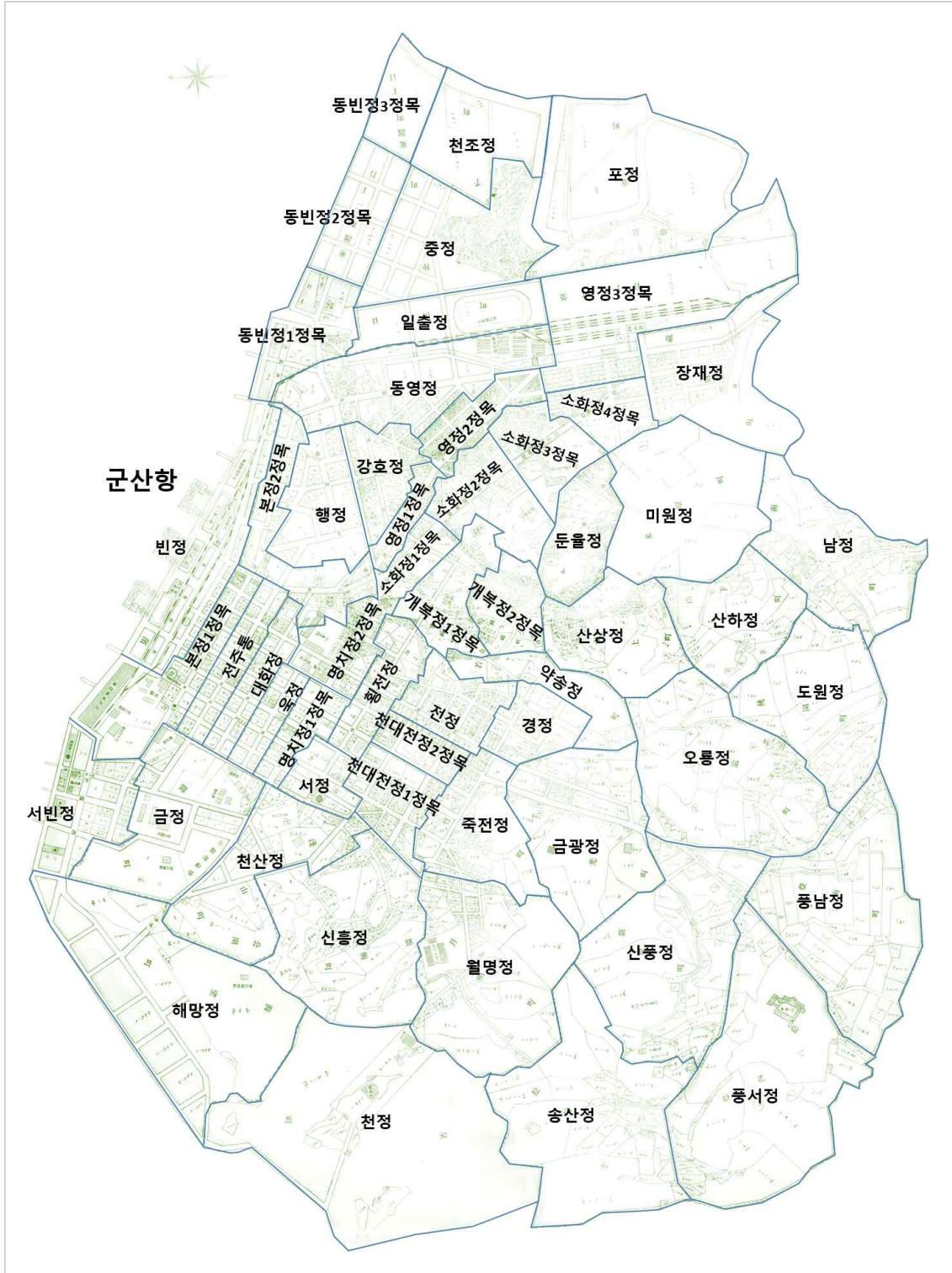


군산부 공회당 별관(日本間)



군산부 공회당 별관(食堂)

[일제강점기 군산부 행정구역]



서문

군산은 1899년 5월 1일, 개항을 맞이하며 해외 무역항으로 새 시대를 열었다.¹⁾ 당시 군산은 인구도 별로 없어 황량했고 매우 가난한 어촌이었다. 일본인은 겨우 70여 호, 조선인은 500여 호였고, 무역액 또한 1만 2천 원에 불과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하며 진보와 발전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부(府)의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인구 약 4만 명(일본인 약 1만 명, 조선인 약 3만 명, 외국인 380명)으로 증가하였다. 무역액은 7천 5백만 원으로 늘었고, 수출·반출하는 쌀은 220만 석을 돌파하였다.

한편 해륙(海陸)의 설비, 각종 기관의 설치, 도시 시설 등이 점차 정비되어 현재 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큰 도회지이자 호남 유일의 경제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에 건너편 장항을 병합해 인구가 1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이 발전한 이유는 경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 당국의 지도와 군산 부민의 노력이 하나로 똬똬 뭉쳐 이루어낸 결과이다.

현재 이 시점에서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렇듯 군산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역사, 연혁 및 부의 행정을 계통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자가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군산부는 1933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본서의 편찬을 계획했고, 회기 연도인 1934년 3월 말에 마감하고자 했다. 그런데 1934년은 군산 개항 35주년 되는 해로, 수많은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군산의 중요 계획 중 하나인 도시 진흥 시설 계획에 따라 각종 진흥실행회가 설립되었다. 이들 사업을 후세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934년도 사항까지 수록하였다.

본서는 단지 빈약한 한 권의 책자일 뿐 감히 부사(府史)라고 칭할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개항 당시부터 지금까지 군산의 자세한 상황을 기술함으로써 진보와 발전의 흔적을 알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일환으로 군산의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약 향후 완벽한 부사를 간행할 목적으로 본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1935년 6월

군산 부윤
사토 노리시게(佐藤徳重)³⁾

- 1) 군산 개항은 1898년 5월 26일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 재가 내용은 3일 후인 29일 일본공사관에 통지되었다. 당시 목포의 일본영사 히사나가 사부로(久永三郎)는 가토 마스오(加藤増雄)에게 편지를 보내 군산 개항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이 개항되면 목포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국사편찬위원회 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録』13, 기밀 제7호, 1898년 6월 1일).
- 2) 『군산개항전사(群山開港前史)』(1935) 71쪽에는 조금 다른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1899년 5월 개항 당시 군산의 일본인 호수는 20호, 인구는 77명에 불과했으며, 같은 해 말에야 일본인 호수 65호, 인구 248명, 무역액 8,586원(수출액 8,198, 수입액 388)이었다고 한다.
- 3) 사토 노리시게(佐藤徳重, 1884~?)는 오이타현(大分縣) 출신으로 1907년 한국 주차군으로서 경성 등 조선 각지에서 근무했으며, 1909년 문관검정시험에 합격, 1911년 4월부터 조선총독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사원(1919), 충청북도 세무과장(1921), 평안남도 평양부 내무과장 겸 서무과장(1923), 대구부 내무과장(1926), 통영군수(1929), 군산 부윤(1931~1939), 평양 부윤(1939)을 역임했다. 군산에서는 재단법인 군산교육회 회장, 군산어업조합 조합장, 군산체육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2기 축항 및 시가지 정비, 공회당, 도서관 건축 등을 하였다(『조선인사흥신록』, 『조선공로자명

범례

1. 본서는 본래 1933년도 군산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여 회기 연도 말인 1934년 3월 말에 원고 작업을 마쳤다. 그런데 때마침 1934년은 군산개항 35주년이 되는 해이며 같은 해 10월, 이를 위한 기념사업으로 각종 계획 시설, 행사 등을 개최했다. 또한 군산부의 계획에 따라 도시 진흥에 관한 각종 시설이 실제 완공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상황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934년도 회기 연도까지 부의 행정에 대한 개요를 보충해 출판하기로 하였다.
2. 본서는 군산부의 대체적인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 편찬 목적이었다. 그러나 개항 당시부터 수년간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 즉 역사적 사실을 판단할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자료 수집이 곤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부의 행정, 항세(港勢)의 변천 추이를 계통적이며 조직적으로 기술하는 동시에 제반 사항들을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산의 획기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31년 4월 지방제도 개정 후 부의 행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할 계획이다.⁴⁾
3. 앞에서도 밝혔듯이 자료수집이 무척 곤란했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야간에 잠깐 짬을 내어 서둘러 집필했기 때문에 혹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구하며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언젠가 군산부는 완벽한 부사를 편찬할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때 본서가 기초 자료의 일부로 사용된다면 더없이 다행일 것이다.
4. 인사(人事)는 최근의 인사이동에 따랐다. 또한 1935년도 군산부 세입·세출예산과 부회(府會) 및 부회의원 선거를 추가하기로 했다.
5. 본서는 지바 가즈노리(千葉胤矩)의 『군산안내(群山案内)』, 호다카 마사키(保高正記)·무라마쓰 히로유키(村松祐之) 공저 『군산개항사(群山開港史)』, 미와 다다시(三輪規, 옛 이름 다카슈 다다시[高洲規])의 『부의 군산(富之群山)』을 참고자료로 활용했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자료를 수집할 당시 관공서, 은행, 회사, 단체 등에서 각종 편의와 호의를 베풀어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1935년 8월

편찬자 아키야마 주사부로(秋山忠三郎)⁵⁾

감, 『조선의 인물과 사업』 등을 참고).

- 4) 1931년 4월 지방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자문기구였던 도·부협의회를 의결기구로 전환시키고, 도·부의 기재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로 도·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1931년부터는 지방기재 모집을 통해 국민구제 토목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분출하고, 지역 유지의 정치활동 및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 5) 아키야마 주사부로(秋山忠三郎 ?~?)는 일제강점기 재조선 언론인으로 경성일보 전남지국장(1921), 경성일보 편집부장 겸 통신부장(1922), 경성일보 통신부장(1923), 경성일보 조사부장 겸 통신부장(1924)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군산소방조발달지』(1927), 『개항30주년기념 군산』(1928), 군산의 대표적인 일본인 농장주인 미야자키 게이타로의 일대기인 『미야자키 게이타로옹전(宮崎佳太郎翁傳)』(1938) 등이 있다.

목 차

일러두기	2
사진	4
서문	23
범례	24
 총 설	 27
제1장 위치, 지형, 기후	29
제2장 연혁	31
제3장 개항	36
제4장 자치기구의 시작과 발전의 경로	38
제5장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45
제6장 자치제도의 개정과 군산부 행정(1931년 4월 1일)	49
제7장 획기적인 시대로 진입한 1932년 군산	55
제8장 1933년도 군산부 행정	63
제9장 1934년도 군산부 행정	69
제10장 군산부 재산	75
제11장 군산부 행정구역 확장	79
제12장 정(町) 명칭 개정 및 구역 변경	81
제13장 정우회(町友會) 규약 준칙	88
제14장 군산부의 중요 시설사업	90
제15장 교육기관	102
제16장 사회교화기관	110
제17장 신사와 절, 교회, 포교소	113
제18장 항만(港灣)	118
제19장 통신	135
제20장 운수교통	141

제21장 쌀의 군산	150
제22장 무역	163
제23장 상업	169
제24장 제조공업	175
제25장 수산업	177
제26장 금융 경제	183
제27장 위생과 의료기관	189
제28장 관공서	193
제29장 군산소방조	200
제30장 공사단체(公私團體)	204
제31장 회사, 신문, 잡지사	209
제32장 명소, 옛 유적	213
제33장 축전과 전시회	215
제34장 가정공업 장려 좌담회와 금융좌담회	232
제35장 개항35주년 기념사업	235
제36장 국민정신작흥운동(國民精神作興運動) 주간 시설사항	241
제37장 도시진흥시설	244
제38장 기부, 헌금과 송덕	246
제39장 기타	249
추가	252
부록	257
① 일제강점기 군산 관련 통계표	259
② 일제강점기 군산 관련 연구논저 목록	315
③ 군산부사 인명 색인	321
④ 군산부사 인명 한자-일본어 비교표	330
⑤ 군산부·옥구군 지명 비교표	342

총 설

파도가 치는 곳은 문명이 일어난 지역(장소)이다. 고대 이래 해류에 따라 생성되고 풍랑에 의해 자극을 받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산업문화가 진흥하였다는 것은 동서의 법칙이다.⁶⁾ 군이 외국 또는 일본의 사례를 끌어 들이지 않아도 현재 조선에서도 조선왕조 5백년 수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성[서울]과 단군이 강림하였다고 전해지는 고조선(西鮮)의 옛 수도 평양 등은 별도로 하더라도, 부산·인천·원산·목포·진남포의 여러 항구는 개항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서 모두 일찍부터 현저하게 발달하여, 조선 문화가 개발 발전하는 데 큰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이치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개항 당시의 군산은 네다섯 개의 작은 언덕 자락에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인의 누추한 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일본인 거주자는 겨우 70여 명이었다. 평지에는 갈대, 개구리밥풀, 가래나무 등이 무성하고 날짐승들이 떼 지어 놀며 쉬기에 좋고, 저녁 이슬 창연하여 노을 빛 떠돌고, 고기잡이 배 등불이 깜박거리며, 밥 짓는 연기 가늘게 날리니 보이는 것마다 쓸쓸한 궁벽한 어촌에 지나지 않았고 무역액도 겨우 1만 2천 원을 헤아릴 뿐이었다.

그러나 매년 점차 진보 발전하여 최근에는 무역액이 약 7천여 만 원, 쌀의 반출[移出]⁷⁾이 약 2백만여 석에 달하고, 동시에 시가의 면모와 여러 기관의 시설이 정비되었다. 특히 1932년 10월 행정구역 확장이 실시되어 면적은 방대해지고 인구는 약 4만(일본인 약 1만 명, 조선인 약 3만 명, 외국인 388명)에 이르러 지금은 ‘쌀의 군산’이라고 불리기보다도 남쪽 지방의 경제도시로 으뜸이라 칭해지며, 선진항인 원산, 목포, 진남포를 족히 능가하며, 부산, 대구, 인천에 버금가는 조선 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구나 개항 이후 거의 36년이 되었을 뿐이니 첫째는 조류(潮流)가 가져다준 혜택과 풍랑의 자극 그리고 토지의 이로움을 얻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시설을 얻고자 개항 당시부터 군산에 거주하고, 이주한 이후 불리하고 불편한 것을 참고 고난과 싸우면서 한 뜻으로 군산의 진보 발전에 공헌한 선각 유지의 분투노력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6) 최근 들어 바다와 인류 문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항도시문화 교섭학번역총서’ 시리즈로 도널드 프리먼의 『태평양 - 물리 환경과 인간 사회의 교섭사』(노영순 옮김, 선인, 2016); 폴 뷔텔의 『대서양 - 바다와 인간의 역사』(현재열 옮김, 선인, 2017); 데이비드 커비·멜루자-리자 힌카넨의 『발트해와 북해』(정문수 외 옮김, 선인, 2017)를 번역 출판하기도 했다.

7) 일제에 의해 강점된 식민지 조선에서는 국가 간의 교역을 뜻하는 수출·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 간 이동을 뜻하는 이출·이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단순한 지역 간의 이동에는 수탈성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출·이입은 반출·반입으로 번역하였다.

지금 당시를 회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금후 1932년도에 준공된 제1기 축항에 이어 제2기 축항 계획이 실현된다면 오지의 물자는 모두 군산으로 집중되어 군산은 경제산업상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아갈 것이다. 한편 이전부터 군산항만조사회가 계획한 금강철교가 가설된다면 남쪽은 경전선(慶全線)⁸⁾이 남쪽 지방 철도를 경유하고, 북쪽은 경남철도(京南鐵道)⁹⁾에 의해 국선(局線)과 연결되어 군산은 남부 지방에서 교통 요충지로서 산업경제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갑자기 한층 진보 발전하여 대 군산의 실현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8) 경전선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역에서 광주 송정역 사이에 부설된 철도로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905년 5월 삼랑진~마산, 1922년 7월 송정리~광주, 1923년 12월 마산~진주, 1930년 12월 광주~여수, 1931년 4월 삼랑진~진주, 1936년 12월 이리(익산)~전주 구간이 개통되었다(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전선' 항목 참조, 2019년 5월 29일 검색).
- 9) 경남철도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까지 연결된 철도로, 1929년에 경남철도 주식회사가 부설했다. 이 철도는 천안에서 온양, 예산, 홍성, 광천, 보령, 장항까지 연결된 철도로 군산항과 연계하여 경부선과 연결되었다. 경남철도는 철도운영뿐만 아니라 호텔, 자동차 사업 등으로 영업을 확장했다(이용상, 「일제강점기 사설철도 경남철도주식회사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21-2, 2018).
-

제1장 위치, 지형, 기후

□ 위치

군산은 한국 서해안의 중앙에 해당하고 전라북도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한국의 6대 강의 하나인 금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강을 놓고 충청남도 서천군과 마주보고 있다. 동경 126도 42분 45초, 북위 35도 59분 10초로 에치젠(越前)의 후쿠이(福井)¹⁰⁾, 무사시(武藏)의 하치오지(八王子)¹¹⁾, 중국의 칭다오(靑島)¹²⁾와 대략 그 위도가 같다.

□ 지형

이전에는 군산부 내에 두세 개의 작은 언덕이 있었지만 시가지 정리에 따라 모두 없어졌고, 또한 부의 서남단 및 경계 바깥 부근에 다소의 구릉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자못 평탄하여 시가지로서는 이상적인 곳이다.

시가는 동남쪽으로 펼쳐지고 조선 제일의 큰 평야인 전주평야, 강경평야, 줄포평야에 맞닿아 있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평야를 관통해 흐르고, 시가지는 이들 강물의 총적토로 형성되었다. 시가지의 배후에는 차령, 노령의 산맥이 이어지는 가파르고 높은 지대가 있다. 이 고지는 약 100리에 걸쳐서 평야의 동남쪽에서 동북쪽으로 완만하게 우회하여, 북쪽으로 충청남도 중앙부에 솟아나 해안 가까운 곳에 이르고 있다. 그 모습은 흡사 세 방향에서 병풍을 두른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병풍이 열린 듯한 곳의 서쪽은 황해에 접한 해안의 저지대로서, 그 해안은 남북으로 길게 매우 굴곡지어 있다.

다음으로 해상에서는 수산의 이로움이 풍부한 간야도(間也島), 고군산(古群山), 어청도(於靑島), 죽도(竹島) 등 많은 섬이 있으며, 특히 죽도의 도미는 그 이름이 일본 지역까지 알려져 1년 반출량이 상당히 많고 금액도 크다. 이로써 군산은 지리학자들이 말하는 도시 발생의 세 요소 즉 총적토, 강의 흐름(江流), 해안 등의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수륙 양면으로 교통·수송이 편리하고, 산업 경제가 발달하는 데 유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마치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 한강 강어귀의 인천과 유사하다.

10) 에치젠(越前)은 오늘날 후쿠이현의 동북부를 칭하는 옛 이름이다. 후쿠이의 좌표는 동경 136도 13분 18초, 북위 36도 3분 54.7초이다.

11) 무사시(武藏)는 일본의 옛 국가의 하나로 오늘날 도쿄도(東京都)와 사이타마현, 그리고 가나가와현 일부에 해당된다. 하치오지의 좌표는 동경 139도 18분 57.6초, 북위 35도 39분 59.2초이다.

12) 칭다오(靑島)는 중국의 산둥성(山東省) 동부에 있는 도시로 좌표는 동경 120도 20분, 북위 36도 10분이다.

□ 기후

한국의 낙원 마을이라 불리는 마산, 목포처럼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지 않지만, 남부 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북부 및 중부지방에 비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 아주 잘 견딜 수 있다는 점에서 목포와 비슷한 점이 있다. 원래 한국의 기후는 대륙적이어서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엄청 추우며 또한 수목이 적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다. 따라서 밤낮의 온도차가 심하여 사계절 날씨가 알맞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남부 지방은 비교적 적당한 날씨이다.

특히 근래에는 인구가 늘어난 때문인지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옛날 같이 매서운 추위는 적고 어느 정도 따뜻해진 느낌이다. 다만 군산은 11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3~4월까지 서북풍이 불어 길가는 사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군산 사람은 이것을 ‘해망풍(海望風)’이라고 하는데 군산 겨울 기온의 결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망풍 때문에 채소를 재배할 때 서울 부근에서는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월 4·5일경부터 15·16일경 사이에 봄 파종을 하지만, 군산 부근에서는 3월 22·23일경부터 4월 5·6일경까지 파종을 하고 또한 가을 파종의 경우 서울 부근은 8월 2·3일경부터 12·13일경이지만, 군산 부근은 8월 12·13일경부터 21·22일경까지가 적기이다. 이처럼 그 사이의 기온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군산 부근의 기후는 대체로 산요도(山陽道)¹³⁾ 지방과 비슷한 곳이고, 오우(奥羽)¹⁴⁾, 니가타(新潟)¹⁵⁾ 지방과 비교하면 적당할 것이다.

13) 산요도(山陽道)는 일본 주고쿠(中国) 지방의 세토 내해에 있는 8개(播磨·美作·備前·備中·備後·安芸·周防·長門) 지방이다.

14) 오우(奥羽)는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다.

15) 니가타(新潟)는 일본 중부(中部) 지방으로 니가타 현의 현청이 있는 도시이다.

제2장 연혁

군산은 한국 역사에서 결코 유명한 지역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문헌과 구비전승으로 본다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옛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의 옥구군은 원래 백제의 마서량현(馬西良縣)이며, 그 후 신라 때 옥야(沃野)로 바꾸어 임피군에 소속시켰다.¹⁶⁾ 후에 고려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조선 1397년(태조 6)에 비로소 진(鎭)을 두고 (옛 부청사의 뒷산) 병마사(兵馬使)에게 현(縣)도 함께 다스리도록 하였다. 1423년(세종 5)에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바꾸었고 뒤에 현감(縣監)으로 바뀌 불렀다.¹⁷⁾

또 옥구읍의 성곽은 둘레가 2천 58척이고 높이는 8척이다. 그 후 1524년(명 세종, 嘉靖 3)¹⁸⁾에 개축하여 둘레가 3천 4백 90척이고 높이는 12척이었으며 관방으로는 군산포영(群山浦營)¹⁹⁾을 두었다. ‘군산포에 수군 만호(萬戶) 한 명을 두었다’고 『여지승람(輿地勝覽)』²⁰⁾에도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 의하면 군산포영 수군의 군비 및 배치는 군산에 전함 1척, 병선 1척, 사후선(伺候船) 20척과 고군산에 전함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다. 이것으로 군산과 고군산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호남진지(湖南鎭誌)』²¹⁾에도 “군산진은 처음에 고군산에 있었다. 1701년(숙종 27) 노적(奴賊)이 몰래 일어났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설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이상의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더구나 『고사기(古事記)』에 의하면 군산창(群山倉)은 그 오랜 옛날에 용안현(지금의 익산군 용안면 부근)에 있었던 것을 군산포로 옮겨 득성창(得成倉)이 되었으며, 또한 『문헌촬요(文獻撮要)』²²⁾에 “삼남의 해안 지역에 창고를 두어 여러 읍의 세금을 거두고 배로 조운하였다. 전라도 성당창(聖堂倉)은 함열에 있다. 세종 때 설치하였고 정조 때부터 현감이 감봉(監捧)²³⁾하여 군영에 바쳤다. 군산창은 옥구에 있다고 한다. …”라고 쓰여 있

16) 『여지도서』, 옥구현조에 의하면 “신라 때 지금 이름으로 고쳐 임피군에 소속시켰다”고 나온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의 일이다(『삼국사기』 권36, 「지리지」).

17) 세종 5년에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바꾸었다가, 뒤에 다시 현감으로 고쳤다(『승람』 권34, 「옥구현」, 「건치연혁」).

18) 가정(嘉靖)은 명나라 세종의 연호로 원년은 조선 중종 17년(1522)이다.

19) 원문에는 ‘군산영포(群山營浦)’로 되어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4권, 전라도, 옥구현조에 의하면 ‘군산포영(群山浦營)’으로 기록되어 있어 바로 잡는다.

2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4권, 전라도, 옥구현조.

21) 1895년(고종 23) 호남의 여러 진(鎭)에서 편찬한 진지(鎭誌) 및 사례책(事例冊)을 묶어 놓은 책. 필사본이며, 3책 176장(1책 56장, 2책 56장, 3책 64장)으로 되어 있다.

22) 1851년(철종 2) 정원용(鄭元容)이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모아 편찬한 유사(類書). 필사본으로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고시대부터 조선조 말기까지의 모든 문물제도를 유별로 나누어 망라하였다.

23) 감봉(監捧):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감독함

다. 생각건대 군산창은 본 현(縣) 일원 및 그 부근의 관전세(官田稅)를 이곳에서 거두어들이 서울로 조운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미곡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또한 『고사기』에 의하면 금강 하류에서 몇 리(里) 떨어진 해상에 군산도(지금의 고군산)가 있는데 만경현에 속했다. 그 섬 가운데에 무덤 하나가 있어 왕릉과 같고, 또한 오묘(五廟)가 있으며, 객관(客館, 군산정[群山亭]이라고 부른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고군산은 옛 군산으로 지금의 군산은 당시 군창(群倉)으로 불렸다. 그저 진영(鎭營)과 공미(貢米) 창고만을 두었지만 그 이후 시세의 추이와 세상의 기운이 변함에 따라 고군산은 쇠퇴하여 미약해지고 군창은 군산으로 바뀌어 오늘의 발달을 보았다고 한다.

이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공미(貢米)는 백성이 정부에 상납하는 쌀로, 군자미(軍資米), 상평미(常平米) 2종류가 있다. 예전에는 옥구, 만경, 함열, 김제, 금구, 전주, 남원 기타 전북 각 지방에서 납부하는 쌀을 거두어 군산에서 해로를 이용하여 인천으로 배에 실어 보내고 인천에서 서울로 보냈기 때문에 군창의 이름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분명히 군산은 ‘쌀의 군산’²⁴⁾이라는 숙명을 가지게 된 것이다.

□ 금강과 일본의 관계

총설의 첫 머리에서 서술하였듯이 파도가 치는 지역은 문명이 일어난 곳이 된다. 따라서 하천·항만과 인문의 발달은 실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산의 발달이 예로부터 금강에 의지한 바가 컸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굳이 번거롭게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금강은 예부터 일본과 역사상 적지 않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편찬자는 군산부에서 제공한 1927년 군산중학교 교사[敎諭] 다케나가 야스오(竹中康雄)씨의²⁵⁾ 연구 결과와 최근 군산부에서 발행한 『군산개항전사』에 실린 「금강과 일본의 관계」를 요약 정리해서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건대 이것은 군산의 역사를 알기 위한 중요한 사료라고 말할 수 있다.

24) 일제강점기에 군산에 관해 서술한 책들의 목차를 보면, 다른 항목들은 모두 일반적인 용어로 기록되었는데 농업 부분만 유독 ‘쌀의 군산’이라는 제목을 부여한 경우가 많다. 이 책의 21장도 그러하며, 『군산안내(群山案内)』(1926)의 11장, 『개항 30주년 기념, 군산(開港三十周年記念 群山)』(1928)의 10장 등도 모두 ‘쌀의 군산’이란 항목이 있다. 그 만큼 군산이 ‘쌀의 도시’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김두현, 「1928년 해항도시 군산의 특징과 사회구조 - 『개항 30주년 기념 군산』 분석을 통해서 본」,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2016, 230쪽).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군산 내항 기공식에 참석하여 부두에 쌓인 쌀가마 더미를 보고 ‘아! 쌀의 군산’이라며 탄성을 질렀다고 한다(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한반도 해양문화,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쌀의 군산’ 항목 참조. 2019년 5월 30일 검색). 1930년대 후반경에는 ‘쌀의 군산(THE RICE OF GUNSAN)’이라는 제하에 군산 내항의 쌀가마 더미 사진을 실은 우편엽서도 발행되었다(『동국사 소장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 군산편』(전라북도·군산시·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9), 41쪽).

25) 다케나가 야스오(竹中康雄)는 1924년경부터 1935년까지 군산중학교 촉탁교원 및 교사(敎諭)로 재직하였다. 1936년 이래 충남 대전중학교(1936~39, 1943), 공주중학교(1940~42), 대동고등여학교(1943)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데이터베이스 참고). 1928년과 1929년에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 각각 「중국 청대의 교육(支那清代の教育)」, 「불타는 저녁노을(赤い夕陽)」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금강과 일본의 관계

백제가 개로왕(제21대) 때 고구려 장수왕에게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패배한 뒤, 문주왕은 일본의 원조를 받아 수도를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옮겨 겨우 멸망을 면할 수 있었다. 다만 과연 당시 일본부(日本府)의 세력이 이 지방까지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의문이다. 이후 백제는 일본 조정에 요청하여 4개 현(縣)을 하사받고 점차 세력을 회복하고, 지리적 이점을 살피 부여에 궁궐을 세우고 수도를 이전한 것은 성명왕²⁶⁾ 56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천 3백 년 전의 옛날이다. 그 당시 부여의 도성 계획 및 궁궐 건축의 조영 규모가 얼마나 대규모였는가는 백제의 전성기 때 호수가 15만 2천 2백 호(『동사(東史)』 「보유」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다지 믿을만하지는 않다)이고, 부여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감탄한 바로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상상 이상이였다.

따라서 백제의 금강 경영은 아주 오래 전인 이 시기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백제가 남쪽으로 내려온 뒤 다섯 차례의 위급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일본 조정의 애호(愛護)를 이용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금강과 일본은 예로부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백제가 당시 금강 하류를 통해 일본과 통하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백제는 당시 웅진(공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에 부여로 옮겼기 때문에 특별히 금강으로 내려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원으로 남하하여 섬진강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일본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다. 백제가 일본에게 가라국(가야)의 서남부를 하사해 주기를 원하였다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후 백제는 의자왕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되었지만, 무왕의 조카인 복신(福信)이 백제 부흥의 반기를 들어 일본에 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일본은 수군 170척, 5천여 명을 보내어 당나라 수군과 4차례 백강 입구에서 격전을 벌였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불리하여 많은 함선을 소실하고 대장은 전사하여 백제 부흥의 움직임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 백강을 금강으로 비정한 것은 종래의 정설이기도 하고 또한 좋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다만 그것은 백강을 ‘백마강(白馬江)’으로 보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근래 학자의 고증에 의하면 백강은 금강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의 만경강 혹은 동진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유력해 지고 있다. 종래 ‘백마강’은 부여의 금강에 인접한 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당나라 장수 유인원(劉仁願)이 백제를 토벌하러 이 강에서 대치했을 때 바람과 비를 갑자기 일으켜 강을 넘는 재주를 부렸다거나, 백마를 미끼로 삼아 용 한 마리를 낚았다고 하는 전설에서 온 것으로 금강 전체를 일컬어 ‘백마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역사를 살펴보니 금강을 ‘웅진강(熊津江)’으로 부른 것은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26) 성명왕(聖明王): 백제 26대 국왕인 성왕(재위 523~554년)을 가리킴. 『일본서기』에 성명왕으로 나옴.

있지만, 백강과는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백강은 위에서 말한 만경강설 및 동진강설에 가까우며 웅진강 즉 금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삼국사기』의 주류성 포위조에 “유인궤 등이 수군 및 식량 보급 군[糧軍]을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당나라 군대[漢軍]를 만나다”²⁷⁾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구당서(舊唐書)』 열전에도 “정방(蘇定方)이 성산(城山)에서 웅진강 어귀에 이르니 적이 강에 의지해 주둔하고 있자 소정방이 동쪽 강변[東岸]에 올랐다”²⁸⁾고 한다. 이것으로 당 수군이 웅진강을 피하여 그 동쪽 해안 내지 남쪽 해안으로 상륙했던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 웅진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백강이 금강과 같은 큰 강이 아니었다는 것은 『동국통감(東國通鑑)』, 『삼국사기』에도 “당나라 병사가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강을 따라서 배를 나란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백강은 작은 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백강은 금강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백강은 어느 강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이 문제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백강을 만경강으로 보는 논자와 동진강으로 보는 논자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는 이미 거론한 금강 남쪽 설을 취하여 백강=만경강설에 동의한다.

지금 백강=동진강설의 요점을 살펴보니, 『삼국사기』에 “백강 혹은 기벌포(伎伐浦)²⁹⁾라 한다.”³⁰⁾는 것을 논거로 하여 즉 부안군의 옛 이름인 ‘개화(皆火, 개불)’ 또는 동진강의 계화도(界火島, 개불섬)의 명칭이 ‘기벌(伎伐)’에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이 설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백강=만경강설에 의하면 당의 수군이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상륙하기 가장 편리한 해안이나 강변은 만경강 부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만경강의 하구에 「고사리(古沙里)」(古沙浦)라는 지명이 있다. 당나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지금의 고부에 고사주(古四州)³¹⁾를 두고 그 관할 아래에 평왜현(平倭縣)을 두었다. 이 평왜현은 당나라 군대가 일본군을 격파한 기념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평왜현의 옛 지명은 「고사부촌(古沙夫村)」으로 생각건대 지금의 「고사리」(고사

27)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제6, 의자왕 7월조. “유인궤와 별수(別帥) 두상(杜爽)과 부여웅은 수군과 군량 실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劉仁軌及別帥杜爽·扶餘隆, 帥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 以會陸軍, 同趨周留城)”

28) 『구당서』 권83, 열전 제33, 蘇定方조 “定方自城山濟海, 至熊津江口, 賊屯兵據江. 定方升東岸”

29)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동에 있던 포구이다. 『삼국유사』 권1, 기이(紀異)2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조에는 ‘장암(長岩)’·‘손량(孫梁)’·‘지화포(只火浦)’·‘백강(白江)’으로,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義慈王) 20년조에는 ‘백강(白江)’으로 기록되었다. 기벌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56~757쪽 주 53) 참조.

이밖에도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조, 『삼국유사』 권1, 기이2 태종춘추공조, 『신당서(新唐書)』 권220, 백제전(百濟傳), 『자치통감(資治通鑑)』 권200, 현경(顯慶) 5년조, 『책부원귀(冊府元龜)』 권986, 외신부(外臣部) 정토(征討) 현경 5년 8월조에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30)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제6. “白江 或云伎伐浦”

31) 『삼국사기』 권37, 지리 4, 백제 ‘고사주와 그 속현’ “본래 고사부리(古沙夫里)인 고사주(古四州)의 5현(縣). 평왜현(平倭縣)은 본래 고사부촌(古沙夫村)이다. 대산현(帶山縣)은 본래 대시산(大尸山)이다. 벽성현(辟城縣)은 본래 벽골(辟骨)이다. 좌찬현(佐贊縣)은 본래 상두(上杜)이다. 순모현(淳牟縣)은 본래 두나지(豆奈只)이다.”

포)일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만경강이 고대의 백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은 백강고(白江考)에 대한 두 학설의 개요이지만 나는 금강 물길의 변천을 감안하고 또한 장차 일본의 수군 파견 목적이 백제를 구제하기 위해 즉 금강, 소강(溯江)에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아 백강=만경강설을 채택한 것이다. 하물며 백강에는 당시 만경강으로 주목한 웅진강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상으로 보면 백강은 만경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강의 가치가 그것 때문에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당나라의 수군이 백강에서 싸우고 웅진강에서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웅진강 즉 금강의 역사적 가치에는 하등의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웅진강으로 묶여 있어 역사적·민족적으로도 일본과 떨어질 수 없는 여러 사례를 증거로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일본과 백제의 우호적 관계에서 일본과 부여 사이의 교통도 빈번하였다는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따라서 당시 금강을 오고 간 일본배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전후 두 차례 보낸 수군도 백제를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때 금강, 소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두 차례 모두 실패해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 부흥의 원정군은 병력 5천으로 이루어진 수군이었다고 생각되기에 패망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결국 살아남은 자는 조선인이 되어 허무하게 돌아갈 희망을 품었지만, 귀향의 바람조차 사라지고 풍속이 다른 지역의 땅에 남겨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강하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사실은 부여로부터 약 10리 정도 아래에 백제 시대 일본인 3천여 명 정도가 거주하였다는 전설의 땅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부근에 사는 이른바 천민(水平社)³²⁾의 관습과 풍속은 조선인의 그것과 달리 오히려 일본식이라고 전해지는 점을 보아도 충분히 앞의 추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멸망이 몹시 참담하고 매우 철저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백제의 부여 경영의 역사 나아가 금강 경영의 역사에서 명확한 사실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일본과의 교섭이 단절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금강이 예로부터 일본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32) 수평사(水平社)는 1922년 피차별 부락의 자주 해방을 목표로 창립된 단체로 일제강점기 한국에서는 수평사 운동에 자극을 받아 1923년 4월 진주에서 백정을 주축으로 한 천민계급이 사회운동단체로 형평사(衡平社)를 조직하였다.

제3장 개항

군산이 한국정부의 칙령으로 해외 무역시장으로 공인되어 개항된 것은 1899년(광무 3) 5월 1일로 부산·인천·원산과 같이 일찍 개항된 지방은 별도로 하고, 목포·진남포보다 2년 뒤이며 마산·성진과는 같은 시기이다.

개항과 함께 일본제국 정부는 목포영사관 분관을 두었고(5월 26일) 동시에 한국정부는 감리서, 경무서, 세관, 우체사(郵遞司), 전신사(電信司)를 설치하였다. 그해 11월 일본은 다시 목포우편국 군산출장소를 설치하고 그 후 곧바로 각국거류지회를 창설하였다. 이에 일본인은 불완전하지만 처음으로 군산에 자치적인 신세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목포영사관 분관 주임은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로 그는 분관 사무 이외에 우편 사무에도 관여하고 거류지 회장도 겸하였다.³³⁾ 마치 분관은 만물상과 같은 곳으로 거류민도 모든 일을 분관에 의뢰하여 주임의 통제와 의견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상태였다.

최근 거류지 제도와 당시 군산의 각국 거류지 모습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근대 국제간의 각 국민의 거주 및 영업은 상호 자유롭지만, 쇄국시대에는 각 나라와 일정한 지역을 개방하여 그곳에 거주토록 하고(현재 이런 나라는 오직 중국 한 나라뿐임), 그 지역 가운데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 거주하는 특정한 지역을 ‘거류지’라고 하며, 해당 거류지를 어느 나라에 국한하여 지정한 것을 ‘전관 거류지(專管居留地)’라고 한다. 각 나라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공동 거류지’라고 하며, 개방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국민이 거주하는 구획을 세우지 않는 것을 ‘잡거지(雜居地)’라고 칭하였다.³⁴⁾

당시 조선에서 부산·인천·원산·마산은 전관 거류지에 속하고, 군산·목포·진남포·성진은 공동 거류지 제도에 의한 것이다.³⁵⁾ 경성·평양은 처음부터 내외인의 거주에 구별을 두지 않은 개방적인 잡거지였다. 다음으로 당시 군산에서 공동 거류지(각국 거류지)³⁶⁾의 상태를 보면, 이름은 각국 거류지였지만 거류민은 소수의 중국인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일본인이어서 사실 전관 거류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공동 거류지의 조직과 기관을 보면 거류민 중에서 의원을 선거로 뽑았고 또한 거류지 회장은 선거 없이 영사관

33) “군산포(群山浦)에는 목포영사관 분관을 설치하여 영사대리에 외무서기생(外務書記生)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를 임명하였음을 통고하다”[『舊韓國外交文書』第4卷, 日案 5110號, 光武3年(1899) 5月 12日], 『구한국의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나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등의 자료를 통해 보면, 아사야마 겐조는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의 주임이 되기 전부터 일본의 개항장 진출, 특히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부임 후에도 거류지 측량과 내치(內治)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4) 梁尙湖, 『韓國近代の都市史研究-開港時期(1876~1910)の外國人居留地を對象にして』(東京大學大學院 박사논문, 1993), 제2장 제2절의 용어정리 참조(24~26쪽).

35) 군산은 사실상 ‘일본전용조계지’였다고 한다. 군산의 1차 조계지는 영화동 일대, 2차는 현재의 시 중심지역 전부였다(이병훈, 『군산개항장 100년』, 군산문화원, 1995, 61쪽).

36) 각국 거류지 또는 공동 거류지는 영문의 ‘General Foreign Settlement’를 말한다.

분관 주임이 그 임무를 맡았다. 더구나 겨우 한 사람뿐인 대표의원이 회장과 협의하여 거류지의 행정기관을 운용하였지만 사실상은 영사관 분관에서 이들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재원은 한국정부가 경매한 지구(地區) 1m 당 부과 징수한 금 6전(錢)의 지조(地租)로 충당하였다. 이외에 한국정부와 체결한 거류지 조약에 따라 지구 경매 금액 중에서 한국정부에 지불한 지대(地代) 원가의 잔액은 모두 각국 거류지의 경영비로 이양했기 때문에 거류민이 증가하여 지구의 매매가 활발해질수록 거류지회 수입은 증가할 뿐이었다. 따라서 당시 거류지회는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거류지 내의 도로, 위생, 기타 여러 시설을 갖추는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³⁷⁾

37) 거류지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천지명,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0집, 2015, 292~293쪽 참조.

제4장 자치기구의 시작과 발전의 경로

일본인 이주자가 점차 증가하여 1900년 12월에는 약 5백 명에 이르렀고, 1901년 3월 공식적으로 당국의 인가를 얻어 군산 일본민회를 창설하였다.³⁸⁾ 일본민회의 설립 목적은 일본 거류민의 교육 시설과 상공업 발달에 관한 시설 계획 및 조사 보고를 하는 흡사 오늘날 부(府)의 교육부회와 상공회의소를 겸한 것으로 그 직원 중에는 의장 및 수입역(收入役) 이외에 특별히 학무위원 및 상황 위원(商況委員)이 상설로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의원은 13명으로 지바 다네노리(千葉胤矩)³⁹⁾를 이사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같은 해 3월 1일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부과금 징수 방법 및 기타 사항을 정하였는데 이것이 대저 군산의 자치기관 시작이다. 당시 군산은 요람시대로 재류 일본인은 각각 그 뜻한 바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분투노력하면서 무엇을 해도 배후에 드넓은 전복의 기름진 땅을 끼고 있는 이상 군산 발전의 요소는 미곡(米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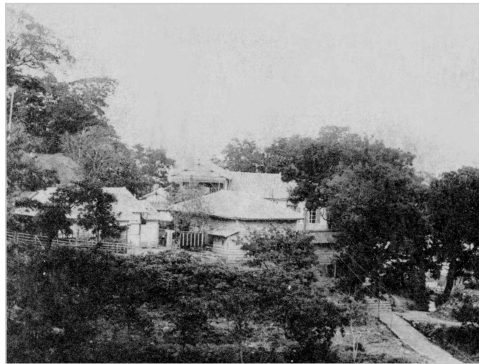
때마침 1901년 여름 보기 드문 큰 가뭄으로 미곡이 익지 않아 농민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무역이 부진하여 시내 상황은 극도로 침체되었다. 그 결과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일본인도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02년에는 전년과는 정반대로 보기 드물게 대풍이어서 일본인·조선인은 비로소 소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군산의 융성과 쇠망이 전적으로 미곡에 의해서 좌우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후 일본인 중에 군산 부근에서 농사를 경영하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고, 이에 군산 인근에서는 점차 농업 발전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동시에 일본인·조선인의 이주자도 점차 증가하여 1902년 말 일본인의 인구는 570명이 되었고, 1903년 말에는 일본의 인구는 약 1천 2백 25명으로 증가하여 거의 두 배 정도 격증하였다. 또 무역액도 1902년 말에는 41만 4천 2백 52원이었던 것이 1903년에는 또한 일약 125만 3천 4백 47원에 달하였다.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연전연승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일대 전환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머지않아 이 예상은 점차 실현되어 조선에 있는 일본인은 활기가 넘쳤고, 더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열기도 점점 높아졌다. 더욱이

38) 군산일본인민회는 1901년 2월 19일 「거류민회규칙」을 제정하고 22일 선거에 의해 1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의장·부의장·수입역(收入役)·학무위원·상황위원을 결정하였다. 의장은 가토와키 리이치로(門脇理一郎), 부의장은 오기 야스타로(扇安太郎)였다(古川昭, 『群山開港史』, ふるかわ海事事務所, 1999, 65쪽). 또 1901년 3월 군산일본인회로 개편되었고, 1902년 민회사무소를 개설하였다(천지명, 『재한일본인 거류민단(1906~1914)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4쪽).

39) 지바 다네노리(千葉胤矩)는 오사카 출신으로 군산에서 한남신보사(韓南新報社)를 설립하고 사장으로서 활동한 언론인이다(中田孝之介, 『在韓人事名鑑』, 木浦新報社, 1905). 이보다 앞선 1899년 『목포신보(木浦新報)』가 창간될 때, 오사카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지바는 활판기계와 각종 인쇄기구를 가지고 목포로 들어왔다고 한다(최혜주, 「아오야기(靑柳綱太郎)의 來韓활동과 植民統治論」, 『國史館論叢』 第94輯, 2000, 각주5 참조).

조선에서 농업 및 토지를 경영하려는 사람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군산 부근은 농사 경영에 가장 유망한 지역이 되어 일본에서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각종 사업이 발흥하였기 때문에 군산은 개항 이후 일대 활기를 누리게 되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⁴⁰⁾ 1906년 2월 영사분관이 폐지되고 군산이사청(群山理事廳)⁴¹⁾이 개설되었다. 같은 해 민단법(民團法)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군산 일본인 거류민 관청(일본민회[日本民會]를 개칭)을 폐지하고 군산거류민단으로 바꾸었다.⁴²⁾ 또한 한국정부의 감리서를 폐지하고 옥구부를 설치하였다. 1907년 10월 경찰사무를 이사청의 관할에 두고 군산경찰서로 개칭하였다.⁴³⁾ 또한 이보다 앞서 1905년 5월 한국의 우전(郵電) 사무도 일본 우편국에 합병되었다.



[군산이사청]



[군산부청]

1910년 8월 한국이 강제 병합된 뒤 10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군산이사청이 폐지되고 군산부청이 설치되었다. 1914년 4월 부군폐합의 결과 각국 거류지 제도 및 거류민단 제도가 철폐되고, 일반적인 부의 행정 사무는 다시 부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 행정은 학교조합 및 학교비(조선인)를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⁴⁴⁾ 1931년 4월 지

40) 원문에는 ‘한일국교가 진전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41) 군산이사청은 전라북도 일대인 만경·부안·고부·정읍·순창·구례·남원과 충청남도 남부 일대인 보령·남포·홍산·정산·공주 등을 관할하였다. 공주와 전주에 지청을 두고 각각 관내의 사무를 분담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군산 이사청’ 항목. 2019년 6월 3일 검색)

42) 1905년 3월 제정된 거류민단법은 한국에서는 한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그해 6월에 13개 지역의 거류민장이 서울에 모여 회의를 거듭하여 그 시행을 청원한 후, 1906년 7월 통감부령 제21호로 총 59개조의 거류민단법시행규칙이 발표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15일자로 군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진남포, 평양, 목포 등 7개 곳에 거류민단이 설치되었고, 이어서 9월 1일자로 원산과 마산, 1908년 2월 신의주에 거류민단이 설치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군산거류민단의 관할지역은 “군산 각국거류지 일원 및 그 경계선에서 10한리 이내의 땅(금강 북안의 땅을 제함)”으로 되었다(천지명, 앞의 논문, 2014, 64~77쪽).

43) 1910년 “군산 이사청과 경찰서가 별도로 사무소를 설치”하였다(『富之群山』, 1907.11), 264쪽.

44) 1913년 2월 17일 이래 ‘각국거류지 철폐’에 대한 7차례의 회의가 개최된 후 군산을 비롯해 인천, 진남포, 목포, 성진의 각국거류지가 철폐되었다. 그해 5월에 새롭게 실시될 지방제도에 대한 총독부의 공식 입장이 ‘총독 훈시’로 전해졌고, 8월에 거류민단 폐지 후 민단 사무는 부(府)로 이전하고, 교육 사업은 학교조합 규칙을 제정하여 종사하게 한다는 총독부 방침이 전해졌다. 즉 재조일본인 교육은 학교조합에서, 그 외의 행정은 부에서 담당하기로 되었으며, 기존 거류민단의 징세권은 학교조합이 갖도록 되었다. 이러한 총독부의 제안은 그해 10월 일본 각의를 통과했고, 1914년 4월 1일자로 부제

방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종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는 의결기관인 부회(府會)로 바뀌었고, 동시에 학교조합은 폐지 후 제1부 특별경제(제1교육부회)로 되었다. 또한 학교비를 폐지하고 제2부 특별경제(제2교육부회)로 편성하는 등 모든 기관은 군산부에 통제되어 점차 자치의 모습을 갖추었다.⁴⁵⁾

또한 수년 동안 현안이었던 군산부의 행정 구역 확장이 1932년 10월 시행되었고(부 행정구역 확장은 뒤에 서술)⁴⁶⁾ 동시에 부회 의원의 수도 3명이 증가하여 27명이 되었다. 한편 교통에서도 1912년 3월 호남선이 모두 개통⁴⁷⁾되어 일본 및 만주를 연결하였고, 또 한 몇 년 동안 부민의 바람인 경남(京南)철도가 1931년 8월 개통⁴⁸⁾되었고, 나아가 이리, 전주 사이의 사설 철도를 국유화⁴⁹⁾함과 동시에 같은 해 10월 경전북부선⁵⁰⁾이 개통되었다. 한편 바다에서는 일찍부터 한신게이힌(阪神京濱)⁵¹⁾과 다롄(大連)을 잇는 항로가 개설되어 해륙으로도 사통팔달의 편리함을 갖추었다. 다만 군산항과 강의 맞은편을 연결하는 금강철교가 가설되기를 더 기대할 뿐이며 이 계획은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상세한 계획은 뒤에 서술).

한편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축항(築港) 시설은 285만원을 투자하여 1926년부터 7개년 계속사업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1933년 3월에 준공되었다. 이에 군산의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항만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지만 부운을 비롯한 유지들은 장래 군산의 발전을 생각하여 제2기 축항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전부터 당국에 청원하는 진정을 시도해 오고 있으며, 당국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동 계획도 뒤에 서술). 기타 군산부 내의 시설 여러 기관의 설치 및 개선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 여기에서 군산은 지난 36년 동

(府制)가 실시되었다(천지명, 앞의 논문, 2014, 216~220쪽).

45) 손정목, 『韓國地方制度·自治史 研究(上)』(一志社, 1992), 244~250쪽.

46) 손정목, 앞의 책(1992), 251쪽.

47) 1912년 3월 호남선의 강경~이리 구간이 개통된 것을 말한다. 호남선은 1911년 7월 대전~연산간 39.9km를 개통한 것을 시작으로, 연산~강경 구간(1911년 11월), 강경~이리 구간(1912년 3월), 이리~김제 구간(1912년 10월), 김제~정읍 구간(1912년 12월), 나주~학교 구간(1913년 7월), 학교~목포 구간(1913년 5월), 광주송정~나주 구간(1913년 10월), 정읍~광주송정 구간(1914년 1월)이 차례로 개통되어, 1914년 1월 22일 총 260.6km의 호남선 전통식이 목포에서 거행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호남선' 항목, 2019년 6월 3일 검색)

48) 경남철도는 1929년 경남철도주식회사가 미국의 수탈을 목적으로 충남 천안에서 경기도 이천의 장호원, 그리고 천안에서 장항까지 연결한 사설철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경남철도' 항목, 2019년 5월 29일 검색). 경남철도가 장항선 즉 장항을 종단역으로 한 전체 구간의 개통이 완료된 것은 1931년이였다(김민영·김양규, 『철도, 지역의 근대성 수용과 사회경제적 변용 - 군산건과 장항선』, 선인, 2005, 217~219쪽).

49) 이리-전주를 잇는 사설 철도는 전북경편철도이다. 전북경편철도는 호남선 건설 계획에 맞추어 1912년 전북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호남선 이리역이 개통된 1914년 1월보다 한 달 늦게 2월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에 완공되었다. 전북경편철도가 국철로 바뀐 것은 1927년 10월이며, 전라선 전주역이 개통되어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29년 9월부터이다.

50) 경전북부선은 현재 전라선에 해당한다. 1913년 전북철도주식회사가 익산에서 호남지방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사설 철도를 부설하여 1914년에 완공했다. 이후 전북철도 주식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1927년 총독부가 이 철도를 매입하여 경전북부선으로 개칭하고, 1929년 익산-여수 간 철도를 착공하여 1931년 전주-남원, 1933년 남원-곡성, 1936년 곡성-순천이 개통되어 광주선과 연결되었다. 이때 경전북부선은 다시 전라선으로 개칭되었고 1937년 익산-여수 간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51) 오사카-고베지역, 도쿄-나가사와-요코하마 지역을 지칭한다.

안 오늘과 같이 진보 발전하여 지금은 남한에서 부산, 대구에 버금가는 경제 도시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군산 발전의 경로는 대체로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이것을 모두 살펴보면 군산은 개항 후 인천, 진남포와 같이 직접적으로 러일전쟁의 특수를 입지 않았고, 단순히 상업항의 입장에서 군산 자신의 실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요인은 오로지 군산이 항만을 끼고 있으면서 그 배후에 전북-충남평야 및 오지가 없는 이른바 지역의 이점을 가진 결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후 제2기 축항 및 금강철교 가설 계획이 실현된다면 그 발전은 모두 놀라게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899년 개항 이래 군산 역대 통솔자는 아래와 같다.

<표 1> 군산 역대 통솔자(統裁者)

연번	성명	부서	재임기간	비고
1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	영사분관	1899년 05월~1901년 12월	2년 8개월
2	쓰치야 구메조(土谷久米藏)	영사분관	1901년 12월~1902년 12월	1년 1개월
3	요코타 산부로(横田三郎)	영사분관	1902년 12월~1905년 06월	2년 7개월
4	다다 다케시(多田桓)	영사분관	1905년 06월~1906년 02월	9개월
5	스즈키 에이사쿠(鈴木榮作)	이사청	1906년 02월~1906년 12월	11개월
6	다케자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郎)	이사청	1906년 12월~1907년 02월	3개월
7	아마노 기노스케(天野喜之助)	이사청, 부청	1907년 02월~1919년 11월	12년 10개월
8	미야타테 사다이치(宮館貞一)	부청	1919년 12월~1923년 02월	3년 3개월
9	구니무네 시카타로(國宗鹿太郎)	부청	1923년 02월~1924년 12월	1년 11개월
10	사와무라 아라지로(澤村荒次郎)	부청	1924년 12월~1928년 06월	3년 7개월
11	마에다 겐지(前田善次)	부청	1928년 07월~1931년 04월	2년 8개월
12	사토 노리시게(佐藤徳重)	부청	1931년 04월~현재	

□ 민회·민단(民會民團) 시대의 예산

1901년 3월 군산일본민회 설립 이래 1913년 즉 민단 철폐까지의 예산을 아래에 기술한다(1906년 2월 민회가 폐지되고 거류민단이 되었다).

<표 2> 군산 일본인회 세입출 예산(1901~1906, 가격단위 원)

연번	연도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1	1901	2,074	2,074
2	1902	3,998	3,998
3	1903	4,810	4,810
4	1904	7,691	7,691
5	1905	8,236	8,236
6	1906	16,131	16,131

<표 3> 군산 거류민단 세입출 예산총액(1907~1913, 가격단위 원)

연도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세출	세입	세출	
1907	세입	13,767	14,267	1,694	1,194	15,461
1908	세입	22,708	20,163	18,970	21,515	41,678
1909	세입	28,509	27,671	11,850	12,688	40,359
1910	세입	31,424	30,068	7,780	9,136	39,204
1911	세입	33,188	29,969	8,160	11,379	41,348
1912	세입	41,578	32,873	3,820	12,525	45,398
1913	세입	42,188	31,191	162,320	173,317	204,508

<표 4> 군산 내 국적별 호(戶) 수(1899~1934)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1899	20	150	—	170	1917	1,462	1,469	40	2,971
1900	131	253	8	392	1918	1,550	1,530	45	3,125
1901	171	320	19	510	1919	1,665	1,742	57	3,464
1902	187	395	21	603	1920	1,423	1,769	60	3,252
1903	302	438	25	765	1921	1,585	2,013	70	3,668
1904	361	623	22	1,006	1922	1,659	2,429	73	4,161
1905	421	739	35	1,195	1923	1,708	2,961	90	4,759
1906	569	825	40	1,434	1924	1,771	3,207	97	5,075
1907	796	831	42	1,669	1925	1,767	3,060	103	4,930
1908	836	469	39	1,344	1926	1,735	3,026	101	4,862
1909	713	1,364	32	2,209	1927	1,962	3,400	113	5,475
1910	904	896	25	1,825	1928	2,055	3,645	119	5,819
1911	1,084	1,097	40	2,221	1929	2,161	3,782	124	6,067
1912	1,176	1,256	25	2,457	1930	2,098	3,476	125	5,699
1913	1,242	1,278	26	2,546	1931	2,160	3,580	110	5,850
1914	1,209	1,295	27	2,531	1932	2,306	5,919	102	8,327
1915	1,396	1,373	25	2,794	1933	2,327	6,003	103	8,433
1916	1,404	1,332	35	2,771	1934	2,370	6,141	105	8,616

* 호 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5> 군산 내 국적별 인구수(1899~1934)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1899	77	511	—	588	1917	5,661	5,878	150	11,689
1900	422	780	24	1,226	1918	5,985	5,990	161	12,136
1901	472	921	56	1,449	1919	6,809	6,581	214	3,604
1902	569	1,300	63	1,932	1920	5,659	8,243	236	14,138
1903	1,225	1,811	78	3,114	1921	6,190	9,313	249	15,752
1904	1,262	2,113	73	3,448	1922	6,528	10,932	196	17,656
1905	1,620	3,451	85	4,156	1923	6,717	12,996	271	19,984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연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1906	2,050	2,835	96	4,981	1924	7,118	14,217	298	21,633
1907	2,956	2,903	128	5,987	1925	7,074	13,486	467	21,027
1908	3,060	1,494	131	4,685	1926	6,946	13,288	462	20,696
1909	3,220	5,466	96	8,782	1927	7,858	15,403	508	23,769
1910	3,448	3,830	95	7,373	1928	8,245	16,075	538	24,858
1911	4,162	3,929	175	8,266	1929	8,534	16,636	549	25,719
1912	4,554	4,877	81	9,512	1930	8,781	16,541	638	25,960
1913	4,765	5,197	82	10,044	1931	9,115	16,843	580	26,538
1914	4,742	5,238	84	10,064	1932	9,000	26,200	375	35
1915	5,291	5,561	113	10,965	1933	9,106	26,508	385	35,999
1916	5,387	5,426	147	10,960	1934	9,408	27,144	407	36,959

<표 6> 1934년 군산 내 국적별 인구수

연번	구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1	남자	4,816	14,152	345	19,313
2	여자	4,592	12,992	62	17,646
합계		9,408	27,144	407	36,959

<표 7> 군산 거주 일본인의 본적지별 인구수(1934년 12월 말 기준)

부현명	호수	남	여	계	부현명	호수	남	여	계
홋카이도(北海道)	8	16	18	34	기후(岐阜縣)	28	68	60	128
아오모리(靑森縣)	3	7	4	11	시즈오카(靜岡縣)	13	27	26	53
이와테(岩手縣)	4	9	7	16	아이치(愛知縣)	31	64	61	125
미야기(宮城縣)	15	30	25	55	미에(三重縣)	31	64	60	124
아키타(秋田縣)	4	10	7	17	시가(滋賀縣)	25	84	48	132
야마가타(山形縣)	6	9	11	20	교토(京都府)	27	40	41	81
후쿠시마(福島縣)	17	35	33	68	오사카(大阪府)	62	137	117	254
이바라키(茨城縣)	12	41	32	73	효고(兵庫縣)	61	111	135	246
도치기(栃木縣)	5	10	7	17	나라(奈良縣)	10	23	19	42
군마(君馬縣)	3	9	7	16	와카야마(和歌山縣)	30	65	63	128
사이타마(埼玉縣)	5	14	9	23	돗토리(鳥取縣)	21	39	36	75
지바(千葉縣)	7	14	18	32	시마네(島根縣)	80	170	165	335
도쿄(東京府)	20	52	51	103	오카야마(岡山縣)	46	110	104	214
가나가와(神奈川縣)	7	11	17	28	히로시마(廣島縣)	132	342	329	671
니가타(新潟縣)	14	41	20	61	야마구치(山口縣)	278	726	629	1,355
도야마(富山縣)	13	30	30	60	후쿠오카(福岡縣)	164	361	366	727
이시카와(石川縣)	15	36	35	71	사가(佐賀縣)	82	174	172	346
후쿠이(福井縣)	13	26	27	53	나가사키(長崎縣)	172	410	458	868
도쿠시마(徳島縣)	32	65	71	136	구마모토(熊本縣)	111	259	241	500
가가와(香川縣)	56	129	115	244	오이타(大分縣)	151	367	362	729

부현명	호수	남	여	계	부현명	호수	남	여	계
에히메(愛媛縣)	135	310	292	602	미야자키(宮崎縣)	28	55	52	107
고치(高知縣)	33	67	73	140	가고시마(鹿兒島縣)	54	120	108	228
야마나시(山梨縣)	2	4	5	9	오키나와(沖繩縣)	-	-	-	-
나가노(長野縣)	15	25	26	51	총계	2,081	4,816	4,592	9,408

* 세대수는 총 2,370개이다.

<표 8> 군산 거주 일본인의 직업 구분표

연번	직업	호수	남	여	계
1	농림·목축업	37	38	7	45
2	어업·제염업	31	39	—	39
3	공업	252	279	10	289
4	상업·교통업	751	764	67	831
5	공무·자유업	814	1,044	63	1,107
6	기타	101	119	26	145
7	무직	95	138	196	334
총계		2,081	2,421	369	2,790

<표 9> 군산 거주 조선인의 직업 구분표

연번	직업	호수	남	여	계
1	임업·목축업	62	80	20	100
2	어업·제염업	47	60	1	61
3	공업	234	302	22	324
4	상업·교통업	1,035	1,171	201	1,372
5	공무·자유업	538	285	91	376
6	기타	2,489	3,644	167	3,811
7	무직	326	823	839	1,662
총계		4,731	6,365	1,341	7,706

<표 10> 군산 거주 외국인의 직업 구분표

연번	직업	호수	남	여	계
1	농림·목축업	12	31	1	32
2	어업·제염업	—	—	—	—
3	공업	3	8	—	8
4	상업·교통업	74	87	—	87
5	공무·자유업	2	35	1	36
6	기타	2	2	—	2
7	무직	1	1	2	3
총계		94	164	4	168

* 군산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 만주국과 중국인이다.

제5장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조선의 자치제도는 연혁을 증명할 수는 없고, 행정은 대개 관(官)에서 수행해 왔다. 단 그 옛날 비로소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각 개시장(開市場) 및 개항장에 전관 거류지회 또는 각국 거류지회가 설치되었고, 이후 일본인회, 일본민역소(日本民役所)를 거쳐서 1906년 일본 거류민단이 설치되었다. 그 후 1913년 10월 총독부제령 제7호로 부제(府制)와 함께 제령 제8호로 일본인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령을 제정하고 전자는 다음 해 4월 1일부터 후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지만,⁵²⁾ 이 제도는 일본인의 자치 행정에 한정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1917년 6월 총독부 제령 제1호로 면제(面制)가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⁵³⁾ 1919년 9월 임명된 사이토 총독은 시대 발전과 민심 추이에 따라 점차 조선에서도 자치를 허락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듬해인 1920년 7월 총독부 제령 제15호 도 지방비령, 제령 제14호 학교비령을 제정하여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⁵⁴⁾ 그렇지만 이상의 여러 제도에서 학교조합을 제외한 기관은 모두 자문기관으로 단지 중요 안건을 자문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단체 자체적으로는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지 겨우 자치를 향한 첫 걸음을 내 딛는 것이었을 뿐이다.

1929년 9월 사이토 총독이 재임한 뒤, 일반 민중은 지방제도를 이해하고 아울러 재정 운용에 익숙해졌으며, 동시에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 진전과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자치권의 확충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자문기관을 의사기관으로 바꾸고 조사 연구의 결과 드디어 앞서 언급한 여러 제도를 일제히 개정하거나 폐지하였다. 부제·읍면제·학교비령의 개정, 학교조합령의 개정 및 도제(道制)가 1930년 12월 1일 총독부 제령 제11호~제15호로 공포되었고,⁵⁵⁾ 도제를 제외하고 모두 1931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52) 조선총독부는 1913년 제령(制令) 제7호로 「부제(府制)」, 제8호로 개정된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을 공포하고(10월 30일자), 1914년 총독부령(總督府令) 제2호 및 제3호로 각각 「부제 및 학교조합령 시행에 관한 건」과 「부제 시행규칙」을(1월 25일자), 1914년 총독부령 제28호로 「부제 및 학교조합령 시행기일」을(3월 31일자) 공포하였다[孫禎睦, 앞의 책(1992), 123쪽]. 부칙을 포함해 총 36개조에 걸친 「부제」 전문과 개정된 「학교조합령」 전문은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3.10.30) 또는 『매일신보(每日申報)』(1913.11.2~3) 참조.

53) 조선총독부는 1917년 제령 제1호로 「면제(面制)」와 총독부령 제34호로 「면제시행규칙」을 공포하고(6월 9일자), 이어서 총독부령 제37호로 「면제시행기일」을 공포하고(7월 11일자),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孫禎睦, 앞의 책(1992), 164~165쪽]. 총 1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면제」와 「면제시행규칙」 전문은 『조선총독부관보』(1917.6.9) 참조.

54) 개정된 「조선도지방비령(朝鮮道地方費令)」(제령 제15호) 및 「조선학교비령(朝鮮學校費令)」의 내용은 『조선총독부관보』(1920.7.31.) 참조. 「도지방비령시행규칙」(부령 제105호) 및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부령 제104호)의 내용은 『조선총독부관보』(1920.8.6) 참조.

55) 1930년 11월 29일자 칙령(勅令) 제234호로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 중 개정」이 발포된 후(『조선총독부관보』 1930.12.5.), 조선총독부는 12월 1일자로 제령 제11호 「부제 개정」, 제12호 「면제를 읍면제(邑面制)로 개정」, 제13호 「조선학교비령 중 개정」, 제14호 「학교조합령 중 개정」, 제15호 「도제(道

그 후 자치제의 운용 실적은 계속 양호해졌으며 지방자치의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제는 1930년 발포 후 실시가 보류되었다가 1932년 4월 1일자로 실시되었고, 5월 10일에는 개정된 도제에 따라 관선·민선의원의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6월 전후로 각도에서는 도회(道會)를 개최(본도는 14. 15 양일에 걸쳐서 개최)하였다. 이로써 비로소 조선 통치의 획기적인 진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었다.

□ 부제 시행 후 군산부 세입·세출 예산

1914년 4월 부제 시행 이후 1935년도까지 군산부 세입·세출 예산은 아래와 같다.

〈표 11〉 부제 시행 후 군산부 세입출예산(1914~1935, 단위 원)

연도	예산총액	구분	경상부	임시부	연도	예산총액	구분	경상부	임시부
1914	177,193	세입	47,932	129,261	1925	302,806	세입	169,100	133,706
		세출	42,296	134,897			세출	132,390	170,416
1915	54,203	세입	49,232	4,971	1926	303,083	세입	179,282	123,801
		세출	38,236	15,967			세출	133,742	169,341
1916	54,907	세입	44,291	10,616	1927	375,208	세입	200,185	175,023
		세출	31,904	23,003			세출	137,729	237,479
1917	52,311	세입	45,733	6,578	1928	513,949	세입	243,226	270,723
		세출	34,323	17,988			세출	144,488	369,461
1918	52,443	세입	47,580	4,863	1929	442,924	세입	236,308	206,616
		세출	32,395	20,048			세출	151,928	290,996
1919	84,477	세입	65,422	19,055	1930	377,713	세입	208,440	169,273
		세출	51,456	33,021			세출	136,920	240,793
1920	108,903	세입	99,917	8,986	1931	514,724	세입	192,484	322,240
		세출	78,326	30,577			세출	131,584	383,140
1921	122,916	세입	102,468	20,448	1932	454,952	세입	189,247	265,705
		세출	86,289	36,627			세출	132,401	322,551
1922	154,545	세입	116,583	37,962	1933	510,400	세입	218,866	291,534
		세출	94,411	60,134			세출	166,155	344,245
1923	315,422	세입	145,606	169,816	1934	426,338	세입	212,443	213,895
		세출	110,927	204,495			세출	166,060	260,278
1924	272,642	세입	163,826	108,816	1935	380,420	세입	219,997	160,423
		세출	129,358	143,284			세출	179,034	201,386

制)를 공포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1930.12.1.). 이로써 기존의 부(府)뿐만 아니라 읍·면·도도 법인으로 하는 명목상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손정목, 앞의 책(1992), 240~241쪽].

<표 12> 군산학교조합 및 제1부 특별경제 세입출예산(1914~1935, 단위 원)

연도	예산총액	구분	경상부	임시부	연도	예산총액	구분	경상부	임시부
1914	17,818	세입	17,437	381	1925	160,522	세입	82,975	77,547
		세출	17,433	385			세출	110,735	49,787
1915	22,371	세입	10,692	11,679	1926	172,748	세입	84,276	88,472
		세출	17,722	4,649			세출	117,996	54,752
1916	23,968	세입	11,638	12,330	1927	207,710	세입	87,068	120,642
		세출	22,308	1,660			세출	123,675	84,035
1917	30,665	세입	17,531	13,134	1928	139,548	세입	74,650	64,898
		세출	23,445	7,220			세출	87,240	52,308
1918	26,611	세입	19,276	7,335	1929	121,853	세입	79,639	42,214
		세출	23,030	3,581			세출	93,595	28,258
1919	32,428	세입	23,859	8,569	1930	121,729	세입	79,701	42,028
		세출	26,063	6,365			세출	91,788	29,941
1920	60,299	세입	48,504	11,795	1931	115,977	세입	73,549	42,428
		세출	58,983	1,316			세출	85,967	30,010
1921	88,660	세입	56,122	32,538	1932	133,197	세입	70,118	63,079
		세출	69,684	18,976			세출	87,125	46,072
1922	92,838	세입	60,114	32,724	1933	126,336	세입	71,010	55,326
		세출	75,265	17,573			세출	88,977	37,359
1923	255,687	세입	70,617	185,070	1934	105,966	세입	67,672	38,294
		세출	101,250	154,437			세출	86,599	19,367
1924	178,489	세입	80,864	97,625	1935	132,394	세입	47,407	84,987
		세출	116,454	62,035			세출	88,310	44,084

<표 13> 군산학교비 및 제2부 특별경제 세입출예산(1913~1935, 단위 원)

연도	예산총액	구분	경상부	임시부	연도	예산총액	구분	경상부	임시부
1913	5,300	세입	1,292	4,008	1925	31,733	세입	18,414	13,319
		세출	5,140	160			세출	25,413	6,320
1914	3,977	세입	674	3,303	1926	32,544	세입	20,456	12,088
		세출	3,977	—			세출	27,344	5,200
1915	5,227	세입	767	4,460	1927	37,320	세입	21,707	15,613
		세출	4,077	1,150			세출	28,220	9,100
1916	4,811	세입	929	3,882	1928	52,934	세입	22,666	30,268
		세출	4,811	—			세출	29,173	23,761
1917	4,729	세입	829	3,900	1929	34,860	세입	22,176	12,684
		세출	4,669	60			세출	31,660	3,200
1918	6,281	세입	1,038	5,243	1930	35,356	세입	22,594	12,762
		세출	5,303	978			세출	32,856	2,500
1919	38,052	세입	1,811	36,241	1931	46,329	세입	22,767	23,562
		세출	5,681	32,371			세출	31,509	14,820
1920	45,963	세입	1,794	44,169	1932	37,981	세입	23,456	14,525

연도	예산총액	구분	경상부	임시부	연도	예산총액	구분	경상부	임시부
		세출	13,098	32,865			세출	32,931	5,050
1921	14,529	세입	3,490	11,039	1933	90,831	세입	26,210	64,621
		세출	14,529	—			세출	35,729	55,102
1922	28,651	세입	12,582	16,069	1934	39,907	세입	27,297	12,610
		세출	18,701	9,950			세출	36,088	3,819
1923	31,791	세입	15,170	16,621	1935	73,741	세입	23,424	50,317
		세출	22,191	9,600			세출	36,935	36,806
1924	29,289	세입	17,647	11,642					
		세출	26,089	3,200					

□ 부청사 신축 이전

이전 군산부 청사는 1908년 이사청 시대에 건설되어 당시 군산으로서는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그러나 이후 부세가 팽창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무가 급증하고 부청 직원이 증가하여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다. 또한 청사가 군산부의 끝 모퉁이에 위치하여 이전 신축이 시급하였다. 1921년 미야타테(宮館) 부운 시대에 이전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예산 및 국비 보조 문제로 조속히 실현될 수 없었다.

1928년 사와무라(澤村) 부운 시대에 드디어 공사비 6만원(국비 2만원, 부비 4만원)으로 현재의 장소로 이전 신축하였다. 같은 해 6월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준공하였다. 2층 건물로 평수는 건평 208평, 연건평 457평(이외에 부속 건물 건평 21평, 연평 31평이 있음)이며, 1층은 전부 사무실이고, 2층은 제1회의실, 제2회의실(다다미 방), 귀빈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1회의실은 6백 명을 넉넉히 수용하고, 때로 강연회 또는 대중 집회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제6장 자치제도의 개정과 군산부 행정(1931년 4월 1일)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은 1931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지만 예산 편성 및 제반 시설 계획은 전년도 부협의회 시대에서 심의 의결해야 했다. 즉 군산부에서는 같은 해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협의회를 개최하여⁵⁶⁾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예산을 결정하고 동시에 이사자(理事者)⁵⁷⁾의 제안대로 신규 사업을 가결하였다.

〈표 14〉 1931년도 군산부 세입출예산(단위 원)

구분	경상부	임시부	합계
세입	192,484	322,240	514,724
세출	131,584	383,140	

〈표 15〉 1931년도 지속적인 신규사업(단위 원)

사업종별	예산액	지속기한	비고
옛 부청사 이전	4,519	1개년	
토지착평 ⁵⁸⁾ 공사 (옛 부청사 자리)	22,235	1개년	
어장과 항만수축	40,000	3개년(1931~1933)	예산총액: 120,000 ·지방비 보조: 20,000 ·부채(府債): 100,000 ·국고보조, 부채이자(20개년): 98,050

〈표 16〉 1931년도 계속사업(단위 원)

사업종별	예산액	지속기한	비고
제2기 하수공사	53,250	6개년(1927~1932)	예산총액: 422,000 ·국고보조 130,000 ·지방비보조: 85,000 ·부채(府債): 120,000 ·일반세입이월금: 87,000

56) 1931년 3월 9~11일 3일간에 걸쳐 개최된 군산부협의회회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날짜별로 『조선신문(朝鮮新聞)』 1931년 3월 11일, 13일, 14일자에 상세히 보도되어 있다. 『조선신문』은 1908년부터 1942년까지 재조일본인이 일본어로 발행한 신문이다.

57) 이사자는 회의에서 설명자로, 출석한 행정집행자를 말한다. 의안을 설명하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사람이다.

58) 착평은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공사를 말한다.

사업종별	예산액	지속기한	비고
수도확장공사	80,000	4개년(1929~1932)	예산총액: 330,000 ·국고보조: 110,000 ·지방비보조: 60,000 ·부채(府債): 140,000 ·일반세입이월금: 20,000
서빈정(西濱町) 인근 매립공사	40,000	2개년(1930~1931)	예산총액: 77,500 ·부채(府債): 75,000 ·일반세입이월금: 2,500

학교조합(자치제도 개정의 결과 1931년 4월 1일부터 제1부 특별경제로 개칭)예산 및 학교비(동일하게 제2부 특별경제로 개칭) 예산은 각각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 17> 1931년 군산부 제1부 및 제2부 특별경제 세입출예산(단위 원)

항목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제1부	73,549	8,967	42,428	30,010	115,977
제2부	22,767	31,509	23,562	14,820	46,329

또한 1932년도 제2부 특별 경제의 신축 사업으로는 제1보통학교 강당(공사비 7천 5백 원, 106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마에다(前田) 부운의 연설

1931년도 군산부 예산 편성 방침 및 신축 사업 시설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해 3월 9일 개최된 부협의회 개최 때 마에다 부운⁵⁹⁾이 한 연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직접 부의 예산 및 부정(府政) 제반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를 부탁드리는 안건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대로 ‘군산부 서빈정(西濱町) 인근 공유수면 매립비 계속 연한 및 지출 방법’, ‘군산부 어장과 항만 축조비 계속 연한 및 지출 방법’, ‘오물 소제 청부계약의 건 및 1931년도 군산부 세입·세출예산’ 4건입니다. 1931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축 방침에 기초하였지만 예산 총액은 51만 4천 724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만 7천 11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 경상비 중

59) 마에다 겐지(前田善次)는 1920~23년 강원도와 평안북도에서 경부(警部)·경시(警視) 등 경찰 관료로 근무했으며, 1924~28년에는 제주도에서 경시 및 도사(島司)로 근무하였다. 1929년 군산 부운이 되었으며, 1931년 함경북도 청진 부운으로 임명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참고).

사무비는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학교조합, 학교비에 속하는 회의비, 인건비 기타 약 7천 원은 일반 부비 부담으로 되었던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증액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최대한 긴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임시부에서는 계속된 재계의 불황으로 실업자 또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국민 구제, 실업자 구제, 임금과 철시 때문에(勞銀撤市)의 의미로 임시비에 2개년 내지 3개년의 계속 사업으로 총 공사비 20만 7천 5백원으로 여장과 항만 축조, 석쇄(石碎)작업 확장, 공유수면 매립 등의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고 각각 본년도 지출액 8만 9천원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원래부터 군산부의 발전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을 구제하고 품삯을 여러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군산부영 서빈 수산시장

한편 본 안건 계획으로 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 예산 계상액에 포함하였습니다만 감액 또는 기왕의 실적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견실한 숫자를 예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또는 증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노력한 것입니다. 또 경상부 세입은 경상 세출로 충당하고 잔액은 임시부 세출로 감당하며, 부족분은 기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윤의 경질

부윤 마에다 젠지(前田善次)는 1931년도 예산을 결정하고 신년도가 시작되자마자 1931년 4월 31일자로 청진 부윤(淸津府尹)으로 전임되고 후임으로 통영 군수 사토 노리시게(佐藤德重)⁶⁰⁾가 5월 12일 부임하였다.

□ 부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1931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부읍회의 의원 선거는 5월 2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어 군산부에서도 같은 날 부회 의원 선거를 하였는데 선거 결과 아래와 같은 사람이 당선되었다.⁶¹⁾

60) 사토 노리시게(佐藤德重, 1884년 오이타현 출생)는 1911~19년 평안남도 서기를 거쳐 1920년대에 충청북도, 경성 전매지국, 경북 대구부, 평남 평양부 등에서 속(屬)으로 근무하였다. 1930년 경남 통영 군수를 거쳐 1931년부터 1937년까지 군산 부윤을 역임하였으며, 1939년 평양 부윤으로 임명되었다. 1940년대에는 조선유연탄주식회사 상무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참고).

61) 1931년 당선된 위 인물들 가운데 김백용(목포), 김서집(옥구), 김형기(서천), 서흥선(논산), 이공현(서천), 전의용(서울) 등 6명의 조선인은 대부분 일제의 중등·고등 교육을 받은 인텔리였다. 김백용·이공현·김형기는 군산공립농업학교(群山公立農業學校) 출신이며, 김서집은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서흥선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전의용은 고베고등상업학교(神戸高等商業學校) 출신이다. 졸업 후에는 주로 지배기구의 하급관리(김형기, 서흥선, 전의용)나 대서업(김형기, 서흥선), 상공업(김형기, 전의

우치다 도메요시 (內田留吉)	히구치 도라조 (樋口虎三)	마에다 마고헤이 (前田孫平)	김의용 (金義鎔)	이금현 (李兢鉉)	이토 미쓰사부로 (伊藤光三郎)
가와카미 후지타로 (河上藤太郎)	마치이 주타로 (町井重太郎)	미쓰토미 가하치 (光富嘉八)	김백용 (金白龍)	우에다 보쿠 (上田朴)	모리모토 이와노스케 (森本岩之助)
히가키 마고사부로 (檜垣孫三郎)	우시오 마사이치 (牛尾正一)	김형기 (金炯基)	김서집 (金瑞集)	구보 미야타 (久保宮太)	이즈미 사쿠지 (泉作二)
서홍선 (徐鴻善)	무카이 마쓰지로 (向井松次郎)	시미즈 기사쿠 (清水喜作)	야마모토 가즈오 (山本一男)	자노 조지로 (茶野条次郎)	우지이에 시게요시 (氏家重吉)

이상 의석 순서

□ 제1회 부회 개최

의원 선거 후 자치제도 개정 후 제1회 부회는 1931년 6월 18일 개최되었다.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산부회 회의 규칙 설정의 건
2. 군산부회 방청인 단속 규칙 설정의 건
3. 군산부 사무 및 출납 검사 규정 설정의 건
4. 부회 의원 비용 변상 조례 설정의 건
5. 부세(府稅) 제한 외 부과 조례 설정의 건
6. 부윤 전결 사항 결정의 건
7. 1931년도 군산부 세입·세출 추가 예산 결정의 건
8. 1931년도 군산부 부세 호별세(戶別稅) 등급 부과율 및 각 사람별 부과 등급 결정의 건

개회가 되자 신임 사토 부윤은 다음과 같은 인사와 연설을 하였다.

빛나는 자치정부의 시작과 함께 군산부민의 여망과 신임을 얻어 제1회 부회 의원의 요직에 취임하신 여러분께 이후 군산부 행정의 제반 중요 조건에 관하여 친히 심의를 요청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온 몸으로 기쁜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되돌아보면 군산부정이 공포되어 지금까지 18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세의 변천에 따라 제도도 또한 수차례 바뀌었고, 부정(府政)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시련을 거듭하여 오늘 크게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이번 제도 개정은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아 조선의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로 하

용) 등에 종사하다가 1930년대에 군산부회로 진출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군산 출신이 없어서, 1920년대 이후 다른 지역에서 군산으로 진출해 빠른 속도로 군산 유력자 집단의 한 축을 차지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이준식,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東方學志』,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202~203쪽).

기 위해 많은 고심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번 개정 제도로 완전무결한 자치제가 될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지방행정의 한 획을 그었으며 그 결과 자치제 본질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부정에서는 종래 비교적 진보된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 세 단체를 통일하고 부협의회를 부회(府會)로 고쳐 의결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이 개정되어 다른 여러 단체에 비하여 가장 완전함에 가까운 자치제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부에서는 항상 나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감독 당국의 지도와 부민 여러분의 협력에 의존함으로써 그 기능을 통제하여 시대에 맞는 시설의 경영에 힘써 토목·교통·산업·위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많은 정비와 개선을 하고, 군산 건설의 기초를 계속 쌓아 가고 있는 것은 축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이전 관민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멈출 줄을 몰라 이에 순응하려면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특히 국고 지원을 받은 군산항의 수축(修築)도 곧 끝나고 또한 강 건너 경남철도가 완전히 개통되고 배후에 있는 전려선(全麗線)⁶²⁾의 개통도 다가왔으며, 조만간 거래소(取引所)가 운영될 것이어서 한층 부 행정의 향상이 발전하고 군산항도 발달하여, 상권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실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세를 잘 파악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1) 도시계획의 수립, (2) 군산부 행정 구역의 확장, (3) 축항(築港)의 이용, (4) 어장과 항만(漁港)의 활용, (5) 도시 산업의 장려, (6) 부민의 보건위생에 관한 설비 개선, (7) 사회교육 및 체육의 장려, (8) 시장 기타 사회사업의 개선, (9) 현재 시공 또는 착공 중인 상하수도의 확장 개선, (10) 어장과 항만의 수축, (11) 해안의 매축 정비 등의 사업을 비롯하여 해야 할 사업도 또한 매우 많아서 군산으로서는 확실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기회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산부의 재정 현황이 일반 재개의 불황과 쌀 쌀값의 영향으로 반드시 운택해 질 수는 없으므로 금후의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아울러 재정의 기초를 한층 공고하게 해야 할 간절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산의 앞길은 실로 다사다난하고, 밖으로는 적정한 시설을 기대하고, 안으로는 적정한 재정을 만들어, 장래 부세(府勢)의 진전을 이룩하여 살기 좋은 군산 건설에 약진해야 할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때마침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기관이 갖춰져 부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최선을 다해 적합한 기능과 기회를 얻은 것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미력한 제가 이번에 준비도 덜되고 부족하지만 군산 부윤으로서 부 행정의 중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만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일반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조사 연구하여 일의 완급과 재정의 여하에 따라 서서히 건실한 군산의 건설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부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한 새로운 제도를 잘 운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불같이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공익에 주안점을 두

62) 전려선은 전주-여수간 철도를 말한다.

시고 작은 차이를 버리시고 대동의 큰 정신을 본받아 참으로 한 가족의 친밀감을 가지고 모두 협동하고 함께 힘써 부민의 복지와 군산부의 영원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생각하셔서, 대 군산 건설을 위해 충분히 노력해 주실 것을 특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인사를 대신합니다.

부윤의 인사가 끝나고 회의에 들어가 먼저 부의장 선거를 하여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⁶³⁾가 당선되었다. 또한 당일 부회 폐회 후 제1교육부회, 제2교육부회를 개최하여 부의장 선거를 하였는데 그 결과 제1교육부 부의장으로 이토 미쓰사부로(伊藤光三郎)가, 제2교육부 부의장에는 서홍선(徐鴻善)이 당선되었다.

회의 사항 중 부회 회의 규칙 설정의 건 외 3건을 위원에게 심의를 부탁하였다. 위 위원회는 19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25일 본회의를 열어 가결 결정하였다.

63)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은 1876년 시마네현 출생으로 1920년대 이래 줄곧 군산인쇄주식회사,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 군산상공신탁주식회사, 북만산업주식회사, 대륙문화공업주식회사, 문화공업판매주식회사 등의 사장·이사 등을 역임한 경제인이다. 또한 군산부 학교조합 의원, 군산상업회의소 의원·평의원·부회두(副會頭), 군산부회 의원, 군산상공회의소 회원·소장, 군산금융조합장 등을 역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근대회사조합’, ‘조선공직자명감’, ‘조선실업대감’ 등의 데이터베이스 참고). 1919년 12월 26일 전라북도 내 최초의 월간지인 『실업지조선(失業之朝鮮)』을 발행하여 사장 겸 주필로 활동하기도 했다(임경석 편, 『동아시아언론매체사전』, 논형, 2010, ‘실업지조선’ 항목).

제7장 획기적인 시대로 진입한 1932년 군산

사토(佐藤) 부윤은 1931년 5월에 부임한 이후 군산의 사정과 정세를 예의 주시하여 조사 연구하고 동시에 장래 군산의 발전에 대한 동향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확실한 안건을 만들어 1932년도에 실시 실행해야 할 여러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하나의 안건으로 국비를 받아 제2기 항만을 수축하는 것과 종래의 꿈인 잔교 부두 건립 문제를 해소하고, 금강철교 가설을 계획하였다. 위의 두 안건은 1931년 12월 부윤의 제창으로 설치된 ‘군산항만조사회’의 중요 사업으로 채택되어 실현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회에 제출하고 회의에 부쳐 시대에 순응하는 많은 신규 사업은 모두 이의 없이 가결되었다. 이 사업은 같은 연도 내에 전부 이루어져 지금 시가의 면목은 착착 새로워지고, 또한 약진의 기회를 촉진하여 군산 발전의 획기적인 시대를 맞이하였다.

□ 부회(府會) 개최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뀌고 이른바 자치제도 아래 부회에서 총 예산을 심의하는 제1회 부회는 1932년 3월 15일부터 9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동 부회에서는 군산의 현황을 반영하여 부 행정의 발전에 긴급을 요하는 많은 신규 사업이 제출되었고, 의원도 또한 자치제도 시행 후 최초의 예산 회의로 매우 긴장된 태도로 심의를 거듭하였다. 또한 방청객도 다수 있었다. 개회에 앞서 부윤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였다.

오늘은 1932년도 예산과 기타 이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시기 위해 본회를 소집하였던 바,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은 실로 본인에게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되돌아보면 작년 4월 지방제도가 대폭 개정되어, 부회를 의결기관으로 바꾼 이후 여러 차례 부회를 개최하였습시다만 부의 총 예산을 제안하고 이를 심의하시는 것은 오늘 이 회의가 첫 회의입니다. 이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부회는 새롭게 부제(府制)가 실시된 첫 중요한 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여 본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사자(理事者)로서 특별히 신중하게 생각하여 조사 연구를 거듭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빠르게 발전하여 언제 멈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도시와 지방(농촌)을 불문하고 어떻게든 순응하여 적절한 시설을 태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러나 우리 군산의 정세를 보니 축항도 내년 3월에 완공될 것이고 나아가 제2기 축항도 계속하여 추진해야 하며, 또한 강 건너 장항에는 작년 8월에 경남철도가 개통되었고, 배후에 있는 경전북부선은 남원까지 직통열차가 운행되었으며, 군산거래소도 드디어 올해 1월에 업무를 개시하여 금후 한층 부 행정의 향상 발전과 군산항의 발달을 꾀하고 상권의 확장도 도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들 추세와 정세를 잘 살피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계정세를 보면 이 불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작년 말 금재금지(金再禁止)⁶⁴⁾에 의해 물가가 폭등하여 일시적으로 경기가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수년 동안 부민이 입었던 타격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연도의 예산은 이들 사정을 참작하여 정부의 긴축 방침에 따라 오로지 인건비, 물건비의 절약을 계상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조직 방법 등에 기초하여 개선하고 쇄신하여 능률을 증진시켜 이들 결함을 보완하며, 또한 한편으로 헛되이 뒷걸음치는 것만으로는 부세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산부의 특이성에 비추어 부세의 발전에 따른 제반 시설 및 금후의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시설 등, 부민의 복리 증진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또한 부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재원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여 제쳐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 경제의 긴축 방침에 따라 염출한 여유 재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부세의 발전에 순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년도 예산은 세입 경상부 194,097원, 임시부 261,705원, 세출 경상부 133,251원, 임시부 322,551원으로 세입·세출 총 합계는 각 455,802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58,922원 감액한 것으로 그 내용은 세입 자연 감소 163,122원, 자연 증가 60,737원, 신규 증가 43,463원입니다. 자연 감소분 중에는 부세 토지 평균 수지 17,000원, 기채 감소 71,000원, 시가지 축조 적립금, 보상금 감소 48,000원, 하수비 지방비 보조 18,000원 등이 있습니다. 또 자연 증가 수입으로는 수도, 시장 사용료, 이월금, 지난 연도 수입, 채석 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증가 수입으로는 서빈(西濱) 신평리 하역장 사용료, 우피 건조장 사용료, 지방비 보조금·기부금, 폐도로 부지 매각대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정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리 감소 12,418원, 자연 감소 10,564원, 사업 완성에 의한 감소 121,696원, 자연 증가 15,202원, 신규 증가 70,554원으로 차감하면 즉 58,92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정리 감소 중에 포함된 것은 인건비와 물건비입니다. 또한 종래 경영 방법이 아직 불합리하여 경제적이지 않은 격리병사, 도축장 등의 경영 방법을 개선하여 경제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완적으로 감소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 4만 원, 시장 이전 2,500원, 시가지 축조 6천 원, 제2기 하수공사 일부 2만 2천 원, 신평리 매립비 4만 1천 원, 토지 착평비(鑿平費) 2만 2천 원 등은 모두 연도 내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1932년도 예산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32년도 신규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중복된 것이 종종(별도 항목 참조) 있습니다만 우리 군산부의 재정상 본년도의 세입·세출 예산 상황으로 보아 결코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숨김없이 의견을 잘 경청하여, 우리 부 행정의 발전과 부민의 영원한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중하게 충분히 심의해

64) 금 수출 금지 해제의 약어. 금화가 너무 많이 외국으로 유출되며 통화가 적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산업이 부진하고 국부(國富)가 감소되므로 금의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나 그 결과 외환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며 외국무역이 부진하게 되면 다시 금의 수출을 허가하게 된다. 이것이 금 해금(解禁)이다. 금 해금의 결과 금 수출이 너무 많아지면 다시 그 수출을 금지하니 그것은 금재금지(金再禁止)라 한다(한국 근대 신어 DB, <http://waks.aks.ac.kr>, 2019.6.1. 검색).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의 첫머리에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인사드립니다.

회의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3월 15일부터 9일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위원에게 부탁한 안건이고, 또 수정을 한 것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단 이사자는 처음 부의 항구적인 재원으로 신규 사업 중 죽림 조성 사업(식재 면적 50정보, 20년 계속, 경비 257,387원, 이 수입 966,116원)을 계획하였지만 부회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자는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이 나와 심의 결과 의원 중에서 조사위원을 설치하였다. 위 조사위원이 전남, 전북 및 충남의 죽림 사업에 대해 몸소 현지 조사를 한 바 결국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당분간 유보하고, 맹종림(孟宗林)⁶⁵⁾만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932년도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19> 1932년도 군산부 세입출예산(단위 원)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189,247	265,705	454,952
세출	132,401	322,551	

<표 20> 1932년도 지속적인 신규 사업(단위 원)

사업종별	예산액	지속기한	비고
도서관설립	3,262	1개년	·설비비: 2,910 ·수선비: 352
묘지정리	1,900	1개년	·신평리 묘지 정리비: 1,100 ·사장리 묘지 정리비: 800
공원시설	5,000	1개년	예산총액: 6,000 ·토지매수비: 15,221 ·시설비: 1,200
맹종림(孟宗林) 조성	2,165	1개년	·용지매수비: 1,500 ·재식(栽植)비: 475 ·잡비: 190
수면(水面) 매립	20,000	1개년	·신평리 매립비: 12,998 ·신평리 제2기 매립비: 4,600 ·감독비: 2,402
시장개선	1,000	1개년	
항만 및 부업·가정공업	3,000	1개년	·항만조사비: 2,000 ·부업·가정공업 기타 조사비: 1,000
운동장 신설	7,000	1개년	
격리병사 신축	11,500	1개년	·건축비: 10,000 ·설비비: 1,500

65) 맹종림은 맹종죽림의 약자이다. 맹종죽은 대나무의 한 가지로 바소꼴의 잎이 가지 끝에 모여 나며, 7~10월에 꽃이 원뿔꽃차례(圓--次例)로 피고, 이삭열매가 11월에 익는다. 일본(日本)에서 들여왔는데, 죽순(竹筍)은 먹이로, 줄기는 공예(工藝) 재료(材料)로 쓰인다.

사업종별	예산액	지속기한	비고
오물처리장(汚物溜) 설치	4,800	1개년	·토지구입비: 2,800 ·오물류: 2,000
도살장 신축	9,000	1개년	·건축비: 8,000 ·설비비: 1,000

□ 1932년도 계속 사업

계속사업 중 지속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21> 1932년도 계속사업(단위 원)

사업종별	예산액	지속기한	비고
제2기 하수공사	33,000	6개년(1927~1932)	예산총액: 422,000 ·국고보조: 130,000 ·지방비보조: 85,000 ·부채(府債): 120,000 ·일반세입이월금: 30,200
수도확장공사	80,000	4개년(1929~1932)	예산총액: 330,000 ·국고보조: 110,000 ·지방비보조: 60,000 ·부채(府債): 140,000 ·일반세입이월금: 20,000
어장과 향만 수축	40,000	3개년(1931~1933)	예산총액: 120,000 ·지방비보조: 20,000 ·부채(府債): 100,000 ·국고보조 및 부채이자(2개년): 98,050

□ 군산부 1932년도 제1부 제2부 특별 경제 예산

군산부 1932년도 제1부, 제2부 특별 경제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22> 1932년도 제1부 및 제2부 특별경제 세입출예산(단위 원)

항목	세입		세출	
	경상부	임시부	경상부	임시부
제1부	70,118	63,079	87,125	46,072
합계	133,197		133,197	
제2부	23,456	14,525	32,931	5,050
합계	37,981		37,981	

<표 23> 1932년 제1부 특별경제 신규사업(단위 원)

사업종별	예산액
소학교 어진영(御眞影) 봉안고	1,000
고등여학교 어진영 봉안고	700

□ 의원 일본·조선 도시 시찰

올해는 군산의 발전 진흥을 위하여 일본 및 조선 내의 항만 및 부업 그리고 가정공업 기타 도시 시설의 상황을 시찰 조사하기로 하여 의원 중에 추천하여 조사원을 결정하고 이를 3개 반으로 나누어(1개 반은 2명) 일본지역 조사원은 주고쿠(中國), 도카이(東海), 게이힌(京濱) 지방 및 규슈(九州) 지방을 조선지역 조사원은 서부지방을 시찰 조사하고 돌아와 각각 보고하였는데 이 계획은 시의 적절하여 군산 발전을 위하여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 증원 의원 선거

1932년 10월 부 행정 구역 확장에 따라 12월 21일 3명의 증원 부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그 결과 다음의 세 명이 당선되었다.

고하라 스케타로(香原助太郎), 도쓰카 소타로(戸塚總太郎), 김영희(金永熙)⁶⁶⁾

□ 민심진흥 시설 개요

군산부에서는 1932년 11월 상급 관청의 방침으로 민심진흥, 자력갱생의 정신을 고취 양양하기 위해 일반 부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개요를 배부하고 이후 부에서는 선포하여 이 시설을 실행하였다.

1.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본뜻에 기초하여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본뜻을 본받아 일본과 조선이 일치 협동하고, 공민으로서 훈련하고 사회 진보 개선을 도모할 것
2. 묵묵히 실행하고 모든 사물을 조용히 관찰하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배제하고 극기인고(克己忍苦)의 수련을 다 하여 자력갱생의 발랄한 기력을 기르도록 할 것
3. 사회 연대 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 협력의 미풍을 조성하며, 특히 향토 취락의 진흥에 힘쓸 것
4. 해이하고 퇴폐적인 기풍을 소탕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 노력하는 정신을 진작시키고,

66) 김영희는 군산공립농업학교 출신 하급관리로 일하다가 군산부회로 진출한 인물이다[이준식, 앞의 논문(2005), 203쪽]. 1931년 지방제도 개편 이래 군산부회에 진출한 첫 군산 출신으로 보인다. 김영희는 서흥선, 김의용과 함께 이후 군산부회의 3선 의원으로 활동하였다[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쌀·삶·문명연구』 창간호(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2008), 194쪽]. 해방 후 1952년 5월 10일 제2차 지방선거에서도 서흥선과 함께 도의원으로 선출되었다(『民主新報』, 1952.5.13.).

특히 관·공리(官公吏) 및 교육,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에 비추어 솔선 수범하여 노력할 것

5. 경제생활의 도덕적 의의를 밝히고 교화의 운용을 통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것

위의 시설 개요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항을 다음에 기재하고 부민 일반이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1. 국체관념(國體觀念)을 명확하게 하는 것
군민(君民) 일체,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국체 관념을 명확히 하는 것
2. 경신사상(敬神思想) 함양
매일 아침 군산신사를 참배하는 것
매일 아침 참배가 어려운 사람은 1일, 15일에는 반드시 참배하도록 할 것
3. 국기게양(國旗揭揚)의 권장
각 정(町)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하고, 축제일에는 시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반드시 시행하도록 독려할 것.
- 4.公德심의 함양, 공공 봉사의 관념 조장
신사, 사찰, 관공서, 학교, 공원 등의 공공물을 소중히 할 것
여러 가지 종류의 집회는 폐회 때까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또한 공동변소, 정(町) 내의 공용 전등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공민 강좌 개설
부(府) 또는 교육회 기타 교화단체 등에서는 유명 인사를 초빙하여 수시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부민 일반의 공민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6. 타인의 힘에 의존하는 마음의 타파
무슨 일이든 타인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실행하는 관념을 양성할 것
앞서서 그 제일보로 정돈은 반드시 자기가 실행할 것
자기 집 근처의 도로 청소는 자기 가족이 하도록 할 것
7. 근로존중의 정신 고조
가능한 한 걸어 다닐 것
집에서 사용할 물건 구매는 주부 또는 가족 등이 반드시 나가 살 것
전화(電話)를 전하는 일은 주인 스스로 할 것
8. 상공업의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에 노력할 것
자기 직업의 사회적 변천과 추세에 주의하며, 항상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경영 방법을 배울 것
9. 현모양처로서 철저한 부인 교육
여자 교육은 학교와 기타 가정 등에서 국풍(國風)에 상당히 일치하도록 하고 가풍에

- 따라 부녀자의 실제 교육에 힘쓸 것
10. 시간의 준수, 집행 시간의 엄수
- 회합 시간, 방문 시간, 매일 기상 시간, 집무 시간은 반드시 준수할 것

□ 1932년의 회고

1932년의 군산은 다사다난했으나 약진하는 기운을 조성하여 장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장차 획기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미곡거래소는 새해에 들어와 개시되었고, 제2기 축항, 금강 철교 가설의 두 계획은 수차례 청원 진정하여 당국의 마음을 움직여 당국에서도 지방산업, 경제 개발상 그 필요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전조선 각 지역에서 시국 문제가 계속 일어났다. 군영(軍營) 설치 문제는 전주, 이리, 군산 세 지역 유지의 회합에서 협의한 결과 국방상의 관점에서 종래와 같이 도내에서 각각 쟁탈 운동을 하지 않고(단 군산은 종래 군영 설치 문제에 대해 운동을 시도한 적이 없음), 전주, 이리, 군산 세 지역의 협조 아래 이것을 통제하는 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군산은 공병대대의 설치를 희망하였고, 전주·이리와 함께 군부 당국에 청원하였다.

또한 몇 해 전부터 현안이었던 부 행정구역 확장은 드디어 당국의 인가를 얻어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 결과 면적은 수륙(水陸) 모두 합하여 39만 1천여 평, 가구수 2천 266호, 인구 1만 여 명이 증가하여, 종래의 수륙 면적 93만 7천여 평을 더하면 면적은 232만 9천여 평이 되었고, 여기에 종래의 가구수 5천 850여 호, 인구 2만 6천 5백여 명을 더하면 호수는 9천 110여 호, 인구 3만 6천 5백여 명을 헤아려 남부지방의 큰 도회지로서의 면목을 한층 더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의 규정에 의해 종래 24명의 부회 의원은 3명이 늘어나 27명(2명은 일본인, 1명은 조선인)이 되었고, 12월 21일 증원된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였다. 나아가 부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예전부터 현안이었던 부 내의 구역 및 정명(町名) 개정을 10월 1일부터 단행하여, 시가지의 모습 및 가로 규모를 정비하였다.

한편 1932년은 비상시국으로 당시 일본은 물론 총독부도 민심작흥(民心作興), 자력갱생이 높아져서 민중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이에 군산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꾀하기 위해 시설개요를 작성하여 부민에 대해 예의 실행을 장려하는 한편 혹은 강연회를 개최하고, 혹은 부내의 육영 교화에 종사하는 사람 및 유식 계급자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 이런 취지를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데 힘쓰고 민풍의 진흥에 노력을 다하였다. 동시에 만주사변⁶⁷⁾ 문제로 국제연맹의 분위기가 일본에 험악한 경향을 보임에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서 국방에 대한 사상 관념이 갑자기 대두하였다. 따라서 군산부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군산 국방의회⁶⁸⁾와 연합하여 여러 차례 강연회를 개최하여 이

67) 원문에는 '일중분쟁'으로 되어 있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이 국제연맹에 일본군의 철수를 요청하여 중·일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었다.

68) 국방의회는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파시즘운동이 고조되면서 재향군인들을 중심으로 조

사상 관념을 고취시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요컨대 1932년도 군산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매우 다사다난하다고 할지라도 이 다사다난은 비상시국인 오늘날 부민의 의기(意氣)를 긴장시키고, 정신을 진흥시키기는 데 도움이 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한편에서는 여러 종류의 시설 계획이 착착 실현되고 있어서 확실히 군산은 1932년을 계기로 약진하는 계단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직된 관변 단체인데, 조선에서도 1932~33년부터 총독부와 조선군의 주도로 일본인 재향군인과 조선인 친일 유지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다. 주요 활동은 국방헌금을 모금하여 기관총을 헌납하거나 만주사변·중일전쟁 등 시국에 대응해 민간의 국방 인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군사 강연, 영화 상영 등을 실시하는 것이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Ⅲ-3(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647쪽]. 1932년 초에 부산국방의회가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군산국방의회도 1932년에 조직되었다면 상당히 빠른 시기에 결성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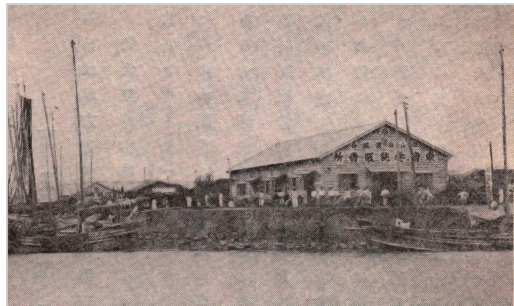
제8장 1933년도 군산부 행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32년 군산은 시종 다사다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종류의 도시 시설이 착착 정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 행정 구역이 확장되어 지금 군산은 호남의 큰 도시로서의 면모를 구비하였다. 1933년도에 들어와 인플레이션 경기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재계 불황이 계속되어 향후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시세(時勢)가 발전하는데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군산부의 발전 및 부민의 복리를 증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군산부 이사자(理事者)로서 1933년도 예산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안배하고, 나아가 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 위에서 긴급한 시설 사업을 계상하였다. 3월 19일부터 9일간에 걸쳐 소집된 부회에서 1933년도 예산을 심의하였다.

개회 첫머리에 사토(佐藤) 부윤이 한 연설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지방제도 개정 후 세 번째의 통상 부회를 소집하여 1933년도 일반 예산 및 신규 사업 및 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하였던 바, 다수의 의원이 출석하신 것은 부 행정을 위해 진실로 기쁜 일입니다.

회고해 보면 작년 만주국이 건설되어 벌써 일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사이 순조롭게 새로운 국가의 형체와 조직을 정비하여 일본



군산부영 동빈 수산시장

의 권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군벌의 압제 아래에 있던 만주의 민중 해방과 구제(救濟)를 실현한 것은 실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덧없이 일어나는 항일 책동은 최근 러허(熱河)⁶⁹⁾의 동란으로 확대되었고, 일면 제네바에서 만주사변 문제는 국제연맹이 인식을 결여한 채 끝내 부당한 권고를 감행하여 일본을 압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표가 제네바에서 철수하는 사태에 이른 것은 국제 우호에 충실한 일본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⁷⁰⁾

이처럼 만주 문제 및 국제 관계는 금후 점점 중대해 지고 있으니 국운(國運)을 걸고서 후일을 대비하는 굳은 결심과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일본 내각의 최고 간부 및 제네바 국제회의에 출석한 마쓰오카(松岡) 전권대사와 모든 사람들에 대해 큰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만주사변에 참가한 출동 장병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69) 러허(熱河)는 중국 베이징의 동북에 있는 현재 허베이성(河北省)의 청더(承德)를 가리킨다.

70) 만주사변 후 중국이 일본을 국제연맹에 제소했고, 국제연맹은 '일본의 침략행위로 규정하여 철수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은 1933년 2월 20일 국제연맹 탈퇴를 결정했다.'

게다가 지금의 경제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자면, 세계적인 불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어떠한 서광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달러 왕국’으로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미국도 금융 공황의 위기가 임박하여 일본 재계의 영향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날이 시세가 새롭게 발전하므로 이에 순응하는 시설을 위하여 부 행정의 발전과 부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1932년도에는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1) 도서관을 신설하여 일반 부민의 지덕(智德)을 향상하는 자산으로 삼았고 (2) 회생원(回生院)을 신축하여 위생시설의 만전을 도모함과 동시에⁷¹⁾ (3) 공설운동장을 신설하여 체육을 장려하여 운동경기에 유감이 없도록 힘쓰며 (4) 공원을 확장하여 일반 부민이 유람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 본 연도에는 상수도 확장 공사도 준공하여, 금후 10개년 간은 급수에 지장 없는 큰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6) 하수 공사도 준공하여 이에 오랫동안 계속된 2대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7) 어장과 항만의 축조는 그 이후 현저하게 진척되어 올 연말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8) 도축장 신축 (9) 묘지 확장 (10) 구 부청사 부지의 정비 (11) 도로 개축 등 많은 중대 안건을 모두 실현하여 부민에 기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의 시설을 완비하는 한편 오랜 현안이었던 행정 구역도 확장하여 부의 면적을 배가하여 인구가 일약 3만 7천을 헤아리게 된 것 또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옛 군산은 지금 큰 도시로 바뀌었고 호남 제일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금후 부 행정이 더욱더 진전되면서 필연적으로 많은 시설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장기 불황에 신음하는 부민에게 이 이상의 부담을 가중할 수 없으나, 일시적으로 물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군산부가 발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도 예산에 대하여 이사자(理事者)는 특히 신중하게 고려하여 우리 부의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참으로 긴급한 안건만을 계상하여 부세의 발전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 총액은 세입 경상부 214,718원, 임시부 291,534원이고, 세출 경상부 162,456원, 임시부 343,796원으로 세입출 총 합계 506,252원입니다.⁷²⁾ 이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51,3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의 증감을 보면 증액 187,122원, 감액 135,822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구역 확장 또는 자연 증가에 의한 부세 8,220원을 비롯하여, 공회당 건축 등의 기부금 40,820원과 신규 사업인 수영장, 공회당, 운동장의 사용료 및 상품 진열소 매매수수료를 포함한 사용료 및 수수료 8,012원, 공익전당포(公益質屋) 수입 787원, 기타 수입증지 수입 1,568원, 잡수입 7,461원, 재산 매각 대금 65,150원 등입니다. 감소된 것은 하수 및 수도 공사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 47,000원과 격리병사 건축 보조 3,830원, 수도 확장 부채(府債) 30,000원, 기타 전년도 수입 6,641원, 재산 매각대금 27,999원, 채석 수입 15,900원을 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출의 증가액은 감액 187,371원, 증액 238,671원이며,

71) 1932년 6월 9일 군산부회에서는 「군산회생원 사용조례」를 심의, 결정하였다(『全羅北道, 群山府會(九日), 回生院使用條令その他を附議』, 『朝鮮新聞』, 1932.6.11).

72) 본문의 <표 25> 1933년도 군산부 예산과 다르다.

감소된 것은 하수 및 수도 공사비 113,000원과 도축장, 운동장, 격리병사의 건축비 25,875원 및 채석장비 12,982원을 합한 것입니다. 또한 증가된 것은 경상부의 사무비, 토목비 및 수도비 등이고 기타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의 신규 사업도 상당히 증가하였 습니다만(별항 주요 사업 참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부의 재산이고 또한 부민의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계상한 긴요한 안건뿐입니다. 아무쪼록 의심스러운 점은 무조건 질문해 주시고 더불어 기탄없는 의견도 잘 경청하여 부 행정의 발전과 부민의 복리를 증진할 것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부디 신중하게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933년도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24> 1933년도 군산부 예산(단위 원)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218,866	291,534	510,400
세출	166,155	344,245	

<표 25> 1933년도 지속적인 신규사업(단위 원)

사업종별	예산액	지속기한	비고
부세(府勢) 소개	1,000	1개년	전선미곡상조합 연합대회 개최
도로개수	10,500	1개년	·둔율정(屯栗町): 5,000 ·신평정(新豊町): 4,000 ·강호정(江戶町): 500 ·교량: 1,000
공회당 건설	100,000	1개년	공회당 건설 관련 상세한 내용은 후술
군산 시장 건설	972	1개년	
동빈(東濱) 어시장 건설	5,630	1개년	
상품진열소 설립	4,000	1개년	
공익 전당포(質屋) 설립	9,136	1개년	·용지비(用地費): 2,520 ·건설비: 5,855 ·설비비: 761
수면(水面) 매립	25,000	1개년	·해망정(海望町): 17,000 ·해망정 제2기: 8,000

<표 26> 1933년도 계속사업(단위 원)

사업종별	예산액	지속기한	비고
어장과 항만 수축	40,000	3개년(1931~1933)	예산총액: 120,000 ·지방비보조: 20,000 ·부채(府債): 100,000 ·국고보조 및 부채이자(2개년): 98,050

1927년부터 1932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이었던 제2기 하수공사와 1929년부터 1932년

까지 4개년 계속사업이었던 수도 확장 공사는 예정대로 1932년도에 모두 완성이었고, 1933년도에는 하수와 수도 시설을 보충하는 것에 전념했다.

군산부 1933년도 제1부, 제2부 특별경제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27> 1933년도 제1부 및 제2부 특별경제 세입출예산(단위 원)

항목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제1부	세입	71,010	55,326	126,336
	세출	88,977	37,359	
제2부	세입	26,210	64,621	90,831
	세출	35,729	55,102	

<표 28> 1933년 제1부 및 제2부 특별경제 신규사업(단위 원)

항목	사업종별	예산액	비고
제1부	소학교 강당 증축	5,358	87평
	소학교 위생실 건설	1,350	18평
제2부	제2보통학교 건설	51,671	·용지 매수비: 8,000 ·건축비: 43,671 총 457평

□ '계(係)'를 '과(課)'로 개칭

군산부에서는 종래의 '서무계' '내무계' '재무계'의 세 개의 계를 1933년 4월 1일부터 '과'로 개칭하였다. 또한 세 과 아래에 속한 각 계 및 주임은 다음과 같다.

서무과 문서, 인사, 국도비 회계, 부비 회계

내무과 부정, 학무, 사회, 토목, 수도, 영선, 권업, 위생, 호적

재무과 징세, 도세, 호별세, 특별영업세, 잡종세, 부세외 수입

서무과장 나가누마 조지로(長沼貞治郎), 문서인사계 주임 쓰치다 모토토시(土田元敏), 회계계 주임 (현재 결원 중), 용도계 주임 아리쓰네 야스쿠라(有常泰藏)

내무과장 가미조 신이치로(上條新一郎), 부정계 주임 아리무라 다쓰오(有村龍熊), 학무계 주임 김봉진(金鳳鎭), 사회계 주임 후지타 후미이치(藤田文市)(촉탁), 토목계 주임 구라시나 마고타로(倉科眞太郎), 수도계 주임 이데우라 간리(出浦勘利), 영선계 주임 이와타 도쿠(岩田徳), 권업계 주임 우에다 사다헤이(上田定平)(촉탁), 위생계 주임 니나가와 다카오(蜷川敬

夫)(축탁), 호적계 주임 후나다 요시오미(船田義臣)
 재무과장 바바사키 사네오(馬場崎實穗), 부세부과계 주임 사사다 도시이
 재무과 치(笹田歳一), 징세계 주임 히메노 소주로(姫野惣十郎), 도세계 주임 구루
 마 시치오(車七男)

□ 보궐 의원 선거

부회의원 2명이 실격됨에 따라 보궐 선거를 6월 10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권태형(權泰亨), 이용우(李用雨) 두 사람이 당선되었다. 또 11월에 김서집(金瑞集)이 사임함에 따라 11월 25일 보궐 선거를 하여 그 결과 이만수(李晩秀)가 당선되었다.

□ 의원 일본·조선·만주 도시 시찰

올해도 1932년도와 같이 군산의 발전 진흥을 위하여 일본, 조선, 만주(올해는 만주를 추가함)에서 항만, 부업, 가정공업 기타 도시 시설의 상황을 시찰 조사하기로 하여 의원 중에서 추첨으로 조사단을 정하고, 이를 3개 반으로 나누어(1개 반은 2명) 제1반은 만주, 제2반은 한국 북쪽지방, 제3반은 호쿠리쿠(北陸)지방⁷³⁾을 시찰 조사하였는데 모두 적지 않은 수확이 있어서 기쁜 일이다.

□ 도회(道會) 의원 성명

1933년 4월 1일 실시된 도제(道制) 개정의 결과 군산에서 전형 임명된 전라북도 관선 도회 의원 및 민간에서 선출된 민선 도회 의원은 다음의 세 명이다.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관선),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관선),
 히가키 마고사부로(檜垣孫三郎, 민선)

□ 도시의 시설을 착착 실현함

1933년도 중 군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같은 해 3월에 준공된 축항의 이용 및 전년 부터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거친 공회당 건설이다. 축항 이용은 뒷장에서 서술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공회당 건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여러 차례 관계 당국자 사이에서 협의를 거친 결과 점차 부에서 이것을 경영하는 것으로 되었다.

군산부의 이사자(理事者)는 신규 사업으로 193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3월 개최된 부회에 제안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후 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한 결과 가결되었다. 이후 군산부 이사자는 예정된 성안에 기초하여 이를 설계(단 그 후 몇 차례 걸친 설계 변경이 있었음) 및 건설 장소를 빌리고 재원 등에 대한 수속을 완료하였다. 드디어 8월 7

73) 호쿠리쿠(北陸) 지방은 현재의 후쿠이(福井)·이시카와(石川)·도야마(富山)·니가타(新潟) 등 여러 현을 총칭하는 말이다.

일 부청에서 지명 입찰을 시행한 결과 78,700원으로 부 내의 토목 건축 청부업 시노다구미(篠田組)⁷⁴⁾에 낙찰되었다. 동 회사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1934년 4월 말에 준공하였다. 기타 1933년도에 계획 착수된 신규 사업은 이후 전부 준공되어 도시로서의 면목을 더욱더 발휘하게 되었다.

74) 시노다조가 합자회사로 전환된 것은 1936년이였다. 자본금 1만 5천원으로 군산 장재정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토목 건축 청부 및 관련 부대사업을 했다.

제9장 1934년도 군산부 행정

군산부 193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군산부회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1일 휴회) 9일간 개최하였다. 개회 첫머리에 사토(佐藤)부윤이 연설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오늘 통상적인 부회를 소집하여 1934년도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여러 안건 심의를 요청하고 개최하여 소회의 한 마디를 피력함과 동시에 예산 편성의 방침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12월 23일 외람되게도 9천만 국민이 모두 기대하던 일본 왕자⁷⁵⁾의 탄생을 경배하였습니다.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왕자가 정해져 왕실의 번영이 온 세상과 함께 끝이 없는 국가의 기초가 점차 공고해진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상서로움으로 진실로 환영하고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일본제국을 둘러싼 내외의 정세를 보면, 안으로 경제계는 세계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앞길을 낙관하기 어렵고, 사상계의 동향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물질·사상 두 방면 모두 혼돈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밖으로는 이웃 나라 만주국이 건국된 지 2년으로 이번 달 1일에 제정(帝政)을 반포하여 왕도 낙토(王道樂土)의 건설을 구현하기에 이르러, 신흥국가의 기초를 점점 다져 동양에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연맹 이탈 후에 일본제국의 국제관계는 점차 중대해져 매우 미묘한 동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로 미루어 국민이 분발하고 긴장하여 당면한 다사다난한 시국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어 우리 군산부의 정세를 보니 관민이 총화의 노력으로 나날이 건실히 발전시켰고 부민이 간절히 바란 제1기 축항 공사를 지난 해 완공하였으며, 오늘 빛나는 개항 3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금후 한층 더 많은 시설 혹은 개선을 요하는 것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로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긴장하면서 영원한 복지를 목표로 부민이 일치하여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할 것을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의 있는 협력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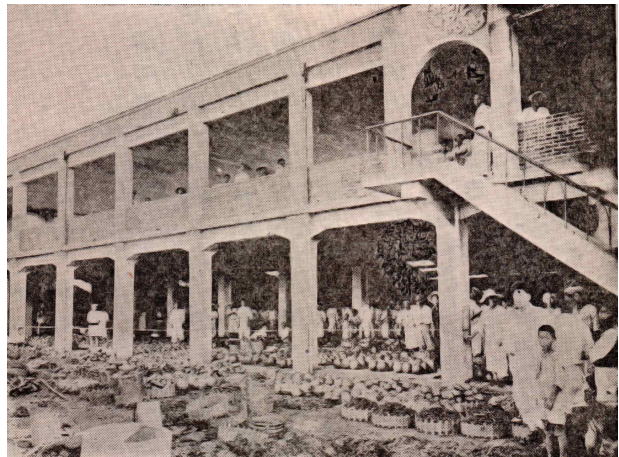
1933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경제는 지금도 원활하지 않고 미곡 통제의 영향으로 시장 상황은 점점 침체 부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매각하려던 토지도 예정된 가격으로는 매각이 곤란합니다. 또한 부세 등을 징수할 때 적지 않은 수고를 해도 예상한 성적을 거둘 수 없어서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여 구채(舊債)를 대체하면, 동

75) 일본 왕자(皇太子)는 일본 제125대 왕인 아키히토(上皇明仁)를 말한다. 아키히토는 1933년 12월 23일 출생하였고, 1989년 왕위에 올라 2019년 4월까지 재위하였다.

시에 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서 겨우 수지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의 일반 시설 사업은 모두 순조로운 과정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931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공 중인 여장과 향만 수축 공사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933년도에 새롭게 계획했던 공회당 신축 공사는 작년 8월 7일 입찰하여 군산부 시노다구미(篠田組)에 낙찰되었고, 전기, 수도 및 난방 장치를 별개의 도급으로 본 공사와 병행하였는데 모두 청부인(請負人)의 각고한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보통 결빙기에 콘크리트와 같이 물이 필요한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기 때문에 오는 4월 중에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익전당포도 부지 매수에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늦은 8월 20일 기공하여 12월 10일 준공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대출금 3,685원, 회수금이 1,077원에 달하여 상당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빈정(東濱町) 어시장의 경우 설비는 정비되었지만 수축과 개시의 시기가 지체되어 새해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개수 공사 중 신평정(新豐町) 도로는 이전에 보고한 대로 중지



군산부영 식료품 시장

하였고, 둔율정(屯栗町) 도로 및 강호정(江戶町) 도로는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1933년도 중요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934년도 우리 군산부 예산은 최대한 절약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부행정의 현황은 공연히 긴축 정책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지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재정을 검토하고 장래에 미치는 건실한 재정을 허비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이전부터 현안이었던 제반 시설 사업의 확충을 계획하여 부세의 진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년도 세입은 경상부 212,443원, 임시부 223,895원 합계 436,338원이고, 세출은 경상부 168,110원, 임시부 268,228원 합계 436,338원으로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⁷⁶⁾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세입에서 경상부 6,423원, 임시부 67,629원을 줄였으며, 세출에서 경상부는 1,959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부에서도 76,017을 줄여 정산하면 74,062원을 줄인 것입니다. 중요한 증감 요인을 보면 세입 경상부의 감소는 도로 사업을 중지하여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부세(府稅) 잡종세 중 거래소세는 미곡통제의 영향으로 거래액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거래소 자체의 존속에도 관계된 터라 이미 정한 방침에 기초하여 세율 약 2할을 체감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항구적인 재원의 감소에 대신할 만한 재원의 보충이 필요하지만 현재 부민

76) <표 31> 1934년 군산부 세입·세출 예산과 다르다. 연설문의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의 경제 상태에서는 증세 또는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인 재원으로 보전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 연구할 예정입니다. 임시부의 감소는 공민 구제 사업으로 시행한 어장과 향만(漁港)의 수축 공사를 완료하고, 본 재원인 보조금과 부채 및 공회당 건설비 재원에 충당한 토지 매각대금이 감소하여 이월금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출 경상부의 증액은 직업장려관⁷⁷⁾을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임시부의 감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장과 향만 수축 및 공회당 건설 등 때문입니다. 또한 본 연도에 계상한 주된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면 (1) 동빈(東濱) 공동하역장의 정리 59,000원, (2) 서빈(西濱) 및 해망정(海望町) 매축지 철도 연결선의 부설 41,000원, (3) 공회당 설비 4,800원, (4) 하수비 2,000원, (5) 수도설비 1,995원, (6) 도축장 설비 2,000원, (7) 경비(警備)의 충실 1,500원 (8) 명치정(明治町) 사조통(四條通) 및 영정(榮町) 도로의 포장 8,100원 (9) 직업장려관 신설 14,000원 (10) 공설세탁장 설치 400원 (11) 공민수용 설비 313원 (12) 개항 35주년도 및 공회당 낙성기념비 4,500원 등입니다.

동빈 공동하역장은 연안 무역상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대부분 특정인이 점용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정비하여 총 면적 2,160평 중에 창고(上屋) 1,116평을 건축하고 배후에 철도 연결선을 부설하여 연안 무역을 원활하게 도모하는 것으로 공사비 5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재원은 전부 기채로 조달하고 그 기채 상환 재원은 설비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로 충당한 것입니다. 해당 사용료는 장래 매년 14,000원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채 상황에 충당한 잔액 또한 종전의 수입에 비해 증가하여 일반 재원을 확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서빈 및 해망정 매축지 “철도 연결선”⁷⁸⁾은 해당 지역의 땅 값 폭등과 이용 가치가 점차 증가하여 포설하게 된 것으로 공사비 4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재원은 위와 같이 기채에 의하고 그 수입 또한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치정 사조통 및 영정 도로의 포장 공사비는 총 합계 8,100원으로 그중 약 반절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반액은 부의 경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직업장려관은 부내의 청년 자녀 중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위도식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직업을 구해 주어 생업에 종사하여 자활하는 길을 강구하게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건실하게 가정공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이 경비로서 경상부에 4,920원, 임시부에 1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재원은 경상부는 부 경비로 하고, 임시부는 건축비로 그 중 4,000원은 도비(道費)의 보조, 10,000원은 기채로 하며, 그 상환 재원은 일반 부 경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공설세탁장은 지금까지 공동 우물의 주위에 간이 시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새로 경포정(京浦町)의 하천 일부에 설치하기 위해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민 수용 시설은 1월 1일 출정(出町) 운동장 지대에 거주한 세민(細民)을 격리병사 인근 지역에 일시 수용하였던 것이지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77) ‘직업장려관’은 1934년에 군산부에서 처음 신설한 제도로 보이며, 이듬해인 1935년에 진남포에서도 직업장려관을 설치하였다. 15세 이상 청년에게 공업기술을 가르쳐 군산의 공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群山府計劃의 職業獎勵館』, 『東亞日報』, 1934.2.18.)

78) 본선에 특정지역까지 끌어들인 선로를 말한다.

이외에 이미 시행한 사업의 경영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과 시설에 대한 재원을 기채 또는 토지 매각대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입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시행할 때에 수지(收支) 여부에 유의하여 계산 착오가 없도록 각오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수호신인 조선신궁이 자리 잡은지(鎮座) 10주년의 성대한 행사가 행해지는 한편 봉찬회⁷⁹⁾를 조직하여 오직 신의 대도를 선양하여 국민정신의 진작에 기여케 한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분께서는 위원으로서 이 봉찬회에 협력해 주실 것이겠습니까만 법인[法人]⁸⁰⁾으로 부(府)에서도 어느 정도 희사(喜捨)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신문 등을 통해 알고 계시듯이 본 군산부는 1934년도부터 세별(稅別)로 정리하기로 내정하였습니다. 즉 개인 소득세의 신설, 지세의 과율 저감, 소액 지세의 면제, 세무 기관의 독립 등입니다. 이것을 실시할 때 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포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및 이에 따른 여러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점은 심의하실 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은 기대에 차지 않는 점이 있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삼가 받아 들여 주시어 신중하게 심의하고 협력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위 부윤의 연설이 끝나자 의장은 원안에 기초하여 193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시작으로 연일에 계속 심의하고 드디어 다음의 안건을 제출 심의에 부쳤다.

<표 30> 1934년도 군산부 세입·세출 예산(단위 원)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212,443	213,895	426,338
세출	166,060	260,278	

<표 31> 1934년도 신규사업(단위 원)

연번	사업종별	예산액	연번	사업종별	예산액
1	동빈(東濱) 공동 하역장(荷揚場) 정리	59,000	8	군산 시장 운영비	700
2	서빈(西濱) 및 해망정(海望町) 매립지 철도 연결선[引込線] 부설	41,000	9	경비(警備)	1,500
3	공회당 설비	4,800	10	명치정(明治町),	9,100

79) 1915년 4월 메이지 신궁 건립계획이 확정되자 건축비 모금을 위해 건립된 단체이다.

80) 1930년 12월 지방 제도 개정을 통해 행정단위인 부와 도가 법인 자격을 갖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번	사업종별	예산액	연번	사업종별	예산액
				사조통(四條通), 영정(榮町) 도로 포장	
4	공원 신영비	5,222	11	직업 장려관 신설	14,000
5	하수비	2,000	12	공설 세탁장 설비	400
6	수도 설비	1,995	13	궁민 수용 설비	313
7	도축장 설비	2,000	14	개항 35주년 및 공회당 낙성(落成) 기념비	4500

□ 기채 및 여러 조례 개정, 설정

동빈(東濱) 공동하역장 설비비 기채(59,000원, 1936년 4월 31일까지 거치, 이후 15개년 상환), 서빈(西濱) 철도 인입 하역장 설비비 기채(41,000원, 1936년 5월 31일까지 거치, 이후 15개년 상환), 군산부 회생원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군산부 공동하역장 사용 조례 중 개정의 건, 군산부 도로 포장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 부동산 매각 특별 취급에 관한 조례 설정의 건

부회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20일부터 29일까지(1일 휴회) 9일간 개최하여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2~3의원이 동의함에 따라 이사자(理事者)가 이를 동의 제안하여, 임시부 세출에서 대화정(大和町) 도로 가의 도랑(한쪽) 설치비 8백 원, 가정공업 특수 조사 보조비 3백 원을 새로 계상하고, 다시 조선인 시장 개선비로 3백 원을 더 계상하여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 중 중요한 것으로 직업장려관 설치, 동빈 공동하역장 설비, 서빈 철도 연결선 부설 등 세 안건은 위원에 부의하였고, 이후 위원에서 조사 연구한 결과 동빈 공동하역장 설비 및 서빈 철도 연결선 부설 두 안건은 계획이 긴요하고 또한 적절한 것이므로 원안에 찬성하였고, 직업장려관은 원안보다도 조금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빈 공동하역장, 서빈 철도 연결선 부설, 직업장려관은 부대시설 사업 항목에서 다룬다.

□ 1934년도 제1부 특별경제예산

1934년도 군산부 제1부 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을 심의하는 교육부회(教育部會)는 3월 26일, 30일, 31일 3일간 개최되었다. 먼저 부운의 연설이 있었고, 다음에 아래의 예산안을 비롯하여 신규 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표 32> 1934년도 제1부 특별경제 예산(단위 원)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67,672	38,294	105,966
세출	86,599	19,367	

□ 신규 시설 및 기타

고등여학교 건축비(창고 개축비 390원, 소학교 설비비(운동장 용지 매수비) 11,280원, 설비비(소학교·여학교) 1,650원, 학교 위생비 355원, 기부 및 보조 700원, 부채비(府債費) 4,491원, 소학교 개교 35주년 기념비 500원

□ 1934년도 제2부 특별 경제 예산

군산부 1934년도 제2부 특별 경제 세입출 예산을 심의하는 교육부회는 3월 27일 개최되었다. 개회 후 먼저 부윤의 입장 연설이 있는 후에 아래의 예산안을 비롯하여 신규 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표 33> 1934년 제2부 특별경제예산(단위:원)

세입		세출		신규 시설 및 기타			
경상부	27,297	경상부	36,088	설비비	727	기부 및 보조	100
임시부	12,610	임시부	3,819	적립금	1,011	부채비	1,980
합계	39,907	합계	39,907				

□ 의원 만주, 대만 시찰

군산부에서는 올해에도 전년도에 예에 따라 부회 의원이 각 도시에서 시설 및 가정공업을 시찰 조사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만주 및 대만 두 지역을 추첨한 결과 각각 3명씩 결정되었는데 대만 시찰은 의원의 사정으로 중지되었다.

제10장 군산부 재산

1934년 3월 현재 군산부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표 34> 공용 및 공공용 재산

종류	항목	구분	수량	가격(원)	비고
공용 및 공공용 재산	청사(廳舍)	건물	336.63평(坪)	41,018	
	창고	건물	21평	1,736	
	자동차 창고	건물	35평	893	
	도로 부지	도로	687.60평	3,435	
	공원	건물	12.93평	466	
	토 대기소	건물	39.35평	1,097	
	목 창고	건물	11.37평	351	
	회생원(回生院) 건물	건물	127.175평	8,516	
	격리 수용소	대지	1,104평	2,208	
		건물	112.61평	4,343	
	오 물	인부 대기소	건물	12평	380
		자동차 창고	건물	12평	186
		담당자 가옥	건물	12.6평	224
		탱크	발	621평	994
		공작물	6권	4,185	
	공용 화장실	건물	9.26평	510	6동
	묘지	묘지	54,319평	10,614.10	일본인 묘지 5,758평 조선인 묘지 48,561평
		건물	23평	373	사장리(沙場里)
	화 장 장	화장장(火葬場)	임야	1,800평	540
			발	56평	112
			건물	31.5평	2,633
			화장로(火葬爐)	3기	6,043
		도로	도로	55평	55
		대합실	발	199평	398
			대지	217평	434
			건물	16.58평	958
	도 축 장	도축장[屠場]	대지	177평	354
			발	2,087평	4,174
			건물	135.21평	6,894
		감시인 주택	건물	13평	834
	수 도	사무소 및 공장	대지	400평	6000
			건물	122.75평	6,275

종류	항목		구분	수량	가격(원)	비고
공용 및 공공용 재산		수원지(水源地)	임야	255,000평	25,500	수원지 함양림(涵養林)
			저수지	22,196평	1,109.80	
			건물	147.7평	8,057	
		송수로(送水路)	수로	679평	679	
		여과지 및 배수지	수도용지	9,797평	9,797	
			도로	439평	878	
			건물	70.63평	4,237	
		재료 감시소	건물	14.5평	550	
		양수(揚水) 장치	공작물	73m	425	철관(鐵管)
		송수선(送水線)	"	4,029m	42,608	
		배수선(配水線)	"	17,494m	113,911	
		보조영(補助營)	"	1,353m	1,903	
		중유(重油) 기관	기계류	3기	28,605	즐통소(唧筒所)
		변압장치	"	1기	2,146	
		중유 탱크	공작물	1기	279	
		배수지 및 여과지	"	1기	54,636	
		집수정(集水井)	"	2기	4,486	
	운동장	운동장	대지	1,008.9평	10,089	
		스탠드	공작물	1기	1,800	
		화장실	건물	5평	400	
		도서관	건물	105.5평	9,710	
		군산시장	건물	540.5평	6,152	
		식료품시장	건물	112평	2,910	
		서빈(西濱) 어시장	건물	140평	3,916	
		동빈(東濱) 어시장	건물	103.25평	4,350	
		공설 목욕탕	건물	26평	3,136	
		공설 이발소	건물	9.25평	549	
		행려병인 구호소	대지	320평	640	
			건물	20.5평	1,741	
		공익 전당포	대지	141평	2397	
			건물	69.75평	5,444	
	소방	상시 소방 대기소	대지	16평	960	
			건물	33.2평	2,557	
		창고	건물	21.2평	1,128	
		망루	공작물	4기	616	알림종 포함
		호스 간대(干臺)	"	2기	39	
		저수 탱크	"	9기	3,272	
	우물		"	25기	7,915	공동 우물 23기
	선박		"	8척(隻)	2,471	
	시보대(時報臺)		"	1기	1,489	
	석탄저장소		"	1기	94	

종류	항목	구분	수량	가격(원)	비고
	공동 하역장(荷役場)	대지	14,289평	214,335	
	합계	토지	365,608.50평	295,702.90	
		건물	25,059.45평	130,528	
		선박	8척	2,471	
		공작물		215,829	
		기계류		58,623	
		총계		703,153.90	
일반 기본 재산	토지	밭	3,045평	6,050	
		논	600평	600	
		대지	1,944평	21,867	
		임야	3,575평	3,575	
	주택	건물	29평	1,432	
	현금			7,678.94	
	합계	토지	9164평	32,132	
		건물	29평	1,432	
		현금		7,678.94	
		총계		41,242.94	
특별 기본 재산	위생기본재산	현금		369	
	합계	현금		369	
		총계		369	
적립금	시가지 축조 적립금	현금		7,844.18	
	부이원(府吏員) 퇴직금 및 유족 부조금 적립금	현금		1,485.20	
	진흙구제 적립금	현금		1,050	
	도서구입 적립금	현금		300	
	합계	현금		10,679.48	
		총계		10,679.48	
보통 재산	토지	논	9,321평	5,126.55	
		대지	4,057평	52,741	
		잡종지(雜種地)	303평	3,030	
		폐도(廢道)부지	1,246.30평	9,970.40	
	점포	건물	50평	1,723	
	합계	토지	14,927.30평	70,867.95	
		건물	50평	1,723	
		총계		77,590.99	
총계		토지	389,699.80평	98,702.85	
		건물	2,584.945평	133,683	
		선박	8척	2,471	
		공작물		215,829	
		기계류		58,623	
		현금		18,727.42	
		합계		828,036.27	

<표 35> 차입(借入) 재산표(공용 및 공공용)

항목	구분	수량	비고
군산시장	토지	2,954평(坪)	국유
식료품시장	토지	246.1평	민유
공설운동장	토지	3,941평	국유
공원	토지	7,661평	국유
소방용구(消防用具) 창고 및 주택	토지	160평	국유
토목공사 재료 저장소	토지	2,662평	국유
잔교(棧橋) 공사장	토지	2,376평	민유
	건물	289평	국유
	공작물	1세트	국유
수도(水道)	토지	2,121평	국유
공회당	토지	1,504평	국유
공동하역장	토지	27평	국유
합계	토지	23,652.1평	
	건물	289평	
	공작물	1세트	

<표 36> 차입재산표 (단위:원)

부채(負債) 종별	기채액 (起債額)	이율	기채 연도	미상환액	1934년도 원금상환액			1934년도 이자지불액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수도 확장 공사비 기채	55,000.00	5.4	1929~ 1931	53,786.66	1,279.75	1,314.30	2,594.05	1,418.59	1,384.04	2,802.63
	13,000.00	4.8	1931	12,699.14	315.47	323.04	638.51	297.39	289.82	587.21
	40,000.00	5.3	1931~ 1932	20,230.00	472.31	484.82	957.13	202.68	523.58	726.26
수도공사비 단기채(短起債) -도비(道費) 보조금	30,000.00	6.6	1932	15,000.00		15,000.00	15,000.00	495	495	990
소계	138,000.00	-	-	101,715.80	2,067.53	17,122.16	19,189.69	2,412.66	2,692.44	5,106.10
공유수면(公有水面) 매립비기채	31,875.00	5.4	1931~ 1932	30,652.11	1,289.82	1,324.65	2,614.47	793.7	758.87	1,552.57
	12,350.00	5.3	1932	6,650.00	273.78	281.03	554.81	66.62	168.97	235.59
	2,600.00	5.3	1933	14,000.00	57.64	59.16	116.8	14.02	35.58	49.6
소계	46,825.00	-	-	38,702.11	1,621.24	1,664.84	3,286.08	874.34	963.42	1,837.76
제2하수(下水)	8,750.00	5.4	1931	7,856.28	290.55	298.4	588.95	204.49	196.64	401.13
공사비기채	8,125.00	5.3	1932	4,130.00	149.53	153.48	303.01	41.37	105.49	146.86
소계	16,875.00	-	-	11,986.28	440.08	451.88	891.96	245.86	302.13	547.99
야간행(夜間行)수축 공사비기채	25,500.00	3.9	1931	25,500.00	-	-	-	497.25	497.25	994.5
	24,700.00	3.5	1932	24,700.00	-	-	-	432.25	432.25	864.5
	24,800.00	3.5	1933	24,800.00	-	-	-	434	434	868
	25,300.00	5	1932~ 1933	25,300.00	-	-	-	632.5	632.5	1,265.00
소계	100,300.00	-	-	100,300.00	-	-	-	1,996.00	1,996.00	3,992.00
공익전당포 기채	10,000.00	5.4	-	10,000.00	-	-	-	270	270	540
소계	10,000.00	-	-	10,000.00	-	-	-	270	270	540
제2회 공채(公債)	230,000.00	4.6	-	23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6,737.74	5,170.00	2,907.74
소계	230,000.00	-	-	23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6,737.74	5,170.00	2,907.74
합계	542,000.00	-	-	492,704.19	14,128.85	29,238.88	43,367.73	12,537.60	11,393.99	23,931.59

제11장 군산부 행정구역 확장

군산부 행정구역 확장은 1927년 사와무라(澤村) 부윤 때 계획을 수립하고, 본 군산부 주무당국에 인가 신청을 제출하였지만, 확장구역이 당시 군산으로서는 다소 지나치게 방대하였고, 또한 당국의 주의도 있어서 일시 중지되었다. 그 후 1930년 마에다(前田) 부윤 때에 이전 계획을 축소 개정하여 다시 인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현 사토(佐藤) 부윤 때에도 여러 차례 인가 부서에 간청하였다. 그 사이 당국은 수차례 실지 조사를 하였고 결국 인가하였다. 1932년 9월 24일자 총독부령으로 발표되어 10월 1일부터 실시되어, 군산부가 수년간 가지고 있던 현안은 점차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군산이 남부 지방의 경제 도시로 발전할 전기를 만들었고, 이제 곧 바야흐로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여 부 행정구역 확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모두 축하해 맞이해야 할 일이다. 확장 구역은 옥구군 미면(米面), 개정면(開井面)의 일부로 확장 면적은 수륙 모두 합하여 139만 1천여 평, 호구 일본·조선인을 합해 호수 2,266호, 인구 1만여 명이다. 그리하여 종래 일본·조선인 호수 5,850호, 인구 26,500여 명을 더하여 호수는 8,110여 호, 인구는 36,500여 명에 달하였다. 36년 전 조선인 인구 500여 명, 일본인 인구 70여 명의 작고 쓸쓸하고 궁벽한 어촌이었던 개항 당시의 군산을 회상하고 부 구역확장 후의 오늘에 이른 것을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확장구역의 면적·호수는 다음과 같다.

1. 확장구역

옥구군 미면(米面) 신평리(新豐里), 둔율리(屯栗里) 및 경장리(京場里)의 일부
옥구군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의 일부

1. 면적

<표 37> 확장구역의 면적(단위:평)

구역		면적	해면(海面)	계
군산부 원구역(元區域)		621,504.80	316,260.80	937,765.60
확장 구역	미면(米面)	735,720.00	631,800.00	1,367,520.00
	개정면(開井面)	24,189.00		24,189.00
	합계	759,909.00	631,800.00	1,391,709.00
	총계	1,381,413.80	948,060.80	2,329,474.60

〈표 38〉 확장구역의 인구 (호수 단위는 戶, 인구 단위는 名)

구역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계	
	호수(戶數)	인구(人口)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군산부 원구역(元區域)	2,160	9,115	3,580	16,843	110	581	5,850	26,539
확장구역(米面)	127	464	2,081	9,364	31	107	2,239	9,935
확장구역(開井面)	6	22	21	90	0	0	27	112
확장구역 합계	133	486	2,102	9,454	31	107	2,266	10,047
총계	2,293	9,601	5,682	26,297	141	688	8,116	36,586

□ 기념 축하회

10월 1일 정오 군산부에서는 2층 대회의실에서 부 행정구역 확장 기념 축하회를 개최하였다.⁸¹⁾ 4백여 명이 참석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내빈의 축사 및 각지에서 보낸 축전으로 성향을 이루었다. 당일 사토(佐藤) 부윤은 주최자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사를 하였다.

군산 개항 이후 만 33년이 되었습니다. 군산은 개항 이후 견실하게 발전하여 오늘날 남부 지방의 큰 도시로서 으뜸이 되었고, 게다가 오늘 옥구군 미면, 개정면의 일부까지 확장한 결과 군산의 면적은 수륙 모두 합해 139만 1천여 평이 늘어나고, 인구는 1만여 명이 증가하여, 이전 군산부와 합하면 면적 232만 9천여 평, 인구 3만 6천 5백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래 대군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이니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선배 유지(有志)와 앞서 살았던 부민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장래 유지 및 부민 여러분의 사명과 책무는 종래에 비하여 한층 중차대하여 충실하게 확장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거국적인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국민 각자의 자력갱생이 고조되고 있어서 부민 여러분께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때마침 오늘 부 구역 확장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후 대군산 건설을 모색하여 명실공이 남부지방의 큰 도시로서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81) 「群山府行政區域擴張祝賀會 一日正午府廳에서 開催」, 『每日申報』 1932.10.2.

제12장 정(町) 명칭 개정 및 구역 변경

군산부 내의 정(町) 명칭 개정 및 구역 변경은 전부터 현안이었는데 계속하여 신중하게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1932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에 의해서 시가의 형태 및 가로망의 규모는 종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정비되었다.

〈표 39〉 군산부 내 정(町)의 명칭 및 구역표

서빈정(西濱町)	금정(錦町)	천산정(淺山町)	신흥정(新興町)	월명정(月明町)
죽전정(竹田町)	금광정(金光町)	경정(京町)	약송정(若松町)	천대전정일정목 (千代田町一丁目)
천대전정이정목 (千代田町二丁目)	전정(田町)	서정(曙町)	횡전정(横田町)	명치정일정목 (明治町一丁目)
명치정이정목 (明治町二丁目)	옥정(旭町)	대화정(大和町)	전주통(全州通)	본정일정목 (本町一丁目)
본정이정목 (本町二丁目)	빈정(賓町)	행정(幸町)	원정(元町)	소화통일정목 (昭通通一丁目)
소화통이정목 (昭通通二丁目)	소화통삼정목 (昭通通三丁目)	소화통사정목 (昭通通四丁目)	개복정일정목 (開福町一丁目)	개복정이정목 (開福町二丁目)
강호정(江戶町)	동영정(東榮町)	일출정(日出町)	영정일정목 (榮町一丁目)	영정이정목 (榮町二丁目)
영정삼정목 (榮町三丁目)	장재정(藏財町)	동빈정일정목 (東賓町一丁目)	동빈정이정목 (東賓町二丁目)	동빈정이정목 (東賓町二丁目)
해망정(海望町)	천정(泉町)	송산정(松山町)	신평정(新豊町)	풍서정(豊西町)
풍남정(豊南町)	오룡정(五龍町)	도원정(桃園町)	남정(南町)	산하정(山下町)
둔울정(屯栗町)	미원정(米原町)	경포정(京浦町)	중정(仲町)	천조정(千鳥町)

〈표 40〉 부호(符號)를 쓰는 지번명

금정(錦町)	천산정(淺山町)	대화정(大和町)	본정일정목 (本町一丁目)	행정(幸町)
소화통일정목 (昭通通一丁目)	소화통이정목 (昭通通二丁目)	강호정(江戶町)	동영정(東榮町)	동빈정일정목 (東賓町一丁目)

<표 41> 군산부 정(町)의 명칭 및 구역표

정(町) 명	해당 지번		해당 지번	
서빈정(西濱町)	서빈정(西濱町)	1-1~8	본정통(本町通)	51~64
금정(錦町)	금정(錦町)	1~7-2	〃	48
	〃	11~25-2	〃	48-1
	전주통(全州通)	45~54	서빈정(西濱町)	9
천산정(淺山町)	천산정(淺山町)	1-1~14	신흥동(新興洞)	65-2
	금정(錦町)	8~10	〃	66~70
	신흥동(新興洞)	1~3-2	〃	75-1~87-2
	〃	9	〃	91-1
	〃	10	〃	91-2
	〃	65-1	〃	山1~山2-3
신흥정(新興町)	신흥동(新興洞)	4~8	신흥동(新興洞)	92-13
	〃	11-1~42	〃	92-15
	〃	53-1	〃	92-16
	〃	53-7	〃	92-39
	〃	57-1	〃	山5
	〃	57-2	〃	山6
	〃	57-4~64	〃	山9
	〃	65-3~35-5	〃	山13-1
	〃	71~74-2	〃	山13-2
	신흥동(新興洞)	43-1~52-2	신흥동(新興洞)	108-18~108-34
월명정(月明町)	〃	53-2~53-4	〃	108-36
	〃	53-6	〃	109-1~120
	〃	53-8~53-12	〃	山14-1
	〃	54~55-2	〃	山17~山20
	〃	108-13~108-15		
	신흥동(新興洞)	56~56-1	신흥동(新興洞)	108-37
죽전정(竹田町)	〃	104-3	〃	121-1~133
	〃	104-4	〃	136-1~139
	〃	104-9~104-11	〃	140-4
	〃	104-13~104-23	〃	140-14
	〃	104-28	〃	140-17
	〃	104-37	〃	140-18
	〃	104-42	〃	140-21
	〃	104-43	〃	140-25
	〃	104-46~104-48	〃	141-26
	〃	104-52	〃	141-33
	〃	104-53	〃	141-34
	〃	104-57	〃	141-52
	〃	104-58	〃	141-53
	〃	104-61~104-62	〃	145-1
	〃	105-1~105-12	〃	145-8
	〃	108-16	〃	146-1~146-3
	〃	108-17	〃	山22
	〃	108-35		
금광정(金光町)	신흥동(新興洞)	134-1~135-1	신흥동(新興洞)	山23
	〃	156~159-2	〃	山24
	〃	162-1~162-12	〃	山26-2
	〃	163-2	〃	山27

정(町) 명	해당 지번		해당 지번	
京町(경정)	"	164~165-12	"	山28
	"	166-1~176-2	"	山31
	신흥동(新興洞)	141-3	신흥동(新興洞)	144-2
	"	141-5	"	145-2~145-7
	"	141-8	"	145-9~145-15
	"	141-9	"	147-2~152
	"	141-35~141-50	"	160
	"	141-69	"	161
	"	141-72~141-73	송창동(松昌洞)	4-4
약송정(若松町)	"	141-100	"	4-5
	"	141-101		
	송창동(松昌洞)	1~4-3	송창동(松昌洞)	18-1
천대전정일정목 (千代田町一丁目)	"	4-6~4-8	"	19~27
	"	5~13	신흥동(新興洞)	153~155-2
	신흥동(新興洞)	57-3	신흥동(新興洞)	101-28~101-46
	"	87-3	"	101-50
	"	87-4	"	101-51
	"	88~90	"	101-54
	"	91-3~92-12	"	101-55
	"	92-14	"	102
	"	92-17~92-25	"	104-8
	"	92-29~92-33	"	104-24
	"	92-36~92-38	"	104-30~104-36
	"	92-41	"	104-38
	"	93~100	"	104-44
	"	101-2~101-4	"	104-45
	"	101-8~101-14	"	104-51
	"	101-16	"	104-55
	"	101-17	"	104-56
천대전정이정목 (千代田町二丁目)	신흥동(新興洞)	101-1	신흥동(新興洞)	104-54
	"	101-5~101-7	"	104-59
	"	101-15	"	104-60
	"	101-18~101-23	"	140-1~140-3
	"	101-47~101-49	"	140-5~140-13
	"	101-56	"	140-15
	"	102-1~102-4	"	140-16
	"	104-1	"	140-19
	"	104-2	"	140-20
	"	104-5	"	141-4
	"	1046	"	141-14
	"	104-12	"	141-15
	"	104-25~104-27	"	141-21~141-24
	"	104-29	"	141-27
	"	104-39~104-41	"	141-28
	"	104-49	"	141-84
전정(田町)	송창동(松昌洞)	14~17	신흥동(新興洞)	141-40~141-49
	"	18-2	"	141-51

정(町) 명	해당 지번		해당 지번	
	"	28~33	신흥동(新興洞)	141-54~141-61
	신흥동(新興洞)	141-1	"	141-63~141-70
	"	141-12	"	141-76~141-83
	"	141-13	"	141-85~141-99
	"	141-16~141-19	"	142-1
	"	141-29	"	142-2
	"	141-30	"	143-1
	"	141-32	"	143-2
서정(曙町)	"	141-35~141-37	"	144-1
	서정(曙町)	전구역	횡전정(橫田町)	41-8
		98-3	"	42~44
	횡전정(橫田町)	41-2	"	49-2
횡전정(橫田町)	"	41-4	"	49-3
	횡전정(橫田町)	1~6-1	횡전정(橫田町)	41-5~41-7
	"	7-2	"	41-9~41-11
	"	8~27-2	"	45-1~48-2
	"	28-2~41-1	명치정통(明治町通)	59
명치정일정목(明治町一丁目)	"	41-3		
	명치정통(明治町通)	89~107	횡전정(橫田町)	49-1
	명치정이정목(明治町二丁目)	58	명치정통(明治町通)	67-1~79-2
	"	60~64-10	"	80-1~85-3
	"	64-17	"	87-1~88
	"	66-1~66-12	전주통(全州通)	10-2
	"	66-14	옥정(旭町)	1~3-2
옥정(旭町)	"	66-15	횡전정(橫田町)	28-1
	옥정(旭町)	4~23		
대화정(大和町)	대화정(大和町)	전구역	전주통(全州通)	13-1~13-6
	전주통(全州通)	12-3~12-12	"	13-8~13-15
	"	12-14~12-17		
전주통(全州通)	전주통(全州通)	13-7	전주통(全州通)	21-3
	"	14-1~21-1	"	22-1~44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	본정통(本町通)	21~47-2	빈정(濱町)	21
	"	49-1~50	"	22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	본정통(本町通)	1~20		
	빈정(濱町)	빈정(濱町)	빈정(濱町)	4~20
행정(幸町)	"	1-6		
	낭화정(浪花町)	전구역	명치정통(明治町通)	38
	행정(幸町)	전구역		41
	명치정통(明治町通)	27	"	42
	"	28	"	46-1
	"	32~33-2	"	46-2
원정(元町)	"	37		
	전주통(全州通)	1-1~10-1	전주통(全州通)	11-1~12-2
	"	10-4	"	12-13
	"	10-5	명치정통(明治町通)	51
	"	10-8	"	64-11~64-13
	"	10-9	"	64-15
소화통일정목(昭和通一丁目)	명치정통(明治町通)	52-1~57-2	구복동(九福洞)	1-2~53
소화통이정목(昭和通二丁目)	장재동(藏財洞)	1~7	대정동(大井洞)	전구역
	"	8-3	개복동(開福洞)	1

정(町) 명	해당 지번		해당 지번	
	"	107~140-2	"	2
	"	140-5~140-8	구복동(九福洞)	1-1
소화통삼정목(昭三通三丁目)	장재동(藏財洞)	8-1	장재동(藏財洞)	62~106-2
	"	8-2	"	140-3
	"	8-4	"	140-4
	"	9-1~86	"	140-9~153
소화통사정목(昭三通四丁目)	장재동(藏財洞)	27~39	영정(榮町)	169~176
	"	50~62	"	193-1~197
	"	154~158		
개복정일정목(開福町一丁目)	개복동(開福洞)	3~15	개복동(開福洞)	84-1
	"	24-2	"	85-1
	"	24-9	"	85-2
	"	39~76	"	86-1~87-1
개복정이정목(開福町二丁目)	개복동(開福洞)	16-1~24-1	개복동(開福洞)	77~83
	"	24-3~24-8	"	84-2
	"	24-10	"	85-3
	"	25-1~38-7	"	87-2~117
강호정(江戶町)	강호정(江戶町)	20-4	명치정통(明治町通)	35-7
	"	21~23-1	"	36-4
	"	24-1~34-1	"	39~40-2
	"	35-1~38-2	"	43~45
	영정(榮町)	32~35-1	芦町(호정)	10-1~12-6
	"	53~54-6	"	13-4
	명치정통(明治町通)	29~31-2	"	13-9
	"	34-1~35-2	"	14-1~34
	"	35-6		
동영정(東榮町)	명치정통(明治町通)	7-1~17	호정(芦町)	13-1~13-3
	"	18-2~86-2	"	13-5~13-8
	"	26-4	영정(榮町)	55~65-8
	"	26-5	"	65-10
	빈정(濱町)	3-1	"	71-1
	"	3-2	"	71-2
	강호정(江戶町)	1~20-3	"	92~95
	"	20-5~20-9	"	138-1
	호정(芦町)	1-1~9	"	138-2
일출정(日出町)	영정(榮町)	73	"	139-1
	"	73-1		
영정일정목(榮町一丁目)	영정(榮町)	1~29-1	명치정통(明治町通)	47~50
영정이정목(榮町二丁目)	영정(榮町)	29-2	영정(榮町)	37~38-5
	"	30	"	40-1~52
	"	31	"	65-9
	"	35-2	"	96~121
	"	36-1	"	154~160
영정삼정목(榮町三丁目)	영정(榮町)	138-3	영정(榮町)	199
	"	139-2	경장리(京場里)	216
	"	161~168	"	376
	"	177~192	"	377-1
	"	198		
장재정(藏財町)	영정(榮町)	138-4	장재정(藏財町)	159-1~159-3
	"	200~217	경장리(京場里)	377-2

정(町) 명	해당 지번		해당 지번	
	장재정(藏財町)	40~47-2	둔율리(屯栗里)	144~145-2
동빈정일정목(東濱町一丁目)	명치정통(明治町通)	1~6	경장리(京場里)	274-5
	"	18-1	"	274-7
	빈정(濱町)	1	"	274-11
	"	1-1	"	274-12
	"	1-5	"	284-1~285
	영정(榮町)	72~72-18		
동빈정이정목(東濱町二丁目)	경장리(京場里)	274-1~274-4	경장리(京場里)	274-8
	"	274-6		
동빈정이정목(東濱町二丁目)	경장리(京場里)	273-1		
해망정(海望町)	신평리(新豊里)	998~1001	신평리(新豊里)	山2
	"	山1	"	山4
천정(泉町)	신평리(新豊里)	990~997	신평리(新豊里)	山5-1~山5-4
	"	1002~1009		
송산정(松山町)	신평리(新豊里)	936	신평리(新豊里)	989
	"	937	"	山11~山21
	"	942	"	山27-1
	"	943	"	山28~山30
	"	956~984	"	山36
	"	988	"	山37
신평정(新豊町)	신평리(新豊里)	871-1~871-3	신평리(新豊里)	山22~山25
	"	872-2~914	"	山27-2
	"	938~941	"	山31~山32-2
	"	985~987-3		
풍서정(豐西町)	신평리(新豊里)	762~766	신평리(新豊里)	944~955-1
	"	867-1	"	山33
	"	868-3	"	山34
	"	915~935-2	"	山38-1~山41
풍남정(豐南町)	신평리(新豊里)	1-1~11	신평리(新豊里)	851~866
	"	767	"	867-2~868-2
	"	822-1~841	"	869-1~870-2
오룡정(五龍町)	둔율리(屯栗里)	822~869	둔율리(屯栗里)	893~900
	"	871~872-4	"	926~937
도원정(桃園町)	둔율리(屯栗里)	318	둔율리(屯栗里)	808~821
	"	787~796	"	870-1~870-4
	"	807-1	"	873~879
남정(南町)	둔율리(屯栗里)	279~290	둔율리(屯栗里)	319~338
	"	297	"	357-1~358-2
	"	298	"	361~370
	"	301-1~317	"	786
산하정(山下町)	둔율리(屯栗里)	261~263	둔율리(屯栗里)	880-1~892
	"	265~278	"	207~260
	"	291	"	901~925
둔율정(屯栗町)	둔율리(屯栗里)	147~206		
미원정(米原町)	둔율리(屯栗里)	146	둔율리(屯栗里)	299
	"	264	"	300
	"	292~296		
경포정(京浦町)	경장리(京場里)	217-1~218	구암리(龜岩里)	572-1~572-3
	"	364-1~375	"	599
중정(仲町)	경장리(京場里)	219~269	경장리(京場里)	275~283

정(町) 명	해당 지번		해당 지번	
	"	274-9	"	286~363-2
	"	274-10		
천조정(千鳥町)	경장리(京場里)	270~272	경장리(京場里)	273-2

정(町)의 명칭 및 구역 변경으로 동일한 정(町)에서 동일한 번지를 쓰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호를 사용한다.

<표 42> 부호를 사용하는 정(町)의 명칭 및 구역표

대분류	해당 지번		부호	해당 지번		부호
금정(錦町)	본정통(本町通)	48	①	본정통(本町通)	48-1	①
천산정(淺山町)	금정(錦町)	8	①	신흥동(新興洞)	3	①
	"	9	①	"	9	②
	"	10	①	"	10	②
	신흥동(新興洞)	2	①			
대화정(大和町)	전주통(全州通)	13-1	①	전주통(全州通)	13-2	①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	빈정(濱町)	21	①			
행정(幸町)	낭화정(浪花町)	1	①	낭화정(浪花町)	7	①
	"	2	①	"	8	①
	"	4	①	"	9	①
	"	6	①			
소화통일정목(昭和一丁目)	명치정통(明治町通)	52-2	①	구복동(九福洞)	53	①
	구복동(九福洞)	52-1	①			
소화통이정목(昭和二丁目)	대정동(大井洞)	1	①	대정동(大井洞)	5	①
	"	2	①	"	6	①
	"	3	①	"	7	①
	"	4	①	개복동(開福洞)	1	②
강호정(江戸町)	영정(榮町)	32	①	호정(芦町)	23-1	①
	"	33-1	①	"	24-1	①
	"	33-3	①	"	24-2	①
	"	34	①	"	27	①
	"	35-1	①	"	28	①
	명치정통(明治町通)	35-2	①	"	31	①
	"	35-1	①	"	32	②
	"	34-1	①	"	33-2	①
	호정(芦町)	21	①			
동영정(東榮町)	명치정통(明治町通)	7-1	①	강호정(江戸町)	12	①
	"	7-2	①	"	13	①
	"	8	①	"	14	①
	강호정(江戸町)	3-1	①	"	19	①
	"	3-2	①	호정(芦町)	4	①
	"	8	②	"	5-1	①
	"	9	②	"	5-2	①
	"	10	①	"	9	①
	"	11	①			
동빈정일정목(東賓町一丁目)	명치정통(明治町通)	1	①	명치정통(明治町通)	1-1	①

제13장 정우회(町友會) 규약 준칙

1932년 10월 군산부 내 정(町)의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정(町)의 구역마다 새롭게 정우회를 설립하고, 종래의 정우회장⁸²⁾에 대해 협정을 권유하였는데 그때 제시한 규약 준칙은 다음과 같다. 덧붙여서 정우회의 수는 50여 정이다.

군산부 정우회 규약 준칙

제1조 부의 공공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町) 또는 동(洞)에 정우(町友) 또는 동우회(洞友會)를 둔다. 단 여러 개의 정과 동을 한 구역으로 하거나 또는 하나의 정과 동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조 정 또는 동우회는 그 구역 내의 거주자 및 법인으로 조직한다.

제3조 정 또는 동우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부 회 장 1명 또는 2명

회계담당 1명

평 의 원 약간명

감 사 약간명

정 또는 동우회에 서기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원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은 정 내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령 기타 공문의 주지에 관한 사항
2. 호적령(戶籍令), 숙박 거주 규칙 및 부세 조례에 의한 신고서 기타 여러 신고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종두, 전염병 예방 기타 일반 위생에 관한 사항
4. 공과채납의 폐해, 풍속 교정에 관한 사항
5. 도로, 하수 기타 필요한 시설 사항의 보고
6. 정 또는 동 내 거주자의 융화, 친선 및 근검저축, 인보 상조의 미풍을 양성하고 공공적 의무 관념의 향상에 관한 사항

8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국근현대인물자료'를 통해 군산의 정우회(町友會) 임원을 조사해보면, 총 4명(渡邊仙藏[회장, 경제인], 大和田助太郎[간사, 의사], 戶塚總太郎[회장, 의사], 山本悅藏[本町 정우회장, 경제인])이 확인된다.

7. 독지가 또는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조사 보고

8. 앞의 각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장은 정 또는 동우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외부에 대하여 그 정 또는 동을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사무를 대리한다.

회계담당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사무를 관장한다.

감사는 회계 사무를 감사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소집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고 사무 집행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제8조 회장은 매년 1월 정 또는 동우회의 총회를 개최한다.

임시, 긴급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 또는 동우회 총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을 정한다.

제9조 정 또는 동 내 거주자 및 법인은 정 또는 동우회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0조 정 또는 동우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평의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정 또는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현금은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금해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3조 정·동우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 또는 동 내 거주자의 성명, 각 회계에 관한 사항, 기타 정·동 내의 협의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14조 회장은 매 연도의 수지 결산을 하여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다음의 사항은 부윤에 보고해야 한다.

1. 정·동우회의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2. 회장, 부회장, 회계담당, 감사의 취임, 퇴직의 사유 및 그 연월일
3. 정기총회의 일시 및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5. 수지결산
6. 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본 규칙은 193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을 시행할 때 현존하는 정우회 또는 이와 같은 종류의회는 본 규칙에 의해 설립한 것으로 한다.

제14장 군산부의 중요 시설사업

군산부에 있는 중요 시설 사업을 다음에 기술한다. 단 상수도, 하수도, 회생병원, 행려인 구호소 등은 위생 분야에서 다룬다.

□ 수면매립



[군산항]

군산항 수축(修築) 공사 시행으로 일반 하역장 및 창고 등이 필요함에 따라, 동빈정 근처 해면 3,350평에 공사비 46,000원을 투입하여 1928년 4월에 매립에 착수, 1929년 3월 매축 준공한 후, 대부(貸付)해 사용해 왔다. 또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빈정 근처 해면 7,191평에 공사비 77,500원을 투입하여 1931년 4월 매립에 착수했고 1932

년 11월에 준공하였다. 또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사비 148,000원을 들여 서쪽 끝에 있는 해망정 근처 해면 17,109평의 매립과 공사비 60,500원으로 천정(泉町) 근처 해면 8,390평을 매립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현재 차근차근 시행 중에 있다. 전자는 1936년 3월 말, 후자는 1939년 3월말에 모두 준공 예정이다.

□ 어장과 항만축조

군산 축항이 완성되어 어장과 항만을 수축할 필요가 있어서 군산항 서쪽 끝에 연장 550m의 방파제를 축조하고 수면 16만m²에 정박소(船溜)를 설치하여 어선 정박은 물론 어획물 하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31년부터 3년간 지속사업으로 공사비 12만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이다. 1934년 3월 말에 완성하였는데, 이미 밝힌 것처럼 공사비를 절감하고 게다가 150m를 연장했음에도 지금 군산항에 출입하는 어선이 5·6백 척 이상인 상황에서 그 절반조차 수용하기에 벅겁다. 앞으로 방파제 연장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 시장

조선인 시장은 1918년 3월 장재동(藏財洞)에 설치하였다. 이후, 시가지가 발전하여 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1931년 10월 영정(榮町) 138번지로 이전하였다. 공사비 11,000

원(매립비를 포함), 면적 2,954평, 건평 526평으로 제반 시설을 완비하였다. 종래의 정기 개시를 상설 개시로 바꿨으며 1년간 거래액 30만원을 달성하였다, 시장 내 단속을 위해 청원 순사를 두었다.



군산부영시장



[군산부영 어시장]

□ 어시장

1918년 6월 즈음에 인가를 받아 서빈정(西濱町)에 공사비 4,900원을 투입해 설치하였다. 전북수산주식회사를 지정 영업인으로 했지만 1934년 6월 군산어업조합이 전북수산주식회사로부터 권리를 매수해 경영하고 있다. 1년간 거래액은 20만원에 이른다. 또 1933년 동빈정(東濱町) 1정목에 공사비 5,000여원을 투입하여 1개소를 증설하여 1934년부터 개설하였다. 어시장은 주로 조선인 대상의 조기, 갈치와 기타 잡어류, 염건어(鹽乾魚)로 거래액은 1년간 25만원 내외이다.

□ 식료품시장

1918년 10월 14일 인가를 받아 강호정(江戶町)에 공사비 4,800원을 투입해 건설하였고, 지정영업인 이토 다다타카(伊藤忠孝)가 경영하였다. 취급품은 주로 채소류 및 과일류이며 1년간 거래액은 12만 5,000원에 달한다. 또한 동 시장은 업무가 발전함에 따라 1928년 5월 4,800원을 투입해 현재 장소에 신축하였다. 중개인은 일본인 7명, 조선인 15명, 중국인 10명으로 총 3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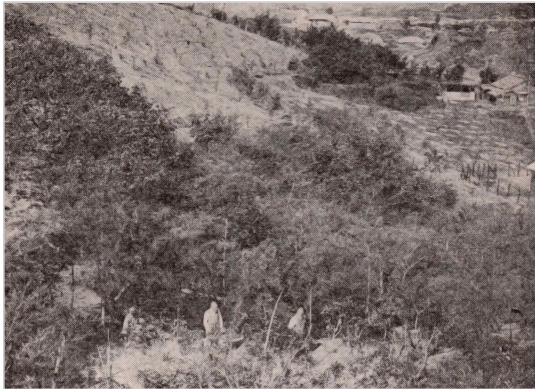
□ 죽림조성

군산부에서는 기본재산조성 목적으로 옥구군 미면 둔우리 임야 1정(町) 6반(反) 2묘보(畝步)⁸³⁾를 선정해 맹종죽림(孟宗竹林)을 조성하기 위해 1932년도부터 3개년 지속사업으로서 착수했다. 첫 해에는 기성죽림 6묘보의 비배(肥培)⁸⁴⁾와 5단(段) 6묘보를 새로 심었고, 1933년도는 5반보(反步), 1934년도는 4반(反) 4묘보(畝步)를 새로 조성하였다. 비배

83) 1町=3,000평, 1反=300평, 1畝=30평으로 1정(町) 6반(反) 2묘보(畝步)는 1정(3,000평)+6반(1,800평)+2묘(60평)으로 4,860평이다.

84) 비배(肥培)는 거름을 주고 가꾸어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관리에 힘쓴 결과, 성적이 양호하여 기성 죽림 6묘보(畝步)에서 1933년도는 죽순(筍)을 100관문(貫匁)⁸⁵⁾, 1934년도는 136관문의 수확이 있었다. 새로 심은 죽림 또한 번식하여 1935년도 이후는 상당한 양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군산부영 맹종림(孟宗林)



[군산공원의 벚꽃놀이]

□ 군산공원

군산공원은 빼어난 경치에 자리하고 있고, 벚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잡목 등이 우거져 있어서 풍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역이 좁아서 활기차게 발전한 현재 군산에서는 오히려 공원으로서 공공의 위락(慰樂)에 투자하지 못했다.

군산부는 1932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근처 조선은행 소유의 산림 6,088평을 16,000여 원에 매수하고(1932년도에 5,000원 지불, 잔금은 1933년, 1934년 두 해에 걸쳐 지불), 이 외에 1,000여 원을 더 투입해 도로, 식수(植樹) 기타 시설을 갖춰 공원으로 조성했다. 신구(新舊) 공원의 총면적 15,995평(구 공원 9,907평)으로 군산공원은 규모와 경치를 순식간에 새롭게 바꿔, 조선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대공원으로 거듭나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호남지방의 벚꽃 명소로서 원근(遠近)에서 관람객이 밀려들어 변화하기 이를 데가 없다.

□ 군산공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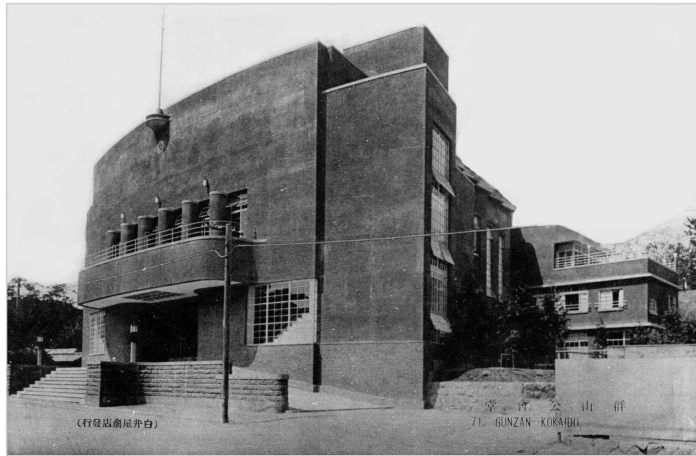
군산공회당은 1930년 12월 말 흔적도 없이 전부 불타버린(건축비 42,700여 원으로 1921년 8월 준공) 이후,⁸⁶⁾ 이를 관리해야 할 상공회의소는 의원(議員)을 중심으로 유지들과 이전 건축비 기부자를 망라해서 새롭게 건축위원을 구성해 심의한 결과 재건축에 착수했다. 그렇지만 얼마 후 청부인이 공사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회의소는 청부인과 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향후 건축방침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를 거듭했다. 이 결과 다른 지방의 예를 참고해서 군산부(府)가 경영하는 것을 최선의 방침으로 정하고 부 당국

85) 관문(貫匁)은 일본 척관법의 무게 단위로 1관은 1,000문(匁)으로 3.75kg이다.

86) 원래의 군산공회당은 현재의 군산시 금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로 일본식 연극 등 공연이 이루어지는 극장식 공간이었다고 한대김원, 「전라북도 근·현대 화단형성과 전시공간의 변화연구」(전북대 석사논문, 2014), 33쪽].

과 교섭한 끝에 군산부 이사자(理事者)의 승낙을 얻었다.

군산부 당국은 회의소와 협의 결과 새롭게 건축위원으로 사토(佐藤) 부운, 우시오(牛尾) 부회 부의장, 하나오카(花岡) 회장[會頭], 오제(小瀬) 부회장[副會頭] 등 4명을 선정하고, 동시에 부당국은 곧바로 설계에 착수했다. 설계가 끝나자 건축위원은 1933년 3월 15일 부청 2층에서 부회 의원, 회의소 의원, 이전 공회당 건축비 기부자, 신문 통신 관계



[군산공회당]

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토 부운이 공회당 설계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한 후, 양해와 찬성을 구하였다. 또한 공회당 설계 및 건설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업계의 권위자인 총독부 기사 사사 게이이치(笹慶一)씨에게 군산을 방문하여 고안(考案)하고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 수고를 끼친 적이 있었다.

그 후, 계획은 1933년도 군산부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책정하고, 3월 20일부터 개최된 부회에 제출하자 여관부(旅館部), 염탕(鹽湯) 등의 건설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어서 위원을 선출해 이를 일임하기로 했다. 그 후 위원은 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일부를 수정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따라서 부당국은 공회당 건립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군산부 소유의 불용토지(不用土地)를 조사하여 부회를 소집해서 의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렇지만 때마침 겹친 불황으로 재원 마련 때문에 여관, 염탕 등의 건설은 시기 문제로 보류하기로 하고, 8월 7일 지명 입찰을 통해 부내 토목건축 청부업체 시노다구미(篠田組)에게 78,700원으로 낙찰하였다. 시노다구미는 8월 31일 지진제(地鎮祭)⁸⁷⁾를 거행하고 건축에 착수하여 12월 16일 상량식을 거행하고 다음 해 4월 말에 준공을 보고했다(낙성식은 다음 장에 거론한다). 공회당은 장엄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한 설비를 갖추어 조선에서 대단히 보기 드문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건설 장소: 천산정(淺山町) 옛 수도배수지 소재지(국유 토지)로, 지반도 좋고 간선철도에 이어졌으며, 군산공원과 가깝고 조망이 빼어나, 실로 이상적이며 가장 알맞은 장소이다.
- 용지 면적: 697평
- 건축 및 건물 높이: 건평 274평, 연평수 644평, 건물 높이 57척, 건물은 모두 벽돌벽(煉瓦壁) 철근 콘크리트 건물

87) 토목공사를 할 때, 터를 닦기 전에 그 건물의 안전을 위해 지신(地神)에게 지내는 고사를 말한다.

- 본관 1층: 상공회의소 및 상품진열소, 사무실 13평, 응접실 12평, 회장실(會頭室) 11평, 상품진열소 24평, 집회실 20평(본관)
- 2층: 대집회실 159평(수용인원 1,500인)
- 3층: 갤러리(좌우) 20평, 귀빈실 6평, 옥상 162평
- 별관: 1층 일반식당 21평, 특별식당 8평, 조리실 13평, 일본방(日本間, 和室) 8조(疊)⁸⁸⁾, 6조(疊), 4조반(疊半), 각 1실
- 2층 연회장 44조(疊), 양실 6평, 소연회장 17조반(疊半)
- 3층 연회장 17조반(疊半), 베란다 5평
- 옥상: 2층 옥상(좌우) 33평, 3층 옥상 44평(욕실 및 화장실이 다섯 곳 있음)
- 주요 시설: 증기난방장치, 전기장치 및 배선장치, 소화전 장치, 전령(電鈴: 벨), 전화 배선장치, 급수장치, 영화(映畵)장치, 여전히 건축비 및 이러한 모든 장치비, 비품 설비비, 잡비 등을 포함하면 10만 4,800원이 필요하다. 건축비 및 제 장치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건 축 비: 79,14480전(시노다구미 청부 입찰 때는 78,70원이었지만 그 후 추가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함)⁸⁹⁾
- 난방장치: 8,250원(경성, 하가 도요키치[芳賀豊吉] 청부)
- 전화장치: 2,000원(경성 이시이 쓰토무[石井懋] 청부)
- 전기배선: 3,400원(군산,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청부)
- 소 화 전: 255원(경성 하가 도요키치[芳賀豊吉] 청부)
- 벨·전화배선: 373원(군산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청부)

□ 상품진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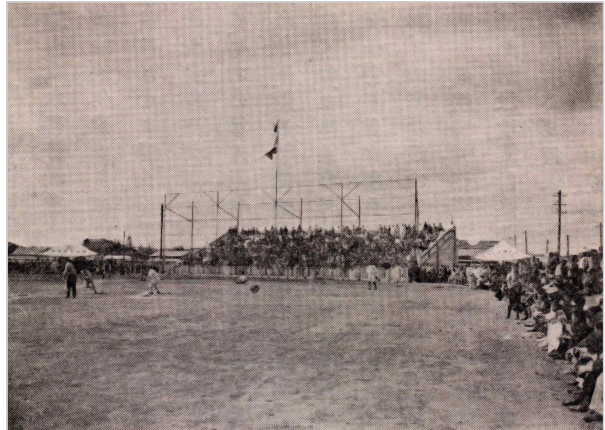
군산부 상품진열소는 호남지방의 유일한 경제도시인 군산의 지위에 걸맞게 군산의 생산물 및 특산품을 내외에 소개하고, 한편으로는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군산부에서 1933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여 같은 해 8월 기공해 1934년 2월 말 준공하였다. 이후 출품물의 권유 수집에 힘써 1934년 9월 15일 개소식을 거행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건평 24평(쇼윈도 건평 3평)이며 장내에는 상품진열장 및 선반(戸棚) 11개를 설치하고 이외에 부속 설비 일체를 갖추었다. 경비는 9,815원으로 이 중 3,000원은 도의 보조금으로, 6,815원은 군산부의 부담이었다. 또한 진열소는 공회당에 병설한 것이므로 공사 또는 공회당과 함께 시공했다.

88) 첩(疊)은 일본 전통 가옥의 바닥재로 다다미라 한다. 가로세로가 1:2가 되는 장방형의 장판으로 등심초 줄기가 주재료이다. 여기서는 바닥 면적을 표현하는 단위로 쓰였다. 다다미 한 장은 3×6척이다. 현재 단위로 약 910mm×1820mm, 1.65㎡이다. 6첩은 대략 3평 정도의 크기다.

89) 원문은 건축비를 79,14480전(시노다구미 청부 입찰 때는 78,70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78,700원에 낙찰했다는 앞의 기록으로 보아 79,14480전은 79,144원 80전, 78,70원은 78,700원의 오타로 보인다.

□ 운동장

시가의 발전에 따라 체육장려를 위해, 1932년도에 8,500원을 책정하고 이후 설비에 1,500원을 투자하여 총경비 10,000원으로 일출정(日出町)에 신설하였다. 면적 7,000평으로 장내에는 정구장, 야구장, 육상경기장, 스탠드 등의 설비가 있으며, 각종 경기에 사용한다. 매년 개최되는 부민대운동회는 이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거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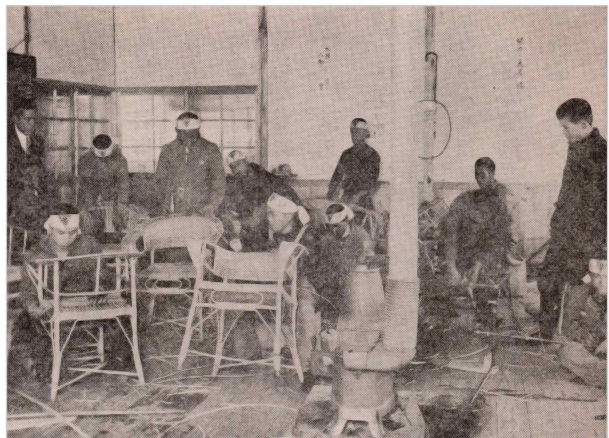
군산부영 공설운동장

□ 직업장려관

1934년 직업장려관이 설립되었으며, 그 취지는 부내의 청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를 생업에 관해 보다 더 독립 자영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직업에 관한 지식, 기능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작업의 종류, 강습기간, 강습 방법 및 강습생의 자격, 특전 등은 다음과 같다.

- (1) 죽세공, 3개월, 13인
- (2) 등나무(藤) 세공 및 버들고리 짝(杷柳行李)류, 3개월, 13인
- (3) 모조 진주 원구(原球) 제조, 6개월, 10인
- (4) 명주솜(眞綿) 제조 및 설견사 방적(屑繭糸紡績), 6개월, 10인
- (5) 목공 지물류, 1년, 10인
- (6) 갈대 및 왕골 세공, 6개월, 10인
- (7) 자수 및 흘치기염색(鹿ノ子絞), 3개월, 10인
- (8) 모사편물류, 서양 재봉(洋裁縫)

1934년도에는 죽세공, 등나무 세공 및 버들고리 짝, 모조 진주 원구제조, 진면제조 및 설견사 방적의 4종류를 강습할 예정이었으나 재료 등 여러 문제로 죽세공 및 등나무 의자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부터 순차적으로 강습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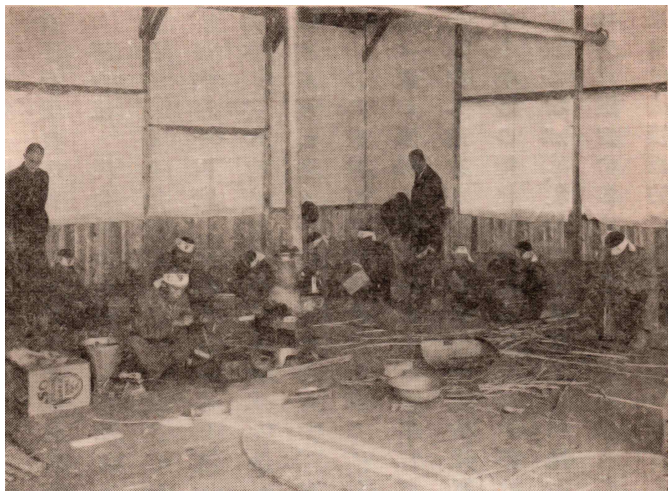
군산부립직업장려관

- 강습생 자격: 소학교,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연령 15세 이상 25세 이하, 신체 건강, 의사가 분명하며 수업 후는 반드시 해당 직무에 전념 종사할 것을 확인한 자.
- 강습용 기구 기계 및 재료: 강습용 기구, 기계 및 재료는 전부 부(府)에서 대여 또는 지급한다.
- 강습생 특전: 강습 중 성적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교부하고 또한 수업 후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별도로 정한 곳에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재료 구입, 제품 판매 등에 관해 다양한 알선의 노력을 취할 것임.

또한 강습과목, 수업기간 및 수업 인원은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도 있다.

- 경 비: 건축비 5,000원(내 설비비 1,000원)
- 재 원: 도비 보조 4,000원, 부비지출 1,000원
- 경상비: 3,920원
- 재 원: 생산품 매각 대금 1,560원, 부비(府費) 지원 2,360원

이상의 계획에 따라 죽세공 및 등나무 세공 제조에 각 13명의 입관을 허가하고, 1934년 12월 1일부터 강습을 개시하여 다음 해인 1935년 2월 말로 제1회 강습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강습생은 수업과 동시에 임의(任意) 조합을 조직하고 부립 공동작업장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조합의 명칭은 ‘군산부 죽세공품 생산조합’, ‘군산부 등세공품 생산조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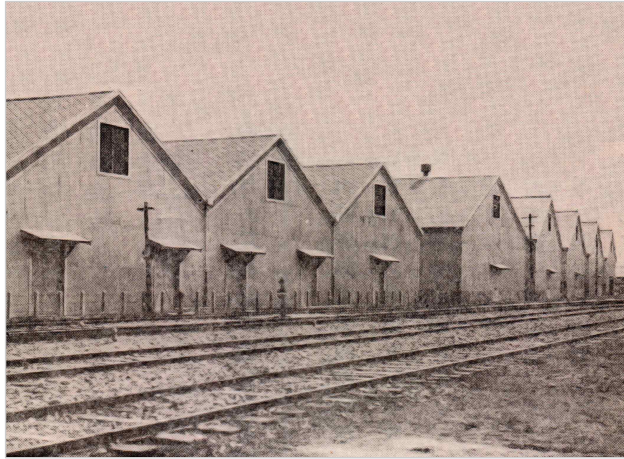
군산부립 직업장려관: 죽세공 제조 광경

군산부는 앞에서 언급한 죽세공품 생산조합에 500원, 등세공품 생산조합에 1,000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했다. 또한 원료 공동 구입과 제품 공동 판매를 알선하고, 오직 산업 진흥을 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산부에서는 부업장려의 일환으로 1933년 1월부터 모조 진주, 원구 제조 강습회를 개시하고 다음해인 1934년 6월경까지 지속하였다. 지금은 일단 휴강하고 있지만 그 사이 강습회 6회, 수업생 91명을 배출했다.

□ 동빈(東濱) 공동하역장

군산부는 시가지 축조를 위해 동빈정(東濱町) 1정목, 빈정(濱町), 서빈정(西濱町) 및 해망정(海望町)의 각 앞 바다 공유수면을 매축하여 연안지대에 공동하역장을 세워 일반영업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하역장은 동빈, 서빈 및 해망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하역장의 뒤쪽에 하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철도 연결선[引込線]을 부설(敷設)하고 난 후 이용가치가 높아져 이용하는 영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하역장이 모두 노지(露地)여서 화물을 옥내에 저장할 필요가 절실했다. 이에 군산부에서는 1934년도에 동빈 공동하역장 내에 59,000원을 투입해 창고[上屋]⁹⁰⁾ 930평을 건설하는 한편, 개인 창고 254평을 매수해 총 1,184평의 창고를 설치하여 공동하역장의 기능을 한층 유효적절하게 해서 연안 무역의 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부영 동빈 공동하역장

□ 설비 개요

- ① 창고[上屋] 건축: 본 하역장은 제1구(빈정 1-2, 1-3, 1-6) 면적 634평, 제2구(동빈정 1정목 1-1, 1-5) 면적 936평 및 제3구(동소, 1-1, 1-4) 면적 631평, 합계 2,160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 중(앞) 제1구 및 제2구에 아래와 같이 창고[上屋]를 건설한다,
제1구 444평, 제2구 672평, 총 1,116평, 공사비 57,000원
- ② 철도 연결선 부설(敷設): 현재 하역장 남측 연결선은 제1구 및 제2구까지이며 이를 제3구 종단까지 연장한다, 길이는 80m이며 공사비 2,000원, 총공사비 5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수차례의 교섭 결과 철도 연결선은 철도국의 국비로 시공했다.
- ③ 재원: 기채(起債)에 의함

□ 서해안 철도

1934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여 1935년 2월 기공하고 같은 해 4월 준공해 5월 1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⁹¹⁾ 조선에서 최초의 부영 철도로 명칭은 군산부영 서해안 철도이며 경영은 국철과의 관계로 철도국에서 시행했다. 예로부터 군산항 서해안 무역지대는 동해안 지대와 비교해 발전이 더디었다. 이는 육상의 운수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

90) 상옥(上屋)은 수송 화물을 보관, 선별하거나 작업 또는 대기하기 위해 부두나 역 가까이에 지은 건물을 말한다.

91) 1934년 12월 사설철도 면허 신청이 이루어지고 1935년 2월 28일 허가되자, 군산부가 곧바로 철도국에 공사를 위탁하여 3월 1일 착공식을 거행한 후 1개월 남짓의 단기간 만에 준공되었다. 군산부 본정(本町) 1정목(丁目) 49번지의 2 군산항역(群山港驛)을 기점으로 하여 서빈정(西濱町)을 거쳐 해망정(海望町) 999번지의 4를 종점으로 하는 구간이었다(『群山府營西海岸鐵道』, 『朝鮮鐵道協會會誌』 14권 8호, 朝鮮鐵道協會, 1935, 64쪽).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부에서는 서해안 지대의 교통, 운수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연안무역의 진전을 모색하는 한편 인근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군산항역을 기점으로 하며 서빈정 및 해망정의 연안을 관통해 같은 정(町) 999- 4번지에 이르는 연장 1,040m의 화물전용 광궤(廣軌) 복선철도를 부설하기로 했다. 공사비는 일체의 비용을 가산해 41,000원이 필요했다. 본 철도 부설을 위해 철도국에서는 대단한 호의와 편의를 제공하여 계획을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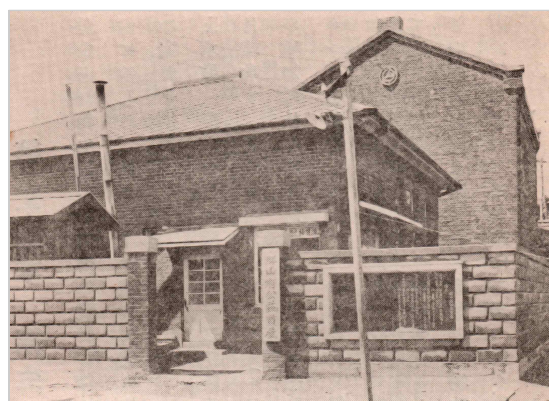
- 부설구간과 선로: 국철(局鐵) 군산항역에서 서빈정 및 해망정 매립지를 관통하는 폭 9.9m, 연장 1,200m의 용지를 사용한다. 본선은 1,040m 광궤 복선으로 일반화물을 운송한다. 위치는 연안 철로로부터 서빈정에서는 약 20m, 해망정에서는 약 40m의 지점으로 한다.
- 총경비: 41,000원
- 재 원: 기채(起債)에 의함.

서빈(西濱) 및 해망의 양 매립지는 철도선을 한계로 하며, 해안지대를 하역장으로 하고 안쪽 지대를 시가지로 조성하였다. 하역장과 시가지 조성지의 평수는 다음과 같다.

- 하역장: 서빈(西濱) 2,655평, 해망 7,084평, 총 9,739평
- 시가지 조성지: 서빈(西濱) 2,371평, 해망 2,663평, 총 5,034평
- 영업허가 기간: 1935년 2월 28일부터 향후 50년으로 하며, 동년 5월 1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본 철도는 철도당국 간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하여 기채(起債)의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되었다.

□ 공익전당포(公益質屋)⁹²⁾

하층민의 금융 편의를 위하여 1933년도 신규 사업으로 9,136원을 예산에 책정해(용지비 2,520원, 건축비 5,855원, 설비비 761원) 곧바로 기공하여 동년 11월 준공하고 12월 15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대부총액 10,000원으로, 대출은 1구좌 7원, 1세대 20원이며 1935년 4월부터 1구좌 10원, 1세대 30원으로 한도를 변경해 이용자가 나날이 증



군산부영 공익전당포

92) 군산에서 공설전당포가 설립된 것은 3.1운동 직후인 1920년대 초반부터였다. 전라북도에 배정된 임시은사금으로 경성, 대구 등 대도시의 공설전당포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당시 전주와 군산 등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설립된 공설전당포는 이자율이 사설보다 낮긴 하지만 일본에서 실행되던 '공익전당포'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어서, 제대로 된 공설전당포라 보기는 어려웠다(이병례, 『일제하 전당포 운영실태와 '公益' 개념의 한계』, 『사림』 46호, 수선사학회, 2013, 352쪽).

가하고 있어, 서민금융 기관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다.⁹³⁾

□ 공설목욕탕(浴場)

1921년에 설립된 현 목욕탕은 1923년 공사비 2,000원을 투입해 신축했다. 입욕료는 시내의 목욕탕과 비교해 4할 정도 싸고(대인 3전, 소인 2전) 연간 입욕자는 7만 명이 넘는다.



군산부영 공설목욕탕과 이발장

□ 공설이발장

1921년에 세워졌으며 공설목욕탕과 가깝다. 이발료는 어른 20전, 어린이 15전이고, 이용자는 연간 만 명에 달한다.

□ 도축장

군산부 외곽 미면 둔율리에 있다. 부지 총면적 2,264평 내 건물 135평 2합(合) 1작(勺)⁹⁴⁾으로 연간 도살하는 소, 말, 양, 돼지 등은 약 3,000두로 사용료는 3,000원에 달한다. 본 도살장은 원래 부내(府內) 남정(南町)에 있었으며 1932년도에 공사비 9,000원을 들여 현 위치로 이전 개축한 후, 공사비 2,000여원을 들여 호이스트(捲上器) 2기(基)를 설치해, 모든 설비를 완성했다.



군산부영 도축장

□ 화장장

부내 신평정(新豊町)에 있고 1927년도 공사비 11,000원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부지의 총 평수는 1,856평이며 건물은 31평 5합(合)이다. 최신식 화장로(火葬爐) 3기(基)를 갖추고 있다. 1933년의 사용 실적은 일본인 197명, 조선인 64명으로, 사용료 총액은 1,203원에 달한다.

□ 공동묘지

현재 신평정(新豊町)에 면적 5,758평, 군산부 외곽 미면(米面) 사장리(沙場里)에 면적

93) 1933년 설치된 공설전당포는 군산부 개북정에 소재했으며, 대부 이율은 월에 1푼 5리였다(위의 논문, 357쪽). 군산의 경우 이용자는 조선인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조선인 소상공인이었다(같은 논문, 363쪽의 <부표> 참조).

94) 2합(合)은 면적의 단위로 합(合)은 평(坪)의 1/10, 작(勺)은 합(合)의 1/10이다.

48,561평 등 2곳이 있다. 신평정은 일본인만, 미면 사장리는 조선인만 사용한다, 1933년의 사용 실적은 일본인 32건, 55평, 조선인 44건, 103평으로 사용료 총액은 360원 70전에 이른다.

□ 직업소개소

군산부는 1934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가예산 4,000원을 책정해(이 중 도비보조 2,000원), 직업소개소를 설치하기로 계획하여 1935년 8월 1일에 개소했다. 목적은 구인구직 즉, 고용인·노동자의 소개이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자가 날로 증가한다.

□ 정신진흥(作興)과 자력갱생

도시의 정신진흥 및 자력갱생은 농촌진흥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⁹⁵⁾, 군산부는 이를 위해 대책을 심사숙고해 실시하고 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신사참배: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관념을 고취하고, 국체관념(國體觀念)의 명징(明徵)을 기하기 위해 1932년부터 매월 1일과 15일을 부민 총립(總立) 운동일로 정하고, 이른 아침 군산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있다. 실시 이후 참배자가 서서히 증가하여 종전에는 300명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무려 5,000명 가깝게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 국기계양: 국기계양은 국체관념(國體觀念)의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최대한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극빈자에게는 무상으로 배포했으며 배포율은 1932년 총호수의 약 60%, 1933년 80%, 1934년은 약 90%에 달했다.
- 교화강연: 강사를 초빙하거나 명사가 군산을 방문할 때 의뢰하였다. 1932년에는 24회, 1933년 34회, 1934년 42회의 강연이 열렸다. 특히 군산 공회당의 규모와 설비는 조선에서도 손꼽을 정도이며 교화 및 기타 강연이 활성화 되어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 체육장려: 체력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해 장려를 독려하고 있다.
 - 매년 5월 1일, 개항기념일에 맞춰 점원(店員) 운동회 개최.
 - 매년 10월 1일, 체육의 날을 기획해 부민대운동회 개최.
 - 체육협회 주최 야구, 정구, 라디오 체조, 군산-전주간 역전경주⁹⁶⁾ 및 기타 각종

95) 농촌진흥운동 과정에서 추진된 자력갱생의 중심은 원래 농촌경제의 면에 있었다. 1933년 3월 총독부는 정무총감 통첩으로 '농가갱생계획 수립에 관한 방침'과 '농가경제갱생지도계획요강'을 발표함으로써 각지의 진흥운동이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우선 "농가 개개의 경제갱생의 구체적 방책을 본체"로 하고, "정신생활적 의의"도 동시에 고려하며 노동력의 완전한 소화·자급자족을 꾀하는 경제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 운동의 기본방침이었다(김익한, 『일제의 면 지배와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제제 형성』, 김동노 편, 혜안, 2006], 100쪽).

96) 역전경주(驛傳競走)는 장거리를 이어 달리는 경기이다. 장거리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몇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맡은 구간을 달리고 다음 선수와 바꿔 달리는 경기이다.

경기와 대항시합

특히 10월 1일의 체육의 날은 모든 부민의 체육의 날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제히 본 운동회에 참가하고 있다. 1932년 시작한 이래 나날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체육열의 향상을 보게 되는 것은 기쁘기가 그지없다.

- 생활개선의 실행: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시간 존중 관념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행한다. 매일 오후의 시보(時報)와 함께 조보(早報, 계절에 따라 시각을 정한다) ‘사이렌’으로 시보한다.
- 관혼상제의 낭비 절약: 관혼상제 등의 낭비 절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혼례 등은 신사, 교회 등의 의식에 따르고, 또 장례식 때의 음식, 부의에 대한 답례(香奠返) 등을 폐지하자 공공사업에 기부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15장 교육기관

군산의 일본인 교육기관은 공립심상고등소학교, 공립상업보습학교, 공립청년훈련소, 공립고등여학교, 공립중학교, 사립군산유치원, 사립군산가정학교, 부립도서관, 재단법인 군산교육회가 있다. 조선인 교육기관은 공립보통학교, 사립양명학교, 사립영신유치원이 있다. 모두 최근 몇 해 사이에 입학 아동 및 생도 수가 증가하여 각각 학급이 증가함에 따라 추후 교사(校舍)를 증축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군산의 초등 및 중등학교는 학생 성적이 양호하여 조선지역에서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개항한 해인 1899년 9월, 당시 영사관 분관 주임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의 부인이 재류 일본인 자제를 위해 분관의 한 방(室)을 교실로 사용해 서당[寺子屋]⁹⁷⁾식으로 수업을 개시하였다. 부인 스스로 교수의 자리를 맡았고, 당시 아동 수는 겨우 5명이었다. 이것이 군산 아동교육의 시초이다. 이듬해 1900년 6월, 오타니파(大谷派) 본원사(本願寺) 지원이 군산에 설치되자 주지 규치(紘地)스님에게 교육 업무를 위탁하였다. 교실은 본원사 지원의 한 쪽을 사용했다. 당시 지원은 현 우편국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1901년 2월 거류민회가 설립됨에 따라 교육 행정을 관할하고 경비는 모두 거류민회에서 지출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인 입학 지망자 수가 많아서 거류민회는 외무성에 보조를 신청하여 교육비로 1901년부터 3년 간 36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동시에 소학교에 한인부(韓人部)를 설치하고 조선인 아동의 입학을 허가했다. 1903년 9월 아동이 증가하자 거류지 남쪽의 고지대(현 위치)를 매수해서 교사를 신축하고 이듬해 1904년 5월 공사를 끝내고 이전했다. 1905년 아동수가 점점 증가하자 교실 부족을 토로하였다. 이에 임시로 관청[民役所] 내에 분교실을 두는 한편 증축을 계획해 1906년 11월 신축 교사(140평)를 낙성하였다. 이후 취학 아동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수차례 증축했으며, 1921년 5월 공사비 83,000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증축하였다.

그런데 그 후 시가지 발전으로 인해 취학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교사가 협소해졌고 계다가 넓고 오래되어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27년 7월 3층 교사(건평 272평, 연평 765평, 옥상 220평)를 공사비 106,000여 원으로 기공하여 1928년 5월 준공을 마치자 조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면모의 교사를 선보이게 되었다. 학급은 28학급, 아동 수 1,500명이었고, 부형회(父兄會)가 설치되었다. 직원은 32명이며 교장은

97) 서당[寺子屋]은 에도시대 서민 아이들의 기초 교육을 담당했던 사설 교육기관이다. 에도막부 말기에는 도시 뿐만 아니라 농산촌(農山村)까지 널리 보급되었으며 메이지 초기 초등교육기관의 모태가 되었다.

엔도 도쿠로(遠藤徳郎),⁹⁸⁾ 교감(敎頭)은 다나가 마사노리(田仲正徳)이다.



[군산심상고등소학교]

□ 군산공립상업보습학교

1912년 11월의 준공해 처음에는 심상고등소학교 내 보습과로 부설되었다. 그러다가 1918년 4월 군산공립간이상업전수학교(群山公立簡易商業專修學校)로 이름을 바꾸는 동시에 조직을 개혁했다. 이후 1923년 교육령 개정으로 상업보습학교(商業補習學校)로 명칭을 변경했다. 본교는 군산이 상공 도시임을 고려해 소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주간에 가사에 종사, 또 다른 집에 고용된 학생들을 위해 야간에 상업 관련 실용적 지식 기능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본교는 소학교 교실 및 기구 기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학생은 약 100명, 직원 1명의 전임 교사[敎諭]를 두는 한편 나머지는 소학교 직원이 겸직한다. 교장은 엔도(遠藤) 소학교장이다.

□ 군산공립보통학교⁹⁹⁾

군산공립보통학교는 1907년 4월 1일에 설립을 인가해 5월 13일 개교하였다. 1911년 4월 1일 관제에 따라 군산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1919년 3월 23일의 만세 운동[騷擾] 당시 교사 한 동이 불타버렸고, 이에 더해 취학 아동의 증가로 1919년부터 매년 증축하였지만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府) 당국은 1929년 4월 둔율리에

98) 엔도 도쿠로(遠藤徳郎)는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1910년대에 부산제1공립심상소학교 훈도를 거쳐, 1920년부터 1936년경까지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훈도로 재직하였다. 또한 1922년 군산공립고등여학교 교장, 1923년부터 1936년경까지 군산공립상업보습학교(군산상업보습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 외에도 1920년 이래 군산실과고등여학교·군산공립간이상업전수학교·군산고등여학교·군산상업보습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훈도나 교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1940년대에는 부산으로 가서 주식회사 다치이시상점(立石商店) 이사 겸 지배인으로 활동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조선총독부직원록’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99) 군산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연구는 백하영의 「일제강점기 군산 공립보통학교와 군산사회」(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구희진의 「근대개혁기 옥구, 군산항 인근지역의 교육과 사회변화」(『전북사학』 44, 2014) 등이 있다.

제2보통학교를 설립하고 군산공립보통학교를 제1공립보통학교로 개칭했다. 학급은 18학급으로 아동 1,207명, 직원 20명이다.

제2공립보통학교는 이미 밝혔듯이 1929년 4월 1일 개교해 학급은 6학급으로 아동 350여 명, 직원은 6명이다. 하지만 제2보통학교는 원래 군산소학교의 옛 교사를 할양받아 이축한 건물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부의 구역확장 이후 취학 아동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게다가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부 당국은 1933년 6월에 41,700여 원을 들여 제1보통학교 앞 공터에 교사(457평)를 신축하였다. 12월 말에 교사가 완공되자 제2보통학교를 같은 해 12월 31일부로 폐교하고, 제1보통학교와 합병하여 1934년 1월 1일부터 예전처럼 군산공립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 교장은 마쓰시마 아쓰시(松島篤), 교감은 게이도쿠 야스이치(慶徳保一)이다.



[군산보통학교]

□ 군산공립중학교

군산공립중학교는 1923년 3월 31일 군산부 학교조합이 설립하였고, 5월 15일 공립 농업학교의 옛 교사 터에서 수업을 개시했다. 1924년 1월에 신축 중이었던 교사 본관을 준공해서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1926년 6월 모든 교사를 완전히 준공하여 낙성식을 거행했다. 1928년 3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1928년 4월 1일에 학교조합의 소관에서 전라북도로 이관되었다. 수업 연한은 5년, 학급 수는 10학급으로 학생 470명, 직원은 20명이다. 1933년 말 전임 교장 후지이 도모요시(藤井友吉)의 계획 하에 개교 10주년 기념사업 일환에서 20,000원을 들여 기숙사와 무덕전(武徳殿)을 신축했다. 교장은 오이 도시아키(大井利明),¹⁰⁰⁾ 교감은 도야마 리하치(遠山利八)이다.



[군산공립중학교]

□ 군산공립고등여학교

1916년 4월 1일 이전에 민단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교사로 삼아 군산공립실과고등

100) 오이 도시아키(大井利明)는 가고시마현 출신으로, 1922~1926년 평양중학교(평양공립중학교), 1927~1931년 신의주중학교, 1932~1933년 진주고등보통학교, 1934~1937년 군산중학교, 1938~1943년 평양고등여학교에서 교사 및 교장을 역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조선총독부직원록'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여학교로 개교하였다(수업 연한 2년). 당시 교장은 소학교장이었던 야마모토 요시히사(山本吉久)가 겸직했다. 이후 1921년 4월 1일 공립고등여학교로 승격하였고(수업 연한 4년), 이후 교세(校勢)가 발전해 종래의 임시 교사로는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1924년 9월 지금의 신흥정(新興町)으로 이전하여 특별교



[군산공립고등여학교]

실 1동을 신축하고 동시에 옛 교사의 일부를 이전해서 개축했다. 1925년 6월 강당 겸 체육관을 신축하고 곧이어 1926년 12월에 본관을 신축했다. 학급 수는 4학급으로 학생 200여 명, 직원 11명이며, 교장은 시이나 데루노스케(椎名照之佐),¹⁰¹⁾ 교감은 가타오카 도시오(片岡敏男)이다.

□ 군산공립청년훈련소

군산공립청년훈련소는 1928년 8월에 재향군인회 군산분회가 설립했다.¹⁰²⁾ 개소 당시는 사립으로 분회장은 도쓰카 소타로(戸塚總太郎) 소장이고, 소학교장 엔도 도쿠로(遠藤徳郎)가 주사(主事)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12월 처음으로 조선군 사단사령부의 사열을 받았다. 1930년 10월에 군인회 분회에서 군산부로 이관해 공립이 되었다.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학생 40여 명, 직원 12명이며 교장은 사토(佐藤) 부윤이다.

□ 군산사립가정학교(群山私立家政學敎)

군산사립가정학교는 장래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을 꾸려갈 지식, 기능을 습득한다는 취지에 따라 1929년 3월에 관청의 인가를 얻어 4월 1일부터 개교하였다. 초기에는 부청사 옆에 있던 옛 군산유치원 자리를 교사로 사용했지만 이후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1932년 8월 현재의 천산정(淺山町)으로 이전하였다.

학과는 보통과, 연구과로 나뉜다. 보통과의 입학 자격은 고등소학교 졸업자, 연구과는

101) 시나 데루노스케(椎名照之佐)는 지바현 출신으로, 1923년 9월 조선으로 건너와 1924~1933년 이리농림학교(이리공립농림학교, 이리농업학교), 1934~1939년 군산고등여학교(공립군산고등여학교) 교사 및 교장을 역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조선총독부직원록’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102) 일제 당국이 총독부령 제89호로 「청년훈련소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면에 청년훈련소 설치를 법제화한 것은 1929년 10월이다(『조선총독부관보』 1929.10.1.). 이렇게 총독부의 관제청년교육기관으로 1929년 창설된 청년훈련소는 1930년대 이후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군산공립청년훈련소가 1928년 8월 설립된 것은 매우 빠른 시기라 할 수 있다. 청년훈련소는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숙련된 기술을 획득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표면적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청년을 통제하여 일본국가에 기여하는 인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변은진,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선인, 2013, 105쪽).

고등여학교 졸업자이다. 수업 연한은 보통과는 2년, 연구과는 1년이다. 과목은 보통과는 수신(修身), 작법(作法), 국어, 습자(習字), 가사(家事), 수예(手藝), 재봉(和裁, 洋裁)이며, 연구과는 수신(작법), 가사, 재봉, 선택 과목으로 꽃꽂이[生花], 다도(茶道), 고토[琴],¹⁰³⁾ 수예(手藝) 등을 교육하였다.

군산사립가정학교는 1933년 10월 재정 악화로 인해 경영이 곤란해져 일시적으로 폐교됐지만, 일반 유지들이 군산의 현황을 고려해 부흥시킬 필요가 있어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교장 구마모토 쓰이코(熊本ツイ子)는 갱생의 의지로 교수의 중요 임무를 맡고, 1934년 4월의 신학기부터 다시 개교하게 되었다.¹⁰⁴⁾ 현재의 생도 수는 40여 명이다.

□ 군산사립양영학교(群山私立養英學校)

1919년 6월 개교해 1934년 3월 말까지 군산사립청년야학교로 불렸다. 1934년 4월 1일 관청의 인가를 얻어 교칙[校規]을 개정하고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군산사립양영학교로 개칭했다. 학교는 주간부, 야간부로 구분되었다. 주간부는 보통학교 입학 연령을 초과한 여자, 야간부는 보통학교 입학 연령을 초과한 남자를 위해 각각 보통학교와 유사한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야간부 생도에게는 기초 상업 교육을 실시해 일상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삼았다. 수업 연한은 각각 4년이다. 학생은 주간부 107명, 야간부 101명이며 교장은 신석우(申錫雨), 수석 교사는 이금현(李兢鉉)이다.¹⁰⁵⁾

그 외에 군산부 밖 구암리에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립 멜본딘 여학교가 있다.

□ 군산사립유치원

1909년 4월 1일¹⁰⁶⁾ 민단에서 건립한 심상고등여학교 부속 군산유치원으로 개원하였다. 유치원은 소학교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같은 해 11월 옥정(旭町) 2번지의 신축 유치원으로 이전했고, 1916년 1월 소학교 부속에서 독립하여 군산학교조합에서 설립하면서 군산유치원으로 개칭했다. 원장은 대대로 소학교장이 겸직하였다. 1918년 3월 학교조합이 경영에서 물러나자 부내 각 사원(寺院)의 주지가 승계해 경영하였다. 같은 해 11월 미야자키 게이타로(宮崎佳太郎)가 설립자가 되고 원장에 취임했다. 1926년 5월 이전에 학교조합에서 빌린 건물, 비품 등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며, 이후 유치원이 협소해서

103) 고토[琴]는 일본의 전통악기로 우리나라의 거문고와 유사하다.

104) 구마모토 여사는 1933년 군산부 당국에 보조금 증액을 요청하는 등 학교 부흥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朝鮮新聞』, 1933.5.26, 「全羅北道, 更生する群山家政女學校, 熊本女史が堅く決心, 府當局もカコブ」).

105) 군산의 무산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써, 군산보통학교 내에 설립되었다가 1933년 교사(校舍)를 신축하였다. 양영학교는 전시체제기 이후에도 군산 부민의 지원으로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양영학교' 항목, 2019년 6월 6일 검색).

106)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08년 4월 7일 '관립 한성고등여학교 학칙'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송규진·변은진·김윤희·김승은,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연출판부, 2004, 378쪽).

1926년 5월 16,500원을 들여 현재 위치에 신축해 10월에 낙성 이전했다. 1926년 5월 미야자키가 사임하고 부윤인 사와무라 아라지로(澤村荒次郎)가 원장이 되었다.

1929년 7월 재단법인이 되어 현재에 이른다. 원장은 사토 부윤이다. 수업 연한은 3년, 3학급으로 원아는 130여 명, 보모(保姆) 4명, 주석(主席) 보모는 아사다 지카코(淺田チカ子)로 개원 당시부터 26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근무하고 있다.

□ 사립영신유치원(私立永信幼稚園)

조선인 유치원으로 1931년에 개원하였다. 수업 연한 3년, 원아 50명이며, 원장은 홍종필(洪鍾弼)이나 올해 5월에 사망해 현재 결원이다. 보모 2명, 수석 보모는 박금봉(朴今奉)이다.

□ 군산교육회

군산교육회는 1912년 2월에 설립되었다. 당시 군산에는 일본인 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운수, 교통, 위생, 금융, 기타 제반 시설도 대체로 정비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겨우 소학교와 유치원이 있을 뿐, 장래 교육상 필요한 시설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교육관계자 및 유지들로 조직된 교육다화회(教育茶話會) 회원 일동은 군산의 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의논하였고, 일반 유지들의 동의를 얻어 군산교육회가 설립되었다.

사업은 ‘도서관 경영’,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학동기숙사 경영’ 등이며 이후 ‘육영부(育英部)’를 신설하였다. 도서관 경영은 다음 장의 ‘부립군산도서관’ 항목에서 기술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학동기숙사는 인근 지방에서 군산소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처음에는 금정(錦町)의 한 민가를 빌려 아동 10명을 수용했으나 1913년에 총독부에서 400원을 보조받아 천대전정(千代田町)으로 이전하였다. 1914년에는 보조금이 600원으로 증액되어 모든 설비를 개선하고 기숙사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그 후 기숙사는 인근 지방 곳곳에 소학교가 설립되어서 입사(入舍)하는 아동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폐쇄되었다. 그러다가 고등여학교가 설립되자 1920년 다시 개소하였고, 1932년 9월 천산정(淺山町) 옛 도서관으로 이전했으며 1933년 8월 옛 도서관 자리에 공회당이 건설됨에 따라 9월 여학교 근처로 이전했다.

다음 육영부는 1918년 2월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¹⁰⁷⁾가 교육회에 육영비 10,000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이후 육영부는 일본인·조선인 중 빈곤하지만 수재인 학동 여러 명을 매년 상급학교로 입학시키는 등 인재 교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수혜자는 6명이다. 또한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¹⁰⁸⁾도 구마모토 씨와 같이 2,000원을

107)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1880~?)는 전북 지역 대농장 지주였다. 구마모토는 1903년 조선에 도착한 후 김제, 태인군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기반을 넓혀 나갔다.『(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朝鮮公論社, 1917, 316쪽.)

108)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 1865~?)는 1904년 조선으로 넘어와 군산에서 금융업을 시작으로 시가지 경영, 토지매수, 주택과 농장 경영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였다. 1935년 당시 재단법인 군산교육

기부했다. 다음으로 강습회 및 강연회는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고 군산 교육의 진보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군산교육회는 1922년 2월 재단법인의 인가를 얻었다. 현재 회원 110여 명, 이사는 사토 부운, 이소베 겐야(磯部謙哉)이다. 그 외 감사 3명, 평의원 25명이 있다.

□ 부림군산도서관

군산도서관은 1912년 2월 군산교육회의 경영 취지에 따라 사토 마사지로와 도서관 설립준비회가 장서 240여 권을 교육회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다.¹⁰⁹⁾ 1914년 6월 구마모토 리헤이가 노력하여 금정(錦町) 농사조합 사무소와 모든 비품을 교육회에 기부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소를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부민이 널리 관람하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도서관은 회원제이고 희망자는 몇 명이라도 입회할 수 있다. 회원의 소개가 있다면 몇 명이든 관람을 허가했다. 이후 시세(時勢)가 발전함에 따라 1932년 8월 군산부에서 경영하기로 하고 관사를 현재 건물로 이전하는 동시에 설비를 완비하여 민중교화의 전당으로써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관사는 이전의 부청사 건물로 이사청 시기부터 오랫동안 군산 행정의 중심지로서 빛나는 역사가 있는 기념비적 건물이다. 다음은 도서관 설비 내용이다.

- 설비: 2층 남자 열람실,
 부인열람실
 1층 특별관람실,
 신문관람실 겸 서고
- 도서: 12부분으로 분류. 각 부분에 속하는 현재 서적 권수는 다음과 같다.



[부림군산도서관]

회 이사, 군산 육영부의 주사였다.(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데이터베이스 참고)

109) 일제당국은 한반도 강제병합 전부터 재조일본인을 위한 사회교육시설로써 근대적인 도서관을 설립하였다. 1901년 부산을 필두로 경성문고(京城文庫, 1905), 강경문고(江景文庫, 1907) 등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었다. 강제병합 후에는 조선인에게도 일부 개방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다(송규진·변은진·김윤희·김승은, 앞의 책, 379쪽).

110) 원문에는 ‘종수(宗數)’로 되어 있으나 종교(宗教)의 오기로 보인다.

<표 43> 도서관 장서(1934년 12월 현재)

도서분류별	장서 책수	문고종별				
		부문고 (府文庫)	전북문고 (全北文庫)	교육회문고 (教育會文庫)	오쿠라문고 (大倉文庫)	일반문고
총기(總記)*	657	138	0	220	65	234
종교(宗教) ¹¹⁰⁾ -철학교육	1,243	188	139	871	26	19
문학,언어	2,104	805	151	1,028	85	35
과학-의학,공학	431	140	0	220	64	7
예술-운동,오락	346	150	0	106	64	26
정치-법제,병사(兵事)	585	107	165	242	48	23
사회-풍속,가정(家政)	396	183	0	85	62	66
경제-교통,통신,해사(海事)	892	118	105	563	88	18
산업	280 ⁽¹⁾	107	0	153	6	14
지리,역사	1,354	189	264	810	27	64
양서(洋書)	71	2	0	48	0	21
아동도서	492	492	0	0	0	0
합계	8,851 ⁽²⁾	2,619 ⁽³⁾	824	4,346	525	527

* 자전(字典), 연감(年鑑), 통계(統計), 조선 관계도서

(1) 원문에 산업의 장서 책수도 278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장서 책수는 280으로 집계된다.

(2) 원문에 장서 책수 합계 또한 원문에 8,849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장서 책수의 합계는 8,851이다.

(3) 원문에 부문고의 장서 합계는 2,617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부문고 장서는 2,619로 집계된다.

<표 44> 열람 및 소장 도서의 수 (1934년 12월말 현재, 단위: 권)

도서분류별	열람	소장
총기(總記)	867	657
종교,교육	716	1,243
문학,어학	8,531	2,104
과학	1,456	431
예술	939	346
법정(法政), 병사(兵事)	966	585
사회	196	396
경제	218	892
산업	257	278
지리,역사	1,798	1,354
소년,소녀 도서	9,782	492
양서(洋書)	0	71
합계	25,726 ⁽¹⁾	8,849

(1) 원문에 열람 합계는 18,048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25,726로 집계된다.

도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대 상황에 적합한 유익한 것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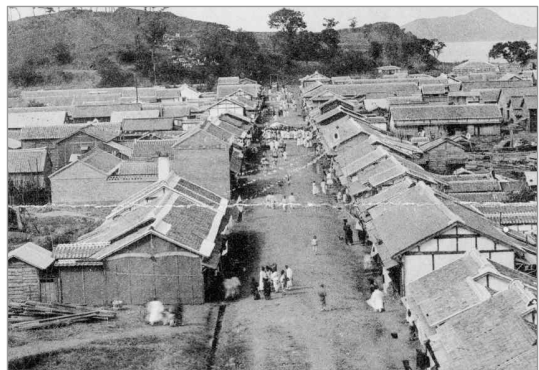
제16장 사회교화기관

군산부의 사회교화사업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실행은 주로 부(府) 사회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체 관념 및 경신사상(敬神思想) 함양, 국기계양 장려, 공덕심 조성, 공공 봉사 관념 고취, 근로정신 고조, 시간 존중, 정시(定時) 장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민심 진흥을 고취시키고 있다. 때때로 학자, 교육자, 군인, 사상가, 종교가, 기타 조선의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 실행에 노력하고 있다. 부내의 교회 및 사업단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양단(修養團) 군산지부

수양단 군산지부는 ‘총친화(總親和), 총노력(總努力)’의 미풍을 진흥하기 위해 동포애, 유한단련주의(流汗鍛鍊主義)를 고취하고 실행하는 단체로, 1923년 8월 오쿠라 요네키치(大倉米吉)¹¹¹⁾와 기타 유지들이 주창하여 설립되었다. 하지만 당시 실행 사항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몇 년 간 중단되었다가 이후 재개되면서 순조롭게 발달하여 현재는 단원 8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군산뿐만 아니라 지역 유력 교화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시설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1. 정신진작운동: 황도(皇道)정신의 진흥을 위해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¹¹²⁾, 명치절(明治節) 등에는 일본의 빛나는 건국 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히 조선인 마을에 진출해 정신작흥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항 천장절 모습]

2. 부민총립운동: 매일 1일과 15일마다 아침 일찍 군산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선전 장려해 국가 관념의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을 힘쓰고 있다.

111) 오쿠라 요네키치(大倉米吉)는 도쿄 출신으로, 1908년 3월 오쿠라 농장[大倉農場] 경영을 위해 전북 옥구로 건너와 1931년 6월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경영한 경제인이자 대지주이다. 1917년 전라북도 학교조합 관리자, 1923년 이래 군산흥농주식회사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일제하 대지주 명부’, ‘자본가지주총람’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112) 천장절은 일본 왕의 생일[天皇誕生日]로 쇼와 일본 왕 생일은 4월 29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천장절로 불렸으며, 1948년에 ‘천황탄생일’로 바뀌었다.

3. 국기게양 보급 철저: 부내 조선인 마을의 정우회(町友會) 간부와 협의한 결과 매월 1회 국기게양 조사일을 정하여 해당 날짜에는 반드시 국기게양식을 거행한다. 군산부 및 경찰서의 후원을 얻어 정우회 간부와도 협력해 국기유무를 조사해 국기를 소유하지 않는 집은 반드시 다음 게양식 때까지 구입하도록 하여 민심작흥에 노력하고 있다.
4. 강연 및 강습회: 봄, 가을 2회 반드시 명혼현현(明魂顯現) 강습회를 개최하고 수양단 본부의 강사 및 명사를 수시로 초빙하고 있다. 이에 단원은 물론 일반 부민의 출석을 독려하고 강연을 듣도록 부탁하는 등 사회교화 보급에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5. 상호수양회: 매월 1일, 11일, 21일 밤에 단원이 모여 수양단 의식에 따라 상호 수양회를 개최하고 있다.
6. 방공기(防空器) 헌금의 날: 시기에 맞춰 단원인 청소년부가 방공기 헌금 모금의 취지에 따라 행인이 헌금 상자에 기부하도록 앞장선다. 1933년 6월 21일부터 실행하고 있다.
7. 조기회(早起會): 국민정신 작흥, 자력갱생의 정신이 왕성할 수 있도록 1930년 이후 조기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사관행(一事實行)의 정신을 양성해 오고 있다.
8. 미화작업(美化作業): 단원은 군산신사 및 공원 등에서 음주를 근절하고 고귀한 근로작업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9. 지도자: 지도자(임원)는 다음과 같다.
간사장: 후지타 후미이치(藤田文市)
간 사: 우치다 이와오(內田岩男), 이모리 마사요시(飯盛正好)
쓰치노 요시노리(土野義記), 와다 세이이치로(和田清一郎)
고 문: 사토(佐藤) 부운, 히가시(東) 경찰서장, 아리마(有馬) 도립군산병원장

□ 성지회(誠之會)

본회는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을 1913년 12월에 창립했다. 그 당시 군산출옥인보호회(群山出獄人保護會)로 명명하고 사무실을 군산형무소 지소 내에 설치했다. 이후 점차 사업이 확대해지자 1922년 2월에 조직을 재단법인으로 바꾸고 이름을 성지회로 개칭하였다. 1924년 8월에 옥구군 미면 둔율리에 사무소 및 수용소를 이축했으며, 1928년 9월 일본 왕 즉위[御大典] 기념사업 기금 증식 방법으로 셋집[貸家] 6동 12호를 완성하여 지금에 이른다.

본 회의 보호 방법은 일시 보호 및 계속 보호 2종류이다. 일시 보호는 보호할 친족, 오랜 친구가 있지만 빈곤하여 의류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단신 귀향이 불가능한 사람, 도중에 유혹에 빠질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을 적절히 보호하여 이주지로 귀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계속 보호는 본회에서 수용해 각각 본인 경

력, 기능 및 희망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직업을 안내하고, 향후 독립 자영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 목적이다.

최근 1년간 피보호자 총 인원은 약 200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받은 인원은 2,000명에 이르고 현재 훌륭한 사회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자도 다수이다. 회장은 군산 부윤이다. 이외에 고문, 이사, 감사, 평의원을 둔다.¹¹³⁾

□ 기타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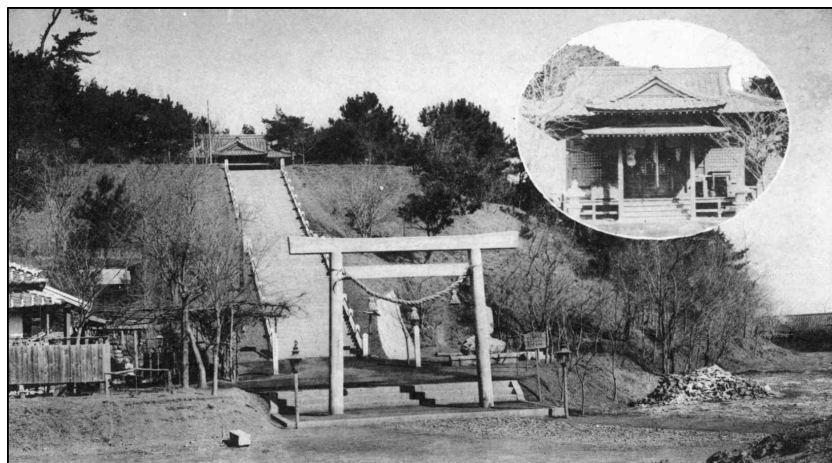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단체 외에 각종 불교부인회, 흰백합회[白百合會]가 있다. 불교부인회는 교의(敎義)를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신앙의 길로 정진한다. 흰백합회는 부인만으로 조직했으며 수시로 회합을 개최해 행사를 치루고 강연회를 여는 등 정신 수양을 한다.

113) 군산 성지회는 1937년 1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보호단체’로 지정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37.1.25.).

제17장 신사와 절, 교회, 포교소

경신숭조(敬神崇祖)¹¹⁴⁾에 대한 독실함은 야마토(大和) 민족의 전통적 장점이며 신앙으로, 도덕관념을 굳히고 덕성(德性)을 높이는 것은 일본 국민의 중요한 근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부세(府勢) 발전을 위해 사원, 포교소를 개소하고, 제사, 법요, 설교, 강연, 강화(講話) 등 종교 행사를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정신수양 및 정신작흥을 위한 유익한 점이 많다.

□ 군산신사(群山神社)



[군산신사]

다이쇼 일본 왕[天皇] 즉위 기념[御大典記念] 사업으로 1915년 11월 건립했다. 군산부민의 수호신으로 아마테라스(天照) 황대신궁(皇大神宮)을 봉사(奉祀)¹¹⁵⁾한다. 본전, 배전(拜殿), 사무소 건축비로 6,500원이 소요되었다. 1916년 12월 총독부령 사사규칙(社寺規則)에 의거해 신사창립 인가를 받았다. 1917년 9월 부내 일원을 우지코[氏子] 구역¹¹⁶⁾으로 정하고 이치코대총대[氏子大總代] 및 우지코총대[氏子總代]를 선출하여 신사비(神社費) 세입출 예산을 정하고 대, 중, 소 공식 제전의 집행 및 유지 방법을 결정했다.

1920년 4월 각출금 16,000여 원을 모집하여 미코시[神輿] 한 채와 여러 행렬 물품을 새롭게 만드는 동시에 돌계단을 축조하였다. 같은 해 10월 15~16일 이틀에 걸쳐 성대하

114) 경신숭조(敬神崇祖)는 신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함을 의미한다.

115) 봉사(奉祀)는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

116) 우지코[氏子] 구역은 신사를 중심으로 동쪽이나 지연(地緣)을 갖는 우지코의 거주지를 말한다. 우지코는 같은 씨족신을 모시는 고장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고 장엄한 대제(大祭)를 집행한 이후 매년 10월 15~16일에 가을 제례를 지냈다.

1932년 10월 황송하옵게도 이세대신궁(伊勢大神宮)에서 어신보(御神寶)를 기증받았다. 어신보는 신경(神鏡), 장도(太刀), 방패(楯), 활(弓), 화살통(靫)으로 총 다섯 종류이다. 사장(社掌)¹¹⁷⁾은 스기노 세이조(衫野清造), 씨자대총대 신림(神林)은 마쓰기치(松吉), 고하라 스케타로(香原助太郎), 이토 미쓰사부로(伊藤光三郎), 이소베 겐야(磯部謙哉), 도히 미쓰사부로(土肥密三郎)이다. 또한 이전부터 부민 사이에서 개축 계획이 있었으며,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상세한 사항은 후술하겠다).

□ 곤도히라신사(金刀比羅神社)

1902년 5월 당시 영사(領事)의 인가를 받아 건립했다. 신사에 모신 신은 오쿠니누시노 미코토(大國主命)와 스진텐노(崇神天皇)의 2주(柱)로, 군산 신공원 남서쪽 정상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 군산신사의 말사(末社)¹¹⁸⁾가 되어 매년 5월 9~10일 이틀 동안 제사 의식을 집행한다. 특히 어업 종사자의 참배가 많으며 출사(出仕)는 이구치 고헤이(井口小兵衛)다.

□ 대곡파 본원사(大谷派 本願寺)

군산 개항과 함께 포교소를 개설하고 정신계에 공헌하는 한편, 당시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는 아동을 위해 포교소의 일부를 개방해서 교육에 힘썼다. 이것이 군산소학교의 시초였다. 대곡파 본원사는 1905년에 지금의 천산정(淺山町)에 신축했다. 주지는 다케바야시 미토(武林實登)이다. 사원 건물은 30년의 세월을 견디며 여기저기 노후해 보기 흉하고 좁기 때문에 예전부터 개축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 봄 공사를 착수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 본파 본원사(本派 本願寺)

1912년 9월 처음으로 전주통(全州通)에 포교소를 개설하고 곧 횡전정(橫田町)으로 이전했다. 1916년 7월 사사규칙(社寺規則)으로 진종사(眞宗寺)로 공식적인 명칭을 허가받았다. 1916년 신축에 착수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준공했다. 주지는 즈이코 에겐(瑞光惠眼)이다.

□ 정토종 대음사(淨土宗 大音寺)

1904년 10월, 개교사(開教使)¹¹⁹⁾인 와타나베 겐료(渡邊賢慮)가 군산에 와서 교회소(教

117) 사장(社掌)은 신직의 직명으로 격이 높은 신사에서는 신관 다음이며, 격이 낮은 마을 신사 등에서는 신관을 역할과 서무를 관리했다.

118) 원문에는 ‘末社’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末社’의 오키로 보인다. 말사는 본사(本社)에 부속된 작은 신사이다.

119) 개교사(開教使)는 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지방에 교법(教法)을 펼치는 승려이다.

會所)를 건립해 포교하는 한편 일본어학교를 설립하여 조선인 교육에 종사하였다. 1906년 11월 본당을 신축하고 군산사(群山寺)로 칭했는데, 1917년 사사규칙에 의해 정토종 대음사로 개칭하였다. 1925년 도로 개수공사로 당우(堂宇)를 개축하였다. 당시 주지는 후카마치 요시히데(深町良英)였고, 22년 간 군산에 거주하며 절의 발전 및 교화에 크게 공헌했으며, 올해 4월 규슈(九州)의 히라도(平戸)로 전임갔다. 후임은 가토 준교(加藤純敎)이다.

□ 일련종 안국사(日蓮宗 安國寺)

1905년 군산 주재 포교사로서 하라 모쿠쇼(原黙松)가 포교에 종사하였다. 1924년 12월 당국의 인가를 얻어 일련종 안국사로 개칭하였고, 1931년 10월 현재의 위치인 천산정(淺山町)에 신축하였다. 주지는 이치다 모토히로(市田元弘)이다.

□ 조동종 금강사(曹洞宗 錦江寺)

1909년 우치다 붓칸(內田佛觀)이 포교를 위해 군산을 순행하였을 때 일조통(一條通)에 포교소를 개설하였고, 1913년 7월 현재의 장소인 금광정(錦光町)에 신축하였다. 그 후 사원 뒤편에 33개소의 석상불을 건립하고 1920년 변재천(辨財天) 법당을 건립했다. 한편 1916년 9월 사사령(社寺令)에 따라 사원의 공식 명칭을 인가 받았다. 주지는 아사노 뎃센(淺野哲禪)¹²⁰⁾이다.



[금강사, 현 동국사]

120) 아사노 뎃센(淺野哲禪, 1897~1990)은 일본 시즈오카현 출신으로 1931년 3월 조동종(曹洞宗) 대본사별원(大本山別院) 조계사(曹溪寺) 원대(院代, 駐在 포교사)에 취임하기 위해 조선에 건너왔다. 이어서 군산 주재 포교사 금강사(錦江寺) 주지로 임명되었으며, 만주파견군 위문 포교사, 재향군인회 군산연합분회 평의원 등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 고야산 편광사(高野山 遍光寺)

1911년 3월 유곽이 있는 언덕 위에 건립했다. 1916년 3월 현재의 전정(田町)으로 이전해 신축했다. 1918년 7월 총독부의 공인을 얻어 사원으로 승격, 고야산 편광사로 불렸다. 주지는 오노 히로에이(小野宥英)이다.

□ 군산일본기독교회

군산 일본기독교회는 1905년 경성조합교회 목사 겐모치 쇼고(劍持省吾)가 월 1회 정도 군산에 와서 소수의 신자를 모아서 전도를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지금은 교토(京都)로 이주한 군산의 공로자 오쿠라 요네키치(大倉米吉)¹²¹⁾는 1908년 4월 군산에 이주하였다. 오쿠라의 노력으로 일본기독교회 목사인 고바야시 미쓰시게(小林光茂)를 전도사로 맞이하고 같은 해 8월 신흥동(新興洞)에 전도교회를 개설했다.

이후 교세가 서서히 성장하고 신자 수도 증가해, 1916년 현재의 옥정(旭町)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1931년 1월 오쿠라, 미야코(都)와 그 외 장로, 신자의 기부로 비로소 교회다운 건물을 신축하여 헌당하였다.

부속 사업은 일요학교, 부인회(주부 및 어머니 모임) 광염회(光鹽會, 청년가장 모임), 청년회(남자 청년 모임), 마리아회(여자 청년회 모임), 시온회(여자 청년회 여학생 모임) 등이 있다. 신자 수는 150명이며, 목사는 사바나이 데쓰조(佐羽内哲三), 장로는 미야코 소타로(都宗太郎), 이카이 요(猪飼要), 노미 다메지로(能見爲次郎), 다케다 모토스케(武田基助),¹²²⁾ 가지 아야노(鍛冶アヤノ) 등이다.

□ 군산신사 개축 계획 결정

오랫동안 우지코총대[氏子總代] 사이에서 제창된 군산신사 개축 계획은 최근 몇 년 재계의 불황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군산의 발전 확장에 따라 다른 시설물은 매년 개선되어 면목을 새롭게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부민의 수호신인 군산신사가 20년 전 모습 그대로 인 채 노후하고 보기 흉해진 것은 매우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한편 부회(府會)에서도 사토 부운을 비롯한 의원 일동이 개축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일본 왕자[皇太子 殿下] 탄생’ 기념사업으로 개축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제창했다. 이에 따라 신사 사장(社掌), 우지코대총대[氏子大總代] 등은 큰 힘을 얻어 설계를 군산부에 의뢰했으며, 부에서는 군산의 상황과 경비 등을 고려해 설계안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부 당국 및 씨자대총대는 1934년 5월 13일 부청에서 회합을 갖고 설계안에 기초해 대강 협의를 마쳤고, 16일 공직자와 씨자총대가 부청에서 회합했다.

121) 오쿠라 요네키치(大倉米吉)는 오쿠라 재벌의 설립자인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 1837~1928)의 차남이다.

122) 다케다 기조(武田基助, ?~1915)는 아라이 약방 약제사로, 1915년 5월 조중응(趙重應)이 소장인 한약강습소의 평의원을 역임하였다.(『매일신보』 1915.6.2.)

협의 결과 정식으로 ‘일본 왕자 탄생’ 기념사업의 일환에서 개축할 것을 결정했다. 먼저 건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을 두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사토 부운, 부위원장에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간바야시 마쓰요(神林松吉), 문종구(文鍾龜) 세 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으며, 상임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기로 했다. 이후 상임위원 31명, 위원 76명을 위원장이 위촉하고, 고문으로는 조선신궁 공사(宮司) 아치와 야스히코(阿知和安彦), 총독부 기사 사사 게이이치(笹慶一) 두 명을 두었다. 상담역으로는 도립군산의원장 아리마 조지로(有馬長次郎),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상석 판사 나카다 겐시(永田顯士), 동 상석 검사 기타무라 나오키(北村直甫), 군산경찰서장 히가시 주베이(東仲兵衛), 군산미곡거래소 이사장 모리 기쿠고로(森菊五郎), 전임 군산상업회의소 회장(會頭) 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郎)¹²³, 전임 회장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총 7명을 위촉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씨자대총대, 상임위원, 위원은 6월 2일 군산신사에서 개축 봉고제(奉告祭)를 시행했다. 그 후 이들 임원은 수시로 기부금 모집 등 적절한 방법을 논의하여 1935년부터 1937년까지 3년간 계속 사업으로 4만여 원으로 건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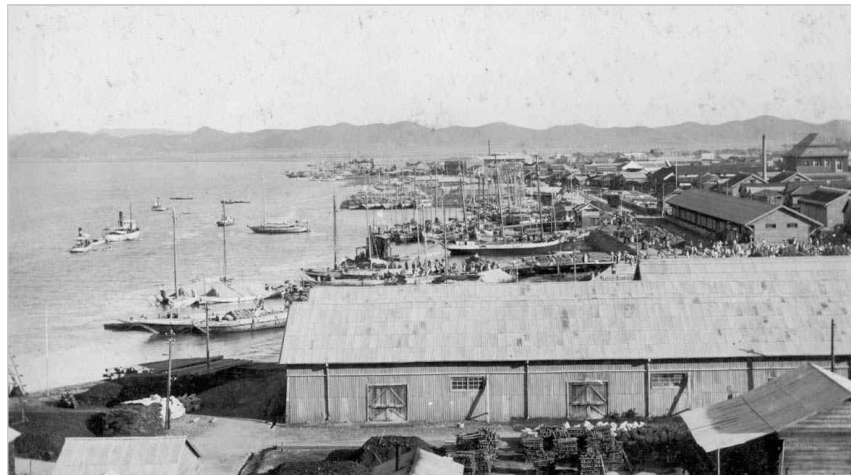
[군산신사 배전]

123) 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郎)는 1866년에 시마네현에서 출생하였다. 1897년 조선으로 건너와 선박운송업, 목재철재상, 철공업, 조선업, 창고업 등을 경영한 경제인이자 동시에 도평의회 의원, 부협의회 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도 활동하였다. 1897년 전남 목포에서 어물도매상인 오사와상회[大澤商會] 목포지점 설치를 시작으로 1899년 오사와상회 군산출장소를 설치하여 오사카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 대리점을 겸하였다. 1903년 군산으로 이주하여 오사와상회를 군산해산회사(群山海山會社)로 개칭하고 군산통상합자회사(群山通商合資會社), 오사와제재소(大澤製材所), 오사와조선철공소(大澤造船鐵工所) 등을 설립하고, 조선운수 주식회사나 전라북도 수산 주식회사, 군산 인쇄 주식회사, 전북 경편 철도 주식회사, 군산 무진금융 주식회사, 군산 상공신탁 주식회사 등에도 관계하는 등 사업에 몰두하였다. 군산상업회의소 평의원 및 회장, 군산부협의회 의원, 전라북도도평의회 의원, 군산 소방조 조두(組頭)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군산항 축항 문제에 주력하였다. 1900년 고향인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항(濱田港)이 특별수출항이 되면서 조선 남부지방과 이를 연결시켜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주력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조선총독부직원록’, ‘한국근현대회사조합’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제18장 항만(港灣)

□ 축항운동과 준공

군산은 본래 ‘호남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미곡이 주요 산물이었다. 예전에는 군창(群倉)으로 불렸으며, 그 후 ‘쌀의 군산’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오래 전부터 유지들이 항만 축조를 요구했지만, 당시에는 무역액도 적었고, 당국도 지방의 일개 작은 항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1906년 이후 강제 병합 때까지 한국정부에서 공사비 89,000여 원을 투자해 세관용지의 일부로 강기슭을 매축하고 잔교 1기를 축조해 육상에 자그마한 설비를 했을 뿐이었다.



[군산항 수축 예정지]

이후 1910년부터 1915년에 걸쳐 국비 32,900여 원을 들여 잔교 3기를 축조했으며 화물전용 철도 연결선을 강기슭까지 연장했다. 1918년부터 1921년에는 국비 153,700여 원을 들여 강기슭을 매축해 철도 연결선을 부설하고 동시에 화물창고 건설, 도로 축조와 잔교를 확장하고 또한 잔교[棧橋] 1기를 증설하였다.

원래 군산항은 금강 하류에 위치한 탓에 진흙과 모래가 쌓여 수심의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1915년 이후 D형의 프리스트만식 준설기(浚渫機) 1대를 설치해 정박지를 계속 준설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항세(港勢)가 빠르게 발전해 무역액이 매년 증가하자 지역 유지들은 1911년 이미 ‘군산수도축항기성동맹회(群山水道築港期成同盟會)’[회장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를 조직해 당국에 청원과 진정을 거듭했다. 이듬해인 1912년 ‘수도’ 두 글자를 빼고 ‘군산축항기성동맹회’를 창설해[회장 하시모토 히사시(橋本央)¹²⁴⁾] 새롭게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군산을

지방의 작은 항구로만 여겼기 때문에 군산 유지들은 어찌할 방법 없이 시기 문제로 판단하여 축항기성동맹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이후 1919년에 이르러 무역액이 급증함에 따라 항세가 급격히 발전하여 유지들은 언제까지 원시적인 항만으로 안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 번 분투하여 목적을 끝까지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축항기성동맹회를 부활시키는 물론 이번에는 ‘동맹’ 두 글자를 빼 ‘군산축항기성회’[회장 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郎), 부회장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로 개칭하였다.

총독부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맹렬한 운동을 시도했으며 위원이 도쿄에 가거나 부민대회를 개최하고, 전조선상업회의소 연합회 및 전국항만협회총회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속 노력한 결과, 제45회 제국의회 중의원에서 가결되어 제46회 제국의회에서 귀족원과 중의원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그 후 중의원에서 다시 가결됨에 따라 당국도 항만 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불행히도 매년 재정 난관으로 인해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총독부는 드디어 1923년에 차년도 예산안에 계상했지만 관동대지진이 발발하여 또다시 중단되었다. 유지들은 오랜 시간의 노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24년 7월 정무총감이 경질되고, 지혜가 몹시 뛰어나며, 기개가 높고, 결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판이 좋은 시타오카 주지(下岡忠治)¹²⁵⁾가 신임 정무총감으로 임명되었다. 시타오카 정무총감은 가장 먼저 조선 개발을 위한 관건으로 산업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동시에 중요 안건으로 산미증산계획을 세웠다. 다음 부대사업으로 항만 개량, 철도 부설, 치산치수(治山治水) 시설을 만들 것을 계획했다. 재정 긴축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타오카 총감의 산미증식계획을 채용하였다. 1926년 계속 예산 2억 2천만 원의 거액으로 1926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결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분의 관계인 군산 축항 축조를 위해 6년간 동일하게 285만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1926년도부터 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군산 부민이 그토록 꿈꾸어 왔던 군산항만 축조 문제는 경사스럽게 해결되었다. 부민은 오랫동안의 소망이 드디어 달성되어 마치 10년 간 드리웠던 구름을 걷어내고 눈부신 태양을 맞이하는 듯한 감정에 젖었다. 따라서 총독부 군산토목출장소에서는 1926년

124) 하시모토 히사시(橋本央)는 1865년 구마모토에서 출생하였다. 1906년 조선으로 건너와 군산항에서 무역업 및 정미업, 재제염업(再製鹽業)을 시작했으며 전북 김제군에서 하시모토농장[橋本農場]을 경영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군산흥농(群山興農), 전북축산, 금강토지건물, 면강토지건물, 황등산업(黃登産業) 등의 사장과 이사를 역임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경제인이다. 동시에 군산상업회의소 의원, 군산부회 의원, 군산 소방조(消防組) 부장(副長), 군산거류민회 의원, 전라북도 도평의회 의원, 면협의회 의원, 김제학교조합 관리자, 김제교육회 회장, 김제군농회 부회장, 전라북도농회 평의원 및 통상의원, 김제읍장(명예직), 전라북도곡물협의회 평의원, 동진수리조합(東津水利組合) 조합장 및 상설위원, 조선소방협회 전북지부장, 적십자 김제분구장, 김제국방의회 회장, 조선신궁봉찬회 전북지부 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조선총독부직원록’, ‘한국근현대회사조합’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125) 시타오카 주지(下岡忠治, 1870~1925)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1924년에 부임하였다.

6월 25일을 길일로 정하고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¹²⁶⁾ 자작, 기타 관민, 귀빈, 유지를 초대해 세관지서 구내에서 성대한 기공 기념식을 거행한 후, 관민유지가 주최한 축항기공 축하회를 군산공원 아래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대략 행사 당일의 광경은 다음과 같다.

• 기공식

축항 기공식은 1926년 6월 25일 오후 2시 군산세관지서 구내에서 거행되었다. 기공에 앞서 내빈 일동 식당에 참진(參進),¹²⁷⁾ 수수(手水)¹²⁸⁾ 의례가 있었고, 이윽고 정각이 되자 이쿠타(生田) 내무국장의 안내로 사이토 총독 임장(臨場), 수불(修祓)¹²⁹⁾, 강신(降神)¹³⁰⁾ 축사(祝詞), 다마구시(玉串)¹³¹⁾ 봉정(奉奠)(제주(齊主), 총독, 내무국장, 토목출장소장, 지사, 부윤, 세관장, 상업회의소 회장, 축항기성회장 등이 교대로, 봉전식(奉奠式)에서 철찬(撤饌),¹³²⁾ 승신(昇神) 의식이 진행된 후 총독의 고사(告辭), 지사, 부윤, 상업회의소 회장, 축항기성회장의 축사가 있고, 토목출장소장의 답사를 끝으로 식을 마쳤다.

사이토 총독의 고사(告辭)는 다음과 같다.

오늘 군산항 축조 기공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실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본래 군산항은 조선의 중요 항만 중 하나로 배후에는 전북, 충남의 옥토가 지척에 있으며 특히 근래 수리사업 발달과 교통기관 정비로 항세(港勢)가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역도 이미 5~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달성한 근황(近況)만 봐도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6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21척에 이르며 해륙 연락설비를 완성하지 못해 곤경에 처해왔습니다. 화물 운송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군산항 수축 사업은 오래 전부터 매우 긴요한 사업으로 모두가 염원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국비가 다양해져 군산항의 수축을 급선무로 삼을 수 있었고, 경비 285만 원을 할애하여 6년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오늘 기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관민은 본 공사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협력해서 완성할 때까지 힘써주기 바라며 산업 개발, 국력 충실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고사하는 바입니다.

• 기초석 침전식[基石沈奠式]

126)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는 조선총독부 3대, 5대 총독이다.

127) 참진(參進)은 신전(神前) 앞에 나아가는 의식이다.

128) 수수(手水)는 신사나 사원에서 참배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의식이다.

129) 수불(修祓)은 신도(神道)의 행사 중 하나로, 끝이 여러 갈래로 나뉜 형겅이 달린 막대기를 참례자들의 머리 위에서 흔들며 부정 따위를 없애는 의식이다.

130) 강신(降神)은 신을 부르는 의식이다.

131) 다마구시(玉串)은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목(神木)인 비쭈기 나무에 천이나 종이를 매다는 행위로 신을 불러오는 의식이다.

132) 철찬(撤饌)은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 음식을 거두어 치우는 것을 의미한다.

기공식 종료 후 오후 3시부터 해상에서 기초석 침전식¹³³⁾을 거행하였다. 제주(齊主), 총독, 계원 등 참여자는 제1부교 또는 제3부교에서 기선에 나눠 타고 기초석 침전 장소에서 침전하였다. 먼저 최초 수불 의식 후 사와무라 부윤의 딸이 기초석의 제막을 맡았다. 이어서 일동이 경례하자 정박 중인 기선이 일제히 기적을 울림과 동시에 사이토 총독이 밧줄을 잡자 기초석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장엄한 기초석 침전식은 끝이 났다.

• 축하회

축하기공 축하회는 사와무라 부윤이 위원장, 관민 6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성대히 개최되었다. 부민은 드디어 다년간의 숙원이 달성한 기쁨을 축하하며 행운을 빌며 오늘부터 3일 간 모든 영업을 쉬었다. 각 가정에서 국기헌등(國旗軒燈)¹³⁴⁾과 장식을 하고, 각 정(町)에서는 다시(山車),¹³⁵⁾ 진대, 가장 행렬을 하였다. 또한 학교 생도는 낮에는 깃발 행렬을, 밤에는 제등 행렬을 해 시내를 마치 환락향(歡樂鄉) 같았다. 축하 회장은 군산공원 아래 공설운동장에 설치했으며 공원의 푸른 소나무를 배경으로 초여름의 시원함이 자연스레 밀려왔다.

축하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하였고, 참석자는 내빈 및 회원을 포함해 약 800명이었다. 이윽고 사이토 총독이 자리를 잡고, 정각이 되자 사와무라 부윤이 일어나서 한 차례 인사를 한 뒤 이쿠타 내무국장과 마키야마(牧山) 의원의 소감과 연설이 있었다. 계원이 각지에서 보내온 축전을 낭독한 후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무렵 사이토 총독이 일어나서 ‘군산 만세’를 삼창하였다. 이어서 아카마쓰(赤松) 회장이 화답으로 ‘총독 만세’를 삼창하였다. 일동은 이로써 화기애애해졌고 그 소리가 공원의 신록을 타고 군산 천지에 퍼졌을 정도로 대단히 즐거운 분위기였다. 어느새 회장 정면에 펼쳐진 무대에서는 끊임없이 예기[紅裙]들의 여흥이 펼쳐지고, 축하를 다한 후 오후 7시 폐회했다.

당일 내빈은 다음과 같다.

사이토 총독	이쿠타 내무국장	이케다(池田) 식산국장	후지나미(藤波) 통역관
잇시키(一色) 보좌관(御用掛)	로쿠하(祿葉) 토목과장	요코이(横井) 기사	니시모토(西本) 사무관
이케다(池田) 기사	시모무라(下村) 사무관	닛타(新田) 인천세관장	와타나베(渡邊) 전북지사
김(金) 전북 참여관(參與官)	노다(野田) 전북내무부장	도미나가(富永) 전북경찰부장	마쓰이(松井) 전북토목과장
사이토(齋藤) 전북경무과장	석(石) 충남지사	다케이(武井) 충남내무부장	사에키(佐伯) 충남경찰부장
다키(多木) 의원	마키야마(牧山) 의원	와타나베(渡邊) 동척총재	후지이(藤井) 불이흥업사장
이스미(亥角)	이노우에(井上) 오사카야사히	오노(小野)	가사가미(笠神) 경성일보 경
동진수리조합장 ¹³⁶⁾	경성지국장	조선경제일보사장	제부장 외 신문기자 수 명,
야마노(山野) 목포상의	요코다(横田) 인천부윤	오카모토(岡本) 인천상의	(기타 순서 불문)
(木浦商議) 회장		서기장	

133) 침전식은 공사의 안전을 기원하며 기석을 바다에 던져 넣은 일이다.

134) 국기헌등(國旗軒燈): 국기를 처마에 다는 것이다.

135) 다시(山車): 일본의 제례 및 축제 때 갖가지 장식 등을 하고 이끄는 수레를 의미한다.

136) 이스미 쥬조(亥角仲蔵, 1878~?)는 일제강점기 판사, 내무관료, 조선총독부 관료이다. 교토부에서 출

• 축항 공로자

군산 축항 문제 해결에는 당시 정부 당국의 뛰어난 식견과 명석한 판단도 있지만 무엇보다 군산부민과 유지의 열성적인 노력과 그것을 지원한 조선 관련 각 의원과 기타 재경(在京) 유지의 성과라 하겠다.

다음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군산 유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군산상업회의소 조사, 순서 불문).

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郎)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이소베 겐야(磯部謙哉)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이토 미쓰사부로(伊藤光三郎)
고하라 스케타로(香原助太郎)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
마쓰모토 이치고로(松本市五郎)	간바야시 마쓰요(神林松吉)	우에다 에이키치(上田榮吉)
히라하루 도미조(平春富藏)	니시무라 마타사부로(西村又三郎)	우에다 가쓰(上田勝)
지카미 간이치(千頭貫一)	와타나베 센조(渡邊仙藏)	오카다 스에요시(岡田末吉) ¹³⁷⁾
시미즈 기사쿠(清水喜作)	미야코 소타로(都宗太郎)	구도 쓰루마쓰(工藤鶴松)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무카이 쓰네지로(向井常次郎)	노무라 야스노스케(野村安之助-센다이)
김홍두(金洪斗)	사카우에 사다노부(阪上貞信-사망)	하시모토 히사시(橋本央-김제)
아마노 기노스케(天野喜之助-도쿄)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도쿄)	마쓰다 기치지(増田吉次-사망)
모리타 시게오키(森田重興-사망)	마쓰마에 젤쿠로(松前善九郎-사망)	모리타 다케오(森田雄夫-사망)

□ 축항 준공

1926년 6월 25일 기공식을 거행한 후 공사에 착수한 군산 축항은 도중에 정부의 긴축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1년을 연장하여 일곱 해를 보내고 1933년 3월 말에 기쁘게도 준공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토목출장소를 폐쇄하고 이후 항구 유지에 관한 사무는 내무국 이리토목출장소 관할 아래 설치한 군산 공영소(公營所)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축항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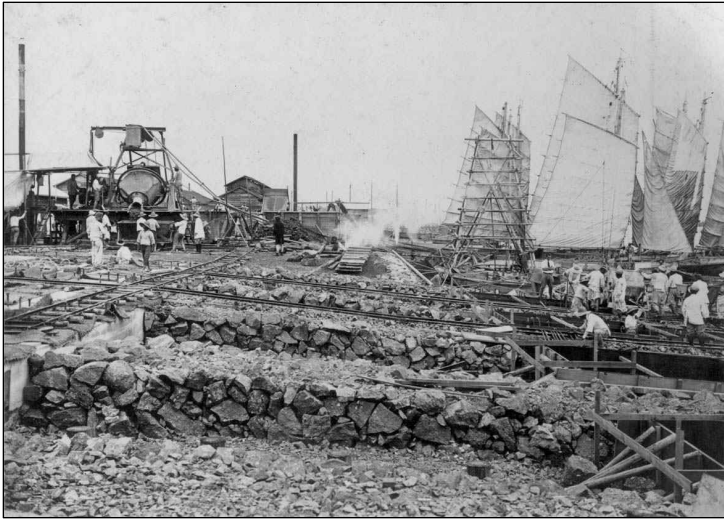
- 매축(埋築): 매축은 옛 해안선에서 폭 75m, 면적 45,000㎡를 간조면 위 7m 5분(分)의 높이로 매립해 호안¹³⁸⁾ 및 물양(物揚)¹³⁹⁾을 연장하여 823m 축조하고, 착평지(鑿平地) 면적 9,000㎡를 더해 세관 확장구역으로 충당한다.
- 해륙 연락 설비(海陸連絡設備): 매립지 호안 전면에는 기선을 계류할 수 있는 잔교 3기를 설치하고, 선차(船車)와 연락을 시도하는 동시에 앞바다에 정박하는 기선을 위해 부선용(舢舨用) 다리 3기를 배치해 하역에 사용한다.

생하였으며, 1902년 와세다대학 졸업한 후, 법정대학 졸업. 조선통감부 경시, 조선총독부 경무관, 경시, 돗토리현 내무부장을 역임하였다. 전라남도 지사, 전라북도 지사 역임한 후 청진수리조합장, 유신 광업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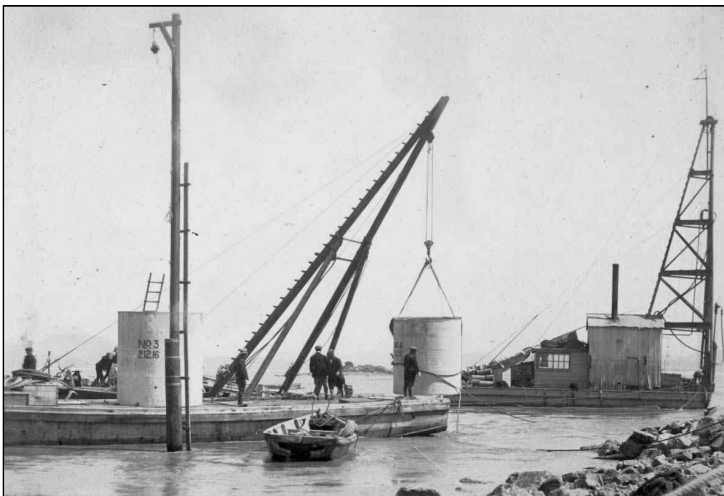
137) 원문에는 오카다 스에키치(岡田末吉)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카다 스에요시(岡田末吉)의 오기로 보인다.

138) 호안(護岸)은 강이나 바다의 기슭이나 둑을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나 장치이다.

139) 물양(物揚)은 배의 짐을 육지로 올리는 곳이다.



[부잔교용 함선(函船) 사로(斜路)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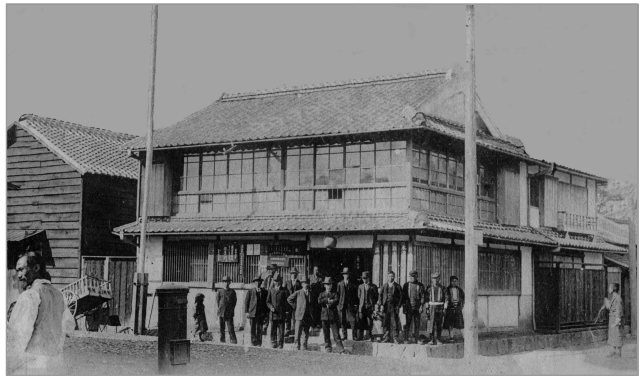


[부잔교를 없기 위한 원주 설치 작업]



[잔교 공장 설비]

- 육상 설비(陸上設備): 매축지 내에 있는 잔교 전면에는 화물 창고[上屋] 3동 건설한 면적 7,000㎡, 부선(舢舨) 잔교 전면에는 면적 10,700여 ㎡의 옥외 화물 적치장을 조성하고, 화물 창고 뒤편에는 연장 2,500여 미터의 도로를 개설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사용한다. 매립지에는 폭 20미터 내지 11미터, 면적 21,000㎡의 도로를 건설하는 동시에 상하수도, 조명 및 기타 설비를 갖춘다. 화물 창고 3동은 쌀 25만 가마니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으며 하루 150차량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다.
- 잡공사(雜工事): 강 건너편 소치곶(所雉串)에는 연장 400여 미터의 제수제(制水堤)를 축설하고 항구 내 정박지[錨地]의 수심 유지를 도모한다.
- 예선(曳船) 호남환(湖南丸): 본선(本船)의 잔교 계류용 예인선은 고베(神戸) 미쓰비시 조선소에 주문해 건조 중으로 1933년 3월 28일 군산항에 들어올 예정이다. 배는 100여 톤의 대형 우수선(優秀船)이다.
- 축항 잔교 이용: 축항 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세관지서, 상공회의소 미곡상조합은 각각 선박회사와 하루라도 빨리 소유한 기항 기선(汽船)을 축항 잔교에 계류시킬 방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는 총독부의 명령으로 항로에 종사하는 소유 기선인 사쿠라지마마루(櫻島丸, 등록 톤 수: 1,281톤)를 1933년 7월 8에 계류하기로 하고, 예정대로 당일 오후 3시 인천에서 입항해 무사히 제 2잔교에 계류했다. 사쿠라지마마루는 축항 후 최초 잔교 계류선으로 군산 항만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록했다. 이어서 9일 오전 7시 오사카 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¹⁴⁰⁾의 소유 준키치마루(順吉丸, 등록 톤 수: 1,636톤)도 인천에서 입항해 제 3잔교에 계류하였고, 아мага사키 기선회사[尼ヶ崎汽船會社]¹⁴¹⁾ 소유 다이토마



[오사카상선회사 군산대리점]

140) 오사카 상선의 공식명칭은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이다. 일본에서는 개항 이후 선박업의 과잉경쟁이 일어나 히로세 사이헤(広瀬幸平)가 유지를 규합하여 1884년에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세계 각지로 항로를 확대했다. 1890년 오사카-부산, 1893년 오사카-인천, 1900년 오사카-군산 간 항로를 개설했다.

141) 아мага사키 기선의 원래 명칭은 아мага사키기선부[尼ヶ崎汽船部]였다. 이 회사는 1880년 설립되었고, 1885년 오사카에서 교도구미(共同組)를 설립하여 오사카교도구미로 개칭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 해운사업에 뛰어들었고, 1905년에 명칭을 다시 아мага사키센부로 변경하고 조선항로를 개설하여 성장했다. 1920년에는 아мага사키합명회사로 바꾸었고, 1942년 관서기선연맹회가 가맹회사 전부를 통합하여 관서기선 주식회사로 설립될 때 이 회사도 참여하였다.

루(大東丸, 등록 톤수: 1,232톤)도 동일 오후 3시에 인천에서 입항해 제1잔교에 계류하였다.

축항 준공과 동시에 3척의 기선이 나란히 정박한 군산부두의 장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활기 넘치는 잔교 하역 광경이 더해져 항만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후 허가받은 항로 또는 정기항로에 종사하는 기선이 연이어 잔교에 계류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 상선은 같은 해 9월부터 월 20회, 아мага사키 기선은 10회, 조선우선¹⁴²⁾은 6회, 기타 오카자키 기선(岡崎汽船), 다쓰우마 기선(辰馬汽船)¹⁴³⁾ 등도 임시 기항하여 계류하고 있다.

□ 군산부 항만조사회

군산부 항만조사회는 1931년 12월 설립해 군산항 및 부근 하천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의 조사연구를 위해 이들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고, 부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회는 군산부 항만조사회라 하며 사무소를 군산부청 내에 둔다.

제2조: 본회는 군산부윤 및 군산부회, 의원으로 조직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조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군산항 및 부근 하천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의 조사연구이며, 시설 개선과 부 행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군산항 제2기 축항에 관한 조사
2. 군산항 및 부근 하역에 관한 조사
3. 군산부 어장과 항만에 관한 조사
4. 금강의 하천 개선에 관한 조사
5. 금강철교가설에 관한 조사
6. 기타 항만에 관해 필요가 있는 조사
7. 앞의 각호의 실행에 관한 사항

제5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役職員]을 둔다.

회장

부회장: 1명

142) 조선우선은 1912년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일본계 우선회사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일본 우선회사와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했다. 조선 이외에 개설된 항로는 모지-웅기(雄基, 함경북도 항구도시)간이 있었다. 주요 항로는 목포-진남포, 부산-목포 등으로 연안정기항로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근해 항로를 개설했다.

143) 다쓰우마 기선은 1662년 창업한 다쓰우마주조가에서 설립한 회사이다. 다쓰우마는 패전 이전 일본 관서지역 재벌가 중 하나였다. 1892년 다쓰우마본가상점이란 이름으로 회사영업을 시작했고, 주조사업 이외에 해운업, 해상보험업, 교육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벌로 성장했다. 1905년 다쓰우마 기선부가 설치되었고, 1909년 기선부가 독립하여 다쓰우마기선합자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1916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조사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

서기: 약간명

임원은 회원의 호선으로 하며 서기는 회장이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

회장 사토 노리시게(佐藤德重), 부회장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조사위원장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 항만조사에 관한 경과보고

○ 제1회 보고(1934년 7월 25일)

1931년 군산부 항만조사회 창설.

1932년 6월 8일 항만조사회 회원 13명 추천.

1932년 6월 14일 사토 군산부윤은 항만협회 평의원에 당선됐다는 통지를 접하고
1932년 6월 14일 승낙.

6월 22일 항만조사회 회원 5명을 추가 추천하고 서기 6명을 임명.

6월 24일 서기 2명을 추가 임명.

6월 25일 서기 1명을 추가 임명.

항만조사회 회원 6명을 추가 추천.

6월 27일 항만조사회 회원 1명을 추가 추천.

오후 3시 군산부청 2층에서 제1회 항만조사회를 개최하고, 군산
항 제2기 축항 및 금강철교가설에 관한 결의 진행.

6월 27일 제1회 항만조사회 개최 결과에 따라 조선총독, 정무총감, 내무국
장, 재무국장, 식산국장, 경무국장, 철도국장, 척무대신, 토목과장,
공무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전보 발송.

- 제1 전보안: 군산항 제2기 축항은 가장 긴급하고 유익한 사업
으로, 금일 만장일치의 의결에 따라 1933년도부터 반드시 계속
실시하는 쪽으로 배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군산부 항만
조사회

- 제2 전보안: 군산 금강 철교 가설은 가장 긴요한 사업으로, 본
회는 만장일치의 의결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하는 쪽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월 17일 항만조사회 회원인 우시오 마사이치, 히구치 도라조, 미쓰토미 가
하치(光富嘉八), 가지 다사부로(梶太三郎) 4명은 제1회 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군산항 제2기 축항, 금강 철교 가설 및
어장과 항만 축조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상경해 조선총독,
정무총감을 비롯하여 각 관계 국장에게 진정.

- 10월 1일 사토 군산부윤, 회원 미쓰토미 가하치, 회원 히구치 도라조가 상경해 조선총독, 정무총감을 비롯하여 각 관계 국장에게 진정.
- 1933년 1월 18일 군산부윤이 항만 협회장에게 군산항 확장 및 군산항 금강 철교 가설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고 미야기현[宮城縣] 센다이시[仙臺市]에서 개최될 제6회 통상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뢰.
- 2월 24일 항만협회에서 군산 금강 철교 가설은 상당한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로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접함.
- 6월 3일 항만협회 간사가 군산 항만 확장에 관한 건은 5월 12일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6회 통상총회에서 가결되어 6월 1일 각각 정부관계 대신 앞으로 건의하는 절차를 마쳤다는 취지의 통지를 접함.
- 6월 도회의원 우시오 마사이치, 히가키 마고사부로(檜垣孫三郎), 히구치 도라조 외 찬성 의원이 연서하여 군산항 제2기 축항 및 군산항 금강 철교 가설 촉진에 관해 조선총독 및 전라북도 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도회에 건의.
- 6월 22일 부윤이 조선총독부와 전라북도지사에게 군산 축항 확장 공사비 및 군산항 동빈정(東濱町) 근처 암초 제거 공사비를 1934년도 예산에 책정해줄 것을 상신.
- 10월 10일 총독 순시 당시 부청 대회의실에서 부회의원 히구치 도라조가 부민을 대표해 총독을 접견하고 군산 축항 확장 및 금강 철교 가설 기타 현안에 관해 상세하게 진정.
- 1934년 6월 6일 정무총감 순시 당시 군산부 공회당에서 부회의원 히구치 도라조가 부민을 대표해 정무총감을 접견하고 이상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진정.
- 6월 30일 새로운 부회의원 6명에 대해 항만조사회 회원으로 합당하다고 통지.
새로운 조사회 회원 15명을 추천.

○ 제2회 보고(1935년 8월 3일)

- 1934년 7월 25일 오후 3시 부청 2층에서 제2회 항만조사회를 개최하고 군산항 제2기 축항 및 금강 철교 가설에 관해 의결. 출석자는 회장, 부회장 이하 회원 44명.
- 제2회 항만조사회 의결에 따라 이를 촉진하는 방법에 관해 조선총독, 내각총리대신, 육군대신, 탁무대신, 대장대신, 육군참모장, 조선

군사령관, 제20사단장, 정무총감, 내무국장, 재무국장, 농림국장, 식산국장, 경무국장, 철도국장, 전라북도지사, 내무국 토목과장, 재무국 사계(司計)과장, 철도국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는 동시에 청원서 및 의뢰장 발송.

- 제1 전보안: 군산항 축조 확장은 가장 긴급하고 유익한 사업으로 금일 만장일치의 의결로 1935년도부터 반드시 계속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간청하니 부디 각별히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書面) 참조, 군산부 향만조사회

- 제2 전보안: 군산항 축조 확장은 가장 긴급하고 유익한 사업으로 금일 만장일치의 의결로 1935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선총독에 간청하니 각별히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참조, 군산부 향만조사회

- 제3 전보안: 군산 금강 철교 가설은 시국을 고려해 가장 긴급하고 유익한 사업임으로 본 회는 만장일치의 의결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참조, 군산부 향만조사회

- 청원서

군산부는 지난해 경남철도(京南鐵道)의 개통과 함께 이제는 항만시설과 부 행정의 발전하면서 근래 두드러지게 외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군산항 축조 확장 및 금강 철교 가설 2건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각하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설명서 및 계획의 대략을 첨부하며 삼가 청원합니다.

1934년 7월 25일

군산부 향만조사회장 군산부윤 사토 노리시게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하나오카 쓰루마쓰

군산부 향만조사회 부회장·군산부회 부의장·전라북도회의원 우시오 마사이치

군산부 향만조사회 위원장·전라북도회의원 히구치 도라조

전라북도회의원 히가키 마고사부로

귀하 (의뢰장 생략)

7월 28일 군산부 공회당에서 전라북도 도민대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우시오 마사이치, 하나오카 쓰루마쓰, 서흥

선(徐鴻善),¹⁴⁴⁾ 하시모토 히사시, 다카야마 도시로(高山聰郎) 및 가세 유조(加瀬雄三)를 상경위원으로 선정.

- 의안

1. 군산항 축조 확장 건
2. 군산항 금강 철교 가설 건
3. 동진강 개수 및 교량 가설 건

8월 6일 항만조사회 회원 우시오 마사이치, 하나오카 쓰루마쓰, 서흥선 3명은 하시모토 히사시, 다카야마 도시로, 가세 유조 등과 이리에서 회합하고, 상경해서 군산항 제2기 축항과 금강 철교 가설 및 동진강 개수 및 교량 가설의 중요 사항에 대해 조선총독, 정무총감을 비롯한 각 관계 국과장에게 진정하고 동월 11일 군산으로 돌아옴.

8월 9일 사토 부윤은 군산항 축조 확장 및 금강 철교 가설 및 서빈정, 해망정 철도 연결선[引入線] 문제를 진정하기 위해 상경해서 12일 부청에 돌아옴.

8월 15일 진정 위원들의 경과보고를 접하고 18일 전라북도 지사, 도내 각 군수 기타 관계자에게 상황 보고 및 통보.

9월 4일 군산 축항 확장공사에 대해 1935년도 군산부 예산으로 책정할 수 없다고 전해 듣고 곧바로 부윤이 조선총독을 비롯하여 주요 당국에 부활시켜 줄 것을 전보로 간청.

위의 사항에 관해 위원 쓰루시로 마쓰리(鶴代松理), 나가오 긴이치(中尾謹一), 지카미 간이치(千頭貫一), 서흥선 3명은 그날밤 곧바로 출발해서 원산(元山)에 출장 중인 위원 히구치 도라조와 경성에서 회합하고 조선총독 및 기타 주요 당국을 직접 만나 부활운동 전개. 사토 군산부윤 또한 이 건에 관해 9월 4일 상경해 진정하고 6일 부청에 돌아옴.

1935년 1월 10일 군산부윤이 항만연구회장에게 요코하마(横浜)에서 개최될 제8회 항만조사회 통상총회에서 군산항 축항 확장 및 금강 철교 가설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정부 요직 및 조선총독에게 건의 방안 의뢰.

위의 사항에 대해 항만협회 간사가 5월 20일에 척무대신(拓務大臣) 및 조선총독에게 촉진 방안을 건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접함.

사토 군산부윤은 상급 관청[上司]에 축항 확장 및 철교 가설의 촉진 방안을 진정하기 위해 1월 31일 상경했다가 2월 5일 부청으로 돌아옴. 또한 나가오(長尾) 항공관(航空官)에게 비행장 설치에 관해 진정하고, 동시에 군산지방의 풍향표(風向表) 및 항만조사서 제출.

- 2월 17일 우에다(植田) 조선군 사령관이 군산을 방문하자 부윤은 군산 축항 확장 및 금강 철교 가설, 기타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정.
- 5월 20일 사토 군산부윤은 5월 16일 위의 문제를 진정하기 위해 경성으로 올라가 총독과 기타 요직에 진정한 후 20일 부청에 돌아옴.
- 6월 3일 6월 3일 및 6월 8일자로 부윤이 조선총독에게 군산항 축항 확장 및 금강 철교 가설에 관한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신청하는 동시에 정무총감, 내무국장, 식산국장, 농림국장, 재무국장, 철도국장, 경무국장, 내무국 토목과장, 재무국 사계과장, 철도국 이사 및 전라북도지사에게 의뢰장 발송.
- 7월 26일 새로운 부회의원 9명에게 항만조사회 회원임을 통지.
항만조사회 회원 10명을 추가 추천.
항만조사회 서기 4명을 추가로 의뢰하여 일을 맡김.

□ 제2기 축항계획

본래 군산 축항은 교통기관의 발달과 오지 개발이 되면 군산에 물자가 집산되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축항 운동 당시 군산 유지들은 인천 축항의 갑문식(閘門式)처럼 축조해 주기를 당국에 청원하고 진정했다. 하지만 당시 당국의 뜻은 ‘인천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항으로, 정부가 거액을 투자해 항만을 완비하고자 했지만 군산은 일개 지방의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인천과 동일시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데 어떻게 군산을 인천과 동일하게 축항하기 바라는가. 장차 실현될 지 미지수이다. 그보다 군산에서 가장 긴요한 시설 설치를 희망해 주기 바라며, 당국은 이를 실현할 적절한 시기를 살필 것이다. 이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훌륭한 계획이다’는 취지에 유지들도 수긍했다. 이후 당국이 긴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현재의 부잔교식으로 공사를 착수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군산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빠르게 진보 발전의 길로 접어들었고, 특히 1931년 8월 경남철도 전 구간 개통에 이어 경전북부선(慶全北部線) 개통 등으로 해륙 시설이 착착 갖춰져서 지금은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라 할 수 있다. 1926년 축항 기공 당시의 군산이 아니다. 1926년 5~600만 원이었던 무역액이 2천여만 원으로 증가했고, 미곡의 반출과 수출[移輸出]은 2백여만 석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은 앞으로 점차 발전해 나갈 것임은 말할 나위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후 어떻게 해서든 오지의 물자를 군산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군산은 결코 현재의 축항에서 만족할 수 없었다. 사토 부윤은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1931년 12월 일반 공직자와 유지를 망라해

144) 서홍선(徐鴻善)은 1896년 충남에서 출생하였고,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졸업하였다. 군산부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항만조사회를 설치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군산 항만 확장(제2기 축항)과 금강 철교 건설의 2대 시설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주무 당국 및 관계 당국에 수시로 청원하였고, 당국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까운 시일에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축항 확장 관련 설명서와 계획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 군산항 축항 확장에 관한 설명서

군산은 지리적으로 서해안의 인천과 목포 사이인 금강 하구에 위치해있다. 부내 인구는 3만 7천여 명(일본인 약 1만 명)이며 부근 부락을 포함하면 6만 명을 훌쩍 뛰어 넘는 호남 제일 항만도시이다. 시가지를 정비하고, 교육, 위생, 기타 도시 시설을 완비했으며, 전라, 충청, 경기, 강원 등 6도의 평야와 인접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600만 석을 넘었고, 한 해 쌀 수출·반출 총량은 220여 만 석에 달한다. 게다가 금강의 주운(舟運)과 강 건너편 경남철도(京南鐵道) 개통으로 대전과 군산, 곡성과 군산, 목포와 군산 간 철도 운수가 가능해져 군산항의 수출·반출 무역은 연간 80만 톤, 7천 5백만 원에 육박하여 앞으로 1년간 100만 톤을 달성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군산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23척에 달하며 최고 간조 때에는 수심이 20여 척이기 때문에, 3,000톤 급 선박 출입이 자유롭다. 군산항 축조는 별지의 약도에서 보듯이 1926년부터 7년간 계속사업으로 1933년 3월에 준공했으며 공사비 총액은 2백 85만 원이었다. 현재 설비는 함선(函船) 부잔교 3기로, 3,000톤 급 선박 3척을 나란히 정박시킬 수 있다. 또한 화물 창고(上屋) 3동 약 2,200평 및 100톤의 예인선 호남환(湖南丸)을 배치하여 군산항의 면목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하역능률 증대는 오지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산부 4만 부민을 비롯한 전라·충청도 등 몽리(蒙利) 지역의 약 200만 주민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군산항은 미곡 반출(移出)을 중심으로 지방 산업 경제 팽창, 수출·반출 무역 진흥과 함께 설비 확장을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많으며 그 이유의 개요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기 공사(공사비 285만 원)는 1933년 3월에 준공하여 동년 9월부터 잔교(棧橋) 계선(繫船)을 개시했다. 1934년 현재의 실적을 보면 (1) 입항 선박 920척-계선 397척(43%), 충현(沖懸)¹⁴⁵⁾ 523척(57%), (2) 수출·반출입 화물 750,482톤-계선 379,844톤(51%), 충현 370,638톤(49%)이다. 이와 같이 잔교 계선을 통한 하역은 연간 379,844톤으로 현재 잔교 3기의 연장 217m에 비교하면 1m 당 1,750여 톤이기 때문에 현재 계선 잔교 하역이 얼마나 과중한지 알 수 있다.(계선 잔교 하역은 51%지만 현재 작은 배를 사용해 양현(兩舷) 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잔교 취급량은 40% 이하임)

145) 충현(沖懸): 먼 바다에 배가 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1933년 미곡 통제 결과, 입항 선박은 한때 수가 감소해진 듯하지만, 사실 계절과 시세(相場: 미두)에 따라 10척 가까이 입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3척 또는 2척만 계잔(繫棧)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배는 바다에 정박할 수밖에 없어 작은 배로 하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때문에 앞서 이용 실적을 제시할 때 계잔이 51%라는 것도 양현 하역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를 아무리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해도 실제 잔교 하역은 총 수출·반출입액의 4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바다에 정박한 배에서 작은 배로 하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역능력 및 부대비용 때문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군산항의 부대비용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조선 항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축항 착수 후 100점의 하역비 22원은 1930년과 1931년 2회에 걸쳐 14원 70전으로 인하했다. 1934년 12월에는 12원 35전으로 낮췄음에도 다른 항구에 비해 높은 비율인 셈이다. 그리고 종래 하역비 인하는 매번 노동문제를 불러일으킨 쓰디쓴 경험이 있었다. 이번 확장공사를 완성해서 대량 화물의 경우, 잔교에 나란히 정박하게 하면 화근을 근절함은 물론 하역비 또한 3~40%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반출입 화물이 격증할 것이며, 종래 작은 배에서 종사한 노동자도 실직하는 일이 사라져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4. 이번 확장 공사비 총액은 겨우 132만원으로 제1기 공사비 285만원의 2분의 1 이 하지만, 제1기 공사에 필적하는 능력을 올릴 수 있다. 제1기 공사에서 3,000톤 급선박 3척을 나란히 정박시킨 것처럼 제2기 공사도 3척을 동시 정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 번에 6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국비의 수익률(利廻)을 하면,
 - 제1기 공사비 285만 원(완성 후 하역비 절감액은 371,157원), 이율 1할 3푼, 이번 확장 공사비 132만 원(위와 동일, 또한 144,120원), 이율 1할 1푼으로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5. 제1기 공사에 사용 중인 설비 일부는 앞으로도 계속 시공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1933년 3월에 제1기 공사가 준공되었지만 설비는 현재 부(府)에서 차입하여 보관 중이다.
6. 제1기 공사에 참여한 인부는 1년간 300만 명에 달했으며 1933년 3월로 사업이 준공되어 노동자 대부분은 실업상태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직 쌀만 있는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비참한 상태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본 공사가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호의 사업인 것이다.
7. 본 축조 확장 공사 필요성은 관계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본 축조 확장은 대단히 유익해서 급선무 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1936년도 이후 3년간 국비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이다.

• 군산항 축조 확장 계획 개요

군산항은 공사비 285만 원, 7개년 계속사업으로 1926년에 기공하여 1933년 3월에 준

공했다. 기선 계류용 대형 부잔교 3기와 화물 창고, 도로, 철도, 기타 해륙 연락 및 육상의 제반 설비를 갖추었다. 80여 만 톤 화물의 수출·반출반입에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동시에 기선 3척 이상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군산항의 현황은 설비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한다. 따라서 제3 부잔교 하류에 제4 부잔교를 축조하여 기존의 잔교 사이를 하나로 연결해 3,000톤 급 기선 6척이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잔교 내부에 진흙 침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바닷물이 손쉽게 통하도록 기존의 부잔교를 개량하고자 한다. 계획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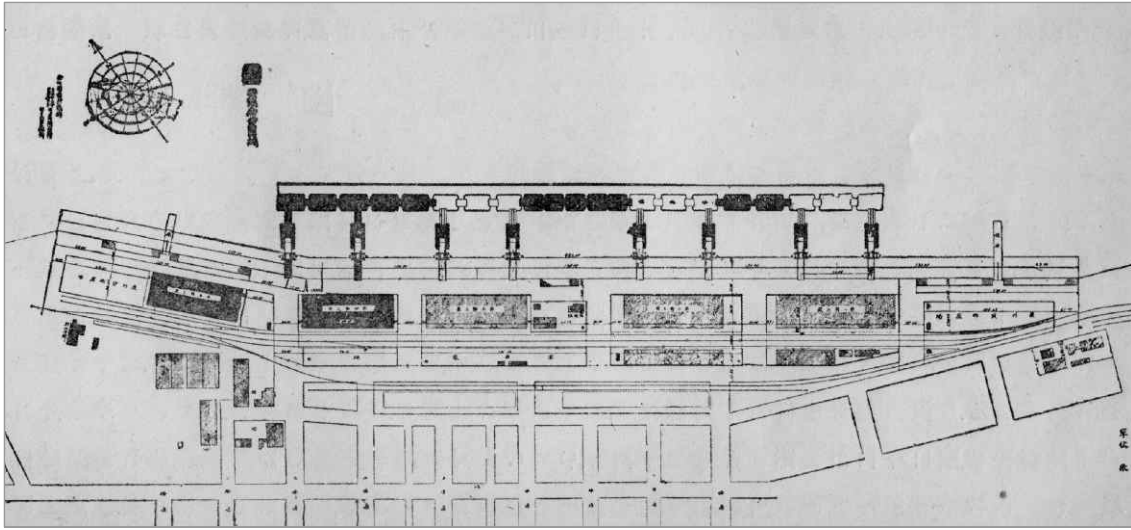
- (1) 해륙연락설비: 이미 설치한 부잔교 하류에 대형 부잔교 1기를 축조해 본래 부잔교 사이에 철근이 혼합된 토제(土製) 함선(函船)으로 연결해 3,000톤급 기선 6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잔교 내부 바다 물길이 통할 수 있도록 연결 다리를 지지하는 함선은 강철 천흡식[鋼製淺吃式]으로 교체한다.
- (2) 육상설비: 신설 부잔교 기단부와 작은 배 용의 잔교 기단부에 면적 약 2,000㎡의 화물 창고 2동을 신축한다.
- (3) 잡공사
 - ① 제수제고양(制水堤嵩揚) 공사: 본 항구 건너편 소치곶(所雉串)에 축조된 목제 제수제(制水堤) 460m를 사석(捨石)으로 보수하고 바다 물길을 항구 내 정박지로 집중시켜 용이하게 수심을 유지하게 하며 앞쪽에 주등표(柱燈標)를 설치한다.
 - ② 암초 제거 공사[除礁工事]: 부잔교 상류에 돌출한 암초를 육지 쪽에서 약 8분의 1 구배(勾配)¹⁴⁶⁾로 그믐날과 보름날의 평균 간조면 아래로 4m까지 없애고, 민야암(民野岩) 안쪽의 바다 물길을 직접 부잔교 부근으로 흐르게 해서 항안(港岸)의 매몰을 방지하고자 한다.
-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본 공사는 3개년의 계속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32만 원이다. 내역은 1936년도 44만 원, 1937년도 44만 원, 1938년도 44만 원으로 총 132원이다.

• 하역 부대비용 문제 해결

군산항은 간만의 차가 두드러져서 조류 및 기타 요인으로 다른 항구와 비교해 하역 부대비용의 비율이 높아, 지방산업, 경제, 상공업 진흥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군산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전부터 이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1925년경 하역액은 미곡 100섬에 22원, 반입잡화 1톤에 1원 60전이었지만, 1930년에는 미곡 17원 50전, 반입잡화 1원 26전 5리(厘), 1931년에는 미곡 14원 70전, 반입잡화 1원 15전으로 인하했다. 이후 끊임없는 노력하여 몇 차례 선박회사와 절충한 결과 1934년 12월에는 미곡 12원 35전, 반입잡화 잔교 하역 70전, 바다 하역 1원 10전(비료 90전, 소금 98전, 석탄 1원 3전)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항만 기능이 눈부시게 활기를 띄게 되었으며 지방 산업경제 및 상공업의 진흥발전에 도움이 되는 점이 많기에 대단히 기뻐해야 할 일이다.

146) 구배(勾配): 경사면의 경사 정도로,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를 뜻한다.



군산항 확장 평면도

제19장 통신

□ 군산우편국

군산우편국은 1899년 11월 목포우편국 출장소로써 창설되었다.¹⁴⁷⁾ 개소 당시는 목포영사관 분관 내에 있던 6첩(疊)크기 1실을 빌려 통신서기장 다니가와 간스케(谷川勘祐)가 소사 1명을 고용해, 통상 우편물의 인수 및 교부 사무만 취급했다. 1900년 6월 각국 거류지 내 우편집배 사무를 시작하였고, 7월 1일 외환저금사무, 10월 소포 우편 사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 2월 우편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영사분관 부지 내 차입(借入) 청사로 이전했다.

1905년 5월 ‘일한통신사업 합동경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정부의 통신기관인 옥구군 우체사(郵遞司) 및 전보사(電報司)는 폐지되고, 그 사무를 우편국이 계승하였다. 한국정부의 내외인(内外人) 통신사무 일체를 우편국으로 병합하여, 군산우편국은 군산의 유일한 통신기관이 되었다. 옛 우편사의 사무인계와 함께 전신사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1906년 5월 전화 통화사무, 1907년 4월 전화교환사무를 모두 취급하였다.¹⁴⁸⁾ 이보다 앞서 1906년 7월 현재의 우편국 건물을 신축 낙성하였는데 이때 우편국의 기구를 완성하고 내외 설비를 갖추었다.

이후 36년의 세월이 흘러, 부의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업무가 눈에 띄게 급증하여 현재는 사원 100명, 고용인 70여 명으로 조선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우편국이 되었다. 특히 전화, 전신은 다른 도시와 견주어도 우세한데, 일례로 1929년부터 시작한 간이생명보험¹⁴⁹⁾은 구라시마(倉島) 국장 부임 이후 조선을 통틀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오랫동안 부민의 염원이었던 복식(複式)전화 개선사업은 당국의 결단으로 1931년 4월부터 실시되었지만 군산-경성 간 전화선이 1회선이기에 군산과 같은 경제도시의 상거래에서

147) 군산 우체국 설립 시기는 1899년 7월 22일 옥구 우체사가 사무실을 개설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1899년 11월 11일 군산이 개항되면서 목포영사관 분사가 개설되고 이어 목포우편국 출장소로 개설되었다.

148) 전화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때는 1893년이었지만 전화선이 가설되어 처음 음성 통화를 한 것은 1898년 1월이었다. 이후 궁중과 정부관사 사이에 전화가 개통되어 사용되었고, 1903년 민간에도 전화개설이 허가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 우편국에 전화가 놓이게 되었다.

149) 간이생명보험은 1916년 일본 체신성이 우편국을 판매 창구로 하여 판매했던 상품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도시 환경이 악화되고 실업과 빈민이 증대되어 갔다. 이에 일본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간이생명보험을 판매했다. 의사의 진단과 직업상의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간이생명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조선 내에서 간이생명보험 판매는 1920년대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26년에 시행을 결의했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29년이였다. 일제강점기 간이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양홍준의 연구(『일제하 조선간이생명보험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가 대표적이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1933년 12월 곡물 출해[出穀]가 왕성할 당시 반송식(搬送式)¹⁵⁰⁾으로 2회선이 되고, 1934년 12월 11일부터는 오사카,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간 전화가 개통되면서(1통화 요금: 오사카 2원 50전, 후쿠오카 1원 75전, 시모노세키 1원 75전) 부민은 많은 편의를 누리게 되었다.

이에 앞서 군산 유지들은 군산의 발전 추이와 업무 확장을 고려해 종래의 청사가 노후화되었고, 또한 군산의 현재 상황에서 우편국이 변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당국에 수차례 청원 진정하였다. 당국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경비 문제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조만간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다.

국장은 1934년 12월 도모토 도시오(堂本敏雄)¹⁵¹⁾가 전임 국장 아소 겐치(麻生憲治)¹⁵²⁾의 뒤를 이어 부임했다. 간부로는 통신과장 긴바야시 제희(金林濟熙), 보험과장 다케가와 네도시(竹川子年), 서무과장 마나베 쇼조(眞鍋暢三)가 있다.

다음의 통계 자료는 우편국 창설 이듬해인 1900년부터 1934년까지 우편, 통신, 전화, 환(爲替) 저금¹⁵³⁾, 회계, 간이보험의 취급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중 우편은 1900년 통계부터 소개한다. 1926년까지는 개략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연도별 순서가 아니라 3년 또는 4년의 간격을 두었다. 또한 전보는 1906년이지만 그 해에 전신사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전화사무가 시작된 것은 1907년인 듯하다(1935년 8월 국장 이임, 신임국장 고보리 다이이치로(小堀泰一郎)).¹⁵⁴⁾

150) 반송식은 하나의 선로에 많은 신호 전류를 보내어 통신하는 방식으로 원거리 유선 통신에서 선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151) 도모토 도시오(堂本敏雄)는 1907년 후쿠오카현에서 출생하였다. 1932년 조선으로 건너와 총독부 체신국 서기로 근무하다가, 1934년 12월 부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군산우편국장으로 발탁되어 보험운용과 업무를 겸하였다. 1935년 8월 평북 신의주우편국장으로 영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152) 아소 겐치(麻生憲治)는 고쿠라시에서 출생하였다. 1933년 4월 조선으로 건너와 총독부 체신국 부사무관으로 경성우편국 감독과에서 근무하다가 그해 8월 군산우편국장으로 영전하였다. 1934년 12월 다시 경성우편국 감독과장으로 부임했으며, 1936년 8월 원산우편국장에 취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153) 격지 간 채권, 채무 결제 또는 자금 결제 때에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매개로 결제하는 방식이 환 업무인데, 환 저금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것이다.

154) 고보리 다이이치로(小堀泰一)는 가나가와현 출신이다. 1898년 조선으로 건너와 목포 우편소 군산출장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의주(義州)·안주(安州)·선천(宣川)·용산·평양 등지의 우편국원, 경성·평양·부산 등지 우편국의 감독사무를 맡다가 하동우편국장에 취임하였다. 이어서 개성우편국장, 평양우편과장, 전주우편국장 등을 역임한 후 1935년 8월 군산우편국장으로 취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등 데이터베이스 참고).

<표 50> 통상우편

연번	연도별	인수물 수	배달물 수	연번	연도별	인수물 수	배달물 수
1	1900*	38,025	49,114	8	1928	3,155,069	3,025,904
2	1906**	252,468	479,288	9	1929	3,091,793	3,236,260
3	1910***	580,731	1,161,095	10	1930	3,013,636	3,172,803
4	1916	967,327	1,192,464	11	1931	3,031,163	3,143,927
5	1921	1,230,343	1,622,695	12	1932	3,112,924	3,245,763
6	1926	2,231,348	2,258,441	13	1933	3,220,568	3,342,653
7	1927	2,976,396	2,624,235	14	1934	3,299,626	3,432,284

* 창설 이듬해, ** 일한통신합동 이듬해, *** 한국이 강제 병합된 해

<표 51> 서류 및 가격표기 통상 우편물(통상우편물 중 재게[再掲])

연번	연도별	인수물 수	배달물 수	연번	연도별	인수물 수	배달물 수
1	1903	3,280	1,571	8	1928	74,484	92,722
2	1906	10,563	7,263	9	1929	85,579	97,612
3	1910	15,084	16,389	10	1930	99,987	102,921
4	1916	26,952	37,156	11	1931	60,023	109,103
5	1921	49,889	62,432	12	1932	52,202	101,225
6	1926	72,487	88,755	13	1933	64,827	104,086
7	1927	70,692	90,752	14	1934	68,217	107,271

<표 52> 소포우편

연번	연도별	인수물 수	배달물 수	연번	연도별	인수물 수	배달물 수
1	1900	20	77	8	1928	8,539	28,675
2	1906	2,516	4,914	9	1929	9,155	29,030
3	1910	5,961	10,035	10	1930	8,349	26,845
4	1916	5,546	12,116	11	1931	6,272	24,951
5	1921	6,709	21,173	12	1932	5,691	23,331
6	1926	8,259	27,388	13	1933	6,073	23,999
7	1927	8,219	29,195	14	1934	6,824	24,788

<표 53> 전보

연번	연도별	발신통 수	착신통 수	중계신	연번	연도별	발신통 수	착신통 수	중계신
1	1906	25,597	24,114	3,035	8	1929	120,882	167,052	149,890
2	1910	38,856	38,963	16,533	9	1930	109,608	129,525	120,096
3	1916	40,026	55,879	-	10	1931	104,485	123,540	90,408
4	1921	84,194	107,087	151,807	11	1932	106,005	126,276	101,357
5	1926	102,715	129,765	164,028	12	1933	108,450	134,996	108,460
6	1927	115,458	144,827	158,512	13	1934	123,156	164,100	113,059
7	1928	118,231	148,611	154,699					

<표 54> 전화

연번	연도별	시내교환도수	시외통화도수	시외호출도수	가입자 수
1	1907	282,255	1,833	408	93
2	1910	784,085	9,526	1,866	219
3	1916	1,026,543	19,079	5,296	284
4	1921	1,363,766	37,354	6,726	428
5	1926	3,808,695	60,075	3,127	743
6	1927	3,911,450	86,664	3,524	749
7	1928	4,250,752	73,246	3,557	751
8	1929	3,416,208	112,544	3,974	751
9	1930	2,897,573	81,505	3,766	752
10	1931	2,935,736	67,023	3,593	756
11	1932	3,653,662	73,759	3,476	772
12	1933	3,759,867	73,970	3,249	782
13	1934	4,012,774	82,658	3,740	783

<표 55> 환(換)

연번	연도별	발행(振出) ¹⁵⁵⁾		지불 수(拂渡)	
		구좌 수[口數]	금액(원)	구좌 수[口數]	금액(원)
1	1900	717	11,739	144	5,438
2	1906	9,847	225,462	2,923	79,045
3	1910	13,817	272,231	7,110	188,883
4	1916	15,575	378,847	11,125	265,469
5	1921	19,062	727,251	10,432	446,319
6	1926	21,918	816,018	12,702	540,935
7	1927	23,502	858,753	13,304	632,232
8	1928	23,350	802,749	14,309	725,131
9	1929	22,518	834,216	15,479	719,350
10	1930	21,707	718,990	14,625	530,407
11	1931	17,769	573,484	13,863	513,591
12	1932	16,265	421,443	14,432	526,711
13	1933	15,041	402,833	15,282	629,095
14	1934	15,813	476,820	15,856	644,350

<표 56> 우편저금

연번	연도별	예금[預入]		환급[拂戻]	
		구좌 수	금액(원)	구좌 수	금액(원)
1	1900	214	1,655	21	638
2	1906	6,469	17,262	840	12,957

155) 어음이나 환(換) 등을 발행함을 의미한다.

연번	연도별	예금[預入]		환급[拂戻]	
		구좌 수	금액(원)	구좌 수	금액(원)
3	1910	11,686	32,566	1,651	25,447
4	1916	17,637	65,596	3,702	56,966
5	1921	9,841	86,138	2,945	98,301
6	1926	17,697	138,038	4,551	158,048
7	1927	24,640	172,365	5,165	151,117
8	1928	28,559	215,198	6,370	245,427
9	1929	33,198	228,018	7,267	203,907
10	1930	24,712	213,825	7,309	223,099
11	1931	27,100	202,706	7,635	203,874
12	1932	28,346	163,745	7,800	213,847
13	1933	21,753	154,119	7,399	180,427
14	1934	43,830	243,978	7,793	173,893

<표 57> 우편대체(振替) 저금

연번	연도별	납입		지불	
		구좌 수	금액(원)	구좌 수	금액(원)
1	1906	133	1,585	5	2,434
2	1910	1,753	56,182	156	34,026
3	1916	4,695	358,064	2,416	109,821
4	1921	7,639	552,491	1,225	167,210
5	1926	10,149	495,084	2,576	372,257
6	1927	10,944	495,237	2,988	490,012
7	1928	11,514	427,359	2,954	513,869
8	1929	12,035	401,183	2,910	503,171
9	1930	12,509	398,377	2,888	368,384
10	1931	11,015	397,226	3,182	380,129
11	1932	10,684	416,317	3,146	335,279
12	1933	10,671	443	3,341	326
13	1934	11,725	566	3,886	413

<표 58> 회계

연번	연도별	세입(원)	세출(원)	연번	연도별	세입(원)	세출(원)
1	1900	1,343	5,287	8	1928	498,032	93,411
2	1906	22,317	61,628	9	1929	481,769	97,761
3	1910	53,656	49,071	10	1930	446,694	104,446
4	1916	130,331	24,289	11	1931	477,242	104,627
5	1921	322,386	67,247	12	1932	554,073	105,609
6	1926	471,831	87,411	13	1933	694,811	107,762
7	1927	414,669	88,205	14	1934	774,799	120,835

<표 59> 간이보험 누년 비교

항목	구분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건수	일본인	692	1,376	2,027	2,649	3,238	3,670
	조선인	227	670	913	1,653	2,669	3,728
	합계	919	2,046	2,940	4,302	5,907	7,398
보험료	일본인	697	1,548	2,263	2,830	3,600	4,277
	조선인	205	660	844	1,470	2,320	3,324
	합계	902	2,208	3,107	4,300 ⁽¹⁾	5,920	7,601
보험금	일본인	119,114	294,227	456,307	568,583	692,356	782,238
	조선인	34,240	134,468	198,868	363,130	524,993	729,524
	합계	153,354	428,695 ⁽²⁾	655,175	931,713 ⁽³⁾	1,217,349	1,511,762 ⁽⁴⁾

(1) 원문에는 4,301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합계는 4,300이다.

(2) 원문에는 428,681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428,695이다.

(3) 원문에는 931,7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합계는 931,713이다.

(4) 원문에는 1,511,76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합계는 1,511,762이다.

제20장 운수교통

군산은 본래 항만에 의해 태어났고, 항만을 생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상 및 하천 교통은 비교적 발달해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육상 교통은 상당히 불편해서 인근 지방에 가려고 해도 말이나 가마에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세(時勢)의 발전으로 1912년 3월 호남선¹⁵⁶⁾이 개통되어 육로 교통의 새로운 기원을 열게 되었다.

이후 1931년 8월 사철 경남철도(京南鐵道)가 전 구간 개통되고, 같은 해 10월 국철 경전북부선(慶全北部線)이 개통(이리-남원에서 곡성까지 개통)되었다. 한편 해로는 개항 당시부터 정기 항로를 열어서 오사카 상선은 물론 조선우선, 아마가사키 기선, 다쓰우마 기선 등이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있다. 부근 연안 항로가 발달하여 지금은 해륙 모두 사통팔달하여 감히 옛날과 비교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점차 서해안의 주요 항구지로서 발달을 기대한다.

□ 철로

호남선은 경부선 대전에서 분기하여 호남의 평야를 횡단하고, 이리를 중심으로 전북, 전남의 기름진 평야를 관통해 목포에 이르는 철도이다. 군산은 이리에서 갈라져 지선이 되었다. 철도는 충남 일부 및 전북, 전남을 연결하여 호남 부원(富源)의 보고(寶庫)를 개발하기 위한 관건이라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 경남철도는 강 건너 장항을 기점으로 하며(군산항역에서 장항까지는 도선한다.) 충남의 내륙인 서천, 대천, 홍성, 예산, 온양 등 각 주요지를 거쳐 천안에서 경부선 본선과 연결하고 북으로 장호원에 도달한다.

철도는 충남 개발의 대동맥으로, 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의 산업, 경제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유일한 산업철도로, 한편으로는 경부선 본선의 배양선(培養線)¹⁵⁷⁾이라 할 수 있다. 경전북부선은 이리에서 남하하여 전남 곡성에 이르고, 순천-여수까지 연장하는 철도로, 조만간 전 구간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사철 남조선철도(南朝鮮鐵道)¹⁵⁸⁾와 연

156) 호남선은 대전-목포 간의 철도로, 1905년 이후 전라도 지역에 이주한 재조일본인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1910년에 노선이 확정되어 1911년 공사가 시작되어 1914년에 완공되었다. 전북지역에는 6개의 호남선 역이 만들어졌다. 6개 역 설치 이후에 지역 중심지 변동 양상은 차이가 있었다. 김제역과 정읍역은 설치된 이후에도 기존 중심지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리역과 신태인역은 역의 설치와 동시에 역 주변이 기존 중심지를 완전히 대체하였다. 부용역은 상업중심지로 새롭게 성장했지만, 행정중심지로 확대되지는 못했다(조성욱,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이 역명과 지역 중심지 변동에 미친 영향: 전북지역 6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5-3, 2016).

157) 배양선은 특정 기간 동안 철도로 기능하는 공공 교통기관에 연결되어 수송을 담당하는 부차적인 철도망(지선 철도망)을 의미한다. 여객과 화물을 모아 운송함으로써 기간 철도기관의 수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철도이다.

158) 사철 남조선철도는 1926년 남선철도 주식회사에 의해 부설된 사설철도로 순천을 기점으로 전라남도 지방을 경유하여 영암, 여수에 이르는 철도이다. 이 간선철도인 호남선과 연결되어 전라남도 일대

결되고, 경남 마산, 진주와 연결되며, 장차 서안선(西岸線)으로써 남부지역 산업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측면이 대단히 많다고 할 수 있다.

□ 원해항로[遠海航路]

원해항로는 오사카 상선, 조선 우편선, 아마가사키 기선, 다쓰우마 기선, 이노 기선¹⁵⁹⁾, 시마타니 기선¹⁶⁰⁾, 사와야마 기선¹⁶¹⁾, 가와사키 기선¹⁶²⁾, 긴카이 우편선¹⁶³⁾ 등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 와카마쓰, 도쿄, 요코하마, 홋카이도, 다롄, 상해, 부산, 목포, 인천, 진남포, 신의주 방면으로 항해하는 정기항로 또는 부정기항로, 그리고 항해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기, 부정기항로가 있다. 특히 출국 왕성기에 매일 여러 척의 대형 기선이 군산항을 드나들기 때문에 활기 넘치는 하역의 광경과 함께 상당히 변화하다. 각 기선의 항로 수는 다음과 같다(군산기항).

- 오사카 상선-오사카, 인천선, 한 달에 10번 왕복
 - 인천, 도쿄선, 3번 왕복
- 조선 우편선-신의주, 오사카선, 한 달에 3번 왕복
 - 인천, 도쿄선, 2번 왕복
 - 아오시마, 상하이선, 1번 왕복
 - 다롄, 나가사키선, 1번 왕복(명령항로)
- 시마타니 기선-대련, 우라니혼, 북해도선, 한 달에 2번 왕복(명령항로)
- 아마가사키 기선-오사카, 인천선, 한 달에 6번 왕복
- 그 외에 사와야마(澤山) 형제상선,¹⁶⁴⁾ 다롄(大連) 기선,¹⁶⁵⁾ 오카자키(岡崎) 기선,¹⁶⁶⁾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사설 남선철도는 1936년 국유화되었다.

159) 이노 기선 주식회사는 1899년 마이즈루 항구도시에서 설립되었다. 해외, 일본의 내해, 일본과 조선 근해 항로를 개설했다. 1941년 이노상사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이노해운상회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160) 시마타니 기선은 시마타니 도쿠사부로(嶋谷徳三郎, 1867~1930)에 의해 설립되었다. 시마타니 도쿠사부로로는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해운업, 철도, 전기생산업 등에 관여했다.

161) 사와야마 기선은 1885년 창업된 사와야마상점의 선박업이 독립하여 1912년 합자회사로 설립되었다. 1934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선박 대리점 영업과 기타 관련 사업으로 확대했다.

162) 가와사키 기선은 1919년 가와사키조선소에서 선박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1921년에 가와사키조선소, 국제기선 주식회사와 제휴하여 K라인을 결성하였다. 2014년 일본에서 일본우선회사, 상선 미쓰이에 이어 규모 3위의 해운회사가 되었다.

163) 긴카이 우선은 1923년 일본우선회사의 근해 내항부가 독립하여 설립되었다가 1939년 다시 일본우선회사와 합병되었다.

164) 사와야마 형제상선은 사가현 출신 사와야마 구마지로가 1907년 부산에서 설립한 사와야마 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는 부산 근해 선박업 회사였다. 1917년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항로를 개설하였다. 다롄, 모지, 고베, 오사카 등지에 출장소를 설치했다. 1922년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165) 다롄 기선은 1915년 남만주철도 자회사로 창립한 기선회사이다. 일본우선, 오사카 상선에 이어 발전한 해운업 회사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업을 정지했다.

166) 오카자키 기선은 사가현 출신인 오카자키 도키치가 1894년 고베에서 설립한 회사로, 오카자키 재벌의 기반이 된 회사이다. 일본과 홋카이도 노선운항을 시작했고, 러일전쟁 당시 회사선박을 군용 선박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러일전쟁 후 해운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일본우선 주식회사와 함께 홋카이도 노선을 모두 인수했고, 이후 관서 해운회사 3개를 병합하여 굴지의 해운업 회사로 성장했다.

긴카이(近海) 우편선, 야마시타(山下) 기선,¹⁶⁷⁾ 다쓰우마(辰馬) 기선, 가와사키(川崎) 기선, 나카무라(中村) 구미, 이노(飯野) 기선 등은 부정기편으로 주로 출곡기에 입항한다.

□ 연안항로

연안항로는 다음과 같다.

- 성항사¹⁶⁸⁾: 군산-법성포선, 한 달에 6번 왕복(명령항로)
- 줄포해운조합: 군산-줄포선, 한 달에 12번 왕복
- 마루보시(丸星) 운송회사: 군산-부안선(부정기)
- 마루보시, 마쓰바(松葉) 상점, 그 외: 군산-만경강선(부정기)
- 금강운수회사, 야마다(山田) 기선: 군산-강경선(매일 출항)
- 시모하라(下平) 상점: 군산-히로가와선(廣川線), 하루에 6번 왕복(명령항로)
- 경남철도 주식회사¹⁶⁹⁾: 군산-장항선 매일 정기 15번 왕복(이 중 수동리 3번 왕복)
- 이 외에 야마다(山田) 기선의 군산-웅포선, 화양면(華陽面) 경영을 위한 군산-화양선 등이 있다.

□ 선항동맹회¹⁷⁰⁾ 군산지부

선항동맹회는 1930년 11월에 창설되었다. 창설 취지는 조선 연안을 항해하는 해운업자의 통일을 도모하여 운임 경쟁을 피하고, 화물 주인의 편의를 위해 합리적으로 해운업 발달을 기도한 것이다. 가맹 기선 회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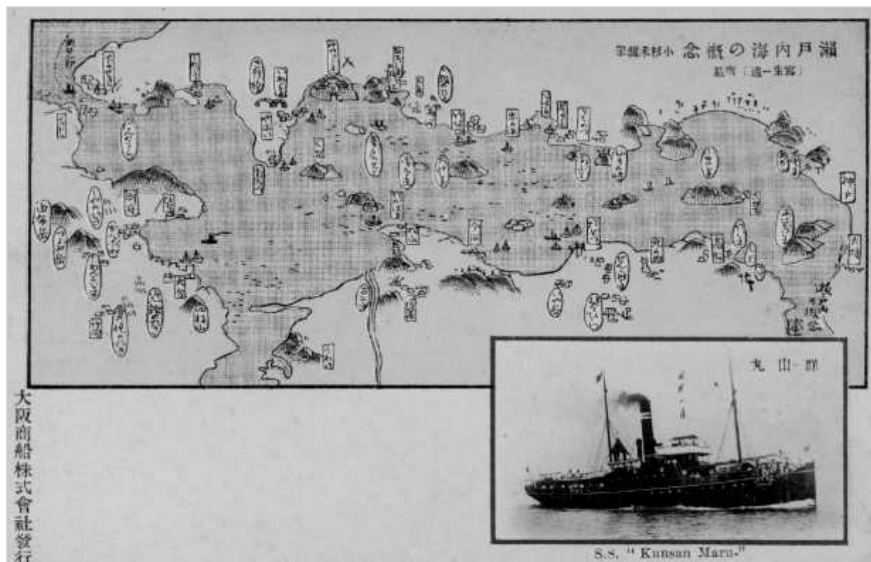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 다쓰우마 기선 주식회사, 합명회사 아мага사키(尼ヶ崎) 기선부, 오카자키 기선 주식회사, 야마시타 기선 주식회사, 가와사키 기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카무라구미, 조선 우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사와야마 형제상회, 긴카이 우선 주식회사, 대련 기선 주식회사, 시마다니 기선 주식회사, 이노 기선 주식회사

167) 야마시타 기선은 1911년 야마시타상회 설립자인 야마시타 가메사부로에 의해 설립되었다. 야마시타는 1903년 영국 기선을 구입하여 요코하마-상하이 간 해운업을 시작했고, 이후 야마시타기선회사를 설립했다. 1917년 야마시타 기선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1922년에는 야마시타 기선 광업 주식회사로 개칭되었다.

168) 성항사는 1929년 군산부에서 설립되었다. 자본금 5만원으로 설립되어 운송업, 창고업, 상품위탁 판매업 등을 했다.

169) 경남철도 주식회사는 1920년에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1922년 천안-온양 간 사설철도 운행을 개시했고, 이어서 온양온천-예산 간 철도를 개통했다. 1923년에 예산-홍성, 1927년에는 천안-장호원 간이 개통되었다. 이어 천안-장항 간 철도가 모두 개통되었다.

170) 선항동맹회는 조선-오사카·고베(한신)항로를 운행했던 오사카 상선 등이 결성한 이익 단체이다. 한신항로의 독점권을 제한하고자 조선총독부는 이 항로를 명령항로로 지정하고 조선 우선 주식회사를 진출시켰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사카 상선회사 등은 선항회를 결성했지만, 선항회와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사이에 조선 곡물 수송 운임을 두고 갈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 우선 주식회사는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등 선항회와 해운업 이윤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선항회는 1930년 다시 선항동맹회를 결성했다(하지영, 「일제시기 조선우선주식회사의 阪神항로 경영-선항(동맹)회의 결성과 조선미 수송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2, 2018).



[오사카 상선주식회사 발행 엽서]

이상 13개 기선 회사로, 본부는 오사카시 기타구(北區) 소제마치(宗是町) 오사카 빌딩 내에 두었다. 조선 내에서는 서선(西鮮) 연합, 남선(南鮮) 연합, 북선(北鮮) 연합의 세 개 그룹으로 나누고, 진남포·인천·군산·목포는 서선 연합, 부산·마산·여수는 남선 연합, 원산·청진·웅기는 북선 연합에 속한다. 본부의 회장은 하시모토 기요카즈(橋本清一), 부회장은 마부치 린(馬淵潐)이다. 군산지부에는 상임지부장을 두지 않고 당번 간사를 두었다. 서기장은 고토 다쓰오(後藤辰生)이다.

□ 도로

도로는 전군선(본정(本町)에 있는 원표를 기점으로 한다) 및 군산 세관지서까지(70m)의 1등 도로(1,830m), 군산역까지의 군산부선(구 부청사) 및 군산, 서산선(瑞山線)의 2등 도로(1,178m), 명치정(明治町), 삼조통(三條通), 구조통(九條通)의 3등 도로(1,702m), 그리고 등외 도로(18,000m)로 한다. 시내는 일조통(一條通), 구조통, 해안통(海岸通) 및 산수(山手) 도로로 구별하여 50여 마을로 구성하였는데, 구역의 정연함은 조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전주-군산 간, 전주-논산 간(공주, 천안, 수원을 거쳐 경성에 이른다)은 1등 도로, 정읍-줄포 간, 전주-남원 간, 전주-진안 간 및 군산 강 건너편에서 서산에 이르는 도로는 2등 도로이다. 이외 3등 도로 및 등외 도로는 각지로 퍼져 있고, 매년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도로에 자동차, 우차, 마차, 인력거가 다니고 있어 옛날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 자동차

군산에는 군산택시 자동차¹⁷¹⁾와 삼남 자동차¹⁷²⁾ 이렇게 2개의 회사가 있다. 군산택시 자동차는 주로 부내 버스와 택시를 경영하고, 삼남 자동차는 전주-군산 간 및 군산-함열 간을 왕복하는 정기 운행한다. 전주-군산 간은 하루에 2번, 군산-함열 간도 하루에 2번 운행한다. 부내 버스 운임은 1인당 10전, 택시는 1인당 20전이다. 대절은 70전이고, 전주-군산 간 1인당 90전, 군산-함열 간은 80전, 군산 이리 및 임피 간은 각 50전이다. 최근 김만(金萬) 자동차가 군산에 진출하여 김제-만경 간을 운행한다.

□ 향로표식

군산항구 향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23척에 이르고, 정박지의 변화가 심해 항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총독부에서는 항구 밖 10여 리 내에 많은 향로 표식을 건설하여 항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은 등표의 위치 및 종류이다.

〈표 60〉 등표

연번	명칭	위치	구조 및 착색	광달거리
1	군산 갑(甲)호 등표	군산항구 오식도의 북서방 간출초	홍색 원형 석조	85해리
2	군산 제1호 주등 부표	군산항구 오식도의 서방	흑색 원형 상부 방패형 철조	85해리
3	군산 제5호 주등 부표	군산항구 오식도의 북방	흑색 원형 상부 방패형 철조	85해리
4	군산 병(丙)호 등표	군산항구 입이도의 북방 간출초	홍색 원형 석조	11해리
5	군산 제9호 주등 부표	군산항구 전망산의 남동쪽에 있는 천주의 동쪽 끝	흑색 원형 상부 방패형 철조	85해리
6	군산항 등대	군산항 제수제의 튀어나온 끝	홍색 삼각형을 얹은 원주 목조	-
7	전망산 등표	군산항구	흑색 원형 진흙 토조	12해리
8	동진강 입표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도 북방 간출암	홍색 상부 둥근 철조 기둥 표시는 둥근 하부 사각형 진흙 토조	-
9	만경강 입표	전라북도 만경군 일도면 심포 충서산의 북동 반리 간출암	흑색 상부 둥근 철조 기둥 표시는 둥근 하부 사각형 진흙 토조	-
10	금강 다근리 입표	충청남도 서천군 장신면 다근리 남방 간출암	흑색 상부 원기둥 목조 표시는 삼각형 하부 사각형 진흙 토조	-
11	군산 을(乙)호 입표	군산항구 장산도 북방 간출암	홍색 둥근 송곳형 석조	-
12	군산 제2호 부표	군산항무 오식도 북방주의 북측	홍색 둥근 송곳형 철조에 삼각표시를 얹음	-
13	군산 제3호 부표	군산항구 오식도 북방 간출암의 남방	흑색 둥근 송곳형 철조 원통을 얹음	-
14	군산 제4호 부표	군산항구 장산도의 북동	홍색 둥근 송곳형 철조	-

171) 군산택시 자동차는 1929년 군산부에서 설립되었고, 정식명칭은 군산택시자동차부다. 자본금은 10만원이고, 군산부의 시내버스, 옥구 정기선을 경영했다.

172) 삼남자동차의 정식명칭은 삼남자동차상회이며, 전주에서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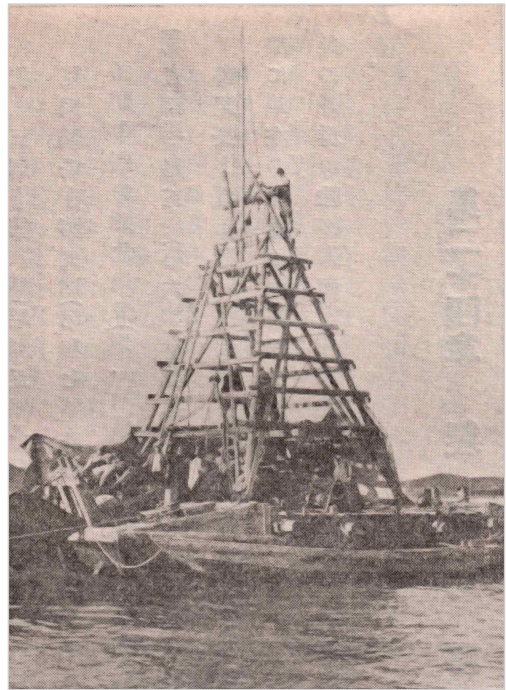
연번	명칭	위치	구조 및 착색	광달거리
		간출암초의 북방	삼각표시를 얹음	
15	군산 제7호 부표	군산항구 전망산 등표의 남동방 주의 남단	흑색등근 송곳형 철조 원통 표시를 얹음	-

□ 금강 철교 가설 계획¹⁷³⁾

경남철도가 모두 개통되기 이전부터 이따금씩 부민들 사이에서는 언젠가부터 금강 철교 가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금강 철교 가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금강 철교 가설 계획이 사토 부윤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1931년 12월 설립된 항만조사회회의 주요사업으로 축항 확장과 함께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항만조사회에서는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사토 회장의 명의로 주무 당국 및 관계 당국에 진정서를 갖추어 청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동을 계속하였다. 그 이유는 ‘군산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10년 후 장항을 포함해 인구 10만에 달하는 대도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남철도의 종점인 장항역과 호남선의 종점인 군산항역과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큰 철교를 가설하여 운수교통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 이는 벽지, 즉 전북, 전남 및 충남, 충북의 산업 경제 개발은 물론 국방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사비 수지 예산도 유리하기에 신속히 본 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하였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당국 또한 운수교통에 따른 지방 개발과 국책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계획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1932년 10월 말 내무국 토목과 기술자와 그 외 6명의 조사반을 군산에 파견하여 만 2개월에 걸쳐 예상 설치 장소의 지질조사를 행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먼 장래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음은 그 설명서와 계획의 개요이다.



금강 철교 가설계획과 지질조사

173) 금강 철교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로, 국도 1호선 상에 놓여 있어 공주시 금성동과 신관동을 연결하는 철교이다. 1932년 1월에 착공하여 1933년 10월 23일에 준공되었다. 군산부에서 금강 철교 가설을 추진해오던 중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보상지로 건설될 수 있었다. 1933년 준공 당시 이 다리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긴 다리였고, 새로운 첨단 공법으로 건설되었다.



군산-장항 간 철교연결도

• 군산항 금강 철교 가설 설명서

군산은 개항한 지 불과 35년이 흘렀을 뿐인데, 러일전쟁을 겪고 국운이 융성하면서 일본인 거주자가 많아졌다. 또한 연안 항로 발달, 호남 연선 철도 개통과 같은 각종 항만시설과 정부의 진전에 따라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인구는 37,000명(일본인 약 10,000명)이며, 인근 군 지역까지 합산하면 60,000명을 웃돈다. 과거 증가율인 7.4%를 줄잡아 6%로 계산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정부 구역 확장과 함께 부내 10만 명 그리고 건너편 장항은 10,000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11만 명이 넘기 때문에 호남 유일의 대도시가 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군산항의 쌀 수출량은 실로 230만 석에 달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군산과 장항 사이는 전라도, 충청도의 1, 2등 도로·선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남의 중요한 통로이며, 교통경제를 포함한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31년 6월 8일 경남철도 개통 후에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했고, 경남철도 종점인 장항역과 호남선 군산역과의 철도 연결은 점점 중요하다. 따라서 두 지역을 연계하도록 도모하고 더불어 인도교를 겸한 큰 철교를 가설하고자 한다.

현재 본 안건의 필요성과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나룻배에 의한 두 지역의 교통량을 보면, 경남철도 개통 전에는 하루 평균 5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개통 후에는 많게는 하루 2,000명을 넘어 평균 1,500명을 약간 상회한다. 또한 군산, 화양면(서천군) 등의 나룻배도 하루에 약 1,000명 가까이 달하고 있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철교 완성 후(10년 후) 하루 교통량은 족히 몇 배가 증가하여 10,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평양 대동교 및 부산 영도의 교통량이 이미 10,000명을 돌파한 상황을 봤을 때 추산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화물 또한 본 철교를 이용하여 일 년에 30만 톤 내외의 이동이 있을 것임을 여기서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도 없다.

② 군산항은 조수 간만의 차가 7m에 달하여 수륙연결 설비가 상당히 곤란하며, 결빙

기에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특히 부녀자의 교통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철교 가설이 필요하다.

- ③ 본 철교 가설은 운수 교통뿐만 아니라 국방상으로도 중요하다. 경전선이 개통되면 여수에서 남원을 지나 군산으로, 그리고 목포에서 군산으로 이어져 경부선과 함께 조선 2대 종관선이 된다. 국책과 경제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④ 군산항의 제2기 축항이 완공되면 군산항은 6척의 선박을 잔교에 가로로 댈 수 있게 되어 하역 임금도 현재 임금의 3할 내지 5할 정도의 인하가 가능하다. 따라서 경남선을 이용한 대량 화물은 자연스럽게 본 철교를 이용하여 군산항에서 하역한다면 하역 임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⑤ 본 철교의 건설비는 철교, 축선, 역 이전비 등 어림잡아 370만 원이지만, 이 경비 는 교통량 수입 및 화물 수입으로 30년 정도면 상환이 가능하기에 매우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경제와 국책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시 라고는 해도 일면에서는 빈민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에 하루빨리 실현 되기를 바란다.

• 금강 철교 가설 계획의 개요

- ① 가설지: 전라북도 군산항 건너편 장항 경남철도 종점과 호남선 군산항과의 철도 연결을 모색하기 위해, 금강 하류를 횡단하고 인도교를 겸한 큰 철교를 가설하고자 한다.
- ② 명칭: 군산항 금강 철교 가설 부대공사
- ③ 기업자: 정부, 공공단체 및 사회
- ④ 공사의 개요: 인도교를 겸하는 철교 수로 약 1,500m 및 군산항과 장항역을 연결하는 축선, 그 외 일체 공사
- ⑤ 공사비: 공사비는 교량비, 궤도비, 정거장 이축비, 땅값, 잡비, 사무비를 더해 약 370만 원 예정
- ⑥ 재원: 교통비 및 운임 등은 그 외 별지와 같음
- ⑦ 기간: 착수한 해부터 7년 간

- 제1안 재원조서(1년분)

<표 61> 본 공사를 국비로 시행할 경우

수입			
연번	종목	금액(원)	적요
1	교통료 수입	131,400	대인 1일 4,000인 1인 8전 1일 320원 =1년분 116,800원 소인 1일 1,000인 1인 4전 1일 40원 =1년분 14,600원
2	화물 수입	110,000	곡류 기타 20만 톤 1톤 35전 =1년 70,000원 잡화 10만 톤 1톤 40전 =1년 40,000원
3	총 합계	241,400	

<표 62> 본 공사를 국비로 시행할 경우

지출			
연번	종목	금액(원)	적요
1	공사비 상환 매년 할부액	239,416	총 공사비 370만 원의 년 5%이자 공채 30년 원리균등 상환액
2	총	239,416	
차감 잔금 1,984원			

- 수지(收支)에 대한 설명

- ① 교통료 수입, 교통량 인원을 산출해보면 본 철교 가설의 준공을 대략 앞으로 10년 후(1943년)라고 했을 때, 군산과 장항의 인구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1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인구 중 1.82%가 하루에 한 번 왕복하면 4,000명이며, 또한 인근 각 군과 철교 연락에 의한 인원 1,000명이 더해진다. 그리고 이 교통량은 평양 대동교 또는 부산의 영도의 도선 인원이 이미 1만 명을 초과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동일하게 1만 명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과하지 않으며, 아무리 적게 추산한다고 해도 5,000명은 될 것이다.
- ② 화물 수입 중 잡곡과 기타 20만 톤은 10년 후 적어도 연간 100만 톤 이상이 될 것이므로 최저 20% 또는 잡화 10만 톤은 10%로 계산된다.
- ③ 공사비의 매년 상환 할당액은 국가에서 본 공사를 실시하고 공채를 발행하지만, 이율은 현재와 같이 금리가 싸면 4푼, 또는 4푼 5리로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5푼 공채로 계산했다.

제21장 쌀의 군산

군산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부터 군창(群倉)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쌀을 생명으로 삼았다. 따라서 쌀은 수출·반출 품목 중 가장 중심이며, 총 무역액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의 흥망은 군산의 성쇠와 연결되어 경제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군산의 배후에 광활한 전북, 충남의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탄토항(呑吐港)¹⁷⁴⁾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쌀의 군산으로 불린다.¹⁷⁵⁾



[군산항 부두에 쌓인 조선 쌀]

□ 전북 쌀의 명성

전라북도도는 쌀의 생산지로 삼남보고(三南寶庫)의 심장이다. 경지면적은 17만여 정보(町步)¹⁷⁶⁾이고 1934년 수확량은 1,984,905석(1933년에는 1,957,857석)이다. 수확량으로만

174) 탄토항(呑吐港)은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항구를 말한다.

175) 군산 쌀의 대일 수출 초기에 대한 최은진의 연구(「군산미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0)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군산미 수출은 1901년 대일 직통항로 개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항 후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군산의 대일 항운은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 일본 우선 주식회사와 같은 여러 소규모의 일본인 회사들이 담당하였으나, 병합 후에는 일본 정부의 보조로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가 거의 독점하였다. 군산미는 오사카, 고베, 도쿄 등 일본 대도시로 수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미 수입상은 조선의 미곡 수출상으로부터 위탁받은 미곡을 일본 미곡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입거래를 성사시키고, 이후 다른 중매상에게 미곡 판매를 위임하였다. 하지만 오사카의 미쓰이물산회사, 고베의 유아사 상회[湯淺商會], 스즈키 상점[鈴木商店], 아베 상점[阿部商店] 같은 대자본 무역회사들은 일본과 조선 각지에 지점을 두고 조선미 수출부터 수입 및 판매까지 담당하였다. 오사카의 후지모토 합자회사[藤本合資會社]처럼 직접 조선에서 미곡 생산부터 수입 및 수출, 일본에서 수입거래와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울러 경영하는 대규모 회사도 있었다. 이러한 재벌급 회사들은 일본의 미가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컸는데, 일본 정부는 이들을 지정상(指定商)으로 세워 보조금으로 조선미를 대량 수입하게 하였다.”

176)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

보면 전 조선 중 3위에 해당한다. 조선 내에서 전라북도의 쌀 생산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지세, 기후, 토질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세를 보면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충청남북도, 동쪽으로는 경상남북도, 남쪽으로는 전라남도와 산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서쪽으로 황해와 맞닿아 펼쳐지는 비옥한 평야는 금강, 동진강, 만경강의 3대 하천에 의해 배양된 최상의 농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북평야라 불리는 이유이다.

기후는 평야부, 산간부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후쿠이(福井), 도쿄와 비교했을 때 1~2도 낮으며, 니가타(新潟) 지역과 거의 비슷하다. 혹한기는 1월로 일본의 도호쿠(東北) 지역과 필적할 정도이고, 혹서기는 8월로 중국(中國) 지역과 매우 비슷하다. 조선은 일본과 비교해 비와 눈의 양이 적은 편이지만 전라북도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강우량은 최다 1,400mm에서 최소 1,100mm 사이이다. 강우량은 건조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극히 적은 편인데 반해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 동안은 양이 매우 많아서 1년 강우량 중 60~70%를 차지한다. 이러한 기후는 역시 전라북도가 조선 최적의 농경지라는 명성을 잃지 않는 이유이다.

토질은 전라북도 동쪽 지역인 진안, 금산,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임실 7개 군은 산간부에 속해서 농경지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서쪽 지역, 즉 군산, 전주, 익산, 옥구, 김제, 정읍, 부안, 고창 1부(府) 7군은 평야부에 속한다. 광활한 전북평야는 동서로 약 120리, 남북으로 200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진강과 만경강의 2대 하천과 그 사이를 흐르는 관개(灌漑)의 이점이 더해져 땅이 매우 비옥하다. 게다가 근년에는 개간과 간척 사업이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어 점차 경지가 확장될 전망이다. 관개 시설을 보면 경작 면적 17만 정보 중 수리가 편리한 논 면적은 66%, 천수답은 34%이다. 근래 수리조합 역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관개 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산미장려 품종은 긴보즈(銀坊主),¹⁷⁷⁾ 고쿠료미야코(穀良都),¹⁷⁸⁾ 다마니시키(多摩錦), 이시야마소(石山祖), 기나이하야주온고(幾内早一四號)이며 품질은 다음과 같다.¹⁷⁹⁾

- 긴보즈: 1930년 5월에 장려품으로 추가된 전라북도의 품종이다. 도야마현(富山縣)의 긴보즈와 동일한 품종이다. 조생과 중생의 두 종류가 있고, 조생은 아이코쿠(愛國)와 거의 같은 시기에 벼가 자라고, 중생은 거의 고쿠료미야코와 같은 시기에 자란다. 품질은 중간 정도이지만 낱알이 작고, 중량이 무거우며 도정보합이 높고 맛이 좋다.

177) 긴보즈(銀坊主)는 은방주라고 하며, 메이지시 3대 품종이었던 아이코쿠의 선발 품종이다.

178) 고쿠료미야코는 야마구치에서 나온 쌀의 품종으로 메이지시 11년 일본 전국에서 재배했던 품종이다.

새로운 품종 등장으로 이후 재배지가 사라졌다.

179)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도입되거나 새롭게 개발된 품종은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수도작) 품종이었다. 이때 유입된 품종에 대해서는 홍금수의 연구(『일제시대 신품종 벼의 도입과 보급』, 『대한지리학회지』 38-1, 2003)가 있으며, 수도작 품종 도입에 따른 농업 기술 변화와 그것이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소순열과 이두순의 연구(『일제하 수도작 기술체계의 변화와 성격』, 『농업사연구』 2-2, 2003)가 있다.

- 고쿠료미야코: 낱알이 크고 속이 흰 품종으로 넓적하고 타원형이다. 겉겨는 푸르스름하다. 종래에는 주로 주조미(酒造米)로 사용되었다.
- 다마니시키(玉錦): 관동지방에서 재배되는 다마니시키와 동일 품종으로, 속겨는 까끄라기가 있다. 수확량은 중간 정도이며, 낱알이 작고 약간 길다. 품질이 좋고 맛도 좋아 다른 쌀의 맛을 더하는 쌀로 종종 사용한다.
- 이시아마소(石山祖): 만생으로 신리기(神力)와 매우 비슷하다. 낱알은 중간 정도로 흰색인 것이 특징이다. 1927년에는 논 식재 면적의 40%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기나이하야주온고(幾内早一四號): 낱알은 중간 정도로 흰색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라북도와 연기, 천안을 제외한 충남, 옥천, 영동, 보은의 충북지역은 미곡검사소 군산지소의 관내에 속하여 ‘히시쿠(菱夕)’를 상표로 한다. 지금 전북 쌀에 대한 곡물검사를 도쿄와 그 외의 지역, 특히 오사카와 비교하여 그 전망을 보도록 하겠다. 전북 쌀은 오사카와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져 있다. 이시아마소, 고쿠료미야코와 같은 중간이나 큰 낱알은 도쿄에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도쿄와의 거래가 많지 않다. 최근 오사카는 물론 동서를 불문하고 중량제를 실시한 결과에 의한 것인지, 또는 품종에 대한 기호 변화에 따른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작은 낱알 계통이 환영받고 있다.

이어 긴보즈의 반출량이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판로의 이동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쌀의 거래를 한 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권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 전에 품종의 기호 변화를 좋은 기회로 삼아 관동지방, 특히 적극적으로 도쿄로 판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쌀 검사의 공정통일이 점점 개선되고 있어 건조, 조제, 포장에 개선 향상되었다. 또한 돌을 고른 현미의 급증, 앵미(惡米)¹⁸⁰⁾의 격감, 용량, 중량 증가 등의 현상을 보면 기쁘기 그지없다.



[쌀의 군산]

□ 수출·반출미[輸移出米] 추세

수출·반출미는 현미, 정미, 싸라기 등이다. 현미는 총 수출·반출미의 수량 80% 이상을 차지하고, 정미는 13%, 나머지가 싸라기 정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북 지역 쌀

180) 앵미: 쌀 속에 섞여 있는, 빗갈이 붉고 질이 나쁜 쌀을 말한다.

생산은 품질이 좋으며, ‘히시쿠’ 상표는 호평을 얻어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쌀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현미¹⁸¹⁾ 수출·반출량은 부산, 인천보다 훨씬 많지만, 정미 수출·반출량은 부산, 인천과 비교했을 때 소량이다. 쌀의 행선지는 1위가 오사카로 총 수출·반출 수량의 7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고베와 도쿄가 잇고 있다.

쌀의 반출이 가장 왕성할 때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였는데, 최근에는 가격 상황과 창고가 완비되고 갖추어짐에 따라 점차 월별로 수출·반출이 이뤄졌다. 나아가 1934년 중의 수출량은 2,285,114석, 가격은 55,018,549원으로, 개항 이래 최고 기록이었던 1931년과 비교하면 수량으로는 428,515석, 가격으로는 24,766,828원이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증가 원인으로는 항구 준공과 그해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한 쌀값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근래 10년 간 수출입량, 가격 및 과거 3년간 수출입 행선지별 수량, 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3> 군산항 수출·반출 쌀 10개년 무역액 표(수량: 석, 가격: 원)

연도	수량	가격	연도	수량	가격
1925	998,769	36,753,717	1930	1,055,144	23,623,818
1926	1,373,453	41,808,470	1931	1,856,599	30,251,721
1927	1,471,942	44,748,028	1932	1,627,427	22,994,413
1928	1,611,358	44,193,575	1933	1,785,539	36,977,001
1929	1,250,963	33,673,946	1934	2,285,114	55,018,549

<표 64> 군산항 수출·반출 쌀 발송지별 무역 표(단위: 석)

발송지	1934년	1933년	1932년	발송지	1934년	1933년	1932년
○ 수출							
네덜란드	-	21	-	관동주(關東州) ¹⁸²⁾	-	1	-
아르메니아	-	222	-				
○ 반출							
오사카(大阪)	1,602,702	1,352,730	1,122,975	묘지에키(妙寺驛)	-	-	98
고베(神戸)	241,278	206,149	210,425	다나베(田邊)	4,418	5,587	5,938
나고야(名古屋)	83,169	52,913	52,321	히카타(日方)	57	153	294
유타이치(四日市)	900	800	1,300	시미즈(清水)	10,453	4,039	12,134
요코하마(横浜)	26,659	5,749	20,681	기후(岐阜)	-	-	97
도쿄(東京)	233,472	120,187	134,856	고후(甲府)	-	-	128
시모노세키(下關)	1	407	1,680	가와사키(川崎)	-	-	200
모지(門司)	1,154	1,325	2,710	오타루(小樽)	736	-	2,147
가고시마(鹿児島)	40	-	150	다카쓰키(高槻)	-	64	-

181) 일본으로 반출된 쌀의 대부분이 현미 형태였던 것은 조선 쌀이 일본에서 다양한 상품 생산 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고, 일본인이 선호하는 쌀의 정미 상태가 조선에서 소비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발송지	1934년	1933년	1932년	발송지	1934년	1933년	1932년
이마바리(今治)	3,320	1,640	2,265	타이완(臺灣)	-	-	1,957
고치(高知)	7	-	6	하카타(博多)	10	120	-
아와타하마(八幡濱)	9,206	-	416	나가사키(長崎)	150	-	-
사카이데(坂出)	5,100	-	1,600	우지나(宇品)	-	-	-
다카마쓰(高松)	600	-	480	요코스카(横須賀)	1,800	-	-
오노미치(尾之島)	25,480	3,722	400	미야즈(宮津)	260	20	-
무로쓰(室津)	260	-	50	사스나(佐須奈)	6	-	-
히로시마(廣島)	-	140	4,794	도쿠시마(德島)	80	-	-
요시우라(吉浦)	6,920	2,544	5,000	다지마(多治見)	59	-	-
니시노미야(西ノ宮)	400	160	1,463	가마쿠라(鎌倉)	50	-	-
아마가사키(尼ヶ崎)	300	1,100	3,920	우와지마(宇和島)	1,840	-	-
쓰쿠미(津久見)	-	4	-	후시키(伏木)	60	-	-
후쿠사키(福崎)	-	-	128	우메코지(梅小路)	-	-	-
기시와다(岸和田)	200	-	418	오쓰(大津)	-	-	-
교토(京都)	7,141	6,194	13,949	가이즈카(具塚)	100	-	-
사카이(堺)	3,299	6,940	25,023	산마이즈루(新舞鶴)	1,016	817	-
후시미(伏見)	-	-	64	하코다테(函關)	250	-	-
가라쓰(唐津)	40	-	-	도요하시(豊橋)	-	-	-
단바구치(丹波口)	-	-	97	야나이츠(柳井津)	-	16	-
마이즈루(舞鶴)	1,216	-	27	우노(宇野)	-	1,000	-
와카야마(和歌山)	1,205	1,274	5,821	도기츠(土岐津)	-	51	-
히가시와카야마(東和歌山)	-	420	384				

주요 수출·반출미는 현미이다. 1934년 수출·반출미(당해 연도에는 수출이 없었다) 2,285,224석 중에 현미 1,746,735석(가격 40,987,240원), 정미 523,726석(가격 13,830,087원), 썬미(碎米) 8,781석(가격 150,600원), 기타 쌀 5,872석(가격 50,622원)이다.

<표 65> 1934년 수출·반출 쌀의 발송지 별 가격표

구분	발송지	가격(円)	발송지	가격(円)
규슈지방 (九州地方)	모지(門司)	27,937	나가사키(長崎)	4,240
	하카타(博多)	260	기타	1,319
시코쿠지방 (四國地方)	다카마쓰(高松)	12,120	우와지마(宇和島)	49,680
	사카이데(坂出)	131,205	아와타하마(八幡濱)	244,181
	이마바리(今治)	84,693	기타	1,915

182) 관동주는 랴오둥 반도 남쪽에 설정된 조차지로 1989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하였다. 일본 제국은 다렌 및 뤼순 지역을 관동주(關東州)라고 이름짓고 관동주 식민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와 관동군을 창설했다. 관동 도독부는 1919년 관동청으로, 1934년에는 관동주청으로 개편되었다.

간사이지방 (關西地方)	시모노세키(關西)	30	기시와다(岸和田)	5,595
	히로시마(廣島)	-	와카야마(和歌山)	32,557
	요시우라(吉浦)	195,490	다나베(田邊)	109,644
	오노미치(尾ノ道)	933,532	교토(京都)	156,029
	고베(神戸)	5,974,846	마이즈루(舞鶴)	35,694
	니시노미야(西ノ宮)	10,600	신마이즈루(新舞鶴)	18,484
	아마가사키(尼ヶ崎)	6,907	무로쓰(宮津)	6,665
	오사카(大阪)	38,300,084	기타	3,663
	사카이(堺)	83,244		
간토지방 (關東地方)	유키카이치(四日市)	24,000	요코하마(橫濱)	640,869
	나고야(名古屋)	2,029,570	도쿄(東京)	5,559,937
	시즈미(清水)	246,384	후시키(伏木)	1,140
	요코스카(横須賀)	39,130	기타	2,879
홋카이도지방 (北海島地方)	오타루(小樽)	19,666	기타	-
	하코다테(函關)	6,380		
총 합계		55,000,569 ⁽¹⁾		

(1) 원문에는 55,018,54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55,000,569로 집계된다.

□ 군산미곡상조합¹⁸³⁾



[군산미곡상조합]

원할, 품질 개량 등을 통해 상당한 활동을 도모해 왔지만, 내부 통제가 미흡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일단 해산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 12월에 군산미곡상조합을 창설했다(당시 조합원은 29명).

이후 조합은 중개인의 단속, 수도빈법(受渡濱法)¹⁸⁴⁾ 제정, 도량형 기구의 통일을 필두

군산미곡상조합은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추어 1910년 12월 미곡매매업자에 의해 ‘군산의 미곡상 기관으로서 정확 하고 원활한 매매를 통해 미곡품질을 개량하고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로 창설되었다. 본래 군산미곡상조합 창설 이전에도 미곡상 업자들이 조직한 수출상조합이 있었다. 수출상조합은 거래의 정확,

183)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미곡상조합은 반출미를 거래하는 미곡상들의 이익단체로,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미곡상에 대해 배타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조합원으로 가입한 미곡상이 거래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에 대한 규칙을 정하거나 이를 총독부에 건의하여 법제화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184) 수도빈법은 미곡 거래 시 대금과 상품을 주고받을 때의 거래 규칙을 의미한다. 미곡 거래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현물과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외상거래 또는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로 오사카의 업자들과의 거래 절충, 그 외 지역과의 거래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했다. 또한 품질 개선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곡 거래 기관으로 쌀을 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군산뿐 아니라 조선 쌀 업계에 크나큰 기여와 공헌을 해 왔다.

원래 조선 미곡 외상 거래의 시작은 군산이었다.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개항 당시 군산에는 지역 상인들과 수출 무역상 사이에 불완전하지만 외상거래가 있었다고 한다.¹⁸⁵⁾ 그러나 그 방법은 극히 유치한 수준이었는데, 예컨대 몇 월 며칠까지의 기한을 예정하고 어디에서 쌀 몇 백 석을 사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한 석에 얼마 정도의 착수금 등을 가불하여 은행에서는 날변¹⁸⁶⁾만을 부담하고 단순히 매매계약 형식을 작성하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1920년 곡물시장 인가를 받아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장 규칙이 개정된 후 거래 수량이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보이자 반출량[移出量]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24년 1년 직거래는 60만 석, 외상 거래는 1,500만 석일 정도로 그 수량이 늘었다. 그 후 재계의 불황과 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점차 거래가 감소하였고, 193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원 조직인 군산미곡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시장에서 외상거래는 폐지되고 직거래만 통용되었다. 현재 조합장은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부조합장은 다나카 가메지로(田中龜次郎), 그 외 평의원 8명, 감사 3명, 고문 2명, 그리고 이사는 후루카와 히데지(古川秀二)이다.

□ 군산미곡거래소¹⁸⁷⁾

쌀을 생명으로 하는 군산은 1910년 무렵부터 다른 지역보다 먼저 군산미곡거래소 설치 문제를 외쳤고, 이후 수많은 고생과 노력을 통해 맹렬히 운동을 지속시키고 있다. 한때는 조직문제에 대해 부민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 조선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다. 이 소동을 통해 군산이 얼마나 거래소 설치를 염원하였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 후 1931년 거래소령이 발포되고 1932년 1월 1일 마침내 회원 조직 하에 군산미곡거래소 개설이 실현되었다. 최초 회원은 18명이었지만, 이후 폐업이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이도 있어 지금은 다음과 같이 11명만 남아 있다.

와키타 하루쓰구(脇田春次), 요시타카 히로요시(吉鷹廣吉), 다나카 가메지로(田中龜次郎), 쓰쿠모 로쿠오(九十九六男), 야마모토 가즈오(山本一男), 마에다 마고헤이(前田孫)

185) 개항 초기 일본상인과 한국 상인의 거래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자본규모와 신용이 있는 일본상인은 한국인과 외상거래 또는 어음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때 은행은 매매 당사 간 거래와 지불 사이에 발생하는 기간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당좌예금 등을 담보로 매매계약에 대한 보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2년 미곡의 외상 또는 선물거래를 위한 군산미곡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상인 간의 거래가 사라지고 대신 군산미곡거래소가 이러한 거래를 담당하게 되었다.

186) 날변은 날로 계산하여 일정하게 무는 이자를 의미한다.

187) 일제강점기 군산미곡거래소를 무대로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묘사한 채만식의 소설 『탁류』는 1937년 10월 12일부터 1938년 5월 15일까지 총 196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된 후 1939년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2019년 현재 이 소설에 대한 국내학술논문은 총 72편에 달한다.

平), 최익(崔益), 미야코 소타로(都宗太郎), 시모타 미노루(下田實), 히로쓰 요시자부로(廣津吉三郎), 모리 기쿠고로(森菊五郎)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 사 장: 모리 기쿠고로

상무이사: 마사키 게이이치(正木惠一)

이 사: 다나카 가메지로, 마에다 마고헤이, 야마모토 가즈오, 히로쓰 요시자부로

감 사: 미야코 소타로, 최익

1934년의 사업의 개황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상반기 사업 개황

청산 거래¹⁸⁸⁾ 해당 기간의 개시(開市) 일수는 148일이다. 매매총액은 2,741,800석(1일 평균 18,525석 정도)이며, 매매 수수료는 21,934원 40전이다. 여기에 전기¹⁸⁹⁾ 이월량 35,200석을 더하면 총 합계 2,777,000석이다. 2,712,300석은 기간 내에 전매나 환매¹⁹⁰⁾를 완료하고, 47,000석을 인도한 후, 나머지 17,700석은 이월시켰다. 그런데 해당 기간의 최고 시세는 6월 말 24원 56전(6월 22일), 최저는 1월 말 19원 90전(1월 13일)으로 가격 차이는 4원 66전이다. 이러한 상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월 4일, 선물거래가 개시되었다. 3월 말일까지는 새봄의 기운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해서 16전이 오른 21원 1전으로 거래 초반 정미 가격은 약세, 주식도 가격 약세였다. 정부 납입미 불합격이 속출하고 수용 창고 부족 등으로 인해 불길한 분위기가 일었다. 13일 20원 23전으로 떨어졌다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제3차 조선 쌀 50만 석을 정부가 매입한다는 발표 이후 21원 94전으로 급등했다. 정미의 정부 매입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우왕좌왕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2월에는 4월 말 기한의 20원 91전 선물거래로 출발했다. 일본의 실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악천후와 정책 강화로 적은 액수지만 손해를 각오하고 팔았던 정미를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통제법이 농림성의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¹⁹¹⁾과 정부 매입설이 돌면서 13일 21원 49전으로 상승했다. 이후 통제법이 1933년

188) 거래 계약 시 일정기간 이후에 상품과 대금결제를 완료하는 거래 제도이다. 미곡의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제도로, 미래에 수확될 미곡량과 가격, 양도 기일을 정해서 계약하고 이후 실제 거래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189) 원문은 전기(前記)이나 전기(前期)의 오기로 보인다.

190) 신용거래나 청산 거래에서, 공매(空賣)했던 주식이나 상품을 다시 사들여 현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환매(還買)'라고 한다.

191) 미곡통제법은 1926년 만주의 농업공황 이후 쌀값이 하락하고, 일본의 농촌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쌀의 일본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 쌀의 일본 유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 이입을 통제하고자 했다. 1929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쌀에 대한 통제법안 논의가 일본에서 제기되자 총독부와 재조일본인, 조선인 지주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구립농업창고를 증설하여 그해 연도 과잉미를 창고에 보관하여 일본으로 조선 쌀의 반출을 조절한다는 방법을 세웠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지자 다시 외국미 수출입을 관리 통제하는 법

도 생산 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 매입에 대해 실망하여 투매가 발생해서 28일에는 21원 6전으로 약세가 되었다.

3월에는 5월 말 기한의 21원 16전의 선물거래로 출발했다. 정미의 보전매도¹⁹²⁾가 중병의 마치 폐환자가 병치레 하듯 오를 듯하면서 오르지 않다가 14일 20원 65전으로 떨어졌다. 급격한 매도에 대한 경계와 정미 거래에 반발하여 소걸음처럼 가격이 정체되었다. 일본 제국의회 '외지미(外地米) 통제 법안으로 1933년산 쌀의 수매가 명확'해졌다는 미곡부장의 답변은 눈에 띄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27일 제4차 조선 쌀 50만 석 수매를 발표하자 21원 9전으로 반등하였다.

4월에는 6월 말 기한의 21원 24전 선물거래로 출발하였다. 일본에서 정미 거래가 왕성해지고 인기가 생기자 오사카의 거상이 매입을 추진하는 등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 9일에 21원 99전으로 급등하였다. 하야시(林) 육군상[陸相]이 사표를 제출하자¹⁹³⁾ 주식이 약세로 바뀌어 13일 64전 하락했지만, 사표의 저의가 분명해지자 살짝 구매 분위기가 다시 불타올랐다. 육군상의 사표 철회로 정국불안이 해소되고 주식 강세에 자극받아 정미 거래량에 박차가 가해져서 22일 99전으로 폭등하였다. 매입자의 독무대라 할 정도로 이식(利喰)¹⁹⁴⁾이 속출하게 되어 작은 영향이 있었지만, 벼와 정미거래에 매수 주문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월말에는 23원 25전까지 올랐다가 멈췄다.

이윤의 혼전 속에서 5월에는 7월 말 기한의 23원 40전 선물거래로 출발했다. 정미의 보전매도에서 벗어나 분위기가 좋아져서 2일 62전으로 급등하였으나 정부가 쌀을 불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매입 분위기가 사그라져 14전으로 약간 떨어졌다. 그러나 소문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자 시세가 일시적으로 내렸을 때 사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8일 78전으로 급등했다.

5월 1일 일본에서 잔존미를 증가할 것이 예상되자 벼[粳]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저장미 해제가 우려되었다. 일본에서 정미 거래조건의 사전 문의에도 여전히 20전을 유지했다.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 문의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였다. 중순에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되어 기회를 노리며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다. 정국 불안으로 인해 도쿄

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33년 10월 미곡통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매년 미곡의 최저최고 가격을 정하고 민간의 요구에 응해서 공정가격에 근거하여 미곡을 매입하고 매도할 것, 미곡 수출회수량의 계절적 조절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 혹은 매도할 것, 미곡의 저장, 매환, 대부 등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으며, 미곡과 잡곡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미곡 통제 상 필요한 조사를 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일본 쌀값의 안정을 위해 조선 쌀의 이입을 관리 통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33년 일본과 조선의 유래 없는 풍작으로 쌀을 매입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손실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다시 농림성에서는 미곡통제법을 개정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농무성, 척무성의 갈등이 빚어졌고, 사이토 마코토 수상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져서 1934년 외지미국입입조절법안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외지미의 내입이익을 전적으로 자유로 하되, 조선 및 대만에 외지미 조절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내지에서는 현행 미곡특별회계의 한도(당시 7억엔)를 4억 4천만 원 증액하여 외지미 매상을 통해 수급을 조절한다는 것이었다(기유정, 『식민지 대(對) 모국 간 경제마찰과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사회의 대응: 1929-1936년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의 정치학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2, 2009). 미곡통제법은 조선의 쌀값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개정, 미곡매입량 등에 따라 거래소 시황의 변화가 심했다.

192) 보전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신용거래로 확보한 쌀이나 주식을 공매도해서 신용거래로 매입했을 때 입은 손실을 공매도를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193) 하야시 육군상은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1876~1943)이다. 하야시는 사이토 내각과 오카타 내각의 육군대신을 지냈고, 1937년 제33대 총리대신이 되었다. 육군세력 내에서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194) 이식(利喰)은 전매 또는 환매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의미한다.

의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다소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처분해서 23원 10전으로 가격이 붕괴하였다.

6월에는 8월말 기한의 23원 선물거래로, 약세로 출발했다. 2일 35~6mm의 비가 내리고, 정미가 부진하여 6일 22원 90전으로 하락했다. 다만 벼의 매물이 없는 상황임에도 백미 거래량(白米高)이 증가하여 매입하는 분위기가 대두하면서 점차 보조를 맞추었다. 지방 내륙 상품 부족이 심각해지자 강경파[硬派]를 중심으로 매입하려는 기운이 다시 일어났다. 일본은 매수인의 책동에 의해 가마니를 졸라매듯 온건파[軟派]가 세미량(貰米高)¹⁹⁵⁾ 정보에 덧붙여 정미의 원료미를 찾아 해매자 전년도에 고가를 상회하여 22일 24원 47전으로 급등하였다. 23일 저녁부터 25일까지 6~70mm의 단비가 내려 순조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던 중 돌연 26일 총독부가 장기 저축한 벼 60만 석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여 분위기가 와르르 무너져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버리고 말았다. 아이러니한 매입[皮肉買]¹⁹⁶⁾과 농림성의 대만 쌀[蓬萊米]¹⁹⁷⁾ 수매설에 반발하여 현실의 연재료(軟材料)¹⁹⁸⁾로 인해 매입하려는 분위기가 사라져 23원 70전으로 주저앉았다가 78전으로 종료하여 이번 회기가 끝났다.

<표 66> 1934년 상반기 월별 매매액 표

월별	매매액(1,000石)	매매대금(원)	매매수수료(錢)
1월	1,052,400	21,682,600	4,209.60
2월	721,000	15,254,472	2,884.40
3월	680,600	14,222,772	2,622.40
4월	965,400	21,307,668	3,861.60
5월	861,600	20,092,802	3,446.40
6월	1,202,600	28,583,632	4,810.40
합계	5,483,600	121,143,946	21,834.80 ⁽¹⁾

(1) 원문에는 매매수수료 합계가 21,934.8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합계는 21,834.80이다.

<표 67> 1934년 상반기 월별 수도(受渡)량 및 수도금액 표

월별	수도 량(石)	수도 가격(錢)	수도금액(錢)
1월 중	-	-	-
1월 말	7,600	20.46	155,496.00
2월 중	-	-	-
2월 말	4,300	20.84	89,612.00
3월 중	-	-	-
3월 말	13,500	20.60	278,100.00
4월 중	-	-	-
4월 말	8,700	22.30	194,010.00

195) 세미량은 공매를 위해 빌려오는 쌀을 의미한다.

196) 매입할 상황이 아닌데 매입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러니한 매입을 뜻한다.

197) 대만 쌀을 일컬어 호라이마이[蓬萊米]라고 했다.

198) 연재료는 가격이 쉽게 하락할 수 있는 재료라는 의미이다.

월별	수도 량(石)	수도 가격(錢)	수도금액(錢)
5월 중	-	-	-
5월 말	6,700	22.90	153,430.00
6월 중	-	-	-
6월 말	6,200	24.22	150,164.00
합계	47,000	-	1,020,812.00

• 하반기 사업 개황

정산 거래 당해 기간의 개시일(開市日)은 148일이고 매매총액은 3,179,700석(1일 평균 21,400석 정도), 매매수수료는 25,437원 60전이였다. 여기에 전기 이월된 17,700석을 더하면 총계 3,197,400석이다. 이 중 3,147,100석은 기간 내에 전매, 환매를 완료하였고, 22,900석은 건네받았으며 나머지 27,400석은 후기로 이월하였다. 그리고 당해 기간 상장 최고는 10월 말 기한의 28원 71전(10월 29일)이고, 최저는 11월 말 기한의 23원(9월 3일)으로 그 차는 5원 71전이다. 상황 일반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7월은 모내기가 순조로워 경작 면적이 증가했다. 정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순조롭게 시작해 약세를 보였다. 경상남북도 및 기타큐슈(北九州)의 가뭄과 뒤이은 강우로 인해 농사지를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조선에서는 경남, 경북의 수해, 호남과 강경에 침수의 참상이 있었다. 제2차로 60만 석 벼를 창고에서 방출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미 재고는 정부의 소유미 이외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미친 듯이 급등하였다.

8월이 되자 일기가 회복되고, 선물거래는 약세를 보였다. 제3차 벼의 방출이 있었지만 태풍 경보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태풍이 비껴가서 비가 순조롭게 내렸고, 통제법에 따라 가격 폭이 축소되어 거래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9월이 되어 불하미(拂下米) 압박으로 인한 약세 후 정미 매입 주문이 쇄도해 점점 가격이 올랐다. 하순이 되어 아미미오시마(奄美大島) 섬에 접근한 728mm의 태풍은 한반도를 비껴가 일본으로 향하였고, 9월 21일 오전 8시 정각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긴키(近畿)지방을 강타하였다. 이로 인해 도지마(堂島)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의 개장이 연기되어 결국 휴장되었다. 통신 또한 두절되었다. 22일 개시한 도지마 시장은 2부(府) 11현(縣)에 달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고 도작피해는 심각했다. 해당 지역도 역시 뒤죽박죽 대혼전을 보였다. 도지마 시장은 22일에 한하여 1석(石)당 거래를 정지하고 가격 28원 87전으로, 안팎을 합하여 13만 석 모두를 해합(解合)¹⁹⁹⁾했다. 해당 지역도 이윤을 낼 수 있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어서 25원 76전을 호가하였다. 월말에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햅쌀은 10월 말을 기한으로 은(銀) 4등 25원 50전에 거래 상담이 있었다.

10월은 시정기념일(始政記念日)²⁰⁰⁾로 인해 2일 개시하였다. 오사카 지역의 좋은 시세

199) 해합은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후 급박한 시세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가격 변동의 일정한 값을 정해서 매매계약 청산 시 가격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격 변동이 매우 유동적인 상품에 대한 연불거래에서 발생한다.

200) 시정기념일은 조선총독부가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적으로 병합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기념일로, 매년 10월 1일에 이를 기념한 각종 행사를 시행하였다. (오미일, 「전시체제기 지역사회와 기념(日) 의례와 동원의 일상: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람』 40, 2011).

로 매입 열기가 뜨거워져 72전 높은 선물거래로 출발하여 19전 비싼 26원 50전이 되었다. 일본의 수확량이 감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월 초에는 높았다. 6일 조선 쌀 제1회 매입 예상량을 1,670만 석으로 발표하였다. 같은 날 미곡위원회는 200만 석을 매입하여 저장한 것 일부를 교체하고 교체한 저장미를 불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지역은 햅쌀이 시장에서 점차 증가하면서 23일 25원 71전으로 약세를 보였다. 10월 중순은 정부의 통제강화와 왕성한 정미 거래, 총독부의 단기저장 발표 등으로 해당 기한 내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하고, 29일 27원 28전으로 신기록을 세우면서 급등하면서 마치 천장을 뚫을 기세였다.

11월이 되어 월초에는 정미 불매로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날씨가 회복되면서 출곡이 본격화되었다. 5일 27원 1전으로 붕괴되었지만 조선 쌀 2회 매입 예상량의 감소 발표와 일본 쌀 100만 석 매입 교체 발표는 재고미가 바닥난 문제를 해소하여 양호해진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최성기의 부동미(浮動米)²⁰¹⁾를 싹쓸이 한 결과 오히려 강재료(強材料)²⁰²⁾로 해석되었다. 일본 2회 매입량 예상이 5천만 석 이내일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판매자가 낭패를 보았다. 9일 28원 8전으로 오르는 등 11월 중순의 쌀 가격은 점점 매입에 대한 경계와 불하 성적에 대한 기대가 섞여서 불투명해진 탓에 등락을 반복하였다. 그동안 오사카 지역에서는 해당 기한 내 매입 인수 및 79,000석의 해합이 성립되어 28원으로 반등했다. 정미 불매와 도쿄의 약세로 투매가 많아지자 24일 27원 30전으로 하락했다. 11월 하순은 날씨가 다시 악화되었고, 마침 다카하시 대장성 대신²⁰³⁾ 취임이라는 호재와 정부의 계절 매입이 290만 석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갑자기 급등하였다. 정미도 월말 누적 평균이 반등하여 공매이익을 노리는 매도도 소화하고, 28원 14전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12월은 2월 말 기한으로 19전 비싼 28원 19전으로 시작하였다. 강경파의 중점 매입으로 인해 가격이 28원 33전으로 올랐다. 정부의 매입 성적 기대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순에 결정될 새로운 공정가격이 현행보다 50전 높을 것이라는 억측으로 실망하는 기운이 감돌아 임시의회의 분위기가 험악했다. 정부의 매입 성적이 좋지 않자 매입 분위기가 쇠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고시세를 기록하여 양호하고 정미 출하가 증가되었지만, 선박의 수송력이 부족해 침체되었다. 17일 결정된 공정가는 최고 31원 50전, 최저 24원 30전으로 발표되어 이후 분위기가 비관적으로 바뀌고 정부의 매입 지연에 따른 실망으로 19일 27원 44전으로 하락하였다. 21일 대망의 일본쌀에 대한 정부 매입 발표로 22일 27원 80전으로 소폭 회복하였다. 그러나 매입 교체 잔여분이 589,000석이라는 수량은 자극적인 소재가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보합 전선이 연장되어 새봄을 기다리는 평온함을 뒤로하고 대납회(大納會)²⁰⁴⁾를 고하며 본 회기를 종료했다.

201) 부동미는 정부의 통제에서 제외된 미곡을 의미한다.

202) 강재료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란 의미이다.

203)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1854~1936)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의 무사였고,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 관료이면서 정치가였다. 입헌정우회 제4대 총재를 지냈고, 제20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냈다. 1934년 대장성대신으로 취임했다.

204) 대납회는 거래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의이다.

<표 68> 1934년 하반기 월별 판매량 표

월별	판매량(石)	판매대금(원)	판매 수수료(錢)
7	367,600	17,523,562	2,940.80
8	469,600	22,687,938	3,756.80
9	543,800	26,386,418	4,350.40
10	531,500	28,239,874	4,252.00
11	695,200	38,452,964	5,561.60
12	572,000	31,887,190	4,576.00
합계	3,179,700	165,177,946	25,437.60

제22장 무역

1899년 개항 초기 군산 무역액은 겨우 2,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5년 후인 1903년에는 이미 123만 3천여 원에 달했고, 10년 후인 1909년에는 296만 2천 원, 20년 후인 1919년에는 3천 310만 2천 원이 되었다. 27년 후인 1925년에는 6천 661만 3천여 원이라는 비약적인 수치로 증진되어 개항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그 후 재계 불황과 정부의 긴축 방침으로 인한 물가 하락, 그리고 1929년 미곡관세 인상에 따른 외국 쌀 수입 회사가 발을 끊으면서 무역액은 점차 줄어들어 1930년과 1931년에는 390만 원 대였다.²⁰⁵⁾ 하지만 이듬해 1932년부터 드디어 부진을 만회하여 1933년에는 5천 139만여 원에 달할 정도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쇠의 흔적으로 군산 시황의 길흉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증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재계의 불황 역시 이 이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반인들의 구매력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군산에서는 축항이 완성되어 하역부대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액은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개항 이후 매해 누적 무역액 및 1934년 수출·반출입 중요품 수량 가격과 그 외 통계이다.

<표 69> 군산 개항 이후 매해 무역액 표 (단위: 원)

연도	수출·반출액	수입·반입액	총 무역액	차액(△ 수입초과)
1899	8,198	3,881	12,079	4,317
1900	74,812	19,315	94,127	55,497
1901	259,011	75,585	334,596	183,426
1902	311,124	103,128	414,252	207,996*
1903	842,192	411,256	1,253,448	430,936
1904	417,330	594,948	1,012,278	△177,618
1905	362,911	362,981	725,892	△70
1906	641,255	490,225	1,135,240	151,030*
1907	1,917,262	915,242	2,839,719	1,002,020*
1908	1,833,392	973,442	2,806,834	859,950
1909	2,049,530	913,436	2,962,966	1,136,094
1910	2,210,156	1,186,489	3,396,645	1,023,667
1911	1,453,376	1,909,514	3,362,890	△456,138

205) 1926년 농업공황 이후 일본은 조선 쌀의 일본유입을 제한하려는 목적 하에 1929년부터 이입제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1933년 미곡통제법이 제정되어 조선 쌀의 일본 반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졌다.

연도	수출·반출액	수입·반입액	총 무역액	차액(△ 수입초과)
1912	1,771,927	2,714,705	4,462,632	△942,778*
1913	4,199,064	3,281,914	7,480,978	917,150
1914	6,177,233	3,713,940	8,891,173	3,463,293*
1915	7,288,737	2,292,919	9,581,656	4,995,818
1916	5,169,774	2,058,009	7,227,783	3,111,765
1917	6,762,891	2,505,344	9,268,235	4,257,547
1918	13,782,374	3,885,211	17,667,585	9,897,163
1919	26,537,999	8,564,202	35,102,201	17,973,797*
1920	19,805,631	5,242,903	25,048,534	14,562,728
1921	20,159,165	6,328,128	26,487,294	13,831,037*
1922	27,103,093	7,561,045	34,664,138	19,542,048
1923	32,815,010	8,638,582	41,453,592	24,176,428
1924	35,959,057	12,729,052	48,688,109	23,230,005
1925	37,738,706	18,341,405	56,080,111	19,397,301
1926	47,328,375	19,284,876	66,613,251	28,043,499
1927	45,119,786	20,799,362	65,979,148	24,320,424
1928	44,517,736	18,064,968	62,582,704	26,452,768
1929	34,223,289	18,207,176	52,430,465	16,016,113
1930	24,330,444	15,167,613	39,498,057	9,162,831
1931	30,496,993	9,397,284	39,894,277	21,099,709
1932	33,853,927	11,491,359	45,345,286	22,362,568
1933	37,594,918	13,804,719	51,399,637	23,790,199
1934	55,950,904	18,442,467	74,393,371	37,508,437*

* 차액 내용 중 * 는 원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원문에 기재된 내용을 차례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902년 207,956, 1906년 154,990, 1907년 1,009,231, 1910년 1,023,667, 1912년 1,002,778, 1914년 3,463,291, 1919년 17,973,792, 1921년 13,831,036, 1934년, 29,993,734이다.

□ 군산항 무역 개황

1934년 군산항의 무역액은 수출·반출액 55,950,904원(화물량 521,635톤), 수입·반입액 18,442,467원(화물량 224,266톤) 합계 74,393,371원(화물량 755,901톤²⁰⁶⁾)이다. 이를 1933년과 비교하면 수출·반출액은 18,355,986원(35%), 수입·반입액은 4,637,748원(25%) 증가하고, 합계 29,993,734원(31%)(화물량 144,447톤)이 급증했다.

수출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1934년에 일본 상품이 다른 나라들의 관세 인상 및 여러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진출했다는 점, 또 하나는 우방 만주국²⁰⁷⁾으로 우피, 가마니, 청주 등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하지만 10월 이후

206) 실제 화물량은 745,901톤으로 집계되지만, 여기에서는 원문을 따랐다.

207)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은 1932년 만주국 성립을 선언했고, 1934년 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만주국 황제로 옹립했다. 만주국은 일본, 조선, 만주, 몽골, 중국의 5족 협화를 통해 왕도낙토를 표방했다. 만주국 운영의 실질 권한은 관동군 사령관이 장악했고, 만주철도 주식회사, 닛산콘체른 등이 개발 사업을 독점했다. 1945년 8월 소련군의 참전으로 관동군이 해체되면서 무너졌다.

에 대체적으로 부진 상태에 빠져 1933년에 비해 7,700여 원이 감소했지만, 반출의 호황 증가는 이런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다. 또한 지역적 원인으로 1933년 3월 군산항이 준공되면서 항만 기능이 순조롭게 발휘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반출[移出]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출품의 중심격인 쌀은 산미증식계획 실시 이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었다. 근래에 일본, 조선의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쌀 가격이 붕괴되어 일본에서 조선 쌀 수입 제한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 통제법이 공포되어 조선이 영향을 받았지만, 군산은 1934년의 반출량이 220여 만 석(5천 만 원)을 돌파하여 개항 이래 신기록을 수립했다.

지금 1934년 미국 반출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니 연 초인 1~4월에는 햅쌀이 출하되어 번창하였고, 특히 4월에만 314,000여 석에 달해 이 해 최다 반출량을 나타냈다. 5월이 되고 이른바 여름 가뭄으로 인해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었다. 6~7월은 비수기의 절정으로, 6월에는 겨우 56,000석(14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8월 이후 일본 흉작을 예상하던 중에 관서지방에 유래 없는 태풍과 수해로 흉년이 확실시 되면서 매입 주문이 몰려들어 선박이 부족할 정도였다. 조선 쌀에 대한 편중으로 인해 재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개항 이후 최고의 반출량을 보였다.

더욱이 1934년에 반출이 상당히 활발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규석(珪石)은 군산부근에서 양질의 광물이 출토되고 있어 일본의 주문과 금액 역시 점점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한편 수입으로는 인도,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엽연초를 비롯해 만주국의 천일염, 콩깻묵, 유류, 조 등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또 반입에서는 면직물을 필두로 조선인에 대한 견직물, 삼베, 건축자재 등이 골고루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표 70> 1934년 군산항 수출·반출입 무역액 표(단위: 원)

구분		본년	전년	증감
수출·반출	수출	107,287	115,047	△ 7,760
	반출	55,843,617	37,479,871	18,363,746
	계	55,950,904	37,594,918	18,355,986
수입·반입	수입	1,227,268	836,494	390,774
	이입	17,215,768	12,968,225	4,247,543
	계	18,443,036	13,804,719	4,638,317
수출·반출입	수출입	1,334,555	951,541	383,014
	반출입	73,059,385	50,448,096	22,611,289
	계	74,393,940	51,399,637	22,994,303

△는 전년도보다 무역액이 감소한 것을 표시하였다.

<표 71> 1934년 중 군산항 수출·반출 중요품 표(단위: 원)

연번	품명	단위	수출·반출별	수량	가격
1	현미	석	반출	1,745,735	40,987,240
2	정미	석	반출	523,726	13,830,087
3	잡미	석	반출	8,781	150,700
4	기타 쌀	석	반출	5,832	49,722
5	콩	석	반출	15,143	189,781
6	소가죽	근	수출·반출	153,704	82,077
7	금광	백근	반출	60,971	111,950
8	가마니	매	수출·반출	189,489	25,052
9	목재	-	수출·반출	-	50,771
10	색료	백근	반출	150,253	88,574
11	기타 제품	-	수출·반출	-	384,970
12	합계	-	수출·반출	-	55,950,924 ⁽¹⁾

(1) 원문에는 가격 합계가 55,950,90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5,950,924로 집계된다.

<표 72> 1934년 중 군산항 수입·반입 무역액 표(단위: 원)

품명	단위	수입·반입별	수량	가격
천일염	백근	수입	307,969	299,737
콩깻묵	백근	수입	43,414	170,878
잎담배	근	수입	1,052,525	346,779
밀가루	근	반입	5,433,453	498,942
석탄	톤	수입·반입	21,813	278,866
밤	백근	수입·반입	1,086,508	125,243
설탕	근	반입	24,787	103,121
비누	근	반입	501,742	136,660
휘발유, 중유, 등유 및 경유	갤런	수입·반입	1,278,236	480,403
기계유	근	수입·반입	1,171,107	110,311
안전성냥	근	반입	-	173,313
실	평방야드	수입·반입	92,223	71,991
면직물	평방야드	반입	14,553,987	2,837,064
모직물	평방야드	반입	186,510	165,243
마직물	평방야드	수입·반입	267,791	108,240
견직물	평방야드	반입	3,563,732	989,967
모자	-	반입	-	120,946
양지(서양식 종이)	근	반입	1,217,663	330,741
시멘트	백근	반입	235,244	338,979
도자기	-	수입·반입	-	357,850
철사와 철근[鐵條及竿]	근	수입·반입	5,745,016	419,884
전광판	근	반입	2,972,877	433,178
철선	근	반입	569,355	65,559
구리선	근	반입	23,527	13,836

품명	단위	수입·반입별	수량	가격
절연전선	근	반입	123,293	61,779
못 종류	근	반입	1,314,701	142,621
기계류	-	반입	-	363,534
목재	-	반입	-	393,626
생 고무	근	반입	673,277	363,090
유안비료	백근	반입	160,026	1,123,194
과인산(過磷酸) 비료	백근	반입	147,655	287,596
기타 제품	-	수입·반입	-	6,729,865
합계	-	수입·반입	-	18,443,036 ⁽¹⁾

(1) 원문에는 가격 합계가 18,442,467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443,036으로 집계된다.

<표 73> 1934년 군산항 입항 무역 선박표

종별		외국무역선		일본무역선		합계	
		기선	범선	기선	범선	기선	범선
본년	척 수	37	3	804	94	841	97
	톤수	61,155	183	1,274,833	8,954	1,335,988	9,137
전년	척 수	46	8	812	45	858	53
	톤수	82,557	498	1,232,751	3,248	1,315,308	3,746
증감(△)	척 수	△ 9	△ 5	△ 8	49	△ 17	44
	톤수	△21,402	△ 315	42,082	5,706	20,680	5,391

△는 전년도보다 수가 감소한 것을 표시하였다.

<표 74> 군산항 수출·반출입품 통상국별 표(단위: 원)

국별	1934년		1933년		1932년	
	수출·반출	수입·반입	수출·반출	수입·반입	수출·반출	수입·반입
일본	37,479,871	12,998,225	33,816,262	10,523,590	30,462,550	8,489,189
중화민국	10,480	247,970	13,186	103,881	34,443	691,339
만주국	99,998	482,987	24,479	649,761		
네덜란드	4,140	-	-	-	-	-
홍콩	429	-	-	-	-	-
아르메니아	429	-	-	-	-	-
영국령 인도	-	-	-	29,040	-	32,834
영국령 해협 식민지 ²⁰⁸⁾	-	-	-	-	-	-
네덜란드령 인도 ²⁰⁹⁾	-	317	-	593	-	6,067
프랑스령 인도 ²¹⁰⁾	-	-	-	66,265	-	24
러시아령 아시아 ²¹¹⁾	-	10,885	-	20,441	-	-
필리핀 제도	-	54,012	-	37,508	-	28,405
영국	-	-	-	130	-	12
독일	-	1,354	-	-	-	-
스위스	-	-	-	703	-	869

국별	1934년		1933년		1932년	
	수출·반출	수입·반입	수출·반출	수입·반입	수출·반출	수입·반입
스웨덴	-	-	-	-	-	-
북미합중국	-	14,360	-	44,301	-	125,386
캐나다	-	-	-	-	-	-
이집트	-	-	-	-	-	-
기타(保工)	-	24,609	-	15,146	-	23,159
합계	37,595,347 ⁽¹⁾	13,834,719 ⁽²⁾	33,853,927 ⁽³⁾	11,491,359	30,496,993	9,397,284

비고: 무역액 중 수출·반출에서 군산은 미곡 수위를 집계하였다. 따라서 미곡만 무역통계를 정리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미곡을 설명하는 장에서 다룰 것임을 밝혀둔다.

(1) 원문에는 37,594,918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37,595,347원이다.

(2) 원문에는 13,804,719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13,834,719원이다.

(3) 원문에는 32,853,927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33,853,927원이다.

208) 말레이반도 남부 말라카해협에 있는 피낭, 말라카, 싱가포르, 그리고 그 부속 도서로, 1824년 런던 조약에 의해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획득한 식민지이다. 1826년 영국령 해협 식민지가 되었고, 1868년 지배권이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관된 이후 직할 식민지로 1948년 말레이시아 연방이 결성될 때까지 존속했다. 고무, 주석 등의 원료가 풍부한 지역으로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지역이었다.

209)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였다. 말레이제도, 보르네오섬, 자바섬 등이 포함되었다.

210)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 식민지를 의미한다. 코친차이나, 톤킹, 안남, 라오스, 캄보디아로 이루어졌다.

211)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소비에트 중앙아시아라고도 한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스탄, 투르크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고 있었다. 1918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의 지배를 받았다.

제23장 상업

□ 상세(商勢)의 범위와 반입경로

군산은 개항 후 십 수 년 동안 부산, 인천 및 목포의 상세에 그 자리를 위협받았지만, 이후 시대의 변천과 상인의 분투, 노력으로 점차 다른 지역의 추격을 뿌리쳤다. 특히 호남선 개통 이후 군산은 전남으로 침투하여 장성, 송정리를 상권 범위로 편입시키게 되었다. 다음으로 경남철도 전선 개통 후에는 충남 홍성으로, 그리고 경전북부선 개통 후에는 상권이 남원, 곡성, 그리고 대전까지 침투했다.

그런데 군산은 다른 개항지와 약간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통과 무역²¹²⁾이 적고 지역 상인들의 손에 의한 무역이 많다는 점이다. 부산, 인천, 진남포는 내륙지역 상인들의 거래와 관련되어 그냥 지나가는 화물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무역 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데에 비해, 군산은 배후에 대도시가 없고, 또 지세, 교통 관계상 그냥 지나가는 화물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조선 각지에서 군산으로 오는 화물 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 ① 호남선 철도 연선 각지에서 기차편으로 오는 경우
- ② 경부선 철도 연선 각지에서 기차편으로 오는 경우
- ③ 금강 유역 연안지방에서 배편으로 오는 경우
- ④ 동진강, 만경강 유역에서 배편으로 오는 경우
- ⑤ 충청남도 연안 지방에서 배편으로 오는 경우
- ⑥ 전라남북도 연안 지방에서 배편으로 오는 경우
- ⑦ 경남철도 연선 지방에서 기차편으로 오는 경우
- ⑧ 경전철도 북부선 연선 지방에서 기차편으로 오는 경우
- ⑨ 조선철도²¹³⁾ 충북선 연선 지방에서 기차편으로 오는 경우
- ⑩ 인접 부군에서 우마차편으로 오는 경우

위와 같이 열 개의 경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화물의 주요 내용물은 미곡이다.

212) 두 국가 간 무역상품이 다른 제3의 국가를 경유할 때, 제3국 입장에서 이를 통과무역이라고 한다. 중개무역과 다른 점은 제3국의 상인이 이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과무역은 수송경유지로서 제3국의 경우, 통과수수료, 하역업의 이익 등이 발생할 뿐이다.

213) 조선철도주식회사는 1923년에 조선중앙철도, 서선식산철도, 남조선철도, 조선산업철도, 조선산림철도, 양강척림철도 주식회사의 합동으로 설립된 사유철도회사이다. 1927년 총독부가 사철 매수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전남선, 경동선, 경남선, 경북선, 한북선, 황해선 등을 총독부에 매각했고, 1942년에는 경동철도를 매수했다.

다음으로 일본, 조선 및 외국에서 군산으로 반입·수입되는 화물과 수출·반출 화물의 개황을 정리한 것이다(수출·반출 화물 중 미국은 미국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생략한다).

○ 수출·반출 화물: 수출·반출 화물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콩 : 한 해에 15,150석, 가격 189,000여 원, 주로 오사카, 고베 방면으로 수출.

우피: 한 해에 156,800근, 가격 82,000여 원, 주로 도쿄, 고베 방면으로 수출.

청주: 한 해에 35,300여 되, 가격 21,000여 원, 주로 근접한 도 부근 연선 및 연안으로 반출.

과실 및 종자: 부근 연선으로 반출. 연간 반출량은 1,200근, 가격 400원.

그 외 목재는 한 해에 50,800원, 속겨(비료용) 68,600원의 반출이 있다.

○ 반입·수입 화물: 반입·수입 화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산 쌀 본 상품은 가격이 저렴하여 종래 영국령 인도, 프랑스령 인도, 중국, 태국 등에서 상당량(1930년에는 22만여 근, 157만여 원)을 수입했는데, 1931년 이후 조선산 쌀의 대풍년과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해 거래가 끊겨 입하가 없고, 재고가 있는 사람들은 처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조 종래 만주에서 상당량을 철도편으로 수입했지만, 작년부터 운임 관계상 다롄에서 배편으로 수입되고 있다. 작년 수량은 24,000여 근, 가격 103,000여 원을 달성했지만, 쌀 가격 폭락이 판매에 큰 영향을 초래했다.
- 천일염 본 상품은 저가를 장점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일반 수요가 높아 제염을 대신하여 작년에는 30,797,000근, 가격으로는 299,700여 원의 수입을 보였다.
- 엽연초 본 상품은 전부 전주전매지국의 권련초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최근 1년의 통계를 보면 영국령 인도에서 274,000근, 필리핀에서 778,600여 근을 수입했고, 가격은 346,780원에 달했다.
- 중국 삼베 군산-상해 간 항로의 배선(配船)은 겨우 한 척으로, 군산 입항은 3개월에 2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삼베처럼 계절용 상품은 거래하기 매우 불편하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본산 인조삼베에 밀려 부진한 상태이다. 작년 1년 수입량은 18,800야드로 가격은 8,170여 원이다.
- 석탄 평양 석탄 입하는 상당한 양이지만, 최근 일본산 석탄, 만주산 석탄의 수요가 많아져 작년 수량은 22,070여 톤, 가격은 282,046원이다.
- 콩깻묵 주로 중국, 만주에서 수입한다. 최근 1년 수입량은 4,341,000여 근, 가격 17,000여 원이다. 최근 농촌이 피폐해진 탓에 구매력이 눈에

- 밀가루 띄게 감소하고 있다.
- 설탕 작년 반입량은 543만여 근, 가격은 498,000원이다. 시모노세키, 모지, 고베 등에서 반입되었다.
- 청주 종래에는 과자, 청량음료수 제조, 가정용으로 수요가 있어 일본에서 상당량 반입되었으나, 최근 일정 정도 감소하고 있다. 작년 반입량은 1,065,600근, 가격은 125,243원이다.
- 면직물 청주는 일본에서 350여 석, 가격은 34,000여 원의 반입이 있었지만, 최근 조선에서도 양조되는 청주가 해마다 발달, 개량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
- 면직물 면직물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작년에 오사카, 고베, 시모노세키 등의 각지에서 입하되는 수량은 14,550,000 제곱야드이며, 가격은 989,000여 원에 달한다. 특히 인조견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가 많다.
- 양지(洋紙) 수요가 매우 많아 오사카, 고베, 모지, 도쿄 각지에서 1년간 1,217,000여 근, 가격 330,000여 원의 반입이 있었다.
- 시멘트 시모노세키, 모지 그 외 각지에서 1년 간 23,524,400근, 가격 338,800여 원의 반입이 있었다.
- 도자기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도쿄, 나가사키 등 각지에서 1년 간 357,800여 원의 반입이 있었다. 다만 작년에 불황으로 인해 고급품의 거래가 줄었지만, 하급품은 상당량의 물동량이 있었다.
- 철사 및 철근 오사카, 고베, 도쿄, 모지 등의 각지에서 1년간 5,741,000여 근, 419,8810여 원이 입하되었다. 다만 작년 불황으로 인해 수요가 줄었다.
- 레일 오사카, 모지에서 1년간 83,000근, 5,900원이 반입되었다. 지금까지는 경남철도회사 공사시설용으로 상당량 반입되었지만 작년에는 감소를 보였다.
- 철제전기도금판 (鐵電鍍板) 대부분 골판, 지붕, 벽이나 담장 용으로 오사카 방면에서 반입된다. 수량은 1년 간 2,973,000근, 가격은 433,000여 원에 달한다.
- 비료 군산 부근은 소위 전북 대평야라고 불리는 곳으로 쌀 생산지이기 때문에 비료 수요도 많다. 작년 반입량은 오사카, 고베, 도쿄, 시모노세키, 모지와 기타 지역에서 황산암모늄 비료 7,262,000여 근, 가격 471,000여 원, 석회질소 비료 19,900,000근, 가격 1,207,000원, 과인산비료 14,765,000여 근, 가격 287,600원, 기타 화학비료 18,827,000여 근, 가격 1,003,500원이다. 한편 근래에 화학비료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반출품으로서 미곡을 제외한 기타 화물은 상인의 손에 의해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군산 상권으로 수출·반출된다.

□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상공회의소는 1907년 5월, 군산 일본인 상업회의소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²¹⁴⁾ 9월에 처음으로 평의원 선거를 치루고 이소베 겐야(磯部謙哉)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당시 회의소 시설사업과 함께 시급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① 수미(水米) 검사, ②곡물 수입세 철폐 운동 ③ 호남선 철도 속성 운동 ④ 군산 항만 개선 요망 등이었다.

당시 금강 유역에서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곡은 대부분 습기가 많아 건조가 덜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해당 업자는 이를 수미라고 칭하고,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질 것을 걱정하여 개량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쌀을 검사했다. 그러나 통일하여 공적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이자 실행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판단하여 1909년 검사를 회의소 사업으로 이관하였다. 곡물 수입세 철폐 운동은 조선 쌀을 일본에 수입할 때 수입세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보호국 산업 진흥 상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보고 철폐를 기대했다.

호남선 철도 부설은 호남 지방 산업 개발을 도모하는 데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실현되기 바라는 것이다. 군산 항만 개선 요망은 개항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항만이 원시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기 때문에 군산의 장래 발전을 저해하므로 개선을 요망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해결되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회의소와 뜻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노고와 노력이 있었다. 당시 회의소 사무소는 군산거류민단 사무소에 인접하여 겨우 사무실, 응접실, 숙직실을 합쳐 20여 평이 채 되지 않아 규모가 협소하고, 사환을 합쳐 사무원이 3명 정도였다. 그 후 상공업 발전에 따라 회원 수가 증가하여 겨우 제 모습을 갖추었다.

1916년 6월 처음으로 회의소령(會議所令)이 공포됨에 따라 종래 군산일본인상업회의소가 해산되고 새로운 법령에 따라 공법인(公法人)의 자격으로 군산상업회의소로 개칭되었다. 또한 새 법령 공포 후 조선인 회원도 망라하여 사무를 개시하는 동시에 제1기 평의원 선거를 집행했다.

한편 한반도의 산업, 경제가 점차 발달하면서 상공업이 점점 눈부시게 발전하자 총독부는 시대 추세를 반영하여 회의소의 권한을 점차 확대하였다. 일본 회의소령을 따르고 조선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1930년 5월 제령(制令)으로 신회의소령(新會議所令)을 공포하

214) 군산상업회의소는 1905년 이후 군산 일본인 거류민 사이에서 일어났던 민단파와 반민단파의 갈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초기 군산의 상업회의소는 회두, 부회두, 평의원 등이 모두 군산을 대표했던 미곡상이었다. 이들은 군산거류민단, 농사조합 등과 함께 군산부에 자신들의 현안을 청원하는 일에 나섰다. 군산상업회의소는 1910년 이후 거류민단 해체 과정에서 함께 개편되었다. 1914년 민단이 해체되고 군산부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종래 민단세력 대신 새롭게 상공회의소 간부들이 군산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군산부협의회에 조선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일본 상업회의소 역시 조직을 개편하여 조선인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에 군산상업회의소는 명칭을 상공회의소로 개칭했다. 그러나 1920년까지 조선인이 군산상업회의소 상의원 이상 임원이 된 적은 없었다. 조선인 가운데 상공회의소 평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김홍두(金洪斗), 변정호(邊鼎鎬), 이원형(李源衡), 이만수(李晩秀), 최익(崔益) 등이었고, 신석우(申錫雨), 조중환(趙重煥) 등은 특별의원이었다(이준식,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동방학지』 131, 2005, 190~193쪽).

고, 같은 해 11월 25일부터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군산 유지들은 공회당(公會堂) 건설 필요성을 느끼고 그 경비를 일반 독지가들에게 기부 받아 1921년 8월 42,700여 원으로 명치정(明治町) 일각에 신축했다. 동시에 회의소도 이전(공회당은 회의소를 관리했다)했는데, 1930년 12월 말에 우연한 화재로 인해 잿더미가 되었다. 따라서 임시로 명치정의 핫토리(服部) 자동차 가게에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1934년 5월에 신축된 공회당으로 이전했다.

회의소의 주요 사업은 ① 상공업 개선, 발달에 필요한 안건 조사 발표 ② 상공업 상황 및 통계 작성 ③ 상공업자 위촉에 따른 조사 ④ 관청의 명에 따른 상공업에 관한 조사 ⑤ 상공업 분쟁 중재 ⑥ 상공업에 관한 관청의 문의 응답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상공업 회의소가 항상 그 사명에 따라 군산 상공업의 진보, 발전에 진력, 공헌하고 있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1934년도 예산 및 현 의원과 역대 회장(會頭), 부회장(副會頭), 서기장(1930년 11월 회의소령 실시 이후 서기장을 이사로 개칭)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1935년도 세입출 예산: 세입 16,039원, 세출 16,039원

주요 세입은 부과금 14,440원, 주요 세출은 급여비 6,115원, 소비(所費) 1,720원, 조사비 1,700원, 실업장려비(實業獎勵費) 1,000원 등이다. 경비 부과율은 회원이 납부하는 영업세액의 38%로 하고, 회의소 경비 부과 징수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였다.

• 회원성명

회 장: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부회장: 오제 슈지로(小瀬守次郎, 남조선전기 주식회사 대표)

상의원: 아오키 에이노스케(青木榮之助, 군산 해운 주식회사 대표), 우에다 가쓰(上田勝), 지카미 간이치(千頭貫一), 고소에가와 시카타로(小副川鹿太郎), 이만수(李晩秀)

의 원: 우에다 보쿠(上田朴, 협동해운주식회사 대표), 가지 다사부로(梶太三郎), 가케이 아사지로(景家淺次郎), 가모 다메하루(加茂爲治), 다나카 가메지로(田中龜次郎), 모리모토 하루요시(森本治良), 간바야시 마쓰요(神林松吉)

특별의원: 이토 미쓰사부로(伊藤光三郎), 모리 기쿠고로(森菊五郎),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

• 역대 회장, 부회장, 서기장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이소베 겐야, 모리 쓰네키치(森常吉), 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郎),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마쓰모토 이치고로(松本市五郎),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가지 다사부로, 하나오카 쓰루마쓰

부회장: 아베 에이타로(安部榮太郎), 이소베 겐야, 요코야마 요이치(横山與市), 기타가

와 준(北川醇), 구스다 요시타쓰(楠田義達), 아카마쓰 시게오, 히라하루 도미조(平春富藏), 모리타 시게오키(森田重興),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히가키 마고사부로(檜垣孫三郎), 와키타 하루쓰구(脇田春次), 오제 슈지로

1907년 5월 설립 이후 1916년 6월 회의소령 실시 사이의 경과는 기록은 관계로 정부 회장(正副會頭) 임기가 명확하지 않다.

• 임기

회장: 오사와 도주로, 제1기(1916년 6월 회의소령 실시부터 제1기로 한다)~제4기(1916년 6월~1924년 6월)

히구치 도라조, 제5기(1924년 6월~1925년 8월)

마쓰모토 이치고로, 제5기(1925년 8월~1926년 6월)

아카마쓰 시게오, 제6~7기(1926년 6월~1930년 9월)

가치 다사부로, 제8기(1930년 10월~1932년 8월)

하나오카 쓰루마쓰, 제9기(1932년 9월~1935년 8월)

부회장: 기타가와 준(제1기), 구스다 요시타쓰(제2기), 아카마쓰 시게오(제3기~4기), 히라하루 도미조(제5기), 모리타 시게오키(제5기), 우시오 마사이치(제6기), 히가키 마고사부로(제7기 및 제8기), 와키타 하루쓰구(제8기), 오제 슈지로(제9기)

서기장: 하라타 요시하치(原田良八), 다카스 다다시(高洲規), 다니가키 가이치(谷垣嘉市), 노무라 야스노스케(野邑安之助)

이사: 나카오 긴조(中尾謹三)

참고로 현재 회원은 444명이다.

이 외에 군산이수입상조합(群山輸入商組合), 미곡이출상조합 등 10여 개의 노동조합, 군산연안동업조합, 군산상공조합 등이 있다.

제24장 제조공업

'쌀의 군산'이 쌀을 생명력으로 하여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해왔기 때문에 군산의 제조공업은 종래 정미·조미업²¹⁵⁾이 성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세월이 변화하면서 부근 오지의 정미 조미업 발달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여 활기가 사라졌다. 이러한 가운데 재작년 11월, 진남포에 본점을 두고 인천, 부산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는 가토 정미소(加藤精米所)²¹⁶⁾가 군산을 조선 정미·조미업계의 거점으로 판단, 군산에 진출한 것은 약간이나마 부활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양조업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다.

지난 1년 간의 양조량은 10,600석(일본 술 2,350석, 나머지는 조선 술)이라고 한다. 기타 철공, 농구, 조선, 고무, 벽돌제조 등이 있지만 그 수가 적고, 설령 그 수가 많더라도 경쟁이 극심한 탓에 상호 발전하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규모를 갖춘 제대로 된 설비를 보기 쉽지 않다.

쌀의 군산이라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민들은 다른 제조공업의 발흥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산부는 도시진흥, 자력갱생 정신에 기초하여 1932년부터 가정공업(家庭工業)²¹⁷⁾ 장려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세계의 회복에 따라 반드시 다른 제조 공업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군산은 이미 예부터 공업지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이용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비관할 필요는 없다.

□ 부업과 가정공업²¹⁸⁾

부업과 가정공업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군산처럼 쌀 이외의 특산물이 부족한 도시에

215) 정미는 쌀의 겨를 깎아서 흰쌀을 만드는 것이고, 조미는 왕겨만 벗겨내서 현미를 만든 것이다.

216) 가토 정미소는 후쿠오카 출신 가토 헤이타로(加藤平太郎)가 1918년 진남포에서 설립한 합자회사이다. 자본금 30만원으로 곡물매매업, 정미업, 창고업, 곡물위탁판매업 등을 했다. 가토 정미소는 서울, 인천, 부산, 군산 등지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217) 가정공업은 가내수공업(家内手工業)을 의미한다. 1920년대부터 경제 불황이 계속되자 총독부는 가내수공업을 장려하여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했다. 이를 위해 1926년부터 상공회의소에서 가정공업조사를 실시했다.

218) 부업과 가정공업은 1920년 이후 경제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상품구매력이 떨어지자 가정 소득 증대 방안으로 총독부가 장려하기 시작했고, 물산장려운동에서도 함께 장려했다. 총독부는 기관지 『조선』을 통해 각 지방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을 소개하고, 부업공진회를 열어 가내수공업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등 부업장려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조선』과 함께 물산장려운동세력의 기관지였던 『산업계』는 소득증대를 위해 가마나 생산, 마포생산 등을 유망한 농촌부업으로 소개했다(김윤희, 「1920년대 초 민족경제와 통계지식-담론적 실천과 효과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80, 2016).

서는 특히 부업과 가정공업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산부에서는 1932년도에 모조 진주알 제조 강습을 시작하고, 나아가 1934년도에 직업장려관을 설치(직업장려관은 별도로 설명), 게다가 1932년부터 매해 부업과 가정공업 관련 조사비와 장려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참고로 군산부에서는 부업과 가정공업에 관련 조사 결과를 1933년 8월 인쇄하여 일반 부민에게 배포하였다.

〈표 76〉 제조공업 기관 일람

명칭	창립연월일	경영자 및 지배인
가토(加藤) 정미소	1933.11.20	지배인 다카하시 주이치(高瀬壽市)
하야시가네(林兼) 냉장차	1929.9.	지배인 아라타니 세이지(新谷清次)
조선정미 주식회사 지점	1919.7.	지배인 다카하라 다이조(高原仙太郎)
조선주조 주식회사 지점	1927.9.	지배인 오쿠라 구라요시(小倉倉好)
군산주조 주식회사	1920.10.	지배인 기요오카 고자부로(清岡光三郎)
고하라(香原) 주조장	1909.12.20.	경영자 고하라 스케타로(香原助太郎)
하나오카(花岡) 정미소	1918.10.	경영자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오사다(長田) 정미소	1924.10.	경영자 오사다 이소지(長田礪次)
아카마쓰(赤松) 간장 양조장	1908.6.	경영자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나카오(中尾) 간장 양조장	1927.2.	경영자 나카오 이치로(中尾一郎)
마사키(正木) 조선 철공소	1912.10.	경영자 마사키 쇼타로(正木庄太郎)
오사와(大澤) 조선소	1928.4.	경영자 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郎)
쓰게(津毛) 제재소	1932.4.	경영자 쓰게 하쿠로쿠(津毛百六)
우에노(上野) 주조장	1899.5.	경영자 우에노 겐시치(上野源七)
이와모토(岩本) 주조장	1899.10	경영자 이와모토 나카지(岩本仲二)
다케베(武部) 통조림 공장	1931.5.	경영자 다케베 시즈오(武部靜雄)
미토(水戸) 제염소	1923.3.	경영자 미토 소타로(水戸庄太郎)
가모(加茂) 비누 공장	1912.6.	경영자 가모 다메쓰구(加茂爲次)

제25장 수산업

전라북도는 지리적으로 조선 남부 서해안에 위치하였고, 해안선 연장 2,400리, 군산, 옥구, 김제, 부안, 고창의 1부 4군이 황해를 마주보고 있다. 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간조 시에는 해저가 노출되어 광대한 갯벌을 형성한다. 난류는 전라남도 제주도²¹⁹⁾의 서쪽을 지나 전라북도 연안을 북상해 남하하는 한류와 교차하기 때문에 어류의 서식이 많아서 실로 천혜의 어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란장으로도 유명하다. 근해에 산재하는 60여 개의 도서 중에 주요한 섬을 꼽자면 계화도(界火島), 비응도(飛鷹島), 내초도(內草島), 오식도(莫簍島), 고군산열도(古群山列島), 개야도(開也島), 죽도(竹島), 어청도(御靑島), 연도(煙島), 십이동파도(十二東波島), 유인도(有人島) 등이 있다.

예부터 군산 근해 어업은 청일전쟁 전후부터 일본인 어업인들에 의해 개발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출어자가 증가해 오늘날의 발달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성어기는 봄·가을의 두 계절인데, 그 중 봄에 어업이 가장 왕성하다.

3월 말 무렵부터 연안에서 꼴뚜기, 뱀어, 새우 등의 어획을 시작으로 6월 무렵까지 조기, 도미, 삼치, 가자미, 광어, 송어, 양태, 갑오징어 등이 잡힌다. 먼 바다의 어청도 근해에서는 고등어, 전갱이 등의 어획이 많다. 이 시기에는 다른 도와 일본 방면으로 오고 가는 출어선수가 100척에 이를 정도이다. 특히 죽도, 연도 부근이 가장 활발하다. 7~8월 무렵이 되면 어청도에서 정어리 어업이 한창이다.²²⁰⁾ 연안에서는 농어, 민어의 어획이 있다. 이어 삼치, 도미, 붕장어, 갯장어, 새우, 성대, 전갱이 등의 어획량은 봄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 무렵까지는 어청도 부근에서 고등어 어획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고, 겨울 농한기에 어업이 가장 적당하다.

러일전쟁 직전 사가(佐賀), 후쿠오카(福岡), 구마모토(熊本) 등에서 안강망(鰵鱈網) 어선,²²¹⁾ 연승(延繩) 어선²²²⁾으로 전라북도 밖에서 어업자들이 들어 왔고, 야마구치(山口), 히로시마(廣島), 가가와(香川)의 어선들도 점차 어획하였다. 이외에도 경기, 황해, 경남,

219) 전라남도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전라남도였다. 제주도(濟州道)로 분리된 것은 1946년 8월 1일이다.

220) 일제강점기 어청도는 군산지역 어업 근거지로 일본인들에 의해 주목을 받았고, 대중국 전진기지로 군사 거점화를 염두에 두고 축항공사도 진행되었다. 어청도는 1930년대까지 서해안 굴지의 어장과 항만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어장과 항만도는 다케베 시즈오(武部靜雄) 가족이 입도하여 사실상 섬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는 등대 설립, 학교 설립, 어업조합 설립 등에 관여하면서 어청도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이기복, 『1910~1930년대 어청도의 수산업과 다케베 시즈오(武部靜雄)』, 『역사민속학』 24, 2007).

221) 안강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류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여 잡는 방법으로 말뚝으로 어망을 고정하는 것에 비해 목망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222) 연승 어선은 1개의 줄에 다수의 줄을 달고 끝에 바늘을 붙인 형태의 줄을 다시 넓게 여러 가닥으로 묶어서 도르레를 이용하여 끌어올리는 어구이다. 이 어구를 갖춘 어선을 연승어선이라고 한다. 어업 자동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전남의 어민들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라북도 어민들도 이들에게 자극을 받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어로 방법은 안강망, 각종 주낙²²³⁾ 낚시[延繩釣], 미중선망(尾中船網)²²⁴⁾, 각종 자망(刺網)²²⁵⁾, 유망(流網)²²⁶⁾, 건수망(建手網), 어살[魚箭]²²⁷⁾, 저인망[小手繰網]²²⁸⁾, 각종 낚시대(一本釣) 등이다. 또한 전라북도 연안의 어획량은 1911년 무렵 겨우 12만 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15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더욱이 도내 통어자의 어획량은 외부의 어업자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손색이 있어 최근 1년간 어획량 150만여 원 중에 도내 어업자의 어획량은 60만 원이며, 통어자의 어획량은 86만 8천 원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어획물을 이용하는 수산제품은 어청도 멸치[煎子], 군산 어묵[蒲鉾], 방어포[白魚ほまれ干], 미어(味魚), 사쿠라보시[さくら干], 새우 강정[蝦あられ]²²⁹⁾, 장어, 방어, 꿀뚜기, 전복 등의 통조림류, 기타 해삼, 벗긴 새우, 말린 해라[晒海羅], 미역 등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중 새우, 방어 등은 냉동되어 멀리 일본으로도 반출되고 있다.

〈표 77〉 수산물 어획 상황

어명	어기	성어기	어장위치	어법	주된 배송지
조기	4월 중순~ 5월	4월 중순~ 5월	고창군 앞바다 고군산 근해 연도 서쪽 앞바다	안강망	전주, 광주, 김천, 대구, 대전, 영동, 남원
새우	4월 중순~7월 중순 5월 하순~9월 하순	4월 중순~ 7월 중순 5월 하순~ 9월 하순	고창군 연안, 줄포항 계화도, 오식도, 죽도 앞바다	새우 자망, 미중선, 영내 안강, 새우 통발	시모노세키, 한신 방면, 경성, 봉천
도미	5월~7월 6월~10월	5월~6월	죽도, 연도 근해, 직도, 십이동파도, 어청도 근해	기선 저인망 주낙 낚시, 일본낚시	위와 같음
삼치	5월 상순~5월 하순	5월 상순~ 5월 하순	죽도, 오식도, 앞바다	삼치 유망, 삼치 끌낚시	위와 같음

223) 주낙은 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 바늘을 달아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도구를 의미한다.

224) 미중선은 긴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안강망을 배 뒤쪽에 매달고 물고기를 잡는 배를 말하며 공동이 배라고도 한다.

225) 자망은 떼 지어가는 물고기의 길목에 쳐 놓아 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한다.

226) 유망은 물고기 통로를 가로 막아 고기가 그물에 끼거나 물리면 잡는 그물이나 그 방법의 고기잡이를 말한다.

227) 어살은 싸리·참대·장목 등을 강이나 바다에 날개 모양으로 둘러 꽃고 그 가운데 그물을 달아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하는 고기잡이 방법을 말한다.

228) 저인망[小手繰網]은 소형기선을 이용하는 저인망 어업으로 고테구리라고 불린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연안에서 자행한 어업으로 동력선 등장으로 어업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229) 새우 강정은 찹쌀을 건조시켜 가루로 빻은 후 새우를 넣어 반죽해 만든 일종의 쉐베이다(『빵의 백년사』, 함한희·오세미나, 2013, 흐름).

어명	어기	성어기	어장위치	어법	주된 배송지
민어	4월 중순~8월 하순	5월	고군산도, 십이동파도, 연도	안강망, 중선망, 주낙 낚시, 주목망	전주, 광주, 김천, 대구, 대전, 영동, 남원
가오리	12월 ~이듬 해 3월	11월~2월	어청도 앞바다	주낙 낚시	위와 같음
준치	6월 상순~6월 하순	6월 상순~6월 하순	금강강내, 강입구, 죽도 근해	준치 유망	위와 같음
문어	5월 중순~8월 6월 중순~10월	6월	고군산, 연도, 어청도 근해	안강망 갈치 주낙 낚시	위와 같음
고등어 전갱이	6월 상순~7월 중순	6월 상순~7월 중순	어청도 근해	고등어 유망	위와 같음
※큰상어	11월 상순~3월 12월 하순~4월	11월~12월	어청도 앞바다	주낙 낚시	위와 같음
대구	12월 중순~1월 이듬 해 4월~5월	1월~2월	어청도 앞바다	주낙 낚시	위와 같음
넙치	4월 중순~8월 중순 5월 하순~10월 중순	4월~5월	부안군 산내면 앞바다 고군산 근해 개야도 오식도 부근 어청도 근해	소수조망 어업	위와 같음
낙지	4월 상순~5월 중순	4월	연안 곳곳	문어 줄낚시	위와 같음
농어	5월 중순~8월 하순	7월	고군산, 십이동파도, 죽도, 오식도 부근	주낙 낚시	전주, 광주, 삼례, 이리, 남원, 김제, 대전
오징어	5월 중순~6월 상순	5월	고군산 연해, 줄포항, 고군산 죽도 근해	오징어 통발	위와 같음
뱅어	4월 상순~5월 하순	4월 중순	금강 강내	미중선	시모노세키, 한신 방면, 경성, 대전, 대구, 전주, 이리, 남원

<표 78> 어획량 (단위: 관(貫), 원)

연번	어획물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	고등어	4,266	2,133	7,114	3,557	11,380	5,690
2	정어리	1,150	173	2,066	223	3,216	396
3	대구	13,695	5,478	54,458	21,783	68,153	27,261
4	조기	118,308	35,492	352,668	105,800	470,976	141,292
5	삼치	86,236	103,483	93,882	112,658	180,119	216,141
6	도미	16,996	50,988	42,482	127,446	59,478	178,434
7	갈치	50,718	19,215	148,755	48,626	199,473	67,841
8	큰 상어*	21,135	10,568	51,988	25,995	73,123	36,563
9	청각채	4,380	1,752	10,930	4,372	15,310	6,124
10	가자미	33,705	20,223	74,725	44,835	108,430	65,058
11	전갱이	3,886	1,943	6,071	3,046	9,957	4,989
12	해삼	3,440	3,440	5,290	5,290	8,730	8,730
13	새우	10,065	13,085	69,739	90,661	79,804	103,746
14	미역	4,806	1,442	7,906	2,372	12,712	3,184
15	송어	5,304	3,182	10,079	6,044	15,383	9,226
16	넙치	13,168	7,901	69,028	35,417	82,196	43,318
17	민어	36,388	39,110	75,896	60,716	112,284	89,826
18	전복	2,350	4,230	4,460	8,028	6,810	12,258
19	갯장어	4,485	2,243	22,372	11,187	26,857	13,430
20	가오리	49,215	29,529	94,660	56,796	143,875	86,325
21	낙지	2,510	2,761	21,064	13,170	23,574	25,931
22	뱀장어	780	1,014	7,876	10,239	8,656	11,253
23	스도키	10,698	9,628	34,388	30,949	45,086	40,577
24	붕장어	3,376	2,026	9,151	5,491	12,527	7,517
25	게	5,337	1,067	10,867	2,173	16,204	3,240
26	서대	9,775	2,934	52,241	15,674	62,016	18,608
27	오징어	7,408	4,445	40,486	24,292	47,894	28,737
28	준치	46,831	23,416	101,318	56,660	148,149	80,076
29	달강어	12,645	5,058	47,893	19,157	60,538	24,215
30	불락	2,101	1,261	14,343	8,606	16,444	9,867
31	쇼키외[そきよ]	880	364	6,155	1,847	7,035	2,111
32	대합	-	-	3,560	1,780	3,560	1,780
33	번데기[蛹]	7,303	2,921	20,359	9,449	27,662	12,378
34	뱅어	4,936	2,962	34,340	20,604	39,276	23,566
35	학꽂치	377	264	1,037	726	1,414	990
36	가리맛	-	-	1,865	1,119	1,865	1,119
37	바위 김	3,150	945	1,100	3,300	14,150	4,245
38	긴맛조개	-	-	1,270	762	1,270	762
39	굴	-	-	8,846	5,308	8,846	5,308
40	잡어	39,490	19,730	82,850	41,050	122,340	60,780
41	총계	641,293	436,406 ⁽¹⁾	1,705,578 ⁽²⁾	1,047,208	2,356,771 ⁽³⁾	1,483,514 ⁽⁴⁾

*표시는 간사이 지방에서 큰 상어를 부르는 말을 의미한다.

(1) 원문에는 426,306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436,406이다.

(2) 원문에는 1,715,478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1,705,578이다.

(3) 원문에는 2,356,771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2,356,772이다.

(4) 원문에는 1,482,514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1,482,892이다.

<표 79> 수산업자 호구 수

국적별	호 구					인 구				
	어업	양식	제조	판매	계	어업	양식	제조	판매	계
일본인	64	-	10	-	74	254	-	40	-	294
조선인	797	1	40	48	886	3,835	6	227	303	4,371 ⁽¹⁾
계	861	1	50	48	960	4,089 ⁽²⁾	6	267	303	4,665 ⁽³⁾

(1) 원문에는 3,9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합계는 4,371이다.

(2) 원문에는 3,639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합계는 4,089이다.

(3) 원문에는 4,2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합계는 4,665이다.

□ 전라북도 수산회

전라북도 수산회는 1923년 4월 1일 인가를 받아 창설되었다. 그 시작은 1897년 부산을 근거지로 하여 설립된 조선해어업협회(朝鮮海漁業協會)로,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산에는 부산에 있던 조선해어협회 직원이 일본 어업선 출어 시기에 출장 와서 우등어선 장려 및 조난 구호 등의 사업에 진력했다. 이후 1899년 외무, 농상무의 두 장관의 훈령에 기초하여 각 부와 현의 조선해통어조합(朝鮮海通漁組合)과 조선해통어연합회(朝鮮海通漁聯合會)를 조직하였다.²³⁰⁾ 이후 1902년 외국령해수산조합법(外國領海水産組合法)을 공포하자 조선해통어조합은 조선수산조합으로 개칭하고, 본부는 부산에 두었고 4월에 군산에 출장소를 설치했다.

이어 1908년 4월에 군산지부로 승격한 뒤 1912년 10월 전라북도지부로 개칭하였다. 1923년 1월 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조선수산령(朝鮮水産令)에 기초하여 3월 전라북도 수산회를 신청하고 4월에 인가되었다. 사무소는 조선수산조합 전라북도지부로 칭하고 당시에는 본정통(本町通, 십팔은행[十八銀行] 맞은편)에 있었지만, 1929년 4월 현재 장소(수산학교 터)로 이전했다. 전라북도 수산회 기구는 어업자 및 어업권자, 수산물제조업자, 거래업자 및 보관업자 총대회의원(總代會議員)으로 조직된다.

주요 사업은 어촌 기본조사, 구호사업, 수산물 개량 보조, 무료급수, 공로자 표창 등이 있다. 회원은 1,400명, 어선은 1,340척이다. 현재 임원은 회장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 부회장 다케베 시즈오(武部靜雄)와 황연규(黃延奎), 이사 오타 마사유키(太田正之), 그 외 위원 3명, 평의원 3명이 있다.

□ 군산어업조합²³¹⁾

230) 1890년 일본은 일한통어규칙을 발표하여 일본인의 조선해 어업을 허용하였다. 이후 불법적인 조업이 증가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마찰이 빚어지자 일본정부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조선해통어조합을 통해 조선연안으로 조업을 허가받은 일본 어민을 부와 현 단위로 조직화했다. 이어 조선해통어연합회가 결성되었고, 일본어업의 통제와 관리뿐만 아니라 조선연안 어업을 침탈하는 데 앞장섰다. 일제강점기 수산조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주목되고 있다(최병택, 「대한제국시기~1920년대 일제의 수산조합 운영과 수산업 침탈」, 『역사와 담론』 51, 2008; 최재성, 「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08, 2012).

231) 군산어업조합은 위탁판매업을 주로 하였다. 군산항내 모선위탁판매소, 중합모선위탁판매소를 설치

군산어업조합은 수많은 변천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 시작은 옥구군 관내 개야도, 죽도를 지구로 하는 개야도어업조합과 오식도, 내초도, 비응도를 지구로 하는 오식도어업조합이 있고, 둘 다 1926년 8월 설립되었다. 이후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개야도어업조합은 조합원이 126명이고, 오식도어업조합은 조합원이 92명으로, 도합 218명에 지나지 않았다. 지구 역시 협소했기 때문에 업무가 느려 부진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1931년 12월 두 조합을 합병하여 미면어업조합(米面漁業組合)을 설립하고, 이어서 1933년 5월 군옥어업조합(群沃漁業組合)으로 개칭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어장 및 근거지가 지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발전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남쪽으로는 만경강 하구의 회현면(澮縣面) 월연리(月淵里)부터 북쪽으로는 개정면(開井面) 귀암리(龜巖里)까지 이르는 연안지구 전부와 군산부, 미면, 연도를 편입하여 조합원 364명이 속한 군산어업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1934년 1월 20일자로 인가를 얻었고, 2월 17일자로 지정조합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합은 합의제로 조직되어 특별의원 4명, 통상의원 12명이 두었다. 조합장은 사토(佐藤) 부윤, 이사는 가타야마 만시치(片山萬七)이다.

□ 군산어업조합 어시장 경영

1934년 1월에 설립한 군산어업조합은 5월, 전북 수산 주식회사가 경영하던 어시장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작년에 신설한 동빈어시장(東濱魚市場)²³²⁾에서 어업조합과 공동판매하기로 하고, 두 어시장의 명칭을 동빈 어획물 공동위탁판매소, 서빈(西濱) 어획물 공동위탁판매소²³³⁾라고 했다. 그 때문에 군산어업조합은 지금까지의 사명에 신기원을 그었고, 근해 어획물을 모두 인수, 집산하는 전면적인 활동을 시도하기로 했다. 또한 도지사가 종래 결원이었던 조합장으로 6월 6일자로 사토 부윤을 임명했다. 참고로 두 어시장의 1년 매상은 40만 원, 먼 바다 거래는 20만 원이었다.

했고, 그 밖에 연도방파제 수축, 어선항로 표등 설치, 공업장려금대부사업 등을 했다.

232) 동빈어시장은 매일 영업을 하는 상설시장으로 전라북도 군산부 명치정에 있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군산부 서빈정 소재의 군산어시장에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233) 서빈어시장 또는 군산어시장이라고 한다. 공설 3호 시장으로 전라북도 군산부 서빈정에 있었다. 1926년에는 매일 2번 시장을 열었다.

제26장 금융 경제

군산의 상거래는 쌀 중심이기에 미곡의 풍흉, 가격의 고저에 따라 시황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고, 금융계 분위기도 좌우된다. 근래 쌀 가격이 폭락하고 정기 시장의 매매가 적어 오지의 구매력이 감퇴하였다. 때문에 시황이 침체되고 금융계도 부진하며 심지어 일본에서는 수해와 한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작년 가을 무렵부터 조선, 특히 전라북도 지방이 풍작을 보이고, 동시에 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농가의 구매력이 증진되었고, 한편으로는 자력갱생의 효과에 의해 호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 1934년의 금융경제 개황

1934년의 금융경제 상황은 미증유의 저금리와 미곡의 대량 매상 조절 등에 의해 모든 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출곡기가 되자 미곡이 폭등하고, 전라북도도 다른 도에 비해 풍작을 거둬 구매력이 증가하고 반출입 역시 자금의 수요를 환기하여 활황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1934년의 개황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술하도록 하겠다.

• 상반기

1934년 1월부터 6월까지 즉 상반기 금융 경제 개황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 경기에 기대를 걸어 일반 재계의 호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미증유의 저금리 시대가 출현하였다. 이에 더해 미곡의 대량 매상 조절에 따라 반출미가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자 장기 저장미를 더욱 시장에 내놓지 않고 창고 깊숙이 저장해두게 되었다. 그러자 이중 삼중으로 상거래가 억제되어 미곡 금융의 움직임이 둔하게 하는 동시에 호경기가 되어 봄 쌀이 일찍 매진되고 말았다.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여름 기근으로 앞당겨 쓴 쌀이 동나 기근 상태가 되고 말았다. 초기의 좋았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급속하게 자금이 환원되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상반기 말엽에는 당국의 걱정이 깊어져 모든 거래가 어이없을 정도로 부진에 빠졌다. 지방의 상업 현황을 반출입[移出入] 무역별로 나누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반출무역

반출무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쌀은 연초에는 분위기가 좋지 못해, 19원 95전 전후로 부진했다. 주문이 끊겨 반출부진에 빠졌다. 그러나 1월 제2회 매상에 이어 제3회 매상으로 모입(募入)²³⁴⁾ 결정량 63만 8,000가마가 되었다. 전 조선 제일의 성적에 자극을 받아

234) 모입(募入): '할당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일'을 뜻하는 경제용어이다.

물동량이 갑자기 빈번해져 활황을 이루었다. 이에 더해 하순이 되자 20원 25전으로 뛰고, 시세가 강한 분위기에 힘입어 반출이 점점 증가하였다. 2월이 되자 한층 반출이 왕성해졌고, 구정(舊正)과 환금매물 쇄도가 맞물려 창고와 선박 모두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4월 상순 제4차 조선쌀 매상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감퇴를 보이던 거래도 점차 부활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 모두 재고 부족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농후해지자 시세는 1월 내지 1원 50전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산지 가격으로는 별이가 없어 5월 상순에 22원 90전이던 가격이 중순에 23원 5전으로 올랐다. 단 여전히 재고 부족으로 매물이 없어 정미소 관계자는 원료부족을 호소하여 일체 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6월에는 쌀 가격이 상승일로를 걸어 식량으로 쓸 쌀마저 기근 상태를 보여 결국 하순에 장기 저장했던 나락(籾) 일부를 해제하기로 발표하기에 이르렀지만,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어 한산하게 지나갔다.

- 반입무역

반입무역의 중심이 되는 면사포류는 계절이 바뀌고 새해가 밝자 도매상들이 지난 겨울에 매입했던 상품들의 시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하고, 판매 부진으로 화물이 적체되자 상당히 곤혹을 겪었다. 그러나 구정이 가까워지자 지방의 판매가 활발해지고 점차 난관을 돌파하여 구정 후에는 수요가 회복되어 상점들이 안정을 되찾았다. 이어 3월 중순 봄 물건인 인견 종류가 팔리기 시작해 상인들도 점차 다시 주목하였지만, 시세가 시종일관 평범하게 유지되었다. 4월에는 재고가 줄어들어 시세가 위축되고, 그 중에도 인견 종류는 상당히 활발하게 판매되었다. 이어 5월이 되고, 마, 크레이프 천 등의 여름 상품, 즉 계절상품의 물동량이 상당히 늘었지만, 6월이 되자 점차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판매 감소를 고하였다.

• 하반기

하반기에 들어서자 드물게 장마와 호우가 계속되어 조선 각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흉작 분위기에 더해 일본 긴키(近畿) 지방의 홍수 피해, 일본·네덜란드 상회의 갈등, 군축회의 정체, 임시 의회 해산 예상 등의 영향을 받아 재계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침체되었다. 그러나 쌀 가격 급등으로 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풍작이었고, 농촌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기에 구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나 면사포와 잡화류, 비료, 농구 등의 판매도 확연히 증가했다. 반출, 반입 모두 상당한 자금 수요를 환기시켜 금융계는 전체적으로 바쁘게 돌아갔다. 위 내용을 반출입무역, 수표 교환, 금은출납 상황 등에 대하여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반출무역

반출무역의 중심이 되는 쌀은 7월 초순, 장기 나락의 해제와 증세 분위기의 여파로 일시 하락하여, 히시쿠(菱ク) 3등이 23원 90전을 나타냈다. 이어 재고 부족, 호우 내습으로

시세가 급등하여 같은 달 하순에는 24원 60전이 되었다. 달이 지나 8월이 되자 전국적인 흉작 분위기로 25원 20전이 되었다. 이어 중순에는 정부의 대량 불하미에 의해 시세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9월이 되자 일본의 주문량이 왕성해지고, 특히 백미 주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긴키 지방에서 발생한 풍수해로 인해 구매 인기가 높아져 정기미(正期米)²³⁵⁾ 마저도 일제히 소진되었고, 실수로 주문이 쇄도해 10월이 되자 28원 40전으로 급등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새 곡물이 서둘러 도착해 한 때 선박이 부족할 정도로 왕성했다. 마침내 반출액은 200만 석을 돌파하여 개항 이래 신기록을 세웠다.

- 반입무역

반입무역의 중심이 되는 면사포 종류는 7월 중순과 하순에 들이닥친 유래 없는 장마와 호우로 인해 대목을 앞두고 판매가 끊겼다. 달을 넘겨 8월이 되어도 여전히 기후가 회복되지 않아 업자들은 모두 예상외의 전개에 당황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하순 무렵부터 추석이 다가오고 추동 상품이 들어올 시기가 되자 수요가 점차 늘어나 시세가 호조를 보였다. 9월이 되자 판매가 활기를 띄고 침체 분위기가 사라졌다. 이어 추석 이후 판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10월 출곡기 이후에는 나락 판매에 따른 농가의 구매력이 늘어 활황을 보였다. 더욱이 곡물용 가마니 등은 전년 대비 각지에서 재고가 줄어 시세가 강세를 보였다. 수해로 가마니와 가마니 원재료인 짚이 훼손되어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미국의 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해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기타 비료, 설탕, 밀가루 등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판매를 보였다.

• 금융기관

군산부 내의 금융기관은 조선은행 지점, 조선식산은행 지점, 조선상업은행 지점, 십팔은행(十八銀行) 지점, 동일은행(東一銀行) 지점, 조선신탁주식회사 지점, 군산금융조합, 군산동부금융조합, 옥구금융조합,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朝鮮無盡金融株式會社) 등이 있다. 다음 표에 1934년 각 금융기관의 예금 수입액, 대부액, 외환거래액, 금은출납, 수표교환액을 든다.

235) 정기미(正期米)는 정기미(定期米)의 오기이다. 정기미(定期米)는 기미 또는 미두라고 하는데 거래소 정기거래의 목적물을 의미한다. 거래소 정기매매는 미래의 일정한 기일에 현물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증서는 청산일 이전에 전매, 환매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거래소의 정기거래이고, 정기거래에서 계약된 물품(거래 거래목적물)을 정기미, 기미, 미두라고 불렀다. 현물 인도 기일에 넘겨야하기 때문에 청산일을 대비하여 정기미는 일정량 비축되어야 했는데 이것이 다 팔렸다는 것은 쌀값의 등귀와 거래가 급격히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236) 조선은행: 1909년 대한제국정부가 설립한 한국은행의 행명이 1911년에 개칭된 것이다. 조선은행은

〈표 84〉 예금 수입액 및 대부액 (1934년 중, 단위: 원)

명칭	저금 수입액	대출액
조선은행지점 ²³⁶⁾	119,847,329	81,421,172
조선식산은행지점 ²³⁷⁾	46,916,298	62,428,211
조선상업은행지점 ²³⁸⁾	14,662,725	24,795,194
십팔은행지점 ²³⁹⁾	8,021,612	46,499,816
동일은행지점 ²⁴⁰⁾	5,733,748	7,095,680
조선신탁주식회사지점 ²⁴¹⁾	4,640,649	(고유) 258,186 (신탁) 2,504,279
군산금융조합 ²⁴²⁾	2,024,208 (회수) 557,298	530,911 (지불) 1,954,952
옥구금융조합	776,679 (회수) 152,250	349,250 (지불) 488,624
군산동부금융조합	1,371,505 (회수) 528,356	512,150 (지불) 1,333,431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 ²⁴³⁾	(계약액) 301,000	101,447

- 일본제국의회에서 조선은행법안이 제정된 일본의 특수은행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통화였던 조선은행권을 발행하는 특권을 누렸고,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중국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설치했다. 일본의 패망으로 조선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으로 개칭되었고, 한국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
- 237) 조선식산은행: 1918년 기존의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다. 전국에 60개 소의 지점망을 갖추고 중요 산업분야에 자금을 대출했다. 조선은행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만주에 진출하면서 국내 자금수요에 부응할 새로운 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총독부가 총독부의 제령으로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했다.
- 238) 조선상업은행: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의 행명이 개칭된 것이다. 1899년 고종의 내락을 받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은 조세금 수송업무를 일시적으로 담당하기도 했지만, 인천과 개성에 지점을 개설하여 상업금융업무를 주로했다. 황실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제강점 이후인 1911년 상업은행으로 개칭되었고, 해방 이후 한국상업은행으로 개칭되었다. 1999년 한일은행과 합병하여 한빛 은행으로 통합되었고, 2002년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었다.
- 239) 나가사키에 본점을 두고 있었던 18은행의 군산지점은 1907년에 개설되었다. 현재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다. 제18(다이슈하치)은행은 1870년에 설립되었고, 1877년 국민은행원서를 제출하여 국립은행으로 설립되었다. 1890년 인천에 지점을 개설하여 인천항 일본상인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1897년 일본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립보통은행으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 240) 동일은행: 1906년에 설립된 한일은행과 1913년 충청남도에서 설립된 호서은행이 1931년에 병합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동일은행군산지점은 1922년에 설립된 한일은행 군산지점이 변경된 것이다.
- 241) 조선신탁주식회사: 1932년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이 각각 자본금의 30% 정도를 출자하고, 동일은행, 호남은행, 그 외 조선인과 일본인 기업가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신탁회사다. 영업은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유가증권 신탁 등이었다. 1934년에는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 공제신탁주식회사, 남조선신탁주식회사, 군산미곡주식회사 등을 흡수 통합하였다. 군산, 부산, 목포, 평양, 대구, 함흥 등에 지점을 개설하였고, 1943년까지 총 8개의 지점을 개설했다.
- 242) 금융조합은 1907년에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이다. 지방금융조합규칙과 지방금융조합설립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고 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었다. 1910년에는 130개의 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었다. 금융조합은 영농자금의 대부, 농산물 위탁판매, 종자나 비료 등의 구매와 분배 업무를 맡았다. 외형적으로는 신용조합을 표방했지만, 일본의 경제지배를 위해 총독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했다. 화폐정리사업, 농사지도 장려사업 등 총독부의 지방정책을 추진하는 말단기관으로 기능했다.
- 243)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 1924년 자본금 25만원으로 설립된 서민금융회사이다. 무진(無盡)이란 것은 지급할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은 계좌를 판매하고, 계좌를 구입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면 추첨이나 입찰 등을 통해 계좌를 구입한 사람 중 당첨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융방식을 의미한다. 일종의 계좌 유사하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 일본 무진업법에 기초하여 조선무진업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본액 규정이 없어서 부실한 무진회사가 설립되는 폐단이 생기자 1931년 무진업령을 개정하여 자본규정을 마련하였다. 무진회사는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다가 1961년 국민은행법이 공포되면서 국민은행으로 흡수병합되었다.

<표 85> 환수입액 및 지불액(1934년 중)

명칭	환 수입액	환 지불액
조선은행지점	28,333,654	32,477,763
조선식산은행지점	26,411,625	32,494,091
조선상업은행지점	5,493,721	6,511,017
십팔은행지점	2,236,302	1,079,055
동일은행지점	15,218,743	14,159,632

<표 86> 금은출납(1934년 중)

명칭	총 수입액	총 지불액
조선은행지점	41,906,962	48,530,178
조선식산은행지점	212,086,456	212,103,521
조선상업은행지점	74,856,956	74,849,554
십팔은행지점	94,407,257	94,356,235
동일은행지점	42,262,153	42,239,527
조선신탁주식회사지점	(고유) 2,375,404 (신탁) 13,816,786	(고유) 2,376,415 (신탁) 13,818,032
군산금융조합	5,476,529	5,472,747
옥구금융조합	1,867,944	1,867,720
군산동부금융조합	5,977,685	5,977,685

• 수표 교환액

군산조합은행의 1934년 수표교환액은 8만 2,287매, 5,584만 2,61원으로 전년 대비 7,590매, 1,433만 733원이 급증했다. 또한 부도수표는 74매, 1만 5,263원으로 전년 대비 46매, 1,595원 감소했다.

<표 87> 금융기관 설립연월과 자본금 및 대표자

명칭	설립연월	자본금	대표자
조선은행지점	1909년 11월	40,000,000	지배인 스즈키 주노조(鈴木忠之丞) 차 석 이구치 다치히라(井口立平)
조선식산은행지점	1919년 9월	30,000,000	지배인 시오카와 스미요시(塩川濟吉) 차 석 우치마키 쓰토무(内牧 務)
십팔은행지점	1907년 4월	15,000,000	지배인 마다 스에(馬田 季) 차 석 호리이 후미오(堀井文夫)
조선상업은행지점	1917년 5월	8,925,000	지배인 이종국(李鍾國) 차 석 스기오카 도모오(杉岡具雄)
동일은행지점	1922년 11월	4,000,000	지배인 박종섭(朴鍾燮) 차 석 김용철(金容喆)

명칭	설립연월	자본금	대표자
조선신탁주식회사지점	1933년 10월	10,000,000	지배인 아사노 게이지(淺野敬二) 차 석 가와바타 도시오(川畑俊雄)
군산금융조합	1919년 1월	48,000	지배인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이 사 다나카 히데카즈(田中英一)
군산동부금융조합	1930년 1월	40,250	지배인 이토 미쓰사부로(伊藤光三郎) 이 사 안도 준이지(安東惇一)
옥구금융조합	1909년 5월	37,413	지배인 문종철(文宗澈) 이 사 구리하시 야스노리(栗橋保徳)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	1924년 1월	250,000	사 장 간바야시 마쓰요(神林松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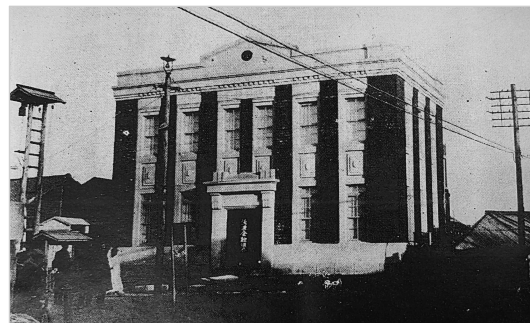
[군산조선은행]



[군산금융조합]



[18은행 군산지점]



[옥구금융조합]

제27장 위생과 의료기관

군산부의 위생시설은 시가지 발전에 따라 순조롭게 시행·개선되어 거의 완비 수준에 다다랐다. 특히 상하수도의 완비로 전염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시설의 개요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상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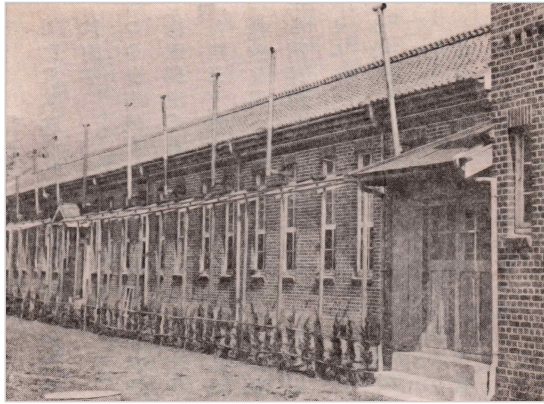
군산의 상수도는 1913년 거류민단 시대의 계획에 따라 공비 30만 원으로 기공하여 1915년 5월에 준공하였다. 당시에는 급수 인구 1만 명(1일 1인당 55리터=약 3되)을 예상하였지만, 이후 인구 증가에 의해 급수능력이 부족해지자 응급책으로 전년도에 부비(府費)로 수원지 제방의 둑 돌기 공사를 실시하고 양수펌프를 신설하여 겨우 급수능력을 보충해 왔다. 그 후에도 급수 수요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1928년도에 부비 7만원을 투입해 보충 공사(송수관 시설 교체)를 단행하고, 나아가 급수 인구 3만 명을 기초로 하여 1929년도부터 4개년 계속 사업에 33만 원을 투입하고, 저수지 둑돌이, 여과지(濾過池), 배수지(配水池)의 신설, 배수관 확장을 계획하고 1932년도에 준공하였다. 최근의 급수 인구는 17,000명이다. 급수능력은 급수 인구 3만 명까지 문제없고, 현재의 보급률을 고려할 때 총인구 10만 명까지도 지장이 없다.

□ 하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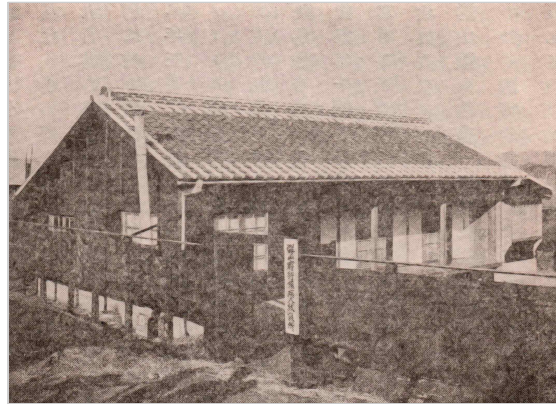
하수도 및 도로 개수 공사는 이전 각국 거류지회에서 일부를 시공하고, 민단 시대에 보강 및 연장 공사를 했다. 그 후 부(府)로 바뀌자 1923년부터 1926년에 걸쳐 제1기 4개년 계속 사업으로 공비 296,000원을 투입하였고, 1927년부터 1932년까지 제2기 6개년 계속사업으로 공비 422,000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성하였다. 그 후로도 매해 예산을 계상하여 보강,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군산에서 전염병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이 때문이다.

□ 부립회생원(府立回生院, 격리 병동)

본래 오룡정(五龍町)에 있었지만, 위치가 불편하고 설비가 미비했기에 1932년도에 11,500원을 들여 도립군산의원 구내에 벽돌로 지은 127평 정도의 단독 건물을 병동으로 건설했다. 병실은 12실이고 환자 24명을 수용할 수 있다. 경영은 도립군산의원에 위탁했다.



군산부립 회생원



군산부 행려병인구호소

□ 행려병인 구호소

1933년도에 1,741원을 들여 부외(府外) 둔율리(屯栗里)에 신축했다. 병사는 19평 크기의 목조 건물이며 수용인원은 10명이다.

□ 오물 저류(貯留)

풍남정(豊南町) 및 부외 둔율리 두 곳에 있다. 둔율리 쪽은 1932년도에 4,800원을 들여 설치했다.

□ 오물 청소

분뇨 및 쓰레기 청소는 1933년도부터 경비 13,000원을 들여 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매일 평균 우마 3마리와 인부 35명이 동원된다. 그 외에도 청소감독 5명을 두었다.

다음으로 군산부 내외의 공사립병원을 소개한다.

□ 도립군산의원



[군산자혜의원]



[도립군산의원]

1921년 10월 총독부 제령으로 군산자혜의원 설치 건이 공포되었다. 이보다 먼저 동년

5월 부내 금정(錦町)에 부지를 마련하여 건축에 착수해, 이듬해 5월 준공하고 8월에 개원했다. 부지는 4,818평, 건물은 5개 동으로, 본관, 전염병실 1동, 간호사 기숙사, 소독실, 안치실, 해부실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숙소 3개 동이 있다. 이후 업무가 늘어나자 1929년 병실 1개 동, 1930년 의무실, 수술실 각 1개 동, 기숙사 1개 동, 매점 1개 동을 증축했다. 1925년 4월 조선도립의원관제(朝鮮道立醫院官制)가 공포되고, 전라북도립병원으로 개칭 후 도(道)로 이관되었다. 최초 개원 때에는 내과, 소아과의 두 진료과만 있었으나 지금은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의 8개 과가 있다. 1934년에 입원 및 통원 환자는 65,000명, 치료환자 14,400명은 경성을 제외하고, 평양, 대구 다음가는 수치이다.

직원은 의관 6명, 의원 4명, 약제사 1명, 서기 2명, 간호사 25명, 고용인 6명, 원장 아리마 조지로(有馬長次郎)이며, 각과 분담은 다음과 같다.

외과장(피부과장 겸무): 아리마 조지로

내과장: 의학박사 오카다 다카미치(岡田高廸)²⁴⁴⁾

소아과장: 다카마쓰 후시하루(高松節治)

이비인후과장: 아라키 다이키치(荒木泰吉)

산부인과장: 의학박사 우다 준조(宇多潤造)

안과장: 아쓰미 료사쿠(渥美良作)

치과장: 기타가와 오사무(北川修)

시료부장(施療部長): 노윤모(蘆潤模)

주임서기: 세키 료이치(關亮一)

<표 88> 군산부내 개업 치과의원

명칭	원장	주소
오와다(大和田)치과의원	오와다 스케지로(大和田助次郎)	명치정 2정목
와타나베(渡邊)치과의원	와타나베 모리(渡邊盛)	명치정 2정목
구라하시(倉橋)치과의원	구라하시 미타로(倉橋彌太郎)	횡전정
오카무라(岡村)치과의원	오카무라 스에마쓰(岡村未松)	서정
사은당(四恩堂)치과의원	황하훈(黃河雲)	소화통 1정목
가와카미(河上)치과의원	가와카미 주(河上壽)	명치정 1정목
이다(飯田)치과의원	이다 유타카(飯田豊)	횡전정
전천당(全天堂)치과의원	아카자와 데이조(赤澤定三)	대화정
마사쿠니(正國)치과의원	마사쿠니 고로쿠(正國吾六)	대화정
고노(小野)치과의원	고노 에이히데(小野榮秀)	천대전정 2정목

244) 오카다 다카미치(岡田高廸)는 1890년 생으로 규슈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33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사립군산병원에서 근무했다가 강원도 춘천 자혜의원으로 옮겼다가 돌아와 독립군산의원에서 근무했다.

<표 89> 군산부내 병원

명칭	원장	주소
야소병원	경영자 W. 폴 원장 플리츠 브랜드	개정면 구암리
군산병원	원주 도쓰카 소타로(戸塚總太郎) 원장 이토 에이타로(伊藤榮太郎)	명치정 1정목
중도의원	원장 나카지마 아키라(中島明)	명치정 1정목
곡본의원	원장 하세 모토스케(長谷本佐)	황전정
지전의원	원장 나가이케 다에오(長池田榮夫)	명치정 1정목
고교의원	원장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也)	소화통 1정목
검전의원	원장 가마타 호우(鎌田方)	신정
안동의원	원장 권태형(權泰亨)	강호정
세창의원	원장 강세형(姜世馨)	소화통 2정목
동화의원	원장 이도준(李道俊)	동영정
단야안과의원	원장 단노 고타로(檀野光太郎)	원정
장강의원	원장 오가 미쓰에(岡美津枝)	천대전정 1정목

제28장 관공서

□ 옥구군청

신라 시대 임피군(臨陂郡)에 속한 옥구는 고려를 거쳐 조선 태종왕 때에는 종래의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바꾸어 현감으로 하고, 그 후에 군이 되었다. 군산 개항과 동시에 감리서(監理署)를 두었지만, 이후 다시 옥구부(沃溝府)라고 칭하였다. 이후 1910년 10월 총독부가 개설되자 부청을 군산에 두고 군산부라고 개칭하였다.

1914년 3월 부군(府郡) 폐합 시 본래 군산부에 속해 있던 8개 면과 본래 임피군에 속해 있던 13개 면, 전라남도 지도군(智島郡)에 속해 있던 고군산열도, 본래 충청남도 서천군²⁴⁵⁾에 속해 있던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를 합쳐 21개면 328개 리(里)로 옥구군을 신설했다. 1916년 2월 동리폐합 결과 10개 면(옥구면, 미면, 옥산면, 회현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聖山面), 나포면(羅浦面), 서수면(瑞穗面), 임피면), 93개 리가 되었다. 그 후 1932년 10월 군산부성 확장에 따라 미면의 일부와 개정면 일부를 군산부에 할양하였다. 청사는 한동안 군산공립농업학교 터를 이용했지만, 1926년 3월 예전 자리에 신축했다. 군수는 주시헌(朱時憲), 내무계주임 다케가미 노리오(武上憲雄), 서무계주임 강인원(姜仁遠)이다.

□ 군산경찰서

1899년 5월 1일 개항하자 일본제국 정부는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을 설치하고, 동시에 영사경찰을 개설했다. 1906년 개설된 이사청 소관이 되었는데, 그 후 1910년 6월 한국정부에게서 경찰권을 위임 받아 같은 해 8월 병합하여 현재의 제도가 되었다²⁴⁶⁾. 당초 청사는 전주통(全州通, 우체국 맞은편)에 있던 조그만 조선 가옥을 사용했 지만, 1909년 10월 명치정 58번지(현재 장소)로 신축 이전했다. 그 후 시가의 발전에 따라 사무가 복잡해 지고 청사가 협소해져 1922년 4월에 신축하였다. 나아가 1927년 8월 부내 유지의 기부를 받아 연무장을 신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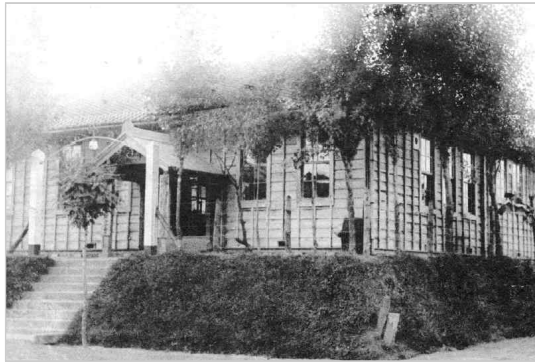
경찰서의 관할 구역은 군산부는 물론 옥구군 전 지역에 걸쳐있으며 넓이가 동서로 70리 3정(町)²⁴⁷⁾, 남북 40리 7정, 면적 250, 190 방리(方里)²⁴⁸⁾, 1부 10개 면을 포함한다.

245) 원문에는 첩천군(鰲川郡)으로 되어 있으나 서천군의 오키이다.

246) 1910년 6월 대한제국 정부의 경찰권이 통감부로 이관된 것은 24일 체결된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해서이다. 이 각서는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박제순 총리대신서리 사이에 체결되었다.

247) 정(町)은 60간(間)에 해당하는 거리의 단위로 곡척(曲尺)으로는 360척(尺)이며 약 109.1m이다.

248) 방리(方里)는 사방 1리(里)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일본 1리는 한국 10리이므로 원문 일본 25.19방



[군산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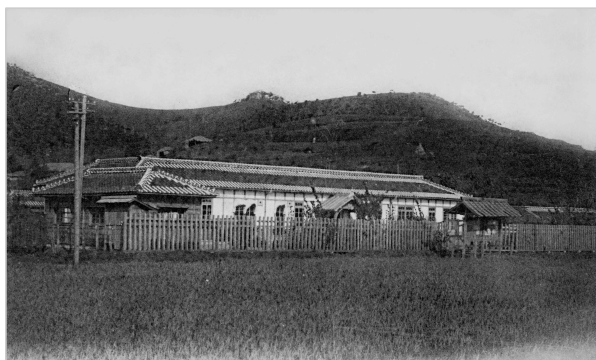
주재소는 미면, 불이농촌, 옥구면, 대야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나포면, 개정면, 어청도에 10개소를 두고, 부내에 경정(京町), 영정(榮町), 역전, 수상(水上)의 4개 파출소를 두고 그 외에 임피역, 정미공장, 부영조선인시장(府營朝鮮人市場)에 출장소를 설치했다.

또한 시가 및 관내 발전과 사무의 급증에 따라 청사가 협소해지자 1934년 9월 신축을 계획하고 11월에 착공, 이듬해 1935년 4월에 준공, 5월 4일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공사비는 전기장치, 수도설비비 등을 합해 약 4만 원(기부금 약 3만 원)이었다. 총 평수 605평, 건평 1층(지하실) 90평, 2층 90평, 3층 67평, 연면적 256평의 벽돌식 건물로 지하실을 합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간부는 다음과 같다.

서장 히가시 주베이(東仲兵衛), 경무계 주임 고바 가이치(木庭嘉一, 경부), 위생계 주임 은성학(殷成學, 경부), 고등계 주임 이코마 슌이치(生駒駿一, 경부보), 사법계 주임 마에다 도라요시(前田寅喜, 경부보), 보안계 주임 구로키 데루요시(黒木輝義, 경부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군산재판소]

그 옛날 옥구부 시절에는 역대 부사, 부윤, 군수 등 누구라도 사법 및 행정 사무를 겸직했지만 1905년(광무10) 12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고, 동시에 영사관을 폐지하고, 종래 영사의 직권에 속해있던 사법과 기타 사무를 이사가관이 관장하게 했다. 1906년(광무11) 군산에 이사청을 설치했다. 1909년(융희 3) 5월 한국 사법권 위임 결과 한국재판

소 및 이사청의 사법사무는 같은 해 10월을 기한으로 폐지되었다. 같은 해 11월 1일 새롭게 통감부재판소령이 실시되어 광주지방재판소 소속 군산구재판소를 두고, 옥구부 및

만경, 임피, 함열, 용안의 1부 4군을 관할구로 하였다. 1910년(융희 4) 1월 종래의 임시 청사(옥구군청 구내 건물)에서 신흥동 신축 청사로 이전했다²⁴⁹⁾. 1910년 8월 합병과 동시에 총독부 재판소령을 시행하고, 광주지방재판소속 군산구재판소를 설치, 동시에 지부를 병치하고 군산구재판소 관내에 두어 사건에 따라 지방재판소의 직무를 취급하게 했다. 1912년 4월 사법제도의 변혁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으로 개칭, 단독 사건 외에도 형사 예심 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22년 7월 전주지방법원이 개설되자 동 법원에 소속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으로 개칭되었다. 1923년 7월 종래의 공주지방법원에 속해있던 충남 서천군 일원(13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옮기고, 군산지청 사무 취급 구역 안에 서천군을 편입시켰다. 동시에 형사합의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지방법원에 속하는 사무를 전부 관장하고 민사합의부를 병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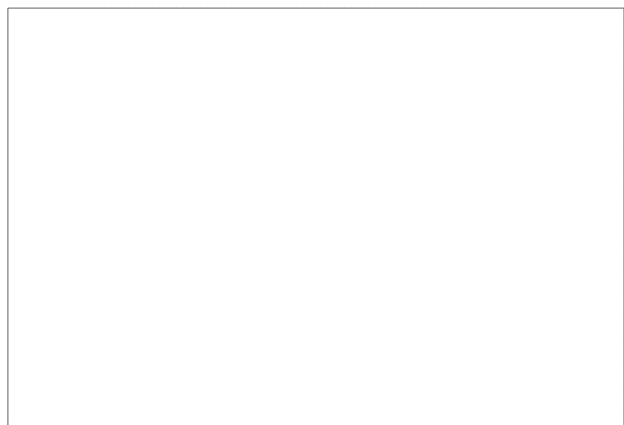
관할 구역은 군산부 및 옥구군 일원 및 익산군 중에 익산면 외에 10개면, 김제군 중에 만경면 외 5개면, 서천군 일원이다. 이후 청사가 매해 발전, 팽창하였는데 중요성에 비해 위치가 외곽이고 협소하여 유지들의 기부로 당국의 신축 이전을 청원하여(단 재판소는 종래의 토지를 군산부와 교환하고 부족분은 부에서 기부를 받았다) 1924년 10월 현재 위치하고 있는 횡전정(橫田町)에 신축 이전하였다.

현재 판검사는 다음과 같다.

상석판사 아리사와 사쿠지(有澤作治), 예심판사 야마구치 규이치(山口吸一), 판사 차균경(車均卿), 상석검사 기타무라 나오스케(北村直甫), 검사 임영찬(林英贊), 감독서기 시부야 시게오(澁谷誠夫), 검사국주임서기 나카니시 다쓰조(中西辰三).

□ 군산세관지서²⁵⁰⁾

군산 개항 직후 한국정부에서 인천 해관 관할 아래 군산해관을 설치했다. 초대 해관장은 해관 방변(幫辦)²⁵¹⁾ 나카바야시 시코(中林思考)이다. 1906년 제도 개정으로 해관(海關)을 세관(稅關)으로 개칭하고, 동시에 인천세관 군산지서로 바꾸었다. 현재 청사는 1908년 6월 건설을 시작하였다. 1933년 3월 관할 시설 정비 발전에 따라



[군산세관지서]

249) 일제강점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건물 중 남아 있는 것은 1930년대 말경 현재 군산시 월명동에 위치한 건물이다.

250) 1908년 건축된 군산 세관 건물은 국내 서양고전주의 형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중 하나이다. 서양식 단층 건물로 건평은 약 69평이며 현재는 호남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251) 방변(幫辦)은 방판(幫辦)의 오기인 듯하다. 방판은 개항 뒤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근대적 관청의 실무 담당 관리이다. 1882년에 처음 설치되었고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사무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2잔교, 제3잔교 사이로 감시과를 이전 신축했다.

지서장 마루오 하루이치(丸尾治一), 차석 히로이케 아쓰오(廣池厚男).

□ 전주형무소 군산지소²⁵²⁾

1910년 7월 1일, 광주감옥 분감으로 각국 거류지의 중앙에 설치되었다. 당시 군산경찰서에 이미 구금되어 있던 11명의 수감자 및 열기설기 만든 일본식 감방 2개 동(건평 13평) 및 수감자 신분에 관해 기록해 둔 서류를 인수 받고, 위 감방과 인접한 경찰서 보관과 관련된 옛 건물 2개 동(건평 28평)을 사무실로 빌려 겨우 사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옥구 장항리(현재 부내 금광정) 소재 부지 5,260평을 매수하여 이듬해 1911년 4월 85평 건물을 신축하여 7월에 준공했다. 1913년 공장 및 감방을 증축하고, 1922년 1월 종래 외부를 둘러싸고 있던 판자 담장을 벽돌로 개축했다. 1923년 6월 청사 및 중앙 군수실을 신축, 1927년 5월 감방(기와지붕 1층 목조 주택, 45평)을 증축하고, 그 후 1932년 10월 바로크식 1층 임시 감방 30평을 신축했다. 1923년 총독부령 제72호에 의해 전주형무소 군산지소로 개칭했다.

수감자는 1912년부터 거적, 기와 제조 등을 만들기 시작했고 1918년 무렵부터 벽돌, 가구, 그릇, 신발 등으로 제조 품목을 넓혔다. 그 중에서 벽돌은 품질이 좋고 가격 역시 저렴해서 호평을 받았다. 현재 수감자는 500명이다.

소장은 마쓰다이라 가즈오(松平和夫), 간수장 이노우에 겐지(井上源治), 교회사(敎誨師) 도요타 호순(豊田包春).

□ 군산역²⁵³⁾

호남선 군산지선(이리, 군산 간 14리 3부)은 1912년 3월 개통, 영업을 개시했다. 그 후 바로 항안 동부까지 화물 연결선을 부설하고 1922년 7월 항안선을 연장하고 새롭게 산수(山手), 빈정(濱町) 양선을 부설, 1930년 12월 세관 연결선을 부설했다. 1927년 10월 여객 홈에 건물(220평)을 지었다. 밑에 1933년과 1934년의 승하차 인원 및 화물 발착 톤수를 정리해 둔다.

<표 90> 승하차 인원 및 대물 발착톤수

항목	1934년	1933년
탄 사람	245,827명	257,454명
내린 사람	247,546명	262,640명

252) 군산시 금광동에 위치했던 전주형무소 군산지소는 1946년 군산형무소로 승격되었고, 1961년 군산 교도소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시설 낙후와 시내 중심가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외곽인 옥구읍 옥정리로 신축이전하였다.

253) 군산역은 1912년에 개통된 군산선의 종착역으로 대명동에 건립되었다. 1997년 장항선과 연결되었고, 2008년 내흥동으로 역사가 이전되었다.

항목	1934년	1933년
수입	214,762원	225,526원
화물(發)	93,565톤	95,818톤
화물(着)	211,345톤	239,419톤
수입	224,831원	250,190원

<표 91> 1933년, 1934년 승하차 인원수

항목	1933년	1934년
탄 사람	16,913명	15,199명
내린 사람	10,826명	11,611명
수입	22,462원	22,752원



[군산역]

□ 전라북도수산시험장

전라북도수산시험장은 1928년 군산공립수산학교 폐교와 동시에 당시 도 지방비로 시행 중이던 각종 시험 조사 사업을 계승해 1929년 3월 전라북도훈령 제4호에 의해 시험장 규정 공포와 동시에 설립되어 1929년도부터 사업을 개시했다²⁵⁴. 시험장 설립 당초에는 어로부, 양식부 밖에 없었으며 시험장(최고 책임자)은 산업과장이 겸임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조기 유망어업(流網漁業) 시험장, 고등어(전갱이 포함) 유망어업 시험장, 삼치 유망어업시험, 복어 조업 시험, 기선(機船)에 의한 동계 가오리 연승어업(延繩漁業) 시험, 해안 조사, 대하(大蝦) 회유(洄游) 조사, 중요 어족 발생 생육 상황 조사, 김 양식 및 증식 시험, 굴 양식시험 등

위 활동 중에 동계 기선에 의한 가오리 연승어업 시험은 성적이 좋기 때문에 지역 당사자들의 선박이 증가하는 등 범상치 않은 발전을 보여 통어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54) 전라북도수산시험장규정 제1조에는 수산시험장이 도지사의 관리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산에 관한 시험 및 조사, 수산에 관한 전습, 강습, 강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양식용종묘를 배부하고 수산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지방청공문』, 『조선총독부관보』 제687호, 229쪽).

삼치 유망어업 시험은 지난 가을 근해에서 실시한 결과 해당 업자들에게 자극을 주어 앞으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부의 김 증식도 줄포만과 고군산열도, 고군산 본도의 성적이 매우 양호하기에 장래 유망시 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수산업은 매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선도 점차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1934년 12월 만경호(萬頃丸, 42톤)를 진수하여 이듬해 1935년 1월부터 활약하고 있어서 근해 어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조부가 설립되지 않으니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시험장은 전라북도 산업과장이고 주임기수는 곤도 야스타(近藤保太)이다.

□ 총독부곡물검사소 군산지소

1915년 2월 7일 총독부령 미곡검사규칙 공포에 근거하여 동 년 8월 24일 전라북도령 제15호 미곡검사규정이 공포되어 우등, 상격, 하격의 3등급으로 구분되어 수출·반출 현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에 전라북도미곡검사소를 설치하고 그 해 9월21일부터 사무를 시작했다. 그 후 사무가 많아짐에 따라 도내 중요 지역에 지소를 개설하고, 1931년에는 그 수가 23개소로 늘어 같은 해 4월 가마니 검사소도 합병했다. 1932년 10월 제도개정에 의해²⁵⁵⁾ 총독부곡물검사소 군산지소로 개칭했다. 현재 관할구역은 전북은 물론 천안, 연기 두 군을 제외한 충남, 옥천, 영동, 보은 등의 충북으로, 히시쿠(菱久)곡물협회에 속한 지역이다. 관내 40개소에 출장소를 설치했다. 검사는 백미 1, 2등 및 현미 1, 2, 3, 4, 5등을 합격으로 한다. 검사수수료는 개설 당시에는 한 가마에 1전이었지만, 이후 점차 인상되어 지금은 5전을 징수하고 있다.

소장은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기사 요코야마 요지로(横山要次郎), 수석감독관 히다가보쿠(日高樸).



[군산곡물검사소]

□ 농림성 경성미곡사무소 군산출장소

농림성 경성미곡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출곡기에 쇄도하는 조선쌀의 일본 반출과 가격

255) 1932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고시 제 515호로 「조선총독부곡물검사소 지소의 출장소 명칭, 위치와 지소 및 출장소 소속 검사지정지가 정해졌다. 이때 군산지소는 지경출장소, 전주출장소, 동산출장소, 삼례출장소, 정주출장소, 신태인출장소, 김제출장소, 부용출장소, 만경출장소, 이리출장소, 함열출장소, 부안출장소, 줄포출장소, 백출출장소, 고창출장소, 흥덕출장소, 금산출장소, 남원출장소, 순창출장소, 무주출장소, 보은출장소, 옥천출장소, 이종출장소, 수동출장소, 황윤출장소, 강경출장소, 논산출장소, 공주출장소, 대전출장소, 함덕출장소, 예산출장소, 삽교출장소, 광주출장소, 대천출장소, 길산출장소, 장항출장소, 입포출장소, 선장출장소 등을 관할했다. 「고시」, 『조선총독부관보』 제1721호, 298쪽).

완화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1933년 4월 1일 부산과 함께 개설되었다²⁵⁶⁾. 부근 지방의 관할 기관은 목포가 처음이며 이후 강경, 여수에 설치되었다. 개소 이후 최근까지 매상 미곡수 및 불하 미곡수는 다음과 같다.

매상 미곡 488,548석, 불하 미곡 345,773석, 잔량 142,774석(목포 포함, 단 목포는 군산의 40% 정도)

□ 군산세무서

1934년 5월 1일부터 세무기관이 독립하면서 군산부에 세무서를 설치하고, 그 관할 구역을 군산부 및 옥구군 일원으로 했다²⁵⁷⁾. 종래 부군에서 취급해 오던 국세사무 중에 간접세 사무 일반 및 직접세 부과는 세무서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서장 이하 간부는 다음과 같다.

서장사세관(署長司稅官): 다케베 마사토시(竹部政俊)

직세과장(直稅課長): 고이즈미 미나오(小泉皆雄)

간세과장(間稅課長): 기쿠타 시게마루(菊田繁丸)

서무과장(庶務課長): 임은재(任殷宰).

<표 92> 군산 세무 관련 관공서

명칭	개소연월일	소재주소	소장이름
내무국 토목 이리출장소 군산공판소	*1915년 7월 3일	빈정	하야사가 고지로 (早坂廣次郎)
전주전매지국 군산 출장소	1930년 5월 3일	본정 1정목	다카하라 다이조 (高原泰造)
전주전매지국 군산 판매소	1931년 7월 1일	전주통	가타오카 요시타로 (片岡善太郎)
전망산 등표소	1909년 6월	해망정 매립지	도이와 히사미쓰 (戸石久光)
군산현병 분재소	1927년 9월 1일	전정	시모무라 가쓰마사 (下村勝正)
영정(榮町)우편소	1908년 9월 26일	영정 1정목	미요시 쓰네조 (三好常造)
천대전정(千代田町)우편소	1931년 3월 28일	천대전정 2정목	가도타 구라노신 (門田倉之進)

* 단, 1916년 6월부터 토목출장소로 개칭 1933년 4월 복구

256) 농림성 경성미곡사무소는 원래 농림성미곡매입사무소가 개칭된 것이었다. 미곡통제법의 실시와 함께 일본 농림성에서 조선의 쌀 출하기에 일정한 양을 매입하여 일본으로 유입되는 양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성미곡사무소는 1941년 식량관리국 관제 공포에 따라 사무소와 출장소가 폐지되었고, 대신 경성식량사무소, 경성식량사무소 군산출장소, 부산출장소가 설치되었다.

257) 군산세무서는 1907년 전북 세무감부 산하 전주 세무서 관할 구역에 속해 있었다가 1934년 군산과 옥구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승격되었다.

제29장 군산소방조

군산소방조는 1912년 4월 1일, 공설소방조 설립인가 하에 창설되었다²⁵⁸⁾. 그 시초는 1899년, 즉 군산항이 개항하던 해 11월 3일 천장가절(天長佳節, 일본 왕의 생일)에 당시 목포영사관 군산분관 주임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 경찰서장 야쓰타 아사노스케(八田朝之助), 오사와 상회(大澤商會) 지배인 사사키 고(佐々木耕), 오기 야스타로(扇安太郎), 나카지마 젠키치(中島善吉), 우쓰키 쓰요시(宇津木競), 이마이 조지로(今井讓次郎), 다니구치 이타로(谷口伊太郎) 등이 힘써 알선하여 창설되었다. 명칭은 「각국 거류지회 군산소방조」라고 칭하고, 소방수는 다니구치 이타로 씨가 경영하는 회조업(回漕業)²⁵⁹⁾ 군산구미(群山組)의 인부 27명이 맡았다. 기구와 기계는 쇠갈고리, 도끼, 밧줄, 즈크(doek)로 만든 물통 등으로 매우 유치한 수준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개항 초기라 거류민 수가 겨우 300명 밖에 되지 않았고, 시가지도 아직 황량하고 적막했기에 당시 소방 설비로 써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1900년 4월 모리히로 우메키치(森廣梅吉)가 경영하는 회조업 닛세구미(日勢組)가 조직되자 이들도 소방조에 가입하였다. 그 후 1905년 만들어진 목공, 미장이가 주축이 된 공우회(工友會) 역시 소방조에 가입하는 등 활동이 활발했다. 공우회 대표는 아키야마 순지였다. 초대 소방조 조장(組頭)은 다니구치 이타로였지만, 1900년 1월 그가 사임한 뒤로 부터는 당시 서장이 새 조장으로 취임하는 형식이 되었다. 그 후 얼마 안 가 다니구치, 모리히로 두 명의 소조장(小頭)이 취임했는데, 소조장이 사실상 조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조직 체계는 제1부, 제2부 두 개의 부로 나누고, 제1부는 다니구치, 제2부는 모리히로가 통괄했다. 그러나 1905년 전술했던 공우회가 회원으로 새롭게 가입하면서 제3부가 설치되었고 아키야마 순지가 부장으로 취임했다. 기구와 기계는 아직 유치한 수준을 면치 못 했지만, 초창기보다 다소 발전하였다. 1902년에 처음으로 수동펌프를 구입하고, 1904년 추가로 수동펌프를 한 대 더 구입했다. 이어 1908년 1월, 당시 경성소방서장이던 오쿠마 구마조(小熊本萬造)를 초빙하고 실상 조사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소방기계 2대 및

258) 군산 소방조는 결성 초기 소방업무 이외에 영사관 분관 경찰업무를 보조하기도 했다. 군산소방조가 공설소방조로 전환된 것은 화물하역인부 사이에 내분이 생기면서 소방조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군산이사청이사관과 군산경찰서는 소방조를 공설로 전환하고 예산은 부에서 관리는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곡물창고가 많은 군산의 특성상 화재진압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군산부와 경찰서는 상설소방수 비중을 높였고, 1930년대에는 전체 소방수 중 40% 이상이 상설소방수였다. 이 비율은 조선 내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군산 소방조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상업회의소를 장악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소방조에 직접 가담하여 소방조활동을 하기도 했다. 소방조는 화재진압, 수난구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경찰의 보조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미곡수출 시 군산항의 야경순찰 활동 등을 했다(김상욱, 「일제강점기(1910~1939) 공설군산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전북사학』 50, 2017, 215~244쪽).

259) 회조업(回漕業)은 해운업을 말한다.

부속품을 수리하고 동시에 도쿄경시청에 의뢰해 수동펌프 3대와 소방수 피복 60벌을 새로 조달했다. 그 밖에 망루대, 사다리 등을 신설하고 비상시에 대비했다.

한편 종래 72명이던 조원을 97명으로 증원하고, 3부제를 4부제로 개편하는 등 당시 군산의 상황을 볼 때 조금이나마 완전에 가까운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다음은 1908년 8월 5일 거행되었던 소방연습 광경을 기록한 내용이다.

8월 5일 오전 5시, 경종을 신호로 소방조원 일동이 경찰서 앞에 집합, 기구와 기계 등을 점검받고, 예정된 6시에 공원 및 연습장에 도착, 펌프와 사다리 사용연습, 소화연습을 행했다. 연습을 마치고 아마노(天野) 각국거류지 회장, 미야타테(宮舘) 서장의 강평훈시가 있었다. 이어 상품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한 후 일동 축배를 들고 9시에 해산했다. 당일 참가한 소방수는 80명으로, 이들은 4개의 부로 나뉘어 연습했다. 또한 당일 용수(用水)는 기교(機橋)²⁶⁰를 이용하고 펌프 운수차 4대를 사용하여 호성적을 거뒀다.

당시 소방조 1년 예산은 2,100여 원으로 기구 기계류를 새롭게 조달하는 것은 물론 임시비를 사용했다. 이어 1911년 무렵이 되자 군산은 점차 발전 궤도에 올라 예전의 면모를 탈피하여 소방 설비도 충실, 개선하게 되었다. 수동펌프 7대, 방화 우물 25개, 경종대 3개를 만들었다. 1912년 4월 소방조가 새롭게 조직을 개편했다. 종래 소방조를 일단 해산하고 1912년 2월 조직의 간부와 조원들에게 은잔 또는 목잔과 감사장을 증정했다. 이상 군산소방조의 창설부터 신조직으로 변화한 1912년 4월 1일까지의 변천 경과이다.

□ 신조직 후 설비와 진용

1912년 4월 1일, 소방조 설립 인가로 새롭게 군산소방조가 창설되었다. 조장으로 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郎), 부조장에 하시모토 히사시(橋本央)가 추천되었고, 조직 체계는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로 나뉘어져 각 부에 소방수 50명을 배치하였다. 각 부의 조원 중에서 4명씩을 상설 소방수로 두어 비상시 방호할 이른바 의용소방조직 기초를 만들었으며, 간부 6명 소방수 200여 명으로 진용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15년 3월 상수도 완공을 예상하고 소방기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곧바로 뛰어난 증기펌프 1대를 구입하고, 이어 같은 해 8월 소방조 부제를 변경했다(종래의 4부제를 폐지하고, 2부제로 함). 조장, 부조장을 조장(組頭), 소장(小頭)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소방수 수를 160명으로 감소시켰다. 그 후 1919년 군산미곡상조합에서 최근 쌀 상가 거리의 실화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가솔린 펌프(25마력) 1대와 부속품, 그리고 창고 신축비를 기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소방기관은 점차 개선의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

1923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간부의 대이동이 있었다. 이와 함께 조직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당시 상업회의소 부회장(副會頭)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부조장(副組頭)으로 현재의 조장(組頭)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가 소장(小頭)에 취임하여 면목을 일신하기

²⁶⁰ 기교(機橋)는 확실하지 않으나 물을 옮기는 장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 이르렀다. 이어 소방조는 점점 기관의 개선, 충실을 기하고자 이듬해 1924년 7월, 9,700원을 들여 자동차펌프 1대를 구입하고, 나아가 설비의 완전을 도모하고자 공비 2,000원으로 벽돌건물 1층의 소방 대기소를 신축, 이어 1925년 10월 공비 1,600원으로 동 대기소를 2층으로 증축했다. 1926년 4월 190원으로 대기소 옥상에 철근제 망루(지상에서 높이 48척)를 건설하였다. 1928년 8월에는 6,500원을 들여 자동차펌프 1대를 구입하였다. 이후에도 점점 기관을 개선하고 충실을 다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기념축하와 근속자 표창

1922년 7월 2일 군산소방조 창설 10주년 기념 축하 및 근속자 표창식을 거행, 이어 1926년 10월 17일 15주년 기념 축하 및 근속자 표창식을 거행했다. 그 후 1931년 9월 27일, 220주년 기념축하 및 근속자 표창식을 거행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룬 군산소방조의 빛나는 역사를 선약하고 있다.

□ 소방조원 수와 간부

소방조원은 총계 140여 명(이 중 상비 4명 이외는 의용)으로 간부는 다음과 같다.

조 장: 미쓰토미 가하치

부조장: 와키타 하루쓰구(脇田春次)

소조장: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모리 도시로(森敏郎), 쓰쿠모 로쿠오(九十九六男), 마쓰시마 다쓰조(松島辰蔵), 하시모토 헤이키치(橋本平吉), 야스다 히코지로(安田彦次郎)

참고로 전 조장 오사와 도주로는 1912년부터 1935년까지 24년간에 걸쳐 조장을 맡았다. 오늘날 군산소방조가 건실하게 개선된 것은 모두 오사와의 공로가 컸다. 하지만 그는 1935년 병을 얻게 되어 조장 직을 그만두었다.

□ 조직과 명칭

소방조원을 5부로 나누고, 제1부 수동펌프(腕用), 제2부 완용, 제3부 증기, 제4부 가솔린, 제5부 장차이다.

□ 기구기계

현재 설비와 관련된 기구기계는 자동차펌프 2대, 증기펌프 1대, 가솔린펌프 1대, 수동펌프 2대이다. 또한 1933년 9월에 새롭게 소형 가솔린펌프를 구입했다.

망루 및 기타 설비

망루는 소방 대기소의 누상에 철골제로 1개소를 두었다. 화재 감시소는 총 2곳으로 군산역 앞, 수상파출소(水上派出所) 앞이다. 기구기계 보관창고는 소방 대기소(자동차펌프 및 가솔린펌프 보관)와 부윤관사 밑(수동펌프 보관), 소화통(昭和通) 2정목, 전주통, 영정

12정목, 개복정(開福町) 1정목, 경정, 본정 1정목, 원정(2개소)으로 총 9개 정이다.

□ 평소의 대비

상비소방수는 교대로 주야소방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매월 1일과 15일에 2회 출근한다. 각 펌프 보관창고에 기구기계 검사를 행하고, 수선이 필요한 장비는 수선 수속을 밟아 만일의 경우에 유감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1934년도 경비비

1934년도 경비비는 7,008원²⁶¹⁾으로, 내역은 잡급(雜給) 4,268원, 수요비 1,820원, 수선비 70원, 잡비 850원이다.

□ 화재 횟수

1912년 군산소방조 창설 이래 1934년 말까지의 화재 횟수 및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단 그 이전의 통계는 근거 자료가 없기에 인용할 수 없었다.

<표 93> 연도별 군산 화재 및 손해 건적액

연도별	화재회수	손해 건적액(원)	연도별	화재회수	손해 건적액(원)
1912	12	638	1924	6	300,128
1913	9	520	1925	8	30,665
1914	11	605	1926	5	180,809
1915	12	940	1927	4	586
1916	10	2,866	1928	3	355
1917	11	45,925	1929	7	6,517
1918	10	40,325	1930	5	114,770
1919	10	77,758	1931	4	139,664
1920	2	250	1932	10	81,260
1921	6	20,242	1933	8	18,815
1922	12	15,428	1934	9	5,837
1923	4	23,820			

261) 7,008원: 원문은 '七千〇八圓', 보통 7,008원이면 '七千八圓'으로 표기하는 것을 고려할 때, '七千八〇圓', 즉 7,080원의 오기인 듯하다.

제30장 공사단체(公私團體)

다음으로 부내 공사단체를 열거하도록 하겠다. 단 사회교화기관이나 특수 단체는 그 사업 항목에서 제시하겠다.

□ 제국재향군인회 군산연합분회

1909년 4월 창립했다²⁶²). 당시 명칭은 제국재향군인회 군산분회라 했다. 이후 회원의 증가에 따라 1934년 4월 29일 동분회(東分會, 분회장 자노 구메지로(茶野桑次郎)), 서분회(分회장 오에 스테조(大江捨三)), 남분회(分회장 나가히라노 도라지로(長平野寅次郎))의 3개 분회가 생겨나고 동시에 이들의 통제기관으로 제국재향군인회 군산연합분회가 조직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군산연합분회 해군부가 창설(부원 48명, 부장 세토야마 덴조(瀬戸山傳藏) 되었다. 사무소는 처음부터 경찰서 내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후 회무의 발전과 팽창으로 인해 1932년 12월 공비 1만 1,000원으로 현재의 장소인 천대전정(千代田町)에 신축했다. 회원 수 520여 명,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분회장 오카다 다카미치(岡田高弼), 부장 모리 신노스케(森新之助), 부장 와타나베 아키요시(渡邊秋義), 이사 요시다 신타로(佳田新太郎), 감사 고바 가이치(木庭嘉一), 회계 가메다 우산지로(龜田卯三次郎). 그 외 고문 7명, 평의원 23명을 둔다. 한편 반장(班長)은 27명, 부반장도 27명이다.

□ 애국부인회군산분회²⁶³

애국부인회 군산분회는 1909년 창설될 당시 회원 수가 370명이었는데, 그 후 도시 발

262) 일본에서 제국재향군인회가 결성된 것은 1910년 11월이었다. 따라서 제국재향군인회 군산연합분회는 그 보다 늦게 결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09년은 오기로 추정된다. 제국재향군인회는 예비역, 후비역 군인의 군인정신향상, 상이군인과 군인유족의 구호를 목적으로 후시미노니야 사다나루(伏見宮貞愛) 친왕을 총재로 하여 발족했다. 처음에는 육군 중심이었다가 1914년 해군도 대상자가 되었다. 이 회의 본부는 도쿄에 두고 분회 단위를 조직했다. 연합지부는 사단관할 내 지역의 지부, 지부는 연대구역내 연합분회고, 분회는 시 구정촌내의 회원으로 조직하도록 했다. 1931년 조사에 따르면 분회 이상 단체수가 일본 내외를 합쳐 14,443개였다. 1945년 패망 이후인 8월 31일 해산되었다.

263) 애국부인회는 1901년 육해군과 정치가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麿)의 지원으로 창립되었다. 1900년 의화단 사건 때 본원사(本願寺) 위문사의 일원으로 전장에 나갔던 사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인 오키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가 전선의 장교와 병사의 고통을 보고 귀국하여 결성했다. 설립초기는 군인 유족과 상이군병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1917년에는 정관을 개정하여 구호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관동대지진 후 구호관을 설립했고, 부인직업소개, 배우자 소개 등으로 확장했다. 기관지 『애국부인』을 발행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파시즘 체제 구축에 협력했고, 부인보국운동을 일으키고 미성년 여성을 모집하여 애국여자단을 결성했다. 1932년에는 오사카에서 대일본국방부인회가 결성되었다. 애국부인회가 상류층 여성을 대상으로 고액의 회비를 받아 활동하는 것에 비해 대일본국방부인회는 낮은 금액의 회비를 내는 하류층 여성의 참여로 활동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회원수가 애국부인회에 비해 많았다. 두 단체 사이에 감정적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전과 함께 점차 회원이 늘었다. 특히 1934년 9월 총재 히가시후시미노미야(東伏見宮) 대비(大妃)의 조선 방문을 기념해 회원을 모집하자 그 수가 대략 1,200명에 이르렀다. 분회의 주요 사업은 군사후원, 사회봉사, 회원 상호 수양,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지식 향상, 생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만주사변, 상해사변 발발 후에는 분회원을 총동원하여 위문금품을 모집하고, 출정 장병 및 부상 장병을 위문, 또는 군용기재 구입비를 모금하여 이를 현금하는 등 그 활약이 눈부실 정도이다.

1934년 11월 10일 조선본부장(朝鮮本部長) 이마이다(今井田) 정무총감부인, 동 부장(副長) 와타나베(渡邊) 학무국장(學務局長) 부인, 전라북도지부 부장(副長) 아베(阿部) 내무부장 부인, 동 부장 야나기하라(柳原) 검사정(檢事正) 부인, 그 외 진신(摺紳)²⁶⁴⁾ 유지들을 초대하여 공회당에서 제1회 총회를 개최, 참석자 600명의 성황을 보였다. 분회장은 사토 부운 부인, 부회장은 오사와 도주로 부인으로 위원 50명을 두었다.

□ 적십자²⁶⁵⁾ 군산위원회

1909년 창립되어 현재 회원 380명이다. 위원장은 부운이 맡고 있으며 8명의 간사가 있다.

□ 군산국방의회

군산국방의회는 국가 비상시에 국방의 지식관념을 함양하고, 갑작스런 유사사태 발생시에 후방 지원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한다는 목적으로 1931년 10월 12일 설립되었다²⁶⁶⁾. 처음에는 군산국방연구회라고 했지만, 시국의 변화에 따라 조직 및 회칙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 1933년 5월 26일 총회를 개최, 회명을 군산국방의회로 바꾸었다. 동시에 회칙을 변경하고 임원을 개선(改選)했다. 회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회는 군산국방의회라 칭하고 국방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국방연구에 관한 자료 수집
2. 국방에 관한 연구사항 발표
3. 국방에 관한 강연회 개최
4. 국방에 관한 대회 개최

제3조 본회 사무소는 당분간 군산부청에 둔다.

264) 진신(摺紳)은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이다.

265) 1863년 국제적십자 운동이 탄생된 이후 한국에 적십자사가 설립된 것은 1905년이였다. 이에 앞서 1903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육지전투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899년의 헤이그협약」에 서명했다. 그리고 1905년 칙령 제47호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반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9년 폐지되고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로 운영되었다.

266) 국방회의는 만주사변이후 군민일체의 정신 아래 공산주의 사상 박멸, 국경 부군의 비적 박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에서는 1933년부터 전국 각지에 국방회의가 만들어졌다. 일본의 만주침략에 대해 감사편지 보내기, 각종 국방병기 보내기, 내국 비행기 모금운동, 국방헌금 모금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

제4조 본회 회원은 군산 및 부근 주재의 동지로 조직한다.

제5조 본회 경비는 유지의 각출금(釀出金)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은 총회에서 추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1명, 고문 약간 명

간사 약간 명. 평의원 약간 명

제7조 회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회 회무 집행상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회장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부회장 아리마 조지로(有馬長次郎), 그 외 고문, 간사, 평의원에 각각 약간 명을 둔다. 동회는 설립 이래 순조롭게 소정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시국을 반영해 군사 강연은 군부의 요청으로 개최하여 부민으로서 비상시국에 처해야 할 행동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설립 후 1934년 12월까지 개최된 군사강연회 및 그 외 행사는 49회에 이른다.

□ 군산국방부인회²⁶⁷⁾

군산국방부인회는 시국을 반영해 거국개병(擧國皆兵) 정신에 기초하여 일본부인으로서 호국의 대의를 실천궁행(實踐躬行)하여 국방의 후방지원 임무를 다하기 위해 1935년 2월에 설립되었다. 창설 후 세월은 아직 일천하여 내용이 불완전하고 충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올 가을 10월에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행해진 사단대항연습을 기하여 그 때까지 널리 회원을 모집하고 진용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회장은 히가시 무메코(東ムメ子), 부회장 오카다 기쿠코(岡田キク子), 평의원 약간 명을 둔다.

□ 군산경마 클럽²⁶⁸⁾

267) 국방부인회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상해 사변을 일으켰을 때 오사카 항에 출정하는 군인 부인들이 병사들을 환송했던 활동을 계기로 1932년에 결성되었다. 결성 이후 군인 가족이 아닌 일반 부인들도 참여하여 출정병사를 환송하고, 위문복을 만드는 등 총후활동을 했다. 1942년까지 존속했다.

268) 총독부는 3.1운동 직후 조선인의 교화를 위해 오락을 위한 공공시설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경마대회였다. 1919년 10월 17일과 18일 용산의 연병장에서 개최된 경마대회는 “조선의 운동계를 발전시키고 일반 조선인에게 승마의 취미를 얻게 하는”것이란 취지하에 일본에서 경마용 말 30마리와 기수를 들여와 개최하였다. 1920년 6월에는 기본금 60만원으로 청량리 등지에 경마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경성경마구락부가 조직되었고, 1년에 2번 봄과 가을 또는 임시로 경마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독부에 인가를 요청했다. 경성경마구락부는 1922년 총독부로부터 인허를 받아 조선경마구락부(재단법인)로 출범했다. 조선경마구락부는 한강통 13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아라이 소메타로(荒井初太郎) 외 58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었다. 한편 1924년에는 조선경마구락부 이외에 요시다 헤이타로(吉田平太郎) 외 31명이 사단법인 경성경마구락부의 설립을 총독부에 청원하기도 했다. 조선경마구락부의 성립 이후 평양, 대구, 함흥 등지에 경마구락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군산 경마 클럽도 만들어졌다. 경마대회는 투표권(마권)을 맡에 걸어 우승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회 초기부터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경마규칙은 투표권으로 우승마를 맞히는 것이었는데, 입장권의 등급에 따라 투표권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다. 1921년 경성승마구락부가 주최한 경마대회 입장권은 1등 3원 50전에 승마투표 3장, 2등 2원 50점에 승마투표 2장, 3등 1원 50전에 승마투표 1장, 4등 50전에 투표권은 없었다. 그리고 상금은 일류우승마 500원, 이류우승마 300원, 그 외 부상품 등이 있었다. 공인도박장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던 경

사단법인 군산경마 클럽은 1924년 6월 창설했다. 당시 회원 수 160명(회원은 입회 시에 10원을 출자한다), 경마장은 동해안불이흥업회사(東海岸不二興業會社) 소유 토지로 충당한다. 1928년 9월 위 취지를 공인경마클럽으로 허가를 받았다. 1932년 10월 조선경마법령(朝鮮競馬法令)이 공포되고, 동시에 시행규칙에 의해 경마장 규모설비를 확대 개량해야 했다. 부(府)와 구암리(龜巖里) 진전농장(眞田農場) 소유 밭 7만 8,000평을 매수하여 이듬해 3월 공사를 시작해 6월에 준공을 마쳤다.

경마장 주위 1,600미터(넓이는 30미터, 연습 마장의 넓이는 6미터), 사무소, 매장, 관람석, 측사, 심판석, 내빈석, 귀빈석 등 시설을 완비했다. 특히 측사는 조선 내에 비교할 경마장이 없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경마대회 개최는 춘추 두 시기이다. 마권은 이전에는 2원짜리 1종류였지만 경마법령 시행 후에 2원, 5원, 10원, 20원 4종류가 되었다. 현재 회원은 74명으로 입회금이 100원이며 회비로 매해 10원을 납부한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 상무이사 오쿠보 히사시(太久保久), 이토 다다타카(伊藤忠孝), 이사 다나카 유키히라(田中幸平), 노모토 기치조(野本吉三),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와키타 하루쓰구(脇田春次), 감사 무카이 마쓰지로(向井松次郎), 모리 히로시(森弘), 니시카와 게이이치(西川慶一).

□ 군산체육협회²⁶⁹⁾

군산에 체육이 장려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미야타테(宮館) 부운 시대이다. 당시 협회 지금과 같은 단체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구부도 테니스부도 별개의 조직이었다. 1924년 스포츠를 좋아하던 시모즈(下津) 기사(技師)가 간토청(關東廳)을 퇴관하고 군산부청으로 들어와 회원조직으로 체육협회를 창설하여 스포츠 열기가 왕성하게 되었다. 그 후 시모즈가 퇴직하자 협회의 기세가 쇠퇴하여 유명무실한 감이 있었으나, 1927년 3월 사와무라 부운 시대에 체육협회를 재흥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간부로 추대하였다. 즉 야구부에 이시하라(石原), 가모(蒲生), 정구부에 후지타(藤田), 사토(佐藤), 서무부에 후지타 후미이치(藤田文市) 등을 추천하고, 회장으로 사와무라

마장에 대해 총독부는 경마령을 제정하여 경마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1931년 일본에서 실시된 경마령은 경마장의 신설을 통제하고 경마장 수입의 1/3을 말의 증산과 개량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일본의 경마령을 참조하여 경마장 수입의 1/2를 말의 증산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마령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경마령은 즉시 선포되지 못했다. 총독부는 경찰범처별령을 근거로 우선 사단과 재단 법인 구락부 이외 경마경영을 불허하는 내용의 취체규칙을 발표했고, 경성, 평양, 부산, 대구, 군산, 신의주, 함흥의 7개 소 경마장 이외의 경마장을 모두 불법화 시켰다. 1932년 경마령 실시를 통해 경마장의 수익 절반을 말의 증산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마권과 배당최고액을 높였다(김윤희, 「경성의 오락장, 공인된 도박장의 탄생」,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18, 350~387쪽).

269) 군산체육협회는 조선체육협회의 산하 기구로 추정된다. 조선체육협회는 1919년 7월 재조일본인 중심의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반면 조선인 중심의 조선체육회는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YMCA 기독교청년단 등이 민족강건을 목표로 조직했다.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는 서로 경쟁관계로 서로를 의식했지만, 1938년 조선체육회가 1942년에는 조선체육협회가 해산되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체육정책과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연구로는 김국현의 연구(「한국의 '스포츠적 근대': 조선체육회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가 있다.

부윤, 부회장으로 모리 기쿠고로(森菊五郎)를 추대해 진용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이후 선수 수급이 여의치 않아 다시금 위축되고 부진에 빠졌다. 하지만 1929년 11월 모로타 마스오(諸田萬壽男)가 군산부 내무계의 주임으로 부임한 뒤 협회 개선에 전력하여, 야구부, 테니스부, 수영부, 탁구부를 설립하고 간부와 선수에 적합한 인재를 기용해 조직을 일신했다. 1931년 5월 스포츠에 가장 이해가 깊은 사토 부윤이 착임하여 더욱 진용을 개편하고, 이와 동시에 조선에서 보기 힘든 운동장을 일출정(日出町)에 신설해 체육장려에 더욱 노력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다음 각 부와 간부의 이름을 들어 놓는다.

회장: 사토 노리시게(佐藤徳重)

부회장: 우에다 보쿠(上田朴)

고문: 우시오 마사이치, 야마모토 가즈오(山本一男)

서무부 부장: 가미조 신이치로(上條新一郎), 부부장: 바바사키 사네오(馬場崎實穂)

야구부 부장: 우에다 보쿠, 부부장: 모리모토 하루요시

테니스부 부장: 이구치 다치히라, 부부장: 시부야 시게오(澁谷誠夫)

육상경기부 부장: 오사와 시게노리(大澤重憲), 부부장: 히로타 사카에(廣田榮)

수영부 부장: 다카마쓰 후시하루(高松節治), 부부장: 시라이시 쓰토무(白石勉)

탁구부 부장: 스기오카 도모오(杉岡具雄), 부부장: 시노미야 기요이치(四宮清一)

그 외에 각 부에 간사 약간 명을 둔다.

□ 군산상무회

군산상무회는 1924년말 경찰측 간부와 민간유지에 의해 설립계획이 수립됐다. 1925년 3월 21일 군산소학교 강당에서 무도대회를 겸해 발회식을 거행했다. 해마다 2회 토왕(土旺)²⁷⁰⁾ 절기를 기념한 연습, 겨울 연습을 통해 장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희망자는 누구라도 입회할 수 있다.(입회금 1원) 회장은 당시 서장이자 현 부회장인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가 맡고 있으며 임원 약간 명이 있다. 또한 회에서는 종래의 연무장이 협소하므로 약 1만 원을 일반 유지들에게 기부 받아 1925년 8월 경찰서 옆에 건설했다.

270) 토왕(土旺)은 땅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절기를 말한다.

제31장 회사, 신문, 잡지사

부내에서 주요한(지점을 포함) 신문잡지사를 다음에 소개한다. 단 금융관계, 제조공업 관계는 각각 그 부에 소개한다. 또 지점은 지점의 대표자를 적어 놓는다.

<표 94> 군산부 내 중요회사

명칭	설립연월	자본금	대표자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 ²⁷¹⁾	1927. 9	2,460,000	우에바야시 가이하치 (上林亥八) 본사 詰중역 전무 단속역 상무 단속역 히구치 도라조 (樋口虎三) 오세 슈지로 (小瀬守次郎)
나카시바(中柴)상사 주식회사 ²⁷²⁾	1926. 1	300,000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
호남농구 주식회사 ²⁷³⁾	1919. 10	100,000	오카 스에(岡季)
군산비료 주식회사 ²⁷⁴⁾	1929. 1	100,000	나카시바 만키치
군산해운 주식회사 ²⁷⁵⁾	1928. 6	100,000	나카시바 만키치
협동해운 주식회사 ²⁷⁶⁾	1930. 7	100,000	우에다 보쿠(上田朴)
합자회사 아베(安部)상점 ²⁷⁷⁾	1926. 5	100,000	아베 에이이치(安部榮一)
주식회사 장항구미(長項組) ²⁷⁸⁾	1932. 8	50,000	후나모토 유사쿠(船本勇作)
조선산흥 주식회사 ²⁷⁹⁾	1935. 2	300,000	헤이쑤ن 도모쿠라(平春富藏)
군산작업 주식회사 ²⁸⁰⁾	1934. 8	75,000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 지점 ²⁸¹⁾	1930. 11	5,000,000	후쿠다 간스케(福田勘助)
조선운송 주식회사 지점 ²⁸²⁾	1930. 5	2,200,000	이리에 다쓰조(入江辰三)
다카세(高瀬)합명회사 지점 ²⁸³⁾	1917. 10	1,500,000	오카지 마사헤이(岡治政平)
주식회사 후쿠다유(福田又)상점지점 ²⁸⁴⁾	1927. 7	400,000	오쿠무라 도시로(奥村俊郎)
합명회사 아마가사키(尼ヶ崎)기선부 군산출장점	1928. 11	5,000,000	도카이 세이이치(渡海清一)
마루신(丸辰)해운 주식회사 군산출장소	1927. 5	10,000	시모히라 후쿠타로(下平福太郎)
미쓰이(三井)물산 ²⁸⁵⁾ 주식회사 군산출장소	1927. 9	100,000,000	스와다 도미사부로(諏訪田富三郎)
미쓰비시(三菱)상사 ²⁸⁶⁾ 주식회사 군산출장소	1930. 7	15,000,000	나카오 마쓰하루(中尾松治)
질소비료판매 주식회사 군산출장소	1928. 11	1,000,000	사이토 가쿠산(齋藤獲三)
주식회사 미나카이(三申井) 지점	1929. 10	3,000,000	가지타 세이이치(梶田精一)

271) 남조선전기 주식회사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합자회사로 군산시 신창동에 회사건물이 남아있다. 2018년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724호로 지정되었다.

272) 나카시바상사 주식회사는 1926년 자본금 30만원으로 설립된 운송업관련 회사이다. 해륙운송업, 운반업 및 부대사업, 대리업, 상품의 위탁매매 등을 했다. 사장은 만키치(中柴萬吉)였다.

273) 호남농구 주식회사는 일본인 오카 스에(岡季)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농잠구, 비표, 쌀, 잡곡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1919년 군산으로 이전하여 자본금 10만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농잠구, 토목용품

위에 들어 놓은 회사 이외 지점이나 출장소가 아닌, 대리점으로 군산 개항 이후 다년간 해운업계에서 공헌한 오사카 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군산대리점이 있다. 대표자는 오사와 도주로이다. 또한 일본 및 조선, 대련의 각 기선회사 대리점은 군산해운, 협동해운, 기타 출장소에서 다룬다.

□ 신문잡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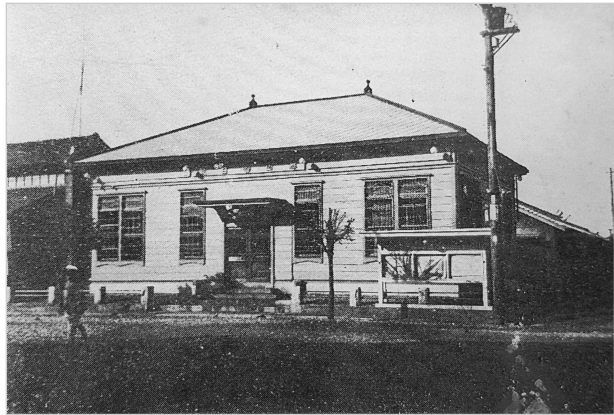
언론기관으로 지역에서 발행하는 것은 「군산일보」²⁸⁷⁾ 및 일간잡지 「실업의 조선(實業の朝鮮)」이다. 그 외에도 경성을 시작으로 조선 내의 각지에서 발행하는 일본어 신문의

- 의 부품 및 조립 판매하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비료를 수입해서 팔았다.
- 274) 1929년 자본금 10만원으로 군산부 본정통에 세워졌다. 비료의 매매, 기타 각종 상품 매매 및 위탁 판매업을 했다. 대표자는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였다.
- 275) 군산해운 주식회사는 나카시바 만키치의 해운부와 경상남도 부산에 있는 일선해운주식회사 군사지점이 합병하여 1928년에 설립된 회사이다. 조선우선주식회사, 긴카이우선주식회사, 이마타니기선주식회사, 사와야마기선주식회사 등의 근해항로 대리점과 각 보험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외 해운업, 창고업, 대리업, 중개업 등을 했다.
- 276) 협동해운 주식회사는 1922년 인천협동조화조합부와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사장인 우에다 보쿠(上田朴)는 일본 나라현 출신으로 1913년 야마시타 기선회사 사원으로 일하다가 1922년 군산에서 협동운송업을 시작했고, 이어서 협동해운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935년에는 부회의원, 상공회의소 의원이 되었다.
- 277) 합병회사 아베상점은 아베 에이치(安部榮一)이 1926년 설립한 상회사이다. 아베에이치는 고지현 출신으로 1902년 기무라상점 군사지점 주임으로 군산에 왔다가 독립하여 쌀 수출과 목재판매업을 했다. 아베상점은 목재 및 건축재료 판매회사이다.
- 278) 주식회사 장항구미는 1932년 자본금 5만원으로 설립된 운송업관련 회사이다. 본점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동면 장항리에 있었다. 장항구미는 운송업 이외에 인부청부 등의 업무도 했다.
- 279) 조선산흥 주식회사는 1934년 자본금 30만원으로 설립된 토지매매 및 중개업 회사이다. 이외에 유가증권 투자, 토지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영업도 했다.
- 280) 군산작업 주식회사는 자본금 7만5천원으로 설립된 운송, 인력청부업 회사이다. 해로와 육로 운송 수송 및 세관화물 취급인가업무 등을 했다.
- 281)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는 미곡조절을 목적으로 1930년에 설립되었다.
- 282) 총독부는 조선 주요 운송회사의 과잉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운송합동회사 조직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 주요 운송업자들이 운송업 합동 5개 항에 합의하여 조선운송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현재 군산 금동에는 조선운송주식회사 군산지점 사택이 남아 있고, 2018년 대한민국 등록문화제 제 725호로 지정되었다.
- 283) 다카세 합병회사는 1917년 부산에서 자본금 15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견직, 면직, 모직을 비롯한 제 잡화를 판매하고, 면포를 제작하기도 했다. 나야가 토지가족의 임대와 산림개간, 목축 등도 경영했다. 경성, 평양, 군산, 여수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 284) 후쿠다유 상점은 1927년 경성 남대문 통에 자본금 50만원으로 설립된 철물, 농구, 건축재료 판매 회사였다. 부산과 군산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 285) 미쓰이 물산은 일본 메이지시기 종합상사로 일찍이 해외진출을 했던 기업이다. 1874년 선수회사(先収會社)로 설립되었고, 선취회사가 해산되고 미쓰이 물산이 설립되었다. 미쓰이쿠미 내 상사조직이 만들어졌다. 1882년 일본공사관의 물품조달을 위해 서울에 들어왔고, 이후 내장원으로부터 홍삼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홍삼매매에도 관여했다. 1909년 경성지점이 개설되었고, 1912년에는 중국에도 진출했다.
- 286) 미쓰비시 상사는 1873년 오사카에서 미쓰비시상회로 출발하여 일본 정부의 지원과 보호아래 해외 해운업을 독점했다. 1874년 본사를 도쿄로 이전하고 우편기선미쓰비시회사로 개칭하였다. 1차 세계대전 기간 해외무역부를 독립시켜 1918년 미쓰비시상사를 설립했다. 일본 5대 상사 중의 하나로 미쓰비시 재벌의 자회사이다.
- 287) 『군산일보』는 1903년 전라북도에서 처음 창간된 주간지 『군산신보』로 시작되었고, 1908년 『군산일보』로 바뀐 뒤 1941년 『전북시보』에 통합되었다(네이버, 향토문화전자대전, 군산, 2019.6.1.검색).

지사지국 및 한국어신문 지국이 십여 개가 된다.

□ 군산일보

군산에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03년 무렵으로 처음에는 주간신문인 군산신보(群山新報)가 발행되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한남일보(韓南日報)가 창간되었지만, 이는 당쟁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얼마 안 가 폐간했다. 그 후 수많은 변천을 거쳐 1907년 군산일보로 제호를 바꾸어 오늘날에 이른다. 군산에서 유일한 일간신문으로, 지방 산업문화의 개발 진흥에 공헌하고 있다.



[군산일보사]

다카스 다다시(高洲規)가 25년간 사장으로 재임하며 경영을 맡아 노력과 고심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1934년 2월 13일 불행히도 병사하였다. 미망인을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세우고 같은 해 8월 위원 중에서 3명(이소베 겐야[磯部謙哉], 오쓰보 류조[大坪龍三],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의 상담역을 두고, 동시에 아키야마 주사부로(秋山忠三郎)를 총무국장 겸 편집국장으로, 니나가와 고로(蜷川五郎)를 경영국장으로 임명하고 진용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 실업의 조선

월간잡지로 1919년 5월에 창간했다. 당초 우시오 마사이치가 경영을 맡았지만 1927년 마쓰오카 다쿠마(松岡琢磨)가 경영을 이어받았다. 1930년 11월 마쓰오카가 사망하자 나카지마 아키라(中島明)의 소유가 되었고, 1934년 10월 현재 사장 가мата 마사이치(鎌田正一)가 계승하였다. 지역 월간잡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편집부장은 요시카와 후미타로(吉川文太郎)이다.

<표 95> 군산부내 신문사

명칭	대표자	주소
전북일지사	지사장 나카야마 다쓰미(中山辰彌)	천대전정 1정목
경성일지국	지국장 구다 하지메(九田一)	천대전정 2정목
조선신문지사	지사장 쓰사카 요시조(津坂喜三)	옥정
부산일보지사	지사장 이로카와 모토이치(色川元市)	동영정
중선일보지국	지국장 후지하라 미야로(藤原彌八郎)	개복정
조선매일신문지국	지국장 전의용(全義鎔)	횡전정
목포신보지국	지국장 사사 스이쿄(笹水鏡)	전주통

명칭	대표자	주소
조선시보지국	지국장 요시오카 사다오(吉岡定男)	소화통 2정목
조선민보지국	지국장 미야자키 노리오미(宮崎憲臣)	전정
대구일보지국	지국장 이즈미 사쿠지(泉作二)	천대전정 1정목
조선일일신문지국	지국장 가모 기요하루(加茂清治)	소화통 2정목
조선상공신문지국	〃	〃
서선일보지국	지국장 야마자키 겐자부로(山崎源三郎)	전정
일간대륙지국	지국장 무라카미 기치고로(村上吉五郎)	경정
매일신보지국	지국장 양두희(梁斗熙)	개복정
동아일보지국	지국장 방한희(方漢廻)	개복정
조선일보지국	지국장 이해순(李海淳)	신정
조선중앙일보지국	지국장 이흥수(李興秀)	장재정

기타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의 통신원 및 오사카마이니치신문, 오사카아사히신문 판매점, 후쿠오카니치니치신문(福岡日日新聞) 취급소 등이 있다.

제32장 명소, 옛 유적

□ 군산공원²⁸⁸⁾

부의 서쪽 끝자락에 있다. 노송이 울창하고 녹음이 싱싱하며 벚꽃이 사이사이에 교차하고 있다. 풍광이 아름답고 금강이 시선 아래로 흐르고 있어 전북의 섬과 충남의 산야와 봉우리들이 모여 있어 경관이 웅대하고 사계절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 산을 메우고 계곡을 둘러싸 비단을 깔아 수를 놓은 듯하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최근 호남 제일의 명소로 알려져 꽃 피는 시기가 되면 가까운 곳은 물론 먼 곳에서도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산 중턱에는 군산 신사가 있는데 경내는 고즈넉하고 정숙하여 저절로 삼림의 엄숙함이 밀려온다.

1932년 군산부에서 공원의 확장을 계획하고 1만 5,200원을 들여 왼쪽에 새로운 공원 용지 6,088평을 매수하고 옛 공원과 합쳐 1만 2,809평으로 확장하였다. 당시 1,200여 원을 들여 확장을 하였고 이후에도 해마다 수백 원을 투입해 시설을 확충하였다. 지금은 외형이 완전히 바뀌고 풍치를 더해 조선의 어떤 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공원이라고 자부하기에 이르렀다.

□ 백제 시대 고탑²⁸⁹⁾

군산공원 내에 특기할 만한 백제시대 유적이 있다. 서빈정(西濱町)에서 공원 쪽으로 수십 미터를 오르다 보면, 길가의 커다란 팽나무 아래 오래된 석탑이 하나 보인다. 1914년 상수도 공사 때 지금의 저수지가 있는 산중턱에 천방산(千房山) 선종암(善宗庵)이라는 고찰이 있었는데, 당시 수원지대에 편입되면서 사원의 건물 및 기타 일체가 은적사(隱寂寺)²⁹⁰⁾에 합병되었고, 종래 선종암의 앞뜰에 있던 오른쪽 석탑을 수원지사무소 옆에 옮겨 두었다가 1921년 현재 공원 내로 이동하였다. 꽃피는 봄 4월에 흠날리는 벚꽃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고탑은 마치 꿈속에서 백제의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 월명산

부의 서남쪽에 해당하는 최고봉으로 기묘한 승경은 없지만, 정상에 오르면 군산부내와

288) 현재의 월명공원이다. 1906년 군산 거류지의 해망정 인근 지역을 개발하여 각국공원이라고 불렀다.

1914년 조계지가 폐지되면서 군산공원으로 불리다가 1972년 월명공원이 되었다.

289) 군산 선종암 3층 석탑이다. 1976년 관리를 위해 은적사로 옮겨졌다.

290) 원문에는 은적사(穩寂寺)로 되어 있으나 은적사(隱寂寺)의 오기인 듯하다. 613년에 원광법사 창건설과 나당연합군의 소정방 창건설이 전해져 온다. 현재 소룡동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 일대가 한눈에 들어와 조망이 가장 풍부하다.

□ 금강

700리 굽이굽이 흐르는 장류(長流), 조선의 6대 하천 중에 제일로 꼽는다. 조망이 웅대하고 특히 새벽녘과 해질녘의 경치가 좋고, 특히 출곡기에 미곡을 선적할 때와 성어기에 어선이 출입하는 장관이 좋다.

□ 수도수원지²⁹¹⁾

부의 남쪽으로 20정(町, 약2km) 정도 떨어진 미면 신평리(新豐里) 사이의 골짜기에 있다. 사시사철 맑은물이 차있어 호수와 같고, 호반에는 수복이 울창하고 무성하여 산수의 자태가 좋다. 봄가을 행락지로 찾는 사람이 많다.

□ 비응도(飛鷹島)

작은 증기선으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한다. 물이 맑고 파도가 잔잔하여 볼거리가 많다. 해수욕장으로 알맞은 곳이어서 여름철이 성수기이다.



비응도 해수욕장

□ 불이농촌(不二農村)²⁹²⁾

1920년부터 3년 동안 240만원에 이르는 공비를 투자해 간척하여 건설한 농촌이다. 2,000정보의 경지가 있다. 중앙에는 322정보의 관개용 저수지가 있다. 일본 각 현의 농민이 이주하여 각각 출신지의 지명을 마을 이름으로 사용하여 모여 산다. 이전에는 불이흥업회사가 경영해왔지만, 최근에는 불이산업조합이 자치 경영을 하고 있다. 군산 서남쪽에 위치하며 만 리가 한눈에 보이는 한적한 들판이다. 조선을 시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반드시 이 농촌을 방문한다.

291) 군산시 식수 공급을 위해 1915년에 준공된 수원지이다. 현재는 군산 제1수원지로 알려져있다.

292) 불이흥업주식회사의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불이흥업주식회사는 1904년 조선에 들어와서 옥구군에 농장을 설립하고 간척 사업을 벌였다. 옥구군 해변에서 무의인도까지, 알산도에서 어은리까지 총 14km를 간척하여 농토로 바꾸는 사업을 실시했다. 1920년부터 3년 간 사람들을 동원했고, 동원된 사람들에게는 간척 농지에 대한 영구소작권, 소작료 3년간 면제, 간척 공사 임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동원된 많은 사람들이 임금과 약속된 농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간척지 남쪽은 한국인이 소작하는 옥구 농장으로 북쪽은 일본인 소작농을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했다. 당초에는 일본인 이주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1925년에는 불이공립 심상소학교, 불이공립 실과 여학교, 불이척식농사학교 등을 설립했다. 군산 불이농장으로 이주했던 일본인들은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불이회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식민지 경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불이농촌과 불이회에 대한 연구로는 이규수의 연구(『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호남 지역 일본인의 사회사』, 다할미디어, 2007) 이토야마 켄스케의 연구(『식민지 조선에서의 산업조합의 일 특질 -불이농촌 산업조합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경제학회』 46-4, 2005, 115~142쪽), 하지연의 연구(『일제하 불이흥업주식회사 전북농장의 "솔핍"제 운영과 성격』, 『이화사학연구』 49, 2014, 119~157쪽) 등이 있다.

제33장 축전과 전시회

□ 일본 왕자[皇太子]의 탄생 봉축

군산부에서는 1933년 12월 23일 탄생하신 일본 왕자의 탄생 축하회 및 봉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궁중 축하회 개최일인 1934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군산부에서는 부회를 소집해 추가예산으로 봉축비를 계상, 가결하였다. 동시에 사토(佐藤) 부운을 봉축회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각 위원을 정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이윽고 봉축 당일 23일이 되자 온 시내는 일장기와 헌등, 각양각색의 장막, 만국기 등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봉축 분위기로 가득 찼다.

오후 1시부터 군산부 주최로 공원 아래 공설 운동장에서 봉축제(奉祝祭)를 집행하였고 부민 모두가 참석하였다. 축제가 끝나자 소학교 아동을 선두로 보통학교²⁹³⁾, 고등여학교²⁹⁴⁾, 중학교, 청년훈련소 재향군인분회, 소방조, 각종 단체, 일반 부민이 열을 지어 각자 손에 일장기를 흔들며 시내를 행진했다. 그리고 4시부터 부청의 누상에서 성대한 봉축연을 개최했다. 또한 오후부터는 봉축 가장행렬, 변장 행렬, 장식한 다시(山車), 포장마차 등 80여 종의 볼거리가 있었다. 더불어 무구 전람회, 무도대회, 꽃꽂이 대회가 개최되고, 저녁에는 제등행렬이 있었다. 이렇게 3일 동안 군산시내는 밤낮 할 것 없이 환희와 감격, 기쁨에 겨운 춤의 도시로 변했다. 군산 개항 이전까지 이런 축제는 없었다. 게다가 3일 동안이나 작은 사고 하나 없이 무사하게 끝났음을 선포하고 4만 부민들의 충성을 십분 표현한 것은 거듭 축하할 만 했다.

□ 군산부 공회당 낙성식

건축 외관의 아름다움, 구조의 장대함, 설비의 완벽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선 전체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군산부 공회당(규모 설계는 앞 장 참조)의 신축 낙성식은 1934년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공회당 2층 대규모 홀에서 거행되었다. 내빈 4백여 명이 참석한

293) 보통학교는 1906년 보통학교령에 의해 세워진 교육기관으로 학년은 3학기제, 수업일수는 연 200일 이상, 2년 이내의 보습과를 둘 수 있게 했다. 1911년 제 1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수업연한은 4년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1년을 단축할 수 있게 했으며 입학연령은 8세 이상으로 했다. 1922년 2차 조선교육령은 다시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렸고, 지역에 따라 4년 또는 5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게 했다. 2년 고등과는 일본의 고등소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94) 1908년 '고등여학교령'에 의해 설립된 여성 중등교육기관이다. 수업연한은 3년이지만 지방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년제의 본과 이외에 각각 2년 이내의 예과나 2년 이상의 기예전수과를 두었다. 예과는 10세 이상의 여자를 대상으로 보통학교교육을 실시하고 기예전수과는 15세 이상의 여자를 대상으로 실과교육을 했다. 1차 교육령에 의해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수업연한을 4년 또는 5년으로 늘렸고, 일본의 고등여학교에 준하도록 했다.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명칭이 다시 고등여학교로 바뀌었고, 고등과, 전공과, 보습과를 두었다.

가운데 국가 합창을 시작으로 군산부 오카(丘) 내무과장의 공사보고(별도로 게재), 사토 부운의 설계자 본부 기사 사사 게이이치(笹慶一), 하청업자 시노다 요시(篠田芳), 경성 하가 공무소(芳賀工務所),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경성 하라이상회(原井商會), 공사주임 군산 부기수(群山府技手) 나카무라 기헤이(中村喜平), 부회(府會) 부의장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및 의원 일동, 상공회의소 회장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및 의원 일동, 일반 부민 유지 대표 이소베 겐야(磯部謙哉) 외 20여 명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그리고 사토 부운의 식사(별항 게재) 이후 내빈 혼도(本道) 지사대리, 아베(阿部) 내무부장을 비롯한 수많은 내빈들의 축사와 각지의 축전 낭독이 이어지고 폐회를 맞이했다. 지사 대리의 만세 삼창, 사토 부운의 인사로 연회가 시작되어 여흥을 즐긴 후 누상에서 임시 가계를 펼친 후 3시에 산회했다.

공사보고

군산부 금정(錦町) 이즈미가오카(泉ヶ岡)의 좋은 땅에 군산부회당 건축을 계획하였다. 1933년 1월 설계자로 조선 권위자인 총독부 기사 사사 게이이치를 위촉하는 한편 부회에 건축위원회를 두어 신중하게 연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설계 계획대로 실시하기 위해 공비에산 10만원을 건축 예산으로 결정하였다. 1933년 8월 7일 업자 13명을 지명해 경쟁 입찰하여 군산의 업자 시노다(篠田)에게 78,700원에 낙찰되었다. 같은 달 11일에 청부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준비에 착수해 31일 지진제(地鎮祭)를 올리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청 업자의 헌신적 노력과 날씨에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어 12월 16일 상량식을 올리게 되었다. 부속 공사인 난방 및 급수 공사비는 8,250원으로 경성부 황금정(黃金町) 2정목의 합자회사 하가 공무소, 전기 배선 공사는 3,400원에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전기 기구 공사는 2,000원에 경성부 황금정 하라이 상회가 하청을 받았다. 각 업자들은 상호 연락 협조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시공하여 모든 하청 업체가 순조롭게 예정된 공정을 맞추었다. 기공 후 8개월이 흘러 1934년 4월 30일에 준공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사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부지 면적은 697평으로 공회당 별관이 부설되어있다. 건물은 벽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4층 구조이며 높이 57척, 건평 274.9평, 합계 644.8평이다. 공회당 1층은 군산상공회의소 및 상품진열소이며, 회의소사무실 13.9평, 응접실 12.9평, 회장실 11평, 회의실 20.5평, 상품진열실 24.1평 외에 계단 현관, 숙직실, 탕비실, 사환실, 창고 등 총 120평이다. 2층 대회장의 면적은 159.4평이어서 1,500명 수용이 가능하다. 그 외 화장실, 흡연실 등을 두고 있다. 3층은 귀빈실, 갤러리, 영사실이고, 옥상인 4층은 평지붕이다.

별관은 식당 및 조리부를 운영하고 있다. 1층에는 29.3평의 식당과 일본식 다다미(畳) 방이 3개 있는데, 각각 다다미 8장, 6장, 4장 반 크기이다. 또한 욕실, 화장실, 창고 및 지하실 창고가 있다. 2층에는 다다미 44장과 17장 반 크기의 일본식 방, 그리고 서양식 방 1개와 화장실, 대기실 등이 있다. 3층에는 베란다가 딸린 다다미 17장 크기의 방이 있고, 양 끝과 4층은 테라스로 되어 있다. 건물은 스팀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으며, 각 층에는 소화 장치를 두고 있다.

사토 부운 식사(式辭)

따사로운 춘풍이 불고 금강의 파도가 잔잔한 길일인 오늘. 지금 여기 군산부공회당 건설 준공의 낙성식을 위해 먼 길을 찾아주신 정부의 고위 관료 분들과 내빈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크나큰 영광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군산은 본래 갈대밭 사이로 들판 어부들의 집이 있던 황량한 촌마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개항 당시 일본인은 겨우 20세대, 조선인은 150세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보고라 할 수 있는 호남의 드넓은 비옥한 평야를 뒤로 하고, 조선의 6대강 중 하나인 금강의 광활한 하구를 바라보는 군산에 발을 들인 사람은 천혜의 경제적 입지를 유감없이 누릴 수 있어 촉망받는 장래를 약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35년이 지난 오늘날 인구는 4만으로, 인접하는 마을을 포함하면 6만을 넘는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적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10년 후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설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로 조선 서해안의 아름다운 항구로, 또한 호남의 웅도(雄都)로 자타가 공인하게 될 것입니다.

1910년 8월, 한국 강제 병합과 함께 이사청(理事廳)을 폐지하고 부(府)로 승격한 제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교통은 러일전쟁 후 호남선 부설이 있었고, 나아가 최근에는 경남선 개통, 군산-김제간의 교량 연결, 제1기 축항 등이 있었으며, 시가,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도 정비되었습니다. 교육, 산업, 기타 도시 시설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과거를 돌아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시 발전에 따라 사회 시설도 군말할 필요 없이 거의 구비되었습니다만, 단 하나 공회당만이 최근의 예상치 못했던 재앙으로 인해 재건이 안 되어, 신발 속의 가려움과 같이 불편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는 일취월장의 기세로 향상되고 잠시도²⁹⁵⁾ 정지하는 일 없음에도 공회당이 준비되지 않은 점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공사 구분 없이 모두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재건에 대한 요망이 절실히 합니다. 생각건대 공회당은 건물 안에서는 전부민의 오락 및 교화의 전당으로 부민의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건물 밖에서는 전 부민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즉 공설운동장과 같은 국민체육 발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도시 시설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에서는 군산의 장래를 염려하여 규모 및 설계에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가지의 어려움을 배제하고 상공회의소관리의 공회당기금 4만 원과 함께 10만 원을 가지고 1933년도 예산을 계상하여 부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곧바로 준비에 착수해 지난 1933년 9월 기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겨우 8개월 밖에 되지 않는 공사를 맡은 시노다구미(篠田組)의 절대적인 노력과 의원, 그 외 제현(諸賢)들의 심대한 원조에 의해 이 자리에서 준공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경하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오늘 낙성식에서 이와 같은 분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하며, 나아가 이 공회당이 부민 모두가 널리 이용하는 문화향상 기관이 되어 공회당의 진의가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로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95) 원문은 수수(須叟)이나 잠시라는 뜻의 수유(須臾)의 오기인 듯하다.

○ 공회당신축기념 강연회

군산부의 정신문화 및 교화기관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공회당이 4월말 준공을 고해, 5월 5일 낙성식을 거행하니 기념할만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가장 먼저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의 니시무라 기쿠고로(西村菊五郎) 대좌 및 경성대학 교수 아카마쓰 도모시로(赤松智城)²⁹⁶⁾ 교수를 초청하여, 낙성식 이튿날 6일 오전 8시부터 대홀에서 공회당 신축 기념강연회를 개최했다. 정각이 되자 사토 부윤이 두 강사를 소개했다. 첫 번째로 니시무라 대좌는 「국방의 보급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국제시국의 중대성에 대해 거침없이 열변을 토했고, 이어 아카마쓰 도모시로는 「일본정신과 대승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온축(蘊蓄)해온 지식을 논해 청중에게 다대한 감동을 주었다. 11시를 기해 폐회한 이 행사에는 저녁 청중만 약 1,000명에 이르는 군산 미증유의 성대함을 보여 정신문화기관이라는 공회당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군산소개방송의 날

「군산의 저녁」으로 이름한 군산소개 방송의 날은 군산부청,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일보 연합가 주최하고, 군산우체국, 남조선전기회사, 기타 유지들이 후원하였다. 1934년 5월 12, 13일 양일(12일은 오후6시부터 9시40분까지 인근 지역 일원에, 13일은 오후 0시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조선 및 일본 전역에 방송되었다)에 걸쳐 공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보다 먼저 경성방송국²⁹⁷⁾ 간부들이 군산에 와서 주최 측과 방송관계자 대표와 회합하여 프로그램 편성 및 기타 사항에 대해 회의를 갖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이윽고 개최 당일 12일이 되자 마이크를 공회당 대홀 무대에 설치하고 청중을 향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12일: 오후 6시부터 6시 3분까지 주최자 인사, 6시 3분부터 7시까지 아이들 시간(창가, 동요, 이야기=이상 중학교, 여학교, 소학교, 보통학교 생도 및 아동), 7시부터 8시 10분까지 조선인 예능(쇼와 권번[昭和券番]), 8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 일본인 예능(삼요정(三料亭), 군산10경, 군산 노래(群山小唄) 등)

이어 13일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방송했다.

13일: 0시 50분부터 53분까지 주최자 인사, 53분부터 1시 23분까지 보통학교 아동, 1시 23분부터 2시 20분까지 소학교, 2시 20분부터 50분까지 여학교, 2시 50분부터 3시

296) 아카마쓰 지조우(赤松智城, 1886~1990)는 종교학자로 1927년~1941년 경성제국대학교수를 지냈다.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조도진슈(浄土真宗) 덕응사에서 태어났다. 1910년 교토제국대학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1920년~1923년까지 유럽에서 유학했다. 패전 후에는 야마구치대학 교수를 지냈다.

297) 경성방송국은 1927년 서울에 설립된 방송국으로 그해 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말과 일본어 방송 비율이 1:3이었다가 2:3으로 바뀌었다. 일본어 방송은 경제시황 보도, 우리말 방송은 물가시세, 일기예보 등이었다. 그리고 1929년 9월부터는 일본 방송을 그대로 중개했고, 국악과 기상예보, 물가시세 독자적으로 방송했다. 1932년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1935년에는 경성중앙방송국으로 개칭했다.

30분까지 중학교, 5시 30분부터 33분까지 주최자 인사, 5시 33분부터 6시까지 조선인 예능(쇼와 권번), 6시부터 25분까지 아이들 시간(조선), 6시 25분부터 7시까지 아이들 시간(일본), 7시부터 30분까지(소학교, 여학교), 7시 30분부터 50분까지 부윤, 회장(會頭), 우시오(牛尾) 국방의회장의 군산소개강연,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군산 근교 사적과 명소 소개, 8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라디오 풍경 「폭소관광단(爆笑觀光團)」, 10여 명 「군산 노래(群山小唄)」, 군산예기연(群山藝妓連) 반주, 군산 오케스트라

이들에 걸쳐 진행된 방송의 날은 최초 시도으로써 예상외의 호성적을 거뒀다. 군산을 안팎으로 소개하는 데 매우 유의미하고 유효했다. 조선 내는 물론 일본 각 도시에서도 친인척과 지인들에게서 다수의 호평과 칭찬 엽서가 도달했다고 하니 그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훗날 참고하기 위해 사토 군산부윤의 「금강 강가, 군산에서(錦江河畔 群山より)」, 하나오카 상의회장의 「쌀의 군산(米の群山)」, 우시오 군산국방의회장의 「조선국방의회의 현상에 대해(朝鮮國防義會の現狀に就いて)」, 다케나가 군산공립중학교 교유(敎諭)의 「군산근교의 사적(群山近郊の事蹟)」을 「마이크를 통해서(マイクを通じて)」라는 제목으로 수록해 놓았다.

마이크를 통해서- 금강 강가, 군산에서

군산부윤 사토 노리시게

오늘은 군산의 날로 전파를 통해 전국의 제현들에게 군산의 개황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은 제게 있어 무엇보다 영광입니다. 참으로 기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은 '郡山'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群山'이라고 쓰기 때문에 조선 전라북도 군산부에 있습니다.²⁹⁸⁾ 부산, 경성 간의 중간인 대전역에서 호남선으로 들어오며, 서해안의 인천, 목포의 중간인 금강 강가에 있습니다. 금강은 조선 6대 하천 중의 하나로 경상북도의 경계선을 긋는 지리산에서 시작됩니다.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충청남도로 들어와 공주, 강경, 부여의 도읍을 흘러 군산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조선의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길이는 천 리에 달합니다. 이 하구에 있는 군산항은 강폭은 1,000m에서 2,000m에 달하고 수심은 간조 시에도 5m 내지 9m 정도이며, 간만의 차도 6, 7m 정도 있습니다. 출입하는 선박 수는 실로 놀랄 정도입니다. 이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의 최고 기록은 5,000톤급입니다만, 보통은 하적과 조류 관계상 3,000톤급 이하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해마다 진해 요항부(要港部)의 구축함 등도 자유롭게 출입합니

298) 일본 후쿠시마(福島)에 있는 지명 고리야마(郡山)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다. 항구의 무역액 최고치는 7,000만 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강 유역에 있는 경지의 면적은 45만 정보 가량으로 쌀의 보고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토지가 비옥하고 수리 관개 사업이 보급되어 있으며 농사 개량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단보(段步)에 평균 두 석의 쌀이 생산되는 것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00만 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산액이 됩니다. 미국 문제가 극심한 오늘날 대량의 쌀이 생산된다는 것을 듣기만 해도 쌀의 홍수를 떠올리겠지요. 하지만 제국 식량문제의 앞날을 생각하면 또한 벼이삭의 나라, 산업입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주산물인 쌀의 생산증가는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딴 곳으로 흘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양의 쌀 대부분이 우리 군산항을 거쳐 오사카, 고베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입니다. 실제 1년간 반출되는 양이 200만 석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제권은 전라북도는 물론 전라남도 일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로 여섯 개 도라고 하는 실로 광범위한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거주인구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군산이 천혜의 지리를 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군산의 장래 발전을 가히 상상케 합니다.

285만 원을 투입한 제1기 축항도 지난 1933년 3월에 완성되었고 현재 3,000톤급 선박이 옆으로 정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출·반출입 화물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어 이 3개의 잔교로는 수출·반출입 화물의 40% 밖에 하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60%의 화물은 근해에 정박한 채 하역하기 때문에 하역비를 고려하여 제2기 축항이 시급히 시공되어야 합니다. 군산 항구를 한 번 시찰해 본 분들은 모두 통감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제2기 공사는 공비 97만 원으로 선박 3척을 옆으로 정박시킬 수 있기에 매우 유리한 사업입니다.

군산부의 시가 면적은 138만 평입니다. 서쪽으로는 해망산(海望山)이 있고 뒤로는 달맛이를 즐길 수 있는 군산공원이 있으며, 소나무 사이에 산재해 있는 수천 그루의 벚꽃이 있어 꽃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꽃피는 시기가 되면 임시열차가 다닐 정도입니다. 또한 시가지 부근에는 수백만 평의 평야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라도, 어떠한 도시 계획이라도 가능합니다. 인구는 부내가 약 4만 명이고, 이 가운데 일본인이 1만 명입니다. 인접 마을까지 합치면 이미 6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어제오늘의 증가율은 7.4%이지만 이를 적게 보아 6%라고 계산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구역의 확장과 함께 11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1899년 개항을 시작해 올해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항 당시에는 20세대의 일본인과 150세대의 조선인 가옥이 드문드문 있는 실로 한산한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군산이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장족의 발전을 이룬 데에는 선배들이 기울인 도시 시설 확충 노력이 다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산의 행정청은 1899년 목포 영사분관이 설치되며 시작되었습니다. 1906년 2월에는 이사청이 되었고, 1910년 8월 한국 강제 병합에 의해 현재의 군산부가 설치되어 오늘날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는 시장이 시정을 맡고 있지만, 조선은 관리인 부윤이 부정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1931년 4월부터 군산부가 자치단체 결의기관이 되어 27명의 의원이 부민에 의해 선출되어 부정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의 세입, 세출, 예산 등은 해마다 증감이 있습니다만, 특별경제(特別經濟)를 더 해 6, 70만 원 정도입니다. 시가계획은 2회에 걸쳐 72만 원이 투입되었고, 상수도 역시 66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로, 상하수도 등은 완비하여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시설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자면 ①도서관, ②공회당(1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1,500명 수용 가능), ③공익 전당포, ④공설 목욕탕, ⑤공설 이발관, ⑥공설 운동장(7,000평), ⑦동빈과 서빈 어시장, ⑧식량품시장, ⑨조선인시장, ⑩병원, ⑪묘지와 화장장, ⑫도살장, ⑬공원, ⑭매립지, ⑮하역장(荷揚場), ⑯죽림(竹林) 등입니다.

위생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위생기관으로는 군산도립의원(群山道立醫院)이 있고, 각 과에는 우수한 박사, 학사 등 십 수 명이 있습니다. 130명 수용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도립병원은 평양과 대구, 군산뿐입니다. 또한 시내에도 의학박사, 의학사 등 개업의가 13곳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과정인 군산심상고등소학교(群山尋常高等小學校) 1개교(28학급)와 보통학교 1개교(25학급)가 있습니다. 또한 중등과정으로는 군산공립중학교, 군산공립고등여학교, 상업보습학교, 사립가정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립 청년훈련소가 있는데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사열(査閱)에서 이곳처럼 성적이 좋은 학교는 조선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사열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아 보육기관으로 유치원 2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십팔은행(十八銀行), 조선상업은행, 동일은행(東一銀行) 5개 지점이 있고, 금융조합도 3개 있습니다. 무진회사(無盡會社)와 신탁회사 지점도 있습니다. 관공서는 부청 이외에 경찰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옥구군청, 곡물 검사소, 우체국, 세관지서, 형무지소, 전매국출장소, 수산시험장, 군산역, 농림성 경성미 곡사무소 출장소, 토목공영소(土木工營所), 세무서, 헌병분주소(憲兵分駐所), 도립의원 등이 있습니다. 신문 및 통신기관은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군산일보사, 실업의 조선사 이외에 일본, 조선의 대도시에서 발행하는 17개 지사, 지국이 있습니다. 기타 군산상공회의소, 미곡거래소,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등 30여 개의 회사, 공장이 있습니다.

이상 군산의 개황이었습니다. 장래와 관련된 문제는 헤아릴 수 없지만 4, 5개 정도만 들여보자면 ① 도시산업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공업도시다워야 할 것과 ②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을 한층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강건한 정신, 문화의 향상을 꾀하는 것, ③ 상공,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충실히 하는 것, ④ 서해안 유일의 수륙비행장 설치, 군영 설치, 혹은 제2기 축항, 장항역에서 군산역을 연결하는 금강철교가 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2기 축항은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철교문제와 같이 공사비의 어림셈이 37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계획과 경제 관계도 충분히 재산이 있어 유리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10년 후 군산은 인구가 11만 명을 넘고, 위와 같은 시설도 갖추어져 있을

것이기에 대안(對岸)과의 교통이 편리하고, 수륙 연락 역시 완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력 있는 서해안. 이 가운데 유일하게 발랄한 분위기가 흘러넘치는 항만도시로 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딱딱한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의 군산

군산상공회의소장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우리 군산항은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조선 6대 하천의 하나인 금강 하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도로 말씀드리면 일본 본토 호쿠리쿠(北陸)의 후쿠이(福井), 도쿄 부(東京府)의 하치오지(八王子)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기후도 비교적 온난하여 도쿄 인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899년 개항 이후 35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3월 국책으로 많은 공비를 들여 제1기 축항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선박의 출입이 나날이 증가해 도쿄, 오사카, 규슈 등 한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해안지역과 중국 각지와 교통이 점차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호남선을 통해 경성 및 부산으로 이어지고, 또한 경전선과 경남철도를 통해 여수와 경성으로 연결되어 실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대평야의 목구멍과 같은 위치에 있어 지금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쌀의 군산'으로 일본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군산항의 물산은 농산품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근래 '쌀'이 점점 명성을 떨쳐 1년 동안 백만 석이 오사카, 고베, 나고야, 도쿄, 그 외 주코쿠(中国), 규슈 등 각 방면으로 이송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래 미국 통제 문제에 관해 일본 본토로부터 여러 비난을 받았습시다만, 이것도 결국 식량 문제에서 조선쌀이 가진 확고한 지위를 보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해(近海) 해산물의 집산지로서도 상당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해에서 잡히는 어획량은 1년에 3백만 관(貫)에 달합니다. 대어와 소어 등 각각의 품종을 망라해 여러 사람의 기호에 적합한 어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류 가공 공업에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루어 향후에는 조선과 일본 본토, 만주국 방면에 이르는 넓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공업 방면에서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정미(精米) 공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근대적 설비를 갖춘 대규모 공장도 있지만, 그 외의 공장들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큰 공장의 진출 없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육해 교통망의 중심인 군산이 지금 이상의 우수한 기술과 투자를 획득한다면 장래에 더욱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 방면에서는 미국과 그 외의 농산품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본토, 만주 및 중국 방면에서 면사포(綿糸布), 포목, 잡화, 건축재 및 석탄류를 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반출에서 도출되는 초과액 2천 4백만 원이 군산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농촌을 윤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화의 분배를 고려해 봐도 군산 경제 발전의 장래가 괄목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산은 육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부민 또한 항상 협력 단결하여 대군산의 건설 즉 생산도시, 수산도시, 무역소비도시로서 기강을 완성하기 위해 오로지 매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아 여러분을 따분하게 만들었습니다만,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산 미인들의 여흥도 마련되어 있으니 군산 분위기를 충분히 만끽하신 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군산을 찾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선국방의회의 현황에 대해

군산국방의회장, 군산부회부회장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우리 군산부는 조선 전라북도 금강 하구 왼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남 보고(寶庫)의 탄토항(呑吐港)이라 불리고 있으며, 한반도 남쪽의 경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방의회에서도 출선해서 이를 조직하였고, 이후로 부민은 열성적인 봉공 관념 아래에 항시 국방의 충실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산방송일을 맞이하여 저는 조선 국방회의 현황 요점을 간추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은 약 10분. 매우 간략하지만 국가 비상시인 오늘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필히 마음에 새기며 들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은 선린 동맹국인 만주국과 접해 있어 일본제국의 대륙정책상 국방 제1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에 주재한지 30여 년.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 정세와 동아시아 상황은 점점 이러한 마음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의회의 책임 또한 점차 중대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의 국방의회는 만주사변 발발 이전인 1931년, 당시의 조선군 사령관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대장(이 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육군대신으로 만주사변 때는 조선군을 통솔해서 단독으로 행동한 장군으로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제20사단장 무로 겐지(室兼次) 중장(이 분은 만주사변 당시 용산 제20 사단의 정예를 이끌고 진저우성[錦州城] 점령에서 용맹을 떨쳐 조선 민중과는 지극히 친밀

한 분입니다), 조선군 참모장 고다마 도모오(児玉友雄)²⁹⁹⁾ 소장(이 분은 러일전쟁 만주군 참모장인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 장군의 아드님으로 현재는 중장으로 승진되어 시모노세키 요새사령관직을 맡고 계십니다) 등 조선군 수뇌부와 당시 전라북도 김제(金堤)에 이주해 있었던 후쿠이(福井) 예비보병대사(이 분은 전 참모본부의 요직에 있었고 장래가 촉망되던 분인데 건강상 예비역에 편입되었다가 작년에 서거하셨습니다) 같은 분들은 담소를 나눌 동안에도 항상 나라를 걱정하셨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에 머지않아 우리 국민이 거국일치하고, 군국과 동양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가을이 올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론을 환기시키고 민심을 고무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들의 각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분들의 불타오르는 진충보국(盡忠報國) 열성에 매우 감격해 국민정신강화 방법에 대해 여러모로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민심작흥(作興)과 국방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민중에게 현재 일본제국의 국제적 입장과 외교국방, 산업, 경제 등 모든 방면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군산과 이리(裡里), 전주 세 곳에 국방연구회와 같은 조직이 설립된 것입니다. 국방연구회는 이후 국방의회로 개칭되었는데 이것이 조선에서 국방의회가 조직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설립 이후 우리는 국방의회의 뜻을 조선 전체에 보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마침 예상치도 못했던 만주사변이 발발하게 되었고 상해사건, 만주국 독립, 국제연맹 탈퇴와 같은 중대한 국제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한 반도의 민심은 돌연 국가적 관념의 부흥기운을 불러일으켜 국방의회 같은 조직이 각지에 연이어 발의되기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직 3년도 지나지 않은 오늘. 현재 조선 국방의회 수는 이백 수십 개에 달하고 회원도 오십만을 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매일, 매달 증가하는 추세이니 머지않아 한반도 전역에 보급되어 회원 수가 백만에 달하는 상황 또한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국방의회의 융성이 이와 같지만 이를 지휘하고 통제할 중앙기관이 없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유감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중앙연합회의 설립을 제창하고 각 방면의 찬성과 원조를 구하는 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운(時運)이 무르익어 우리들의 제창에 찬성한 경성국방의회가 설립되었고, 그해 4월 15일 경성에서 전조선국방의회연합회 발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일 황공하옵게도 이왕전하(李王殿下)를 처음 알현하였고, 우가키(宇垣) 조선총독, 가와시마(川島) 조선군사령관, 스즈키(鈴木) 재향군인회장, 우메자키(梅崎) 제20사단장, 우시지마(牛島) 제19사단장, 조선귀족대표 박영효 후작, 이윤용 남작, 그 외 총독부의 이마이타(今井田) 정무총감 이하 각 부서 과장, 군참모장 이하 각 수뇌부 및 각 도지사, 그 외 전국의 귀빈들을 내빈으로 모셨습니다. 더불어 각지 국방의회장을 비롯한 참가

299) 원문에는 ‘児玉支雄’로 되어 있으나 ‘児玉友雄’의 오키이다.

인원이 3,000명을 넘어 장엄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회장에 이마이다 정무총감, 부회장에 박영효 후작, 아리가(有賀) 식산(殖産)은행 대표 이사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외 이사 선임도 막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국방 의회의 진용이 모두 갖춰져 일본과 조선 2천 만 민중의 중견이 하나로 단결되었습니다. 군국을 위해 노력을 다하려는 충렬열성(忠烈熱誠)의 지성(至誠)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으니 가히 비상시 일본국민의 정화(精華)라 할 만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반도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제국의 기반을 더욱 견실하기에 참으로 경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국방의회를 더욱 더 발전·보급시켜 재향군인회, 청년단,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 등의 국가적 단체와 서로 도와가며 국민정신의 부흥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준비태세를 갖추고, 나라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거국일치하며, 후방에 있는 중견으로써 제1선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뒷날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게 만들어 최종 목적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국위선양의 다음은 일본 왕의 뜻(聖旨)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9천만 동포 여러분께 조선 국방의회의 현황을 보고하고 여러분이 분발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나아가 일본, 외지를 완전히 통일 지도해 머지않아 태평양 문명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동양평화의 초석인 대일본국방의회연합회 발회식이 제국의 수도에서 거행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 마지하지 않습니다.

군산근교의 사적

군산공립중학교 교사 다케나카 야스오(竹中康雄)

저는 지금부터 군사 부근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향토사(鄉土史)로서 이 부근의 역사를 조금 조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둘째, 군산은 신생 도시로서 예로부터 이어져 온 정치적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史蹟)으로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제목이 ‘군산 근교의 사적’이지만 내용은 군산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말씀 올릴까 합니다.

군산은 본래 삼한시대 백제의 땅입니다. 도읍이 있었던 부여는 군산에서 금강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있습니다. 군산에서 당일치기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백제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신라는 중국의 당과 동맹을 맺어 일본과 우호국이었던³⁰⁰⁾ 백제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도 배워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00) 원문에는 “일본의 보호국이었던 백제”라 하여 마치 백제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쓰여 있으나 명백한 오류이다.

백제가 멸망한 660년 7월. 당나라는 조선에 12만 수군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해군이 처음 조선에 도착한 곳이 군산부 수원지가 위치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금강 하천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산으로서는 매우 귀중한 전설이기에 먼저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소정방(蘇定方)을 총사령관으로 한 당나라의 해군이 금강 즉, 당시의 웅진강(熊津江)에 도착한 날은 배를 어디에 정박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안개가 심한 날이었습니다. 소정방은 하는 수 없이 부근의 자그마한 언덕에 올라가 산신령에게 ‘제발 이 안개를 걷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군할 수 있게 된다면 천 개의 사찰을 지어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원대로 효험이 금세 나타나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밝아져 그는 배를 정박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정방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약속대로 천 개의 사찰을 짓고자 산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았는데 천 개의 사찰은 커녕 열 개의 사찰도 지을 수 없을 만큼 산이 험소하였습니다. 때문에 할 수 없이 천 개의 돌을 쌓아 절터를 잡고 한 개의 절을 지어 이를 천방사(千房寺)라 이름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천방이라는 것은 천 개의 온돌이라는 의미로 큰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은 수원지 뒤편에 위치해 있어 지형도에는 설림산(雪淋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은 그 후 여러 변화를 거친 뒤 군산에 수원지가 생기면서 폐사(廢寺)되었습니다. 선종암(善宗庵)이라는 사당 앞에 세워져 있던 5층 석탑만 옮겨져 현재 군산공원 위에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 전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백강(白江) 즉, 백촌강(白村江) 전투입니다. 이 해전은 일본 해군과 당나라 해군이 싸운 이른바 일본 해전(海戰)이자 역사상 특기할 만한 전투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그 잔당이 백제 부흥의 깃발을 내걸었을 때 일본이 결연하게 부흥군(復興義軍)을 지원하여 당나라 군사와 싸웠던 해전입니다. 다시 말해 천년만년 끊임없이 ‘서쪽 오랑캐[西戎]’라 칭하고, 춘추에 조공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맹세한 백제가 멸망할 위급한 상황에 빠지자 일본이 국운을 걸어가면서 백제의 부흥을 돕기 위해 봉기한 의로운 싸움이었습니다.³⁰¹⁾ 이 정신은 조선을 향한 일본정신의 발로입니다. 단지 일개 소국인 백제를 구원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반도 민족의 멸실을 막으려는 큰 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덴치 일본왕(天智天皇)의 뛰어난 식견에서 나온 대업이자 예부터 견지해 온 야마토(大和) 조정의 전통적인 조선정책 결과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해전은 우리 군대의 패배로 끝나고, 백제와 다년간 신의를 나누고 긴 세월 상당한 국비와 인력을 다해 원조한 백제부흥사업도 좌절되었습니다. 당시 생명선이었던 반도 내 일본 국익은 이로 인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되뇌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백강 즉, 백촌강입니다. 옛 역사서는 백강을 금강으로 적어 두었는데, 이는 편의대로 백강과 백마강을 하나로 묶어버린 잘못된 처사입니다. 요즘 학

301) 백촌강 전투에서 일본이 백제 왕자 부여 풍을 보내어 백제 부흥군을 도운 일을 말한다.

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백강은 금강이 아니라 군산의 남쪽 방면에 위치한 만경강 혹은 동진강일 것이라는 설이 유력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술적 증거를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금강은 한동안 물길이 바뀌어 지금처럼 군산의 북쪽을 흐르면서도 다른 줄기는 군산의 동쪽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만경강으로 유입된 흔적이 있습니다.³⁰²⁾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에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회현면은 예로부터 연강(連江) 즉, 연이은 강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금강과 만경강이 예전에 합류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지명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곳이 백강의 고증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과 백제는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친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만주국과의 관계 이상으로 당시 양국 간의 교통이 매우 빈번했다는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제 전성기 무렵, 불교 연구를 위해 일본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부여에 온 젊디젊은 세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587년의 일이니 지금으로부터 1346년 전입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시마메(島女), 도요메(豊女), 이시메(石女)이며, 당시 시마메는 갓 15살이었다고 하니 그 당시 야마토(大和) 여성의 기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강 아래로 조금 내려온 곳에 일본인이 3천 명 가량 이주했었다는 전설의 땅도 있습니다. 당시 부여 마을 곳곳에서 일본인의 흔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백제부흥군에 참가한 일본인 중에서 전투에 지고 고향에 돌아갈 바람마져 사라져 먼 이국땅에 남게 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은 금강 유역 입구의 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인 자손 전설이 내려오는 부락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저는 이 부근 시골길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1700년 전 일본 왕실의 존엄한 위세가 전북의 산골짜기에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조선인들의 피에는 일본인들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언어풍속은 다르지만 우리는 피와 살을 나눈 진정한 형제였고, 오늘날 내선병합을 이루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후 군산의 역사는 외교관계를 완전히 떠나 왜구 횡행시대에 접어들습니다.

전라, 충청, 경상도는 예로부터 삼남의 보고라고 칭해졌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쌀 산지로서 고려, 조선시대부터 한반도의 경제 중심이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화폐가 없었던 시절에 쌀과 면포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조선 중종 때 이 일대에 세금 즉 쌀이나 면포를 잠시 보관하는 창고인 군

302) 백촌강 전투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용어이다. 우리는 백강구전(白江口戰), 백강전쟁(白江戰爭)이라고 한다. 660년 백제 멸망 직후 백제부흥군이 주체가 되어 일본의 지원병과 연합하여 나당연합군과 벌였던 전투이다. 현재 백강 또는 백강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군산포, 금강, 동진강, 홍성 부안 등의 설이 있다. 백강구 전투는 일본이 한국의 침략하면서 회자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일본의 임나일본부설과 함께 일본의 한국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활용되었다.

산고가 세워졌습니다. 이로 보아 군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 혹은 교통 면에서 항구 혹은 쌀의 군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산고의 역할은 모인 쌀과 면포를 정해진 시기에 배에 실어 경성에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송을 조선에서는 조운(漕運)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재정상 중요한 작업으로 운용여부는 중앙정부의 명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완벽히 운용되지 않으면 농작물의 상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의 녹봉도 완전히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운이 잘못 활용되어 반란의 씨앗이라도 되면 국가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고를 보호하는 군비가 필요하여 군산포영(群山浦營)이라는 해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창고를 노렸습니다.

예로부터 왜구라고 하면 해적선을 떠올리지만 저는 왜구가 일종의 밀무역 상인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왜구는 강도,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불령(不逞)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국민의 경제 상태와 왜구 출몰 장소가 그 증거입니다. 왜구의 전리품은 주로 쌀이었습니다. 그 때 일본에서는 중국이나 조선과의 무역으로 쌀이나 목면류를 얻지 않으면 나라를 경영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원구(元寇)의 난³⁰³ 후 일본을 원망하여 일본에 대해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봉책(封冊)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을 본받아 쇄국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입장은 일본입니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인정(人情)입니다. 규슈, 시코쿠의 용감한 사람들은 섬 하나 없는 머나먼 현해탄을 건너 중국과 조선 연안을 오갔습니다. 다행히 성공해서 돌아오면 큰 벌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도 나도, 심지어 일자리를 얻지 못한 무사까지 뛰어들어 점차 왜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반도에서는 더욱 더 엄중히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한다 해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저 맥없이 물러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칫 대항하면 허리의 주초(朱鞘, 주칠한 칼집)에 손이 닿아 강도 행위를 벌이는 것도 실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므로 나쁜 면만 보면 강도단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다름 아닌 밀무역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 지역에는 쌀이 많이 나고 면포도 생산되고 게다가 이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곳곳에 있어 왜구는 빈번히 이곳을 침범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비책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옛 통신기관인 봉화대입니다. 봉화대는 군산을 중심으로 14,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군산에는 군산포영(群山浦營)이 금강 양안에 성을 쌓아 그 부근에서 수비를 하였습니다. 봉화대는 꽤 정돈되어 있지만 해군은 거의 무력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상세히 말씀드려도 흥미가 없을 것이기에

303)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을 말한다.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조선 광해군 시절, 즉 도쿠가와 시대 초기에는 대동공미법(大同貢米法)이라는 세금징수법이 생겼습니다. 이후 1652년(효종 3) 군산에 호남청(湖南廳)을 설치하였습니다.³⁰⁴⁾ 대동이란 것은 모든 세금 징수를 쌀로 대신하는 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군산창(群山倉)³⁰⁵⁾에서 담당·처리하였습니다. 이 관청은 본래 군산부청이 있던 북정구(北亭丘) 즉, 군산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 군산 개항 전까지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전술했던 대로 군산에는 포영을 두어 호남청 및 기타 방비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보다 먼저 군산 먼 바다의 고군산(古群山)이라는 섬에는 군산진(群山鎭)이 있었는데 군산진 역시 부근 수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호남진지(湖南鎭誌)』³⁰⁶⁾를 보면 군산진은 1701년(숙종 27) 왜구에게 전멸당해 군산진을 군산으로 옮겼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³⁰⁷⁾.

이후 군산창은 줄곧 나라의 창고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은 예전부터 가림주구의 나라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지방은 극도로 피폐해 창고마저 지방 관리의 사유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군산은 벽지에 위치한 이름 없는 어촌이었기 때문에 이후 내용은 거의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 후부터 조금씩 일본인이 들어오고 교통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군산은 항구로써 그 가치를 점점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 1899년 5월 1일 개항장이 되어 올해만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점차 일본인 이주자 수도 증가하여 쌀의 군산으로 일본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전라북도 도민대회

전라북도도회의원 우시오 마사이치, 히구치 도라조, 히가키 마고사부로(이상 군산),姜완선(姜完善, 이상 전주), 군산상의회장 하나오카 쓰루마쓰 5명이 주최한 전라북도 도민대회는 1934년 7월 28일 오후 3시부터 군산공회당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전주, 이리, 군산 지역의 유지들이 대회장을 찾았고, 간담회장에는 도내 각지 유지와 신문통신 관계자, 부내 유지, 일반부민이 찾아들었다. 간담회 의제는 「군산항만 수축확장(修築擴張) 건」, 「군산항 금강철교 가설 건」 두 가지였다.(계획 및 설명서는 아래에 게재) 우시오 도

304) 호남청은 대동미 실시와 함께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을 출납하는 6개의 지청 중 하나이다.

305) 군산창은 1512년 개설되어 19세기 말까지 운영되었던 조창으로 전주와 그 주변 지역의 세곡을 모아 경창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306) 『호남진지』는 1895년에 제작된 책자로 전라도에 있는 각 진에서 편찬한 진지와 사례를 합해서 편찬한 책이다. 총 3책으로 편자는 각 진의 진장인 첨사, 만호 등이었다.

307) 군산진은 1408년 옥구의 수영을 무안 대굴포로 옮긴 이후 군산 지역의 해상 방어와 조운업무를 위해 1426년 옥구현 북쪽에 설치했다. 조선후기 호남의 조창은 영광의 법성창, 군산의 군산창, 익산의 성당창이 있었고, 그중 군산창과 성당창은 군산진 만호가 관리하고 있었다. 군산진은 호남 최대의 세곡 운반을 관할하던 관청이었다고 할 수 있다.

회의원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우시오 마사이치를 좌장으로 추대하고, 좌장 일동에게 설명서를 배포하였다. 앞서 살펴본 두 개 안건은 선언, 청원서 낭독 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 선언

- ① 군산항만 수축 확장 건
- ② 군산항 금강 철교 가설 건

위 항목은 경제 또는 국책에서 매우 간절하고 유리한 사업이다. 더욱이 시국을 비추어 볼 때 급히 시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도민대회는 이 목적 달성에 기한다.

1934년 7월 28일 전라북도 도민대회

○ 청원서

군산항 수축 확장 및 군산항 금강 철교 가설 공사는 별책에 있는 설명서대로 경제와 장래 국책 상 매우 유리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시국을 비추어 볼 때 시급히 시설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신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의논하시어 각하의 재단(裁斷)을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민대회 결의에 따라 삼가 청원 드립니다.

1934년 7월 28일 전라북도 도민대회

위 청원은 내각총리대신, 대장대신(大藏大臣), 육군대신, 척무대신, 육군참모총장, 조선총독, 조선군사령관, 제20사단장에게 전보로 발송하였다. 동시에 정무총감, 내무국장, 재무국장, 농림국장, 식산국장, 경무국장, 철도국장, 철도국이사, 전라북도지사에게 배려해 주기를 전보로 보냈다. 이어 각지에서 온 전보를 낭독한 후 대회를 마쳤다. 전라북도도회의원인 하시모토 히사시(橋本央), 강완희(姜完曦), 조재돈(趙在敦) 3인이 이를 제출하였고 다음으로 「동진강 개수 및 가교 축진에 관한 건」을 토의에 붙였다.

동진강 개수 및 동진강 가교는 전라북도 도세(道勢)의 진전을 위해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 이상에 대해 전라북도 도평의회 및 도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 전자는 1회, 후자는 4회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그 실현을 보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산업 개발을 저해하고 지방 주민의 생명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실현해야 한다. 이 사안의 촉진 방법을 도민대회에서 결의하기 바란다.

좌장이 위 제안을 토론에 붙이니 만장일치로 가결 결정되었다. 이 역시 당국의 요로(要路)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후 청원위원 선정이 있었는데 이전 항만조사회 총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어 이를 생략하고 강완선(姜完善, 전주), 하시모토 히사시(橋本央, 김제), 다카야마 도시로(高山聰郎, 이리) 3명을 선정했다. 다음으로 히가키 마고사부로(檜垣孫三郎) 외 10명이 연서를 작성하여 「조선의 무역항 거룻배(艇取) 및 잔교 화물 운반영업 단속

령 공포 청원 건」을 건의안으로 제출하였고, 좌장은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이를 가결하였다. 이 대회는 5시 반에 좌장의 폐회선언으로 산회하였다. 당일 대회는 성황리에 끝났으며 심히 유의미했다. 위 안건의 진정(陳情)을 위해 진정위원이 선정되었고, 위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부 요로(要路)에 진정을 청원했다.

제34장 가정공업 장려 좌담회와 금융좌담회

군산부에서는 도시진흥책의 중요안건으로 1934년 8월 가정공업장려좌담회와 금융좌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 가정공업장려좌담회

1934년 8월 13일 오후 1시부터 군산부청 누상(樓上)에서 가정공업장려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출석자는 가정공업 조사위원 및 신문통신 관계자 40여 명이었고, 사토 부윤이 좌장석에 앉아 1934년도 예산에 계상, 가결된 신영사업(新營事業)에 대해 말하였다. 신영사업은 직업장려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등나무세공제조(藤細工製造), 버들고리 째³⁰⁸⁾ 제조(柳行李製造), 모난풀솜³⁰⁹⁾제조(眞綿製造), 견모사제조(絹毛絲製造), 죽세공제조(竹細工製造) 등이었다. 이에 대한 원안을 제시한 뒤 좌장은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도시진흥책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하려면 부업 및 가정공업을 장려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사람들 마음을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1934년도 예산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직업장려관은 이 취지를 바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실습 이외에도 수신, 강화(講話), 주산, 국민체조 등을 연습하고 아침저녁으로 청소하며 나아가 보은감사의 날을 두어 국민정신을 단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신과 물질의 교화를 가정에 이르게 하고 사회에 보급하여 공존공영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업 중에 실행 불가능하거나 생산, 거래, 판매 등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 사업 이외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나 부(府) 내외 특산품 개량에 필요한 점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의견과 희망이 속출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이 앞서 서술한 사업이었기에 이부터 개시하기로 하였고, 이 결과를 끝으로 의미 있었던 회의를 산회했다.

□ 금융좌담회³¹⁰⁾

308) 버들고리째는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상자를 말한다.

309) 모난풀솜은 쌍고치를 가성소다 용액에 삶은 다음 사각틀 위에 고치층을 깔아 만든 풀솜으로 수방사의 원료가 된다(네이버, 농업용어사전)

310) 조선에서 금융좌담회는 1930년 일본의 금해금 조치 전후로 신문사, 상공회의소 등이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 1930년 일본이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해 금수출금지를 폐지했지만, 1931년 금해금을 재금지하여 금본위제에서 탈퇴했고, 이후 달러환율과 보유량이 일본 통화가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군산부에서는 도시진흥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금융좌담회를 1934년 8월 21일 오후 1시부터 부청사 누상에서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금융업, 반출입무역업, 제조업 관계자였다. 정각이 되자 사토 부윤이 좌장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었다.

- ① 중산계급 이하 상공업자에 대한 금융을 한층 철저하게 보급하는 방법
- ② 현재 용자에 대한 자금 수요자측의 희망 및 금융업자의 소견
- ③ 기타 도시 진흥과 금융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좌장은 대강 다음과 같은 개회 인사를 했다.

도시진흥책의 근원은 정신적인 것에 의하기도 하지만 금융에 기반한 바가 매우 크다. 중소상공업자가 많은 도시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그런데 금융 대책을 관리들의 머리만으로 확립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래도 금융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의견이 없으면 안 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과 조선 양 쪽에서 농촌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성적 역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농촌에서 진흥의 결과가 나온다면 자연히 도시도 번영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된 불황으로 위축되어 침체 경계에 있는 도시 중소상공업자는 도저히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금융이라는 강심제 주사를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즈음 금융계는 돈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업자에게는 그 돈이 돌지 않아 혈류가 막힌 안 좋은 상태이다. 요컨대 오늘 좌담회의 중심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이다. 여러분들의 기탄없고 거리낌 없는 의견을 주기 바라며 동시에 의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공동매입 구매조합 조직(共同仕入購買組合組織), 저리자금 대부, 간이생명보험 저리자금 대부, 신용의 유지와 향상, 중소상공업자 영업 통제, 기타에 대해 각종 의견이 나왔다.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① 도매업자조합을 조직하고 공동 매입을 할 것
- ②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저리자금을 받아 도시금융조합이 한 구좌 당 5,000원까지 대부할 것
- ③ 부에서도 간이생명보험 등의 저리자금을 받아 소액 구좌 산업자금(한 구좌 당 2,000원 이하)의 대부를 할 것
- ④ 금융상담소를 설치하여 금융에 관한 사항은 물론 상업의 제반 부담 정리 등의 상담에 응할 것
- ⑤ 자금수요자의 신용을 향상, 증진시킬 것

되었다. 이시기 일본은 자국통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시장의 통화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과 일본의 재계에서는 금융좌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상황을 전망하고, 일본정부와 총독부의 통화정책을 분석하거나 통화증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 ⑥ 교통기관의 발달로 이윤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판로 개척과 확장을 도모할 것
- ⑦ 장래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일한 영업에 관한 통제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 없도록 할 것
- ⑧ 조합 또는 연대 채무에 의한 자금 차입 방법이 없도록 할 것

당일 좌담회는 매우 유의미하고 수확이 많았다. 안건의 실현을 향한 노력을 부탁하는 좌장의 당부를 끝으로 산회했다.

제35장 개항35주년 기념사업

1934년은 군산 개항 35주년에 이르는 해이다. 과거의 존귀하고 빛나는 역사를 회상·재인식하고, 나아가 장래의 진흥 발전을 준비하기에 매우 감격스럽고 뜻깊은 해이다. 군산부는 1934년 10월 신량(新涼)의 계절을 맞이하여 개항 35주년기념제 및 축하회를 성대하게 거행하고, 이어 35주년 기념사업 협찬회를 설치하는 등 수많은 기념사업을 시행했다. 이는 군산의 새로운 35주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열의와 노력으로 가득한 신흥 군산은 희망으로 가득찬 빛나는 장래를 향해 힘차게 한 발짝 내딛을 것이다.

□ 개항 35주년기념제와 축하회

군산개항 35주년기념제는 1934년 10월 12일 오전 11시부터 군산신사에서 열렸다. 참가자는 각 공관의 관리, 은행회사, 공사단체, 부민 유지 등 수 백 명이였다. 행사는 경례, 축사 낭독, 수불(修祓), 다마구시 봉전(玉串奉奠), 경례 순으로 진행되어 정오에 장엄하게 폐식했다.

이어 오후 12시 반부터 공회당에서 개항 35주년기념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국가합창 뒤 사토 부운의 식사, 다카모토(高本) 도지사(告辭), 이어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경성을 시작으로 지방의 현관, 명사, 유지의 축전 낭독이 이어졌다. 이 날 군산에 거주하는 최고참자(最古參者)로서 공로가 있는 자, 25년, 20년, 10년 이상 공직에 종사한 자에게 감사장, 표창장, 기념품을 수여하였고, 개항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던 자와 고령자에게 표창장, 기념품을 수여한 뒤 폐회했다. 곧바로 시작된 축하연은 3시에 끝이 났다. 축하회를 찾은 사람은 지방의 내빈을 합쳐 600명에 이르렀다.

○ 공로자 표창 = 감사장, 금배(金杯)
오사와 도주로(大澤藤十郎),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 공로자 표창 = 감사장, 은배(銀杯)
아마노 기노스케(天野喜之助, 도쿄, 옛 군산 부운), 오쿠라 요네키치(大倉米吉, 교토 거주),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 도쿄 거주), 요코야마 요이치(横山與市, 도쿄 거주)

○ 25년 이상 공직 근속자 표창 = 표창장, 은배
나카시마 만키치(中柴萬吉), 이소베 겐야(磯部謙哉),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 20년 이상 공직 근속자 표창 = 표창장, 은배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 고히라 스케타로(香原助太郎), 니시무라 마타사부로(西村又三郎), 히가키 마고사부로(檜垣孫三郎), 모리 기쿠고로(森菊五郎)

○ 10년이상 공직 근속자 표창 = 표창장, 은배

김홍두(金洪斗), 마쓰다 기치지(増田吉次, 작고), 이토 미쓰사부로(伊藤光三郎), 마쓰모토 이치고로(松本市五郎), 아베 에이타로(安部榮太郎, 작고), 요코야마 요이치(横山與市), 시미즈 기사쿠(清水喜作), 우에다 보쿠(上田朴), 모리타 시게오키(森田重興, 작고), 가나모리 겐조(金森玄三, 작고), 간바야시 마쓰요(神林松吉), 오카베 쓰네스케(岡部恒祐, 작고), 한다 다키요시(半田瀧吉)

○ 개항 당시 거주자 표창 = 표창장, 목배(木盃)

오카다 스에요시(岡田末吉), 이와모토 나카지(岩本仲二), 우에노 가네(上野カネ), 야마키타 이치에몬(山北市右衛門), 미쓰요시 유키(光吉ユキ), 다니구치 이타로(谷口伊太郎), 주씨(朱氏), 이씨(李氏), 김수강(金壽強), 이루제(李屢提), 김생수(金生水), 최경옥(崔敬玉), 섭경조(燮敬祚), 차윤모(車允模), 김상용(金相庸), 차승준(車承俊), 정재천(鄭在天)

○ 고령자 표창 = (80세 이상) 표창장, 목배

이노우에 다지마쓰(井上多治松), 하나오카 도키(花岡トキ), 마쓰야마 테루(松山テル), 스즈키 마시(鈴木マシ), 야마모토 이오(山本イヲ), 아키토모 기치(秋友キチ), 다케무라 소노(竹村ソノ), 고바야시 후지(小林フジ), 와타나베 다메요시(渡邊爲吉), 고미네 도쿠(小嶺トク), 가모 히데(加茂ヒデ), 하라 세키(原セキ), 노지마 도요쓰구(野島豊次), 다구치 마치(田口マチ), 야마모토 쓰루(山本ツル), 쓰치야 우노스케(土屋卯之助), 이의범(李儀凡), 차정권(車貞權), 정봉거(鄭奉去), 윤창엽(尹昌燁), 최씨, 권필중(權弼重), 김영칠(金永七), 이씨, 조기선(趙基先), 김수강(金壽強), 이씨, 윤씨, 모성평(牟成平), 김효열(金効烈), 최씨, 최씨, 김윤범(金潤範), 이씨, 원지달(元之達), 성난수(成蘭秀), 조씨(曹氏), 정윤금(鄭允今), 오성국(吳成國), 임상동(林上東), 이씨, 조병문(趙秉文), 강두형(姜斗馨), 정씨, 강덕순(姜德順)

□ 전라북도 수산품평회

전라북도 수산회와 도내 어업조합이 주최한 전라북도 수산품평회는 10월 11일 오전 11시부터 부청 뒤편에서 거행되었다. 먼저 아베(阿部) 회장(전라북도 내무부장)의 식사, 다카모토 도지사의 고사, 식산국장(대리) 사토 부윤을 시작으로 내빈의 축사가 있었고 출품 대표의 축사로 폐회했다. 출품작의 수는 1,800점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하지만 장내의 정비, 진열의 배합, 출품물의 우수성을 볼 때 보기 드물게 훌륭한 전람회라 할 수 있다.

□ 군산소학교 개교 35주년 기념식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개교 35주년 기념식이 학교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다카모토 도지사를 비롯한 내빈이 다수 참석하여 식사, 축사를 했다. 부윤은 영년근속자(永年勤續者) 엔도 도쿠로(遠藤德郎) 교장(15년), 다나카 마사노리(田中正徳) 훈도(20년), 이토 마사토(伊東政人) 훈도(14년), 후지사키 가쓰요시(藤崎勝義) 훈도(10년), 도쓰카 소타로(戸塚總太郎) 교의(18년)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폐식했다.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 전북특산물 선전 즉매장(即賣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부립직업장려관에서 개최되었다. 즉매품은 가구류, 목재기구, 건어물, 수예품, 편물, 세공물, 기타 여러 특산품이었다. 부내는 물론 다른 지방에서 온 고객이 쇄도했다.

□ 제1회 조선곡물협회 연합회 대회

히시쿠(菱ク)곡물협회 주최로 제1회 조선곡물협회 연합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풍요를 기원하는 가을인 1934년 10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미곡 무역도시, 쌀의 군산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은 물론 일본 각 도시 미계(米界)에서 권위 있는 많은 이들이 출석했는데, 그 수는 내빈을 포함해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회장은 군산소학교 강당을 이용했다. 첫째 날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였는데 가장 먼저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총회를 개회하였다. 회무 및 결산 보고에 이어 해산 결의를 했다. 이어 조선곡물협회연합회 창립총회를 열고 예산 및 임원을 결정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이 연합회가 설립되었다.

대회 시작과 함께 곡물상조합연합회 간사장 사이토 히사타로(齋藤久太郎)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 히시쿠곡물협회장 아베 메이지타로(阿部明治太郎, 전라북도 내무부장)가 주최자 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이후 총독부 농림국 기사 요시이케 시로(吉池四郎)가 우가키(宇垣) 총독의 고사를 대독하였고, 호세키(穂積) 식산국장(殖産局長), 야마사와(山澤) 상공과장, 사토 부윤, 기타 일본 측 각 단체의 출석자 대표와 조선 각지에서 온 내빈 축사가 있었다. 뒤이어 일본, 조선에서 보내온 약 500통의 축전 소개가 있는 뒤 의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각지의 제안은 의결에 따라 가결되었다. 이틀에 걸친 뜻깊은 행사는 조선 산업사상 빛나는 페이지를 기록하고 폐회를 고했다. 주최자 측 및 부에서는 13, 14 양일간 저녁에 내빈을 공회당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환영회를 개최했다.

□ 조선농구실연전람회(朝鮮農具實演展覽會)

조선미비일보(朝鮮米肥日報)가 주최한 조선농구실연전람회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공원 밑에 있는 공중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출품물은 총독부 식산국 상공과 도량형 등 각지에서 온 출품물이 많았다. 특히 개량농구, 발동기 등은 많은 이목을 끌었다.

□ 옥구군 농촌진흥 전람회

옥구군농회 및 군교육회 주최로 옥구군 농촌진흥 전람회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군산역 앞 건건장(乾繭場)에서 개최되었다. 회장은 양잠관, 임업관, 규육 및 사회관, 진흥관, 축산관, 농사관의 6개 부로 나뉘었다. 농산어촌의 실황을 전시해 군민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 장려하기를 촉진했다. 그리고 자력갱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관에서는 모형을 진열하여 실물 대조를 통해 이상향의 실현을 촉구하게 했다. 관람객은 매일 쇄도하여 예상외의 호평과 호성적을 거두었다.

□ 전선산미품평회(全鮮産米品評會)

히시쿠국물협회³¹¹⁾가 주최한 전선산미품평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명치정(明治町) 상업회의소 터에서 개최되었다. 조선 각 지방의 쌀을 진열하고 있어 때맞추어 열린 전선미곡상연합대회에 출석한 일본, 조선의 미곡관계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 교통관 및 포장 전람회(荷造品展覽會)

철도국이 주최한 교통관 및 포장전람회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청 누상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장내에는 교통 및 포장에 관한 수많은 모형과 그림이 진열되어 있었다. 진열품은 지식 계발과 더불어 일반민이 알아야 할 바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 전라북도 교육품 전람회

전라북도 교육품 전람회는 전라북도교육회 및 군산부교육회 공동주최 하에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군산소학교 및 군산역 앞 잠견취급소(蠶繭取扱所) 2곳에서 개최되었다. 조선 각지 초·중등 전문학교 생도와 아동이 만든 그림과 수예, 수공품이 전시되었고 일본, 만주에서 온 출품작도 다수 있었다. 두 회장 모두 규모와 비를 확대해서 완전을 기했기에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방 관람객이 끊이지 않아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니 이러한 종류의 전람회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311) 히시쿠국물협회는 다카하시 모헤이(高橋茂兵衛)가 1932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3도의 미곡상을 규합하여 조직했다. 다카하시는 1916년 조선 강경에 와서 곡물상, 정미업을 했다. 1919년 강경곡물상조합장으로 추대되었고, 1927년 충남도곡물조합연합회를 조직하여 부회장에 추대되었다. 1932년에는 조선곡물상협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 추기대학(秋期大學)

전라북도교육회 및 군산부교육회가 공동주최한 추기대학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공회당에서 개최했다. 강좌는 주간과 야간 2회로 강사 및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목: 『일본문화와 서양문화의 특질』 강사: 경성제국대학 교수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³¹²⁾

과목: 『법률과 도덕』 강사: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타카 도모오(尾高朝雄)³¹³⁾

과목: 『동양과 서양의 관계』 강사: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키히라 다케히코(奥平武彦)³¹⁴⁾

군산에서 처음 한 시도였기에 청강생도 많았다.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

□ 전라북도교육회총회 및 교원정신진흥대회

전라북도교육회 제11회 총회는 전라북도교육회 주최로 10월 30일 공회당에서 개최했다. 출석자가 600명이었다. 아베(阿部) 교육회장(전라북도 내무부장)의 교육칙어(教育勅語)³¹⁵⁾ 봉독에 이어 회장의 식사, 다카모토(高本) 도지사의 고사(告辭), 야마다(山田) 학무과장의 회무 보고가 있고, 사토 부윤이 축사를 했다. 이후 전라북도 교육공로자를 표창한 뒤 경성제국대학 교수 아베 요시시게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교원정신진흥대회를 개최했다. 당일 교육공로자로 표창을 받은 직원은 다음과 같다.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장(群山公立尋常高等小學校長) 엔도 도쿠로(遠藤徳郎), 전주공립보통학교장 우시지마 노부오(牛島信男), 장수공립보통학교장(長水公立普通學校長) 간사키 기쿠지로(神崎菊次郎), 금강공립보통학교(金講公立普通學校長) 데라다 데쓰지(寺田哲児), 안천공립보통학교장(顔川公立普通學校長) 김일헌(金日憲)

폐회식 후 공원 및 운동장에서 현직 중에 고인이 된 전라북도 직원 59명의 위령제를 장엄하게 집행했다.

□ 각종 행사

각종 행사는 다음과 같다. 생화, 깃발 행렬, 골동품전람회, 제등행렬, 씨름, 스모(相撲), 활동사진, 궁도호남연합대회, 유도, 검도, 총검술대회, 국화품평회

312) 아베 요시시게(1883~1966) 일본의 철학자로 교육자이면서 정치가이기도 하다. 1909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유럽에 유학을 다녀왔다. 1920년 호세이대학교수, 1926년 경성제국대학교수를 지냈고, 1940년에는 모교였던 구제제일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1945년 귀족원의원, 1946년 문부대신, 학습원원장을 지냈다.

313) 오타카 도모오(1899~1956)는 법학자로 법철학을 연구했다. 구제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법학부를 졸업했다. 1928년 동 대학 법문학부 조교수가 되었고, 193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를 지냈다. 1944년 다시 도쿄대 법학부 교수를 지냈다.

314)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정치외교사를 가르쳤다.

315) 교육칙어(教育勅語)는 일본이 1890년 10월 31일에 반포한 「교육에 관한 칙어(教育ニ関スル勅語)」이다. 일본 국민들의 수신, 도덕, 우애, 조화 등의 기본 수양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일왕에 대한 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 개항 35주년 기념탑

개항 35주년 기념탑은 군산공원 등나무를 옆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절경의 장소에 건립되었다. 탑은 석비로 높이 1장 8척, 폭 5척이다. 표면에는 사토 부운의 휘호로 「개항35주년」이 쓰여 있고, 뒷면에는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가 작성한 군산개항 35년간의 연혁의 개요가 적혀있다. 기념탑 제막식은 12월 15일 오전 11시부터 현장에서 관민 유치가 참석한 가운데 장엄하게 집행되었다. 히구치 도라조(樋口虎藏) 따님의 제막으로 시작해 공사보고, 사토 부운의 식사, 내빈의 축사가 이어진 뒤 폐식했다. 끝난 후에는 공회당에서 축하연을 개최했다.

제36장 국민정신작흥운동(國民精神作興運動) 주간 시설사항

군산부에서는 1932년부터 국민정신작흥운동³¹⁶⁾ 주간을 정하고 각종 시설을 만들어 국민정신 작흥에 힘써왔다. 조칙을 반포한 1934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다음과 같이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시국에 맞추어 부민의 자분자발을 촉진하여 다대한 효과를 거두었다.

○ 주간 연일 시행사항(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 신사참배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정신함양 및 국체관념의 명징(明徵)을 기하기 위해 매일 아침 신사참배를 할 것
- 국기제양
매일 아침 오전 7시 반 포성(煙火)을 신호로
- 아침 일찍 기상하고 아침 참배 시간 이행
아침 일찍 기상하고 아침 참배의 시간 이행 습관을 관행하기 위해 매일 오전 6시 반에 부청 사이렌을 신호로 각 사원의 범종을 1분간 타종
- 수양단(修養團) 청소년부에서는 매일 오전 6시 부청 앞에서 집합해 시가지를 구보행진하여 신사에 도착해 민심작흥 기원을 행할 것
- 생활개선
 1. 색복 착용, 단발 이행, 조선인의 색복 착용 및 단발을 실행할 것
 2. 일상생활 개선의 첫걸음으로 절주, 절연(節煙)을 실행할 것
 3. 음료수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조심을 할 것
 4. 한 세대에 한 사람 이상 비황(備荒) 저축을 실행할 것
- 공덕(公德) 함양
 1. 도로는 반드시 좌측통행할 것
 2. 공원의 수목, 가로수를 사랑하고 보호할 것
 3. 각종 세금 납기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
- 위생
쓰레기통, 오물 수거장의 청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 체력증진

316) 만주사변 이후 총독은 국민정신작흥운동을 제창했다.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하고 치안유지법 위반자에 대한 보호감찰을 강제했다. 이를 통해 민족운동세력과 사회주의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이들을 전향시키고자 했다. 나아가 조선인에게 신사참배, 황거요배, 기미가요 제창, 일본어 보급,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등을 강제로 행하게 했다. 1932년부터 매년 국민정신작흥운동 주간을 정해서 황민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각 가정과 단체, 기타 관공서, 학교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야외 운동을 왕성하게 실행할 것

○ 11월 10일

• 조서(詔書) 봉독식

일시: 10일 오전 7시 반

장소: 군산신사 및 광장

주최: 군산부 재향군인 분회, 국방의회

참가: 일반부민

(식순)

1. 일동정렬
2. 경례
3. 개회식 선언
4. 국가합창(악대 연주)
5. 조서봉독
6. 총독성명서 낭독
7. 만세 삼창
8. 폐회식
9. 해산

• 각 학교의 시행사항

각 학교에서는 당일 오전 중에 조서봉독식을 행하고 총독성명서를 낭독해 훈화를 할 것

• 대조환발(大詔渙發) 강연회

일시: 10일 오후 7시 반(신호로 포성을 울림)

장소: 공회당

강사: 조선군사령부 고급부관 야마구치(山口) 대좌

○ 11월 11일

• 가정 청정 이행

아침 일찍 신사 참배 후 각 가정에서는 청소, 물품정돈, 기타 미화작업 등을 실행할 것

• 민심작흥선전

각 극장, 활동영사를 이용해 민심 작흥을 선전하고 관내에 선전 포스터를 붙여 선전할 것

○ 11월 12일

• 부내 총동원 미화

아침 일찍 신사를 참배한 후 이어 부내 사람들을 총동원해 마을과 집 앞 부근 도로 미화작업을 행할 것

• 이동 강연

일시: 당일 오후 5시부터(신호로 포성을 울림)

장소: 부내 적당한 곳

강사: 부내 유지

○ 11월 13일

• 보은감사일

1. 각 가정에서는 황거요배(皇居遙拜)할 것
2. 당일은 반드시 선조의 영을 기리고 신사나 절을 참배할 것

○ 11월 14일

• 군산부 교화진흥위원회 발회식

일시: 당일 오후 1시

장소: 부청 누상

• 군산개항 35주년 기념 회구(懷舊) 강연회

일시: 당일 오후 7시(신호로 포성을 울림)

장소: 부청 누상

강사: 부내 유지

○ 11월 15일

• 항례(恒例) 부민총립운동 참가 장려

당일은 부민총립운동일로 학교와 기타 단체가 대열을 정비하여 아침 일찍 신사를 참배할 것

• 정신작흥 활동 관련 영화회를 개최할 것

일시: 당일 오후 7시(신호로 포성을 울림)

장소: 공회당

○ 11월 16일

• 건강증진일

아침 일찍 신사를 참배하고 공원 광장에 집합하여 황거요배, 구보, 체조, 만세 삼창 후 해산

• 학생연설대회

일시: 당일 오후 7시(신호로 포성을 울림)

장소: 공회당

변사: 부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아동 생도

□ 도시진흥 사회교화 강습회

군산부에서는 도시 교화진흥운동을 위해 193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회교육가 사카모토 마사유키(坂本昌之)를 초청하여 서본원사(西本願寺) 절에서 도시진흥 사회교화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사는 「인간만사의 문제는 사람 마음 작흥의 근원을 규명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조하여 청중에게 다대한 감동을 주었다. 3일 동안 성황을 이루고 막을 내렸다.

제37장 도시진흥시설

군산부에서는 1934년 11월 자력갱생과 정신작흥을 기조로 도시진흥책을 수립하고, 6일 각 방면의 대표자와 유지를 초청하여 정진흥실행회(町振興實行會), 단체 교화실행회, 진흥청년단, 진흥부인회, 군산부교화진흥위원회라는 5개 실행기관 단체를 설치했다. 이들 지도강령 및 실행 요목은 다음과 같다.

□ 정(町) 진흥실행회

- 단체의 정화(精華)를 발양하고, 국민정신의 작흥에 노력할 것
- 공존공영의 정신에 따라 내선일치(內鮮一致) 협동공민(協同公民)의 훈련을 쌓아 사회 진보와 개선을 꾀할 것
- 사회 연대 의식을 분명히 하고, 공동협력의 미풍을 조장. 특히 향토 마을[鄉土聚落]의 진흥에 힘쓸 것
- 말없이 실천하고, 아주 편안하게 조용히 바라보며, 의존하려는 마음을 배제한다. 극기인고의 수련을 참아내어 자력갱생의 발랄한 기력을 기를 것. 경제생활의 도덕적 의의를 밝히고 교화를 운용하여 국민 실생활에 들어맞을 것
- 산업 발달을 도모하고 소비의 합리화에 노력하여 새로운 생활의 기본을 확립할 것

각 공관서, 학교, 은행, 회사와 기타 상공단체, 또는 조합, 공장 등에서 자력갱생, 정신작흥에 정진하려는 목적으로 각 단체마다 교화진흥실행회를 조직하고 교화진흥위원회와 연락, 협력 일치해 결실을 거둔다.

□ 진흥청년단

부내 거주 청년이 진흥청년회를 조직하고, 교화진흥위원회와 연락 협조해 청년의 의의를 고양하여 일본정신을 체득하고, 발랄하고 건강하고 왕성한 체력에 의해 군산의 교화 진흥에 기여할 것

□ 진흥부인회

부내 일반 부인을 망라해 부덕(婦德)의 수양과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진흥부인회를 설치한다.

□ 군산부교화진흥위원회

각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여러 교화단체의 대표자 및 공직자와 교직 경험이 있는 인물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부 전체에 자력갱생, 정신작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각 실행회를 지도하여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실행 요목

- 군민 일체. 세계에 비할 바 없는 우리들의 국체를 고조(高調)할 것
-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사상을 함양하기 위해 매일 아침 군산신사를 참배하고 참배가 곤란한 자는 1일, 15일에 참배할 것
- 축제날 반드시 각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장려할 것
- 公德심을 함양하기 위해 신사, 불각, 공원과 기타 공유물을 소중히 할 것. 각종 집회에서는 폐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부민 지식의 향상, 정신교화를 위해 공민 강좌를 개설하여 일반 부민의 공민교육에 이바지할 것
- 타력적(他力的)이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타파하기 위해 자기 집 정리정돈, 도로 청소 등은 각 가정의 가족들이 반드시 행할 것
- 근무정신 고조를 위해 매일 아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기상할 것. 이를 가정행사로 여겨 집주인 스스로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함. 가족 총동원으로 행할 것
- 상공업 발달과 사회적 추세에 유의하여 예산에 맞추어진 생활을 실행하고, 생산 진흥, 근검저축을 장려할 것
- 도지사 유고(諭告) 사항을 실행하고, 관혼상제와 기타 낭비를 줄여 종래의 저속한 풍습을 개선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시간 존중을 위해 정시를 지킬 것. 약속 시간 등은 반드시 엄수할 것

제38장 기부, 헌금과 송덕

□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의 미담

남조선전기주식회사(南朝鮮電氣株式會社) 전무 대표(取締役)이자 전라북도 도회의원, 군산부회 의원인 히구치 도라조는 개항 당시부터 군산에 거주하며 많은 공직에 종사하였다. 일찍이 군산상업회의소 회장(會頭)이라는 요직에 취임한 뒤 군산의 진보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마침 1934년은 군산개항 35주년에 해당하는 해로 이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개항기념일인 5월 1일에 군산부에서 소상공업자 생업자금으로 3,000원을 기부하고, 이 자금의 운용은 부운에게 일임하였다. 또한 히구치는 1926년 공민구제자금으로 1,000원을, 1934년 12월 농촌 부업장려비로 1,000원을 옥구군에 기부했다.

□ 요코야마 요이치(横山與市)³¹⁷의 미담

군산에 다년간 거주하다 몇 년 전에 도쿄로 돌아간 요코야마 요이치는 1934년 6월 군산공립소학교 운동장 용지 구입비 10,000원을 군산부에 기부하였다. 요코야마는 일찍이 군산에서 무역상을 경영하는 한편 공직에도 종사하여 군산의 공공사업에 진력했다. 현재는 항만 건너편인 충남 서천군 길산면(吉山面)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 오쿠라 요네키치(大倉米吉)의 흉상 건립

군산의 독행가이자 공로자인 오쿠라 요네키치는 집안 사정상 1932년 5월 25일에 25년간 거주했던 군산을 뒤로하고 교토로 이주하게 되었다. 군산부민은 그의 인격과 공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흉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토 부운을 건설 발기인 대표로 추대하고 기부금 모집에 착수했다. 이에 914원을 기부 받아 오사카의 미쓰코시(三越) 사진부에서 주문제작한 사진을 기초로 삼아 부내 석공 마루야마 다이치로(丸山太一郎)에게 의뢰하여 흉상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건설 장소는 군산공원(신구 공원 경계지)의 경승지이다.

발기인 대표 사토의 주최로 오쿠라를 초청하여 1934년 5월 4일 오후 1시, 신록이 푸르른 현장에서 흉상제막식을 거행했다. 관민 유지 및 일찍이 오쿠라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100여 명이 참석했다. 후지타 후미이치(藤田文市) 자녀의 제막으로 식이 시작해 후지타 후미이치의 경과보고, 사토 발기인 대표의 식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오쿠라는 정중하고

317) 요코야마 요이치는 1872년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1888년 인천으로 들어와서 무역상을 시작했고, 1903년 군산부 전주통으로 이주하여 무역업을 했다. 민단의원, 상업회의소 의원을 지냈다. 1917년에는 미곡상조합 이사, 요코하마요이치(横山與市)상점을 운영했다.

겸손하게 답사를 하였고 뒤이어 참석자의 축하, 기념촬영 등이 있었다. 1시 40분 식이 끝나자 참석자 일동은 부청 누상으로 오쿠라를 초대하여 환영 다과회를 개최하였다. 사토 발기인 대표의 인사 뒤 내빈이 일어나 오쿠라의 인격, 덕망, 공적을 칭찬, 송미하고 마지막으로 오쿠라의 감사가 이어진 후 4시에 산회했다. 흉상의 표면에는 「오쿠라 요네키치 옹(大倉米吉翁)」이라는 글자가 쓰여있고, 뒷면에는 발기인대표 사토 노리시게(佐藤徳重)가 쓴 다음 글귀가 새겨져 있다.

오쿠라 요네키치 옹은 성품이 인자하다. 그 옛날 조선 산업개발의 웅대한 계획을 가슴에 품고 1908년 군산에 와서 경계지역에 100만원을 투자해 농장을 개발하였다. 지극한 사랑으로 천여 명의 소작인을 보호하여 덕망이 매우 높았다. 중학교, 법원지청의 신축에 출선하여 수만 원을 기부하고, 공공사업에도 진력하는 등 그 노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1932년 조선을 떠났으나 동지들이 모여 기념 흉상을 세워 그 훈적을 우러르고 영원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발기인 대표 사토 노리시게 근술(謹述)

□ 이소베 겐야(磯部謙哉)³¹⁸⁾의 영광

군산 유지 중 장로인 이소베 겐야는 1934년 4월 20일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일본왕 주최) 꽃놀이에서 지방 공로자로 초대되는 영광을 얻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소베 겐야가 처음이었다. 이소베는 이러한 무한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관민 각 계층의 동정어린 은혜로 생각했다. 1934년에는 도지사로부터 지방공로자로 2번 째 표창을 받았다. 이 해는 그의 군산 거주 만 30년이 되는 해이자, 고희의 나이가 되는 해였기에 감사의 마음이 더해져 자축의 의미로 관민 100여 명을 공회당에 초대해 자축 연회를 열었다. 사토 부윤의 감사와 축하 인사가 있고 나서 여러 내빈의 축하가 이어져 성대한 연회가 되었다. 참고로 이소베는 군산상업회의소 초대 회장(會頭)으로 이후 계속해서 여러 공직에 취임해 군산의 공공사업에 진력하였다. 전기(前期)에는 관선 전라북도 평의원이 되어 지방 개방을 위한 공로가 적지 않다.

□ 방공기재구입비 헌금헌납식

군산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센조(渡邊仙蔵)³¹⁹⁾의 고사기관총(高射機關銃) 헌납과 부민의 방공기재 구입비 헌금 헌납식이 군산국방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1934년 11월 13일 오

318) 이소베 겐야는 1862년에 미에현에서 태어났다. 1905년 토목회사였던 주식회사 후쿠다지점 지배인으로 조선에 왔다. 전라도, 충청도 등지에서 토목용품을 판매했다. 후쿠다 군사지점 주임을 지냈다. 1921년 퇴직후 군산연초조합 사무감독, 군산연초원매팔주식회사 이사 등을 지냈다. 이후 전라북도 옥구군과 김제군에서 농장을 경영했다. 전라북도 군산지역 일본인 유지로 군산상업회의소 초대 회두, 민단의원, 부협의회원 등을 지냈다.

319) 와타나베 센조는 1908년 군산에 건너와 식료품과 잡화 도소매상점을 개설했다. 1912년에는 도매부를 신설하고 1925년에는 점포와 창고를 수축했다. 전라도 옥구군 토지에 농장을 경영했다.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 이사를 지냈고, 상공회의소 평의원, 진흥회 평의원, 정우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전 10시부터 군사령부 야마구치(山口) 대좌, 사카이(酒井) 헌병 중좌, 히라이(平井) 대위가 참석하여 군산공원 아래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참가자는 관공서, 단체, 공직자, 유지, 학교 학생 등이었다. 우시오(牛尾) 국방의회장이 부민 헌납자를 대표하여 헌납 인사를 하였고, 뒤이어 와타나베 센조의 헌납사, 이어 오쿠시(大串) 애국부장 대리, 야마구치 대좌 육군대신 대리가 수납사(受納辭)를 했다. 이어 야마구치 애국부장대리의 인사가 있고,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진 후 폐식하였다. 식이 끝나고 고사기관총의 사격 실연을 한 후 산회했다. 또한 방공기재 헌납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표 97〉 방공기재 헌납자 명단 (단위: 錢)

기부금	기부자
1,600.00	와타나베 센조(渡邊仙藏)
202.92	애국부인회 모집: 국기마크를 거리에서 판매한 이익금
100.00	야마구치 계사타로(山口袈裟太郎): 향전(香典) 답례
100.00	쓰게 하쿠로쿠(津毛百六): 독지기부
100.00	문종구: 위와 같음
100.00	군산부내 모부인: 위와 같음
15.00	아리쓰네 야스쿠라(有常泰藏)
100.00	최학수: 향전 답례
30.00	다나가 시즈오(田中鎮夫): 위와 같음
50.00	니나가와 다카오(蜷川敬夫): 위와 같음
9.70	육군군 유지 대리면 나가미야자키 준이치(長宮崎準一): (면내 유지의 독지기부)
10.00	이시하라 쇼스케(石原恕介): 향전 답례
50.00	명칭정우회: 정우회 총회에 의한 잉여금 특별기부
10.00	군산이발업조합: 이발업자총회에 의한 잉여금 특별기부
106.01	군산불교단: 한행(寒行)에 의한 시내 각호의 헌금
30.00	지방법원지청: 일본 왕자(皇太子) 탄생 축하 여흥상금기부
5.00	무진회사 여흥단: 위와 같음
30.00	경정정우회(京町町友會): 향전 답례
10.00	하나무라 모토요시(花村元吉): 위와 같음
12.00	부인육일회: 향전 답례
10.00	기독교부인회: 독지부인기부
300.00	군산신탁회사: 청산 잉여금기부
50.00	와타나베 사토시(渡邊 敏)
20.00	다카스 카메요(高洲カメヨ): 위와 같음
30.00	이시카와 미키(石川幹): 위와 같음
10.00	군산카페조합대표 다무라 요시고로(田村由五郎): 일본 왕자(皇太子) 탄생 축하 여흥 상금 기부
53.70	지경(地境) 옛 소방조대표 오키다 요네시로(岡田米四郎): 지경 구소방조 해산에 의한 잉여금 기부
1,645.33 ⁽¹⁾	합 계

(1) 기부금의 합계가 1,645.33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144.33원으로 집계된다.

제39장 기타

□ 명물과 명산

특산물인 쌀을 제외한 군산의 명물과 명산품으로는 미어(味魚), 새우강정(海老あられ), 생선 이리(魚の精), 어묵 채(鯛の花), 제과 쇼트(製菓ショット) 등이 있다. 군산부 직업장려관의 죽세공 제품, 등세공제조(藤細工製造), 버들고리작세공(杞柳細工) 등도 공진회에서 우등상 내지 1등상을 수상하여 호평이 자자하다.

□ 여관과 요정



[군산 다니구치 여관]



[와카토미 여관]

여관은 다니구치 여관(谷口旅館), 마쓰모토 여관(松本旅館), 와카토미 여관(若富旅館), 도비야 여관(鳶屋旅館), 아리아케 여관(有明旅館) 등이 있다. 요정은 가게쓰(花月), 신게쓰(新月), 다이요시(大よし), 후지테이(富士亭), 미도리(みどり), 가마쿠라야(鎌倉家), 히사고테이(瓢亭) 등이다.

□ 예기와 기생

일본인 측 화류계에는 권번이 없다. 예기는 각 요정에 전속해 있고 그 수는 40명에 이른다. 조선인 측 기생은 쇼와 권번(昭和券番)에 속한 30명이 있다.

□ 경정유곽(京町遊廓)³²⁰⁾

320) 경정유곽이 있었던 지역은 6조통, 신흥동, 전정(田町) 등으로 불리웠고 해방 이후 명산동이라고 불리웠다. 1930년대 경정에는 칠복루(七福樓), 방본루(芳本樓), 태평각(太平閣), 산월루(山月樓), 대월루(大月樓), 송월루(松月樓), 대화루(大和樓), 상반루(常盤樓), 군산루(群山樓), 송학루(松鶴樓), 명월루(明月樓), 평남루(平南樓) 등이 있었다. 유곽이 들어선 땅은 군산의 금융업자인 사토의 소유지였는데

대실(貸座敷)로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이 8곳 정도 된다. 창기(1종, 2종의 두 종류가 있다) 수는 61명이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곳은 3곳이며 26명의 창기가 있다.



[군산유곽의 일부]



[군산극장]

□ 카페

크고 작은 카페가 총 17곳 있다. 여급 수는 상시 변화가 있기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백 수 십 명에 달할 것이다.

□ 오락기관

오락기관으로는 군산극장³²¹⁾과 상설 활동희소관(活動喜笑館)³²²⁾ 2개소가 있다.

□ 군산 노래(群山小唄)

작자 우시오 류시치(牛尾龍七)

벚꽃. 벚꽃이라 들뜬 마음으로 오르는 산 속. 공원의 호랑나비도 춤을 추네. 안개 낀 강자락을 내려 보니 갈매기와 어선들. 아 군산은 좋은 항구.

사토가 5천평을 일본 민회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경정 유곽은 대도시 유곽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했으며, 일본인 유곽과 조선인 유곽이 있었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도 신흥동 창녀가 등장한다. 1907년 조성된 경정유곽은 일제강점기 한차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1945년까지 영업을 했다. 지금은 명산시장으로 바뀌었다(이정욱,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사회의 변화-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일본연구』 24, 2015, 367~391쪽).

321) 군산극장은 1910년을 전후로 군산의 조선인 중심 상권 지역이었던 강호정(현재 죽성동)에 세워진 군산좌가 1930년대 개복동으로 이전하면서 개칭한 것이다. 군산극장은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공연했는데, 가부키와 신파극을 상연했다. 또한 군산지역 일본인 동경유학생 주최 소인극(素人劇, 아마츄어 연극)이 공연되기도 했고, 군산청년회 주최 영화상영도 열렸다.

322) 희소관은 1920년대 개복동에 문을 연 활동사진 상설 상영관이었다. 관객 7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

불꽃놀이. 한여름 밤 불꽃놀이로 사람들이 수근 대는 금강 강변. 평하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불꽃에 비치는 예기(妓)의 얼굴. 아 군산은 좋은 항구.

◇

축제. 축제로 북적덜 무렵이면 호남평야는 황금 물결. 히시쿠(菱ク) 가쿠치(角千)는 백척, 천 척의 배에 실려 오사카, 도쿄까지. 아 군산 좋은 항구.

◇

선달. 선달이라 눈이 내리면 전시연합(全市聯合) 대방출. 바람에 펄럭이는 노보리(幟)³²³⁾ 소리는 호황. 호황 마을 경기(景氣). 아 군산 좋은 항구

323) 노보리(幟): 상점의 선전, 가정의 기원 등을 적은 폭이 좁고 긴 천을 매달아 높게 세우는 장대.

추 가

□ 군산부 1935년도 예산과 부회

1935년도 군산부 세입출 예산과 신영 사업, 여러 조례 개정을 심의 결정하는 제29회 통상부회는 3월 19일 폐회했다. 본 부회는 1931년 4월, 개정지방제도 실시와 함께 의원 선거를 치룬지 4년만의 일이다. 의원 재임 기간 중 마지막 부회이기에 장내에 감개무량한 기운이 가득했다. 개회 벽두에 사토 부윤이 예산 편성 방침 및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아래의 연설을 했다. 이후 심의에 들어가 7일간 진행된 후 25일 폐회했다. 식료품시장 계상(階上) 설비 매수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는 12개의 수정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부회 폐회 후 제1교육부회, 제2교육부회가 개최되었고 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사토 부윤 연설

지금 제29회 부회를 소집하여 오늘부터 1935년도 통상 예산 및 이와 관련된 제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에 맞추어 부정(府政)에 관해 소회(所懷)를 털어놓고, 각 의원 분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제 개인적인 영광입니다.

1934년은 군산항 개항 35주년에 해당하여 각종 기념사업이 기획 시행되었습니다. 항구 전체가 모두 친화의 노력을 기울여 각 사업 모두 상당한 성적을 거두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제 개인 일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1934년도 신영사업인 직업장려관은 1934년 8월 25일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0월말에 준공하게 되어 소기의 계획대로 12월 1일 개관식을 거행하고 라탄 및 대나무 세공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제1기 강습생 26명이 수료했고 수료생 모두 성적이 양호하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빈 공동하역장(東濱共同荷揚場) 지붕 건설은 재래 건물을 제거하고 뜻대로 진척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으나, 9월 30일에 겨우 건설 청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역장의 지붕은 공비 4만 5,000원으로 군산 청부인 오마스 히로이치(大益廣一)의 손에 의해 12월말 대체적인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하는 데에 지장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하역장 철도 연결선(引入線)은 철도 당국과 여러 번 교섭한 결과 당국에서 부설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이미 공사에 착수, 근시일 내에 준공을 볼 것입니다.

또한 서쪽 해안 철도 부설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사설철도로 부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취지로 신청한 결과 지난 2월 28일부로 올해 2월 28일부터 앞으로 50년간 면허를 취득하였기에 공사 전반을 철도국에 위탁하고 현재 시공 중이므로 이번

달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본 철도 및 동빈 연결선 연장과 기타 면허와 경영 등에 관해서도 철도국과 관계국에 있는 여러 간부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이 기회를 빌려 보고합니다.

1935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듬해 1936년도부터 지방세제의 개정이 있을 터이지만 이 개정 실현 결과 부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도 부민의 세금 부담과 재계 방면의 상황은 호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징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곡거래소에 대한 잡종세인 거래소세(取引所稅)는 국세 설정에 의해 폐지될 운명에 있었지만, 부 재정 관계상 당분간 존속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매해 감소될 방침이나 미곡통제문제가 대두되자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소 자체의 자활마저도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비추어 과중한 부담 강요를 건디기 어렵고, 이 또한 부세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을 인정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일부 수입을 보충하고 올해 본세의 부과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세제 개정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 경상부(經常部) 22만 1,997원, 임시부 16만 2,423원, 합계 38만 4,420원. 세출 경상부 17만 9,334원, 임시부 20만 5,086원, 합계 38만 4,42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만 1,918원 감소했습니다. 증감의 주요 부분은 세입경상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부세 중 잡종세의 거래소세를 감소시켰음에도 시장의 신설 증개축 및 공동 하역장의 개선에 의해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9,554원을 증가해, 임시부에서 재산매각대금 4만 9,687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매각지는 제2기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및 기채상환(起債償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서빈 및 해망정(海望町) 매립지, 공회당 건축재원에 충당하고 미처분 토지 매각을 예상한 것으로 기존 계획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타 이월금과 부채의 감소에 의해 차액 5만 1,472원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세출 경상부에서 사회사업, 즉 직업소개소의 신설, 직업장려관 사업의 확장, 시장 신설과 총선거 등에 의해 1만 3,274원 증가했습니다만, 임시부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5만 5,192원이 감소한 결과 차액 4만 1,918원이 되었습니다. 본 연도 계획한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 직업소개소: 1934년도에 건축비로 국고에서 2,000원의 보조를 받고, 올해 도비에서 2,000원을 받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개소해 오로지 노동 직업소개에 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포장: 부내 주요 간선 도로 전부를 포장할 계획입니다만 본 년도에는 경비 관계상 군산역 앞에서 경찰서 앞까지의 소화통(昭和通), 명치정통(明治町通)과 원정통(元町通)에 시행하는 것으로 공비 1만 7,834원을 계상하고 이 중에 5,000원을 도비 보조로, 5,700원을 수익자 부담으로, 나머지를 부비로 지변(支辨)할 것입니다.
- 하수: 역 앞부터 전군도로(全群道路)를 따라 부설할 계획입니다. 부내 곳곳에 이르게 신설하고자 4,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항만 설비: 해망정에 잔교(棧橋) 1기, 서빈정에 물양잔교(物揚棧橋) 2기, 동빈정에 물양잔교 3기를 증설하고자 공비 7,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기계양대 건설: 부내 3개소의 적당한 고지대를 선택해 국기계양대를 건설하여 국채관념의 명징을 기하기 위해 공비 3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회생원(回生院)의 난방설비: 이번에 도립의원에서 병실을 증축하고 난방설비를 하면서 난방장치가 없는 회생원에도 설치하고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회당 설비: 공회당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활동영사기 2대와 확성기 1대를 구비하기 위해 경비 3,300원의 견적을 보았습니다.
- 시장 신설 및 개선: 군산시장 점포 지붕이 부식하여 이를 교체하고 노점이 있는 곳에는 건평 76평, 점포 1개 동을 증축할 계획으로 공비 4,5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이 협소하므로 시내 개복정(開福町) 일대에 시장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여 교통, 위생, 기타 보안상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상정(山上町) 부근에 약 1,000평의 토지를 구매해 시장을 신설하고자 공비 7,5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직업장려관 증축: 강습은 현재 건물에서도 지장이 없습니다만, 강습 수료 후의 습득자에 대해 계속 지도할 필요성을 느껴 작업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용과 장려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3,0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업 기타 조사: 부업 및 가정공업조사는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새롭게 대공장 설치와 관련된 조사 및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등을 실행하려는 생각으로 1,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천정(泉町) 공유수면 매립: 예년 매립허가를 받은 천정 앞의 공유수면은 본 연도에 완성기한이 되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6만 원을 계상하고 그 재원은 해망정 매립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일본 왕자 탄생 기념으로 작년부터 기획 시행중인 군산 신사 건축비에 대해 부에서 1,000원을 기부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1일 집행되는 국세조사 경비 1,600원과 10월 중에 행해지는 사단대향연습은 매우 환영할 필요가 있기에 경비 2,000원을 예상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예산의 대강을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는 제 안건 심의 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를 바라는 안건은 1935년도 예산 외에 시장비채(市場費債) 건, 조례규정 개정 3건, 합계 5건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게 심의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1931년 지방제도 개정 실시에 따라 같은 해 5월 21일에 집행된 제1회 총선거에서 선임된 이래 부회를 거듭하여 그 수가 29회에 달하고, 각 년도의 통상예산 심의는 이번으로 제4회이자, 여러분들의 임기 중에 마지막이 됩니다.

그 동안 계획 시행한 주요 사업은 별표(생략)와 같습니다. 실로 수 십 건이라는 많은 수에 달합니다만, 그 동안 이사자(理事者)로서 항상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선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한계가 있는 재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희망 전부를 급속히 실현할 수는 없었던 점, 이사자로서도 제각각 복안이 있고 또한 조사 계획이 끝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안(提案)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산이 지금은 각 방면을 통틀어 해를 거듭할수록 장족의 진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여러분들이 부민의 선량(選良)으로 부 행정을 위해 진력해 준 노력과 공공에 대한 공헌에 의한 것으로 실로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1935년도의 주요 신규 사업은 앞의 부윤 연설 중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표 98> 군산부 1935년도 세입출 예산(단위 원)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219,997	160,423	380,420
세출	179,034	201,386	380,420

의제6호 1935년도 시장 신영 및 확장비 기채(起債) 건

의제7호 군산부 묘지 및 화장장 사용 조례 중 개정 건

의제8호 군산부 공익전당포 조례 중 개정 건

의제9호 부 의원(吏員) 퇴직료 및 유족 부조료(扶助料) 기금 적립금 설치 규정 중 개정 건

다음으로 예산 심의가 끝나고 위 안건을 회부하여 이의 없이 가결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시오, 히구치, 히가키 세 의원이 출석 의원 모두의 찬성을 얻어 아래의 갑종 상업학교 설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채택했다.

의견서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상업도시인 군산에 중등상업교육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자제 교육상 적지 않게 유감스럽다. 지방 실정을 비추어 볼 때 당국은 신속히 갑종 상업학교를 군산에 설치하기 바란다.

이어 우시오의 다음과 같은 동의 의견을 제출하여 모두의 박수로 찬성을 얻었다.

조선지방 제도 개정 초기 자치제도의 운용은 극히 양호한 성적을 올렸다고 믿는다. 군산부회는 오늘 1935년도 예산을 가결했다. 오늘날 제국(帝國)은 드디어 국제연맹과 절연하고 빛나고 고립된 황도(皇道)를 선포하고 국책의 수행을 향해 매진하기 위해 거국일치를 요한다. 이 가을 조선통치의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국가를 위해 경축할 만한 일이다. 군산부회는 뜻깊은 제1기 의원 임기 마지막 예산회의를 종료하며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해 각하에게 경축을 표하며 건강을 빈다.

이상의 내용은 총독, 정무총감, 각 국장, 전라북도지사에게 타전되었다.

<표 99> 1935년도 제1부 특별경제 예산(단위 원)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47,407	84,987	132,394
세출	88,310	44,084	132,394

중요 새 경영사업

- 소학교 특별교실 개축 관련 합계 35,000원
(126평 용지매수비, 가옥이전보상비, 건축 기타설비비)
- 고등여학교 설비비 합계 1,100원
(교정 땅고르기 및 배수로비 600원, 교사, 기숙사, 외부 철조망 신설비 500원)

<표 100> 1935년경 제2부 특별 경제 세입출 예산(단위 원)

구분	경상부	임시부	예산총액
세입	23,424	50,327	73,741
세출	36,935	36,806	73,741

중요 새 경영 사업

- 변소 증축비 480원, 복도 개축비 133원. 합계 633원.
(본문에는 합계가 633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13원임)
- 비품설비비 1,957원, 운동장 땅 고르기 150원, 실습지 철조책 수선비 90원, 도로포장비 100원. 합계 2,297원

□ 부회의원 선거

1931년 4월 개정 지방제도 실시 후 제2회 부, 읍, 면회 의원 선거가 1935년 5월 21일 전국에서 집행되었다. 군산은 경성, 부산, 평양, 대구의 4대 도시에 이어 경쟁이 치열했다. 정원 27명에 대해 33명이 입후보해 6명 초과를 보였는데, 개표 결과 다음 인물이 당선되었다.

우에다 보쿠(上田朴), 사가와 우이치(佐川宇一),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김영희(金永熙),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우지이에 시게요시(氏家重吉),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 마쓰모토 쓰기하치(松本次八), 우시오 마사이치(牛尾正一), 이토 미쓰사부로(伊藤光三郎), 히가키 마고사부로(檜垣孫三郎), 시미즈 기사쿠(清水喜作), 구보 미야타(久保宮太), 조남면(趙南冕), 마치이 주타로(町井重太郎), 야마모토 가즈오(山本一男), 나카야마 다쓰미(中山辰彌), 이즈미 사쿠지(泉作二), 권태형(權泰亨), 김백용(金白龍), 야마모토 도라지로(山本虎次郎), 김형기(金炯基), 히라하루 도미조(平春富藏), 전의용(金義鎔), 서홍선(徐鴻善), 도쓰카 소타로(戸塚總太郎), 무카이 마쓰지로(向井松次郎)(이상 당선순)

또한 부회 부의장, 제1교육부회 부의장, 제2교육부회 부의장 선거는 6월 18일 실시되어 부회 및 제1, 제2 교육부회 첫 회의에서 집행되었다. 부회부의장에는 히구치 도라조, 제1교육부회 부의장에는 이토 미쓰사부로, 제2교육부회 부의장에는 서홍선이 당선됐다.

(끝)

부 록

1. 일제강점기 군산 관련 통계표
2. 일제강점기 군산 관련 연구논저 목록
 3. 군산부사 인명 색인
4. 군산부사 인명 한자-일본어 대비표
 5. 군산부·옥구군 지명 대비표

부록 ① 일제강점기 군산 관련 통계표

1. 건축 분야	262
1) 공공 업무시설 개관	262
2) 민간 상업, 업무시설 개관	262
3) 교육 시설 개관	263
4) 종교, 의료, 농업 관련 시설 개관	263
5) 개항기~일제 후반기에 세워진 주요 건축물	264
6) 군산보통학교의 교황(1908)	265
7) 군산부 주민의 거주공간(1928)	265
8) 1940년 각부의 토막 및 불량주택 호수	266
2. 경제 분야	267
1) 1910년대-1920년대 군산의 주유회사 및 공장	267
2) 1931년 현재 군산의 회사	268
3) 1934년 현재 군산의 공업회사	268
4) 1910년 이전 조선 각지의 어시장	268
5) 1910년대 전라북도 어시장의 매상고	269
6) 군산항의 수이출입액	269
7) 개항 직후 수출입고	269
8) 군산항 개항 이래 외국무역액	270
9) 군산의 대일 수출품액(1907~1912년)	270
10) 1920~1938년 대중국 수출입 현황	271
11) 군산시 시대별 도시 형성 및 경제적 상황	272
12) 조계지 등급별 면적	272
13) 개항장의 조계 및 거류지 요약표	273
14) 영흥사의 군산항 수세규칙	274
15) 1933년 군산부 주민의 소득액과 각종 세금	274
16) 호남철도 역별 미곡 발송 및 도착 톤수(1912)	274
17) 군산부와 부근 각 부(府)의 주요 세금 내역	275
18) 군산의 가마니 및 새끼줄 수입 현황	276
19) 군산에서 각 항구로의 기선회사 협정 운임률(1914)	276
20) 1940년 일본인 거주 군산 부역별(府域別) 전화 가입자	277
21) 1928년 토목공사장 막일꾼 하루 임금	277

3. 농업 분야	278
1) 민족별 개간 면적 비중	278
2) 만경강 일대 각 수리조합 설립시기와 주요 지표	278
3) 10-13구의 조합원과 위원들의 소유면적	279
4) 구역 내 단보 당 조합비 실질부담률의 추이	279
5) 1930년 조합구역 내 경지소유 실태	280
6) 서수면 경지정리구역의 민족별 실적	281
7) 서수면 각 리 별 10,000평 이상 소유지 지주	282
8) 서수면 내 민족별 연도별 변동	283
9) 전북농장의 평균 토지매수 가격	283
10) 1918년 전북 농장의 소유지와 관리지	284
11) 조선미 수출 현황	285
12) 조선의 외국미 수입 현황	286
13) 군산미 수출 현황	287
14) 오사카 상선, 니자키 기선 취급 군산미의 대일 수출량(1913)	288
15) 일본의 쌀 생산, 수출 및 수입	288
16) 오사카와 고베의 조선미 수입	289
17) 오사카와 고베의 조선미 수입회사 및 수입상	290
18) 전국의 쌀 재배면적 및 수확량	291
19) 전북, 충남의 주요 지역별 쌀 재배면적 및 수확량(1910)	292
20) 군산 이사청 관할 내 일본인 지주(1900)	292
21) 일본인의 주요 지역에서의 토지소유(1909)	293
22) 군산 부근의 농업회사	294
23) 군산미가의 변동 상황	295
24) 일본미가와 조선미가 대비	296
25) 군산항의 조선인 객주 및 일본인 미곡상	296
26) 군산의 도정업 현황	298
27) 군산의 미곡창고(1920)	299
28) 5개항 현미, 정미의 일본 수이출 비교	299
29) 1920년대 전반 군산항 백미·현미 이출 현황	299
30) 미곡 수출 도시의 도정 현황	300
31) 1900년대 중반 수출 미곡의 형태에 따른 도정업 순이익	300
32) 1899-1910년 군산 지역 정미소 현황	301
33) 1910-1919년 군산지역 도정 공업 현황	302
34) 1920-1926년 군산 지역 도정 공장 현황	303
35) 1920년대 전북지역 일본인 대지주의 농업경영 내력	304
36) 1920년대 후반 전북 5대 수리조합의 현황	304
37) 1930년대 군산 옥구지역 30정보 이상 일본인 대지주	305

4. 인구 분야	306
1) 18세기 후반 ~ 1910년 군산, 옥구의 호구 및 인구 변화	306
2) 개항~일제강점기 인구 증가 추이	306
3) 이리 및 군산에서의 인구증가(1920-1940)	307
4) 1931-1942년 군산부의 인구추이	307
5) 1942년 말 지방별 일본인 인구	308
6) 1944년 5월 군산 옥구 지방의 인구	308
7) 군산소학교 아동 수	308
8) 군산부 직업구조:남한의 주요 도시지역과의 비교	309
9) 조선 거주 일본인의 주요 직업(1910)	309
10) 군산 거류 일본인 직업별 구성	310
11) 군산부 조선인의 직업 구성 변화(1910-1938)	310
12) 군산부 일본인의 직업 구성 변화(1899-1930년대 후반)	311
13) 1923년 말 군산부 화교들의 종사 업종	311
14) 1930년 군산부의 계층 구성	312
15) 1924년 군산부 화교 상점의 영업현황	312
16) 1930년 군산부 화교의 종사 업종 현황	313
17) 1934년 군산부 화교의 종사 업종 현황	314

1. 건축 분야

1) 공공 업무시설 개관

시기구분	공공 업무시설명(설립년도 또는 준공년도)
1899~1905	옥구감리서(99), 우체사(99), 전보사(99), 경무서(99), 목포 일본영사관 군산분관(99), 군산 우편국(05)
1906~1925	군산이사청(08), 군산세관(08) , 광주지방재판소 군산구재판소(08), 군산경찰서(10), 광주감 옥 군산분감(10), 군산역(12), 군산부상품진열소(19) , 군산경찰서(25), 옥구군청(20년대), 군 산소방서(20년대)
1926~1945	군산부청(28), 전주지법 군산지청, 군산세무서, 현 군산시청 3청사 , 군산전매서, 군산전매 청, 군산지방해무청
미상	세관감시소, 세관부속건물, 미곡검사소, 군산축항사무소, 개정면사무소, 나포면사무소, 대 야면사무소, 미면사무소, 서수면사무소, 성산면사무소, 옥구면사무소, 옥산면사무소, 임피 면사무소, 회현면사무소, 개정지서, 나포지서, 대야지서, 미면지서, 서수지서, 성산지서, 옥 구지서, 옥산지서, 임피지서, 회현지서

* **기울임체**는 사진자료가 없는 건축물, **굵은 글씨**는 현존 건축물

** 지서와 면사무소는 도심 외각의 건축물임

■ 송석기,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0, 2004, 239쪽.

2) 민간 상업, 업무시설 개관

시기구분	민간 상업·업무시설명(설립연도 또는 준공연도)
1899~1905	大阪주식회사 군산대리점(99), 矢野吳服점(99), 동본합지 군산출장소(01), 군산일본민회(02) , 옥구금융조합(03), 군산구락부(04), 합자회사강기상사(05)
1906~1925	長崎18은행군산지점(07) , 군산해산주식회사(07), 군산창고주식회사(07), 군산통상합자회사(07), 군산신보사(07), 극장주식회사(09), 군산전기주식회사(11), 군산상공회의소(12) , 군산 조선상업은행지점(17), 군산전업사(19) , 군산금융조합(19), 조선식산은행지점(19), 군산미곡 신탁주식회사(20) , 청수합명회사(21), 군산미곡상조합(21) , 군산 상공회의(21) , 동일은행지 점(22), 수호제염소(23), 조선은행지점(23) , 협동해운주식회사(22),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24), 남선호모주식회사(25)
1926~1945	군산극장(26), 대동양행(26), 군산동부금융조합(31), 남조선전기주식회사(31) , 군산공회당(33) , 조선신탁회사지점(34), 조선저축은행, 三中井 백화점, 喜笑館 , 군산일보, 현 햇빛촌, 현 송원액자, 大野사진관
미상	군산토목합자회사, 호남농구주식회사, 군산연초원매판조합, 백야양관, 풍선양행, 송정양품 점, 도변오복점, 중전양복점, 목촌잠화점, 상희상회, 환전상점, 복진우 군산지점, 학옥상점, 정목조반소, 군산주조주식회사, 황산양조주식회사, 문주당, 군산농산물주식회사, 성정인쇄 소, 싱야양조장, 군산자동차, 회옥자동차, 삼남자동차, 금만자동차, 동아백화점,不二흥업주 식회사 외 다수

* **기울임체**는 사진자료가 없는 건축물, **굵은 글씨**는 현존 건축물

■ 송석기,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0, 2004, 240쪽.

3) 교육 시설 개관

시기구분	교육시설명(설립연도)
1899~1905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99), 알락(Alexander) 소학교(01), 영명학교(03)
1906~1925	군산공립보통학교(07), 군산유치원(09), 군산공립실업학교(10), 임피공립보통학교(12), 멜볼린(Merry Boldwine)여학교(13), 옥구공립보통학교(14), 군산간이수산학교(16), 군산공립실리고등여학교(16), 양영학교(18), 대야공립보통학교(21), 신평공립보통학교(21), 사립성산학교(22), 구암유치원(22), 군산중학교(23), 개정공립보통학교(24), 불이심상소학교(24), 어청도공립보통학교(25)
1926~1945	옥산공립보통학교(28), 군산가정여학교(29), 영심유치원(31), 미룡공립보통학교(34), 광교간이학교(34), 나포공립보통학교(35), 회현공립보통학교(35), 술산공립보통학교(37), 미룡심상소학교(39), 성심유치원(39), 금암공립보통학교(41), 옥봉공립보통학교(41), 군산공립상업학교(41), 군산화교소학교(41), 비안도공립심상소학교(43), 신시도 공립초등학교(43)

* 기울임체는 사진자료가 없는 건축물

** 지도에 표시하지 않은 교육시설은 도심 외곽의 건축물임

■ 송석기,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0, 2004, 240쪽.

4) 종교, 의료, 농업 관련 시설 개관

시기구분	종교, 의료 농업 관련 시설명(설립년도 또는 준공년도)
1899~1905	宮崎농장(93), 井上농장(95), 구암교회(99), 구암예수병원(99), 金比羅신사(00), 서표교회(01), 서수교회(03), 島谷농장(04), 大倉농장(04), 川崎농장(05)
1906~1925	森谷농장(06), 옥산교회(06), 池田농장(07), 시곡교회(07), 남성교회(08), 중도의원(10), 熊本농장(13), 본파 본원사(13), 금광사(13), 高久농장(14), 군산신사(15), 일본기독교회(16), 大倉농장(17), 비안도순복음교회(17), 신곡교회(17), 森菊농장(19), 朝日정미(20), 이곡교회(22), 관립군산자혜의원(22), 八木농장(23), 槓농장(23), 甲斐농장(23), 島邊치과의원(23), 신흥교회(24), 옥봉교회(24), 천주교군산본당(25)
1926~1945	원당교회(27), 임피교회(27), 신관교회(31), 중앙기독교성결교회(31), 지양교회(31), 금암교회(32), 성덕교회(32), 술산교회(33), 중앙성결교회(33), 자혜진료(35), 군산기독교복음교회(35), 나포교회(35), 옥구합동주조장(37), 발산교회(38), 말도기동성결교회(39)
미상	朝鮮정미소, 落合정미소, 森菊정미소, 陸石정미, 花岡정미소, 上野주조장, 岩木주조장, 島谷농장금고

* 기울임체는 사진자료가 없는 건축물, 굵은 글씨는 현존 건축물

** 지도에 표시하지 않은 대부분의 종교건축, 농장 등은 도심 외곽의 건축물임

■ 송석기,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0, 2004, 241쪽.

5) 개항기~일제 후반기에 세워진 주요 건축물

연도	목포	군산
1899		심상소학교, 일본영사관, 구암교회
1900	일본영사관, 우편국, 경찰서	신사
1901	상업회의소	
1902	무안감리서	거류민회
1903		영명학교
1904	동본원사	
1905	선교사 사택	우편국
1907		18은행 군산지점, 공립보통학교
1908	부산세관 목포지점	군산세관, 군산구재판소
1910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 목포양동교회, 목포정명여학교	군산경찰서, 광주감옥 군산분감
1911		군산전기주식회사
19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군산역, 군산상공회의소
1913	목포역	금광사
1915		군산신사
1916	18은행 목포지점	
1919	부립목포병원	군산금융조합, 조선식산은행지점
1920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동본원사 목포별관	조일정미소
1921		군산상공회의소
1922	목포공립상업학교	
1923		조선은행지점, 군산중학교
1924	조선은행 목포지점	
1925	연무정, 목포청년회관	
1926	명조유치원	군산극장, 대동양행
1927	임제종약사사, 광주일보사옥	
1928	영흥학교, 공생원	군산부청
1929	공립심상소학교강당, 연동교회, 호남은행 목포지점	전주지법 군산지청, 군산세무서, 군산가정여학교
1931		군산동부금융조합,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영신유치원
1933		군산공회당
1934	죽교리교회	조선신탁주식회사지점
1935	중앙교회, 중앙동상가	나포교회, 자혜진료소
1937		옥구합동주조장
1940	조선운수목포지점, 목포권번	
1941		조선저축은행, 삼중정백화점, 군산일보, 군산공립상업학교
1943	목포경찰서	
미상	동본원사 목포별원, 남양어망사옥, 광생의원, 행복동 상가	옥구군청

■ 송석기,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0-2, 2008, 152~156쪽.

6) 군산보통학교의 교황(1908)

	학도수	일일출석 학도백분비	교원수	학년수	학급수	학부형 직업				
						농업	공업	상업	관리	기타
인원	215	94.21	5	6	5	47	2	135	13	18

참고 : 學部, 『隆熙二年七月第二回公立普通學校教監會議要錄』, 學部編輯局, 1909.

■ 구희진, 「근대개척기 옥구, 군산항 인근지역의 교육과 사회변화」, 『전북사학』 44, 2014, 212쪽.

7) 군산부 주민의 거주공간(1928)

	일본인	조선인·외국인	총인구	총 인구 중 일본인 비율
정(町)지역	5,798	4,609	10,407	55.7%
동(洞)지역	2,060	11,302	13,362	15.4%
계	7,858	15,911	23,769	33.1%

자료 : 김영정·소순열·이정덕·이성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 공간, 경제, 문화』, 한울아카데미, 2006, 74쪽 재인용.

■ 원도연, 「근대 식민지 경험의 탈각과 변용」, 『지역사회연구』 24-4, 2016, 156쪽.

8) 1940년 각부의 토막 및 불량주택 호수

도시	주거	호수			인구수		
		토막	불량주택	계	토막	불량주택	인구수
경성		2,775	4,337 ¹⁾	7,512	11,204	23,943	35,147
인천		477	1,867	2,344	2,802	6,387	9,189
개성		32	157	189	121	624	745
대전		21	227	248	82	866	948
군산		112	3,995	4,107	420	15,470	15,890
전주		27	141 ²⁾	141	120	519	639
목포		-	473	473	-	2,365	2,365
광주		10	198	208	22	739	761
대구		159	1,343	1,502	493	4,496	4,989
부산		9	92	101	125	3,674	3,799
마산		-	7	7	-	241	241
진주		4	20	24	21	234	255
해주		65	198	263	248	618	866
평양		185	3,922	4,107	766	18,301	19,067
진남포		5	156	161	20	723	743
신의주		4	517	521	16	2,377	2,393
함흥		3	34	37	18	160	178
원산		5	196	201	28	954	982
청진		5	457	462	20	1,633	1,653
나진		1 ⁴⁾	196	237	153	633	786
계		3,939	18,906 ³⁾	22,845	16,679	84,987 ⁵⁾	101,666 ⁶⁾

출전 : 朝鮮總督府, 「各府並隣接地域における土幕及不良住宅表」,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3-3, 35~37쪽.

※ 1~3) 호수 불량주택 수 : 출전에 경성 4,737, 전주 114, 계 18,906으로 기재되어 있음

4) 호수 토막 수 : 출전에 나진 41로 기재되어 있음

5~6) 인구수 계 : 실제로 불량주택의 계를 합산하면 84,987이며, 인구수 총 합계는 101,666으로 집계됨

■ 김태용, 「일제하 군산부에서 주민의 이동사정과 계층분화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2009, 45쪽.

2. 경제 분야

1) 1910년대-1920년대 군산의 주요회사 및 공장

회사명	설립 시기	업종	자본금(圓)	주요성원
林兼冷蔵庫	1929년 9월	수산업		
朝鮮精米株式會社 群山支店	1919년 7월	정미업		高原仙太郎
朝鮮酒造株式會社	1927년 9월	양조업		
群山酒造株式會社	1920년 10월	양조업		
香原酒造場	1909년 12월	양조업		香原助太郎
花岡精米所	1918년 10월	정미업		花岡鶴松
長田精米所	1924년 10월	정미업		長田磯次
赤松醬油釀造場	1908년 6월	장유양조업		赤松繁夫
正木造船鐵工所	1912년 10월	조선업		
大澤造船所	1928년 4월	조선업		大澤藤十郎
水戶製鹽所	1923년 3월	제염업		
加茂石鹼工場	1912년 6월	비누제조업		加茂爲次
群山肥料株式會社	1929년 1월	비료 판매업	10만	中柴萬吉
新興酒造場	1928년	양조업	2만	金敬聲
群山無盡株式會社	1924년 1월	서민 금융	25만	神林松吉, 戶塚總太郎, 香原助太郎, 磯部謙裁, 渡邊仙藏, 牛尾正一 등
安部商店	1926년	목재 및 건축재료 판매	10만	安部榮太郎, 安部榮一
南朝鮮電氣株式會社	1927년 9월	전력	246만	樋口虎三, 小瀬守太郎, 中柴萬吉
中築商社株式會社	1926년 1월	무역	30만	中柴萬吉
湖南農具株式會社	1919년 10월	농기구 판매	10만	岡季, 佐藤政次郎, 中柴萬吉
群山海運株式會社	1928년 6월	해운업	10만	中柴萬吉
鮮南勤業株式會社	1924년 4월	농업 관련 판매 및 금융		阪上貞信
群山印刷株式會社	1917년	인쇄업		牛尾正一, 光富嘉八
群山印刷會社	1927년	인쇄업		光富嘉八
群山米穀信託會社	1920년	무역, 금융		平春富藏, 中柴萬吉, 森菊五郎, 花岡鶴松, 金洪斗
京城 고무工業	1921년	고무신		李晚秀

자료 : 鎌田正一, 『朝鮮の人物と事業』, 實業之朝鮮社出版部, 119~231쪽.

■ 이준식,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동방학지』 131, 2005, 197쪽.

2) 1931년 현재 군산의 회사

종별	상업	수산	전기	운수	공업
회사 수	25	1	1	3	13
자본금(圓)	4,427,000	300,000	2,262,000	69,000	968,000

자료 : 『朝鮮日報』, 1931.8.18

■ 이준식,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동방학지』 131, 2005, 209쪽.

3) 1934년 현재 군산의 공업회사

종별	양조	정미	제재	철공	조선	냉동	인쇄	농구	호모	기타	계
공장 수	7	5	1	3	2	1	4	1	2	4	30
자본금 (圓)	269,500	330,000	20,000	19,500	38,000	170,000	30,500	100,000	50,000	84,300	1,111,300 ¹⁾

자료 : 『朝鮮日報』, 1934.10.6.

※ 1) 실제 자본금 총합은 1,111,800으로 집계됨

■ 이준식,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동방학지』 131, 2005, 210쪽.

4) 1910년 이전 조선 객지의 어시장

소재지	이름	경영자	자본금	불입금	설립연월일
慶南 蔚山	蔚山魚市場	蔚崎水産株式會社	10,000		설립중
慶南 釜山	釜山魚市場	釜山水産株式會社	600,000		1903. 1. 1
慶南 馬山	魚市場	馬山水産會社	20,000	5,000	1906. 4. 8
慶南 長承浦	長承浦魚市場	長承浦魚市場	10,000		1907. 2.20
慶南 統營	統營魚市場	統營魚市場組合	5,000		1904. 4. 1
全南 木浦	木浦魚市場	大分縣人長浦福市	5,000		1900. 9. 2
全北 群山	群山海山株式會社 魚市場	群山海山株式會社	10,000	2,500	1907. 3.27
京畿 京城	株式會社京城水産物市場	株式會社京城水産物市場	60,000	15,000	1905. 1.11
京畿 龍山	株式會社 龍山魚市場		17,500		1907.11. 9
京畿 京城	日ノ丸市場	香椎源太郎	미상		1908. 5.15
京畿 仁川	仁川水産株式會社 魚市場	仁川水産株式會社	300,000	75,000	1907.11.
京畿 仁川	仁川魚商會社 魚市場	仁川魚商會社	2,680		1899.11.15
平南 鎮南浦	鎮南浦水産株式會社 魚市場	水産株式會社	40,000		1908. 3.12
平南 平壤	株式會社 平壤魚采市場		30,000		1906.10.20
평북 新義州	新義州 江岸魚市場	藤原秀吉	2,200		1908. 5.10
전북 萬頃	共榮社	鄭翰圭 외 7명	800		1908. 8. 1
平南 三和		李用仁	200		미상
平南 永柔		安鳳年	無		미상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水産誌 1』, 1910, 365~366쪽.

■ 김태웅, 「한말 일제강점 초기 군산어물시장의 변동과 객주」, 『수산경영론집』 36-1, 2005, 110쪽.

5) 1910년대 전라북도 어시장의 매상고

단위 : 엔

연도	1914	1916	1919	1920	1923	1925
매상고	101,346	154,173	181,125	292,103	274,000	258,121

출전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 조선총독부, 『市街地の商圏』, 1924, 424쪽.

비고 : 1910년대에는 전라북도 어시장이 군산부에만 존재함

1918년도 통계가 없어 1919년도 통계로 제시하였음

■ 김태웅, 「한말 일제강점 초기 군산어물시장의 변동과 객주」, 『수산경영론집』 36-1, 2005, 114쪽.

6) 군산항의 수이출입액

단위 : 원

연도	수이출액	수이입	합계	외국무역액(%)/ 국내유통액(%)	비고
1899	207,131	346,309	553,440	3/97	외국무역액과 국내유통액을 합산하여 수이출입액으로 함 1899년은 5월 이후의 8개월간의 통계이며, 1907년까지는 금·은 화폐의 수이출입액이 포함되었고, 이후는 누락된 수치임
1900	598,300	583,000	1,181,300	9/91	
1901	834,599	726,000	1,560,599	27/73	
1902	1,010,443	977,901	1,988,344	32/68	
1903	1,769,030	1,562,042	3,331,072	41/59	
1904	1,682,652	1,621,486	3,310,138 ¹⁾	45/55	
1905	2,003,520	1,401,705	3,405,225	34/66	
1906	2,045,715	1,606,487	3,652,202	31/69	
1907	2,339,016	2,592,447	4,931,463	59/41	
1908	2,162,074	1,878,766	4,040,840	70/30	
1909	2,368,415	1,779,482	4,147,897	71/29	

출전 : 『通商彙纂』, 『群山貿易年報』, 『隆熙二年韓國外國貿易要覽』, 『隆熙三年韓國外國貿易要覽』.

이헌주, 「개항기 군산항의 유통권 변동과 무역구조」, 『史學研究』 55·56 합집, 1998, 572쪽 재인용.

※ 1) 실제 1904년 수이출액, 수이입의 총합은 3,304,138임

■ 김태웅, 「대한제국기 群山 客主의 商會社 설립과 경제·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2006, 36쪽.

7) 개항 직후 수출입고

단위 : 엔

년 차	수입	수출	합계	월평균
1899년 5~12월	346,131	207,131	553,262	69,158
1900년	636,194	544,545	1,180,739	98,395

■ 박성신, 「한국안내(韓國案內)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한국지리학회지』 7-2, 2018, 192쪽.

8) 군산항 개항 이래 외국무역액

단위 : 원, %

연도	수출		수입		합계		出超 또는 入超(入)
1899	9,545	0.4	4,560	0.4	14,105	0.4	4,985
1900	88,156	4.0	13,505	1.1	101,661	3.0	74,651
1901	266,555	12.1	68,578	5.8	335,133	9.9	197,977
1902	317,312	14.1	101,959	8.6	419,271	12.3	215,353
1903	855,441	38.7	410,561	34.6	1,266,002	37.3	444,880
1904	423,969	19.2	629,549	53.1	1,053,518	31.0	入 205,580
1905	365,421	16.5	386,445	32.6	751,866	22.1	入 21,024
1906	701,095	31.7	416,706	35.1	1,117,801	32.9	284,389
1907	1,965,122	88.9	938,650	79.1	2,903,772	85.5	1,026,472
1908	1,833,392	83.0	973,442	82.0	2,806,834	82.6	859,950
1909	2,049,530	92.7	913,436	77.0	2,962,966	87.2	1,136,094
1910	2,210,156	100.0	1,168,489	100.0	3,378,645	100.0	1,041,667
1911	1,453,376	65.8	1,909,514	160.9	3,362,890	99.0	入 456,138
1912	1,711,927	77.5	2,714,705	228.8	4,426,632	130.3	入 1,002,778
1913	4,199,064	190.0	3,281,914	276.6	7,480,978	220.2	917,150
1914	6,177,233	279.5	2,713,940	228.7	8,891,173	261.8	3,463,293
1915	7,288,737	329.8	2,292,919	193.3	9,581,656	282.1	4,995,818
1916	5,169,774	233.9	2,058,009	173.5	7,227,783	212.8	3,111,765
1917	6,762,891	306.0	2,505,344	211.2	9,268,235	272.9	4,257,547
1918	13,782,374	623.6	3,885,211	327.5	17,667,585	520.1	9,897,163
1919	26,537,999	1200.7	8,564,202	721.8	35,102,201	1033.4	17,973,797

출전 : 群山商工會議所, 『昭和11年統計年報』, 1937, 2~3쪽.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0쪽.

9) 군산의 대일 수출품액(1907~1912년)

단위 : 원, %

연도	군산			전국		
	대일수출액		수출총액	대일 수출액		수출총액
1907	1,915,774	97.49	1,965,122	12,649,267	74.40	17,002,224
1908	1,817,013	99.11	1,833,392	10,424,560	73.86	14,113,310
1909	2,048,641	99.96	2,049,530	12,081,738	74.35	16,248,888
1910	2,197,660	99.44	2,210,156	15,378,643	77.23	19,913,843
1911	1,276,727	87.85	1,453,376	13,340,551	70.75	18,856,955
1912	1,401,600	81.87	1,711,927	15,369,009	73.24	20,985,617

출전 : 『統監府統計年報』, 1907-1910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20.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0쪽.

10) 1920~1938년 대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 원

	1920년		1922년		1924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關東州	0	8,749	2,856	24,703	275	21,419		
間島地方			0	0	0	0		
南滿洲及東部內蒙古	1,820	224,903	2,305	122,062	52,349	669,041		
北滿洲	0	13	0	0	0	0		
山東省	3,760	334,163	23,476	109,657	11,969	204,868		
直隸省	2,949	0	0	31,600	0	0		
기타	0	18,869	0	10,543	0	101,157		
수출입계	595,226		327,202		1,061,088			
대중국수출입액	67,934,688		62,767,663		94,409,260			
군산항비율(%)	0.88		0.52		1.12			
	1926년		1928년		1930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關東州	51,553	39,732	9,798	20,747	2,023	134,117		
間島地方	0	0	0	0	0	0		
南滿洲及東部內蒙古	49,500	1,061,817	395,433	606,083	21,667	649,677		
北滿洲	0	17,679	0	25,354	25	2,348		
山東省	4,273	34,435	5,538	290,648	6,240	171,280		
直隸省	0	486	0	0	0	132		
기타	572	66,275	0	41,687	0	42,745		
수출입계	1,602,546		1,066,831		1,030,254			
대중국수출입액	115,909,312		112,507,813		85,522,655			
군산항비율(%)	1.38		0.95		1.2			
	1932년		1934년		1936년		193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關東州	11,393	181,324	24,907	279,071	9,358	1,297,107	89,717	
間島地方	0	0	376	0	1,676	0	111,640	
南滿洲及東部內蒙古*								
北滿洲	20	0	296	0	17	1,035	939	
山東省	7,134	67,775	9,734	271,285	9,600	388,011	22,609	
直隸省*								
기타*								
계	37,665	753,153	101,187	766,369	41,200	1,924,932	594,379	2,104,979
수출입계	790,818		873,556		1,966,132		2,699,358	
대중국수출입액	74,128,319		114,076,908		150,331,572		243,322,032	
군산항비율(%)	1.07		0.77		1.31		1.11	

출전 : 조선총독부, 『朝鮮貿易年表』, 해당 연도.

비고 : *은 1932년 이전과 비교하여 해당 지역이 없어 수출입액을 표시하지 못함.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412~413쪽.

11) 군산시 시대별 도시 형성 및 경제적 상황

구분	해방이전	해방이후
도시의 형성	• 1899년 개항 - 감리서, 경무서, 재판소, 세관 및 체신사, 전신사 설치(한국정부) - 군산분관, 일본인회 설치(일본정부) • 개항 후 조계형성, 호남선·군산선 철도개통, 전군도로 개통, 항만시설 정비	• 해방 이후 쌀 수이출항으로서의 기능 상실 • 도시적 성장세의 쇠퇴 • 군산시계의 확장
경제적 상황	• 대일 쌀 수출량 증가 • 20년대 이후 증가되는 일본기업을 위한 각종 금융기관 설립 • 주요산업통제법 공포, 자유경제에서 통제경제로 전환, 유업자 비율이 전국에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상업·공업·교통업 중심의 도시로 발달	• 영남지방에 비해 농업비중이 높았던 전북 지역은 저발전 성향으로 발전 • 서해안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군산 국가공단 조성 • 서해안고속도로와 군산외곽고속도로 21번 국도) 준공

■ 박종현, 「일제신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6쪽.

12) 조계지 등급별 면적

개항구분	낮은평지	구릉지	해안지역	합계
목포	112,700㎡	342,815㎡	216,854㎡	672,396㎡
군산	310,000㎡	21,000㎡	70,000㎡	401,000㎡

비고 : 조계지 전체의 면적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본 표의 등급별 조계지의 면적은 목포의 경우 “木浦府史”에 기록된 수치이고 군산의 경우에는 “群山各國租界圖”에 기록된 수치이다.

■ 송석기,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 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0-2, 2008, 150쪽.

13) 개항장의 조계 및 거류지 요약표

개항 도시	개항 연도	조계 및 거류지	조계 및 거류지 면적(m ²)	행정형태
부산	1876	일본전관거류지	384,405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청국전관조계	20,834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월산	1880	일본전관거류지	235,363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청국전관조계	33,266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인천	1883	일본전관거류지	32,595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청국전관조계	6,763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각국공동조계	462,812	紳董公司
목포	1897	각국공동조계	726,024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진남포	1897	각국공동조계	480,060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군산	1899	각국공동조계	336,669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성진	1899	각국공동조계	97,698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거류민 소수)
마산	1899	각국공동조계	268,935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일본전관거류지	933,832	거류민 없음
		러시아조차지	988,320	영사 감독(약간의 군대 주둔)
용암포	1904	해당없음		통감부 이사관 감독하 거류 및 자치 (거류민 극소수)
청진	1908	해당없음		통감부 이사관 감독하 거류 및 자치 (주로 일본인)

비고 :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 459~560쪽에 게재된 개항장 및 개시장, 조계 및 거류지에 대한 표를 편집한 것임.

■ 송석기,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 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0-2, 2008, 150쪽.

14) 영흥사의 군산항 수세규칙

품목(단위)	수세액	품목(단위)	수세액
곡물(斗)	3푼	元寶(귀)	2냥
우피(秤)	2냥	생선(兩頭)	7푼
가사리(秤)	1냥 5전	紬屬(定)	2전
五倍子(秤)	2냥	鹽(石)	2전
海蔘(秤)	2냥	土産 종물(白頭)	3냥
鰯魚(秤)	7전	過去船米(石)	2전 5푼
別銀(兩)	1냥		

출전 : 궁내부, 『永興社章程』, 1899(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皇城新聞』 1901년 4월 23일.

■ 김태웅, 「대한제국기 群山 客主의 商會社 설립과 경제·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2006, 24쪽.

15) 1933년 군산부 주민의 소득액과 각종 세금

		조선인	일본인	비고
총호구		5,919호	2,306호	총인구 35,575명
전체 소득액		700,000원	3,900,000원	
호당 소득액		118원	1,690원	
1호당 소득액 분포	1,000원 이상	260명	907명	
	1,000원 미만	2,677명	1,432명	
가옥세		1,497원	6,445원	
지세		531원	9,949원	

출전 : 『東亞日報』, 1933.9.20; 『東亞日報』, 1933.9.21.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2009, 39쪽.

16) 호남철도 역별 미곡 발송 및 도착 톤수(1912)

역명	발송	도착	비고
군산역	1019	1658	호남선 각 역에서 도착, 경성 및 호남선 각 역으로 발송
정읍역	-	26	군산으로부터 도착
태인역	143	-	군산으로 발송
김제역	95	28	군산으로 발송
이리역	1168	121	군산으로 발송
강경역	809	148	군산 및 인천, 부산으로 발송
논산역	1417	143	군산으로 144톤, 부산으로 1,297톤 등 발송

출전 : 仙波正太郎, 『群山ト交通機關ノ變遷』, 朝鮮銀行, 1913, 40~41쪽.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2쪽.

17) 군산부와 부군 각 부(府)의 주요 세금 내역

단위 : 원, 전(錢)

군산부군 각부	세금액	시가지세			영업세			비율
		세금총액	과세인원	1인 평균액(A)	세금총액	과세인원	1인 평균액(B)	B/A(%)
경성부	조선인	98,027-58	18,770	5-22	84,707-00	5,768	14-68	281
	화교	6,082-32	156	38-99	13,585-00	466	29-15	75
	일본인	88,231-08	3,330	26-27	109,522-00	3,897	28-00	105
인천부	조선인	2,154-14	1,811	1-19	7,615-02	1,020	7-46	627
	화교	838-44	67	12-50	3,334-65	160	20-84	167
	일본인	21,254-18	539	39-43	46,697-60	1,005	46-46	118
군산부	조선인	496-69	213	2.-10	1,992-00	354	5-62	268
	화교	310-93	8	38-86	469-43	56	8-38	22
	일본인	7,184-06	326	22-03	25,242-00	623	40-51	184
목포부	조선인	1,032-09	578	1-98	4,400-00	513	8-57	433
	화교	21-14	2	10-57	875-00	38	23-02	218
	일본인	12,33-62	282	43-58	19,127-00	518	36-96	85
12부 평균	조선인	·	·	·	2-20	·	8-71	396
	화교	·	·	·	14-21	·	20-99	148
	일본인	·	·	·	26-08	·	31-88	122

출전 : 조선총독부,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해당 지역 통계.

비고 : 시가지세, 영업세에 관해서는 각각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3월 16일, '市街地稅令'과 『朝鮮總督府月報』 1914년 3월 1일, '府制及學校組合令ノ施行ニ關スル件/府制施行規則' 참조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421~422쪽.

18) 군산의 가마니 및 새끼줄 수입 현황

단위 : 개, 斤, 원

연도	수량		가액	
	가마니	새끼줄	가마니	새끼줄
1901	66,910	165,394	6,757	1,774
1902	-	-	12,471	2,716
1903	-	-	18,279	5,959
1904	-	-	21,165	35,159
1905	-	-	375,974	
1906	-	-	558,306	
1907	497,501	267,552	56,365	16,891
1908	-	-	76,604	11,949
1909	-	-	89,280	
1910	-	-	133,036	
1911	673,780		83,232	
1912	-	-	55,386	

출전 : 「群山1901年貿易ノ年報」, 『通商彙纂 : 韓國編』 10, 1902.6.27., 120쪽; 『統監府統計年報』, 1907-191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14: 仙波正太郎, 『群山ト交通機關ノ變遷』, 朝鮮銀行, 37쪽.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8쪽.

19) 군산에서 각 항구로의 기선회사 협정 운임률(1914)

단위 : 곡류 100석당 원

도착지	운임	도착지	운임
인천	18	關門	50
목포	20	阪神	50
부산	32	長崎	55
진남포	32	横濱	72
원산	60		

출전 : 仙波正太郎, 『群山ト交通機關ノ變遷』, 朝鮮銀行, 1913, 5쪽.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3쪽.

20) 1940년 일본인 거주 군산 부역별(府域別) 전화 가입자

	동정명(洞町名)	전화 가입자 수(1940)				가구수(1928)				가구당 가입율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소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소계	
원개항장거리	濱町(금동·금암동)	54	2	0	56	83	39	1	123	0.455
	錦町(금동)	49	0	0	49	54	1	0	55	1.255
	淺山町(금동)	20	0	0	20					
	本町(장미동)	92	3	0	95	118	26	2	146	0.651
	全州通	65	2	1	68	177	12	22	211	0.488
	元町(장미동)	34	0	1	35					
	大和町(영화동)	29	0	2	31	104	1	0	105	0.295
	旭町	26	0	0	26	116	1	2	119	0.218
	幸町	34	6	0	40	10	3	6	19	2.105
	소계	403	13	4	420	662	83	33	778	0.540
신파의거리	明治町(중앙로)	111	0	0	111	221	1	2	224	0.500
	明治通	1	0	0	1					
	曙町	15	0	0	15	11	1	0	12	1.250
	横田町(신창동)	30	1	0	31	127	38	0	165	0.188
	소계	157	1	0	158	359	40	2	401	0.394

출전 : 北市喜多孝, 釜山日報群山支社 編, 『(開港三十周年紀念)群山』, 釜山日報群山支社, 1928, 12쪽.

비고 : 1932년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町名이 개칭되고 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본 표에서는 『군산부사』(1935)에 명기되어 있는 개정표에 의거하여 1940년 町名에 해당하는 구역의 가구수 통계치를 산출하였음. 이에 따라, 본 통계치수는 추정치임. 뿐만 아니라, 본 표의 가입율 통계치는 町名개편에 따른 문제와 함께 전화가입자 수와 가구수 간의 시차 때문에 상당한 왜곡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람.

■ 윤상길, 「일제강점기 부산과 군산에서의 전화배치」, 『한국민족문화』 54, 2015, 25쪽.

21) 1928년 토목공사장 막일꾼 하루 임금

임금액	인원	임금액	인원
60전	1명	90전	18명
65전	7명	95전	1명
70전	21명	100전	7명
75전	13명	110전	1명
80전	11명	120전	2명
85전	22명	계	104명

자료 : 강만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1987, 308쪽 재인용.

비고 : 강만길은 이 표에 나타난 노동자의 1일 평균 노임은 81전 5리로 계산되지만 실제로 총독부 노임통계와 작업현장에서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小林拓矢는 제1차 궁민구제토목사업(1931년 4월 1일-12월 31일)에 참여한 조선인의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면 52전이 되는데 이는 1928년 조사된 노동자들의 1일 평균 생활비보다 훨씬 적은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小林拓矢, 「일제하 도로 사업과 노동력 동원」, 『한국사론』 56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0, 341-343쪽 참조.

■ 황태목, 「일제하 군산 지역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0, 2017, 450쪽.

3. 농업 분야

1) 민족별 개간 면적 비중

구분	합	전	답	대	필지	단위 : 평 면적비
일본인	73,247	46,519	24,216	2,512	58	35.0%
조선인	122,973	107,189	10,063	5,529	231	58.7%
국유	12,792	966	11,826	0	7	6.1%
공유	552	552	0	0	2	0.3%
총합계	209,012	154,674	46,105	8,041	296	99.8

■ 최원규,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의 토지 확대와 소유 변동의 추이」, 『동방학지』 130, 2005, 148쪽.

2) 만경강 일대 각 수리조합 설립시기와 주요 지표

	옥구서부	임익	임익남부	전익	임옥	익옥
설립일	1908.12	1909.2	1909.12	1910.1	1911.4	1920
설립전 단당수확고(石)	1.60	0.80	0.93	1.50	0.6	1.7
설립전 지가(圓)						
상	180	14	15	45	12	
중	135	10	10	25	9	
하	105	6	6	12	5	
몽리면적(정보)	270	3,000	2,540	1,040	2,780	9,641
설치공사비(원)	9,545	177,934	245,157	18,500	120,000	544,220
조합원수(일본인)	331	850(21)	307	75(13)	73(31)	2040
몽리면적/조합원수(町步)	0.81	3.53	8.27	3.78	38.61	4.73
공사비/몽리면적	35.35	59.31	96.52	17.79	16.80	564.69

자료 : 『朝鮮産業指針』;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全羅北道統計年報』(1913년판); 『全北의 農業』(1928); 『土地正良事業要覽』(1927년도판); 『전북농조70년사』.

주 : 옥구서부와 임익남부수리조합의 조합원수는 1913년도의 것.

■ 우대형, 「일제하 만경강 유역 수리조합연구」, 『동방학지』 131, 2005, 143쪽.

3) 10-13구의 조합원과 위원들의 소유면적

단위 : 정보

구역	10구(함라면)		11구(화등리)				12구(현영리)		13구(오산리)		
	위원	면적	위원	면적	위원	면적	위원	면적	위원	면적	위원
농장	森谷농장	11	森谷농장	346	吳壽福	3	東拓	8.5	東拓	32.5	文良根
	櫛龍太郎	143	櫛龍太郎	22	白完基	3.9	不二농장	43.5	笠松譽行	13.3	姜二武
	二葉社	65.9	二葉社	91.4	住信保夫	15.4	眞田농장	33.7	不二농장	44.4	
	韓韓錫	5.9	鷗谷농장	43	崔寅禮	4.5	林昶熙	7.6	金城徹	7	
	趙容奎	9.8	張錫洛	19.1			황현묵	4	宮崎농장	13.1	
	多木농장	106	和田槌男	6.9			北川伍郎助	138	金相龍		
총면적	277.2		373.8				204		262.3		
조합원	136		127				71		117		

■ 최원규,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의 토지 확대와 소유 변동의 추이」, 『동방학지』 130, 2005, 153쪽.

4) 구역 내 단보 당 조합비 실질부담률의 추이

단위 : 석, 원, %

연도	공사 전 수량(a)	공사 후 수량(b)	증수량 (c=b-a)	곡가 (d)	증수액 (e=c*d)	지주부담력 (f=e*0.5)	조합비 (g)	실질부담률 (h=g/f*100)
1927	1.73	3.52	1.79	13.00	23.27	11.63	0.90	7.74
1928	1.73	1.48	-0.25	12.50	-3.12	-1.56	0.90	∞
1929	1.73	1.72	-0.01	12.00	-0.12	-0.06	0.97	∞
1930	1.73	3.32	1.59	6.34	10.08	5.04	0.97	19.24
1931	1.73	3.05	1.32	7.14	9.42	4.71	0.97	20.59
1932	1.73	3.88	2.15	7.52	16.17	8.08	0.97	12.00
1933	1.73	3.61	1.88	9.18	17.26	8.63	0.97	11.24
1934	1.73	3.62	1.89	11.90	22.49	11.25	0.97	8.62
1935	1.73	3.77	2.04	13.60	27.74	13.87	0.97	6.99
1936	1.73	2.54	0.81	11.90	9.64	4.82	0.97	20.12
1937	1.60	3.43	1.83	11.22	20.53	10.26	0.98	9.55
1938	1.60	3.26	1.66	13.43	22.29	11.15	1.27	11.39
1939	1.60	0.39	-1.20	17.68	-21.32	-10.66	1.27	∞
1940	1.60	3.31	1.71	17.68	30.23	15.12	0.98	6.48

자료 : 「水利組合實績=依ル收支概算表」,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각년판.

주 : 곡가는 粳 1석의 가격, “∞” 표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계측 불가.

■ 정승진, 「한말 일제초 전통 堤堰契의 근대적 水利組合으로의 전환」, 『전북사학』 34, 2009, 130쪽.

5) 1930년 조합구역 내 경지소유 실태

단위 : 町步. 괄호 안은 비율

면적별	일본인		조선인		기타		합계	
	인수	면적	인수	면적	인수	면적	인수	면적
50町~	1	55.16 (35.6)	-	-	-	-	1	55.16 (11.7)
10~50	3	49.19 (31.7)	4	87.08 (29.9)	-	-	7	136.27 (28.8)
1~10	18	40.64 (26.2)	57	145.71 (50.1)	1	10.43 (39.0)	67 ¹⁾	196.78 (41.6)
0.5~1	8	5.41 (3.5)	48	30.58 (10.5)	4	16.28 (61.0)	60	52.27 (11.1)
~0.5	11	4.57 (2.9)	85	27.55 (9.5)	-	-	96	32.12 (6.8)
계	41	154.97 (100.0)	194	290.92 (100.0)	5	26.71 (100.0)	240	472.60 (100.0)

자료 : 「水利組合所有面積別組合員表」,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30년 판(昭和5年度).

※ 1) 실제 면적별(1~10)의 인수의 총합은 76명으로 집계됨.

■ 정승진, 「한말 일제초 전통 堤堰契의 근대적 水利組合으로의 전환」, 『전북사학』 34, 2009, 131쪽.

6) 서수면 경지정리구역의 민족별 실적

리별	전체 소유자의 민족별 구성						10,000평 이상 지주 비중		
	민족별	면적	%	필지	인원	필지당 평균면적	필지	면적	%
금암	일본인	310,341	61.2	276	17	1,124	240	271,977	88
	조선인	196,746	38.8	194	36	1,014	98	104,741	53
	기타	148	0.0	1	1	148			
	합	507,235	100.0	471	54	1,077	338	376,718	74
서수	일본인	597,162	80.4	499	18	1,197	448	543,767	91
	조선인	139,084	18.7	145	50	959	51	51,389	37
	기타	6,052	0.8	8	4	757			
	합	742,298	100.0	652	72	1,138	499	595,156	80
신기	일본인	870,919	90.3	840	27	1,037	786	822,910	94
	조선인	92,811	9.6	104	31	892	24	23,348	25
	기타	900	0.1	1	1	900			
	합	964,630	100.0	945	59	1,021	810	846,258	88
화등	일본인	381,739	77.8	352	26	1,084	294	320,667	84
	조선인	102,367	20.9	115	37	890	16	12,549	12
	기타	6,818	1.4	7	2	974			
	합	490,924	100.0	474	65	1,036	310	333,216	68
마룡	일본인	981	32.4	2	2	491			
	조선인	1,350	44.6	4	3	338			
	기타	693	22.9	4	1	173	일본인합	1,959,321	72
	합	3,024	100.0	10	6	302	조선인합	192,027	7
총합계		270,111	100.0	2552	256	1,061	합	2,151,348	79

■ 최원규,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의 토지 확대와 소유 변동의 추이」, 『동방학지』 130, 2005, 157쪽.

7) 서수면 각 리 별 10,000평 이상 소유지 지주

리별	민족별	지주	필지	면적	거주	리별	민족별	지주	필지	면적	거주
서수	일본인	蒲原俊次	16	15,331	서수	금암	일본인	梶原貞三郎	10	10,791	兵庫
		朝鮮信託	15	16,586	서울			槇瀧太郎	11	13,200	신기
		篠井木次郎	26	28,466	서수			槇久右衛門	36	41,722	山形
		和尙椎南	35	33,959	서수			鳴谷농장	41	44,426	개정
		鳴谷농장	52	61,994	개정			二葉社	67	77,467	新潟
		二葉社	304	387,431	新潟			森谷농장	75	84,371	신기
	조선인	손영태	12	12,764	서수		조선인	박순규	10	11,400	옹포
		방남중	17	15,234	서수			박노종	12	13,475	금암
		장영규	22	23,391	술산			백완기	39	38,868	금암
산기	일본인	片桐和三	22	13,239	황등	화등	일본인	조용규	37	40,998	함라
		齊藤繁正	24	19,809	서수			富田美貳	13	11,681	山口
		槇瀧太郎	29	34,060	신기			槇瀧太郎	15	14,997	신기
		二葉社	38	39,073	新潟			廣中敦米	14	15,180	山口
		槇久右衛門	42	44,523	山形			二階堂三郎	16	17,648	廣島
		佐上甚三郎	61	66,117	廣島			深井淺五郎	22	21,649	화등
		奥窪源左衛門	69	68,612	廣島			森谷농장	22	24,551	신기
		梶原貞三郎	112	128,341	兵庫			鳴谷농장	62	70,720	개정
		森谷농장	389	409,136	신기			二葉社	130	144,241	新潟
	조선인	조용규	11	10,177	함열		조선인	최인풍	16	12,549	화등
		박노종	13	13,171	금암						

■ 최원규,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의 토지 확대와 소유 변동의 추이」, 『동방학지』 130, 2005, 158쪽.

8) 서수면 내 민족별 연도별 변동

민족	연도	전		답		대		기타		합		소유주		평균 면적
		지목	민족	지목	민족	지목	민족	지목	민족	면적	민족	수	민족	
일본	1914	17	47	39	39	1	20	3	12	774	37	45	3	17.2
	1920	16	50	44	44	2	26	3	14	858	41	56	4	15.3
	1926	15	55	51	51	2	29	4	18	1,013	47	74	6	13.7
	1932	14	58	58	58	2	30	5	21	1,143	53	91	7	12.6
	1938	15	57	59	59	2	34	4	22	1,178	54	84	6	14.0
	1945	15	51	59	59	2	32	2	10	1,171	53	98	6	11.9
조선	1914	12	52	58	58	4	78	9	50	1,202	57	1,276	96	0.9
	1920	12	49	55	55	4	72	10	49	1,134	54	1,234	95	0.9
	1926	12	45	48	48	4	68	11	45	1,023	48	1,221	93	0.8
	1932	13	42	41	41	5	67	12	43	913	42	1,217	92	0.7
	1938	15	42	39	39	5	60	11	43	885	41	1,282	93	0.7
	1945	18	47	38	38	5	61	8	39	890	40	1,445	93	0.6
기타	1914	1	1	2	2	1	2	70	38	121	6	10	1	12.1
	1920	1	1	2	2	1	2	73	37	113	5	10	1	11.3
	1926	1	1	1	1	2	3	79	38	116	5	11	1	10.6
	1932	2	1	1	1	2	3	79	36	111	5	12	1	9.2
	1938	2	1	2	2	4	6	69	35	117	5	13	1	9.0
	1945	6	3	3	3	3	7	58	50	161	7	17	1	9.5

■ 최원규,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의 토지 확대와 소유 변동의 추이」, 『동방학지』 130, 2005, 161쪽.

9) 전북농장의 평균 토지매수 가격

단위 : 원

매수지역	논		밭	
	연도	가격	연도	가격
강경방면	1904	10.170	1904	2.370
	1907	12.246	1906	16.360
익산방면	1904	6.294	1904	4.680
	1908	6.491	1908	4.338
옥구방면	1907	6.562	1907	9.000
군산거류지부근	1906	35.713	1906	59.524

자료 : 神戸正雄, 『朝鮮農業移民論』, 有斐閣書房, 1910, 35~36쪽.

■ 이규수, 「藤井寛太郎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대동문화연구』 49, 2005, 286쪽.

10) 1918년 전북 농장의 소유지와 관리지

단위 : 町步

위치	관리구역	논	밭	집터	잡종지	소계
전북 익산군 오산리 오산리농장	익산, 옥구, 김제	1,108	64	6	115	1,293
전북 군산부 본정통	군산, 옥구, 충남	71	3	14	60	148
전북 익산군 함열역 앞	익산	188	29	0	35	252
전북 전주군 동산촌	전주, 익산	666	48	1	16	731
전북 전주면 다가정	전주, 임실	275	15	1	0	291
전북 김제군 김제역앞	김제	500	19	1	2	522
전북 김제군 만경면 만경	김제	296	5	4	116	421
전북 부안군 백산리	부안, 정읍	581	16	1	0	598
전북 고창군 흥면 난산리	고창, 전남 장성	167	2	2	0	171
충남 논산군 강경 화금정	논산, 공주, 부여	559	48	2	86	695
충남 부여군 규암리	부여	265	47	1	36	349
충남 청양군 청양	청양	12	2	0	0	14
충남 홍성군 홍양면 오관리	홍성	14	0	0	0	14
황해 연백면 연안	연백, 해주	56	3	0	0	59
경남 금안군 가락면 죽림리	김해	93	4	0	760	857
소계	5도 1부 18군	4,851	305	33	1,226	6,415

자료 : 大橋清三郎, 『朝鮮産業指針(第3版)』, 1918, 195쪽.

■ 이규수, 「藤井寛太郎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대동문화연구』 49, 2005, 289쪽.

11) 조선미 수출 현황

단위 : 석, 엔

연도	수량					가액				
	일본	중국	露領 아시아	기타 외국	합계	일본	중국	露領 아시아	기타 외국	합계
1899					472,321					1,417,842
1900					1,145,805					3,625,629
1901					1,388,783					4,195,309
1902					948,008					3,524,619
1903					1,037,362					4,224,721
1904					313,388					1,300,790
1905					218,365					889,273
1906					356,233					1,603,648
1907					1,815,143	6,227,366	970,751	360,388		7,558,505
1908					1,540,289	4,931,801	1,166,945	446,989	61,689	6,607,604 ¹⁾
1909					1,539,413	3,943,081	1,155,895	431,546	35	5,530,557
1910						4,153,589	1,528,079	595,843	241	6,277,752
1911	700,651	323,933	250,105		1,274,689	2,826,110	1,612,799	844,863		5,283,772
1912	639,232	313,644	11,108		963,984	4,012,672	2,137,987	81,233		6,231,892
1913	1,416,968	251,311	9,101		1,677,380	10,864,330	2,091,923	77,249		13,033,502
1914	1,065,188	112,320	1,790	35	1,179,333	13,888,122	1,832,283	30,280	296	15,750,981
1915	2,053,690	183,353	4,037	664	2,241,744	20,677,685	2,259,714	50,682	6,659	22,994,740
1916	1,177,430	236,888	59,592	2,421	1,476,331	14,171,034	3,252,504	877,513	30,667	18,331,718
1917	1,062,100	217,665	141,855	114,016	1,535,636	17,788,403	4,125,129	2,748,594	221,687	26,878,953
1918	1,943,875	161,127	4,975	3,110	2,113,087	56,023,263	4,639,612	167,096	87,252	60,917,223
1919	2,662,545	65,771	5,892	3,216	2,737,424	106,055,183	3,056,515	283,377	140,704	109,535,779

출전 : 「韓國1900年外國貿易」, 『通商彙纂 : 韓國編』 9, 1901.4.26., 49쪽; 加藤末郎, 『韓國農業論』, 裳華房, 1904, 20쪽; 『統監府統計年報』, 1907-191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20; 吉野誠, 「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2, 朝鮮史研究會, 1975, 35쪽; 梶村秀樹 외,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출판사, 1983, 216쪽.

※ 1) 실제 1908년 가액 합계는 6,607,424로 집계됨.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1~92쪽.

12) 조선의 외국미 수입 현황

단위 : 석, 엔

연도	수량							가액						
	일본	중국	英領 인도	佛領 인도	태국	기타	합계	일본	중국	英領 인도	佛領 인도	태국	기타	합계
1899							99							965
1900							277							1,614
1901							82,224							400,886
1902							85,856							398,454
1903							157,215							773,076
1904							125,139							679,751
1905							59,112							332,544
1906							91,288							328,469
1907							—							—
1908	8,556						8,556	62,372						62,372
1909	3,907	2,177	251		193		6,528	24,913	10,352	878			1,058	37,201
1910	3,309	315			1		3,625	22,444	1,337				7	23,788
1911	12,710	3,688	11,368		2,362	1,502	31,630	80,219	17,742	47,998		9,747	8,811	164,517
1912	7,569	2,254	12,352		2,476	701	25,352	61,447	13,213	61,708		11,643	4,423	152,434
1913	6,303	12,101	227,383	144,995	227,949	1,988	600,719	54,105	67,781	108,247	692,165	1021,090	10,321	2,927,919
1914	1,438	2,795	40,349	38,010	183,704	1,488	257,784	25,793	34,906	426,738	402,559	183,295		2,722,971
1915	1,915	924	1,626	4,086	22,542		31,093	32,060	6,768	15,131	42,147	220,401		316,507
1916	12,795	717	1,316	536	2,890		18,254	179,665	6,511	13,407	5,975	29,814		235,362
1917	10,515	2,211	566	22,156	29,937		65,385	193,830	24,946	7,686	310,012	393,307		929,781
1918	2,962	1,355	139	50,379	20,260		75,095	107,511	26,638	2,417	101,5817	398,654		1,551,037
1919	3,937	21,086		14,960	4,457		44,440	199,084	676,485		327,054	120,230		1,322,853

출전 : 加藤末郎, 『韓國農業論』, 裳華房, 1904, 36쪽; 『統監府統計年報』, 1907-191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20.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2~93쪽.

13) 군산미 수출 현황

단위 : 석, 원, %

연도	수량				가액			
	군산(A)		전국(B)	A/B*100	군산(C)		전국(D)	C/D*100
1899	32,391	6	472,321	7	106,607	6	1,417,842	8
1900	91,447	16	1,145,805	8	275,240	15	3,625,629	8
1901	137,194	25	1,388,783	10	389,048	21	4,195,309	9
1902	242,770	43	948,008	26	417,451	23	3,524,619	12
1903	246,330	44	1,037,362	24	916,556	51	4,224,721	22
1904	116,087	21	313,388	37	424,955	23	1,300,790	33
1905	157,746	28	218,365	72	617,498	34	889,273	69
1906	297,506	53	356,233	84	1,076,076	59	1,603,648	67
1907	439,563	79	1,815,143	24	1,744,604	96	7,558,505	23
1908	418,184	75	1,540,289	27	1,647,113	91	6,607,604	25
1909	549,710	98	1,539,413	36	1,791,044	99	5,530,557	32
1910	559,791	100	—	—	1,814,768	100	6,277,752	29
1911	291,932	52	1,274,689	23	1,051,611	58	5,283,772	20
1912	106,048	19	963,984	11	1,309,152	72	6,231,892	21
1913	221,836	40	1,677,380	13	3,853,345	212	13,033,502	30
1914	484,349	87	1,179,333	41	5,871,781	324	15,750,981	37
1915	750,016	134	2,241,744	34	6,813,842	376	22,994,740	30
1916	415,686	74	1,476,331	28	4,796,713	264	18,331,718	26
1917	453,753	81	1,535,636	30	7,328,493	404	26,878,953	27
1918	615,613	110	2,113,087	29	17,120,998	943	60,917,223	28
1920	505,995	90	1,983,998	26	19,212,606	1059	76,892,355	25
1921	698,173	125	3,345,929	21	19,690,682	1085	92,553,858	21
1922	862,220	154	3,021,563	29	26,595,949	1466	95,710,401	28
1923	1,117,168	200	3,901,579	29	32,096,472	1769	112,974,470	28
1924	1,037,752	185	4,689,326	22	35,224,982	1941	164,308,505	21
1925	998,769	178	4,558,548	22	36,753,717	2025	173,126,346	21
1926	1,373,453	245	5,548,324	25	44,748,028	2466	191,574,674	23
1927	1,471,942	263	6,166,153	24	44,748,028	2466	191,574,674	23
1928	1,611,358	288	6,716,312	24	44,193,575	2435	183,730,439	23
1929	1,250,963	224	5,540,955	23	33,673,946	1856	148,815,973	23
1930	1,055,144	189	4,915,090	22	23,623,818	1301	109,664,687	22
1931	1,856,599	332	8,616,973	22	30,251,721	1667	138,487,355	22
1932	1,627,427	291	7,143,115	23	22,994,413	1267	145,337,225	16
1933	1,785,539	319	7,571,091	24	36,977,001	2038	154,706,658	24
1934	2,285,114	408	9,456,832	24	55,018,549	3032	224,267,179	25
1935	2,140,301	382	8,590,960	25	61,487,894	3388	243,777,249	25
1936	1,863,680	333	8,472,038	22	55,298,634	3047	250,954,416	22
1937	1,487,655	266	7,431,727	20	46,986,051	2589	232,458,702	20
1938	1,763,052	315	9,595,402	18	57,044,497	3143	311,963,058	18

출전 : 「群山1899年貿易年報」, 『通商彙纂:韓國編』 8, 1900.5.15, 210쪽; 「群山1900年貿易年報」, 『通商彙纂:韓國編』 9, 1901.7.9, 152쪽; 「群山1901年貿易年報」, 『通商彙纂』 57, 1908.10.18, 67~68쪽, 85쪽;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40; 岡田重吉, 『朝鮮輸出米事情』, 同文館, 1911, 11쪽; 仙波正太郎, 『群山ト交通機關ノ變遷』, 朝鮮銀行, 1913, 37~38쪽; 群山米穀商組合, 『群山米ニ關スル調査』; 北市喜多孝, 『(開港三十周年記念) 群山』; 群山商工會議所, 『昭和11年統計年報』, 1937, 7쪽; 群山商工會議所, 『昭和13年統計年報』, 1939, 7쪽; 吉野誠, 「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2, 朝鮮史研究會, 1975, 35쪽.

비고 : 1899년은 개항 후 5월부터의 수출액임.

■ 최은진, 「群山미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4~25쪽.

14) 오사카 상선, 니자키 기선 취급 군산미의 대일 수출량(1913)

단위 : 석

지역	벼	현미	백미	쇄미(碎米)	계
오사카(大阪)	1,062	93,691	16,222	11,537	122,512
고베(神戸)	-	31,801	1,670	40	33,511
요코하마(横濱)	-	1,350	-	-	1,350
도쿄(東京)	-	800	439	100	1,339
간몬(關門)	36	456	554	-	1,046
나가사키(長崎)	-	110	200	439	749
하카타(博多)	-	253	-	137	390
계	1,098	128,461	19,085	12,253	160,897

출전 : 仙波正太郎, 『群山ト交通機關ノ變遷』, 朝鮮銀行, 1913, 39~40쪽.

■ 최은진, 「群산미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3쪽.

15) 일본의 쌀 생산, 수출 및 수입

단위 : 천 석, (%)

연도	수입		국내생산	증감률	수출	증감률
	외국	그 중 조선				
1899	660	175(26.5)	39,587	100	872	100
1900	915	453(49.5)	41,466	105	254	29
1901	1,245	583(46.8)	46,914	119	521	60
1902	1,804	356(19.7)	36,932	93	508	58
1903	4,865	417(8.6)	46,473	117	329	38
1904	5,893	131(2.2)	51,430	130	308	35
1905	4,638	124(2.7)	38,173	96	208	24
1906	2,440	126(5.2)	46,303	117	224	26
1907	2,708	364(13.4)	49,044	124	201	23
1908	1,941	447(23.0)	51,933	131	216	25
1909	2,528	399(15.8)	52,438	132	378	43
1910	1,757	368(20.9)	46,633	118	555	64
1911	2,932	227(7.7)	51,712	131	272	31
1912	2,911	259(8.9)	50,223	127	252	29
1913	4,605	573(12.4)	50,255	127	252	29
1914	4,309	1,040(24.1)	57,007	144	298	34
1915	3,084	2,242(72.7)	55,925	141	683	78
1916	2,420	1,476(61.0)	58,442	148	768	88
1917	2,505	1,536(61.3)	54,568	138	937	107
1918	6,534	2,113(32.3)	54,699	138	347	40
1919	9,443	2,737(29.0)	60,818	154	158	18

출전 : 『外國貿易概覽』, 1900-1920: 野城久吉, 『革命來の米界』, 商業通信社, 197~199쪽; 大藏省, 「明治年間米價調節沿革史附錄參考書」, 『明治年間米價調節沿革史』, 1919, 3~4쪽; 大脇正諄, 『我國の米問題』, 博文館, 1919, 19~20쪽, 74~75쪽, 176~177쪽; 農林省 農務局, 『米穀要覽』, 1921; 村上勝彦 著·정문종 譯, 『식민지 : 일본의 산업혁명과 식민지 조선』, 한울, 1984, 22쪽.

■ 최은진, 「群산미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5쪽.

16) 오사카와 고베의 조선미 수입

단위 : 엔, %

연도	항구	쌀 수입 가액		
		외국미	그 중 조선미	비율
1899	오사카	833,930	1,689,909	38.1
	고베	3,601,519		
1900	오사카	3,415,715	4,694,167	80.2
	고베	2,438,479		
1901	오사카	4,041,345	6,009,641	69.5
	고베	4,603,335		
1902	오사카	2,299,240	2,299,240	100.0
	고베	7,013,705	509,698	7.3
1903	오사카	3,621,922	3,438,228	94.9
	고베	23,675,778	545,893	2.3
1904	오사카	1,216,444	1,216,281	99.9
	고베	25,570,523	75,767	0.3
1905	오사카	930,751	930,751	100.0
	고베	14,679,714	161,752	1.1
1906	오사카	1,489,436	1,339,448	89.9
	고베	8,672,433	126,243	1.5
1907	오사카	5,625,072	5,599,056	99.5
	고베	9,489,098	1,322,690	13.9
1908	오사카	5,246,724	5,240,678	99.9
	고베	5,400,606	499,997	9.3
1909	오사카	3,356,178	3,356,178	100.0
	고베	4,403,974	686,799	15.6
1910	오사카	1,150,701	1,150,560	99.9
	고베	4,437,783	155,457	3.5
1911	오사카	2,093,673	2,074,951	99.1
	고베	6,536,257	445,244	6.8
1912	오사카	2,975,528	2,970,073	99.8
	고베	11,421,183	413,540	3.6
1913	오사카	6,552,470	6,549,205	99.9
	고베	20,281,115	949,946	4.7
1914	오사카	9,133,000	9,132,891	99.9
	고베	10,727,892	1,425,562	13.3
1915	오사카	10,654,343	10,654,247	99.9
	고베	5,228,802	1,723,038	33.0
1916	오사카	8,713,353	8,713,340	99.9
	고베	3,707,850	1,464,987	39.5
1917	오사카	-	9,823,208	-
	고베	5,338,945	1,427,261	26.7
1918	오사카	-	30,618,489	-
	고베	33,012,287	2,659,679	8.1
1919	오사카	59,497,523	57,978,250	97.4
	고베	53,735,175	5,971,291	11.1

출전 : 『外國貿易概覽』, 1900-1920; 『大阪外國貿易調』, 1900-1911; 『大阪商業會議所年報』, 1905-1913; 『神戸港外國貿易概況』, 1906-1920; 『統監府統計年報』, 1907-191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12; 『大阪商業會議所統計年報』, 1913-1920; 『大阪貿易彙纂』, 1920.

■ 최은진, 「群山미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6~67쪽.

17) 오사카와 고베의 조선미 수입회사 및 수입상

이름	활동지	주요활동
五百井商店 (五百井長平)	오사카	무역회사로서 오사카에 본점, 도쿄에 출장소, 경성,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및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주로 조일무역을 담당하여 쌀, 잡곡, 비료, 면화, 면사, 면포, 석유, 금은동, 철, 기타 잡화 등을 취급하였으며, 정미업 및 미곡 판매업을 경영하였다. 미쓰이 물산(三井物産)에 다음갈 정도로 서양형 선박을 다수 소유하였다.
庄野商店 (庄野嘉久藏)	오사카	쇼노 상점은 1910년대 말 미가조절을 명목으로 조선미를 매점하여 문제가 되었다. 쇼노 카쿠조우(庄野嘉久藏)는 대이상회(大二商會, 1918년 설립, 본점 경성), 계림 광업(鷄林鑛業, 1920년 설립, 본점 오사카, 지점 진남포)의 이사 겸 대주주였다.
岩尾商店	오사카	1928년 자본금 50만 엔의 주식회사로 확장되어 본점을 오사카, 지점을 경성 및 텐진, 상하이에 두었다. 곡류를 비롯해 직포, 면, 견사, 기타 일반 상품을 매매하거나 중개영업 및 위탁영업을 하였다.
中井商店	오사카	1916년 주식회사로 확장되어 도쿄에 본점을, 오사카, 고베, 교토, 나고야에 지점을 두었다.
林長太郎	오사카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1890년대 초부터 조선에 진출해서 쌀 및 콩의 일본 수출업을 담당하였다. 1911년부터 평양에 거주하면서 곡류, 면서, 우피류 등의 무역업을 경영하였다. 평양상업회의소(平壤商業會議所, 1916년 신설) 회두 및 평의원, 평양 북금융조합(平壤北金融組合, 1918년 설립, 본점 평양) 중역, 계림상사(鷄林商事, 1920년 설립, 본점 평양) 사장 및 대주주, 평양기업건축(平壤起業建築, 1921년 설립, 본점 평양) 이사, 마이트 상회(1921년 설립, 본점 경성) 대주주였다.
木谷伊助	오사카	무역상으로서 1896년 경성-부산 간 철도부설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발기인 중 한 명이다. 이후 조선물산(朝鮮物産, 1917년 설립, 본점 인천, 지점 군산) 이사로서 정백미 제조 판매, 미잡곡·우파·면화 등의 매매 및 수출입과 위탁판매 일체를 경영하였다. 대이상회 대주주였다.
山下市助	오사카	무역상이자 해운업계에서도 유명하였는데, 산하상점을 경영하며 조선업을 담당하였다.
有馬商會 (有馬市太郎)	고베	아리마 상회는 곡류, 비료, 설탕 등 무역을 담당하였다. 아리마 이치타로는 고베상업회의소(神戸商業會議所) 이사, 일본모직(日本毛織) 중역, 일본상업은행(日本商業銀行) 취체역이었다.
山西清兵衛	고베	무역상이자 모직물 생산업에도 종사였다. 일본상업은행 취체역, 도쿄화재보험(東京火災保險, 1887년 설립, 본점 도쿄, 지점 경성) 이사, 안전은행(安田銀行, 1923년 설립, 본점 도쿄, 지점 경성, 인천, 부산, 평양) 감사, 고베제사주식회사(神戸製絲株式會社)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石川茂兵衛	고베	미곡비료상으로서 고베미곡비료시장(神戸米穀肥料市場) 이사장 및 일본상업은행 감사역을 지냈다.

출전 : 公評散史, 『兵庫縣人物評』, 神戸同盟出版社, 1893, 120~121쪽; 『京畿關草』(奎 18067), 1893.10.1.; 『駐韓日本公使館記錄』機密第54號, 1896.8.30.; 『駐韓日本公使館記錄』機密第52號, 1898. 12.23; 『大阪外國貿易調』, 1900, 1903, 1905, 1909-1911; 日韓大阪商報社, 『日韓通商便覽』, 1905, 36~37쪽; 「懷中時計 | 寫眞機械」, 『皇城新聞』, 1905.5.17.; 「各鑛許可」, 『皇城新聞』, 1908.4.17.; 「神戸商業會議所の沿革(1-4)」, 『神戸又新日報』, 1913.9.6.-9.20; 「丸釘輸入防圧」, 大阪朝日新聞, 1913.10.17; 「米價の前途(1-4)」, 京城日報, 1915.1.13-1.16; 「多量なる正米:調節買上と當地」, 大阪新報, 1915.2.11; 「鈴木造船大擴張」, 『神戸又新日報』, 1917.7.28; 「米穀大會(1-2)」, 『中外商業新報』, 1918.4.7.-4.8; 「鮮米の買占」, 『京城日報』, 1918.7.19; 「米廉賣續續: 各地米商の値下實行と當局の對細民廉賣計劃」, 『福岡日日新聞』, 1918.8.17; 「木船合同成立」, 『大阪毎日新聞』, 1919.4.8; 「ウ港寄港問題曲折: 神戸輸出協會の交渉委員選挙」, 『神戸新聞』, 1919.5.21; 「一限格付發表」, 『神戸新聞』, 1920.2.7; 「特産界行詰」, 『滿州日日新聞』, 1920.3.28;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 1923, 1925, 1929, 1931, 1942; 「安定し難い砂糖界」, 『大阪毎日新聞』, 1921.1.29; 「仁川米豆取引所の 高田常三郎, 創重悌輔, 猪飼政太郎三仲買人賣買停止(仁川)」, 『東亞日報』, 1921.4.24; 「兩毛織折衝破裂真相」, 『神戸新聞』, 1921.4.26.-4.27.

■ 최은진, 「群山市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2~73쪽.

18) 전국의 쌀 재배면적 및 수확량

단위 : 정보, 석, (%)

지역	1910년			1919년		
	재배면적	수확량	1단보 당 수확량	재배면적	수확량	1단보 당 수확량
전국	801,876 (100.0)	8,142,852 (100.0)	0.870	1,537,800 (100.0)	12,758,208 (100.0)	0.751
경기도	102,582 (12.8)	1,234,355 (15.2)	1.203	200,477 (13.0)	1,093,688 (8.6)	0.546
충청북도	30,003 (3.7)	239,126 (2.9)	0.797	69,599 (4.5)	550,540 (4.3)	0.791
충청남도	79,651 (9.9)	786,028 (9.7)	0.783	160,550 (10.4)	1,157,052 (9.1)	0.721
전라북도	73,243 (9.1)	781,421 (9.6)	0.843	166,938 (10.9)	1,406,739 (11.0)	0.843
전라남도	117,209 (14.6)	1,103,167 (13.5)	0.941	207,097 (13.5)	2,210,342 (17.3)	1.087
경상북도	111,388 (13.9)	1,423,134 (17.5)	1.278	187,031 (12.2)	2,190,405 (17.2)	1.171
경상남도	83,514 (10.4)	1,045,098 (12.8)	1.251	165,164 (10.7)	2,014,853 (15.8)	1.220
황해도	68,499 (8.5)	605,754 (7.4)	0.884	113,121 (7.4)	558,293 (4.4)	0.404
평안남도	24,611 (3.1)	229,424 (2.8)	0.931	67,917 (4.4)	221,284 (1.7)	0.326
평안북도	48,372 (6.0)	353,021 (4.3)	0.729	73,306 (4.8)	311,132 (2.4)	0.424
강원도	32,404 (4.0)	134,902 (1.7)	0.416	78,054 (5.1)	616,809 (4.8)	0.790
함경남도	23,344 (2.9)	170,122 (2.1)	0.721	41,380 (2.7)	381,519 (3.0)	0.801
함경북도	7,056 (0.9)	37,300 (0.5)	0.528	7,166 (0.5)	45,552 (0.4)	0.636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 1920.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0~11쪽.

19) 전북, 충남의 주요 지역별 쌀 재배면적 및 수확량(1910)

단위 : 정보, 석, %

도군	재배면적		수확량		도군	재배면적		수확량	
전라북도	73,243	100.0	781,421	100.0	충청남도	79,651	100.0	786,028	100.0
김제군	5,739	7.8	56,922	7.7	공주군	7,081	8.9	73,754	9.4
전주군	5,458	7.5	56,682	7.3	면천군	5,050	6.3	53,614	6.8
부안군	5,753	7.9	42,946	5.5	회덕군	4,200	5.3	47,335	6.0
금구군	3,370	4.6	42,083	5.4	노성군	2,259	2.8	39,779	5.1
무장군	2,939	4.0	38,827	5.0	은진군	2,922	3.7	35,458	4.5
순창군	2,519	3.4	38,676	4.9	임천군	2,357	3.0	32,325	4.1
고부군	4,839	6.6	37,587	4.8	홍산군	1,878	2.4	30,619	3.9
익산군	3,036	4.1	35,332	4.5	홍주군	4,082	5.1	29,954	3.8
여산군	2,328	3.2	34,960	4.5	아산군	3,709	4.7	28,278	3.6
만경군	2,753	3.8	34,728	4.4	한산군	1,916	2.4	26,411	3.4
임피군	2,918	4.0	33,851	4.3	태안군	2,060	2.6	25,380	3.2
태인군	3,180	4.3	32,003	4.1					
임실군	2,650	3.6	30,218	3.9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

비고 : 1) 전북은 수확량 3만 석 이상, 충남은 수확량 2만 5천석 이상만 기재함.

2) 군산부는 재배면적 2,187정보(전북의 3.0%), 수확량 21,660석(전북의 2.8%)이었음.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쪽.

20) 군산 이사청 관할 내 일본인 지주(1900)

단위 : 명, 정보, 천원, %

투자액	지주수		소유면적		투자액	
10만원 이상	5	5.6	7,098	46.0	545	39.9
5만원 이상	10	11.1	4,186	27.2	662	31.2
1만원 이상	21	23.3	2,917	18.9	454	21.4
5천원 이상	16	17.8	840	5.5	102	4.8
5천원 이하	38	42.2	371	2.4	57	2.7
합계	90	100.0	15,412	100.0	2,120	100.0

출전 : 『統監府統計年報』, 1910.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2쪽.

21) 일본인의 주요 지역에서의 토지소유(1909)

단위 : 단위 : 정보, 원, (%)

	군산	목포	부산	평양	경성	대구	합계
소유면적	19,697 (34.1)	13,057 (22.6)	10,824 (18.8)	9,109 (15.8)	4,209 (7.3)	828 (1.4)	57,724 (100.0)
투자액	2,249,389 (25.1)	1,845,594 (20.6)	2,938,643 (32.9)	673,590 (7.5)	1,018,229 (11.4)	219,098 (2.5)	8,944,543 (100.0)
생산품액	213,130 (23.3)	156,287 (17.1)	212,898 (23.3)	93,547 (10.2)	191,685 (21.0)	45,419 (5.0)	912,966 (100.0)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4쪽.

22) 군산 부근의 농업회사

단위 : 원

회사명	설립연도/지역	자본금	주요 임원명	주요 목적
臨陂商會(株)	1918/옥구	20,000	(전무) 萩原重三, (상무) 李東錫, (이사) 中對與十郎, 李完植, 後藤梅吉, (감사) 唐中鉉, 今井珪次郎	제 물품의 매매·대여 및 위탁판매
朝鮮精米(株) (群山支店)	1918/군산	500,000	(전무) 天日常次郎, (이사) 堀內廉一, 荒井初太郎, 小笠原儀雄, 半田瀧吉, (감사) 賀田金三郎, 鍛治米藏	정미 및 미곡 위탁매매
朝鮮蠶業(株)	1919/익산	250,000	(사장) 大橋與市, (이사) 倉田光藏, 片桐和三, 今村一次郎, 板井信藏, 朴基順, 扇米助, 山崎增平, 金丙熙, (감사) 森谷元一, 趙重煥, 田阪佐三郎	농림용 종묘 육성 판매, 비료 및 농잡구 판매, 잠종 및 繭絲 제조 판매, 繭의 위탁판매
群山興農(株)	1919/군산	100,000	(전무) 松本市五郎, (이사) 橋本央, 嶋谷八十八, 森谷元一, 文鍾龜, (감사) 楠田義達, 今村一次郎, 大倉米吉	미곡 위탁매매, 비료 제조 및 판매, 종자·종묘·농잡구·繩呷 판매
湖南農具(株)	1919/군산	100,000	(전무) 中道季, (이사) 佐藤政次郎, 坂口禎藏, (감사) 河野惣三郎, 山崎藤治	미곡 매매 및 위탁판매, 개량농구 제조 및 수입판매, 토지·가옥·비료·繩呷 매매, 농사자금 대부업
群山米穀信託(株)	1920/군산	1,000,000	(사장) 森菊五郎, (이사) 橫山與市, 下田吉太郎, 落合常助, 半田瀧吉, 日高千代吉, (감사) 中柴萬吉, 吉永吉三郎, 金洪斗	미곡·비료·穀粉·製油·원료 등의 담보 대부, 미곡 및 繩呷 매매와 위탁 판매, 창고업
全北畜産(株)	1920/익산	200,000	(사장) 今村一次郎, (전무) 片桐和三, (이사) 山崎增平, 靑田竹次, 橋本央, 朴基順, 金炳順, (감사) 永原邦彦, 眞田壽助, 倉田光藏	농업 자금 대부, 축우·가축·축산물의 매매 및 수출입, 목축 경영, 축산물을 이용한 공업 및 농업 부대사업
黃登産業(株)	1920/익산	200,000	(사장) 今村一次郎, (전무) 片桐和三, (이사) 橋本央, 靑田竹治, 高木道二郎, 朴智根, 金海均, (감사) 扇米助, 永原邦彦, 板井信藏	목축 경영, 농산물·비료·繩呷 판매, 농업자금 대부, 가축·가금·축산물 매매 및 수입출, 축산물 이용 공업

출전 :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 1923, 1937; 保高正記, 『群山開港史』, 群山府, 1925, 217~219쪽; 伊藤光三郎, 『群山案内』, 群山築港起工祝賀會記錄係, 1926, 47~49쪽; 鎌田白堂, 『湖南の人物と事業: 湖南編』 1, 實業之朝鮮社出版部, 1936, 119~231쪽.

■ 최은진, 「群山미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9~20쪽.

23) 군산미가의 변동 상황

단위 : 1석당 원, %

연도	현미						정미					
	상		중		하		상		중		하	
1899	6.40	100	5.30	100	4.20	100	-	-	7.80	100	-	-
1900	7.00	109	5.60	106	4.40	105	-	-	-	-	-	-
1901	7.80	122	6.60	125	5.40	129	-	-	-	-	-	-
1902	9.85	154	8.73	165	7.40	176	-	-	-	-	-	-
1903	10.80	169	9.20	174	7.60	181	-	-	-	-	-	-
1904	10.30	161	9.40	177	8.60	205	-	-	-	-	-	-
1905	10.20	159	9.05	171	7.80	186	-	-	-	-	-	-
1906	11.80	184	10.28	194	8.75	208	-	-	-	-	-	-
1907	10.70	167	9.53	180	8.36	199	12.09	100	11.79	151	10.97	100
1908	10.20	159	9.73	184	9.19	219	11.59	96	11.02	141	10.23	93
1909	8.06	126	7.70	145	7.34	175	12.71	105	10.79	138	9.96	91
1910	8.92	139	8.22	155	7.89	188	9.93	82	9.33	120	8.93	81
1911	12.05	188	11.72	221	11.39	271	14.06	116	13.64	175	13.14	120
1912	15.81	247	15.35	290	14.89	355	19.75	163	19.12	245	18.47	168
1913	16.26	254	15.66	295	15.27	364	18.89	156	19.24	247	17.33	158
1914	12.50	195	12.11	228	11.72	279	16.92	140	15.68	201	13.29	121
1915	10.36	162	9.86	186	9.37	223	12.39	102	11.96	153	11.64	106
1916	11.78	184	11.38	215	10.98	261	14.16	117	13.61	174	13.05	119
1917	16.85	263	16.67	315	16.44	391	19.55	162	19.16	246	18.50	169
1918	40.50	633	28.50	538	16.80	400	31.63	262	30.96	397	30.33	276
1919	36.50	570	34.65	654	29.80	710	46.35	383	45.61	585	44.58	406

출전 : 『統監府統計年報』, 1909-191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20; 群山米穀商組合, 『群山米ニ關スル調査』, 1921.4.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3쪽.

24) 일본미가와 조선미가 대비

단위 : 1석당 원, %

연도	일본미가		조선미가		연도	일본미가		조선미가	
1899	9.99	100	7.50	100	1910	13.27	133	11.56	154
1900	11.90	119	7.91	105	1911	17.34	174	15.52	207
1901	12.34	124	7.55	101	1912	20.69	207	19.81	264
1902	12.67	127	9.29	124	1913	21.44	215	20.64	275
1903	14.43	144	10.18	136	1914	16.15	162	15.49	207
1904	13.22	132	10.38	138	1915	13.06	131	12.22	163
1905	12.84	129	-	-	1916	13.66	137	13.81	184
1906	14.68	147	-	-	1917	19.80	198	19.47	260
1907	16.42	167	-	-	1918	32.51	325	30.18	402
1908	15.98	160	13.90	185	1919	45.89	459	44.09	588
1909	13.19	132	12.08	161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20; 野城久吉, 『革命來の米界』, 商業通信社, 1912, 47~48쪽; 大藏省, 『明治年間米價調節沿革史』, 1919, 3~4쪽; 大脇正諄, 『我國の米問題』, 博文館, 1919, 74~78쪽; 中澤辨次郎, 『日本米價變動史』, 明文堂, 1933, 378~462쪽.

비고 : 1) 일본미가는 도쿄의 正米 평균 상장가임.

2) 조선미가는 精米 기준임.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4쪽.

25) 군산항의 조선인 객주 및 일본인 미곡상

이름	출신	주요 이력
金洪斗	익산	1900년 군산에 정착하여 天一商會를 통해 미곡 수출을 중심으로 객주 영업을 시작하였다. 群山客主組合 대표, 群山米穀信託(株) 취체역과 감사, 群山米穀商組合 부회장, 群山商業會議所 평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群山米穀組合長, 群山精米組合 및 群山製繩組合 고문을 맡았다. 1920년 朝鮮勞動共濟會 군산지회 고문이었다.
申錫雨	서천	1910년 전후 군산에 진출하였고, 대지주이자 상인으로 활동하였다. 1917년 群山商業會議所 특별평의원 및 군산부 참사, 1918년 군산부협의원, 1920년 湖南物産(株) 취체역 및 群山府客主組合長에 피선되었다. 중추원 참의 群山米穀商組合員이었다.
邊光鎬	군산	群山米穀商組合 평의원, 군산부협위원을 역임하였고, 해방 후 제2대 국회의원(군산시, 민주국민당)에 당선되었다.
李源衡	군산	군산미곡상조합 평의원, 군산부협의원, 군산부회의원, 군산상공회의소 평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金錫玄	군산	1903년 설립된 군산항 객주단체 昌盛社의 중역이었다. 이후 군산항객주상회사에서 활동하였다.
朴尙浩	군산	창성사의 중역이었고, 1905년 설립된 日韓協同普運社의 발기인을 맡았다. 1908년 경 大韓協會 군산항지회원이었다.

이름	출신	주요 이력
金明俊	군산	군산항객주상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대한협회 군산항지회원이었다.
鄭寅哲	군산	군산항객주상회사 소속이었다. 1920년 설립된 南鮮興業(株) 감사, 1929년 설립된 朝鮮産業(株) 이사를 역임하였다.
大澤藤十郎	시마네	1897년 목포 개항 시 大澤商會 목포지점을 개설하였고, 1899년 군산출장소를 열어 미곡 수출 활동을 하였다. 이와 함께 1901년부터 大阪商船(株) 군산취급점에서 운송업을 겸하였다. 군산미곡상조합원, 군산상업회의소 제3대 회두였다.
下田吉太郎	나가사키	1899년 군산에 이주하여 미곡 수출상으로 활동하였다. 군산미곡상조합원, 군산상업회의소 평의원, 군산미곡신탁(주) 이사를 역임했다.
中井福三郎	나가사키	1900년 군산에 이주하여 中井商店을 통해 정백미 및 繩呌 판매와 대일 미곡 수출업을 경영하였다.
藤阪重次郎	나가사키	1901년 군산에 도항하여 미곡 수출업에 종사하였다.
金森玄三	기후	1901년 군산으로 와서 미곡 수출상 활동을 하였다. 군산수출무역상조합장, 군산미곡상조합 부조합장, 군산상업회의소 평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布井嘉造	와카야마	1901년 군산에 와서 이후 독립하여 미곡 수출상이 되었다. 군산미곡상조합원이었다.
岩田猪之助	와카야마	1902년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주하여 미곡 수출업에 종사하였다. 군산미곡상조합원, 군산상업회의소 평의원이었다.
小西槌松	히로시마	1903년에 군산에서 미곡 수출상 활동을 개시하였다.
花岡鶴松	아마구치	1903년 군산에 와서 미곡수출업과 정미업에 종사하였다. 花岡精米所와 花岡商店을 경영하였으며, 군산상업회의소 회두, 군산미곡상조합장 등을 역임하였다.
松本市五郎	아마구치	1906년 오사카상선(주) 군산대리점에 입사한 이래 미곡·비료 무역상 활동을 하였다. 군산상업회의소 제5대 회두, 군산흥업(주) 전무였다.

출전 : 昌盛社, 『昌盛社章程』(奎 18954), 1903; 「會員名簿」, 『大韓協會會報』 4, 1908.7.25.; 群山商業會議所, 『月報』 21, 1910.9, 2쪽; 群山米穀商組合, 『群山米ニ關スル調査』, 1921.4; 『朝鮮總督府官報』, 1921.5.3.; 홍성찬 외,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 수리조합, 지주제, 지역정치』, 해안, 2006, 424쪽; 김태웅, 「대한제국기 군산 객주의 상회사 설립과 경제·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2006, 46쪽.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9~50쪽.

26) 군산의 도정업 현황

단위 : 원, 명

명칭	자본금	직공		비고
		조선인	일본인	
石田窪田精米所	15,000	8	3	1908년 기준
布井門脇粕摺所	15,000	25	1	1909년 기준
群山精米所	15,000	20	1	1909년 기준
森久粕摺工場	15,000	35	-	1914년 기준
澤田精米所	51,100	30	10	1915년 기준
三矯精米所	30,000	65	10	1915년 기준
布井精米所	25,000	15	3	1915년 기준
岩田精米所\ (군산부)	18,000	203	5	1915년 기준
藤井精米所	8,000	7	1	1915년 기준
藤井粕摺所	600	12	1	1915년 기준
半田粕摺所	3,000	14	1	1915년 기준
藤本粕摺所	1,500	16	-	1915년 기준
명칭	경영자/자본금		설립연도	
森菊精米所	森菊五郎		1910년	
朝鮮物産工場	朝鮮物産(株) 군산지점		1910년	
下田精米所	樋口虎三		1911년	
品川第一工場	落合常助		1915년	
品川第二工場	落合常助		1915년	
中井精米所	中井小一郎		1918년	
花岡精米所	花岡鶴松		1918년	
朝鮮精米工場	朝鮮精米(株) 군산지점/500,000		1918년	
不二精米工場	不二興業(株)		1919년	
不二西濱工場	不二興業(株)		1919년	
朝日精米工場	朝日精米所(株)/1,000,000		1920년	

출전 : 『統監府統計年報』, 1909-191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20; 群山商業會議所, 「米に關スル調査」, 1910; 群山米穀商組合, 『群山米ニ關スル調査』, 1921.4; 伊藤光三郎, 『群山案内』, 群山築港起工祝賀會記錄係, 1926, 49쪽; 北市喜多孝, 『(開港三十周年記念) 群山』, 釜山日報 群山支社, 1928.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7쪽.

27) 군산의 미곡창고(1920)

단위 : 채, 평

구조	동수	평수
土藏造(기와지붕)	11	617
목조(기와지붕)	69	3,136
목조(함석지붕)	25	6,237
계	105	9,990

출전 : 群山米穀商組合, 『群山米=關スル調査』, 1921.4.

■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9쪽.

28) 5개항 현미, 정미의 일본 수이출 비교

단위 : 1천 석

연도	군산		인천		부산		목포		진남포	
	현미	정미	현미	정미	현미	정미	현미	정미	현미	정미
1920	311 (63.9)	176 (27.1)	54 (21.0)	203 (79.0)	487 (62.9)	287 (37.1)	130 (79.8)	33 (20.2)	48 (62.3)	29 (37.7)
1925	825 (83.9)	158 (16.1)	294 (26.4)	819 (73.6)	977 (73.8)	346 (26.2)	304 (96.2)	12 (3.8)	160 (34.3)	306 (65.7)
1930	1593 (87.3)	231 (12.7)	560 (30.8)	1257 (69.2)	685 (36.4)	1199 (63.6)	657 (89.0)	81 (11.0)	625 (46.7)	712 (53.3)

출전 :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1960, 388쪽.

비고 : 최낙필, 「일제의 토지수탈과 전북경제의 정체에 관한 연구-군산항의 개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09쪽.

■ 김태웅, 「開港~日帝強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한국문화』 64, 2013, 61쪽.

29) 1920년대 전반 군산항 백미·현미 이출 현황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현미에 대한 백미의 비율	103	115	67	55	61

출전 : 『동아일보』, 1926년 9월 24일.

비고 : 현미를 100으로 정함.

■ 김태웅, 「開港~日帝強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한국문화』 64, 2013, 65쪽.

30) 미곡 수출 도시의 도정 현황

소재지	구분	공장수(개)	자본금(엔)	기술자(명)	직공(명)	생산품가액(엔)	원동력
부산	정미	10	534,000	13	113	3,339,170	증기, 석유발동기
마산	정미	2	10,000	-	7	9,800	석유발동기
	정미와 현미	1	10,000	-	4	7,600	석유발동기
군산	정미	1	15,000	-	21	85,000	석유발동기
	현미	2	21,000	-	57	425,000	석유발동기
목포	정미	4	64,000	4	26	365,000	증기, 석유발동기
경성	정미	4	160,000	-	257	1,270,000	증기, 흡입가스
인천	정미	4	57,000	4	85	280,000	전력, 증기, 석유
진남포	정미	2	150,000	-	414	350,000	증기
대구	정미	2	18,000	-	24	70,000	석유발동기
계	정미	29	998,000 ¹⁾	23 ⁴⁾	947	5,768,970	
	정미와 현미	3	22,500 ²⁾	-	61	432,600	
합계		32	1,020,500 ³⁾	23 ⁵⁾	1,008	6,201,570	

출전 : 朝鮮總督府, 『第4次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09)』, 1911.

비고 : 190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1~3) 실제 자본금 합계는 정미 1,008,000, 정미와 현미 31,000, 합계는 1,039,000으로 집계됨.

4~5) 실제 기술자는 21명으로 집계됨.

■ 김태웅, 「開港~日帝強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한국문화』 64, 2013, 49~50쪽.

31) 1900년대 중반 수출 미곡의 형태에 따른 도정업 순이익

구분	粳으로 매각	현미로 군산매각	현미로 오사카 직수출
대금	8원 40전	10원	13원
제반경비	10전	1원 6전	3원 96전 6리
순익	8원 30전	8원 94전	9원 3전 4리

출전 : 三輪規, 『富之群山』, 1907, 159쪽.

비고 : 粳 2석 = 현미 1석

■ 김태웅, 「開港~日帝強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한국문화』 64, 2013, 44쪽.

32) 1899-1910년 군산 지역 정미소 현황

화폐단위 : 원

정미소	자본가	창립 시기	자본금	기술 자	직공			작업기	원동기	마력	작업 일수	생산 가액	제품 종류
					한	일	계						
嶺 정미소	嶺武之	1902-1905							석유 발동기	10 (04)			
布井·門脇 정미소	布井嘉造, 門脇理一郎	1905-1910	3,000(07)-4,000(08)-15,000(09)		25	1	26 (09)		석유 발동기			225,000 (09)	玄 (09)
布井 정미소	布井嘉造	1910	25,000(10)-40,000(11)	1	50		50 (11)	엥겔정미 投臼	석유 발동기	16 (11)	355	350,000 (11)	玄·精 (13)
宮崎 정미소	宮崎佳太郎	1907 전후							석유 발동기				精
橋本 정미소	橋本央	1907 전후						足踏機	인력				精
石田·窪田 정미소	石田龜太郎, 窪田好助	1907-1908	15,000 (07)		8	3	11 (07)		무점화 발동기				
군산 정미소		1907-1910	15,000 (09)		20	1	21 (09)		석유 발동기	8 (09)		85,000 (09)	精·玄 (09)
岩田 정미소	岩田宇之助	1907	30,000-18,000(11)		30	10	40 (11)	橫江川 정미기 4대 엥겔정미기 3대	석유 발동기	20 (11)	355	250,300 (11)	精·玄 (11)
澤田 정미소	澤田傳松	1910	2,000(10)-3,500(11)		11	3	14 (11)	스프링그 정미기	석유 발동기	4 (11)	355	20,155 (11)	玄·精 (12)
石貝屋정미소		1910	5,000 (13)			2	2 (13)			6 (13)		90,000 (13)	精 (13)

출전 : 이헌창, 「韓國 開港期の 日本人 搗精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부록 도정업 관련 자료에서 추출함.

비고 : 괄호는 연도를 가리킴. 또한 玄·精은 각각 현미와 정미를 가리킴.

■ 김태웅, 「開港~日帝强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한국문화』 64, 2013, 47~48쪽.

33) 1910-1919년 군산지역 도정 공업 현황

정미소	대표	창립시기	자본금 (圓)	종업원 수			원동력		작업 일수	생산품		
				한	일	계	종류와 기관수	마 력		종류	수량 (석)	가격(圓)
森菊 정미소	森菊五郎	1911.8	10,000	115	15	130	가스발 동기2	85	350	백미	80,000	1,120,000
삼국정미 소분공장	森菊五郎	1911.8					석유발 동기1	7		현미	40,000	48,000
澤田 정미소	澤田傳松	1910.12	51,100	30	10	40	가스발 동기1	20	342	백미	15,000	210,000
三橋 정미소	三橋寅吉	1911.1	30,000	95	25	120	증기기 관1	13	120	현미	60,000	720,000
岩田 정미소	岩田宇之 助	1907.4	15,000	30	4	34	석유발 동2	27	120	백미	33,500	469,000
										현미	15,000	180,000
布井 정미소	布井嘉造	1904.5	30,000	16	3	19	흡입가 스발동 기1	40		石拔 精選 玄米	3,789	49,257
										현미	4,518	54,216
陸石정미 주식회사	黒田武	1914.4	500,000							현미	22,600	271,200
조선정미 주식회사	半田瀧吉	1918.8	500,000							백미		
中井 정미소	中井小一 郎	1919.10	40,000							백미		
花岡第一 정미공장	花岡鶴松	1914.11	30,000							현미		
落合 정미소	落合常助	1918.11	100,000							현미		
落合제2 정미소	落合常助	1918.11	공통							백미		
品川 정미소	品川德藏	1915.10	10,000	100	5	105	가스기 관1	50	300	현미		
森久 粕摺所	藪谷延治	1911.4	15,000	35	5	40	절구25		150	백미	13,000	169,000
前田 粕摺所	前田熊次 郎	1914.11	3,000	20		20	절구10		80	현미	10,000	120,000
車相根 粕摺所	車相根	1915.5	2,000	24		24	절구7		290	현미	4,750	57,000
半田 粕摺所	半田瀧吉	1914.11	3,000	14	1	15	10		100	현미	7,500	90,000
伊藤 粕摺所	伊藤勘太 郎	1915.7	1,500	17		17	절구9		150	현미	2,500	30,000
丸六 粕摺所	余島竹市	1915.11	1,000	15		15	절구6		80	현미	1,200	14,400
金思珩 粕摺所	金思珩	1915.12	4,000	13		13	절구10		180	현미	2,700	32,400
藤井 粕摺所	藤井廣吉	1915.3	600	5	2	7	절구5		90	현미	1,000	12,000

출전 : 『朝鮮總督府全羅北道統計年報』, 全羅北道, 1916.

비고 : 森菊정미소의 경우, 창립 연월이 문헌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군산 상업회의소가 편찬한 『군산상업회의소통계연보』(1926)에 의거하여 1911년 8월로 추정하였다.

수치기준은 1916년으로 삼되, 1916년 이후에 설립된 도정공장도 포함시킴. 누락 항목은 자료 미비로 채우지 못함.

■ 김태웅, 「開港~日帝强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한국문화』 64, 2013, 52~53쪽.

34) 1920-1926년 군산 지역 도정 공장 현황

정미소	자본가	창립 시기	자본 금(圓)	종업원수			원동력		작업 일수	생산품		
				한	일	계	종류와 기관수	마력		종류	수량 (석)	가격 (圓)
森菊 정미소	森菊五 郎	1911 .8	10,000	47	3	50	흡입가스 발동기2	85	200	백미	12,500	437,500
陸石精米 주식회사	黒田武	1914 .4	500,000	150	15	165	흡입가스 발동기2	120	300	백미	80,000	2,400,000
							전기모터2	30				
朝鮮精米 주식회사	半田瀧 吉	1918 .8	500,000	227	18	245	흡입가스 발동기2	100	250	백미	40,000	1,400,000
中井 정미소	中井小 一郎	1919 .10	40,000	27	3	30	흡입가스 발동기1	18	180	현미	24,500	735,000
花岡第一 정미공장	花岡鶴 松	1914 .11	30,000	38	5	43	흡입가스 발동기1	30	150	현미	12,000	360,000
落合 정미소	落合常 助	1918 .11	100,000	235	20	255	흡입가스 발동기2	85	300	백미	35,000	1,225,000
落合第二 정미소	落合常 助	1918 .11	공통	85	2	87	흡입가스 발동기1	45	300	현미	26,000	795,000
東洋拓殖 株式會社 정미소		1922 .5	13,000	32		32	흡입가스 발동기1	35	240	현미	10,000	300,000
朝日精米 株式會社 정미소	井上松 之助	1920 .9	500,000	227	18	245	흡입가스 발동기2	210	300	백미	120,000	4,200,000
車相根 粳摺所	車相根	1915 .5	2,000	30	2	32	흡입가스 발동기1	28	180	현미	20,000	600,000
半田 粳摺所	半田瀧 吉	1914 .11	3,000	12	1	13	석유발동 기1	5	150	현미	4,500	135,000
戶田 粳摺所	戶田佐 太郎	1923 .11	10,000	30	3	33	흡입가스 발동기1	20	180	현미	4,500	135,000
朴昌淑 粳摺所	朴昌淑	1924 .3	3,000	28		28	석유발동 기1	5	120	현미	5,000	150,000
田邊 粳摺所	田邊精 一	1920 .12	5,000	9	1	10	석유발동 기1	3	180	현미	1,000	30,000

출전 : 群山商業會議所, 『群山商業會議所統計年報』, 1926.

■ 김태웅, 「開港~日帝強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한국문화』 64, 2013, 58~59쪽.

35) 1920년대 전북지역 일본인 대지주의 농업경영 내력

단위 : 1925년 말 현재 30정보 이상

경영지	소유지 면적				경농종별	영농 방법	창립연월	명칭
	답	전	기타	계				
전주,익산,김제	328.0	38.0	17.0	383.0	보통농사	소작	1907.4	伊藤농장
전주	113.8	29.9	19.8	163.5	보통농사	소작	1909.5	筑柴농장
전주,김제,익산	142.8	39.2	9.7	191.7	보통농사	소작	1906.3	井上농장
전주	25.2	3.0	2.5	30.8	보통농사	소작	1906.12	北本松次郎
전주,정읍,부안 김제,옥구,익 산	2,625.5	210.1	141.8	2,978.4	보통농사	소작	1903.10	熊本농장
김제,정읍,부안	1,412.1	64.0	95.5	1,571.9	보통농사	소작	1908.5	石川농장
김제,정읍,고창	530.0	98.4	30.0	658.4	보통농사	소작	1907.5	桀富농장
김제,정읍	155.0	15.0	1.5	171.5	보통농사	소작	1910.3	溝水농장
옥구	547.0	11.7	411.6	970.3	보통농사	소작	1904	嶋谷농장
옥구,익산	491.2	10.8	1.6	503.6	보통농사	소작	1903.2	宮崎농장
옥구,익산	327.5	73.9	90.0	491.4	보통농사	소작	1905.8	川崎농장
옥구,익산	564.8	6.4	11.9	583.1	보통농사	소작	1904.3	大倉농장
옥구	93.3	0.8	1.1	95.2	보통농사	소작	1905	甲斐농장
옥구	31.8	2.3	5.2	37.3	보통농사	소작	1905	井上농장
옥구	52.0	3.0	1.6	56.6	보통농사	소작	1907	片山농장
부안,김제,전주 옥구,익산	507.0	108.0	35.0	650.0	보통농사	소작	1904.4	眞田농장
익산,전주,김제 고창,부안	1,187.5	159.8	24.3	1,371.6	보통농사	소작	1904.9	細川농장
익산,김제,옥구	971.4	107.4	73.8	1,152.6	보통농사	소작	1908.9	大橋농장
익산,전주,김제	183.0	117.2	16.5	316.7	보통농사	소작	1906.8	今村농장
김제,익산	38.0	50.0	0.0	88.0	보통농사	소작	1906.4	片桐농장
김제,익산	80.0	15.0	7.0	102.0	보통농사	소작	1906.8	田板농장

출전 : 朝鮮總督府 殖産局, 『朝鮮の農業事情』, 大海堂, 169~171쪽.

■ 김민영, 「1920~30년대 군산, 옥구지역의 식민지적 농업생산구조」, 『지역개발연구』 8, 1996, 12쪽.

36) 1920년대 후반 전북 5대 수리조합의 현황

조합명	설립연월일	몽리 구역	몽리 면적	조합원 수
옥구서부	1908.2.8.	옥구군 미면, 구읍면	473정	255명
임옥	1909.2.1.	옥구군 서수면, 회현면, 대야면, 임피면	4,590정	699명
전익	1910.11.24.	익산군 황등면, 춘포면, 전주군 삼례면	1,445정	203명
고부	1916.5.2.	고창군 흥덕면, 성내면, 정읍군 고부면, 영원면, 부안군 건광면, 주산면, 부영면, 백산면, 동진면	4,323정	1,026명
익옥	1920.3.5.	익산군 익산면, 오산면, 옥구군 대야면, 회현면, 개정면, 미면, 구읍면	9,721정	1,789명

출전 : 群山市史編纂委員會, 『群山市史』, 群山市, 1991.

■ 김민영, 「1920~30년대 군산, 옥구지역 식민지적 농업생산구조」, 『지역개발연구』 8, 1996, 15쪽.

37) 1930년대 군산 옥구지역 30정보 이상 일본인 대지주

경영지	소유지 면적				관리지 면적			경농 종별	영농 방법	창립 연월	소재지	명칭
	답	전	기타	계	답	전	계					
군산	572.8	20.1	3.0	595.9				보통 농사	소작	1919 .6		佐藤政治 郎
군산	430.3	42.9	23.4	497.6				보통 농사	소작	1919 .6		森菊 농장
군산	334.6	26.5	3.6	364.7				보통 농사	소작	1919 .6		石田龜太 郎
군산	130.1	7.5	4.2	141.8				보통 농사	소작	1919 .6		花岡鶴松
옥구	2,750.3	180.0	249.6	3,187.9				보통 농사	소작	1903 .10	개정면	熊本 농장
옥구	1,028.5	193.6	203.3	1,425.5				보통 농사	소작	1903 .10	서수면	주식회사 二葉社
옥구	907.9	10.9	72.3	991.1				보통 농사	소작	1920 .7	대야면	조선 출장소
옥구	560.8	7.5	7.3	575.6				보통 농사	소작	1904 .3	대야면	八木 농장
옥구	500.2	6.3	5.3	511.8				보통 농사	소작	1903 .2	미면	宮崎 농장
옥구	451.6	1.3	0.4	453.3				보통 농사	소작	1917 .2	회현면	大倉 농장
옥구	233.4	45.3	55.8	334.5	799.6	188.8	818.4	보통 농사	소작	1904	개정면	嶋谷 농장
옥구	181.0	50.0	3.0	234.0	169.0		169.0	보통 농사	소작	1906 .6	서수면	森谷 농장
옥구	125.5	16.9	11.4	153.8				보통 농사	소작	1923 .3	서수면	전농장
옥구	61.0	7.6	47.4	116.0				보통 농사	소작	불명	나포면	澁谷小三 郎
옥구	94.6	6.1	1.8	102.5				보통 농사	소작	1905	대야면	甲斐 농장
옥구	53.0	3.0	1.5	57.5				보통 농사	소작	1907 .9	임피면	池田 농장

출전 : 沃溝郡誌刊行委員會, 『沃溝郡誌』, 沃溝郡誌刊行委員會, 1963.

■ 김민영, 「1920~30년대 군산, 옥구지역의 식민지적 농업생산구조」, 『지역개발연구』 8, 1996, 17쪽.

4. 인구 분야

1) 18세기 후반 ~ 1910년 군산, 옥구의 호구 및 인구 변화

면	18세기 후반		1910년		증가율(%)	
	호구수	인구수	호구수	인구수	호구	인구
東縣內面	203	1,155	315	1,354	55	17
朴只山面	413	1,547	549	2,655	33	17
長梯面	250	1,413	478	2,135	91	51
風村面	340	1,601	455	2,086	34	30
西縣內面	270	957	270	1,298	0	36
定只山面	613	3,104	748	3,633	22	17
米堤面	487	2,416	704	3,296	45	36
北面	534	2,456	1,273	5,373	138	118

출전 : 이헌창,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戶口總數』(奎 1602, 1789); 『民籍統計表』, 1910.

비고 : 北面은 군산진이 1895년 혁파된 뒤에 다시 옥구군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1899년 군산이 개항되었지만 1879년 이전에 북면이 군산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10년까지는 옥구부 북면으로 남아 있었다.

■ 김태웅, 「대한제국기 群山 客主의 商會社 설립과 경제·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2006, 17쪽.

2) 개항~일제강점기 인구 증가 추이

연도	목포		군산	
	인구총계	일본인(%)	인구 총계	일본인(%)
1897	2,806	206(7.3)		
1899			588	77(13.1)
1902	4,755	1,045(22.0)	1,932	569(29.5)
1907	8,139	2,851(35.0)	5,987	2,956(49.4)
1910	10,655	3,494(32.8)	7,373	3,448(46.8)
1915	12,782	5,360(41.9)	10,965	5,291(48.3)
1920	16,701	5,273(31.6)	14,138	5,659(40.0)
1925	26,718	6,816(25.5)	21,559	7,064(32.8)
1930	34,689	7,922(22.8)	26,321	8,707(33.1)
1935	60,734	9,174(15.1)	41,698	9,400(22.5)
1940	64,256	8,514(13.3)	40,553	8,391(20.1)

■ 송석기,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0-2, 2008, 151~155쪽.

3) 이리 및 군산에서의 인구증가(1920-1940)

		1920	1925	1930	증가율(%) (1920~30)	1935	1940	증가율(%) (1930~40)
이리		7,267	13,403	17,964	147.2	21,219	21,768	17.5
군산	조선	8,243		16,894	104.9			
	일본	5,659		8,707	53.9			
	외국	236		720	205.1			
계		14,138	21,559	26,321	86.2	41,698	40,553	54.1

자료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 『國勢調査報告』, 1925-1944.

■ 정승진,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 『쌀살문명 연구』 1, 2008, 150쪽.

4) 1931-1942년 군산부의 인구추이

연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31	3,580	16,843	2,160	9,115	110	580	5,850	26,538
1932	5,919	26,200	2,306	9,000	132	375	8,357	35,575
1933	6,003	26,508	2,327	9,106	103	385	8,433	35,999
1934	6,141	27,144	2,370	9,408	105	407	8,616	36,959
1935	6,615	30,742	2,150	9,711	135	624	8,900	41,077
1936 ¹⁾	6,784	31,492	2,187	10,063	103	570	9,047	42,125
1937 ²⁾	7,026	32,399	2,076	10,255	46	167	6,148	42,851
1938	7,030	34,431	2,090	9,638	44	215	9,164	44,284
1939	6,886	32,963	2,083	9,540	47	254	9,016	42,757
1940	8,830	42,714	2,136	9,901	69	308	11,035	52,923
1941	8,659	43,110	1,952	8,921	75	370	10,686	52,401
1942	9,226	46,959	1,972	8,624	89	453	11,287	56,036

출전 : 群山商工會議所, 『昭和3年統計年報』, 1939;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 石源華, 李輔溫 編纂, 『中國南京國民政府 外交部公報 大韓民國關係史料』 상권, 도서출판 高句麗, 1995, 588쪽.

※ 1) 실제 1936년 호수 합계는 9,074, 인구 합계는 42,125로 집계됨.

2) 실제 1937년 호수 합계는 9,148, 인구 합계는 42,821로 집계됨.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409쪽.

5) 1942년 말 지방별 일본인 인구

단위 : 명, 일본인 인구 중 점유율(%)

지방	일본인 인구	농업 및 수산업		광업 및 공업		상업 및 교통업		공무 및 자유업		기타 및 무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라북도	35,363	6,398	18.1	2,468	7.0	6,511	18.4	15,725	44.5	4,261	12.0
경기도	206,627	3,240	1.6	37,542	18.2	57,731	27.9	93,743	45.4	14,371	7.0
경상남도	98,974	8,228	8.3	16,589	16.8	29,017	29.3	33,634	34.0	11,506	11.6
계	752,823	38,309	5.1	164,326	21.8	190,675	25.3	297,233	39.5	62,280	8.3

■ 최영호, 「군산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 『한일민족문제연구』 26, 2014, 15쪽.

6) 1944년 5월 군산 옥구 지방의 인구

세대		한반도 전체	군옥 지방 인구		
			합계	군산부	옥구군
		4,920,205	30,433	11,942	18,491
인구총수	계	25,917,881	158,612	57,589	101,023
	남	12,892,250	78,905	28,543	50,362
	여	13,025,631	79,707	29,046	50,661
일본인	남	345,561	5,120	3,756	1,364
	여	367,022	5,939	4,505	1,434
조선인	남	12,499,487	73,538	24,559	48,979
	여	12,654,865	73,632	24,415	49,217
대만인 남양인	남	261	2	2	0
	여	112	0	0	0
외국인	남	47,941	245	226	19
	여	25,652	136	126	10

■ 최영호, 「군산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 『한일민족문제연구』 26, 2014, 13쪽.

7) 군산소학교 아동 수

연도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생도	일본	5	8	21	28	54	101	127	185	237
	한국	0	0	36	48	51	15	3	3	3
계		5	8	57	76	105	116	130	188	240

참고 : 三輪規・松岡琢磨, 『富之群山』, 群山新聞社, 1907, 89~90쪽.

■ 구희진, 「근대개척기 옥구, 군산항 인근지역의 교육과 사회변화」, 『전북사학』 44, 2014, 201쪽.

8) 군산부 직업구조:남한의 주요 도시지역과의 비교

단위 : %

	전국	부별평균	군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목포
농업	78.49	4.52	3.18	1.82	4.39	3.51	8.61	5.77
수산업	1.25	2.03	3.96	0.02	5.41	1.67	0.05	6.10
광업	0.35	0.22	0.25	0.32	0.09	0.14	0.05	0.09
공업	5.55	22.81	18.58	23.31	21.07	18.78	27.18	16.08
상업	5.06	29.97	37.06	30.32	28.34	30.24	29.34	38.01
교통업	0.86	8.87	16.30	6.37	10.18	14.35	4.85	11.38
공무·자유업	1.15	12.33	8.25	18.22	7.57	6.53	12.33	7.21
가사사용인	1.23	5.58	5.31	9.00	4.04	3.36	9.44	5.22
기타	3.96	13.76	7.12	10.63	18.91	21.43	8.14	10.16
유업자 비율	49.37	36.48	43.16	34.68	38.36	36.74	37.53	40.95

■ 박종현, 「일제시대 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3쪽.

9) 조선 거주 일본인의 주요 직업(1910)

여성				남성			
순위	직종	종사자수	총 여성 유직자 대비 비율(%)	순위	직종	종사자수	총 남성 유직자 대비 비율(%)
1	예창기작부	4,093	50.18	1	상업	15,877	28.30
2	잡업	1,517	18.60	2	잡업	12,336	21.94
3	상업	1,048	12.85	3	공무원	9,341	16.53
4	육체노동	578	7.09	4	공업	6,520	11.54
5	농업	261	3.20	5	육체노동	6,251	11.07
6	어업	213	2.61	6	농업	2,518	4.46
7	조산원	171	2.10	7	어업	2,125	3.76
8	공업	137	1.68	8	교사	676	1.27
9	교사	93	1.14	9	의사	397	0.70
10	공무원	5		10	신문잡지 기자	186	0.33
전 종사자수		8,157	99.45	전 종사자수		56,493	99.9

출전 :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한 게이샤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본 주변주 여성 '식민자」, 『사회와 역사』 103, 171쪽.

비고 : 주업(主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약간 수의 기타 유업자는 제외한 상황임.

■ 이정옥,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일본연구』 24, 2015, 372쪽.

10) 군산 거류 일본인 직업별 구성

연번	직종	가구수	인구수
1	상업	194	213
2	서비스업(음식숙박, 오락, 이발 목욕, 전당포 등)	117	186
3	기능직(大工, 石工 등)	78	126
4	잡업(雜夫, 日雇 등)	55	54
5	농업	53	55
6	공무원(관공리, 교원 등)	43	55
7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24	25
8	제조업	23	25
9	전문직(의사, 승려 등)	20	28
10	운송업(육상, 해상 포함)	17	17
11	어업	15	17
	계	639	801

자료 : 三輪規·松岡琢磨, 『富之群山』, 群山新聞社, 1907, 53~58쪽.

주 : 서비스업에는 예기(12명)와 작부(34명)가 포함되어 있음.

■ 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 군산시의 사례」, 『쌀살문명 연구』 1, 2008, 188쪽.

11) 군산부 조선인의 직업 구성 변화(1910-1938)

단위 : 호수(戶數). 괄호는 백분율				
	1910	1916	1929	1938
농림과 목축업	251(19.72)	12(0.90)	22(0.58)	75(1.07)
어업과 제염업	25(1.96)	16(1.20)	5(0.13)	54(0.77)
광공업	6(0.47)	119(8.93)	458(12.11)	632(8.99)
상업과 교통업	210(16.50)	545(40.92)	1,468(38.82)	2,323(33.04)
공무와 자유업	14(1.10)	29(2.18)	297(7.85)	649(9.23)
기타업무	583(45.80)	492(36.94)	895(23.66)	2,936(41.76)
무직·미신고자	164(12.88)	119(8.93)	637(16.84)	361(5.14)
총계	1,253	1,332	3,782	7,030

출전 : 朝鮮總督府, 『民籍統計表』, 1910; 『通商彙纂』, 明治 34年 10月號(통권 203호);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 『全羅北道統計年報』, 1914; 尹正淑, 「開港場과 近代 都市 形成에 關한 歷史地理的研究 : 群山港을 中心으로」, 『地理學』 32, 1985, 87쪽; 群山府, 『群山府勢要覽』, 1917(1916년 10월 기준); 群山府, 『群山府勢一斑』, 1930(1929년 기준); 群山商工會議所, 『昭和13年統計年報』, 1939(1938년 기준).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的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2009, 29~35쪽.

12) 군산부 일본인의 직업 구성 변화(1899-1930년대 후반)

단위 : 호수(戶數). 괄호는 백분율

	군산부 일본인						전국 일본인			
	1901	1905	1910	1916	1929	1938	1910	1916	1929	1938
농림과 목축업	6	47	103 (10.45)	47 (3.34)	21 (0.97)	43 (2.06)	1,044 (3.20)	12,231 (13.54)	9,261 (7.27)	7,222 (4.55)
어업과 제염업	4		48 (4.87)	44 (3.13)	37 (1.71)	22 (1.05)	750 (2.30)		2,937 (2.31)	2,273 (1.43)
광공업	52	75	96 (9.74)	194 (13.82)	448 (20.73)	263 (12.58)	4,289 (13.16)	10,421 (11.53)	17,333 (13.62)	30,913 (19.47)
상업과 교통업	131	209	321 (32.56)	395 (28.13)	631 (29.20)	745 (35.65)	9,150 (28.08)	24,925 (27.59)	36,164 (28.41)	41,001 (25.83)
공무와 자유업	1	36	95 (9.63)	90 (6.41)	616 (28.51)	772 (36.94)	5,623 (17.26)	29,931 (33.13)	48,730 (38.28)	64,365 (40.54)
기타 업무	2	13	300 (30.43)	539 (38.39)	303 (14.02)	132 (6.32)	10,449 (32.07)	9,288 (10.28)	9,038 (7.10)	5,240 (3.30)
무직·미 신고자	1,662		23 (2.33)	95 (6.77)	105 (4.86)	109 (5.22)	1,278 (3.92)	3,549 (3.93)	3,837 (3.01)	7,749 (4.88)
총계	1,858	380	986	1,404	2,161	2,090	32,583	90,345	127,300	158,763

출전 : 朝鮮總督府, 『民籍統計表』, 1910; 『通商彙纂』, 明治 34年 10月號(통권 203호);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 『全羅北道統計年報』, 1914; 尹正淑, 「開港場과 近代 都市 形成에 關한 歷史地理的研究 : 群山港을 中心으로」, 『地理學』 32, 1985, 87쪽; 群山府, 『群山府勢要覽』, 1917(1916년 10월 기준); 群山府, 『群山府勢一斑』, 1930(1929년 기준); 群山商工會議所, 『昭和13年統計年報』, 1939(1938년 기준).

비고 : 일본인의 경우, 주로 도시에 살기 때문에 각부 일본인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선인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국 통계는 제외하였다.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2009, 29~35쪽.

13) 1923년 말 군산부 화교들의 종사 업종

직업별	호수	인구	직업별	호수	인구
吳服商	29	127	농업	4	11
요리옥	1	9	洋雜貨	2	9
이발업	1	5	중국팬 판매	16	34
일용잡화	45	86	旅宿業	1	6
음식점	6	36	靴下제조	2	27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115~116쪽.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415쪽.

14) 1930년 군산부의 계층 구성

괄호 : 백분율

계층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농수산업 종사자(a)	688(11.35)	118(3.51)	5(0.80)	811(0.01)
사용자(b)	96(1.58)	223(6.63)	7(1.12)	422(4.20)
관리자 및 기술자(c)	46(0.76)	143(4.25)	13(2.08)	202(2.01)
자영업자(d)	1,384(22.83)	647(19.23)	128(20.51)	2,159(21.48)
관공리 및 전문직(e)	185(3.05)	451(13.41)	0(0)	636(6.33)
육체노동자(f)	3,908(64.48)	1,908(56.72)	473(75.80)	6,289(62.58)
기타(g-1)	9,414	5,089	85	14,588
무직·미신고자(g-2)	246	126	2	374
합계(I)	15,721	8,579	711	25,011
I-g(%)	6,061(100)	3,364(100)	624(100)	10,049(100)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書』(全羅北道編), 1936, 144~163쪽.

비고 : 외국인인 화교를 가리킨다. 단 기타(여관, 하숙업, 요리점 등)의 외국인 중 화교가 아닌 사람 1명이 포함되어 있다. 괄호는 백분율.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2009, 36~37쪽.

15) 1924년 군산부 화교 상점의 영업현황

업종	상점명(대표주)	과세표준액(엔)	위치	비고
직물 및 잡화상(총 74호)	裕豐德(李萬年)	650,000	全州通	합자회사
	錦生東(鄒培詩)	200,000	全州通	
	協興裕(林毓芳)	64,730	全州通	
	仁泰恒(王樹嵐)	30,000	全州通	
	文泰興(解絶祥)	23,661	全州通	
	利盛德(鄒紹芳)	119,000	榮町	
	仁泰東(王仁亭)	54,500	榮町	
	順興義(趙殿英)		榮町	
서양잡화상(총 2호)	同順泰(譚傑生)	25,000	全州通	
요리점과 음식점(총 7호)	中華樓	8,900		
	華香店	5,000엔 내외		
	永葵園	상동		
	鴻順樓	상동		
	福昇園	상동		
중국팬 판매상(총 16호)	申殿洞	7,000	榮町	
	기타	1,000		
이발소(총 1호)	新葵堂	3,500	浪花町	
신발 제조업(총 2호)	福生成		全州通	
	陳廷賢		本町	
주물공장(총 1호)			榮町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121~122쪽.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420쪽.

16) 1930년 군산부 화교의 종사 업종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사자수	계(백분율)
농업	농업종사자	농업업주(米作이 아닌 업주)	2	5(0.67)
		作男, 作女	2	
		農業手助	1	
광공업	요업, 토석가공	성형공	1	115(16.06)
		煉瓦, 瓦製造職	7	
	금속가공, 기계기구제조, 조선, 운반용구제조	금속공업, 기계기구제조, 조선, 운반용구업주	1	
		鋳力職, 銅工	3	
		針金細工職	1	
		주물사, 주조공	21	
		검사공, 시험공, 실험공	1	
	화학제품	화학적 공정 종사 노무자	1	
	방직공업	洗張職, 洗濯職	5	
	被服, 身製品 제조	피복재봉업주	4	
		재단공, 재봉공	8	
		靴 제조공	5	
	紙工業, 인쇄종사	표구사	1	
	木竹草蔓類제조	기타목죽제초류 제조 업주	1	
		建具職, 가구직, 指物職	12	
		樽職, 桶職	1	
	음식료품, 기호품 제조	과자, 麵麴, 水飴제조업주	1	
		정곡공, 제분직, 전분제조공	1	
		과자, 麵麴, 水飴제조공	11	
	토목건축	大工	17	
		煉瓦積工, 타일張工	3	
		석공	7	
		屋根職	1	
	기타공업	荷造工, 발송공, 포장공	1	
상업과 교통업	상업적 직업	물품판매업주	74	490(68.44)
		점원, 매자	191	
		상업 수조	8(여자4)	
		주문취, 외교원	3	
		집금인	3	
		노점 상인, 행상인, 호매상인	30	
	접객업	요리점, 음식점, 대석업, 매옥업주	12	
		여관, 요리점, 음식점, 대석업의 권번, 객인	14	
		요리인	32(여자2)	
		여관, 하숙옥, 요리점, 음식점 등의 여중, 급사인	4	
		이발사, 미용사	11(여자1)	
	운수	선장	7	
		선박사무장, 사무원	6	
		舵夫, 수부	75	
		선박유차, 화부	1	
		배달부	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사자수	계(백분율)
공무와 자유업	서기적 직업	부기계,출납계,회계계	4	4(0.56)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	주인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	13(여자2)	13(1.82)
기타 유업자	기타 유업자	잡역부	4	4(0.56)
무업	무업	학생,생도	1(여자1)	85(11.87)
		從屬者	84(여자63)	
합계		716		

출전 : 朝鮮總督府, 『昭和5年朝鮮國勢調査報告』, 1930(全羅北道編).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416~417쪽.

17) 1934년 군산부 화교의 종사 업종 현황

종사분야	직업	인구	비율(%)
농업	菜園	79	22.90
광공업	鐵匠	31	15.65
	瓦匠	1	
	石匠	1	
	木匠	12	
	洗衣鋪	3	
	成衣鋪	5	
	碯器鋪	1	
상업 및 교통업	면포상	133	60.87
	잡화상	16	
	음식점	41	
	火食鋪	16	
	이발사	4	
공무와 자유업	직원	2	0.58
총계	345		100

출전 : 石源華, 李普溫 編纂, 『中國南京國民政府 外交部公報 大韓民國關係史料』 상권, 도서출판 高句麗, 1995, 846~888쪽.

■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427쪽.

부록 ② 일제강점기 군산 관련 연구논저 목록

연번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1	양세운	湖南發展史 . 上	世宗出版社	1959
2	김봉우	日帝下 社會運動社資料集 : 地方別記事 모음, 第10卷, 全羅北道 . -10	한울	1991
3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4	이병훈	군산개항장 100년 . 1-	군산문화원	1995
5	김민영	일제하 군산·옥구지역의 민족·사회운동사	군산문화원	1997
6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 전래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8
7	최석환	朝鮮 土木事業誌 : 港灣事業, 1907- 1928	世光綜合技術團	1998
8	가타오카 하카루	群山府史南鐵沿線史	경인문화사	2000
9	김양규	우리고장의 항일운동사 옥구농민의 한일항쟁사	군산문화원	2001
10	김양규	(우리고장의 抗日運動史)沃溝農民의 抗日抗爭史	群山文化院	2001
11	소순열	전북의 시장 경제사	신아	2003
12	김태영	한국근대도시주택	기문당	2003
13	김태웅	群山近現代新聞記事索引集 : 1898-1945	군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14	김태웅	近代群山記事索引集 : 1898-1910	군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15	군산시	사진으로 보는 군산 100년		2004
16	김민영	철도, 지역의 근대성 수용과 사회경제적 변용	선인	2005
17	원광대학교	군산 동국사 대웅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5
18	김민영, 김중규	금강 하구의 나루터. 포구와 군산. 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	선인	2006
19	김영정 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	2006
20	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역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와 비평사	2006
21	홍성찬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 수리조합, 지주제, 지역 정치	혜안	2006
22	김중규	근대 문화의 도시 군산	[군산시] 문화체육과	2007
23	문화재청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7
24	이규수	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 호남지역 일본인의 사회사	다할미디어	2007
25	장명수	일제 식민시대 구술실록 : 전주 근대생활 조명, 100년(1907~2006) . 제1권, 1907~1945	전주문화재단	2007
26	문화재청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8
27	홍승재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연번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28	김종수 외 7인	개항 110년 해륙의 도시, 군산의 과거와 미래	선인	2009
29	Brown, George Thompson	한국선교이야기 :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 역사(1892~1962)	동연	2010
30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보고	농촌진흥청	2011
31	김종수, 김민영 외 공저	새만금도시 군산의 역사와 삶	선인	2012
32	배경식	군산동부교회 80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동부교회	2013
33	함한희	빵의 백년사 제1부. 군산의 이즈모야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2013
34	공종구 외 7인	군산의 근대 풍경 : 역사와 문화	선인	2015
35	변주승	(구한국외교문서 법안) 전라도 교안	흐름	2017
36	전라북도	群山開港前史	群山府	미상
37	群山千葉商店	群山及附近風景寫眞帖	群山千葉商店	미상
38	남궁봉	萬頃江流域 水利地域의 水利慣行과 農村	동국대학교	1974
39	윤정숙	開港이 近代都市形成에 미친 歷史地理學的 研究 : 群山港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984
40	박영조	群山市 文化景觀 形成過程에 關한 研究 - 住宅地區의 家屋構造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1986
41	이정인	日帝下 日人大地主의 農場經營에 關한 研究 : 不二興業株式會社の 事例分析	숙명여자대학교	1989
42	최낙필	일제의 토지수탈과 전북경제의 정체에 관한 연구 : 군산항의 개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1990
43	이헌주	群山開港과 錦江地域 市場構造의 植民地的 再編	고려대학교	1991
44	박금희	大韓帝國期 群山港의 貿易構造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1992
45	양재연	群山.沃溝 地方의 抗日運動	한국교원대학교	1993
46	朴炯權	群山線鐵道の 赤字改善에 關한 研究	전주대학교	1994
47	양상호	韓國近代の 都市史研究 -開港時期 (1876~1910) 外國人居留地を對象にして	東京大學	1994
48	고송식	군산의 성장과 경관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1995
49	박철우	群山港의 開港에 關한 研究 : 1897-1910年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1996
50	김정실	일제하 여자중등교육에 대한 연구 : 군산공립 고등여학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1999
51	전재홍	일본 식민시대의 흔적 : 전라북도 군산시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2000

연번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52	조종곤	1920년대 군산.옥구지역에 대한 일본의 토지수탈	원광대학교	2001
53	류광남	근대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군산 도시조직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2002
54	윤도선	군산 구(舊) 조계지의 필지변화와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3
55	金奉三	일제시대 군산의 화재발생 소방활동 :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4
56	박종현	일제신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 군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2006
57	元榮錦	韓末·日帝 强占期 群山消防組의 組織과 活動	군산대학교	2006
58	신영자	군산시 도시공간구조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6
59	金恩英	郡山開港 이후 群山租界의 設置와 運營	군산대학교	2007
60	김재영	일제 강점기 衡平運動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	2007
61	전재홍	쌀 관련 시설의 도시경관 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 : 일제강점기 논산·호남평야 지역의 사진고찰을 통하여	한남대학교	2008
62	유봉희	채만식 [탁류]연구 : 미두장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2008
63	정소연	개항장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부산, 인천, 목포, 군산, 마산 개항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08
64	백하영	일제 강점기 군산 공립보통학교와 군산사회	군산대학교	2009
65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66	노종혁	1920년대 군산지역의 청년 운동	군산대학교	2011
67	이순주	근대 건축문화유산 활용 방안 연구 : 군산시 구 히로쓰 가옥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2011
68	임유미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역사와 그 활용	군산대학교	2012
69	김상희	군산 구도심 근대주거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2
70	김소정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의 아동선교 (1892 - 1945) : 미션스쿨과 주일학교 운동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2014
71	천지명	재한일본인 거류민단(1906-1914)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4
72	선민주	군산 근대역사자원의 도시문화콘텐츠 연구	원광대학교	2016
73	김윤지	군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중학교 국사 교육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2016
74	박나은	전북지역 기독교학교의 근대교육	전주대학교	2016
75	진용선	일제강점기 식민지 유적을 활용한 군산 지역사 학습방안	군산대학교	2017
76	최보영	개항기(1876~1906) 駐韓日本領事の 활동과 한국인식	동국대학교	2018
77	李宇榮	韓末 日本人 居留地の 設定과 그 役割	논문집 13	1969
78	손정목	군산 및 성진의 개항 : 청일전쟁이후 도시의 변화(2)	도시문제 123	1976

연번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79	李世賢	韓末 湖南義兵 抗爭의 一斷面	論文集 11	1977
80	黃明水	일제하 불이흥업회사와 농민정책	산업연구 4	1982
81	羅燾承	개항 전후기 금강 수운 탄토향 군산과 그 배후지 형성에 관한 연구	공주교대 논문집 20	1984
82	윤정숙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 군산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0	1985
83	崔洛弼	群山港 開港과 地域社會經濟의 構造的 關係에 대한 研究; 全北 農村의 社會經濟構造的 變化를 중심으로	전라문화연구 3	1988
84	洪性讚	日帝下 金融資本의 農企業 支配 : 不二興業(株)의 經營變動과 朝鮮殖産銀行	동방학지 65	1990
85	이경란	日帝下 水利組合과 農場地主制 : 沃溝益山지역의 사례	學林 12-13	1991
86	김영정 외 2명	국가의 정책방향과 지역발전의 구조변동 : 군산시 및 주변지역의 성장과정 사례연구 (1913-1993)	사회과학연구 21	1995
87	김영정	일제시대의 도시성장-군산시 사례	한국사회학 30	1996
88	金旻榮	1920, 30年代 群山, 沃溝地域의 植民地的 農業生産構造	지역개발연구	1996
89	이규수	日本人地主の土地集積過程と群山農事組合	一橋論叢 116-2	1996
90	金旻榮	1920年代 群山·沃溝地域의 農村事情과 沃溝小作爭議	論文集 24	1997
91	남궁봉	만경강 유역의 개간과정과 취락형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	1997
92	金旻榮	美軍政·政府樹立期 群山·沃溝地域의 社會와 經濟	地域開發研究 10	1998
93	이헌주	개항기 군산항의 유통권 변동과 무역구조	史學研究 55.56	1998
94	김동수	전주·익산·군산 역사와 문화 - 백제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建築士 9	1998
95	소순열	일제하 배후지 농업과 식민지 도시화의 전개	농업경영정책연구 25	1998
96	차종순	미국 남장로교회의 호남지방 선교활동	기독교 사상연구 5	1998
97	趙承衍	일제하 식민지형 소도시의 형성과 도시공간의 변화	민속학연구 7	2000
98	이원호 외	日帝强占期 群山の 都市景觀變遷에 關한 研究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	2002
99	마쓰모토 다케노리	植民地朝鮮における農業用水開發と水利秩序の改編 : 萬頃江流域を對象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1	2003
100	金泰雄	韓末 群山 客主의 歴史的 基盤과 社會經濟運動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4
101	변화영	소설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7	2004
102	윤선자	호남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103	송석기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
104	이준식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동방학지 131	2005
105	김봉삼	日帝時代 群山の 火災發生과 消防活動	典農史論 11	2005
106	김태웅	韓末·日帝强占 초기 群山 魚物市場의 변동과 客主	수산경영논집 36	2005
107	김태웅	日帝强占期 群山地域 寫眞의 現況과 史料化 問題	역사연구 15	2005

연번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108	崔元奎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의 토지 확대와 소유 변동의 추이- 전북 옥구군 서수면 사례 -	동방학지 130	2005
109	崔元奎	일제시기 거주지별 소유 변동과 특질	역사와 세계 28·29	2005
110	우대형	일제하 萬頃江 유역 수리조합 연구	동방학지 131	2005
111	이규수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대동문화연구 49	2005
112	金泰雄	대한제국기 群山 客主의 商會社 설립과 경제·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9	2006
113	박종현, 외	일제강점기 신도시 공간구조 분석-군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2	2006
114	김재영	1920년대 호남지방 형평사의 창립과 조직	역사학연구 26	2006
115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10	2007
116	김재영	1920년대 호남지방 형평사의 활동	역사학연구 29	2007
117	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군산시의 사례	쌀삶문명연구 1	2008
118	정승진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	쌀삶문명연구 1	2008
119	송석기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2008
120	김태웅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2009
121	정승진	한말 일제초 전통 堤堰契의 근대적 水利組合으로의 전환 : 萬頃江 하류 沃溝西部永利紐合의 사례분석	전북사학 34	2009
122	金泰雄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2010
123	위경혜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2	2010
124	김종수	군산도와 고군산진의 역사	전북사학 37	2010
125	김중규	화교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본 화교문화의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2010
126	최은진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역사와 현실 81	2011
127	송석기	근대기 군산의 도시 공간 형성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	2011
128	송현강	미국 남장로교의 전북지역 의료선교(1896-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2011
129	박성신	군산의 근대 창고건물 현황 및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	2011
130	오세미나	일제시기 빵의 전래와 수용에 대한 연구 : 군산의 근대 제과점 이즈모야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	2012
131	송현강	윌리엄 해리슨(W. B. Harrison)의 한국 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37	2012
132	서현주	百濟의 地方과 對外交流 ; 湖南西部地域 考古學資料를 통해 본 熊津期の 地方	百濟研究 55	2012
133	김태웅	開港~日帝强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	韓國文化 64	2013
134	이재운·정석동	군산선교부에 대한 연구	역사와실학 55	2014
135	최영호	군산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	한일민족문제연구 26	2014
136	구희진	근대개혁기 옥구 군산항 인근지역의 교육과 사회변화	전북사학 44	2014
137	전병호	군산 선교의 첫 결실	기독교사상	2014

연번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138	하지연	일제하 불이흥업주식회사 전북농장의 '숨췄제' 운영과 성격	이화사학연구 49	2014
139	허수열	일제 초기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의 방조제와 하천의 제방	경제사학 56	2014
140	황태목	해방기 군산지역 영화사 연구	우리文學研究 48	2015
141	송현강	한말 일제강점기 군산 영명학교, 멜볼딘여학교의 설립과 발전	역사학연구 59	2015
142	이정옥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 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	일본연구 24	2015
143	윤상길	일제강점기 부산과 군산에서의 전화배치	한국민족문화 54	2015
144	정승진	식민지기 학교조합과 호남의 일본인 이민자 사회 -全北 益山(裡里), 群山, 金堤, 全州의 단편 사례	大東文化研究 90	2015
145	이규수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 진출 -『군산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史林 54	2015
146	하지연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장 관리 조직을 통해 본 식민지 지주제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28	2015
147	김두현	1928년 해항도시 군산의 특징과 사회 구조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2016
148	김민영	항구도시의 지역학 발전과 '群山學'의 활성화 방향	韓國島嶼研究 28	2016
149	원도연	근대 식민지 경험의 탈각과 변용	지역사회연구 24	2016
150	방연상·송정연	기독교가 군산 지역에 미친 사회적 영향 - 남장로교 선교사 편지를 중심으로 -	人文科學 111	2017
151	황태목	군산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	2017
152	황태목	일제하 군산 지역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 문학작품의 창작배경을 중심으로 -	現代文學理論研究 70	2017
153	김상욱	일제강점기(1910-1939) 공설군산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전북사학 50	2017
154	진지훈	군산, 목포, 광주로 이어지는 호남선교	성경과 고고학 92	2017
155	정석동	20세기 초 전북노회의 설립과 교세 확장	전북사학 51	2017
156	송정현	해방 직후 미국의 남한 점령 계획과 부대 배치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67	2017
157	황태목	한국전쟁기와 1950년대 군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양상 고찰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	2018
158	박성신	「한국안내(韓國案内)」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 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	2018
159	김상욱	1910년대 전북지역의 화재발생과 소방조의 결성	전북사학 53	2018

부록 3 군산부사 인명 색인

[가]

- 가계이에 아사지로 173
 가나모리 겐조 236
 가도타 구라노신 199
 가мата 마사이치 211
 가мата 호우 192
 가메다 우산지로 204
 가모(가모 토시오) 207
 가모 기요하루 212
 가모 다메쓰구 176
 가모 다메하루 173
 가모 히데 236
 가미조 신이치로 66, 208
 가사가미(가사가미 구야마) 121
 가세 유조 129
 가와바타 도시오 188
 가와시마(가와시마 요시유키) 224
 가와카미 주 191
 가와카미 후지타로 52
 가지 다사부로 126, 173, 174
 가지 아야노 116
 가지타 세이이치 209
 가타야마 만시치 182
 가타오카 도시오 105
 가타오카 요시타로 199
 가토 준교 115
 간바야시 마쓰요 117, 122, 173, 188, 236
 간자키 기쿠지로 239
 강덕순 236
 강두형 236
 강세형 192
 강완선 229, 230
 강완희 230
 강인원 193
 개로왕 33
 게이도쿠 야스이치 104
 겐모치 쇼고 116
 고노 에이히데 191
 고다마 겐타로 224
 고다마 도모오 224
 고미네 도쿠 236
 고바 가이치 194, 204
 고바야시 미쓰시게 116
 고바야시 후지 236
 고보리 다이이치로 136
 고소에가와 시카타로 173
 고이즈미 미나오 199
 고토 다쓰오 144
 고타라 스케타로 59, 114, 122, 176, 236
 곤도 야스타 198
 구니무네 시카타로 41
 구다 하지메 211
 구도 쓰루마쓰 122
 구라시나 마고타로 66
 구라시마(구라시마 이타루) 135
 구라하시 미타로 191
 구로키 데루요시 194
 구루마 시치오 67
 구리하시 야스노리 188
 구마모토 → 구마모토 리헤이
 구마모토 리헤이 107, 108, 235
 구마모토 쓰이코 106
 구보 미야타 52, 256
 구스다 요시타쓰 174

권태형 67, 192, 256
 권필중 236
 규칙 102
 기시다 쓰네조 122, 202, 207
 기요오카 고자부로 176
 기쿠타 시게마루 199
 기타가와 오사무 191
 기타가와 준 174
 기타무라 나오키 117, 195
 긴바야시 제히 136
 김백용 52, 256
 김봉진 66
 김상용 236
 김생수 236
 김서집 52, 67
 김수강 236
 김영철 236
 김영희 59, 256
 김용철 187
 김윤범 236
 김익용 52
 김일헌 239
 김형기 52, 256
 김홍두 122, 236
 김효열 236

[ㄴ]

나가누마 조지로 66
 나가미야자키 준이치 248
 나가오(나가오 쿠키치) 129
 나가이케 다에오 192
 나가히라노 도라지로 204
 나카니시 다쓰조 195
 나카다 겐시 117
 나카무라 기헤이 216

나카바야시 시코 195
 나카시바 만키치 173, 181, 209, 211, 235
 나카야마 다쓰미 211, 256
 나카오 긴이치 129
 나카오 긴조 174
 나카오 마쓰하루 209
 나카오 이치로 176
 나카지마 아키라 192, 211
 나카지마 겐키치 200
 노다(노다 토모오) 121
 노모토 기치조 207
 노무라 야스노스케 122, 174
 노미 다메지로 116
 노윤모 191
 노지마 도요쓰구 236
 니나가와 고로 211
 니나가와 다카오 66, 248
 니시모토(니시모토 케이조) 121
 니시무라 → 니시무라 기쿠고로
 니시무라 기쿠고로 218
 니시무라 마타사부로 122, 236
 니시카와 게이이치 207
 닛타(닛타 린헤이) 121

[ㄷ]

다구치 마치 236
 다나카 가메지로 156, 157, 173
 다나카 마사노리 103, 237
 다나카 시즈오 248
 다나카 유키히라 207
 다나카 히데카즈 188
 다니가와 간스케 135
 다니가키 가이치 174
 다니구치 이타로 200, 236

다다 타케시 41
 다무라 요시고로 248
 다카마쓰 후시하루 191, 208
 다카모토 235, 236, 237, 239
 다카스 다다시 174, 211
 다카스 카메요 248
 다카야마 도시로 129, 230
 다카하라 다이조 176, 199
 다카하시(다카하시 고레키요) 161
 다카하시 데츠야 192
 다카하시 주이치 176
 다케가미 노리오 193
 다케가와 네도시 136
 다케나카 → 다케나카 야스오
 다케나카 야스오 32, 219, 225
 다케다 모토스케 116
 다케무라 소노 236
 다케바야시 미토 114
 다케베 마사토시 199
 다케베 시즈오 176, 181
 다케이(다케이 히데요시) 121
 다케자키 로쿠지로 41
 다키(다키 구메지로) 121
 단노 고타로 192
 데라다 데쓰지 239
 덴치 226
 도모토 도시오 136
 도미나가(도미나가 분이치) 121
 도쓰카 소타로 59, 105, 191, 237, 256
 도야마 리하치 104
 도요메 227
 도요타 호순 196
 도이와 히사미쓰 199
 도카이 세이이치 209
 도히 미쓰사부로 114

[ㄹ]

로쿠하 121

[ㅁ]

마나베 쇼조 136
 마다 스에 187
 마루야마 다이치로 246
 마루오 하루이치 196
 마부치 린 144
 마사쿠니 고로쿠 191
 마사키 게이이치 157
 마사키 쇼타로 176
 마쓰기치 114
 마쓰다 기치지 122, 236
 마쓰다이라 가즈오 196
 마쓰마에 젠쿠로 122
 마쓰모토 쓰기하치 256
 마쓰모토 이치고로 122, 173, 174, 236
 마쓰시마 다쓰조 202
 마쓰시마 아쓰시 104
 마쓰야마 테루 236
 마쓰오카(마쓰오카 요우스케) 63
 마쓰오카 다쿠마 211
 마쓰이(마쓰이 세이지로) 121
 마에다 도라요시 194
 마에다 마고헤이 52, 156, 157
 마에다 → 마에다 젠지
 마에다 젠지 41, 51, 79
 마치이 주타로 52, 256
 마키야마(마키야마 코우조) 121
 모로타 마스오 208
 모리 기쿠고로 117, 157, 173, 208, 236
 모리 도시로 202
 모리 신노스케 204
 모리 쓰네키치 173

모리 히로시 207
 모리모토 이와노스케 52
 모리모토 하루요시 173, 208
 모리타 다케오 122
 모리타 시게오키 122, 174, 236
 모리히로 우메키치 200
 모성평 236
 무라마쓰 히로유키 24
 무라카미 기치고로 212
 무로 겐지 223
 무왕 33
 무카이 마쓰지로 52, 207, 256
 무카이 쓰네지로 122
 문종구 117, 248
 문종철 188
 문주왕 33
 미쓰요시 유키 236
 미쓰토미 가하치 52, 122, 126, 127,
 201, 202, 207, 208, 236,
 240, 256
 미야자키 → 미야자키 게이타로
 미야자키 게이타로 106, 107
 미야자키 노리오미 212
 미야코 → 미야코 소타로
 미야코 소타로 116, 122, 157
 미야타테 → 미야타테 사다이치
 미야타테 사다이치 41, 48, 201, 207
 미와 다다시 24
 미요시 쓰네조 199
 미토 소타로 176

[ㅂ]

바바사키 사네오 67, 208
 박금봉 107
 박영효 224, 225

박종섭 187
 방한회 212
 복신 33

[ㅅ]

사가와 우이치 256
 사바나이 데쓰조 116
 사사 게이이치 93, 117, 216
 사사 스이쿄 211
 사사다 도시이치 67
 사사키 고 200
 사에키(사에키 아키라) 121
 사와무라 → 사와무라 아라지로
 사와무라 아라지로 41, 48, 79, 106,
 121, 207
 사이토 가쿠산 209
 사이토 →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 45, 120, 121
 사이토 히사타로 237
 사카모토 마사유키 243
 사카우에 사다노부 122
 사카이(사카이 슈키치) 248
 사토 → 사토 노리시게
 사토 노리시게 23, 41, 51, 52, 55, 63,
 69, 79, 80, 93, 105, 107,
 108, 111, 116, 126, 127,
 128, 129, 130, 146, 182,
 205, 208, 215, 216, 217,
 218, 219, 232, 233, 235,
 236, 237, 239, 240, 246,
 247, 252
 사토 → 사토 마사지로
 사토 마사지로 107, 108, 118, 122,
 146, 235
 서흥선 52, 54, 128, 129, 256

섭경조 236
 성난수 236
 성명왕 33
 세키 료이치 191
 세토야마 덴조 204
 소정방 34, 226
 스기노 세이조 114
 스기오카 도모오 187, 208
 스와다 도미사부로 209
 스즈키(스즈키 소로쿠) 224
 스즈키 에이사쿠 41
 스즈키 주노조 187
 시노다 → 시노다 요시
 시노다 요시 216
 시노미야 기요이치 208
 시라이시 쓰토무 208
 시마메 227
 시모무라(시모무라 스스무) 121
 시모무라 가쓰마사 199
 시모즈 207
 시모타 미노루 157
 시모히라 후쿠타로 209
 시미즈 기사쿠 52, 122, 236, 256
 시부야 시게오 195, 208
 시오카와 스미요시 187
 시이나 데루노스케 105
 시타오카 → 시타오카 주지
 시타오카 주지 119
 신석우 106
 쓰게 하쿠로쿠 176, 248
 쓰루시로 마쓰리 129
 쓰사카 요시조 211
 쓰치노 요시노리 111
 쓰치다 모토토시 66
 쓰치야 구메조 41
 쓰치야 우노스케 236

쓰쿠모 로쿠오 156, 202

[ㅇ]

아라키 다이키치 191
 아라타니 세이지 176
 아리가(아리가 미쓰토요) 225
 아리마 → 아리마 조지로
 아리마 조지로 111, 117, 191, 206
 아리무라 다쓰오 66
 아리사와 사쿠지 195
 아리쓰네 야스쿠라 66, 248
 아마노 → 아마노 기노스케
 아마노 기노스케 41, 122, 201, 235
 아베 → 아베 메이지타로
 아베 메이지타로 205, 216, 236, 237, 239
 아베 에이이치 209
 아베 에이타로 173, 236
 아베 요시시게 239
 아사노 게이지 188
 아사노 텃센 115
 아사다 지카코 107
 아사야마 겐조 36, 41, 102, 200
 아소 겐치 136
 아쓰미 료사쿠 191
 아오키 에이노스케 173
 아치와 야스히코 117
 아카마쓰 도모시로 218
 아카마쓰 → 아카마쓰 시게오
 아카마쓰 시게오 117, 119, 121, 122, 173, 174, 176, 201, 235, 256
 아카자와 데이조 191
 아키야마 슌지 200
 아키야마 주사부로 24, 211
 아키토모 기치 236

- 안도 준이지 188
 야나기하라(야나기하라 시게루) 205
 야마구치 → 야마구치 계사타로
 야마구치 계사타로 242, 248
 야마구치 규이치 195
 야마노(야마노 타키조) 121
 야마다(야마다 나오키) 239
 야마모토 가즈오 52, 156, 157, 208, 256
 야마모토 도라지로 256
 야마모토 쓰루 236
 야마모토 요시히사 105
 야마모토 이오 236
 야마사와(야마사와 와사부로) 237
 야마자키 겐자부로 212
 야마키타 이치에몬 236
 야스다 히코지로 202
 야쓰타 아사노스케 200
 양두희 212
 엔도 → 엔도 도쿠로
 엔도 도쿠로 103, 105, 237, 239
 오기 야스타로 200
 오노(오노 규타로) 121
 오노 히로에이 116
 오마스 히로이치 252
 오사다 이소지 176
 오사와 도주로 117, 119, 122, 173, 174, 176, 201, 202, 205, 210, 235
 오사와 시게노리 208
 오성국 236
 오쓰보 류조 211
 오에 스테조 204
 오와다 스케지로 191
 오이 도시아키 104
 오제 → 오제 슈지로
 오제 슈지로 93, 173, 174, 209
 오카(오카 카즈유키) 216
 오카 미쓰에 192
 오카 스에 209
 오카다 기쿠코 206
 오카다 다카미치 191, 204
 오카다 스에요시 122, 236
 오카다 요네시로 248
 오카모토(오카모토 야스마사) 121
 오카무라 스에마쓰 191
 오카베 쓰네스케 236
 오카지 마사헤이 209
 오쿠라 구라요시 176
 오쿠라 → 오쿠라 요네키치
 오쿠라 요네키치 110, 116, 235, 246, 247
 오쿠마 구마조 200
 오쿠무라 도시로 209
 오쿠보 히사시 207
 오쿠시(오쿠시 게이키치) 248
 오쿠히라 다케히코 239
 오타 마사유키 181
 오타카 도모오 239
 와다 세이이치로 111
 와키타 하루쓰구 156, 174, 202, 207
 와타나베(와타나베 시노부) 121
 와타나베(와타나베 도요히코) 205
 와타나베 겐료 114
 와타나베 다메요시 236
 와타나베 모리 191
 와타나베 사토시 248
 와타나베 센조 122, 247, 248
 와타나베 아키요시 204
 요시다 신타로 204
 요시오카 사다오 212
 요시이케 시로 237

- 요시카와 후미타로 211
 요시타카 히로요시 156
 요코다(요코다 카쓰미) 121
 요코야마 → 요코야마 요이치
 요코야마 요이치 173, 235, 236, 246
 요코야마 요지로 198
 요코이 121
 요코타 산부로 41
 우가키(우가키 가즈시게) 224, 237
 우다 준조 191
 우메자키(우메자키 노부타로) 224
 우시오 류시치 250
 우시오 → 우시오 마사이치
 우시오 마사이치 52, 54, 67, 93, 122, 126, 127, 128, 129, 174, 188, 206, 208, 216, 219, 223, 229, 230, 236, 248, 255, 256
 우시지마 224
 우시지마 노부오 239
 우쓰키 쓰요시 200
 우에노 가네 236
 우에노 겐시치 176
 우에다(우에다 겐키치) 130
 우에다 가쓰 122, 173
 우에다 보쿠 52, 173, 208, 209, 236, 256
 우에다 사다헤이 66
 우에다 에이키치 122
 우에바야시 가이하치 209
 우지이에 시게요시 52, 256
 우치다 도메요시 52
 우치다 붓칸 115
 우치다 이와오 111
 우치마키 쓰토무 187
 원지달 236
 유인궐 34
 유인원 33
 윤창엽 236
 은성학 194
 이구치 고헤이 114
 이구치 다치히라 187, 208
 이공현 52
 이노우에 121
 이노우에 겐지 196
 이노우에 기요시 122
 이노우에 다지마쓰 236
 이다 유타카 191
 이데우라 간리 66
 이도준 192
 이로카와 모토이치 211
 이루제 236
 이리에 다쓰조 209
 이마이 조지로 200
 이마이다(이마이다 기요노리) 205, 225
 이만수 67, 173
 이모리 마사요시 111
 이소베 → 이소베 겐야
 이소베 겐야 108, 114, 122, 172, 173, 211, 216, 235, 247
 이스미(이스미 쥬조) 121
 이시메 227
 이시이 쓰토무 94
 이시카와 미키 248
 이시하라 207
 이시하라 쇼스케 248
 이와모토 나카지 176, 236
 이와타 도쿠 66
 이왕전하 224
 이용우 67
 이윤용 224
 이익범 236

이종국 187
 이즈미 사쿠지 52, 212, 256
 이치다 모토희로 115
 이카이 요 116
 이케다(이케다 히데오) 121
 이코마 슌이치 194
 이쿠타(이쿠타 세이자부로) 120, 121
 이토 다다타카 91, 207
 이토 마사토 237
 이토 미쓰사부로 52, 54, 114, 122, 173,
 188, 236, 256
 이토 에이타로 192
 이해순 212
 이흥수 212
 임상동 236
 임영찬 195
 임은재 199
 잇시키(잇시키 켄노스케) 121

[ㄹ]

자노 구메지로 204
 자노 조지로 52
 전의용 211, 256
 정봉거 236
 정윤금 236
 정재천 236
 조기선 236
 조남면 256
 조병문 236
 조재돈 230
 주시헌 193
 즈이코 에겐 114
 지바 가즈노리 24
 지바 다네노리 38
 지카미 간이치 122, 129, 173

[초]

차균경 195
 차승준 236
 차윤모 236
 차정권 236
 최경옥 236
 최익 157
 최학수 248

[표]

플리츠 브랜드 192

[ㅎ]

하가 도요키치 94
 하나무라 모토요시 248
 하나오카 도키 236
 하나오카 → 하나오카 쓰루마쓰
 하나오카 쓰루마쓰 93, 117, 128, 129,
 156, 173, 174, 176, 209,
 216, 219, 222, 229, 235
 하라 모쿠쇼 115
 하라 세키 236
 하라타 요시하치 174
 하세 모토스케 192
 하시모토 기요카즈 144
 하시모토 헤이키치 202
 하시모토 히사시 118, 122, 128, 129,
 201, 230, 231
 하야사카 고지로 199
 하야시 → 하야시 센주로
 하야시 센주로 158, 223
 한다 다키요시 236
 헤이쑤 도모쿠라 209
 호다카 마사키 24

호리이 후미오 187
 호세키(호세키 신로쿠로) 237
 혼도 216
 홍종필 107
 황연규 181
 황하훈 191
 후나다 요시오미 67
 후나모토 유사쿠 209
 후루카와 히데지 156
 후지나미(후지나미 요시쓰라) 121
 후지사키 가쓰요시 237
 후지이(후지이 간타로) 121
 후지이 도모요시 104
 후지타 207
 후지타 후미이치 66, 111, 207, 246
 후지하라 미야로 211
 후카마치 요시히데 115
 후쿠다 간스케 209
 후쿠이 224
 히가시 무메코 206

히가시 → 히가시 주베이
 히가시 주베이 111, 117, 194
 히가키 → 히가키 마고사부로
 히가키 마고사부로 52, 67, 127, 128,
 174, 229, 231, 236, 255, 256
 히구치 → 히구치 도라조
 히구치 도라조 52, 67, 94, 122, 126,
 127, 128, 129, 173, 174,
 209, 229, 235, 240, 246,
 255, 256
 히다카 보쿠 198
 히라이 248
 히라하루 도미조 122, 174, 256
 히로쓰 요시자부로 157
 히로이케 아쓰오 196
 히로타 사카에 208
 히메노 소주로 67

[W]

W. 폴 192

부록 ④ 군산부사 인명 한자-일본어 비교표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1	가등순교	加藤純教	가토 준교
2	가뢰웅삼	加瀬雄三	가세 유조
3	가무위차	加茂爲次	가모 다메쓰구
4	가무위치	加茂爲治	가모 다메하루
5	가무청치	加茂清治	가모 기요하루
6	가무히데	加茂ヒデ	가모 히데
7	가전신태랑	佳田新太郎	요시다 신타로
8	강계	岡季	오카 스에
9	강미진지	岡美津枝	오카 미쓰에
10	강본보성	岡本保誠	오카모토 야스마사
11	강부항우	岡部恒祐	오카베 쓰네스케
12	강전고적	岡田高迪	오카다 다카미치
13	강전기쿠자	岡田キク子	오카다 기쿠코
14	강전말길	岡田末吉	오카다 스에요시
15	강전미사랑	岡田米四郎	오카다 요네시로
16	강촌미송	岡村未松	오카무라 스에마쓰
17	강치정평	岡治政平	오카지 마사헤이
18	검지성오	劍持省吾	젠모치 쇼고
19	겸전방	鎌田方	가마타 호우
20	겸전정일	鎌田正一	가마타 마사이치
21	경가천차랑	景家淺次郎	가게이에 아사지로
22	경덕보일	慶德保一	게이도쿠 야스이치
23	고교시청	高橋是清	다카하시 고레키요
24	고교철야	高橋哲也	다카하시 데츠야
25	고뢰수시	高瀬壽市	다카하시 주이치
26	고본	高本	다카모토
27	고산총랑	高山聰郎	다카야마 도시로
28	고송절치	高松節治	다카마쓰 후시하루
29	고원선태랑	高原仙太郎	다카하라 다이조
30	고주규	高洲規	다카스 다다시
31	고주카메요	高洲カメヨ	다카스 카메요
32	고천수이	古川秀二	후루카와 히데지
33	곡구이태랑	谷口伊太郎	다니구치 이타로
34	곡원가시	谷垣嘉市	다니가키 가이치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35	곡천감우	谷川勘祐	다니가와 간스케
36	공등학송	工藤鶴松	구도 쓰루마쓰
37	관량일	關亮一	세키 료이치
38	광길유키	光吉ユキ	미쓰요시 유키
39	광부가팔	光富嘉八	미쓰토미 가하치
40	광전영	廣田榮	히로타 사카에
41	광지후남	廣池厚男	히로이케 아쓰오
42	광진길삼랑	廣津吉三郎	히로쓰 요시자부로
43	교본앙	橋本央	하시모토 히사시
44	교본청일	橋本清一	하시모토 기요카즈
45	교본평길	橋本平吉	하시모토 헤이키치
46	구보궁태	久保宮太	구보 미야타
47	구십구륙남	九十九六男	쓰쿠모 로쿠오
48	구일지	丘一之	오카 카즈유키
49	구전묘삼차랑	龜田卯三次郎	가메다 우산지로
50	구전일	九田一	구다 하지메
51	국전번환	菊田繁丸	기쿠타 시게마루
52	국종록태랑	國宗鹿太郎	구니무네 시카타로
53	굴정문부	堀井文夫	호리이 후미오
54	궁관정일	宮館貞一	미야타테 사다이치
55	궁기가태랑	宮崎佳太郎	미야자키 게이타로
56	궁기헌신	宮崎憲臣	미야자키 노리오미
57	권천경부	蜷川敬夫	니나가와 다카오
58	권천오랑	蜷川五郎	니나가와 고로
59	규지	糺地	규치
60	근등보태	近藤保太	곤도 야스타
61	금정양차랑	今井讓次郎	이마이 조지로
62	금정전청덕	今井田清徳	이마이다 기요노리
63	기부겸재	磯部謙哉	이소베 겐야
64	길강정남	吉岡定男	요시오카 사다오
65	길응광길	吉鷹廣吉	요시타카 히로요시
66	길지사랑	吉池四郎	요시이케 시로
67	길천문태랑	吉川文太郎	요시카와 후미타로
68	김삼현삼	金森玄三	가나모리 겐조
69	남전의달	楠田義達	구스다 요시타쓰
70	내목무	内牧務	우치마키 쓰토무
71	내전류길	内田留吉	우치다 도메요시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72	내전불관	內田佛觀	우치다 붓칸
73	내전암남	內田岩男	우치다 이와오
74	녹엽	祿葉	로쿠하
75	뇌호산전장	瀬戸山傳藏	세토야마 덴조
76	능견위차랑	能見爲次郎	노미 다메지로
77	다목구미차랑	多木久米次郎	다키 구메지로
78	다야구차랑	茶野彙次郎	자노 구메지로
79	다야조차랑	茶野条次郎	자노 조지로
80	다전환	多田桓	다다 다케시
81	단야광태랑	檀野光太郎	단노 고타로
82	단야아야노	鍛冶アヤノ	가지 아야노
83	당본민웅	堂本敏雄	도모토 도시오
84	대강사삼	大江捨三	오에 스테조
85	대관경길	大串敬吉	오쿠시 게이키치
86	대구보구	大久保久	오쿠보 히사시
87	대익광일	大益廣一	오마스 히로이치
88	대정리명	大井利明	오이 도시아키
89	대창미길	大倉米吉	오쿠라 요네키치
90	대택등십랑	大澤藤十郎	오사와 도주로
91	대택중헌	大澤重憲	오사와 시게노리
92	대평용삼	大坪龍三	오쓰보 류조
93	대화전조차랑	大和田助次郎	오와다 스케지로
94	도녀	島女	시마메
95	도변민	渡邊敏	와타나베 사토시
96	도변선장	渡邊仙藏	와타나베 센조
97	도변성	渡邊盛	와타나베 모리
98	도변위길	渡邊爲吉	와타나베 다메요시
99	도변인	渡邊忍	와타나베 시노부
100	도변추의	渡邊秋義	와타나베 아키요시
101	도변풍일자	渡邊豊日子	와타나베 도요히코
102	도변현려	渡邊賢慮	와타나베 겐료
103	도종태랑	都宗太郎	미야코 소타로
104	도해청일	渡海清一	도카이 세이이치
105	동무메자	東ムメ子	히가시 무메코
106	동중병위	東仲兵衛	히가시 주베이
107	등기승의	藤崎勝義	후지사키 가쓰요시
108	등원미팔랑	藤原彌八郎	후지하라 미야로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109	등전	藤田	후지타
110	등전문시	藤田文市	후지타 후미이치
111	등정관태랑	藤井寛太郎	후지이 간타로
112	등정우길	藤井友吉	후지이 도모요시
113	등파의관	藤波義貫	후지나미 요시쓰라
114	마생헌치	麻生憲治	아소 겐치
115	마연린	馬淵潋	마부치 린
116	마장기실수	馬場崎實穂	바바사키 사네오
117	마전년	馬田季	마다 스에
118	매기연태랑	梅崎延太郎	우메자키 노부타로
119	목산경장	牧山耕藏	마키야마 코우조
120	목정가일	木庭嘉一	고바 가이치
121	무림실등	武林實登	다케바야시 미토
122	무부정웅	武部靜雄	다케베 시즈오
123	무상헌웅	武上憲雄	다케가미 노리오
124	무전기조	武田基助	다케다 모토스케
125	무정수길	武井秀吉	다케이 히데요시
126	문전창지진	門田倉之進	가도타 구라노신
127	미고조웅	尾高朝雄	오타카 도모오
128	미전정일	梶田精一	가지타 세이이치
129	미태삼랑	梶太三郎	가지 다사부로
130	반성정호	飯盛正好	이모리 마사요시
131	반전롱길	半田瀧吉	한다 다키요시
132	반전풍	飯田豊	이다 유타카
133	방하풍길	芳賀豊吉	하가 도요키치
134	백석면	白石勉	시라이시 쓰토무
135	보고정기	保高正記	호다카 마사키
136	복전감조	福田勘助	후쿠다 간스케
137	복정	福井	후쿠이
138	본도	本道	혼도
139	부영문일	富永文一	도미나가 분이치
140	북천수	北川修	기타가와 오사무
141	북천순	北川醇	기타가와 준
142	북촌직보	北村直甫	기타무라 나오키
143	사궁청일	四宮清一	시노미야 기요이치
144	사전철아	寺田哲児	데라다 데쓰지
145	산구가사태랑	山口袈裟太郎	야마구치 게사타로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146	산구흡일	山口吸一	야마구치 규이치
147	산기원삼랑	山崎源三郎	야마자키 겐자부로
148	산본길구	山本吉久	야마모토 요시히사
149	산본쓰루	山本ツル	야마모토 쓰루
150	산본이오	山本イヲ	야마모토 이오
151	산본일남	山本一男	야마모토 가즈오
152	산본호차랑	山本虎次郎	야마모토 도라지로
153	산북시우위문	山北市右衛門	야마키타 이치에몬
154	산아롱삼	山野瀧三	야마노 타키조
155	산전직기	山田直記	야마다 나오키
156	산택화삼랑	山澤和三郎	야마사와 와사부로
157	삼강구웅	杉岡具雄	스기오카 도모오
158	삼광매길	森廣梅吉	모리히로 우메키치
159	삼국오랑	森菊五郎	모리 기쿠고로
160	삼륜규	三輪規	미와 다다시
161	삼민랑	森敏郎	모리 도시로
162	삼본암지조	森本岩之助	모리모토 이와노스케
163	삼본치랑	森本治良	모리모토 하루요시
164	삼상길	森常吉	모리 쓰네키치
165	삼신지조	森新之助	모리 신노스케
166	삼야청조	衫野清造	스기노 세이조
167	삼전웅부	森田雄夫	모리타 다케오
168	삼전중흥	森田重興	모리타 시게오키
169	삼호상조	三好常造	미요시 쓰네조
170	삼홍	森弘	모리 히로시
171	삼곡성부	澁谷誠夫	시부야 시게오
172	상림해팔	上林亥八	우에바야시 가이하치
173	상야가네	上野カネ	우에노 가네
174	상야원칠	上野源七	우에노 겐시치
175	상전박	上田朴	우에다 보쿠
176	상전승	上田勝	우에다 가쓰
177	상전영길	上田榮吉	우에다 에이키치
178	상전정평	上田定平	우에다 사다헤이
179	상조신일랑	上條新一郎	가미조 신이치로
180	색천원시	色川元市	이로카와 모토이치
181	생구준일	生駒駿一	이코마 슌이치
182	생전청삼랑	生田清三郎	이쿠타 세이자부로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183	서광혜안	瑞光惠眼	즈이코 에겐
184	서본계삼	西本計三	니시모토 케이조
185	서천경일	西川慶一	니시카와 게이이치
186	서촌국오랑	西村菊五郎	니시무라 기쿠고로
187	서촌우삼랑	西村又三郎	니시무라 마타사부로
188	석녀	石女	이시메
189	석원	石原	이시하라
190	석원서개	石原恕介	이시하라 쇼스케
191	석정무	石井懋	이시이 쓰토무
192	석천간	石川幹	이시카와 미키
193	선본용작	船本勇作	후나모토 유사쿠
194	선안태랑	扇安太郎	오기 야스타로
195	선전의신	船田義臣	후나다 요시오미
196	세경일	笹慶一	사사 게이이치
197	세수경	笹水鏡	사사 스이쿄
198	세전세일	笹田歳一	사사다 도시이치
199	소굴태일랑	小堀泰一郎	고보리 다이이치로
200	소령도쿠	小嶺トク	고미네 도쿠
201	소뢰수차랑	小瀬守次郎	오제 슈지로
202	소림광무	小林光茂	고바야시 미쓰시게
203	소림후지	小林フジ	고바야시 후지
204	소부천록태랑	小副川鹿太郎	고소에가와 시카타로
205	소야구태랑	小野久太郎	오노 규타로
206	소야영수	小野榮秀	고노 에이히데
207	소야유영	小野宥英	오노 히로에이
208	소옹구만조	小熊九萬造	오쿠마 구마조
209	소전방	篠田芳	시노다 요시
210	소창창호	小倉倉好	오쿠라 구라요시
211	소천개웅	小泉皆雄	고이즈미 미나오
212	송강양우	松岡洋右	마쓰오카 요우스케
213	송강탁마	松岡琢磨	마쓰오카 다쿠마
214	송길	松吉	마쓰기치
215	송도독	松島篤	마쓰시마 아쓰시
216	송도진장	松島辰蔵	마쓰시마 다쓰조
217	송본시오랑	松本市五郎	마쓰모토 이치고로
218	송본차팔	松本次八	마쓰모토 쓰기하치
219	송산테루	松山テル	마쓰야마 테루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220	송전선구랑	松前善九郎	마쓰마에 젠쿠로
221	송정정이랑	松井精二郎	마쓰이 세이지로
222	송평화부	松平和夫	마쓰다이라 가즈오
223	수적진육랑	穂積眞六郎	호세키 신로쿠로
224	수호장태랑	水戸庄太郎	미토 소타로
225	시전원흥	市田元弘	이치다 모토히로
226	식전겸길	植田謙吉	우에다 겐키치
227	신곡청차	新谷清次	아라타니 세이지
228	신기국차랑	神崎菊次郎	간자키 기쿠지로
229	신림송길	神林松吉	간바야시 마쓰요
230	신전인평	新田隣平	닛타 린헤이
231	실겸차	室兼次	무로 겐지
232	심정양영	深町良英	후카마치 요시히데
233	씨가중길	氏家重吉	우지이에 시게요시
234	아부명치태랑	阿部明治太郎	아베 메이지타로
235	아옥우웅	児玉友雄	고다마 도모오
236	아옥원태랑	児玉源太郎	고다마 겐타로
237	아지화안언	阿知和安彦	아치와 야스히코
238	악미량작	渥美良作	아쓰미 료사쿠
239	안동돈일	安東惇一	안도 준이지
240	안배능성	安倍能成	아베 요시시게
241	안부영일	安部榮一	아베 에이이치
242	안부영태랑	安部榮太郎	아베 에이타로
243	안전상조	岸田常造	기시다 쓰네조
244	안전언차랑	安田彦次郎	야스다 히코지로
245	암본중이	岩本仲二	이와모토 나카지
246	암전덕	岩田徳	이와타 도쿠
247	야도풍차	野島豊次	노지마 도요쓰구
248	야본길삼	野本吉三	노모토 기치조
249	야전병웅	野田靱雄	노다 토모오
250	야촌안지조	野村安之助	노무라 야스노스케
251	염천제길	塩川濟吉	시오카와 스미요시
252	영목	鈴木莊六	스즈키 소로쿠
253	영목영작	鈴木榮作	스즈키 에이사쿠
254	영목충지증	鈴木忠之丞	스즈키 주노조
255	영전현사	永田顯士	나카다 겐시
256	오촌준랑	奥村俊郎	오쿠무라 도시로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257	오평무언	奥平武彦	오쿠히라 다케히코
258	우다윤조	宇多潤造	우다 준조
259	우도	牛島	우시지마
260	우도신남	牛島信男	우시지마 노부오
261	우미용칠	牛尾龍七	우시오 류시치
262	우미정일	牛尾正一	우시오 마사이치
263	우원일성	宇垣一成	우가키 가즈시게
264	우진목경	宇津木競	우쓰키 쓰요시
265	웅본리평	熊本利平	구마모토 리헤이
266	웅본쓰이코	熊本ツイ子	구마모토 쓰이코
267	원등덕랑	遠藤徳郎	엔도 도쿠로
268	원묵송	原黙松	하라 모쿠쇼
269	원산리팔	遠山利八	도야마 리하치
270	원세키	原セキ	하라 세키
271	원전양팔	原田良八	하라타 요시하치
272	유마장차랑	有馬長次郎	아리마 조지로
273	유상태장	有常泰藏	아리쓰네 야스쿠라
274	유원무	柳原茂	야나기하라 시게루
275	유촌용웅	有村龍熊	아리무라 다쓰오
276	유탉작치	有澤作治	아리사와 사쿠지
277	유하광풍	有賀光豊	아리가 미쓰토요
278	율교보덕	栗橋保徳	구리하시 야스노리
279	이동정인	伊東政人	이토 마사토
280	이등광삼랑	伊藤光三郎	이토 미쓰사부로
281	이등영태랑	伊藤榮太郎	이토 에이타로
282	이등충효	伊藤忠孝	이토 다다타카
283	일고박	日高樸	히다카 보쿠
284	일색건지개	一色建之介	잇시키 켄노스케
285	임선십랑	林銑十郎	하야시 센주로
286	입강진삼	入江辰三	이리에 다쓰조
287	입신구산	笠神句山	가사가미 구야마
288	장곡본좌	長谷本佐	하세 모토스케
289	장궁기준일	長宮崎準一	나가미야자키 준이치
290	장미구길	長尾久吉	나가오 큐키치
291	장소정치랑	長沼貞治郎	나가누마 조지로
292	장전의차	長田礪次	오사다 이소지
293	장지전영부	長池田榮夫	나가이게 다에오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294	장평야인차랑	長平野寅次郎	나가히라노 도라지로
295	재등구태랑	齋藤久太郎	사이토 히사타로
296	재등실	齋藤實	사이토 마코토
297	재등획삼	齋藤獲三	사이토 가쿠산
298	저사요	猪飼要	이카이 요
299	적송번부	赤松繁夫	아카마쓰 시게오
300	적송지성	赤松智城	아카마쓰 도모시로
301	적택정삼	赤澤定三	아카자와 데이조
302	전구마치	田口マチ	다구치 마치
303	전전선차	前田善次	마에다 겐지
304	전전손평	前田孫平	마에다 마고헤이
305	전전인희	前田寅喜	마에다 도라요시
306	전중구차랑	田中龜次郎	다나카 가메지로
307	전중영일	田中英一	다나카 히데카즈
308	전중정덕	田中正徳	다나카 마사노리
309	전중진부	田中鎮夫	다나카 시즈오
310	전중행평	田中幸平	다나카 유키히라
311	전촌유오랑	田村由五郎	다무라 요시고로
312	정구립평	井口立平	이구치 다치히라
313	정구소병위	井口小兵衛	이구치 고헤이
314	정국오륙	正國吾六	마사쿠니 고로쿠
315	정목장태랑	正木庄太郎	마사키 쇼타로
316	정목혜일	正木恵一	마사키 게이이치
317	정상	井上	이노우에
318	정상다치송	井上多治松	이노우에 다지마쓰
319	정상원치	井上源治	이노우에 겐지
320	정상청	井上清	이노우에 기요시
321	정정중태랑	町井重太郎	마치이 주타로
322	제전만수남	諸田萬壽男	모로타 마스오
323	조파광차랑	早坡廣次郎	하야사가 고지로
324	좌등덕중	佐藤徳重	사토 노리시게
325	좌등정차랑	佐藤政次郎	사토 마사지로
326	좌백현	佐伯顯	사에키 아키라
327	좌우내철삼	佐羽内哲三	사바나이 데쓰조
328	좌좌목경	佐々木耕	사사키 고
329	좌천우일	佐川宇一	사가와 우이치
330	주정주길	酒井周吉	사카이 슈키치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331	죽기록차랑	竹崎六次郎	다케자키 로쿠지로
332	죽부정준	竹部政俊	다케베 마사토시
333	죽중강웅	竹中康雄	다케나가 야스오
334	죽천자년	竹川子年	다케가와 네도시
335	죽촌소노	竹村ソノ	다케무라 소노
336	중도명	中島明	나카지마 아키라
337	중도선길	中島善吉	나카지마 켄키치
338	중림사고	中林思考	나카바야시 시코
339	중미근삼	中尾謹三	나카오 긴조
340	중미근일	中尾謹一	나카오 긴이치
341	중미송치	中尾松治	나카오 마쓰하루
342	중미일랑	中尾一郎	나카오 이치로
343	중산진미	中山辰彌	나카야마 다쓰미
344	중서진삼	中西辰三	나카니시 다쓰조
345	중시만길	中柴萬吉	나카시바 만키치
346	중촌희평	中村喜平	나카무라 기헤이
347	증전길차	増田吉次	마쓰다 기치지
348	지전수웅	池田秀雄	이케다 히데오
349	진과창삼	眞鍋暢三	마나베 쇼조
350	진모백륙	津毛百六	쓰게 하쿠로쿠
351	진판희삼	津坂喜三	쓰사카 요시조
352	차칠남	車七男	구루마 시치오
353	창과진태랑	倉科眞太郎	구라시나 마고타로
354	창교미태랑	倉橋彌太郎	구라하시 미타로
355	창도지	倉島至	구라시마 이타루
356	천도의지	川島義之	가와시마 요시유키
357	천두관일	千頭貫一	지카미 간이치
358	천산현장	淺山顯藏	아사야마 겐조
359	천산현장	淺山顯藏	아사야마 겐조
360	천야경이	淺野敬二	아사노 게이지
361	천야철선	淺野哲禪	아사노 뎃센
362	천야희지조	天野喜之助	아마노 기노스케
363	천엽윤구	千葉胤矩	지바 다네노리
364	천엽윤구	千葉胤矩	지바 가즈노리
365	천작이	泉作二	이즈미 사쿠지
366	천전준웅	川畑俊雄	가와바타 도시오
367	천전지카자	淺田チカ子	아사다 지카코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368	천지	天智	덴치
369	청강광삼랑	清岡光三郎	기요오카 고자부로
370	청목영지조	青木榮之助	아오키 에이노스케
371	청수희작	清水喜作	시미즈 기사쿠
372	촌상길오랑	村上吉五郎	무라카미 기치고로
373	촌송우지	村松祐之	무라마쓰 히로유키
374	추명조지좌	椎名照之佐	시이나 데루노스케
375	추방전부삼랑	諏訪田富三郎	스와다 도미사부로
376	추산춘차	秋山春次	아키야마 슌지
377	추산충삼랑	秋山忠三郎	아키야마 주사부로
378	추우기치	秋友キチ	아키토모 기치
379	출포감리	出浦勘利	이데우라 간리
380	태전정지	太田正之	오타 마사유키
381	택촌황차랑	澤村荒次郎	사와무라 아라지로
382	토곡구미장	土谷久米藏	쓰치야 구메조
383	토비밀삼랑	土肥密三郎	도히 미쓰사부로
384	토야의기	土野義記	쓰치노 요시노리
385	토옥묘지조	土屋卯之助	쓰치야 우노스케
386	토전원민	土田元敏	쓰치다 모토토시
387	통구호삼	樋口虎三	히구치 도라조
388	판본창지	坂本昌之	사카모토 마사유키
389	판상정신	阪上貞信	사카우에 사다노부
390	팔전조지조	八田朝之助	야쓰타 아사노스케
391	편강민남	片岡敏男	가타오카 도시오
392	편강선태랑	片岡善太郎	가타오카 요시타로
393	편산만칠	片山萬七	가타야마 만시치
394	평정	平井	히라이
395	평춘부장	平春富藏	헤이슌 도모쿠라
396	평춘부장	平春富蔵	히라하루 도미조
397	포생리웅	蒲生利雄	가모 토시오
398	풍녀	豊女	도요메
399	풍전포춘	豊田包春	도요타 호슌
400	하강충치	下岡忠治	시타오카 주지
401	하상등태랑	河上藤太郎	가와카미 후지타로
402	하상수	河上壽	가와카미 주
403	하전실	下田實	시모타 미노루
404	하진	下津	시모즈

연번	인명(한글)	인명(한자)	일본어 발음 표기
405	하촌승정	下村勝正	시모무라 가쓰마사
406	하촌진	下村進	시모무라 스스무
407	하평복태랑	下平福太郎	시모히라 후쿠타로
408	학대송리	鶴代松理	쓰루시로 마쓰리
409	해각중장	亥角仲蔵	이스미 쥬조
410	향원조태랑	香原助太郎	고하라 스케타로
411	향정상차랑	向井常次郎	무카이 쓰네지로
412	향정송차랑	向井松次郎	무카이 마쓰지로
413	협전춘차	脇田春次	와키타 하루쓰구
414	호봉총태랑	戸塚總太郎	도쓰카 소타로
415	호석구광	戸石久光	도이와 히사미쓰
416	화강도키	花岡トキ	하나오카 도키
417	화강학송	花岡鶴松	하나오카 쓰루마쓰
418	화전청일랑	和田清一郎	와다 세이이치로
419	화촌원길	花村元吉	하나무라 모토요시
420	환미치일	丸尾治一	마루오 하루이치
421	환산태일랑	丸山太一郎	마루야마 다이치로
422	황목태길	荒木泰吉	아라키 다이키치
423	회원손삼랑	檜垣孫三郎	히가키 마고사부로
424	횡산여시	横山與市	요코야마 요이치
425	횡산요차랑	横山要次郎	요코야마 요지로
426	횡전극사	横田克巳	요코다 카쓰미
427	횡전삼랑	横田三郎	요코타 산부로
428	횡정	横井	요코이
429	후등진생	後藤辰生	고토 다쓰오
430	흑목휘의	黒木輝義	구로키 데루요시
431	히야총십랑	姫野惣十郎	히메노 소주로

부록 ⑤ 군산부·옥구군 지명 비교표

■ 군산부

일제 강점기 지명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영정[榮町]	北面 ; 榮町 京浦里·竹城里·藏財洞 各一部	흥남동
옥정[旭町]	北面 ; 旭町 舊各國居留地	
장재동[藏財洞]	北面 ; 藏財洞·屯栗三里 各一部	
금정[錦町]	北面 ; 錦町 舊各國居留地	해신동
대정동[大井洞]	北面 ; 大井洞	
신흥동[新興洞]	北面 ; 新昌洞 一部 新興洞(舊隅田町·山手町·千代田町モ舎ム)	
개복동[開福洞]	北面 ; 關福洞	중앙동
구복동[九福洞]	北面 ; 九福洞	
영정[榮町]	北面 ; 榮町 京浦里·竹城里·藏財洞 各一部	
옥정[旭町]	北面 ; 旭町 舊各國居留地	
장재동[藏財洞]	北面 ; 藏財洞·屯栗三里 各一部	
행정[幸町]	北面 ; 幸町 舊各國居留地	
호정[芦町]	北面 ; 芦町 竹城里 一部	월명동
횡전정[橫田町]	北面 ; 橫田町	
개복동[開福洞]	北面 ; 關福洞	
구복동[九福洞]	北面 ; 九福洞	
대화정[大和町]	北面 ; 大和町 舊各國居留地	
양화정[浪花町]	北面 ; 浪花町 舊各國居留地	
명치정통[明治町通]	北面 ; 明治町通 竹城里 一部 舊各國居留地	
본정통[本町通]	北面 ; 本町通 舊各國居留地 : 면소재지	
빈정[濱町]	北面 ; 濱町 舊各國居留地	
서빈정[西濱町]	北面 ; 西濱町 舊各國居留地	
서정[曙町]	北面 ; 曙町 舊各國居留地	
송창동[松昌洞]	北面 ; 松昌洞 新昌洞 一部	삼학동
신흥동[新興洞]	北面 ; 新昌洞 一部 新興洞(舊隅田町·山手町·千代田町モ舎ム)	
전주통[全州通]	北面 ; 全州通 舊各國居留地	
천산정[淺山町]	北面 ; 淺山町 舊各國居留地	
신흥동[新興洞]	北面 ; 新昌洞 一部 新興洞(舊隅田町·山手町·千代田町モ舎ム)	

■ 옥구군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개정면 개정리 (開井面 開井里)	臨陂郡西四面 ; 開井里 琴洞里·達呂里·東井里·西三面臥龍里·群山府朴面北內一里·內沙二里 各一部	개정동
개정면 구암리 (開井面 龜岩里)	臨陂郡西四面 ; 龜岩里 麻旨里 外山里·蠶頭里·助村里 各一部 : 면소재지	구암동
개정면 발산리 (開井面 鉢山里)	臨陂郡西三面 ; 下長里 鉢山里 大鳳里·長山里·臥龍里 各一部	개정면
개정면 아동리 (開井面 阿東里)	臨陂郡西四面 ; 阿村里 栗北里 達呂里·東井里·蠶頭里·西三面松湖里·臥龍里·北一面屯德里·晚洞里 各一部	개정면
개정면 아산리 (開井面 峨山里)	臨陂郡西三面 ; 峨山里 瓦洞里 北一面高峰里 一部	개정면
개정면 옥석리 (開井面 玉石里)	臨陂郡西三面 ; 石興里 黑石里 玉興里·能洞里·西四面東井里·群山府朴面蝶山里 各一部	개정면
개정면 운회리 (開井面 雲會里)	臨陂郡西三面 ; 雲會里 松湖里·臥龍里·西四面東井里·北一面龜耳里 各一部	개정면
개정면 조촌리 (開井面 助村里)	臨陂郡西四面 ; 蟬洞里 錦城里 景星里 助村里·外山里·群山府北面弓乙里 各一部	조촌동
개정면 통사리 (開井面 通使里)	臨陂郡西三面 ; 長山里·能洞里·東禾里·大鳳里·南三面牛德里·牛山里 各一部	개정면
개정면(開井面)		개정동
개정면(開井面)		개정면
개정면(開井面)		구암동
개정면(開井面)		조촌동
구읍면 상평리 (舊邑面 上坪里)	群山府西面 ; 上坪里 九城里 門外里 大寺里 耳谷里 東面校村 南內里 南外里 楮田二里 新德里 東外里 東內里 白石二里 朴面坪柳洞·西面新成里·蓋井里·東面楮田一里 各一部	옥구읍
구읍면 선연리 (舊邑面 仙緣里)	群山府定面 ; 松村 上梯里 中梯里 下梯里 繡羅里 一部	옥서면
구읍면 선제리 (舊邑面 船堤里)	群山府定面 ; 定里 牛峙山一里 牛峙山二里 水力一里 水力二里 馬山里 一部	옥구읍
구읍면 수산리 (舊邑面 壽山里)	群山府定面 ; 牛浦二里 五谷一里 五谷二里 牛浦一里·五谷三里·福緣洞·多岐里·長面龍淵里·西面·薪坪里 各一部	옥구읍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구읍면 어은리 (舊邑面 魚隱里)	群山府定面 ; 屯山里 魚隱洞 馬山里 一部	옥구읍
구읍면 오곡리 (舊邑面 五谷里)	群山府定面 ; 五谷四里 新長里 五谷三里·福緣洞·多岐里 各一部 : 면소재지	옥구읍
구읍면 옥봉리 (舊邑面 玉峰里)	群山府定面 ; 城山一里 城山二里 南洞 繡羅里 一部	옥서면
구읍면 옥정리 (舊邑面 玉井里)	群山府西面 ; 玉井二里 尺洞一里 尺洞二里 玉井一里·玉 井三里 各一部	옥구읍
구읍면 이곡리 (舊邑面 耳谷里)	群山府西面 ; 新興里 新成里·耳谷里·新坪里·蓋井里·大寺 里·東面楮田一里·白石二里·長面龍洞里·朴面坪柳洞 各一部	옥구읍
구읍면(舊邑面)		옥구읍
구읍면(舊邑面)		옥서면
나포면 나포리 (羅浦面 羅浦里)	臨陂郡北三面 ; 水鐵里 細谷里 羅浦里 玉洞里 新谷里 一部	나포면
나포면 부곡리 (羅浦面 富谷里)	臨陂郡下北面 ; 鎭長里 笠店里 富谷里 上酒里 一部	나포면
나포면 서포리 (羅浦面 西浦里)	臨陂郡下北面 ; 西浦里·上北面新基里 各一部 下北面新城 里	나포면
나포면 옥곶리 (羅浦面 玉岷里)	臨陂郡北三面 ; 外岷里 江亭里 燈洞里·羅旗里 各一部 : 면소재지	나포면
나포면 장상리 (羅浦面 將相里)	臨陂郡北三面 ; 書智里 瓦村里 軍屯里 細柳里 將桐里 龍山里 羅旗里·新谷里 各一部	나포면
나포면 주곡리 (羅浦面 酒谷里)	臨陂郡下北面 ; 外谷里 大同里 紫陽里 下酒里 西浦里·上 酒里·北三面燈洞里 各一部	나포면
나포면(羅浦面)		나포면
대야면 광교리 (大野面 光橋里)	臨陂郡南二面 ; 下光里 上光里 立石里·元斗里·中光里·蝶 山里·下竹山里·南四面新福里·益山郡南二面玉浦里·光池里 各一部	대야면
대야면 보덕리 (大野面 寶德里)	臨陂郡南三面 ; 內德里 草山里 安定里 外德里 德奉里·石 屯里·上北面九億里 各一部	대야면
대야면 복교리 (大野面 福橋里)	臨陂郡南四面 ; 新滄里 壯佐里 上里 南雨里 新福里·次上 里·南三面鰲山里·石花里·南二面立石里·下竹山里 各一部 : 면소재지	대야면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대야면 산월리 (大野面 山月里)	臨陂郡南三面 ; 西岳里 梧洞里 南興里 鰲山里·石花里·西三面長山里 各一部	대야면
대야면 접산리 (大野面 蝶山里)	臨陂郡南二面 ; 三吉里 野中里 蝶山里·下舟里·下竹山里·元斗里·新坪里·南一面下田里·上田里 鷄山里·酒山里·下葛里·益山郡西一面毛山里·南二面新上里 各一部	대야면
대야면 죽산리 (大野面 竹山里)	臨陂郡南二面 ; 高尺里 下竹山里·南三面石花里·南四面新福里·南一面下田里 各一部	대야면
대야면 지경리 (大野面 地境里)	臨陂郡南四面 ; 內上里 下里 南三面萬子里 次上里·龜伏里·南三面鰲山里·牛德里·牛山里·西三面東禾里 各一部	대야면
대야면(大野面)		대야면
미면 개사리 (米面 開寺里)	群山府米面 ; 居沙里 開寺二里 開寺三里 開寺一里·完城里·新村 各一部	나운4동
미면 개사리 (米面 開寺里)	群山府米面 ; 居沙里 開寺二里 開寺三里 開寺一里·完城里·新村 各一部	미성동
미면 개야도리 (米面 開也島里)	忠南鰲川郡河南面 ; 開也島	옥도면
미면 경장리 (米面 京場里)	群山府北面 ; 京場里 新興里 京浦里 弓乙里·八馬峴·臨陂郡西四面助村里 各一部	경암동
미면 경장리 (米面 京場里)	群山府北面 ; 京場里 新興里 京浦里 弓乙里·八馬峴·臨陂郡西四面助村里 各一部	수송동
미면 경장리 (米面 京場里)	群山府北面 ; 京場里 新興里 京浦里 弓乙里·八馬峴·臨陂郡西四面助村里 各一部	조촌동
미면 경장리 (米面 京場里)	群山府北面 ; 京場里 新興里 京浦里 弓乙里·八馬峴·臨陂郡西四面助村里 各一部	중앙동
미면 관리 (米面 串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串里	옥도면
미면 내초도리 (米面 內草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內草島	미성동
미면 대장리 (米面 大長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大長里	옥도면
미면 두리도리 (米面 斗里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斗里島	옥도면
미면 둔율리 (米面 屯栗里)	群山府北面 ; 屯栗一里 屯栗二里 鉢山里 五龍里 築洞·屯栗三里·八馬峴·獐項里 各一部	삼학동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미면 둔율리 (米面 屯栗里)	群山府北面 ; 屯栗一里 屯栗二里 鉢山里 五龍里 築洞·屯栗三里·八馬峴·獐項里 各一部	월명동
미면 둔율리 (米面 屯栗里)	群山府北面 ; 屯栗一里 屯栗二里 鉢山里 五龍里 築洞·屯栗三里·八馬峴·獐項里 各一部	흥남동
미면 말도리 (米面 末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末島	옥도면
미면 무녀도리 (米面 巫女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薪里 毛里	옥도면
미면 미룡리 (米面 米龍里)	群山府米面 ; 龍屯里 米堤里 元堂里 新村·東面紙谷里·西面玉井三里 各一部 : 면소재지	나운5동
미면 비안도리 (米面 飛鴈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飛雁島	옥도면
미면 비응도리 (米面 飛鴈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飛鴈里	소룡동
미면 산북리 (米面 山北里)	群山府米面 ; 臨沙一里 臨沙二里 臨沙三里 山北里 石花里 入耳島 加乃島	미성동
미면 선유도리 (米面 仙遊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鎭里 桶里 新基里	옥도면
미면 신관리 (米面 新觀里)	群山府米面 ; 觀如山里 新村·完城里·開寺一里 各一部	나운6동
미면 신관리 (米面 新觀里)	群山府米面 ; 觀如山里 新村·完城里·開寺一里 各一部	미성동
미면 신시도리 (米面 新侍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深里	옥도면
미면 신평리 (米面 新豐里)	群山府北面 ; 沙場里 新豐一里 新豐二里 石峙山里 芑山里 井星里 羅雲里 白土巷里 大田里 富興里 獐項里·屯栗三里·築洞 各一部	나운2동
미면 신평리 (米面 新豐里)	群山府北面 ; 沙場里 新豐一里 新豐二里 石峙山里 芑山里 井星里 羅雲里 白土巷里 大田里 富興里 獐項里·屯栗三里·築洞 各一部	나운3동
미면 신평리 (米面 新豐里)	群山府北面 ; 沙場里 新豐一里 新豐二里 石峙山里 芑山里 井星里 羅雲里 白土巷里 大田里 富興里 獐項里·屯栗三里·築洞 各一部	나운7동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미면 신평리 (米面 新豐里)	群山府北面 ; 沙場里 新豐一里 新豐二里 石峙山里 芑山里 井星里 羅雲里 白土巷里 大田里 富興里 獐項里·屯栗三里·築洞 各一部	소룡동
미면 신평리 (米面 新豐里)	群山府北面 ; 沙場里 新豐一里 新豐二里 石峙山里 芑山里 井星里 羅雲里 白土巷里 大田里 富興里 獐項里·屯栗三里·築洞 各一部	신평동
미면 신평리 (米面 新豐里)	群山府北面 ; 沙場里 新豐一里 新豐二里 石峙山里 芑山里 井星里 羅雲里 白土巷里 大田里 富興里 獐項里·屯栗三里·築洞 各一部	해신동
미면 야미도리 (米面 夜味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夜味島	옥도면
미면 어청도리 (米面 於靑島里)	忠南鰲川郡河西面 ; 於靑島	옥도면
미면 연도리 (米面 烟島里)	忠南鰲川郡河南面 ; 烟島里	옥도면
미면 오식도리 (米面 箕簋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箕簋島	소룡동
미면 장자도리 (米面 壯子島里)	全南智島郡古群山面 ; 小長里	옥도면
미면 죽도리 (米面 竹島里)	忠南鰲川郡河南面 ; 竹島里	옥도면
미면(米面)		경암동
미면(米面)		나운1동
미면(米面)		나운2동
미면(米面)		나운3동
미면(米面)		미성동
미면(米面)		삼학동
미면(米面)		소룡동
미면(米面)		수송동
미면(米面)		신평동
미면(米面)		옥도면
미면(米面)		월명동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미면(米面)		조촌동
미면(米面)		중앙동
미면(米面)		해신동
미면(米面)		흥남동
서수면 관원리 (瑞穗面 官元里)	臨陂郡東二面 ; 巢龍里·官元里·山間里·內洞里·興法里 各一部	서수면
서수면 금암리 (瑞穗面 琴岩里)	臨陂郡東一面 ; 甘洞里 長子里·禾登里·咸悅郡南二面馬浦里·上黔里·下黔里 各一部	서수면
서수면 마룡리 (瑞穗面 馬龍里)	臨陂郡東二面 ; 長串里 龍歸里 山間里·新壯里·伏牛里·內洞里·官元里·狐山里·巢龍里 各一部	서수면
서수면 서수리 (瑞穗面 瑞穗里)	臨陂郡東二面 ; 龍田里 阿而里 外日里 玉下里 龍回里 狐山里·龍成里·南一面簇洞里·昌成里 各一部	서수면
서수면 축동리 (瑞穗面 築東里)	臨陂郡東二面 ; 武壯里 興法里·內洞里·新壯里·伏牛里 各一部	서수면
서수면 화등리 (瑞穗面 禾登里)	臨陂郡東一面 ; 新村里 九山里·長子里·禾登里·咸悅郡南二面新咸里 各一部 : 면소재지	서수면
서수면(瑞穗面)		서수면
성산면 고봉리 (聖山面 高峰里)	臨陂郡北一面 ; 晚洞里·龜耳里·高峰里·食川里 各一部 : 면소재지	성산면
성산면 내흥리 (聖山面 內興里)	臨陂郡北一面 ; 居尺里 內鼎里 沙玉里 內興里 中興里 一部	구암동
성산면 대명리 (聖山面 大明里)	臨陂郡上北面 ; 玉谷里 牛谷里 新基里 一部	성산면
성산면 도암리 (聖山面 桃岩里)	臨陂郡北一面 ; 麻洞里 桃岩里 食川里 一部	성산면
성산면 둔덕리 (聖山面 屯德里)	臨陂郡北一面 ; 上興里 中興里·屯德里 各一部	성산면
성산면 산곡리 (聖山面 山谷里)	臨陂郡上北面 ; 上桐里 艾店里 下鵲里·九億里·上鵲里·南三面德奉里 各一部	성산면
성산면 성덕리 (聖山面 聖德里)	臨陂郡北一面 ; 石浦里 聖洞里 堯洞里	성산면
성산면 여방리 (聖山面 余方里)	臨陂郡上北面 ; 藍田里 東堯里 金方里 麒麟里	성산면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성산면 창오리 (聖山面 倉梧里)	臨陂郡上北面 ; 倉洞里 中梧里 上鵲里·下鵲里 各一部	성산면
성산면(聖山面)		구암동
성산면(聖山面)		성산면
옥산면 금성리 (玉山面 錦城里)	群山府朴面 ; 朴朴一里 外柳洞 朴朴二里·內柳洞·長面竹洞·東面白石二里 各一部	옥산면
옥산면 남내리 (玉山面 南內里)	群山府朴面 ; 九城里 南內一里 南內二里 地境里 鳳凰一里 一部	옥산면
옥산면 당북리 (玉山面 堂北里)	群山府東面 ; 堂北里 白石一里 新成里·白石二里·啓山里 各一部	옥산면
옥산면 사정리 (玉山面 沙亭里)	群山府朴面 ; 內沙一里 三水洞 回雁洞 蓋井里 內沙二里·臨陂郡西四面琴洞里 各一部	개정동
옥산면 쌍봉리 (玉山面 雙鳳里)	群山府朴面 ; 北內二里 北內三里 山井里 坪沙里 鳳凰二里 蝶山里·北內一里·鳳凰一里·石橋里·餘路一里·餘路二里·東面新成里·臨陂郡西三面臥龍里 各一部 : 면소재지	옥산면
옥산면 옥산리 (玉山面 玉山里)	群山府朴面 ; 大呂洞 內柳洞·餘路一里·餘路二里·石橋里·長面細洞一里 各一部	옥산면
옥산면 지곡리 (玉山面 紙谷里)	群山府東面 ; 新坪里 白土卷里 啓山里·紙谷里·西面玉井一里 各一部	수송동
옥산면(玉山面)		수송동
옥산면(玉山面)		옥산면
임피면 미원리 (臨陂面 米院里)	臨陂郡郡內面 ; 鼠毛里 米山里 書院里·安興里·南一面石谷里·寶里·寶岩里 各一部	임피면
임피면 보석리 (臨陂面 寶石里)	臨陂郡南一面 ; 石谷里 寶岩里·公昌里·上舟里·戌山里 各一部 南二面旺山里	임피면
임피면 술산리 (臨陂面 戌山里)	臨陂郡南一面 ; 良地里 上舟里·戌山里·公昌里·下田里·上田里·鷄山里·酒山里·下葛里·南二面下竹山里 各一部	임피면
임피면 영창리 (臨陂面 永昌里)	臨陂郡南一面 ; 金道里 簇洞里·昌成里·上葛里·新定里·萬姓里·東二面龍成里·益山郡西一面萬中里·萬後里 各一部	임피면
임피면 월하리 (臨陂面 月下里)	臨陂郡南一面 ; 棲鳳里 上葛里·下葛里·南二面新坪里·益山郡西一面毛山里 各一部	임피면
임피면 읍내리 (臨陂面 邑內里)	臨陂郡郡內面 ; 東上里 西上里 城內里 安興里·書院里 各一部 : 면소재지	임피면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지명	현지명
임피면 취산리 (臨陂面 鷲山里)	臨陂郡郡內面 ; 鷲洞里 柳谷里 東二面伏牛里·狐山里 各一部	임피면
회현면 고사리 (澮縣面 古寺里)	群山府風面 ; 雨洞 古寺一里 古寺二里 大位里 尺洞 學堂三里	회현면
회현면 금광리 (澮縣面 金光里)	群山府長面 ; 元堂二里 金堂里 光之山里 元堂一里·月坪里·大之山二里·月下山里·風面學堂二里 各一部 楮田里	회현면
회현면 대정리 (澮縣面 大政里)	群山府長面 ; 大之山一里 九政一里 大之山二里·大之山三里·九政二里·竹洞·朴面朴朴二里 各一部	회현면
회현면 세장리 (澮縣面 細長里)	群山府長面 ; 蓼洞 長梯一里 長梯二里 細洞二里 竹洞·細洞一里·朴面餘路二里 各一部 : 면소재지	회현면
회현면 원우리 (澮縣面 院隅里)	群山府風面 ; 院隅一里 院隅二里 新興里 瓢山里·臨陂郡西三面玉興里 各一部	회현면
회현면 월연리 (澮縣面 月淵里)	群山府長面 ; 五峰里 月坪里·九政二里·月下山里·龍淵里·元堂一里·定面牛浦一里 各一部	회현면
회현면 증석리 (澮縣面 曾石里)	群山府風面 ; 曾石里·方蔡里·瓢山里·新堂二里·風村二里·學堂二里·臨陂郡南四面龜伏里 各一部	회현면
회현면 학당리 (澮縣面 學堂里)	群山府風面 ; 學堂一里 周峴里 風村一里 新堂一里 新堂三里 學堂二里·風村二里·新堂二里 瓢山里·方蔡里·曾石里·長面大之山二里·大之山三里 各一部	회현면
회현면(澮縣面)		회현면

※ 자료출처(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역사지리)

자료명 :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저 자 : 越智唯七

발행처 : 中央市場

발행일 : 1917년

■ 국역 군산부사

번역 : 홍성덕, 이정옥, 편용우

각주 : 변은진, 김윤희

자료정리 : 설주희, 박선영, 조성민

자문위원 : 종걸(동국사 주지), 김재영(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 김경남(경북대)

검수위원 : 곽건홍(한남대), 이경용(한남대), 김경남(경북대), 장순순(전주대)

사진제공 : 동국사

국역 군산부사(國譯 群山府史)

발행처 군산시 문화예술과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전화 063-454-3270 / 전송 063-454-3269
퍼낸곳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고전학연구소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발행일 2019년 6월 17일
만든곳 흐름출판사
ISBN 979-11-5522-191-4

비매품

※ 이 책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발행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군산 부사



93910

9 791155 221914

ISBN 979-11-5522-191-4

비매품

